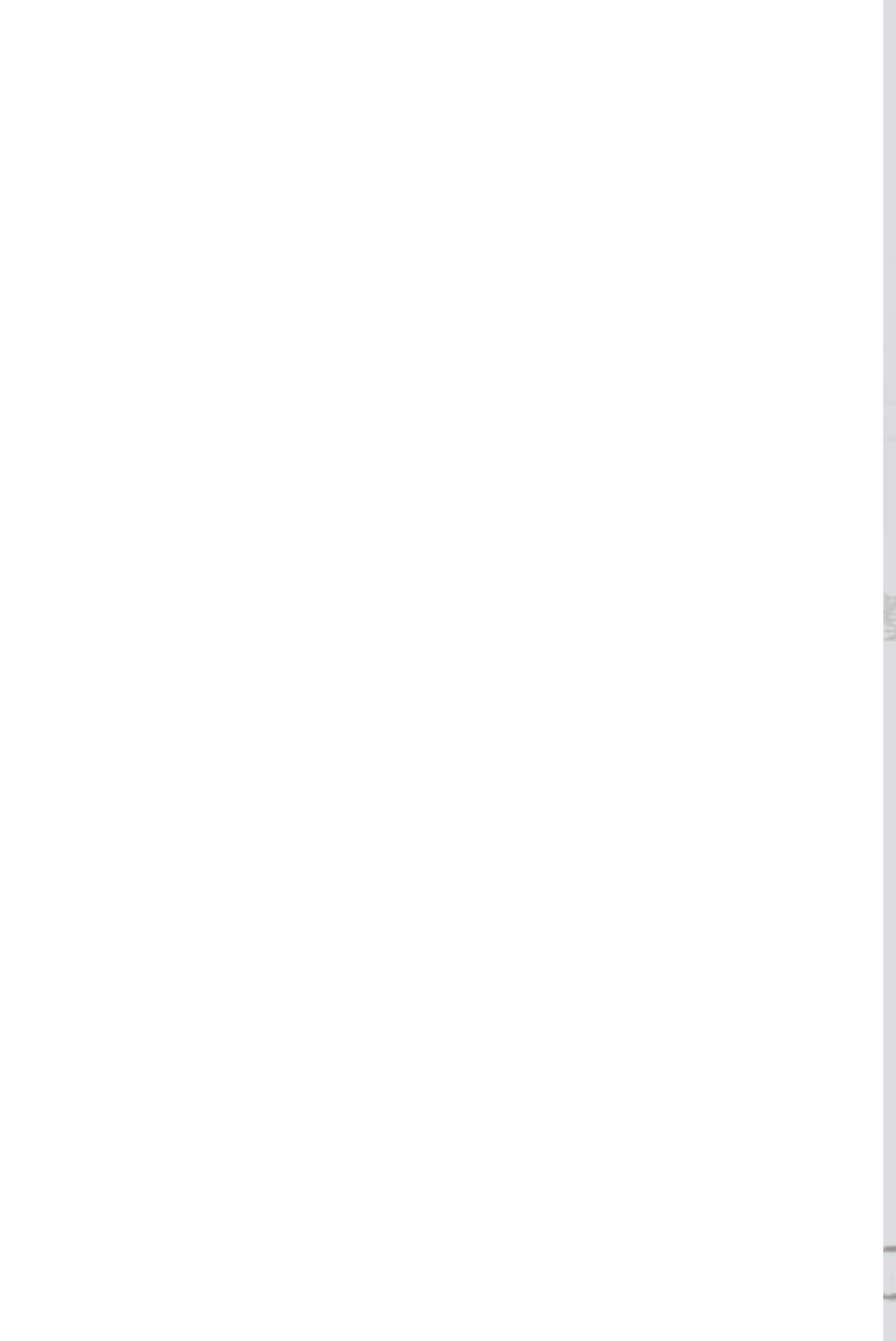




후창집

1
—
下

김택술 지음
金澤述

後滄集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러두기

1. 이 책의 대본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후창집後滄集》으로 하였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4.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목차

후창집 권5

서(書)

소심 황장종복에게 답함 계해년(1923) 7월	23		489
答小心黃丈【鐘復○代玄洞僉座作】癸亥七月			
소심 황장에게 올림 을축년(1925) 2월	26		489
上小心黃丈 乙丑二月			
소심 황장에게 올림 병인년(1926) 7월	29		490
上小心黃丈 丙寅七月			
소심 황장에게 답함 병인년(1926) 9월	32		491
答小心黃丈 丙寅九月			
소심 황장에게 올림 정묘년(1927)	33		491
上小心黃丈 丁卯			
소심 황장에게 올림 무진년(1928)	35		492
上小心黃丈 戊辰			
소심 황장에게 답함 경오년(1930)	36		492
答小心黃丈 庚午			
열재 소장학규에게 답함 갑자년(1924)	37		493
答悅齋蘇丈學奎○甲子			

열재 소장에게 답함 갑자년(1924) 9월	40		494
答悅齋蘇丈 甲子九月			
열재 소장에게 올림 을축년(1925) 12월	42		494
上悅齋蘇丈 乙丑十二月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44		495
答悅齋蘇丈 癸酉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46		496
答悅齋蘇丈 癸酉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12월	48		496
答悅齋蘇丈 癸酉十二月			
열재 소장에게 올림 병자년(1936)	49		497
上悅齋蘇丈 丙子			
열재 소장에게 올림 병자년(1936)	50		497
上悅齋蘇丈 丙子			
열재 소장에게 답함 정축년(1937)	51		498
答悅齋蘇丈 丁丑			
열재 소장에게 올림	54		499
上悅齋蘇丈			
족숙 가암 김낙필 노인에게 올림 정사년(1917)	55		499
上老可庵叔洛 ○ 丁巳			
족숙 창암(淸庵), 함재(涵齋)에게 답함 을축년(1925)	57		500
答淸庵【洛奎】涵齋【洛斗】族叔 乙丑			
족숙 창암·함재에게 올림 을축년(1925) 12월	62		501
上淸涵齋族叔 乙丑十二月			
족숙 창암에게 올림 정묘년(1927) 4월	63		501
上淸庵族叔 丁卯四月			
성암 이장유흥에게 답함 경신년(1920)	65		502
與誠菴李丈裕興 ○ 庚申			

원재(遠齋) 이장희진에게 답함 임술년(1922)	66		503
答遠齋 李丈喜璉 ○ 壬戌			
원재 이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2월	68		503
與遠齋李丈 乙丑二月			
원재 이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4월	72		505
答遠齋李丈 乙丑四月			
원재 이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6월	73		505
答遠齋李丈 乙丑六月			
원재 이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0월	77		506
答遠齋李丈 乙丑十月			
근소 서장병갑에게 답함 계해년(1923) 7월	80		507
答近小徐丈柄甲 ○ 癸亥七月			
근소 서장에게 보냄 정묘년(1927) 1월	81		507
與近小徐丈 丁卯元月			
유몽 정장인창에게 보냄 을축년(1925) 9월	82		508
與惟夢鄭丈寅昌 ○ 乙丑九月			
유몽 정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1월	83		508
答惟夢鄭丈 乙丑十一月			
희암 김장찬모에게 답함 경술년(1925)	87		510
答希菴金丈鄴謨 ○ 庚戌			
희암 김장에게 답함 경술년(1925)	88		510
答希菴金丈 庚戌			
함재(김낙두) 족숙에게 답함 갑자년(1924)	90		510
答涵齋族叔 甲子			
함재 족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8월	93		511
答涵齋族叔 乙丑八月			
함재 족숙에게 올림 을축년(1925) 11월	97		512
上涵齋族叔 乙丑十一月			

함재 족속에게 답함 병인년(1926)	97		512
答涵齋族叔 丙寅			
함재 족속에게 올림 병인년(1926)	99		512
上涵齋族叔 丙寅			
함재 족속에게 답함 무진년(1928)	100		513
答涵齋族叔 戊辰			
함재 족속에게 올림 무진년(1928)	103		514
上涵齋族叔 戊辰			
함재 족속에게 답함 정묘년(1927)	105		515
答涵齋族叔 丁卯			
함재와 나재익용에게 올림 신미년(1931)	107		516
上涵齋·懶齋·益容 ○ 辛未			
함재 족속에게 올림 신미년(1931)	109		516
上涵齋族叔 辛未			
함재 족속에게 답함 계유년(1933)	110		517
答涵齋族叔 癸酉			
함재 족속에게 올림 정축년(1937)	112		517
上涵齋族叔 丁丑			
나재 종장익용에게 올림 정사년(1917)	114		518
上懶齋宗丈益容 ○ 丁巳			
나재 종장에게 보냄 정사년(1917)	118		520
與懶齋宗丈 丁巳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120		520
答懶齋宗丈 戊午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128		523
答懶齋宗丈 戊午			
나재 종장에게 보냄 신미년(1931)	130		524
與懶齋宗丈 辛未			

나재 종장에게 보냄 신미년(1931)	133		525
與懶齋宗丈 辛未			
나재 종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136		526
答懶齋宗丈 乙亥			
나재 종장에게 보냄 병자년(1936)	137		527
與懶齋宗丈 丙子			
양촌 임장병룡에게 보냄 을해년(1935)	140		527
與讓村林丈秉龍 乙亥			
양촌 임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140		528
答讓村林丈 乙亥			
전암 김장태희에게 보냄 임오년(1942)	142		528
與堅菴金丈泰熙 壬午			
정재 전장화구에게 보냄 갑자년(1924) 5월	143		529
與靜齋田丈華九 甲子五月			
정재 전장에게 보냄 갑자년(1924) 11월	146		530
與靜齋田丈 甲子十一月			
정재 전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월	147		530
答靜齋田丈 乙丑元月			
정재 전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3월	148		531
與靜齋田丈 乙丑三月			
정재 전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4월	152		532
與靜齋田丈 乙丑四月			
정재 전장에게 보냄 정묘년(1927)	154		533
與靜齋田丈 丁卯			
정재 전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155		533
答靜齋田丈 癸酉			
정재 전장에게 답함 갑술년(1934)	156		534
答靜齋田丈 甲戌			

정재 전장에게 보냄 갑술년(1934)	157		534
與靜齋田丈 甲戌			
정재 전장에게 보냄 갑술년(1934)	157		534
與靜齋田丈 甲戌			
정재 전장에게 답함 갑술년(1934)	159		535
答靜齋田丈 甲戌			
정재 전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정월	160		536
答靜齋田丈 乙亥元月			
연심 전장희순에게 보냄 을해년(1935)	161		536
與鍊心田丈熙舜 乙亥			
연심 전장에게 보냄 을해년(1935)	165		537
與鍊心田丈 乙亥			
연심 전장에게 보냄 무인년(1938)	166		537
與鍊心田丈 戊寅			
연심 전장에게 보냄 무인년(1938)	171		539
與鍊心田丈 戊寅			
연심 전장에게 답함 무인년(1938)	172		539
答鍊心田丈 戊寅			
연심 전장에게 보냄 무인년(1938)	173		540
與鍊心田丈 戊寅			

후창집 권 6

서(書)

김위재병주에게 답함 계해년(1923).....	177		543
答金危齋炳周 癸亥			
족숙 의재낙청에게 보냄 을축년(1925)	178		543
與毅齋族叔洛淸 乙丑			

홍위헌익유에게 보냄 무인년(1938).....	180		544
與洪韋軒翼裕 戊寅			
홍위헌에게 답함	182		544
答洪韋軒			
홍위헌에게 답함 무인년(1938).....	183		545
答洪韋軒 戊寅			
홍위헌에게 답함 기묘년(1939).....	183		545
答洪韋軒 己卯			
이신헌기환에게 보냄 을축년(1925).....	185		546
與李愼軒起煥 乙丑			
이신헌에게 보냄 기사년(1929).....	187		546
與李愼軒 己巳			
이신헌에게 보냄 신미년(1931).....	189		547
與李愼軒 辛未			
이신헌에게 답함 신미년(1931).....	190		548
答李愼軒 辛未			
이신헌에게 답함 신미년(1931).....	191		548
答李愼軒 辛未			
이신헌에게 답함 계유년(1933).....	192		548
答李愼軒 癸酉			
이신헌에게 답함 갑술년(1934).....	193		548
答李愼軒 甲戌			
이신헌에게 답함 갑술년(1934).....	194		549
答李愼軒 甲戌			
이신헌에게 답함 갑술년(1934).....	196		550
答李愼軒 甲戌			
이신헌에게 답함 을해년(1935).....	199		551
答李愼軒 乙亥			

이신현에게 답함 병자년(1936)	206		553
答李愼軒 丙子			
이신현에게 보냄 병자년(1936)	208		554
與李愼軒 丙子			
최금재병심에게 답함 을묘년(1915)	216		558
答崔欽齋 秉心 乙卯			
최금재에게 답함 병진년(1916)	218		558
答崔欽齋 丙辰			
최금재에게 보냄 신유년(1921)	222		560
與崔欽齋 辛酉			
최금재에게 보냄 병인년(1926)	223		560
與崔欽齋 丙寅			
최금재에게 답함 병인년(1926)	224		561
答崔欽齋 丙寅			
최금재에게 보냄 병술년(1946)	225		561
與崔欽齋 丙戌			
최금재에게 보냄 신묘년(1951)	227		562
與崔欽齋 辛卯			
임경선호철에게 답함 정해년(1947)	228		562
答林敬善浩喆 丁亥			
신사경현철에게 답함 갑신년(1944)	229		563
答申士敬鉉徹 甲申			
임자경장우에게 답함 을해년(1935)	230		563
答林子敬章佑 乙亥			
임자경에게 보냄 경진년(1940)	233		564
與林子敬 庚辰			
임자경에게 답함 경진년(1940)	234		564
答林子敬 庚辰			

임자경에게 보냄 경진년(1940)	237		566
與林子敬 庚辰			
임자경에게 답함 신사년(1941)	238		566
答林子敬 辛巳			
국윤명영환에게 보냄 갑술년(1934)	243		568
與鞠潤明瑛煥 甲戌			
국윤명에게 보냄 병자년(1936)	244		569
與鞠潤明 丙子			

후창집 권 7

서(書)

백광오남두에게 답함 을축년(1925)	251		573
答白光五南斗 乙丑			
방복지환영에게 답함 병인년(1926)	252		573
答房福之煥永 丙寅			
변복삼규원에게 보냄 을축년(1925)	252		573
與邊復三圭源 乙丑			
최백순준에게 보냄 갑술년(1934)	254		573
與崔伯舜 濬 甲戌			
박수경채환에게 보냄 계묘년(1903)	260		575
與朴受卿彩煥 癸卯			
박수경에게 답함 기미년(1909)	264		576
答朴受卿 己酉			
전명래명석에게 답함 계묘년(1903)	266		577
答全明來明錫 癸卯			
강배언신면에 답함 정해년(1947)	267		577
答姜拜言信冕 丁亥			

전사인일효를 위로하는 별지 병자년(1936)	268		578
慰田士仁鎰孝別紙 丙子			
김윤승증섬에게 답함 갑자년(1924).....	268		578
答金允升鐘暹 甲子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270		579
答金允升 甲子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275		580
答金允升 甲子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285		584
答金允升 甲子			
김윤승에게 답함 정묘년(1927).....	290		586
與金允升 丁卯			
이재화증곤에게 보냄 경인년(1926).....	292		586
與李載和鐘坤 庚寅			
조자정제원에게 답함 무신년(1908).....	292		587
答趙子貞濟元 戊申			
조자정에게 답함 기유년(1909).....	294		587
答趙子貞 己酉			
조자정에게 답함 병자년(1936)	295		588
與趙子貞 丙子			
조자정에게 답함 정축년(1937)	297		588
與趙子貞 丁丑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301		589
答趙子貞 戊寅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303		590
答趙子貞 戊寅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304		591
答趙子貞 戊寅			

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305		591
答趙子貞 己卯			
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306		591
與趙子貞 己卯			
조자정에게 답함 경진년(1940)	308		592
與趙子貞 庚辰			
조자정에게 답함 신사년(1941)	311		593
答趙子貞 辛巳			
조자정에게 답함 신사년(1941)	313		594
答趙子貞 辛巳			
조자정에게 답함 갑신년(1944)	314		594
與趙子貞 甲申			
송경을노용에게 답함 을묘년(1915)	316		595
答宋景栗魯容 乙卯			
조수경한규에게 답함 정축년(1937)	317		595
答趙受卿瀚奎 丁丑			
조수경에게 답함 무자년(1948)	321		596
答趙受卿 戊子			
조수경에게 답함 무자년(1948)	322		597
答趙受卿 戊子			
전사순일건에게 답함 기축년(1949)	322		597
答田士順鎰健 乙丑			
전사순에게 답함 병자년(1936)	322		597
答田士順 丙子			
최성무장열에게 보낸 병오년(1906)	323		598
與崔性武長烈 丙午			
최성무에게 답함 무신년(1908)	325		598
答崔性武 戊申			

최성무에게 보냄 정사년(1917)	327		599
與崔性武 丁巳			
오익부해룡에게 보냄 무인년(1938)	331		600
與吳翼夫海龍 戊寅			
오익부사익에게 보냄 을유년(1945)	333		601
與吳翼夫士益 乙酉			
전순형기진에게 보냄 을해년(1935)	335		601
與田舜衡璣鎭 乙亥			
정국진기성에게 보냄 을해년(1935)	337		602
與鄭國振基聲 乙亥			
정국진에게 답함 을해년(1935)	338		603
答鄭國振 乙亥			
정국진에게 답함 을해년(1935)	339		603
答鄭國振 乙亥			
정국진에게 답함 병자년(1936)	340		603
與鄭國振 丙子			
정국진에게 답함 정축년(1925)	341		604
答鄭國振 丁丑			
문성보제중에게 보냄 정축년(1925)	342		604
與文聖甫濟衆 丁丑			
문성보에게 보냄 정축년(1925)	343		605
與文聖甫 丁丑			
이경순인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344		605
答李敬循仁矩 丙寅			
전자여달준에게 답함 신유년(1921)	345		605
答全子與達準 辛酉			

후창집 권 8

서(書)

오사익해겸에게 보냄 계해년(1923).....	349		609
與吳士益海謙 癸亥			
오사익에게 보냄 병인년(1926).....	351		609
與吳士益 丙寅			
오사익에게 보냄 을해년(1935).....	352		609
與吳士益 乙亥			
오사익에게 답함 을해년(1935).....	352		610
答吳士益 乙亥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355		611
答吳士益 丙子			
오사익에게 보냄 병자년(1936).....	360		613
與吳士益 丙子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364		614
答吳士益 丙子			
오사익에게 보냄 병자년(1936).....	369		615
與吳士益 丙子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376		618
答吳士益 丙子			
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383		621
答吳士益 丁丑			
오사익에게 보냄 정축년(1937).....	396		626
與吳士益 丁丑			
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410		631
答吳士益 丁丑			
오사익에게 보냄 무인년(1938).....	415		633

與吳士益 戊寅		
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424	637
答吳士益 戊寅		
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427	638
答吳士益 戊寅		
김윤삼 속식이 고동시에게 보낸 편지 무인년(1938) 10월 ...	430	639
金允三鍊植與高東是書附 戊寅十月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431	639
答吳士益 己卯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433	640
答吳士益 己卯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10월	442	643
答吳士益 【面見日又言改見, 故書成而不送】 己卯十月		
오사익에게 보냄 경진년(1940)	444	644
與吳士益 庚辰		
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448	645
與吳士益 辛巳		
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 (1941)	450	646
與吳士益 辛巳		
오사익에게 답함 신사년 (1941)	452	647
答吳士益 辛巳		
오사익에게 보냄 무자년 (1948)	453	647
與吳士益 戊子		
오사익에게 보냄 경인년 (1950)	455	648
與吳士益 庚寅		
죽인 평오준철에게 답함 을해년 (1935)	457	648
答族人平吾準喆 乙亥		
권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 (1924)	466	651

答權某 甲子		
오 아무개에게 보냄 갑자년(1924) 6월	472	653
與吳某 甲子六月		
오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1924) 7월 성토 전	473	654
答吳某 甲子七月 聲討前		
오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1924)	477	656
答吳某 代扶安諸丈作 甲子		
오 아무개에게 보냄 갑자년 (1924)	482	658
與吳某 代承旨公派諸族人作 甲子		

矣色斯之舉無及矣雍髮將在於
殺於凡夫之眼而實無輕重於春秋
義若以古人之事言之則緇衣尚矣
讓國亦或出於不得已之地今也則
出於彼之脅從條約烏可援此而爲說
雍并稱於被髮則黑裝雍髮之無輕重已
異於百步則雖圓袂大帶而只著一箇黑
書曰黑裝雍髮其爲夷制一也或者之分
是矣頃有從衆時中辨一篇正闢破此說今

서書

소심 황장종복에게 답함【○현동 침좌를 대신하여 지음】계해년(1923) 7월
答小心黃丈【鐘復 ○代 玄洞僉座作】癸亥七月

현산(玄山)¹에 풀이 무성하고, 화도²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선사(先師)의 연사(練事)³가 지나가 버
렸으니 스승님을 잃은 슬픔⁴은 더욱 간절하고 한결같습니다. 이
즈음에 어르신께 편지⁵를 받아 보니, 당당하고도 지극히 바른 의
리와 분명하고도 이치가 극진한 말씀에서 선사의 도덕과 의절이
이로써 밝게 드러나 마치 해와 별을 모두가 보는 것과 같았으며,

-
- 1 현산(玄山) : 지명으로, 간재(艮齋)의 묘가 있는 익산 현동을 말한다.
 - 2 화도(華島) : 지명으로, 본래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화도(界火島)
인데, 전우가 이곳에 정착하여 강학을 하며 중화(中華)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계화도(繼華島)라고 고쳐 불렀다.
 - 3 선사(先師)의 연사(練事) : 선사는 돌아가신 스승을 일컫는 말로, 여
기에서는 전우를 지칭한다. 연사는 연제(練祭)로, 본래 부모의 상을
치를 때 만 1주기에 지내는 제사를 뜻하며, 소상(小祥)이라고도 부른
다. 간재는 1922년 7월 4일에 졸하였다.
 - 4 스승님을 잃은 슬픔 : 원문의 ‘산량지통(山梁之痛)’은 스승이나 현인
을 잃은 슬픔을 말한다. 공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태산이 무
너지려나, 들보가 꺾이려나, 철인이 시들려나?〔泰山其頽乎, 梁木其
摧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과연 7일 뒤에 세상을 떠났
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
 - 5 어르신께 편지 : 원문의 ‘존함(尊函)’은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쪽 사람⁶의 잘못되고 낭패한 일이 실정이 밝혀지고 별이 마땅하여 거울처럼 선명하고 서릿발처럼 엄격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아, 집사의 한마디 말이 아니었다면 간재 문하의 한 조각 의체(義諦)⁷는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호남이 영남과 달리 하는 것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하나의 의리에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 외에도 또한 몇 가지 작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호남은 전편과 후편을 각각 편집하여 손수 편정(篇定)하신 고본(稿本)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영남은 합고(合稿)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이며, 호남은 감히 한 편도 첨가하지 않아 “썩은 시신을 지각이 없다며 속이는 것일 뿐이다.” 하신 엄한 훈시⁸를 따랐는데 영남은 사적인 것을 용납함을 면치 못한 것이 두 가지이며, 호남은 고인의 축장(築場)하는 뜻⁹을 붙였는데 영남은 개의치 않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6 한쪽 사람 : 원문의 ‘일변인(一邊人)’은, 오진영(吳震泳)이 스승의 유지(遺旨)를 무시하고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문집을 발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꺼려해서 사용한 말이다.

7 의체(義諦) : 사물의 바탕이 되는 뜻이나 이유를 말한다.

8 썩은…훈시 : 이 말은 《간재집(艮齋集)後編續》 권5 〈시자손문인[示子孫門人]〉에 나오는 말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는 이미 정본을 대략 완성하였으니, 이 외에 한 편도 함부로 첨가하지 말라. 이러한 뜻을 자손과 문인은 삼가 어김없이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훗날 사사로운 안면에 구애되어 다시 변통할 방도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스승을 차마 죽은 사람 취급하여 썩은 시신을 지각이 없다며 속이는 것일 뿐이니, 제자들은 그리 알라.[私稿既已略成定本, 此外無得妄添一篇. 此意子孫門人, 不可不恪遵無違. 若異日有拘於顏私, 復行通變之道者, 是忍死其父師. 而欺其朽骨無知爾, 諸子識之.]”

9 고인의 축장(築場)하는 뜻 : 축장은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거상(居喪)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등문공 상(

이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저들과 우리들 사이의 잘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수레를 돌려 바른 데로 달려가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투쟁심으로 성을 마주 쌓고 깃발을 내걸어서 한결같이 버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서울의 묵인이 났다고 속이고 원고를 판매하는 적도에게 넘겨서 선사께서 지킨 것을 깎아 없애고 온 나라의 욕을 실컷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고 훗날을 좋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강태걸(姜泰杰)의 일¹⁰을 일으켜 어깃장을 놓았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전체 원고를 발간하지 않고 절요본을 먼저 찍는 것을 의(義)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원고를 사서 입을 돈을 빼앗아 장사꾼의 전대를 채워주는 것을 인(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호남에서 발간하는 것을 깨뜨리고 싶어서 한 무리의 적을 내세워 막는 것을 예(禮)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장사꾼이 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가를 받았다는 이름을 피할 수 없고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니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사체¹¹를 헤아리

滕文公上)에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3년이 지난 다음 문인들이 집을 챙겨 돌아갔다. …자공(子貢)은 다시 돌아와 묘 마당에 집을 짓고서 홀로 3년을 거처한 다음에 돌아갔다. [昔者, 孔子沒, 三年之外, 門人治任將歸…子貢反, 築室於場, 獨居三年然後歸]” 하였다.

- 10 강태걸(姜泰杰)의 일 : 강태걸은 오진영의 제자이다. 오진영의 지시를 받아 간재 사고(私稿)의 선집(選集)을 만들어 서울로 가서 인가를 받는 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을 진천서(鎭川署)에 고소하여 배일당(排日黨)으로 몰아 세우는 데에 앞장섰다. 《사백록(俟百錄)》 권1 <진걸화사(震杰禍士)>

- 11 사체(事體) : 사리와 체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지 못하여 의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더불어 보합¹²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의 부끄럽지 않은 의리를 지키고 나의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닦을 뿐입니다.

소심 황장에게 올림 을축년(1925) 2월

上小心黃丈 乙丑二月

매번 우리 어르신께서 정재(靜齋)에게 보낸 편지글을 읽어보면, 늙연하게 선사의 절의가 드러나고 환하게 음인(陰人)¹³의 간담을 깨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공경심을 일으키게 하니, 직접 존장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하는 일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을 받은 것¹⁴은 리(鯉)가 공자(孔子)를 독대하고¹⁵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효종(孝宗)을 독대한 것이다.” 하고【김세기】, “증자의 일관(一貫)이다.”¹⁶

12 보합(保合) :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사(彖辭)의 “하늘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큰 화기를 보전케 해 준다.[乾道變化各正性命 保合大和]”라는 말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13 음인(陰人) : 음성(陰城)에서 살고 있던 오진영을 가리킨다.

14 은행나무...것 : 원문의 ‘행하독명(杏下獨命)’은 오진영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간재에게 문집 발간의 명을 받았다는 말이다.

15 리(鯉)가 공자(孔子)를 독대하고 : 리는 공자의 아들로, 자는 백어(伯魚)이다. 공자가 뜰에 홀로 서 있을 적에, 백어가 종종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가자, 공자가 시(詩)와 예(禮)를 배우라고 훈계한 고사를 말한다. 《논어(論語)》〈계씨(季氏)〉

16 증자의 일관(一貫)이다 : 일관은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준말이다. 공자(孔子)가 제자 증삼(曾參)을 불러서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吾道 一以貫之]”라고 하자, 증삼이 “예, 그렇습니다.[唯]” 하여 곧바로 깨닫고는 잘 모르는 다른 문인에게 “부자의

하고【우형근】, “단전밀부(單傳密付)¹⁷로, 간옹이 귓속말로 전한 것이다.” 하며【조충현】, “경신년(1920)의 유서는 인가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별도로 가리키는 뜻이 있다.” 하며【최원, 정운한, 김세기가 세 차례 어른에게 말한 것임】, “신해년(1911)의 유서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났다.” 하고【정운한】, “크게 의심할 만하다.” 하고【김세기】, “감히 가리켜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니【조충현】, 사람들의 기탄없음이 어찌 이런 극심한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일이 이에 이르러 내버려두려고 하면 끝내 선사의 무함을 씻을 날이 없고,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면 저쪽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결말이 날 기약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호중(湖中)은 선사께서 도를 제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동문과 노성(老成)한 분들이 많으니, 오늘날의 변란에 큰 발길질로 치우친 말을 막고 지극한 정성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¹⁸은 또한 마땅히 호중에서 많이 나와야 하는데,

도는 바로 충서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설명해 준 것을 말하는데, 오진영이 문집간행에 대한 간재의 뜻을 홀로 알았음을 비유한 것이다. 《논어(論語)》〈이인(里仁)〉

- 17 단전밀부(單傳密付)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59 〈답왕숙경서(答汪叔耕書)〉에서 “〈태극도(太極圖)〉를 단전밀부(單傳密付)의 삼매(三昧)로 여기는 것은 또한 근세 학자들이 형체를 등지고 그림자를 쫓으며 거짓을 가리켜 진짜라고 하는 폐단입니다.”라고 하였다. 단전밀부는 한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한다는 의미이고, 삼매는 흐트러짐 없이 한곳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모두 불교의 용어이다. 여기서는 전우가 오진영에게 은밀히 남긴 유언이라는 의미이다.
- 18 큰 발길질로…보답하는 것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28 〈답진동보서(答陳同夫書)〉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성실하지 않았겠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큰 발길질을 하지 않았겠는가.[仲尼豈不是至公血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오진영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반박하여 물

적막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쪽을 편 들어 비호하는 자가 있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음성의 오진영을 성토하는 것이 호남의 치우친 논의에서 나왔다고 의심하는 것에 혹 염려가 없지 않으니, 어찌 답답하고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에 홀로 우리 어르신께서 사문의 선배요 호종의 두터운 명망으로 우뚝이 의리를 잡아 지키고 의연히 정도를 부지하여 남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히신 스승의 의리를 천명하셨고 폐와 간을 보듯 흰한 저들의 실정을 알아내셔서 확실하게 각인시켜¹⁹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사람들이 모두 음성의 오진영이 저지른 죄는 마땅히 성토해야 하고 호남의 의론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의심하던 자들도 일제히 따라서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은 참으로 노성하고 명망이 두터운 실상에 부합하여 사문의 순정한 신하가 되시니, 세도의 다행스러움이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겠습니까? 저 무리들이 점점 더 무함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오직 우리 어르신께서는 거울 같은 마음을 더욱 밝히고 부월 같은 필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시종 그들을 물리쳐 멈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치고 스승의 은혜를 지성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 19 확실하게 각인시켜 : 원문의 '일봉일혈(一棒一血)'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34에 “대개 성인이 하시는 일은 예를 들면 방망이로 내려쳐서 한 가닥 혈흔(血痕)이 생기게 하고 손바닥으로 때려서 혈인(血印)이 생기게 하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大概聖人做事 如所謂一棒一條痕 一攪一掌血 直是恁地]”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소심 황장에게 올림 병인년(1926) 7월

上小心黃丈 丙寅七月

오진영의 일은 죄가 극치에 달하여 이미 할 말이 없고, 용동(龍洞)에서의 발간²⁰도 스승의 유훈을 저버림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도의 재앙이 한결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바야흐로 동지들과 맹세코 유훈을 지킬 것을 종신의 계책으로 세울 뿐이니, 더욱 우리 어르신 의 이전 편지에서, “문집 발간을 차라리 아예 먼 후대로 늦추는 것이 낫다.” 하신 논의가 질정하여 의심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주에서의 발간을 알린 첫 통문에 음성 오진영 무리의 핵심인 물들은 쥐가 머리를 감추고 여우가 꼬리를 숨기듯이 자취를 감춰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중립자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속여서 기록하여【죽은 지 3년 된 이석승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 마치 공론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구가 발간한다는 통문이 갑자기 나오자 그 일이 와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리를 드러내고 꼬리를 흔들어대더니, 권순명, 유영선, 김중희, 최원, 김세기 등 12인의 두 번째 통문이 있어 말하기를, “이 일은 석농 오진영이 실제로 주선했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용맹한 장수와 사나운 병사들이 적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뜻을 비치며, 그 말은 일이 반드시 성공해서 호응함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사하며 가소로운 일인데,

20 용동(龍洞)에서의 발간 : 전우의 손서(孫婿)인 이인구(李仁矩)와 장손인 전일효(田鎰孝)가 1925년 겨울에 논산(論山) 용동(龍洞)의 봉양정사(鳳陽精舍)에 간소(刊所)를 설치하여 문집 간행을 착수한 것을 말한다. 1927년경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이것을 용동본(龍洞本)이라고 한다.

스승의 손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일²¹에 있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핑계대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오진영이 이미 인쇄할 곳을 주선하였으니, 스승의 손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것은 인쇄하는 곳에서의 큰일인데, 어찌 주선한 자가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속일 수 없는 만큼 그들의 간사한 속내가 함께 노출됨을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진영이 일찍이 말하기를, “강태걸의 고소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하였으나 이렇게 된 후에도 오히려 감히 입을 열어 스스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암 선생이 광남(光南)²²을 구한 일 때문에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자 이내 말하기를, “설사 광남이 정말로 큰 죄가 있고 내가 앞장서 말하여 그를 구제했더라도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²³ 하였으니, 우암이 스승의 손자를 중히 여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진영은 매번 우옹으로 자처하며 무함을 변론한 사람을 군주를 비하하고 종통을 둘로 나누었다²⁴고 주장한 윤휴(尹

21 스승의…일 : 스승의 손자는 간재의 장손인 전일효를 말한다. 전일효의 자는 사인(士仁)으로, 오진영에게 문집 원고를 넘겨주었다가 돌려받는 문제로 서로 고소한 일이 있다.

22 광남(光南) :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인 김익훈(金益勳)의 호이다.

23 설사…되겠는가?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77 〈답류우구(答柳悠久)〉에 보인다. 《송자대전》에는 “설사 광남에게 참으로 큰 죄가 있는데 내가 감히 구출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데까지야 이르겠는가[設使光南真有大罪而愚敢救之, 亦何至難容於世哉]”라고 되어있다.

24 군주를…나누었다 : 기해년(1659, 효종10년)에 예론(禮論)이 발생했을 때, 송시열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기년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윤휴가 “임금을 비하(卑下)하고 종통(宗統)을 둘로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말을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3년.

鑊)로 취급하더니, 지금 전사인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잠시도 먼저 우용을 어줍잖게라도 흉내 내지 않고, 마치 왕망(王莽)이 유자(孺子)를 끼고서 해치기에 급급했던 것²⁵처럼 하여 드러내놓고 고소하는 화란을 더하기를 이처럼 급히 한단 말입니까?

전사인이 이미 오진영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미혹당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묘(祠廟)²⁶에 고하고, 아울러 사우들에게 사과한 다음 유서를 받들고 근거하여 진주에서 간행하는 것을 곧바로 성토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치고 보충하여 뒷날을 좋게 하는 방도인데, 계책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급급하게 인가를 받아 간행하기를 힘써서 선사의 가르침을 버린 똑같은 자취로 함께 돌아가니,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혹자는 “인가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진주를 성토했고 용동을 성토했지 않는 것은 진주를 박대하고 용동을 후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심하지만, 이는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인가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용동은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였고 또 선사께서 손수 편정한 각각의 원고를 썼으니,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힌 오진영의 간행과는 같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25 왕망이…급급했던 것 :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광척후(廣戚侯) 유현(劉顯)의 아들 유영(劉嬰)을 황태자로 세워서 스스로는 가황제(假皇帝)·섭황제(攝皇帝)로서 섭정을 한 것을 말한다.

26 사묘(祠廟) :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제사 지내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심 황장에게 답함 병인년(1926) 9월

答小心黃丈 丙寅九月

“스승을 지키는 도는, 무함한 사람을 성토하는 것이 정도이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편지에서 하신 말씀은 당연하신 말입니다. 다만 무함한 사람을 성토하는 일에 있어 우리들은 힘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함한 자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 이를 처벌할 국법이 없는 것 또한 어찌할 수가 없으니, 유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용동의 간행이 유훈을 무시하고 마침내 인가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승을 욕보인 죄에 대해서는 작년 겨울에 진주의 간행을 성토한 글에서 이미 다하여 비록 다시 거론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유훈을 지키는 사람이 평소에 받은 훈사와 편지 및 선대의 문자에 대해 침묵한 채 맡겨두어서 죄 짓는 데로 똑같이 돌아가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미 동지들과 함께 연서(聯書)하여 인가를 받아 간행하는 속에서 빼주기를 청했으나, 이 일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일효(田鎰孝)가 오진영과 합의했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했으나 그가 갈라선 것이 의리 때문이 아니고 이익 때문이라면, 다시 이익 때문에 합의했어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송의 신학은 할 만하다는 논(宋之新學可爲之論)’에 이른바 “치우친 말에서 가린 바를 안다.”²⁷는 것은 오늘날의 낭패이고, 또 이른바 “마음에서 발동하

27 치우친 말에서 가린 바를 안다 :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 제2장의 “무엇을 말을 안다고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치우친 말에서 가린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 궁함을 알 수 있다.[何謂知言?

여 일을 해친다.”²⁸는 것은 우리 어르신께서 지적하신 것이니, 어찌 말을 아는 도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근래에 또 여름 즈음에 호남의 첩좌에게 답한 편지를 얻어 읽어보니 올바른 의리와 확고한 의론이 조목조목 타당하고 글자마다 바꿀 수 없었는데, 중립에 선 자들을 배척하며 율곡을 인용하여 말한 것은 더욱 절실하고 들어맞았으니, 백번 엄숙히 받들어 읽음에 어찌 존경하여 감복하는 마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천의 일을 인용하여 숙질에 대해 논한 것은 아마도 인용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심 황장에게 올림 정묘년(1927)

上小心黃丈丁卯

삼가 생각해보니, 스승께서 돌아가신 후 동문 중에서 식견이 고명하고 의론이 정확한 분은 오직 우리 황소심 선생 한 분이 있을 뿐인데, 책 상자를 깊어지고 도를 묻는 것은 형세상 이미 행할 길이 없고 시절에 문안하는 편지는 번번이 해를 넘기니, 어찌 이리도 현인을 좋아하는 정성이 엷단 말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책하다보니 싱숭생숭 즐겁지가 않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겨울 추위에 도를 즐기며 지내시는 기거가 안회(顔回)처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고²⁹ 원안(袁安)처럼 눈 덮

曰：諛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라고 한 것에서 말의 네 가지 병통을 말한다.

28 마음이 발동하여 일을 해친다 :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그릇된 학설은 “마음에 나타나 일을 해치고, 그 일에 나타나 정치를 해친다.[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라고 하였다.

29 안회(顔回)처럼…마시고 : 안회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인 속에 고고히 누워서³⁰ 다른 사람의 좋은 음식과 의복을 원하지 않으시리니, 비록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이 이에 있고 저 외물에 있지는 않으나 인자하고 현명한 사람의 곤액이 한결같이 이렇게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세상의 운수입니다. 시생 같은 자야 어찌 말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죽어 시신이 골짜기에 나뒹구는 것이 분수이니 지사(志士)인 냥 잊지 않을 필요도 없으나³¹ 구구한 저의 일념은 그래도 경서를 껴안고 끝까지 선사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성의 해괴한 도적이 스승께서 떠나시자 더욱 거리낌 없이 ‘인가 받으라고 지시했다(認敎)’고 스승을 무함하여 스승의 백옥과도 같은 깨끗한 고결함을 더럽히고, 또 멋대로 원고를 고쳐서 금저울(金秤)과도 같은 정확한 의리를 어지럽는 것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늘까지 넘치는 사나운 물결은 결단코 거

누추한 시골에서 지내는 것을 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지만, 안희만은 그 즐거움을 변치 않았다는 고사이다. 《논어(論語)》〈옹야(雍也)〉

30 원안(袁安)처럼…누워서 : 원안은 후한(後漢)의 현사(賢士)이다. 낙양(洛陽)에 폭설이 내려 다른 사람들은 눈을 치우고 밖으로 나와 먹을 것을 구하였으나 원안은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모두 굶고 있는 판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大雪人皆餓不宜于人]” 하며 혼자 집에 누워 있었던 고사이다. 《후한서(後漢書)》권45 〈원안열전(袁安列傳)〉

31 죽어…없으나 : 제 경공(齊景公)이 우인(虞人)을 우인에게 쓰는 피관(皮冠)으로 부르지 않고 대부에게 쓰는 정(旌)으로 부르자 우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공자가 “지사는 죽어서 시신이 도랑이나 골짜기에 있을 것을 잊지 않고, 용사는 싸우다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라고 하여 우인의 지조를 칭송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맹자(孟子)》〈등문공하(滕文公下)〉

룻배 하나로 상대하여 건널 수 없으니, 온종일 근심하고 두려워 하지만 계책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승을 무함한 것은, 다만 그가 이른바 “은행나무 밑에서 독대했다.” 운운한 말만 보더라도 원래 명백한데, “말에 정확히 구별함이 부족하였다.”³²느니 “성토하는 글의 초안을 주관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써 백방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겨울에 또한 그가 임술년(1922) 가을에 혼자 이름으로 서근소(徐近小)에게 답한 편지를 얻었는데, 곧장 “사실은 원래 선사(선사)의 ‘말씀하지 않은 지시(不言之教)’를 따른 것이다.” 하였으니, 말씀하지 않은 지시라는 것이 인가를 받을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실은”이라고 하고 “원래 따른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다시금 무함하고 모독한 것이 매우 혹독함을 깨달았습니다.

소심 황장에게 올림 무진년(1928)

上小心黃丈 戊辰

지난 겨울에 답해주신 편지를 얼굴을 씻고 세 번 거듭 읽음에 더욱더 정당한 의리와 명확한 의론에 감복했습니다. 그러나 스

32 말에 정확히 구별함이 부족하였다 : 이 말은 오진영이, 간재가 인가를 지시했다고 한 자신의 말이 공격을 받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한 말로, <답김용승서(答金容承書)>에, “은행나무 아래에서 독대할 때에는 문집 간행의 지속만을 논했고 애초에 인가를 받을지 말지는 언급이 없었는데,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를 나중에 기억하다보니 말에 정확히 구별함이 부족하였으니, 이것은 말을 전달함에 소홀했던 나의 과실이다.[杏下竹床時 單論刊稿遲速 初無認否之及 追記師生酬酌 而語欠區別 此吾命辭疎忽之過也]” 하였다.

승을 지키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책임을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책임을 지우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맹자가 세 성인을 계승한 공과 같은 것이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마다 나서서 말할 수 있는(人人能言)’ 대열에 참여해 있게 하고자 하신다면 감히 많이 사양하여 덕으로 사랑해주신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사의 행장과 연보는 일찍이 임경소(林敬所) 어른을 믿고 있었으니, 일문(一門)이 부탁하는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맡은 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른이 불행히도 먼저 돌아가셨고, 지금 또한 변고가 생긴 이후로 노성한 분 가운데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일은 오직 우리 어른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빠를 시일 내에 생각하고 의논하여 곧바로 초안하여 큰일을 마치기를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래에 호남의 유림이 공자의 가르침이 사라졌다고 애통해 하면서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를 세우고 시생에게 함께 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사라진 나머지에서 반이나마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이미 지극하고 마음도 서글픕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성공할 만한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일인(日人)에게 해악을 받음을 면치 못할 우려가 있으니, 도를 붙들어 지키는 방도가 도리어 먼저 도를 굽히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사양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감히 이렇게 우려러 질정합니다. 부디 밝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 황장에게 답함 경오년(1930)

答小心黃丈 庚午

용동본은 선사의 수본(手本)과 고증하여 분별해보지는 않았으

나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전고는 원고에 따라 출판했다고 할 수 있으나 후고는 따져보지 않고 첨가하여 넣기도 하고 진주본의 혼란함을 따르기도 하여 크게 진면목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용동 사람들의 소행은 스승을 무함한 한 가지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유훈을 어기고 원고를 어지럽힌 등의 일이 진주 사람들과 동일하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래 여조점이 중립(中立)의 간악함을 논했는데, 마치 요즈음 우리 문화의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하여 보여주신 것은 아무개, 아무개 등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어 그들의 간담을 깨뜨릴 만하고, 보여주신 오진영의 일은 날마다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는데, 어느 일이나 있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지산(志山) 김공의 아들 성구(聖九)가 말하기를, “오진영은 일생 학문을 하여 사림을 음해하고 혈뜬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좋고도 좋은 마무리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또 평장(平葬)³³을 하여 조모의 유해를 잃어버렸는데도 편안하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좋은 마무리에 해당하는 한 가지 일이니, 안이나 밖이나 공으로나 사로나 모두 갖추어져 흠결이 없다고 말할 만합니다.

열재 소장학규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悅齋蘇丈學奎 ○ 甲子

지난 달 찾아뵈는 것은 사실 몇 년간 버르던 끝에 나온 것인데, 인연이 사람과 어긋나 공교롭게도 출타를 하시어 그리운 마음

33 평장(平葬) :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것을 뜻한다.

에 한없이 방황하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운곡(雲谷)³⁴의 풍물이 옛날의 경관 그대로이고 명덕정(明德亭)³⁵ 위의 상쾌한 기운이 사람 품을 파고드는 것을 보고 고인의 빼어난 운치를 손을 내밀면 바로 움켜질 수 있을 듯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사람의 뜻을 조금은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드님 형제의 안내를 받아 서실로 들어갔는데, 첫째 아드님은 정성스러워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둘째 아드님은 명민하여 기뻐할 만하였으니, 군자의 전형과 고가(故家)³⁶의 훌륭한 집안 교육이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흠모케 하여 마침 높으신 가르침을 입지 못한 것 때문에 크게 탄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편지와 아름다운 시³⁷를 당일로 오롯이 보내주셨으니, 정의가 중하고 의리가 바르며 풍격이 아름답고 뜻이 깊어서 깜짝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에 외람된 생각으로 지난번에 만약 하룻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귀중한³⁸ 글을 얻어 영원히 산 속의 보물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 생각하니, 시생과 우리

34 운곡(雲谷) : 열재 소학규가 거주했던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운곡을 가리킨다.

35 명덕정(明德亭): 위치는 미상이다. ‘명덕(明德)’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에서 그 의미를 취한 것이다.

36 고가(故家) : 여러 대에 걸쳐 벼슬하며 살아온 집안을 말한다.

37 편지와 아름다운 시 : 원문의 ‘혁제(赫蹄)’는 옛날에 글씨를 쓰는 데 썼던 폭이 좁은 비단을 뜻하는 말인데 종이의 이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편지를 뜻하며, 경십(瓊什)은 상대방이 지은 시나 문장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

38 귀중한 : 원문의 ‘백봉(百朋)’은 많은 재물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소학규가 지어서 보낸 시를 칭송하여 말한 것이다. 봉(朋)은 화폐의 단위이다. 《시경(詩經)》〈청청자아(菁菁者莪)〉에 “이미 군자를 만나 보니, 나에게 백봉을 주신 듯하네.[既見君子 錫我百朋]” 하였다.

어른은 선대에 가까운 친척이었고 선친과는 연세가 같았습니다. 부친을 여윈 뒤로는 친소와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선친과 연세가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번번이 서글퍼지며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한 슬픔³⁹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겠습니까? 매번 우리 어른께서 술이 반쯤 취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리와 이익을 담론하고 고금을 논평하시는 것을 볼 적마다 풍치와 언론의 풍부함이 선친과 거의 엇비슷하다고 가만히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 부친이 살아계시면 아직도 이 어른처럼 건강하시고 아직도 이 어른과 함께 선비들 사이에서 주선했을 수 있으셨을텐데.” 하였으니, 저도 모르게 줄줄 눈물이 흐르려 했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우리 두 집안의 친분과 정의는 평상시에 실제로 상상하던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또 제가 다행히 우리 어른과 함께 구산옹⁴⁰의 문하에 출입했고, 또 다행히 시비가 뒤섞인 날을 당하여 잡아 지키는 것이 우리 어른과 같았으니, 마침내 선대의 친밀한 정의가 이에 더욱 친밀해짐을 알았고, 또한 본 바가 서로 부합하는 것이 선대의 우의로 맺어진 두 집안의 행복임을 이로써 알았습니다. 이런 점에 나아가 노소간에 간극이 없는 믿음과 피차 서로 격려하는 도를 구한다면 또한 그것이 실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맹자》의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죽었으니, 서이 사람이다.[文王 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⁴¹라고

39 부모를…슬픔 : 원문의 ‘육아(蓼莪)’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편명인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슬픈 심경을 읊은 시이다.

40 구산옹(臼山翁) : 구산은 간재 전우의 호 가운데 하나이다.

41 문왕은…사람이다 :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서는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겨다가 명조에서 죽었으니, 동이의 사

한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여기에 보충하여 “간옹은 완산에서 태어나 부안에서 죽었으니, 호남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호남은 진실로 간옹의 도학이 처음 시작하여 끝을 맺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후에 이런 망극한 무함을 당하신 것에 대해 완주에는 우리 어른과 여러 분들이 계시고 부안에는 창암과 함재 및 여러 분들이 계시는 만큼 한 조각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일생토록 부처님 같은 은혜를 갚고 큰 붓으로 흰히 밝혀 백세토록 사설(邪說)을 막아서 간옹의 도로 하여금 언제라도 의지할 것이 있게 해야 하니, 하늘의 뜻이 어찌 우연히 그리되었습니까. 삼가 강성한 힘을 더욱 떨쳐 백번 부러져도 회피하지 않고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아서, 맹세코 호남 한 지역이 영원히 후세에 할 말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못난 시생도 마땅히 하풍(下風)에 달려가 함께하여 영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재 소장에게 답함 갑자년(1924) 9월

答悅齋蘇丈 甲子九月

이전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호남이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영남이 반드시 다 그른 것도 아니다.” 하니, 이것은 대개 영남이 진짜로 서울의 목인을 받음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서울의 목인이 속인 것으로 귀결된다면 영남이 어찌 한결같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송병휘(宋秉徽)가 홍희(洪熙)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목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으려고

람이다.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영에서 죽으니 서이의 사람이다.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文王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라고 했다.

왔으나 묵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진영의 이른바 “분명히 묵인이다.”라는 말은 깨졌고, 조충현(趙忠顯)이 최경존(崔敬存)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민씨【영휘(泳徽)】어른은 원고를 가지고 왔을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원고를 가지고 갈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성기운(成璣運)이 이른바 “묵인을 얻는 것은 결국 하공(荷公)【영휘의 호는 하정(荷汀)이다】이 전달할 것이다.”라는 말도 깨졌으니, 가소롭고 가소로울 뿐입니다.

권순명이 창암(김광언)과 함재 두 어른을 속여 청도에 보내는 답서에서 최 씨를 빼고 오진영으로 바꾸어 팔도에 편지를 보냈으니, 속이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일효가 최경존에게 보낸 편지에, “김모의 문서는 간악함을 부려 도둑질하는 행위이다.” 했고, 박계동이 정재(靜齋 간재의 차자 전화구)에게 보낸 편지에, “모씨와 모씨는 안면을 바꾸고 곡절을 꾸며냈다.【여기까지이다】.”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대개 영남 무리가 하는 짓은 모두 이와 같으니, 하나를 미루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례(周禮)》에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고⁴², 국전(國典)에는 사람을 속인 것에

42 주례에는…있고 : 《주례(周禮)》〈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육항에서 시행하는 여덟 가지 형벌을 사용하여 만민을 규찰한다. 이 여덟 가지 형벌은, 첫째는 어버이에게 불효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둘째는 구족(九族)과 화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셋째는 인척을 친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넷째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다섯째는 벼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섯째는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일곱째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덟째는 난을 일으킨 백성에 대한 형벌이다. [以鄉八刑 糾萬民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婣之刑 四曰不弟之刑 五曰不任之刑 六曰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하는 법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저들이 뻔뻔스레 선비들 사이에서 행세하면서 하늘을 보고도 아
무 생각이 없으니, 이들을 일러 뭐라 하겠습니까?

열재 소장에게 올림 을축년(1925) 12월

上悅齋蘇丈 乙丑十二月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에서, 어른께서는 주된 논의를 담당하시
고 시생은 통문 만드는 것을 담당하자고 하셨으니, 마치 ‘죽어서
함께 열전에 오르자’⁴³는 뜻을 보이신 듯하였고, 급기야 시생이
10일에 검사국(檢事局)에 답변한 말⁴⁴을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
기를, “마치 내 입에서 나온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하셨습니
다. 이에 감히 인정해 주시는 끝자리에 외람되이 끼어 있지는 못
하나 피차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차이가 없다고 믿었는데, 과연
19일에 어른께서 검사국에 써서 보인 한 편의 시는 어찌면 그리
도 시생이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뜻과 하나하나 부합하는지

不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亂民之刑” 하였다.

- 43 죽어서 함께 열전에 오르자 : 송나라 때 명신인 범진(范鎭)은 사마광(司馬光)과 우의가 두터웠는데, 사마광에게 “그대와는 살아서 뜻을 함께하고 죽어서 전을 함께할 것이다.[與子生同志死同傳]”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치의집전(緇衣集傳)》 권3 <일류장(壹類章)> 중국의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에서는 성향이 같은 인물을 한 열전(列傳)에 모아 엮기 때문에 한 말로, 이 말은 뜻을 같이 하자는 의미이다.
- 44 시생이…말 : 오진영의 제자인 강태걸(姜泰杰)이 후창 김택술 및 최병심 측을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인가 받아 간행한 진주본을 구독하지 못하게 선동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사국(檢事局)에서 후창을 불러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응하여 답한 말이다.

요? 시에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일생의 일이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만 번 죽어도 하리라.〔辨誣一生事 守訓萬死爲〕”라는 구절을 바로 쓰셨으니,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죽어 지하에 돌아가 선사를 배알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시가 이 외에 다른 뜻은 없으니, 바로 쓰는 것은 달리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께서 이른바 “마치 내 입에서 나온 것 같다.” 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듣자하니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시생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도는 본래 광대한데, 김 아무개는 이와 같이 소견이 좁다.” 하였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은 노성한 분이신데 또한 시생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한층 더 기롱 받음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한바탕 웃고 맙니다. 가는 해를 전송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앞에 닥쳤으니, 새해에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것이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의 예인데, 우리들은 가야흐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근심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니,⁴⁵ 길상(吉祥)에 대해서는 말할 바가 아니고 오직 ‘의리를 지키고’⁴⁶ 몸을 깨끗이 한다⁴⁷(守義潔身)’는

45 호랑이…있으니 : 《서경(書經)》〈군아(君牙)〉에 “내 마음의 근심되고 위태로운 것이 마치 범의 꼬리를 밟은 듯, 봄날의 얼음 위를 걷는 듯 하다.〔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水〕”라는 말이 나온다.

46 의리를 지키고 :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경을 주장하여 그 마음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그 밖을 방정하게 한다.〔君子主敬以直其內 守義以方其外〕”라고 하였다.

47 몸을 깨끗이 한다 : 자기 한 몸 깨끗하게 하고자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논어》〈미자(微子)〉에, “자료가 말하기를,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義)가 없으니, 장유(長幼)의 예절을 폐할 수가 없거늘 군신(君臣)의 의를 어떻게 폐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潔身亂倫〕이다.’ 하였다.” 하였다.

네 글자로 서로 신년에 대한 축원을 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悅齋蘇丈 癸酉

추석이 어찌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날 보내주신 편지와 문장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날 밤엔 좋은 달이 바야흐로 둥그니 이른바 일 년 중에 명월은 오늘밤에 가장 밝다는 것⁴⁸입니다. 어른의 시는 청절하여 또한 이전에 지은 것보다 뛰어나 날마다 발전하여 더욱더 공교해졌으니, 감히 노련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한 바쁜 중에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전일하게 하는 남다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적수가 없습니다. 가장 밝은 달을 마주하여 무적의 시를 읊으니, 시와 달이 둘 다 맑아서, 이를 읊조리는 사람까지도 맑아지니 그 즐거움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진실로 옛날에 친히 창수(唱酬)를 할 때보다 못하지 않고 아름다운 때의 좋은 달은 또한 옛날에는 없었던 것으로 스스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궁벽한 거처에서 드물게 있음에랴. 다만 생각건대, 시를 짓는 방법은 성정의 바름을 얻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시 삼백 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사(思無邪)’라고 말했습니다.”⁴⁹ 시교(詩敎)의 요점은 이를 벗어나지 않

48 명월은 오늘밤에 가장 밝다는 것 : 한유(韓愈)가 8월 보름에 대해 지은 시에 나오는 말이다. 《한창려집(韓昌黎集)》 권3 〈팔월십오야증장공조(八月十五夜贈張功曹)〉

49 시…말했습니다 : 《논어(論語)》〈위정(爲政)〉편에 나오는 말이다.

거늘, 어찌하여 근세의 학자는 대부분 시를 짓는 것은 유가가 숭상할 바 아니라 여겨서 대단히 경시하는지요. 만약 “오늘의 시가 어찌 옛날의 시와 같은가”라고 말할 뿐이라면, 오늘의 문장이 또한 어찌 《상서》나 〈계사〉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문장만을 숭상하고 시를 무시하니, 미혹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바른 시는 대부분 음악으로 연주되었는데 이제 음악은 없어지고 시는 오히려 남았으니 음악의 뜻도 있는 것으로, 《예기》에 말하기를 “예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⁵⁰ 라고 했으니, 음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또한 마땅히 시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작(詩作)이 비록 옛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연히 중화(中和)의 소리에서 나와 의리의 바름에 합치한다면, 정아(正雅)한 〈주남(周南)〉 〈소남(召南)〉과 함께 그 귀결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도를 걱정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곤궁함을 참으며 스스로 수양하는 뜻과 세속을 초월하려는 생각이, 사물을 보고 흥을 일으키고 경치를 대하고 정신을 즐겁게 하는 시작(詩作)이 비록 소종래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지기를 안정시켜서 화평하고 정직한 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음악의 남은 뜻을 잃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선함을 느끼고 그 방일함을 징계하여, 성정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 과연 어찌 대풍(變風) 변아(變雅)⁵¹만 못하겠습니까

50 예악은…없다 : 《예기(禮記)》〈악기(樂記)〉에 “군자가 이르기를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라고 했다.[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諫之心, 油然而生矣]”

51 변풍(變風) 변아(變雅) : 국풍 가운데 〈주남(周南)〉 〈소남(召南)〉은 주

니까? 풍월에 번뇌하고 화조에 근심하여 신심과 관계없는 작품으로 말하자면 어찌 시뿐이겠습니까? 존장께서도 부화(浮華)하고 배우(俳優)한 점이 있으니 이것들은 전부 논할 거리가 못됩니다. 마침 존장께서 자정(子貞)에게 준 편지의 시에 또 존성(存省)으로 한결같이 도우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보았는데, 깊이 제 견해와 부합됩니다. 삼가 여기에서 부연하여 우리러 그 자세한 것을 갖추었는데 당신께서는 다시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悅齋蘇丈 癸酉

보내주신 편지에서 먹물을 들이고 머리를 깎는 변란⁵²에도 만남을 따라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보냈으니 이러한 마음에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또 편지에서는 연로하였음에도 뜻을 가다듬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몸을 보존하여 온전히 돌아가려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 또한 합당한 말입니다. 근래에 제 친족 한 사람이 호서로 길을 나섰다가, 체두관⁵³을 만나

나라 초기의 태평시대에 지어진 노래로 '정풍'이라 한 데 대해 기타의 국풍은 "왕도가 쇠미해지고, 기강이 무너진" 때의 노래라 하여 변풍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치세의 시가는 정풍으로, 난세의 시가는 변풍으로 본다. 후대에는 역사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교의 득실에 표준을 두고, 정치의 잘못을 풍자하는 작품을 변풍이라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변풍이라는 개념은 시가가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과거 문인들이 빈번하게 사용했다.

52 머리를 깎는 변란 : 1894년 전통적인 의복 제도를 서양식으로 개정한 '변복령'(變服令, 의제개혁)과 1895년(고종 32) 11월,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을 말한다.

53 체두관(剃頭官) : 단발령 시행 후 머리카락을 자르러 다니던 관리.

상투를 잘릴 위협에 처하자 짧은 지팡이로 가위를 들고 있는 손을 때리니 손에 있던 가위가 땅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에 다시 그를 쳐서 쓰러뜨렸는데 저쪽에 있던 순사에게 맹렬히 쫓기게 되었습니다. 순사와 마주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요즘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강제로 행하는 것인가? 너의 상부한테 가서 따져봐야겠다.”라고 하고, 꼭 잡고서 재촉하여 가던 중에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이 풀어주라 권하여 말하기를 “가서 따져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피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부추겨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화를 면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아직 사십이 안 되었는데도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머리 깎이는 것을 면했으니, 이를 가지고 살펴볼 때 연로한 사람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후생에 이르러서도 머리 깎이는 것을 깊이 염려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진실로 그렇습니다. ‘역경에 처해도 굽히지 않는 절개⁵⁴는 예로부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나이 많은 선비도 간혹 말년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나이가 젊어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자이겠습니까? 근래에 풍기가 한번 변하여 다른 집 소년들이 위협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기꺼이 머리를 깎으니 기세가 강물이 불어나는 것 같아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동문의 모모공들도 자손이 외형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일에 가정의 교훈에 폭 젖은 것이 마땅히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을 터인데도 똑같이 풍조에 내몰리게 된 것은 하늘이 정말로 그렇게 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

54 세한송백(歲寒松柏) : 《논어(論語)》〈자한(子罕)〉에서 “추운 겨울철을 지내보아야만 송백이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겠습니까? 그옥이 살펴보니 문 씨 어른 두 아들의 거처가 가까운 완산으로 더욱 변화한 땅인데도 모두 옛 제도를 보존하여 지켰으니, 법도 있는 집안의 의방(義方)⁵⁵에는 저절로 그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암(김낙규)과 함재(김낙두) 두 어른의 자손도 그러합니다. 저의 아들과 조카도 이것을 범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것이 못되니 마땅히 더욱더 내일에 힘써서 이치를 밝혀 깨우치고 정성을 쌓아서 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오랑캐가 되어서 사는 것은 중화를 지키다 죽는 것만 못하다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재 소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12월

答悅齋蘇丈 癸酉十二月

물으신 영당(影堂)⁵⁶의 일은, 제가 10월 그믐에 신헌(愼軒)의 편지를 얻어 논의가 이 일에 미쳤는데, 호남과 영남에 모두 통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장에 이르기를, “음성 오진영의 무리에게 통보하여 의논하는 것은 의리상 매우 온당하지 않다. 저들이 선사의 큰 것을 들어 무함하고 훼손하는데, 우리가 마침내 저들과 작은 것들에 대해 일을 함께 한다면 어찌 어긋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나옹

55 의방(義方) : 정도(正道) 즉 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3년 조에 현대부(賢大夫) 석작(石碣)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샅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 [愛子，教之以義方，弗納于邪]”라고 위 장공(衛莊公)에게 충간한 말이 나온다.

56 영당(影堂) : 초상을 모시는 사당이다.

(懶翁)과 신재(愼齋) 두 어른이 가까운 읍을 두루 다니며 이미 성금할 기록을 받았으니, 성금을 받는 행위가 이 일을 의논하기 전에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래에 두 어른을 뵈고서 그 뜻을 알아보았는데, 이른바 의리에 대해서 그다지 명쾌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은 스승을 무함한 자와 함께 도모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니, 이치를 보는 것이 밝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름을 존경하여 우러러 보며 제 의견과 같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열재 소장에게 올림 병자년(1936)

上悅齋蘇丈 丙子

지난 가을에 음성 오진영이 편찬한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보니, 후론(後論) 가운데 그가 주장한 말이 상식적이지 않고 추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전사견(田士琯)과 상의하여 논의를 세웠으며, 근래에 또 음성에서 온 변증서(辨證書)의 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기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쪽이 이미 사문의 죄인이고 보면 그가 주장하는 말의 득실은 마땅히 경중을 따질 것도 없어서 변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들의 무리가 나라 안에 가득하여 견식과 문장이 선사보다 낫다고 그를 높이고, 심지어 간옹의 문집은 고치고 첨가한 진주본이 나온 뒤에야 완벽하게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 기까지 하니, 그 잘못된 말이 어찌 사람들을 믿게 하고 세상을 해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의리에 있어서는 그의 이른바 견식과 문장 가운데 큰 병폐가 있는 것을 보는 대로 반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문장과 식견을 아울러 취할 것이 없음을 알

게 한 연후에 사도(師道)를 보호하고 세교(世敎)를 부지하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장의 뜻은 어떠신지요?

열재 소장에게 올림 병자년(1936)

上悅齋蘇丈 丙子

풍조는 날로 나빠지고 앞길은 날로 험악하여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단발의 재앙을 면한 것이 이에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80세 된 어른께 나가 문후 드리려 한 것이 3년이 되었으나 뵈지 못하고 격조했던 나머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난세의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때때로 여중(汝重)이 왕래할 때면 삼가 소식을 들었는데, 환한 얼굴빛은 줄어들어 없고 정신과 풍채 모두 더욱 왕성하시다 하니, 이것은 평소에 우러러 기도하여 바라던 마음입니다. 식견은 더욱 높아지고 의론은 더욱 정밀해지셨을 것을 다시 생각하니, 아마도 나이가 더욱 높아지는 때에 문을 닫고 저술하신다면 붓 한 자루의 힘이 충분히 풍조를 막고 양이 회복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런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세상의 나쁜 풍조는 진실로 한없이 통탄할 바이나, 오늘 우리 문하의 풍조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지난날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일에 당당하여 문필로 성토하고 벌을 내리기를 서릿발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음성의 오진영 바람에 휩쓸려서 그와 더불어 배움하고 강론하던 예전의 기쁨을 말하고 끝내는 그를 계화도 제사의 주헌관(主獻官)이 되도록 하고는 도리어 오진영과 통하고 일을 함께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한두 사람을 원수처럼 보고 있으니,【소장과 김택술은 처음부터 오진영과 통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원수처럼 보았다.】
 고금 천하에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면 사람 마음을 두렵게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은, 비단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춰야 할 뿐만 아니라 사귀를 끊고 종적을 없앤 이후에나 거의 가능할 것 같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저 사람의 반복무상한 것도 말할 것이 없고 우리가 원수 취급당하는 것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만, 오직 스승의 무함이 물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심각해지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일을 글로 써서 훗날 논의가 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일세의 풍조를 막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삼가 문하에서도 이를 도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재 소장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悅齋蘇丈丁丑

일전에 나아가 찾아뵈는 것은 2년의 계획 끝에 나온 것인데, 마침 밖으로 외출을 하셔서 가르침을 받들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서운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을 만났는데, 대접이 정성스럽고 응대가 명쾌하여 사람 마음을 대단히 흔쾌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어른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고 말할 만하여 이로써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전에 얼핏 아드님께서 변형⁵⁷을 면하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정의 엄격한 교훈으로 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 중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

57 변형(變形) : 단발령에 의해서 상투를 잘린 모양을 ‘변형’이라고 한 듯하다.

로는 비록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와전임을 통렬히 변론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후에야 전통을 지닌 오래된 집안의 의방(義方)이 자연 다른 바가 있다는 것을 더욱 알았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뜻이 고상한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으니, 더욱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안 되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만남이 어긋나서 매우 슬프고 한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자세한 동정을 물으시고 아울러 더욱 편안히 왕래하라는 뜻을 보여주셨으니, 아, 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이 미처 겨를을 내지 못했는데 높으신 분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격하는 마음은 비록 깊으나 송구한 마음 또한 지극합니다.

시생은 몸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밖으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지경⁵⁸이니, 이러한 때에 이러한 모습은 족히 받들어 아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몸과 네 명의 아들, 세 명의 동생, 한 명의 조카인 아홉 식구가 옛 의관을 현재도 보존하여 바꾸지 않고 있으니, 나라 안을 두루 돌아보더라도 아마 우리와 짝할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모양 또한 특이한 일이니, 이것이 영광이 될지 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논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막론하고 다만 앞으로는 잘 끝맺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어른은 올해 나이가 팔순에 다가섰습니

58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지경 : 원문의 '호식(虎食)'은 《장자(莊子)》〈달생(達生)〉에 나오는 말로, 노나라의 단표(單豹)라는 사람이 은거하여 깨끗하게 살면서 속세의 이곳을 다투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힌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안으로 정신만 수양하고 밖으로 몸의 단련을 소홀히 한 것을 말한다.

다. 사람은 말년에 큰일을 하기 마련이고 또한 세상의 혼란함이 이러할 때에는 젊은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생과 우리 어른은 살아서는 의리를 함께 하고 죽어서는 함께 열전에 오르
는 처지⁵⁹라고 말할 만한데, 한 번 만나서 문후를 하고는 걸핏하면
몇 년이 지나니, 지난날을 통해서 장래를 추론하건대 앞날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다소의 문자 의리를 모두 강론하여 정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어찌 영원한 후세에 다소의 유감이 없겠습니까? 삼가
우리 어른께서도 때때로 생각이 이것에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날 나아가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은 이것에 있었는데 이미 이루
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하교(下敎)하신 대로 가을 사이에 정산에서
찾아뵈었어야 했으나 이 또한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아뵈는 계획을 도모할 뿐입니다.

지난번에 아드님이 근래에 그린 존영(尊影)을 보여 주었는데,
아주 비슷한 것을 보니 단지 칠분[七分]⁶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9 살아서는…처지 : 송나라 때 명신인 범진(范鎮)은 사마광(司馬光)과
우의가 두터웠는데, 사마광에게 “그대와는 살아서 뜻을 함께하고 죽
어서 전을 함께할 것이다.[與子生同志死同傳]”라고 한 데서 나온 말
이다. 치의집전(緇衣集傳) 권3 〈일류장(壹類章)〉 중국의 기전체(紀
傳體) 역사서에서는 성향이 같은 인물을 한 열전(列傳)에 모아 엮기
때문에 한 말로, 이 말은 뜻을 같이 하였다는 의미이다.

60 칠분[七分] : 초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음을 말한다. 정
이(程頤)가 《역전(易傳)》을 짓고서 문인들에게 주며 “단지 7분만 말
한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스스로 살피고 궁구해야
한다.[只說得七分 學者更須自體究]”라고 하였는데, 문인인 장역(張繹)
이 그에 대한 제문을 지으면서 그의 말을 인용하여 “선생의 말씀으
로 문자에 드러난 것은 7분의 마음이 있고, 단청으로 그려진 것은 7
분의 용모가 있다.[先生有言見於文字者 有七分之心 繪於丹青者 有七
分之儀]”라고 하였다. 《二程全書 附錄 祭文》 글이나 그림으로는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7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다만 초상을 정립한 모습으로도 단좌한 모습으로도 그리지 않고,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그린 것은 아마도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세에 중국 사람들은 앉을 때 반드시 의자를 사용하였으니, 이미 의자에 앉은 이상 어쩔 수 없이 걸터앉게 됩니다. 그러나 주자가 의자를 사용하는 송나라 때에 살면서도 그 초상은 오히려 의자도 쓰지 않고 걸터앉지도 않았습시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본디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의자의 사용이 근래의 사람들에게나 있는 데이겠습니까. 의자에 앉는 것은 우리나라 풍속에 없는 것이고, 걸터앉는 것은 또한 유자들이 잠시 동안도 불안해하던 것입니다. 이제 엄정한 유자의 복장으로 의자에 걸터앉은 초상을 후세에 전한다면 어찌 사실과 어긋나서 누를 끼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정 끝에 그린 사람을 기록한 것이 성명으로 하지 않고 별호로 했으니, 이것이 어찌 젊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겠습니까? 일찍이 선사의 영정에 채용신(蔡龍臣)이 석지(石芝)라는 호를 사용한 것을 보고 늘 마음에 흔쾌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이것을 보니, 아마도 또한 한 때 화가의 풍습인가 봅니다. 제 견해로는 마땅히 모두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재 소장에게 올림

上悅齋蘇丈

삼가 생각건대, 문집은 작자가 직접 교정하고 인쇄하여 발행해야지 자손과 문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진실로 부모와 스승의 문집을 전하는 데에 뜻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재앙을 두려워하여 부모와 스승의 문장을 고치는 자가 있

었는데, 전하지 못하여도 그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고쳐서 부모와 스승을 무함한 자는 다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여 고친 것은 비록 죄 줄만 하나 그 마음은 오히려 측은하지만, 사욕을 채우고 능력을 과시하여 고치기를 오늘날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의 문집에 했던 것처럼 한 경우는, 그 죄가 더욱 커서 죽음으로도 용서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이런 일들은 비록 경중을 따질 것도 없이 똑같이 믿을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으니, 스스로 교정하여 간행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며, 또한 우리 자손과 문인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생각이 미쳤던 곳이 생각이 미치지 못한 곳이고 방비가 미쳤던 곳이 방비가 미치지 못한 곳이라는 것이니, 이것이 근래에 제가 터득한 한 가지 견해입니다. 존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족숙(族叔) 가암(可庵) 김낙필(金洛弼) 노인에게 올림 정사년(1917) 上老可庵叔洛○丁巳

천시(天時)는 인력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제(禮制)는 선왕이 정한 것입니다. 입었던 삼베옷이 칠베옷으로 바뀌고 깔고 앉았던 거적이 흙으로 바람을 막은 방으로 바뀌니, 가슴을 쓸어내리며 개탄하면서 다만 처음 상을 당했을 때처럼 아픈 마음이 절실할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편지를 받았는데, 지극히 정성스럽게 위문해 주셔서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렸으니, 완연히 얼굴을 뵈고 속마음을 호소한 것 같았습니다.

화양(華陽)을 왕복하는 천리 길을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다 하니, 소식을 듣고 매우 위로가 되고 다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

각하니, 두 분 황제의 명령에 술잔을 올리며 쇠망한 나라가 이미 아득해졌음을 통탄하고,⁶¹ 대로(大老 송시열)의 묘소에 절을 올리며 통서가 계승되지 않음을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두루 주밀하게 주선하는 것을 바라보시던 끝에 감회가 슬프고 생각이 유유하여 응당 동지로 말할 만한 사람이 있으셨을 터인데, 문하에서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조카의 여묘살이는 선친의 뜻을 잇기 위한 것이라 억지로 힘써 미봉이나 하는 것이 과도하게 칭찬을 입으니 이미 너무도 부끄러워 땀이 흐르는데, 문조(門租 문중 재산)를 내어 여묘살이의 식량을 지급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더욱 뜻밖이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허다한데 유독 조카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예를 집행함에 있어 근사한 명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있어 염치를 무릅쓰고 받는다면 정당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부끄럽고, 끝까지 사양한다면 이미 어른의 뜻에서 나와 여러 사람들의 논의로 정해진 것인 만큼 집안 자제의 도리 상 감히 공손치 못한 거절⁶²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거듭 반복해서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안을 얻었습니다. 족속께서 이 일을 주장하신 것은 아마도 조카인 저를 사적으로

61 두 분…통탄하고 : 두 분 황제는, 화양의 만동묘에 명나라 의종과 신종의 시위를 배향했으므로 의종 황제와 신종 황제를 가리킨다. 풍천(風泉)은 《시경(詩經)》의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을 가리키는데, 모두 제후국의 사람들이 주(周) 나라를 생각하여 지은 시이다. 여기서서는 망한 명나라를 가리킨다.

62 공손치 못한 거절 : 《맹자(孟子)》 〈만장 하(萬章下)〉에, “존귀한 분이 물건을 줄 경우 ‘그분이 이 물건을 취한 것이 의일까 불의일까?’ 생각하여 의에 맞은 뒤에 받는다면, 이것을 공손치 못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尊者賜之 曰其所取之者 義乎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것으로 격려할 거리를 삼아서 능하지 못한 것을 더욱 힘써 그 끝을 신중히 마치도록 하려는 것이고, 또한 집안의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실제로 온 집안의 족속들을 가르치는 공적인 일입니다. 제가 비록 못났으나 감히 지극한 뜻을 받들어 부응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내주신 식량과 돈을 이미 삼가 절하고 받았습니다. 다만 마땅히 이 몸을 더욱 공경히 하여 혹시라도 어긋남이 없게 함으로써 보답하지 않는 보답⁶³을 삼겠습니다.

족속 창암(鬯庵)[낙규(洛奎)], 함재(涵齋)[낙두(洛斗)]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鬯庵[洛奎]涵齋[洛斗]族叔 乙丑

오늘 아침은 해가 새롭고 달이 새롭고 일자가 새로운 때입니다. 천도가 이미 새로우니, 인사가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기가 다해서 이미 물러났으니 일음(一陰)의 무함⁶⁴이 장차

63 보답하지 않는 보답 : 원문의 ‘불보지보(不報爲報)’는 《능엄경(楞嚴經)》의 “이 심신을 가지고 세상의 중생을 받드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한다.[將此心身 奉塵刹 是則名爲報佛恩]”라는 구절의 주석에 “성과를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보답으로 삼으니, 이것이 보답하지 않는 보답이다.[得聖果度衆生, 無與於報佛, 而以此爲報, 此不報之報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대개는 베풀하여 헌신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나 비방을 받고 일을 그르쳐 임금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풀어서 물러나 소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보답이 아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보답하겠다는 뜻이다.

64 일음(一陰)의 무함 : 일음은 음성의 오진영을 비유한 말로 이 구절은

사그라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삼양이 비로소 돌아왔으니⁶⁵ 육양(六陽)의 덕이 크게 빛남을 혼연히 볼 것입니다. 천도와 인사가 서로 관련된 것이 비록 그러하여 이와 같지만 또한 사람이 마음을 경건히 하고 하늘을 받들며 음기를 억누르고 양기를 부지하며 바름을 지키고 사악함을 물리쳐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며 세도를 돕고 사람의 떳떳한 본성을 세우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룬다.” 하였고,⁶⁶ 전(傳)에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다.” 하였으니,⁶⁷ 어찌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근래에 사문(師門)의 일은 비록 불행이라 하겠지만 또한 다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밝고 밝은 우리 육양옹(六陽翁 간재 전우)의 더할 수 없는 가을 햇살 같은 밝음이 한 음인(陰人 오진영)의 어둡게 퇴색시키는 것을 심하게 입어서 인가를 지

인사를 말한 것이다. 앞 구절의 ‘음기가 다해서 물러났다’는 것은 천도를 말한 것으로 순음(純陰)의 달인 10월을 상징하는 곤괘(坤卦)의 내괘 3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하나씩 바뀌어 새해 정월에는 모두 양효가 되기 때문에 음기가 물러났다고 말한 것이다.

- 65 삼양이 비로소 돌아왔으니 : 정월을 상징하는 태괘(泰卦)의 내괘 3효가 모두 양효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도를 말한 것이다. 뒤 구절에 나오는 육양은 순양(純陽)의 달인 4월에 6효가 모두 양효가 된 것을 말하는데, 이 구절은 인사를 말한 것으로 육양은 간재 전우를 비유한 것이다.
- 66 주역에…하였고 : 이 말은 《주역(周易)》〈태괘(泰卦)〉에 나오는 말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것이 태괘이다. 제왕은 이로써 천지의 도를 지나침 없이 이루고 천지의 마땅함을 모자람 없이 도와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하였다.
- 67 전(傳)에…하였으니 : 전은 《중용(中庸)》을 가리킨다. 이 말은 《중용 장구(中庸章句)》 제22장에 나온다.

시했다는 무함으로 온 나라에 의심과 비방을 가득 차게 하였으니, 그 어떤 불행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함재 죽숙이 계셔서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 인가 받는 것을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의리에 의거하여 무함을 성토하여 글자마다 혈성이 서리고 구절마다 충심이 깃들인 “결단코 나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신 유서⁶⁸로 하여금 천하와 후세에 널리 알려지게 하여 선사의 마음을 중천의 해와 달보다 밝아지게 하였으니, 그 다행함은 또한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습니까? 도적놈을 몰아내다가 도리어 적반하장을 당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무리가 간사한 문서와 감춰둔 적반하장의 무함으로 더럽히고 멸시하다가 할 수 없으면 다시 사문을 핍박한다는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저들의 정상은 몸속의 폐와 간을 보는 듯 흰합니다. 설사 정말로 핍박한 죄가 있었다라도 마땅히 그 당시에 따져 물었어야지 무함을 성토한 뒤에 발설하여 자신의 유감을 풀어서는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날조한 허위로 결론이 났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허물을 대놓고 간함도 없고 은미하게 간함도 없습니다.⁶⁹ 그러므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토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훤당(寒

68 결코…유서 : 이 유서는 간재의 신해년 유서를 말하는데, 이 유서에서 “만약 저 일인(日人)에게 청원하여 문집을 간행하고 배포할 계획을 삼는 자는 결단코 나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若請願於彼以爲刊布之計者 決是自辱]”라고 한 것을 말한다.

69 허물을…없습니다 : 《소학(小學)》〈명륜(明倫)〉에 나오는 말로, 스승을 섬길 때 안색을 범하여 직간함도 없고 은미하게 간함도 없으니,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의문이 있는 곳이나 논란할 것이 생기면 곧바로 말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暄堂 김굉필)이 계집종을 호되게 꾸짖어 말투가 매우 사나웠는데, 정암(靜庵 조광조)이 나아가 말하기를, “군자는 말투를 성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한훤당이 손을 맞잡고 칭찬했습니다.⁷⁰ 계화도(繼華島)에 있었을 때 창암 족숙의 ‘말이 공손해야 한다’고 고한 것과 선사의 ‘참으로 옳다’는 가르침은 한훤당과 정암이 이미 행한 일과 더불어 세대는 다르지만 일이 부절처럼 부합될 만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침내 이 일로 죄를 삼았으니, 저들이 허물을 살살이 찾기에 온 힘을 들였어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이쪽 문자가 간혹 저의 졸렬한 솜씨에서 나온 것이 심히 저들의 눈엣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거짓으로 스승의 명을 바꾸어 묘표를 고쳤다는 죄목과 거상(居喪)에 예의가 없었다는 죄안을 당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스승을 위하여 죽음에 이른 자도 있으니, 오늘날 저들의 독설을 만난 것이 무슨 신경 쓸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오진영이 아무 덕도 없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모함에 빠뜨리고 이전의 말을 한결같이 뒤집으니, 인성을 갖추지 못한 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짓으로 스승의 명을 바꾸어 묘표를 고친 자라면 오진영이 무엇 때문에 전후로 논의를 달리 했던 것을 스스로 송구스러워 하여 돌려 전해준 뒤에 편지를 보내 사과를 했겠으며, 만약에 거상하면서 예의가 없었던 자라면 오진영이 무엇 때문에 고려 말세의 풍속에서 포은(圃隱 정몽주)의 고상한 행실이 다행스럽게도 봉장(奉狀)을 만났던 것으로 여묘(廬墓)하는 날에 칭찬을 했겠습니까? 아주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70 옛날에…칭찬했습니다 : 《정암집(整庵集)》〈연보(年譜)〉에 나온다.

선사께서는 해처럼 빛나고 옥처럼 깨끗하건만 인가를 받을 뜻이 있으셨다느니 인가를 지시하셨다느니 하는 무함을 입으셨으며, 손수 쓰신 마음이 드러난 유서가 못을 끊고 쇠를 자른 듯 분명하건만 가짜 유서라는 배척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선사에 대해서도 저들이 오히려 꺼리지 않는데, 하물며 나머지 사람들이겠습니까? 선사의 무함을 아직도 확실히 씻어내지 못했으니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있었습니까?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나의 의리를 다하기를 구할 뿐이니,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사께서는 사천년 도학가에 최후의 한사람입니다. 도학가 최후의 한사람으로서 만약에 일제의 인가를 받아 문집을 발간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이것은 천하의 큰 불의이니, 큰 불의로써 스승을 무함하는 것은 천하의 큰 죄입니다. 지금 오진영이 자칭 수제자라 하면서 사천년 도학가에 최후의 한사람인 선사를 천하의 큰 불의로 무함하니, 그 스스로 빠진 큰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수제자라는 호칭 때문에 그 무함을 믿는다면, 이것은 세도의 큰 해악입니다. 오늘날 해야 할 일은 천하의 큰 불의로 만든 무함을 변론하고 천하의 용납하지 못할 큰 죄를 성토하여 이로써 사천년 도학가에 최후의 한사람인 선사의 심사를 밝히고, 이로써 세도의 큰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니, 진실로 천하 만세의 큰일입니다. 오도(吾道)가 보존되느냐 망하느냐와 생민(生民)이 사람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가 모두 이 일에 달려 있으니, 한 집안이나 한 나라의 흥폐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른 일은 놓아두고 이 일에 전심하여 천하의 큰 공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숙 창암 · 함재에게 올림 을축년(1925) 12월

上 尊 涵齋族叔 乙丑十二月

듣자니 검사의 말이 다만 통문을 만들고 통문을 인쇄한 것에 대해서만 묻고 그 나머지는 문지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땅히 우두머리가 되고 홍(弘)이 다음이 되니, 많은 사람들의 재앙을 줄일 수 있고 간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홍은 나이가 젊고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먼저 죽기를 다투어 오늘날까지도 빛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의리는 마음속에 저울 같은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노(魯)나라의 공포(孔褒)⁷¹만이 아름다운 명성을 독차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형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비록 자제의 도라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단지 ‘합의를 허락하면 선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고소를 되돌리면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의리인 줄만 알아서 나머지는 따지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검사국에 투서하는 자가 몇 사람 있으면, 이것은 비록 요점은 아니더라도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감히 가볍게 판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심에서 나온 이후에 할 수 있으니, 다른

71 공포(孔褒) : 노나라 사람으로 장검(張儉)과 친분이 있었다. 장검이 중상시(中常侍) 후람(侯覽)의 미움을 받아 체포령이 내리자 도망하여 평소에 친하던 공포를 찾아갔는데, 이 때 마침 공포는 없고 동생 공융이 맞아들였다가 나중에 탄로나 잡혀갔다. 그러자 동생은 자기가 받아들였으니 자기 죄라 하고, 형은 자기를 찾아왔으니 또 자기 죄라 하고, 어머니는 또 집안일은 어른의 책임이니 어른인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서로 죽기를 주장하다가 결국 공포가 죄를 받았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권70 〈공융열전(孔融列傳)〉

사람이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재앙을 나눈다는 혐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족속 창암에게 올림 정묘년(1927) 4월

上⁷² 庵族叔 丁卯四月

어제 용동(龍洞)의 분간(分刊)에 대해 광주(光州)의 통첩(通牒)이 와서 보았는데, 유영선(柳永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용동과 진주가 서로 합친 것입니까? 당초에 용동이 간행을 진주와 달리 한 것은 이익을 다투어 설치했기 때문이라서 선사께서 손수 편정한 고본(稿本)을 따른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을 뿐이니, 잠시 떨어졌다 잠시 합친 것은 본색이 저절로 드러난 것으로 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별지에서 인용한 한기(韓琦)와 범중엄(范仲淹)이 대전(大殿)에 올라가서는 서로 다투고 대전을 내려와서는 서로 즐거워했다는 일⁷²은 사례가 같지 않아서 대단히 어긋나고 망령스러우니,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기와 범중엄이 대전에 올라가서는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나라를 위한 것이나 다만 견해가 같지 않아서이니, 바로 공자가 조정

72 한기(韓琦)와…일 : 《춘추좌전(春秋左傳)》 成公 2年 송나라 재상 위공(魏公) 한기(韓琦)는 “범희문(范希文)과 부언국(富彥國)이 함께 앞에서 정사를 논할 때에는 곧장 서로 다투다가도 각기 헤어져서 궁전만 떠나오면 마치 다투는 적이 없는 것처럼 서로 화기(和氣)를 잃지 않으니, 이는 마치 ‘수레를 밀어 주는 사람[推車子]’과 같아서 그 마음은 항상 수레를 가게 하는 데에 있을 뿐이요,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권1 희문은 범중엄(范仲淹)의 자이며 언국은 부필(富弼)의 자이다.

에 있을 때에는 말을 분명하게 하신 뜻⁷³입니다. 그들이 대전을 내려온 이상 어찌 견해가 달라 말을 분명하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즐거워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조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감히 송나라의 선황제가 오랑캐에게 항복할 뜻이 있었다고 무함하는 자가 있었다면, 한기와 범중엄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죄를 바로잡기를 청한 이후에 그만두었을 것이니, 어찌 다투고 즐거워하는 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음성의 오진영과 처음부터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이 관련되지 않고 다만 문집을 간행하는 일을 목판으로 할 것인지 활자로 할 것인지와 호남에서 할 것인지 영남에서 할 것인지를 다투었을 뿐이라면, 한기와 범중엄의 고사를 인용할 만합니다. 지금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께서 인가를 지시한 일이라고 무함한 것은 바로 신하가 임금의 오랑캐에게 항복할 뜻이 있었다고 무함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그 죄를 성토하여 바로 잡았는데 다시 그들과 서로 즐거워한다면 어찌 스승을 무함한 자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무함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 유영선 무리의 완고한 견해이니, 나머지 귀신 소굴 속에서 술에 취하고 잠든 사람들이야 또한 꾸짖을 것도 못 됩니다. 고매하신 회봉(晦峰) 어른에 이르러서는 가까운 근처에 살아서 의리를 익숙히 들었는데도 오히려 높다랗게 통수(通首)라는 지위를 차지하여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

73 조정에…뜻 : 《논어(論語)》〈향당(鄉黨)〉에 “공자가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말을 분명하게 하셨다.[孔子在宗廟朝廷 便便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주희가 “종묘는 예법을 지키는 곳이고 조정은 정사를 행하는 곳이므로, 분명히 구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상세하게 묻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宗廟 禮法之所在 朝廷 政事之所出 言不可以不明辨 故必詳問而極言之]”라고 해설하였다.

고 의리를 어그러뜨리는 죄과에 빠졌으니, 대단히 한탄스럽고 애석합니다. 우리들은 이 어른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을에서 대대로 맺은 정 의가 있으니, 다른 동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족속계서는 또한 동감으로 허물이 없으시니, 부디 편지 한 장을 보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성암 이장유흥에게 답함 경신년(1920)

與誠菴李丈裕興 ○ 庚申

삼가 생각건대, 병옹(炳翁 병암 김준영)은 순수하고 소박한 자질로 여러 해 동안 독실한 공부를 하였으니 우뚝하여 그 덕이 높고 깊숙하여 그 학문이 깊습니다. 광명정대하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심사(心事)와 겸손하고 충일하며 엄중하고 삼가는 기상(氣像)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를 봄비가 벼의 싹을 적셔주듯이 하고 의리로 재단하기를 가을 서리가 풀을 떨구듯 하시는 데다 세상에 맞서 격렬하지도 않고 물들어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자신을 높이 내세우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으시면서 중정(中正)과 확실(確實)을 절충하시니, 이것이 평생 논리를 세우고 자신을 처신해온 표준이었습니다. 제가 선생을 보건대, 자못 인의가 몸에 갖추어진 군자입니다.

이와 같은 포부를 지니고 임하(林下)에서 늙어죽어 위로는 임금과 재상의 알아줌을 얻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사문의 맹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덕을 아는 자가 드물어 훌륭한 명성이 드러나지 못했으니, 어찌 개탄하고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옛날에 부지런히 도를 구했던 뜻과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선과 비통해 하며 세상을 근심했던 마음이 환히 유

고 안에 실려 있으니, 만약 유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생의 마음이 죽지 않을 것이고, 유고가 공적으로 전해진다면 선생의 은택이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원고를 간행하는 일이 어찌 동문으로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생에 대해서 평소에 기꺼이 감복하여 진실로 사문의 아성(亞聖)으로 생각했고 선생이 가르침을 베풀 적에도 또한 선생을 이렇게 일컬었으니, 이 어른의 이러한 은혜를 죽도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유고를 간행하는 공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꺼려서 사양하고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명을 들으면 즉시 행하여 한 팔뚝의 힘이라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 굽어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원재(遠齋) 이장희(李丈喜璣)에게 답함 임술년(1922)

答遠齋 李丈喜璣 ○ 壬戌

지난번 편지에서 “요순은 본성대로 하셨다.”⁷⁴(堯舜性之)와 “성실함으로 인하여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본성이라 한다.”⁷⁵(自誠明 謂之性)와 “본성대로 하고 편안하게 한다.”⁷⁶(性焉安焉)의 여

74 요순은 본성대로 하셨다 : 《맹자(孟子)》〈진심 상(盡心 上)〉에,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성품 그대로 하신 분이고, 탕왕과 무왕은 몸으로 노력해서 실천한 분이다.(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五霸假之也)”라고 하였다.

75 성실함…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과 제22장에 “참되기 때문에 저절로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되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 …천하에서 지극히 참된 사람만이 그 성품을 다할 수 있나니 그 성품을 다할 수 있게 되면…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惟天下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可以與天地參矣]”라는 말이 나온다.

76 본성대로 하고 편안하게 한다 :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 성기

러 ‘성(性)’자를 총명예지(聰明睿知)의 천성(天性)으로 보신 것”⁷⁷은 저의 견해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부합하니 매우 다행입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똑같이 얻은 본연의 성으로 본다면 “탕왕과 무왕은 몸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회복했다.〔湯武身之〕”의 몸으로 실천한 것과 “밝은 지혜로 인하여 성실해지니, 교육을 통해 들어간다.〔自明誠 由教入〕”의 들어간 것과 “회복하고 잡아 지킨다.〔復焉執焉〕”의 회복하고 잡아 지킨 것은 유독 본연의 성이 아닙니까? 본래의 문리(文理)와 어법(語法)은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본성대로 한다.〔性焉〕”의 주에서 주자가 분명하게 “홀로 하늘에서 얻었다.〔獨得於天〕”라고 해석한 데이겠

덕장(誠幾德章) 제3에 나오는 글을 주희(朱熹)가 《근사록(近思錄)》 권 1 도체류(道體類)에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고, 조리 있게 행하는 것을 예라고 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愛曰仁, 宜曰義, 理曰禮, 通曰智, 守曰信〕”라고 하여 다섯 가지 덕을 말한 뒤에, “이 덕을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性焉安焉之謂聖〕”라고 정의하고 있다.

- 77 여러…보신 것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뛰어나게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백성에게 군림할 수가 있다. 관유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천하를 포용할 수가 있으며, 강인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킬 수가 있으며, 엄숙하고 중정한 자세를 잃지 않기 때문에 공경히 대할 수가 있으며, 조리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다.〔唯天下至誠, 爲能聰明睿知, 足以有臨也, 寬裕溫柔, 足以有容也, 發強剛毅, 足以有執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理密察, 足以有別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주석에서 聰明睿知는 생지(生知)의 자질로 보고 寬裕溫柔는 인(仁), 發強剛毅는 의(義), 齊莊中正은 예(禮), 文理密察은 지(智)에 각각 소속시켰다. 이렇게 되면 齊莊中正의 中과 正이 모두 예에 속하게 된다는 말이다.

습니까? 《소학》에 이르러서는 “오직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분이다.[惟聖性者]”⁷⁸의 ‘성(性)’을 보통 사람들의 무너진 성과 상대하여 글을 썼으니, 마땅히 본연의 성이 될 뿐입니다.

원재 이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2월

與遠齋李丈 乙丑二月

음성에서 속인 일이 있음으로부터 동문의 선비들이 편지를 보내어 책망하여 일깨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깨우쳐 줌에 듣지 않으니 계속 성토하는 자도 있었고, 망설이면서 중립하는 자도 있었고,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둔하며 학대를 조장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책망하지 않고 성토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의 문자를 세워서 미래를 기다리기를 우리 어른이 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천박한 견해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건대 옛날에 선사가 유정석(柳正錫)의 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으니, 말하기를 “후진(後進)의 젊은 무리가 의심하고 헛갈린다는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것은 현명한 선배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숙재(趙肅齋)가 홍오곡(洪鰲谷)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문(儒門)이 쇠락했는데도 한 번도 떨치고 일어날 뜻이 없어서 노주(老洲)선생이 경계한 것을 면하지 못했

78 오직…분이다 : 주자가 쓴 〈소학제사(小學題辭)〉에 나오는 말로,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분이어서 하늘처럼 광대하니 털끝만큼을 보태지 않아도 모든 선이 충족된다.[惟聖性者 浩浩其天 不加毫末 萬善足焉]” 하였고, 다음에 성인과 상대하여 “보통 사람은 어리석어서 물욕에 가리니 마침내 버리를 무너뜨리고 이에 안주하여 포기한다.[衆人蚩蚩, 物欲交蔽, 乃頹其綱, 安此暴棄]” 하였다.

고, 숨이 끊어져 죽으려는 사람이 기력이 끝남에도 한마디 성토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니,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여 격분할 줄 모른다면 칼과 톱이 몸을 찌르더라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위해 속인 일을 변론하는 것은 본래 큰 의리입니다. 군친(君親)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서도 팔짱을 끼고 좌시하는 것은 주자가 엄히 배척하였으니, 제자들이 선생에 대해서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만약 조금 다르다면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섬기는 의리⁷⁹는 땅을 쓴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숙재의 말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통해 거듭 힘썼는데, 만약에 성토가 중도를 지나친다면 숙재가 어찌 노주 말을 인용하여 간절히 탄식하고, 선사가 어찌 숙재의 말을 인용해서 힘썼겠습니까? 유정석의 옳과 같은 작은 질병과 등에 같은 작은 근심에도, 선사가 오히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오진영에 대한 마음 깊은 곳의 근심과 승냥이와 늑대가 길목을 막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선사가 무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성토가 중도를 얻었음을 더욱 믿고, 더욱더 우리 어른이 성토하지 않는 것이 중도를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이 스스로 세운 문장은 맹자(孟子)가 양주(楊朱)를

79 생삼사일(生三事一): 낳아준 세 사람, 즉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을 섬기기를 똑같이 한다는 뜻으로, 《소학집주(小學集註)》〈명륜(明倫)〉에 난공자(欒共子)가,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섬기기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주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임금은 나를 먹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임금이 먹여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 낳아 주신 것과 똑같다.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教不知, 生之族也.]”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물리친 변론⁸⁰과, 한유(韓愈)가 불교를 배척한 문장⁸¹이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본 바로 기억하건대 다만 간단하게 몇 편의 대충한 말로 첫머리에 나온 것을 깨트리면 끝내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은 동문의 노숙한 사람으로 중망을 받는 사람이니, 한번 말하고 한번 침묵을 함에 못사람의 따름과 따르지 않음이 달려 있습니다.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이에 시비가 따라서 갈리니, 우리 어른의 입론의 문장이 뒷날을 기다려서 공적인 통문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비록 자못 무사한 일을 한다고 여길지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통문에서 빠진 것과 드러난 행실과 변론한 문장이 없음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호남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오진영을 애석히 여기고 선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고, 음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을 배반하고 음성을 향했다고 생각합

80 맹자(孟子)가 양주(楊朱)를 물리친 변론 :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의 도를 보호하여 양주와 목적을 막으며 부정한 말을 추방하여 부정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일에 해를 끼치며, 일에서 나와 정사에 해를 끼치니,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吾爲此懼，閑先聖之道，距楊墨，放淫辭，邪說者不得作。作於其心，害於其事；作於其事，害於其政，聖人復起，不易吾言矣。〕”라고 하였다.

81 한유(韓愈)가 불교를 배척한 문장 : 당 헌종(唐憲宗)은 즉위한 뒤 유학을 장려하여 한 때 당나라의 중흥기를 맞았으나 태자가 19세에 요절하자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갔다.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에 당시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있던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서 역대 불교를 믿지 않았어도 임금들이 장수(長壽)한 예를 열거하고 불교의 폐단을 말한 다음 불골을 물이나 불속에 던져 버리라고 극간하였다. 이에 헌종이 대로하여 한유를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내보냈다. 《신당서(新唐書)》 권176〈한유열전(韓愈列傳)〉

니다. 그리하여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 말하기를, “원재(遠齋)가 일찍이 현암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맹세컨대 그 속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왕의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하고 하며 끝어다가 현암을 성토한 여러 사람들 속에다 나열하니【권순명이 조자정에게 답한 편지도 이와 같다.】 이것은 무슨 말로 오늘날과 훗날에 스스로 해명하겠습니까? 선생님을 대신하여 답답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지난여름에 현암이 어찌 음성의 오진영을 분별하여 성토하지 않는 것을 받들어 질문함에 대하여, 어른이 답장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나의 성리설이 선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야흐로 죄목을 가하니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성토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리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방자한 마음이 아니라면 애초에 죄가 될 것은 없습니다. 비록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스승을 속인 자들이 무리를 지어 감히 그 득실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 씨가 속임을 성토한 혐의를 보복하고 싶어서 이를 들어서 이제야 죄를 추궁한다면, 보고 듣는 것이 미혹되지 아니하여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니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또 군자의 마음 씹씹이는 스스로 돌이켜서 죄가 있다면 비록 수천 명이 나의 죄를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토를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스스로 성토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죄가 없다면 비록 도끼가 앞에 있어서 몸이 살육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본디 죄가 없거늘 미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스승 속이는 것을 보고도 성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성심으로 스승을 위하는 도리겠습니까? 근래에 최원(崔愿) 김세기(金世基) 정운한(鄭雲翰) 무리들이 호남 사람들

을 엮어서 속이고 있는데, 차마 그 비참함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투어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현암의 통문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리설이 스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저들과 만날 것이라 하니 선견지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호라, 우리 어른의 마음이 어찌 정말로 이와 같겠습니까? 이를 말한 자는 우리 어른의 마음을 모르는데 한 번 돌이켜보면 이왕의 말들을 후회한다는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이 우리 어른의 현명함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 어른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이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래로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어찌 사람들이 다만 성토하지 않음과 편지로 책망하지 않는 것만 보고, 문자로 써진 것이 자못 몇 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충심으로 고하는 것은 우리 어른이 같은 목소리로 성토하여 당원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어른이 분명하지 않으면 놓지 않는다는 의리를 생각하여 널리 변론의 문장을 써서, 위로는 스승의 마음을 밝히고 다음으로는 저쪽에서 끌어대는 핑계를 끊을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원재 이장에게 보낸 을축년(1925) 4월

答遠齋李丈 乙丑四月

근래에 삼가 들으니 신해유서(辛亥遺書)는 선사의 수필을 거친 원본인데, 또한 우리 어른의 상자 속에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은 금등(金騰)에 의해서 그쳐졌고⁸² 위

82 유언은...그쳐졌고 : 유언이란 무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하여 주공이 섭정하자 관숙(管叔), 채숙(蔡叔), 곽숙(霍叔)이 주공을 모함하여 퍼뜨린 유언비어를 말한다. 금등은 주공이 무왕 대신 죽기를 원해 제를 올

서(僞書)는 공씨의 벽에서 책이 나옴으로써 폐기되었으니,⁸³ 옛 날에도 그러했습니다.

오직 우리 선사는 하늘이 그 마음을 보살피고 귀신이 그 유서를 보호하여, 함에 남겨지고 벽속에 감춰져 어디서나 빛나고 밝으니, 음성(陰城) 오진영의 간덩이가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어찌 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깨져서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청하옵건대, 우리 어른이 스스로 소홀하고 태만한 죄를 끌어다가 현동(玄洞)⁸⁴ 선사의 묘에 고하십시오. 이는 그만둘 수 없는 일이며, 또 유서가 다시 발견된 이유를 널리 선포하여 “정재(靜齋) 간재의 차자 전화구(田華九)의 유서는 감히 선사의 유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악의적인 말을 막으십시오. 이 역시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재 이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6월

答遠齋李丈 乙丑六月

저는 어른과 26년간의 동문인데 시비(是非)의 대관(大關)을 당하여 마치 보통 사람들 보는 듯 하면서 의심을 쌓아놓고도 질문

리고 빌 때 썼던 축문과 일의 전말을 기록한 내용을 담은 함으로, 그 내용은 《서경(書經)》〈금등(金縢)〉에 나온다. 3숙의 유언비어로 주공의 위치가 불안해져 2년 동안 동쪽으로 나가 거처하였는데, 성왕이 금등의 글을 열어 보고 주공의 결백을 알게 된 일을 말한 것이다.

83 위서(僞書)는…폐기되었으니 : 위서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사라진 유가의 경전이 한(漢)나라 이후에 위작된 것을 말한다. 노 공왕(魯恭王)이 궁을 넓히기 위해 공자의 구택(舊宅)을 헐다가 벽 속에서 《고문상서(古文尙書)》, 《예기(禮記)》, 《논어(論語)》, 《효경(孝經)》 등이 나온 것을 가리킨다.

84 현동(玄洞) : 전우의 묘소가 있는 익산 현동을 말한다.

하지 않으니,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입니다.⁸⁵ 근래에 비로소 윤달에 보내신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나쁜 오진영과 반목하여 이별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울러 그가 죄에 대해 수복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시니, 덕이 있는 자는 분명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괴상히 여겼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어른께서 오진영과 이미 수교를 하고 근심스러운 일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하성(下誠)의 예(禮)를 감당함이 없다면, 또한 세세한 이유를 알아 스승을 속였으나 이전 일을 후회한다하니 사람이란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고 아울러 어른이 유서를 방치하여 잊어버렸다고 의심하며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증할 수 없어서 스스로 이전에 힘써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며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어른이 만약에 동문의 보통사람이라면 어찌 반드시 색언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돌이켜 보건대 평일에 스스로 기약한 것은 말하는 것마다 명도와 율곡선생의 고명함에 해당했고, 구하고자 한 것은 일마다 중용(中庸)의 지극한 선(善)이었습니다. 성리(性理)를 전문으로 한 것은 호론(湖論)과 낙론(洛論) 상의 견해라고 스스로 믿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덕성의 순수함과 언동의 법칙이 있음에는 또한 선사가 말한 적도 있고, 사람들이 이간질 하는 것도 없으니, 누가 간옹 문하에 노숙한 사람이요, 호남의 중망(重望)이라 여기지 않으리오? 마땅히 뛰어난 견해와

85 천염지(天厭之) : 공자가 위(衛)나라 영공(靈公)의 부인으로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남자(南子)를 만나자 자로(子路)가 기뻐하지 않으니, 공자가 “내가 만약 잘못된 짓을 하였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라고 맹세했던 고사가 있다. 《논어(論語)》〈옹야(雍也)〉

밝은 마음과 의연한 의리와 확연한 변론이 있어서, 못사람의 어리석음을 열어 밝히고, 못사람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사문을 주도하고 세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유서에 근거해서 책의 발간을 인정하는 의론을 방지하지 못했고, 둘째로는 다섯 사람이 연재를 축출한다는 말을 하여서 못사람을 대할 수 없었고, 셋째로는 오진영이 세 사람을 꾸짖은 비난과 세가지 설의 오류에 대해서 직접 글을 써서 명확히 한 것도 없는데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하설(杏下說: 은행나무 밑에서 한 말)이 전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털고 깨끗이 씻어버렸으니, 처음과 끝이 어긋나고 언사가 맞지 않아서 권형(權衡)이 있는 곳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어른이 노숙인이고 중망을 받았기 때문에 후진의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법칙으로 삼았습니다. 시비가 뒤섞이고 곡직이 전도되어 어지럽고 어수선하여⁸⁶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을 위해서 답답해하고 세도를 위하여 근심합니다. 전용(全翁)을 속여서 세상과 화합하고 사랑을 취한 것은 김평묵(金平默)의 제문이 바로 이것이고, 선사를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속인 것은 음성 오진영의 필설(筆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어찌 일찍이 스스로 전용을 속인다 말하고, 오진영 또한 일찍이 스승을 속인다고 스스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김 씨의 속이는 말은 은밀하여 알기가 어려웠는데도 선사가 오히려 그를 참새처럼 쫓아버렸습니다. 오진영의 속임수는 직설적이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명하여 비호하는 자와 아부하며 당이 되는 자가 있었으니, 또한 이상합니다. 이제 어른이 오진영을 용서하고 보호하며 협력

86 민민(泯泯) : 어리석어 이치에 어두운 모양, 물이 넓고 맑은 모양을 말한다.

하고자 하는 것은 선사의 홍화(弘和)를 체득하고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니,【선사의 홍화를 체득하고 절도에 맞게 한다는 것은 보내온 편지의 말이다.】선사께서 그 해에 김 씨를 비난한 일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홍화를 버리고 좁아서 절도에도 맞지 않는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옹저(癰疽)와 척환(瘡環)을 주인 삼았다면⁸⁷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에 선사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를 두었다면 어떻게 선사가 되었겠습니까? 어른이 아니면 오진영의 속이는 문장을 분별하겠습니까? 옹저의 속임수는 당시 호사자(好事者)의 설인데도 맹자가 오히려 통렬하게 비난을 했으니, 만약에 이 속임수가 공문(孔門)에 사숙한 항렬에서 만들어졌다면 맹자가 악을 미워하는 엄격함으로 그들과 화해하여 잘 지내는 것을 강구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예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속임수를 인가하는 일은 옹저와 척환의 일에 비할 때 크기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날 뿐 만이 아니니, 어른의 이번 일은 더욱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른이 중용으로 자처한 것인데도 감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깊이 의심을 하니, 두텁게 가려서 밝히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

87 옹저(癰疽)와 척환(瘡環)을 주인 삼았다면 : 《맹자(孟子)》〈만장 상(萬章 上)〉 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회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瘡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도 중용을 능히 하기 어렵고 백성이 능히 한 자도 드물다는 것은 공자도 일찍이 여러 번 탄식한 것입니다. 어른께서 비록 명철할 지라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호광(胡廣)처럼 직언하지 못하는 전철⁸⁸을 밟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뒤를 선하게 함으로써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이 있게 해주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충심을 말함에 간혹 직언으로 감정이 상하고 간절하게 들어주는 여부는 어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감히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간곡하게 헤아리지 아니하여 먼저 저촉하여 범한 것이 있다면 목베임을 당한다면 어찌 감히 다시 충간의 말을 하겠습니까.

삼가 들으니, 어른이 “옛날에 유서를 함께 받은 사람이 10여 명 되는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김종희(金鐘熙)와 유영선(柳永善)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어른과 정재는 나이가 모두 많아서 둔 데를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이 어린 김 씨와 유 씨도 잊어버려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참을 인(忍) 자를 백여 번 쓴 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잊을 망(忘) 자를 쓰는 이가 10여 명이 있으니, 괴상할 뿐입니다.

원재 이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0월

答遠齋李丈 乙丑十月

이제 어른이 첨좌(僉座)에 보낸 편지를 보니, 영남에서 문집을

88 호광(胡廣)처럼 직언하지 못하는 전철 : 여섯 임금을 섬기는 동안 후한 예우를 받았으나 임기응변에 능했을 뿐 직언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천하의 중용(中庸)을 지녔다.”고 놀렸다. 《후한서(後漢書)》 권44 〈호광열전(胡廣列傳)〉

발간하는 일을 논한 대목에 “유훈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바뀌지 않을 뒤통수이지만 일은 또한 때에 맞게 경중(輕重)함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뀌지 않을 뒤통수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이른바 중용의 도요 천하의 이치로 다시 더할 것이 없는데, 마침내 다시 일종의 때에 맞게 경중하는 도가 있겠습니까? 또 선사께서 남기신 유서는 진실로 때에 따라 의리를 재단하고 저울질하여 경중을 맞추어 순수하게 중정(中正)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나 선사께서 살아계셨을 때⁸⁹나 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께서 마침내 감히 유서를 가볍게 여기고 인가를 받아 발간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것은 때에 맞는 의리이다.” 하시니, 그렇다면 선사의 유훈은 진즉 시중(時中)의 의리에 어두웠던 것이고, 또 말하기를, “여러 군자는 성인이 회통(會通)을 관찰하여 행한 전례(典禮)⁹⁰를 어기지 말라.” 하시니, 선사께서 만난 지위의 고하는 자연 후세의 상론(尙論)⁹¹이 있겠지만,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사를 믿기를 성인처럼 해도 들은 것을 높이고 아는 것을 행하는 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89 선사께서 살아계셨을 때 : 저본은 “先師時時”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볼 때 “先師在時”인 듯하여 이에 의거해 번역하였다.

90 회통(會通)을 관찰하여 행한 전례(典禮) : 회통은 회합(會合)과 유통(流通)의 뜻으로 엉겨서 막힌 것과 뚫려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성인이 천하의 동태를 살펴보고 회합과 유통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에 맞게 제도와 의례를 행하게 하였다.[聖人有以見天下之動，而觀其會通，以行其典禮]”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 나온다.

91 상론(尙論) :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을 논하는 것으로,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의 “천하의 선사(善士)와 벗하는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겨,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하한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又尙論古之人]”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지금 어른께서는 마음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당락을 이미 결판지어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성인을 따르고 감히 우리 스승을 따를 수 없다.” 하시며, 심지어 인가를 받아 발간하는 것을 성인이 회통을 관찰하여 전례를 행한 일이라고 하기까지 하시니, 그렇다면 이것은 선사의 유훈이 진즉 회통을 관찰하여 전례를 행함에 어두워서 성인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자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선사의 이 유훈은 구구절절 오묘한 도이고 글자마다 정밀한 의리여서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을 것이니, 선사가 선사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께서 삼십 년 동안 망극한 은혜를 입었고 또 선사께 직접 유간(遺簡)을 받아 손때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변모⁹²처럼 여겨서 버리고 저 쪽을 숭상하여 성인의 도라 여기니, 전날 가려 숨겼던 실상이 여기에 이르러 다 노출되어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애석하게도 당년에 붉은 글씨로 옥 같은 문장을 써서 선택하여 정중하게 부탁한 일이 헛수고가 되었으니, 훗날에 무슨 낮으로 지하에 계신 선사를 배알하겠습니까?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하고 검사국에 고소한 것은 이미 이루 다 벌줄 수 없고, 이제 마침내 진주에서 발간을 행하여 또 죄가 한층 더해졌는데, 어른께서 처신하시는 바가 이와 같으시니, 이에 오진영과 화합하고 오진영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고, 오진영

92 변모(弁髦) : 변(弁)은 치포관(緇布冠)으로 관례(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는 것인데 관례가 끝나면 버리고, 모(髦)는 배안에서 자란 황새머리를 잘라 비단주머니에 넣어 머리 양쪽에 묶는데 부모가 별세하면 제거하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쓰지 않는 버려지는 물건을 비유한다.

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엄호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할 말을 다하여 서로 바로잡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⁹³ 감히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어른께서 잘 살펴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어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감히 서로 꾸짖고 탓하여 혐의와 노여움을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소 서장병갑에게 답함 계해년(1923) 7월

答近小徐丈柄甲 ○ 癸亥七月

이전에 받은 편지에서 최병심(崔秉心)의 비문(碑文)⁹⁴에 대해 악을 편든다고 의심하셨는데, 일이 사실과 어긋나니, 군자가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됨⁹⁵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계화도에서 뵈고 대략 의리와 사실을 들어 아뢰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은 이미 훤히 알아 마치 구름을 젖히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같겠지요? 아니면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중에

93 할 말을…않으므로 : 이 말은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온다. 묵자의 제자인 이지(夷之)가 맹자를 만나 토론을 청하자 맹자가 한 말로, 그 주에 “직(直)은 할 말을 다하여 서로 바로잡는 것이다.” 하였다.

94 최병심(崔秉心)의 비문(碑文) : 최병심이 간재를 대신하여 지은 〈울헌최공신도비문(栗軒崔公神道碑文)〉을 말한다. 울헌은 최병심의 선조 최득지(崔得之, 1379~1455)의 호이다. 오진영이 이 비문에 대해 〈편질동문제공(偏質同門諸公)〉에서 신도비문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라의 법도를 어겼고 식자들의 시비를 범했다.”라고 비난하여 양측의 갈등이 심해졌다.

95 군자가…됨 : 이 말은 《논어(論語)》〈자장(子張)〉에 나온다.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니, 말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慎也.]”라고 하였다.

있으십니까? 제가 어른에 대해 비록 노소(老少)의 차이는 있으나 삼가 도의로써 서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심술(心術)과 크게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 어찌 서로를 알지 못함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러러 받들어 질정하니, 대략 더불어 설파해 주셔서 답답함을 풀어주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근소 서장에게 보냄 정묘년(1927) 1월
與近小徐丈 丁卯元月

제가 몇 년 전에 호남에서 인가 없이 문집을 간행하게 되어 현동(玄洞)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최병심의 비문에 대해 악을 편든다고 어른에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략 의리와 사실을 들어서 의리를 봄이 명확하지 못하고 남을 꾸짖음이 실정이 아니라는 말로 고하였으나, 어른께서 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호남에서 스승을 무함한 일로 오진영을 성토할 때에, 어른께서 “석농(石農 오진영)이 우암(尤菴 송시열)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또한 가만히 한탄하며 “깨닫지 못한 것은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의리를 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어른께서 마침내 오진영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사실은 원래 선사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신 지시를 따른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무함의 실상이 있음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근거를 어찌하여 여러 해 동안 감추어서 그의 죄를 숨긴단 말입니까? 이리하여 어른께서는 스스로 오진영에 대해 그 악을 편 들고 스승을 잊었으니, 한갓 의리를 봄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그의 죄는 이미 사실이고 끝내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어른의 충심을 유인하여 그 편지를 내놓게 하였으니, 어른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감추는 것보다는 나오니 저들의 죄를 알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할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간해야 소용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바로잡을 수 있으니,⁹⁶ 어른의 자처하는 도리에 있어 오직 속히 전날에 어둡고 어긋났던 사실과 지금 후회하고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위로 현동에 있는 스승의 묘에 고하고 아래로 사우(士友)들에게 사죄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유몽 정장인창에게 보낸 을축년(1925) 9월

與惟夢鄭丈寅昌 ○ 乙丑九月

옛날 경자년(1900) 겨울에 팔풍(八風)을 맞으며 두 갈래로 눈길을 뚫고 어른 집에서 선사를 어렵게 배알했던 것을 생각하니, 행장은 초라하고 나이는 어려 어리석었는데 어른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매우 곡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금곡(金谷)⁹⁷과 화전(華田) 사이에서 하루처럼 보냈는데, 한번 선사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신 뒤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점점 드물어졌고,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더욱 멀리 떨어져 마치 텅 빈 세상의 인사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일찍

96 지나간...있으니 : 《논어(論語)》〈미자(微子)〉에 나오는 말이다. 초(楚)나라의 은자(隱者)인 접여(接輿)가 공자에게 더 이상 정치에 간여하지 말라고 충고한 말로, '래유가추(來猶可追)'가 논어에서는 지금이라도 은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여기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97 금곡(金谷) : 지금의 충남 논산 지역이다.

이 잠시인들 옛 은혜를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려다가 음성 오진영에게 고소를 당하여 세 번이나 검사국에 호출되었으니, 일의 기미를 헤아릴 수 없었고 화망에 걸려 몸을 해쳤습니다. 비록 불효이나 스승을 위해 죽는 것도 분수와 의리에 관계되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인하여 생각하니, 우리 어른께서는 스승을 섬기는 정성이 평범함을 크게 벗어나서 금곡(金谷)과 화전(華田)에서 진술을 할 때 유독 현명하였고,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곡을 잘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이 시생이 마음으로 열복(悅服)한 것인데, 유독 무함을 변론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종사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스승을 섬기는 작은 것이고, 도를 밝히고 의리를 높이는 것이 스승을 섬기는 큰 것입니다. 우리 어른의 고명함으로 어찌 대소의 분별을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셔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유몽 정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1월

答惟夢鄭丈 乙丑十一月

편지에, “스승을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대의가 있는 바다.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각수(刻手 간행 업자)에게 대신 인가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것은 용서하고 오진영의 편지를 대신 초안한 것을 성토함에 미쳤으니, 선사를 무함한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는 저 오진영이 옆에서 보고 의혹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을 접하고 일을 처리함에 미쳐 반드시 천리(天理)를 다하여 한 터럭의 사심도 없어야 한다.” 하신 말씀은 우러러 의리가

엄정하고 마음이 공평하여 지극한 의론이 같은 무리를 훨씬 뛰어 넘었음이 있음을 알겠으니, 진실로 경복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충심을 올리는 사사로운 마음에 있어 삼가 자임하는 것이 간혹 무겁지 않고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간혹 상세하지 않고 남을 꾸짖는 것이 간혹 너무 높아서 자신을 처신하고 남을 대하는 도리에 십분 지극한 논의가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외람되게도 이렇게 갖추어 다 말씀드리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도(淸道)의 간역(刊役)⁹⁸이 모든 문하(門下)와 공적으로 함께 도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큰 문제는, 심혈을 기울인 스승의 원고를 원수에게 넘겨 인가를 구걸한 것이니, 정말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주모자뿐만 아니라 바른 말로 꺾어 깨뜨리지 못하는 자와 억지로 구차하게 동조하는 자까지 모두 마땅히 공적인 의론으로 성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인이 죄를 지은 사안인 만큼 구차하게 동조한 자가 후회하여 등을 돌리고, 주모한 자가 깨달아서 그만둔다면 이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떤 일종의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자가 감히 스승을 끌어들여 사람들의 공격을 막고 자기 죄를 벗어 스승에게 전가하려는 마음을 내서는 무함하고 증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선사의 밝고도 빛나는 의리가 애매하고 어둡다는 의심을 받게 하였으니, 문인의 의리상 마땅히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

98 청도(淸道)의 간역(刊役) : 청도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을 말한다. 간재 사후에 간재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 및 오진영(吳震泳), 최병심(崔秉心) 등의 제자들이 모여 경북 청도군에 간소(刊所)를 마련하고 간행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때 일제에 인가를 받아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는 간재의 유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수에게 대신 인가를 받게 해서 간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면 비록 이전에 구차하게 동조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피하고 혐의하여 성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맑고 깨끗한 우리 어른의 처음부터 청도의 간역에 관여하지 않은 의리로 만약 그 대열에 끼기에는 부족하다며 겸손히 물러나 ‘앞장서 밝히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하는 대의를 자임하지 않으신다면 스승의 의리가 밝혀지기 어렵고 공적인 논의가 행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도(世道)의 근심을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구해도 또한 옳길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청도 사람들이 아예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니, 스승을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혐의가 크게 불안해서일까요?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문제는 한 번 현동의 선사 묘소에 고하고 한 번 많은 사람들을 수궁시켜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아래에서 독대했다는 말은 원래 대신 초안을 쓴 자가 지어내 제 입에서 나오고 제 손으로 쓴 것입니다.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자가 애초에 이른바 선사께서 홀로 앉아계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다른 서적이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하고 대신 초안을 쓴 것과는 나란히 논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사께서 일찍이 인가 받을 뜻이 있으셨다.”【오진영이 정재에게 대답한 말】,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즈음에 인가 받을 뜻을 내비치셨다.”【오진영이 송병진에게 대답한 말】, “선사께서 일찍이 업자가 대신 인가를 받으면 저자는 관련이 없으니 깊이 구애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셨다.”【오진영이 이자승에게 답한 편지】, “선사께서는 인의를 홀로 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현수언(五賢粹言)》과 예설(禮說)을 인가 받아 간행하게 하셨습니다.”【오진영이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라는 말들은 오진영이 모두 한 말이고 최병심과 성

기운이 말한 것은 없으니, 한 쪽을 놔두고 한 쪽을 성토함에 있어 자연 올바른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강성하고 사나운 저 오진영이 끌어다 핑계대며 무함한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말할 것이 없으니, 옆에서 보고 의혹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면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리를 다하여 터럭만큼의 사심도 없는 것은 성현의 성대한 덕이니, 학자가 진실로 이것을 표준 삼아서 터럭만큼이라도 감히 스스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만약 반드시 우리가 이치를 다하고 사심이 없기를 기다린 뒤에야 스승을 높이고 도를 보호하는 의리를 밝힐 수 있다고 하며, 또 반드시 의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심을 없애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스승을 높이고 도를 보호하는 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자의 이른바 “사람마다 성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다.”는 가르침이 천고에 바뀌지 않는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께서는 다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다시 어른께서 현동의 침좌(僉座)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의 대고(大稿)는 차라리 발간하지 않을지언정 바름을 잃은 상태로 발간할 수는 없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 대의가 환하게 밝혀진 것이 중천에 해가 뜬 것과 같아서 많은 사악한 무리가 그 형체를 숨길 수 없고 세도가 의지할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러러 존경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을 뿐입니다.

저들에게 모록(冒錄 거짓 기록)을 당한 것이 어찌 우리 어른뿐이겠습니까? 죽은 지 이미 3년이 된 이석승(李錫升)도 면하지 못했으니, 이른바 ‘천하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한바탕 웃고 박수칠 일입니다.

희암 김장찬모에게 답함 경술년(1925)

答希菴金丈鄭謨 ○ 庚戌

성현의 경전 중에 나오는 허다한 인(仁) 자는 이치의 이름으로 말한 것도 있고, 마음의 작용으로 말한 것도 있으니, 마땅히 각각 그 입언의 뜻을 따라서 보고 파악해야지 피차를 비교하여 명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문왕의 오지(五止)’⁹⁹는 ‘지어지선(止於至善)’¹⁰⁰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인(仁), 경(敬), 효(孝), 자(慈), 신(信) 다섯 가지는 지선의 조목입니다. 주자가 “지선은 바로 사리의 당연한 극치이다.” 했으니, 이것이 어찌 일찍이 터럭만큼이라도 마음의 작용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치는 공부에 이르면 바로 마음의 작용이니, 사문이 인경(仁敬) 이하 다섯 가지를 오로지 성리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논어》의 ‘충신독경(忠信篤敬)’¹⁰¹과 《소학》의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

99 문왕의 오지(五止) : 오지는 다섯 가지 그친 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 전3장에서 주 문왕(周文王)의 덕을 찬미하며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그치고, 신하가 되어서는 경에 그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그치고, 부친이 되어서는 자에 그치고, 국민과 사림에는 신에 그쳤다.(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與國人交止於信)”라고 한 말을 압축한 것이다.

100 지어지선(止於至善)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 1장의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고 하였는데 지극한 선에 그친다는 뜻이다.

101 충신독경(忠信篤敬) :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서 있을 때는 충신 독경이 앞에 와 있음을 볼 수 있고 수레에 탔을 때는 충신 독경이 멍에에 기댄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이와 같은 뒤에야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라 했는데, 《논어집주(論語集註)》에 “그것이란 충신과 독경을 가리켜서 말

和)¹⁰²와 《중용》의 ‘지인용(智仁勇)’¹⁰³과 《서경》 서문의 ‘덕인경성(德仁敬誠)’같은 것들은 모두 덕행심법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 것이니, 다시 상충의 공부는 없습니다. 만약 그치는 것이 이와 같은 인(仁) 자가 된다면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바로잡아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암 김장에게 답함 경술년(1925)

答希菴金丈 庚戌

인, 경, 효, 자, 신 다섯 가지를 마음의 작용으로 해당시키는 것은 제 견해에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주자가 이 다섯 가지를 사리의 당연한 극치로 여겼기 때문에 성리로 해당시킨 것입니다. 존자의 가르침에 “이치와 하나가 되는 마음도 이치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으로 해당시켰다.” 하셨는데, 삼가 제 생각에는 일이 만약 이치에 맞으

한 것이다.[其者, 指忠信篤敬而言]”라고 하였고, 또 “충신과 독경에 대하여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其於忠信篤敬, 念念不忘, 隨其所在, 常若有見]”라고 하였다.

- 102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和) : 《소학(小學)》 〈입교(立敎)〉에 나오는 말로, 만민을 교육하는 향삼물(鄉三物)의 하나인 육덕(六德)의 조목이다.
- 103 지인용(知仁勇)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천하에 공통된 도가 다섯인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벗의 사귀, 이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하는 도이다. 지(智)·인(仁)·용(勇) 이 세 가지는 천하(天下)의 공통된 덕이다.[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라고 하였다.

면 정미한 심을 리의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의 모습이 공손하고 발걸음이 신중한 것과 조적거처(粗跡去處)도 리의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는 주자가 이미 사리의 당연한 극치라고 했고 명덕과 신민의 표준은 바로 그칠 데를 아는 것으로,¹⁰⁴ 집주(集註)의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¹⁰⁵인 것입니다. ‘사물에 나아가 궁구하는 것〔格物〕은 집주의 ‘사물 이치의 지극한 곳(物理之極處)’으로, 전2장의 ‘지극함을 쓰지 않는 데가 없다.’¹⁰⁶〔無所不用其極〕’는 ‘극(極)’자이니, 이는 단지 천연의 본래 있는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알고 궁구하고 사용하여 ‘잡희경지(緝熙敬止)’¹⁰⁷의 공부에 이른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104 명덕과…것으로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 지선에서 그치는 데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하였는데, 집주에 “명명덕과 신민을 모두 마땅히 지선의 경지에서 그쳐서 옮기지 말아야 한다.[明明德 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라고 한 것을 말한다.

105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章)의 ‘지지(知止)’에 대한 주(註)에 “지(止)란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 바로 지선이 있는 곳이다.[止者, 所當止之地, 卽至善之所在也]”라고 하였다.

106 지극함을 쓰지 않는 데가 없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2장에 보인다.

107 잡희경지(緝熙敬止) :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의 “깊고 원대한 문왕이여, 아, 언제나 광명하시고 공경하여 머무신다[穆穆文王, 於緝熙敬止]” 한 데서 온 말로, 문왕의 덕을 찬탄한 것인데, 이것은 《대학(大學)》 전삼장(傳三章)에서 인용하였다.

함재(김낙두) 족속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涵齋族叔 甲子

지난번 편지에, “군사(郡事) 부군(府君)¹⁰⁸의 유적을 추모하여 감개의 뜻을 매우 지극히 하였는데, 길이 보존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였으니, 백번 받들어 읽음에 효를 생각하는 마음이 끝없음에 우러러 감복하였고 또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줬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기미를 알아보는 것을 명철(明哲)이라 이르고 발자취를 고상히 하는 것을 달절(達節)¹⁰⁹이라 하니, 일을 만나 의리를 취하여 몸을 잃지 않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부군이 고려의 세가로 종실인 창녕군의 사위가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뜻을 굽혀 높은 벼슬과 많은 복록을 취하는 데에 마음을 두었다면 주머니속의 지푸라기를 줍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사가 어찌해볼 수 없음을 환히 알았으나 차마 종국(宗國)이 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또 망복의 뜻¹¹⁰을 보존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여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선왕에게 의로운 뜻을 바쳤으니¹¹¹ 그 의리는 기자

108 부군(府君) :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이다.

109 달절(達節) : 보통의 규범에 구애되지 않으나 절의에 맞는 것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5년 기사에 “성인은 천명(天命)에 따라 행동할 뿐 분수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가는 현인은 분수를 잘 지키게 마련이고, 그 아래 어리석은 사람은 분수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聖達節 次守節 下失節)”라고 하였다.

110 망복지지(罔僕之志) : 망국의 신하로서 충절 의리를 지켜 새로운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절개의 의미. 《서경(書經)》〈미자편(微子篇)〉에, 기자가 “은이 멸망을 하더라고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겠다”[商其淪喪 我罔爲臣僕]는 내용에서 유래된 것이다.

111 자정자헌(自靖自獻) :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선왕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서경(書經)》〈미자편(微子篇)〉에 나오는 말이다.

의 명이(明夷)¹¹²이며 그 자취는 노중련(魯仲連)의 동해(東海)¹¹³와 같으니, 포은(圃隱), 목은(牧隱) 제현들이 나라를 위해 죽거나 발자취를 감춘 것에 비교해볼 때, 명성과 지위의 한미하고 현달함이 비록 같지 않음은 있으나 그 보존하고 실천한 것은 똑같이 나라를 근심한 열렬한 절의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위로 고인을 논하는 자들의 입에서 우열이 논해질 수¹¹⁴ 있겠습니까? 부군께서 하신 이런 일은 이치를 따른 것이고 분수를 다한 것이니, 단지 눈앞의 당연함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어찌 몸과 집안의 이익과 재앙 및 후손들의 흥망을 계산했겠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후손은 지극한 은혜와 두터운 덕을 부군에게 특별히 입은 것이 있습니다. 우왕과 창왕 때에 나라에 일이 많아서 종신대신들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창녕군 한 집안도 죽거나 귀양을 다 갔는데, 만약 부군이 기미를 봄이 밝지 못하고 물러남이 용감하지 못했다가 결국 한번 죽음을 힘써서 그것 때문에 멸족이 되었다면, 우리 김 씨 수천 명 종족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군의 의리를 더욱 믿지만 의리는 홀로 의리가 될 수

112 기자의 명이(明夷) : 《주역(周易)》 〈명이괘(明夷卦) 육오(六五)〉의 “육오는 기자가 밝음을 감춤이니, 곧게 지킴이 이롭다.[六五 箕子之明夷利貞]”에서 나온 말로, 은(殷)나라가 무도(無道)할 때 기자(箕子)가 밝음을 감추어 화를 면하면서도 곧음을 지킨 것을 말한다.

113 노중련(魯仲連)의 동해(東海) : 노중련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사람이다. 유세(遊說)하는 사람이 진(秦)나라를 황제로 떠받들자고 하자, 노중련이 말하기를, “저 진나라는 예의(禮義)를 버리고 수공(首功)을 숭상하는 나라이다. 만일 진나라를 황제로 받든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권83 〈노중련추양전(魯仲連鄒陽傳)〉

114 우열이 논해질 수 : 원문의 ‘헌지(軒輊)’는, 수레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것을 헌(軒)이라 하고,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것을 지(輊)라 하는데, 명령되어 우열을 논하는 것을 말한다.

없고 인과 더불어 행해야만 넉넉하여 구차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성씨가 바뀌어 나라가 교체되는 때에【역성의 때】 사서에 꺾문이 많고 문장 또한 꺼리는 것이 있어서 기전 송현은 아득하여 징험하기 어려우니 단지 “망복의 뜻을 지니고 온전히 관향으로 돌아왔다”는 여덟 글자만이 쓸쓸이 예전 보첩 중에 있으니 그 후손들의 한스러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매우 다행스럽게도 만수산¹¹⁵의 충의록이 나와서, 부군이 여덟 번 판사를 지냈다는 것과 두문동 72현¹¹⁶과 한 몸으로 도를 같이 했다는 것이 《충의록》중에 찬란히 빛나니, 공자의 옛집 벽의 문서¹¹⁷와 범백송의 무덤인형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옛 보첩중의 여덟 글자와 부절처럼 딱 맞아서 비로소 지극한 보배는 땅속에 묻혀 있을 수 없고, 신비한 물건은 하늘이 아낌없이 응하고, 실덕(實德)과 지행(至行)은 오래될수록 더욱 빛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문동 72현은 조정에서 높이 포장하고 사림이 공적으로 칭송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우리 선조의 의행과 고절은 사라져서 오백 년 동안 들리지 않으니 이것은 후손들이 널리 고증하고 근거를 대어서 힘을 다해 찬양(闡揚)하지 못한 탓이니, 후손들도 똑같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러 탄식하였습니다. 선조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는 것은 진실로 몸을 신칙하여 덕을 전진시키고, 서로 닦으며 힘을 써

115 만수산(萬壽山) : 개성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116 두문동 72현 :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개풍군 광덕산 기슭의 두문동에 들어가서 끝까지 출사(出仕)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두문동 태학생(太學生) 72인이라고도 불렸다.

117 공벽(孔壁) : 한(漢) 나라 경제(景帝) 때 노 공왕(魯恭王)이 집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중에 공자의 구택(舊宅)을 허물자 벽 속에서 《상서(尙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등이 나왔는데, 모두 선진(先秦)의 과두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다.

서, 효자들의 효도가 다함이 없도록¹¹⁸함에 달려있지, 선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상언(上言)하여 정려문을 하사하는 은전을 받고, 묘도문자를 청하여 묘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현의 충효성덕과 대절은 전모¹¹⁹ 전기 이하로부터 두루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찍이 세도를 위한 급급한 하나의 큰 일이 아님이 없었는데 하물며 회옹(晦翁)이 ‘불인하다 책망한 것’과 우암(尤庵)이 ‘자식의 도리를 찬미한 것’은 진실로 편지에서 인용한 것과 같음이 있으니, 자손이 친절히 해야 할 업무에 있어서는 세도의 책임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겨를이 없어서 진실로 고증을 자세히 하지 못하고 충분히 징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회옹이 기롱한 것을 장차 무슨 말을 하여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강산이 변했으니 정려를 세워 표창하는 것은 이미 옛날의 광경입니다. 다만 문장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인데, 대인의 큰 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필가들이 그 사람에 대해 쓰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어찌해야 합니까?

함재 족숙에게 답함 을축년(1925) 8월

答涵齋族叔 乙丑八月

스승을 속인 것을 아직 씻지 못했는데 사화가 매우 비참하니

-
- 118 선류불궤(善類不匱) : 석류불궤(錫類不匱)의 오기인 듯하다. 석류(錫類)는 길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효자를 가리킨다. 《시경》 대아(大雅) 기취(既醉)의 “효자의 효도 다함이 없는지라, 영원히 복을 받으리로다. [孝子不匱, 永錫爾類]”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 119 전모(典謨) : 전은 《서경(書經)》의 요전, 순전이며, 모는 대우모, 고요모, 익직 등의 편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두 제왕의 도리와 치국이 대도를 논하였다.

통곡하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상촌 신희의 이른바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되니”¹²⁰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화가 그칠 것입니다”라는 것은 범공¹²¹이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목숨을 버려서 한번 죽는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으니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는 것은 모두 스스로 나의 의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번도 출세하지 않고 저항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투서하여 뜻을 보이고 문을 닫은 후 스스로 바르게 할 따름이라면, 우리 족속이 인가를 금지하고 속임을 성토하니 한결같이 하나의 절개가 순수하게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일 뿐 둘이 아닌 대의를 한 번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가 없어서 묵묵히 뱃속에 감춰놓고 돌아간다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죽을 만함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명예로 삼을 수 없으며, 스승의 의리를 밝히고 세도를 경계하는 방법은 아마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경문을 백번이나 엄숙히 읽으니 몸을 지키는 의리와 스승

120 무릇…안 되니 : 김택술이 《상촌집(象村集)》의 내용을 직접 인용했기 보다는 홍직필이 말한 “상촌(象村 신희(申欽))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象村嘗云凡係戕賢毒正之類, 生不能劓肉机上, 則死當十世不宥]”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21 범공 : 범방(范滂)을 말한다. 여남의 독우(督郵)인 오도(吳道)가 조칙을 받고 범방(范滂)을 체포하러 왔다. 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君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老母로 하여금 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21

을 섬기는 의리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감복하게 합니다.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했을 때 도적을 토벌하다 죽은 사람은 오직 동군태수 적의(翟義)¹²²였고 안록산이 당나라를 혼란시킴에 성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오직 수양(睢陽)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¹²³이니, 저 높은 관직과 많은 녹을 받으며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은 처음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마침내는 적에게 아부했습니다. 의리를 앞세우고 충성으로 보답하여 나라를 위해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먼 지방의 산관(散官)¹²⁴들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일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근래에 족제 건식도 호출을 당하였습니다. 검사가 “어찌하여 강태결(姜泰杰)의 생활을 파괴하며 방해했는가?”라고 말하니, 그가 답하기를 “오진영을 금지하고 토죄한 일은 강태결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다시 묻기를 “쥐를 잡다가 그릇이 깨진다.”¹²⁵”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마땅히

122 적의(翟義) : 전한 말기의 인물이다. 동군 태수(東郡太守)로 있을 때 간신 왕망(王莽)이 나이 어린 영(嬰)을 천자로 세우고 섭정하자, 유신(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고 스스로 대사마(大司馬)라 칭하며 기병(起兵)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한서(漢書)》권84 〈적의전(翟義傳)〉에 자세하다.

123 장허(張許)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는데, 장순(張巡), 요은(姚閔), 남제운(南霽雲), 허원(許遠) 등이 수양(睢陽)을 굳게 지켜 2년 동안이나 버텼으나 성이 고립되고 식량이 떨어져 함락되고 말았다. 《구당서(舊唐書)》권187 〈충의열전하(忠義列傳下)〉

124 산관(散官) :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제 근무처는 없고 명칭만 있는 관직인 산직(散職)을 가진 사람.

125 쥐를…깨진다 :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에서 속어(俗語)의 “돌을 던져 쥐를 잡고자 하나 그릇이 깨질 것을 꺼린다.〔欲投鼠而忌器〕”라는 말을 인용한 데서 온 말인데, 해(害)를 제거하고자 하나 꺼리는 바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릇이 깨지는 것은 손해이지만 마땅히 쥐를 징벌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드시 “쥐가 어떻게 돈을 낼 수 있겠는가.”¹²⁶라고 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대답하기를 “오진영은 사람 쥐이니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답이 여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최성겸이 경존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오진영이 ‘내가 돈이 있다면 마땅히 강태걸의 손해를 배상해줬을 것인데, 가난하여 할 수 없으니 곧 그 고소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땅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면 오진영에게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어찌 부당하겠습니까. 또 ‘그 고소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비록 그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면하게 하고 싶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자복(自服)¹²⁷하면서 한 말입니다. 권순명이 편지에서 ‘사람이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말은 오히려 상도를 지키려는¹²⁸ 것이 있어서 생의가 완전히 사라짐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진영이 답한 것에 이르면 사림에게 재앙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사에게도 누를 끼치는 말이니, 경중을 전도시켜서 황홀하고 번쩍거리게 하는 기교는 이미 후회하여 자복할 희망은 없으니 비록 그 악을 가리고 싶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서글프게만 보일 따름입니다.

126 징출(徵出) :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7 자복(自服) : 친고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128 병이지심(秉彝之心) : 타고난 착한 선성을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타고난 선성(善性)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이는 《시경(詩經)》〈대아(大雅) 증민(蒸民)〉에 “백성들이 몇몇한 선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民之秉彝, 好是懿德.]”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함재 족속에게 올림 을축년(1925) 11월

上涵齋族叔 乙丑十一月

조카가 스승을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원망과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완비되지 못한 스승의 원고를 수습하는 일과 시비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전에 정재(靜齋 전화구)를 만났을 때 저에게 “뒷일이 막막함을 면할 수 없다.” 하였는데, 때로 한번 씩 생각하면 또 막연하여 한번 씩 한숨을 쉽니다.

함재 족속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涵齋族叔 丙寅

조카가 명심할 것¹²⁹은 검사를 대하여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돌아가 선사를 뵈는 것이었으니,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창졸간에 나와 졸렬한 계책이 겨우 스승을 저버리는 죄를 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¹³⁰ 사문(斯文)에도 인재가 있다.”라는 장려를 받았으니, 조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129 명심할 것 : 원문의 ‘서신(書紳)’은 띠에 쓴다는 말로,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나온다. 자장이 공자에게 행(行)을 묻자 ‘언충신행독경(言忠信行篤敬)’을 말해 주니, 자공이 이 말을 띠에 썼는데, 집주에 이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다.

130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9장의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백대를 기다려도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에서 군자(君子)의 도(道)를 설명하는 말을 인용하였다.

문하의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도리에도 미진할까 염려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전진할 수 없다.”는 말로 경계해 주심에 이르러서는 조카가 비록 감히 대번에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으나 오직 사랑해 주심이 깊기 때문에 사려가 이와 같이 원대하신 것이니, 감히 두터운 은혜에 절하여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변론하고 성토하는 일은 족속끼서 먼저 의로운 소리를 먼저 외쳐 마치 봉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듯 하였고, 이어서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여¹³¹ 마치 사나운 번개와 거센 바람 같았으니, 만약 족속이 아니었다면 선사의 뒷일이 거의 그대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마리를 접하고 방법을 얻은 것일 뿐이니, 어찌 사문의 후진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외워 저술하기를 좋아하는 폐단은 진실로 편지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늘어 공부함에 있어 더욱 절실한 경계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최대한 섬세하게 하고, 이 이치를 잘 길러서 지극히 성숙하게 하여 접한 것과 얻은 것이 더욱더 정밀해지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것에 더욱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오진영과 권순명 이하 10여 명의 무리들이 간특한 마음으로 의리를 해친 짓은 말하면 입만 더러워집니다. 저들이 비록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게 많이 찍어서 가가호호 갈무리하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하고 배반

131 거친…하여 : 주자가 진량(陳亮)에게 보낸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孔子豈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하는 데에 힘쓴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것을 배척함을 말한다.

한 죄 역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가가호호 주별하고 성토할 것이니, 그가 공을 세워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마침 죄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거들먹거리며 스스로 사문의 최고 공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떠도는 혼이 채백을 빌린 격이라 삭연히 생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른바 ‘곧지 못한데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이라는 말¹³²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함재 족속에 올림 병인년(1926)

上涵齋族叔 丙寅

듣자하니 저 일제가 장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복표(服標)¹³³를 달게 한다고 하니, 이것은 15년 전인 임자년(1912)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통치 기간이 오래되고 자신들의 세력이 굳건해지자 아마도 다시 더욱 뻣뻣한 그물을 펼치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말을 하자니 분통이 터져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킬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혈기가 있고 타고난 본성이 있는 사람이면 어찌 기꺼이 저 오욕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할 때¹³⁴입니다. 이때

132 곧지…말 : 이 말은 《논어(論語)》〈옹야(雍也)〉의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곧은데 곧지 않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라는 말을 줄여 쓴 것이다.

133 복표(服標) : 상복을 대신하여 일상복의 왼쪽 가슴에 상례를 치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다는 표지이다.

134 사는…때 : 원문의 ‘사어취웅(舍魚取熊)’은 《맹자(孟子)》〈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말이다. 생선요리와 곰발바닥요리를 다 원하지만

를 당하여 이를 위해 죽는다면 후세에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재 족숙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涵齋族叔 戊辰

출가한 딸을 위해 입는 복은 예법에 대공복인데, 개가(改嫁)를 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전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께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가를 금지했으니 복도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론을 하셨으나 국전(國典)에서는 다만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라.”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서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대부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일단 청상과부가 있으면 백방으로 개가하는 것을 막고 심한 경우에는 독약을 투약하거나 피를 말리고 살집을 벗겨서 사람으로 살 생각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비록 성문화 된 것은 없으나 풍속으로 거의 금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는 개가를 금한다고 말하니, 이것은 매우 불분명한 말입니다. 이미 개가를 금한 적이 없으니, 복을 끊을지 말지를 또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현인을 세우는데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는 것¹³⁵은 선

한 가지를 택해야 할 때에는 곰발바닥요리를 택한다는 말인데,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는 요지로, 사는 것과 의를 둘 다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의리를 취함을 비유한 것이다.

- 135 현인을…것 :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탕 임금의 중도를 잡고 행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였다.[湯, 執中, 立賢無方]”라고 하였다.

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 해서 인재를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법이 아닙니다. 또 문왕의 정치는 반드시 홀아비와 과부를 먼저 위하였는데, 늙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였으니, 옛날 성인의 세상에 서는 젊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개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왕이 금법을 세운 적도 없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큰 욕망이니, 사람의 욕망을 막는 해로움은 냇물을 막는 해로움보다 심합니다. 이에 번고가 골육 간에 생겨나 금수에 빠진 이후에 그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흉악함을 면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가하는 것을 형세상 금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성현이 복을 만든 의리에 이르러서는 은혜로 복을 입는 것이 가장 으뜸이니, 만약 딸이 개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복을 끊는다면 이것은 생육의 은혜를 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자식과 아버지 사이는 생육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개가한 자식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다면, 자식 또한 개가한 어머니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른께서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의로 일으켜¹³⁶ 복을 끊을 것이다.”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

136 의로 일으켜 : 원문의 ‘의기(義起)’는 예문(禮文)에는 없지만 의리에 입각해서 행하는 예법을 말한다. 《예기(禮記)》〈예운(禮運)〉의 “선왕의 예법에는 그러한 예가 없을지라도, 의리에 입각해서 적절하면 새로 일으킬 수도 있다.[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는 삼가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바로잡아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혁파하고 개가를 억지로 막고 독하게 금하는 풍속을 제
 거하여, 마땅히 잘못된 법규의 말류에 따라 다시 복을 입지 않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불인(不仁)한 죄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
 라 여깁니다. 어른께서 또 “《춘추》에 다만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만 쓰고, 적처(賊妻)를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
 는 것은 쓰지 않았으니, 개가하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 그런 것이
 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삼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추》
 는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인하여 지은 것입니다. 사관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의 정사와 군신부자 사이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고, 가정의 부부에 대한 것은 드물게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쉽
 게 볼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나머지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
 가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적처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성인이 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삼강을 없애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가 어른의 생각에 이른바 적처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가
 한 자에 해당시키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아비를 시해하고 지아비의 집안
 을 멸망시킨 부류가 있는 연후에야 적처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
 마다 죽일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복을 끊는 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고, 음란하고 추
 악하여 행동이 개돼지와 같은 자도 복을 입지 않는 데에 해당합
 니다. 이외에 지아비가 죽어 개가했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 자는
 마땅히 본래 정해진 복을 입을 따름입니다. 어른께서 다시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재 족속에 올림 무진년(1928)

上涵齋族叔 戊辰

고모, 자매, 조카딸로 개가한 자는 복을 끊는다고 하신 말씀은 이끌어주시는 가르침을 중히 받았으나 감히 견해를 바꾸어 가르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정과 천리에 관계되어 구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잘 것없는 견해를 말씀드려 질정을 받겠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지친이 죽어 복을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큰 악행을 저질러 생전에 이미 그 은혜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가령 족속의 고모, 자매, 조카딸 중에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어서 개가한 자가 있다면 과연 문득 배척해 버리고 절대로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으로 따져 볼 때 차마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천리와 합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서 은혜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 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또 살아서 비록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죽어서 마땅히 복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제가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개가한 어머니에 대해 복을 낮추어 입는 것으로 방증을 세워 “삼년 상은 비록 낮추나 대공 소공복에 해당하는 상은 끊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심에 이르러서는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자식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처가 되지 못했으니, 자식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을 낮추어 입는 것은 나를 낳아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모가 시집을 가면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머니가 개가를 하여 복을 낮추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니 복을 낮추지 않으면 오히려 아버지를 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니 끊을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 고모, 자매, 조카딸이 끊은 지아비는 나와 무슨 중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끊은 지아비 때문에 나의 지친의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가 끊은 지아비를 보기를 나의 아버지처럼 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정과 천리의 편한 바는 아닙니다. 또 만약 개가한 것이 살아서 은혜가 끊어져 죽어서 복이 끊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자(程子)는 반드시 과부가 된 조카딸을 시집보낸 일을 태중대부의 행장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자(朱子)는 반드시 유공작(柳公綽)이 사위를 택하여 과부를 시집보낸 것을 《소학》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숙경(何叔京)의 묘문에 반드시 그 딸이 나점(羅點)에게 개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자와 주자는 대현입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승을 믿으라.”¹³⁷ 했으니, 조카도 족속께 또한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7 감히…믿으라 : 《근사록(近思錄)》 권3 〈치지(致知)〉에, 정이(程頤)가 문인(門人)에게 답하기를 “공자와 맹자의 문인들이 어찌 모두 현철(賢哲)이었겠는가. 진실로 보통 사람들도 많았으니, 보통 사람으로서 성현(聖賢)을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겠지만 오직 감히 자신의 소견을 믿지 않고 스승을 믿었다. 이 때문에 구한 뒤에 얻었는데, 지금 제군들은 나의 말에 대해 조금만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버려두고 다시는 생각해 보지 않으니, 이 때문에 끝내 다르게 되는 것이다. 곧 바로 버려두지 말고 다시 생각해야 하니, 이것이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 [孔孟之門, 豈皆賢哲. 固多衆人, 以衆人觀聖賢, 弗識者多矣, 惟其不敢信己, 而信其師. 是故求而後得, 今諸君於頤言, 纔不合 則置不復思, 所以終異也. 不可便放下, 更且思之, 致知之方也.]”라고 한 데서 보인다.

함재 족숙에게 답함 정묘년(1927)

答涵齋族叔 丁卯

흰 갓을 종신토록 쓰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난 자취에서 고증해보면,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태자는 마의를 입고 풀을 먹으며 남은 생애를 마쳤고, 명나라가 망했을 때 진신선생¹³⁸은 때때로 쇠질¹³⁹을 입고 황막하고 끊어진 언덕 사이에서 통곡했습니다. 선사께서도 무오년(1918)의 대상 때 삼년을 지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흰 갓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흑인의 논의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다만 사서인(士庶人)의 의리가 태자나 대신과는 같지 않고, 또 광무(光武 고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융희(隆熙 순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니,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약 종신토록 흰 갓을 쓴다면 거처, 음식, 사람접대, 출입이 반드시 평범한 사람과는 크게 다른 만큼 명실이 상부하여 표리가 같지 않음을 면하는 것으로 귀결된 연후에야 의리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곡절은 아마도 편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심정이 가는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상에 동자는 기년복을 입고 관자¹⁴⁰는

138 진신선생(摺紳先生) : 홀(笏)을 큰 띠에 꿰은 사람들로, 조정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139 쇠질(衰絰) : 참쇠복(斬衰服)과 수질(首絰)·요질(腰絰)을 말한다. 수질(首絰)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새끼줄에 삼겹질을 감아 만든 것이다. 남자는 두건(頭巾), 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소공(小功) 이하에는 수질을 쓰지 않으며, 참쇠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든다. 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것으로, 짚과 삼으로 동아줄처럼 굵게 만든 띠이다

140 관자(冠者) : 관례를 치른 사람. 즉 성인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

삼년복을 입는 것이 전례이니, 기년 이후에 동자가 복을 벗는 것은 그가 동자이기 때문에 동자의 전례를 쓰는 것이고, 삼년 안에 관자가 흰 갓을 쓰는 것은 그가 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자의 전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차길삼일(借吉三日)¹⁴¹이라는 글은 3년을 통틀어 말한 것이지 기년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니, 동자로 이미 복을 벗은 자가 관례를 치른 이후에 흰 갓을 쓰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사께서 이미 논하여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천하가 흰옷을 입고 있는 속에서 홀로 검은 갓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하신 것은 참으로 지론입니다.

저번에 신현(愼軒)과 변론하신 것은 근래에 다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제 견해로는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면, 자연 마땅히 서로 합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신현에게 “단발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면, 가령 그대가 당했을 때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면, 분명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답할 것입니다. 또 묻기를,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내며 단발하여 나라를 선위한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인가, 아닌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중도이다.” 할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과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한 것의 경중은 어떠한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원수를 갚는 것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속의 의론은 당연한 것이고 신현의 뜻도 여기에서 벗어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족속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

141 차길삼일(借吉三日) : 상중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는 말로, 부득이 혼인을 치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례의(五禮儀)》에 “졸곡 후에는 혼인을 허락하여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卒哭後, 許嫁娶, 借吉三日]” 하였다.

내고 나라를 선위하며 원수를 갚는 것이 비록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가 될 수는 있으나 만일 군자가 교훈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고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비록 단발하여 희생이 되고 오랑캐가 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분명 “이처럼 교훈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현의 뜻이 바로 훗날의 폐단을 염려한 것이고 족속께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신 것도 마땅히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두 논의가 합치하지 않는 것은 피차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서로 다 말하지 않아서 인 만큼 한자리에 앉아 충분히 강론하여 의사가 통하고 의취가 귀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니, 변론을 서로 높게 하여 점점 어긋나고 격렬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아버이가 병이 나서 넓적다리를 잘라 드리는 것이 비록 중도가 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편작이나 화타 같은 명의가 나타나 병을 보고서 ‘이 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여 보충한 뒤에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려 그 자식이 행한다면 중도를 얻은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하여 말하기를, “만약 아버지 병을 치료하려면 비록 살점을 끊어 드린다 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또한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아마도 오늘의 논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재와 나재익용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懶齋·益容 ○ 辛未

삼가 들으니, 두 어른이 근래에 삭발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오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이로 인

해 꺼리고 싫어하게 되어 장차 갈라설 지경이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기와 구양수가 《주역》〈계사전〉에 대해서와 사마광과 범중엄이 종률(鍾律)에 대해 또한 서로의 의론의 크게 차이가 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송나라 조정에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분으로는 먼저 이 네 분을 꼽으니, 옛사람으로 뜻을 같이한 분들도 이견(異見)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동이(同異)를 다투다가 원수처럼 틈이 생기는 것은 말세의 누추한 선비들의 습관입니다. 삭발을 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다만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꾸기를 마치 산승(山僧)이나 성조(城朝)¹⁴²【한나라 때 죄를 짓고 삭발 당해 복역하는 자를 일컫는 명칭이니, 오늘날의 징역과 같다.】의 모습처럼 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하여 손을 쓰려는 데서 나온 것이고 절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함재어른만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꾼 데에서 나오지 않고 혹 오랑캐에 물들어 기세를 타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면 비단 나재 어른만 불가하다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불가하다 말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큰 의리이니,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이 아닙니다. 기미에 임하여 반드시 어쩔 수 없다면 삭발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중화와 오랑캐는 큰 경계이니, 몸을 한 번 잃으면 또한 자식이 아닙니다. 만약 오랑캐에게 붙어 절개를 굽혀서 원수를 갚았다면 삭발은 우선 놔두고 비

142 성조(城朝) : 한나라 때의 형벌 이름이다. 형기는 4년이며, 아침 일찍부터 성을 쌓는 노역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의 명칭은 성단(城旦)인데, 조선 태조(太祖)의 개휘(改諱)인 '단(旦)'을 휘하여 동의이자(同義異字)인 '조(朝)'로 바꾼 것이다.

록 높은 관과 넓은 띠를 보존한들 또한 어찌 옳겠습니까? 함재어른이 비록 복수의 대의를 주장하시지만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은 익히 들으셨을 것이니, 몸을 잃어 오랑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재 어른이 비록 중화와 오랑캐의 큰 경계를 주장하시지만 원수를 갚느냐 안 갚느냐와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분명 기미에 임해 모습을 바꾸는 것까지도 아울러 허락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두 어른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되 뜻을 양보하여 자기 견해를 밝히고 마음을 비워 상대의 말을 다 하게 한다면 자연 마땅히 환연히 서로 풀릴 것입니다. 피차가 모두 이치에 맞는 견해를 지닌 만큼 길은 달라도 결론은 같음이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거듭 글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며 서로 낮추려 하지 않아서 마침내 비루한 선비들이 논쟁하다가 원수가 되는 풍조로 귀결되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강론은 의리를 밝혀 덕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신다면 어찌 의리를 손상시키고 덕을 어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조상도 같고 스승도 같아 의리가 타인과는 유별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번연히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자신을 낮추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도를 힘써 다하여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재 족숙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族叔 辛未

어제 들으니, 사인(士仁 간재 장손 전효일)이 문하에 와서 오진영을 편들고 호남을 배척한 잘못을 사죄하고, 또 제 동생을 찾아와

“그대의 만행이 겨를이 없어 사죄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본디 정견(定見)이 없어서 한쪽의 꿈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못을 알고 와서 사죄했으니, 마땅히 옛날의 잘못을 들춰내 그로 하여금 ‘선사의 사손(嗣孫)은 서로 관계를 끊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¹⁴³과 친해져 혼인을 맺고자 하기까지 하자 선사께서 성심으로 편지를 보내 깨우쳐서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살펴볼 때 우리 쪽에서 사인이 의혹을 당했던 날에 일찍이 성심으로 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극진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재 족숙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涵齋族叔 癸酉

저번에 김동봉(김시습)과 안중근의 우열을 물으셨는데 물러나 생각을 하니, 두 사람의 품류가 같지 않아서 수립한 것이 각자의 품류를 따랐으니 나란히 비교하여 우열을 논한 수는 없습니다. 동

143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 : 임동만은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의 장남이며, 이승욱은 임헌회의 제자이다. 이 내용은 전우와 이승욱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우와 이승욱은 임헌회가 죽기 전까지 매우 절친하게 지냈지만, 임헌회 사후 갈라서게 된다. 1876년 10월 29일 임헌회가 위증하자 전우와 이승욱은 연기(燕岐)의 죽안(竹岸)에 찾아뵙는데, 이승욱은 11월 4일 조고(祖考)의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11월 16일 결국 임헌회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전우는 집촉록(執燭錄)을 썼는데, 이에 대해 이승욱은 스승을 욕보인 것이라고 하여 고산학과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윤영이 쓴 《뇌변(誅辨)》에 기록되어 있다.

봉은 고아(高雅)한 선비이고 안 씨는 무용(武勇)이 있는 사람이니, 안 씨가 하는 것을 동봉이 반드시 할 수가 없고, 동봉이 하는 것을 안 씨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의(忠義)라는 하나의 절개가 똑같이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성의 타고난 본성은 품류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민이 의리를 지켜 천만 번 고초를 겪어도 후회하지 않고, 필부가 용기를 떨쳐서 큰 우두머리를 죽이고 치욕을 설욕한 것은 모두 탁월하고 빛나서 이전의 역사에서 찾아보아도 필적할 사람이 없고 후세에 전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적을 더듬어 중정(中正)의 도로 논한다면¹⁴⁴, 동봉은 중이 되어 자식이 없으니 이미 지나친 데에 문제가 있고, 안 씨는 모습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문을 숭상했으니 또한 중도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 씨가 처형될 때 《상서(尙書)》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정밀하고 한결같아야 중도를 잡을 수 있다[人道危微 精一執中]’¹⁴⁵는 말을 외웠으며, 양

144 그러나…논한다면 : 출처거취(出處去就)를 중정(中正)한 도리에 맞게 하여 은둔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돈괘(遯卦) 구오(九五)〉에 “아름다운 은둔이니, 정하여 길하다.[嘉遯貞吉]”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서 “구오는 중정이니, 은둔하기를 아름답게 한 자이다. 처함이 중정의 도를 얻어서 때에 맞게 멈추고 행함이 이른바 아름다움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정정하여 길함이 된다.[九五, 中正, 遯之嘉美者也, 處得中正之道, 時止時行, 乃所謂嘉美也, 故爲貞正而吉]”라고 하였다.

145 인심은…있다 : 원문의 ‘인도위미 정일집중(人道危微精一執中)’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서 순(舜) 임금이 우(禹)에게 “인심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미약하기만 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면서 한결같이 행해야만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당부한 16자(字)를 압축한 말인데, 정주학(程朱學)에서 이것을 유가(儒家)의 도통(道

복을 벗고 한복을 입어 바른 죽음의 의미를 얻었으니, 또한 신학문을 한 사람의 소행과는 같지 않거니와 오히려 몸으로는 유학을 통달하고도 끝내 중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보다 나으니, 또한 숭상할 만합니다. 어른의 견해는 다시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함재 족속에게 올림 정축년(1937)

上涵齋族叔 丁丑

어제 뵈었을 때 “종학자(從學者)를 시켜 김세기(金世基)의 흥문(凶文)을 변론하는 통문을 띄우겠다.” 하신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조카가 망극한 무함을 받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리 하신 것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조카가 처음부터 주장한 의리는 단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김세기의 글이 비록 흉악하나 무함 당한 것은 저 자신이니, 조카가 주장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변론하지 않을 바에 있습니다. 또한 그가 무함한 것이 ‘사람이 거상(居喪)에 예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했으니, 그가 여러 가지 없는 사실을 엮고 날조한 상황은 이 점에 나아가 알 수 있는 만큼 또한 변론할 것도 못됩니다. 또한 오진영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된 까닭은 모두 ‘이기기를 힘쓴다(務勝)’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스승을 끌어다가 무함을 증명하여 인가(認可)를 성토하는 사람을 이기고, 검사국에 고소하여 무함을 변론하는 사람을

統)인 십육자 심전(十六字心傳)으로 강조하면서 개인의 수양과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원리로 삼았다.

이기고자 종학자로 하여금 흉악한 무함을 지어내게 하면서, 이와 같은 글의 종류를 여러 차례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그가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히고 선비를 화에 빠뜨린 것 외에도 다시 허다한 죄악의 확실한 증거와 실제로 범한 것으로 모두 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실로 소인과 더불어 악다구니를 하며 보루를 마주하여 서로 다투고 허물을 본받아 이기기를 힘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나라 왕 부견(符堅)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학대하면 나는 인으로써 하고, 저 사람이 폭력을 쓰면 나는 의으로써 하고, 저 사람이 급박하게 하면 나는 관대하게 하여 매번 서로 반대가 되게 한 이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⁴⁶ 하였으니, 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얻은 것인 데다가 이미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진(展璣鎭)이 비록 음성의 오진영을 편들었던 사람이나 오히려 “호남의 문자는 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음성 쪽의 문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주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히 바뀌지 않을 공론입니다. 부견이 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매사에 반드시 십분 지당한 도를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제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가 어른의 견해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흉악한 글

146 저 사람...있다 : 이 말은 대부분은 유비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13, 〈한소열(漢昭烈)〉에 “그러므로 ‘조조가 다급하게 하니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포악하게 하니 나는 어질게 하고, 조조가 속임수로 하니 나는 진실되게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매양 조조와 반대되게 해야 일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것은 가장 좋은 방책이다.[故曰操以急吾以寬, 操以暴吾以仁, 操以譎吾以忠, 每與操反, 事乃可成, 此策之善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 첨부되어 있는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곧장 선사를 무함하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게 한 것에 이르러서는 통렬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나재 종장익용에게 올림 정사년(1917)

上懶齋宗丈益容 ○ 丁巳

남씨의 <승적설>¹⁴⁷을 다시 자세하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살펴보건대, 그가 말한 “차자는 승적을 할 수 있고, 장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불변의 의론이 되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적의 설은 비록 후세에 나왔으나 사실은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無嫡子立庶]”라는 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글에 나아가 보면 단지 지손(支孫) 집안만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비록 종가 집안이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가 집안이 이미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또한 마땅히 대종과 소종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해 보면, 비록 대종이라도 이미 승적할 수 있는 서자가 있다면 별도로 후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이미 승적했다면 또한 남씨의 설치럼 부조(父祖) 이상의 제사를 제천하여 차적(次嫡)의 집안에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예기》 <단궁>에 석태중이 죽었을 때 적자는 없고 서자 6명이 있어서 후사로 삼을 자를 점쳤습니다. 석씨의 집안이 종가인지 지손인지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적자가

147 승적설(承嫡說) : 서자(庶子)가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제도에 대한 설이다.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것은 옛사람들에게 두루 행해진 예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고시대에 있어서는 율곡(이이), 신재(김집), 남명(조식), 기암(정홍명)과 정 문익공(정광필)의 증손 모씨는 모두 첩자(妾子)로 승적을 했습니다. 율곡과 기암은 지손 집안의 일이니 잠시 놓아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남명과 정 문익은 모두 여러 대를 이어온 종가 집안인데, 우암이 정씨 집안의 첩자가 문익공 이하 4세의 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가례증해》 1권 23판에 보임】 만약 의가 아니라면 우암이 어째서 정당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신재가 종사를 그 동생에게 전해준 경우는 정말로 그 의리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서자는 제사를 받들 수 없어서 차적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으니, 신재가 말하기를, “고례(古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국법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증해 1권 23판에 보임】 그렇다면 신재는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제 생각에는, 신재가 비록 종사를 받드는 종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형이 죽어서 동생에게 미친 것입니다. 백씨의 후사를 들이지 못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의리가 아니었던 만큼 여러 동생들의 자손은 그 수가 매우 번성하고 자신은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자를 후사로 삼으면 이치의 형세와 물정으로 해아려 볼 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법에 따라서 온당함을 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이른바 국법이 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大典)》의 입후조(立後條)에는 “적자는 없고 첩자가 있을 경우에 첩의 자식으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이를 들어준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이 적장자에게 서

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후사를 세운 증거가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린 설은 아니니, 신재가 근거로 한 법전은 다시 무슨 책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적장자가 동생을 후사로 삼은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비록 국전에 실려 있다고 하나 아마도 우리나라의 풍속을 미루어 적용해서 정식으로 삼은 것인 듯한데, 만세의 정법은 아니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서자를 버리고 후사를 세우는 법이 행해지면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친조카가 후사가 되는 길이 한번 열리면 먼 족속이 후사가 되는 폐단이 장차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자식이 없어 후사를 들이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천속(天屬)을 옮기는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니, 만약 자기 자식이 있어서 후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찌 꼭 천륜지간에 귀천을 따지고 비교해서 부득이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큰 변고를 맞게 하겠습니까?

담제¹⁴⁸ 때에 상복의 색깔에 대해 선현들의 논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가례에서 대상에 담복을 배치하고 담제 때에는 의복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한 것은 《예기》〈간전〉편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織冠)을 쓰고 몸에는 소단(素端)을 착용한다.’는 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호복과 담제에 섬복을 하는 것은 고례의 대절로, 인정이 진실로 타당하게 여겼으니 《예기편람》에 담복(禫服)을 담조(禫條)로 옮긴 것은 진실로 바

148 담제(禫祭) : 대상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제사 때와 제사가 끝났을 때 상복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기》〈간전〉의 본문에 처음부터 이런 뜻은 없었는데 가소의 설¹⁴⁹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근거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예의(禮意)로 해야 리더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을 바꾸거나 상복을 벗는 예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현관(玄冠)의 순길(純吉)의 옷을 먼저 착용하고 섬관(織冠)의 미길(微吉)의 옷을 뒤에 착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예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계와 매산의 길복과 미길복에 관한 설은 다시 상량(商量)할 것이 있을 듯하고, 《예기편람》에서 참복을 입고 담제를 행한다는 것은 곧 옛상복을 그대로 입고 길제에 이르는 것이니, 아마도 예의 바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만 간단히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자(曾子)가 모친상 중에 자취복을 입고 자장(子張)의 빈소에 가서 곡한 것에 대해, 선배들이 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녹문 임성주는 “도리어 해가 없을 듯하다.” 하고 말하기를, “빈소에 있는데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이지만 가서 곡한다. 하물며 봉우는 비록 복을 입는 의는 없으나 도를 같이 한 은혜가 있고 기년복의 의가 있으니, 어찌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⁵⁰【녹문의 말은 여기까지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

149 소설(疏說) :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儀禮)》의 해설을 가리킨다.

150 증자(曾子)가 있겠는가 : 《녹문집(鹿門集)》에 “〈증자문(曾子問)〉에서

가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하여 곡한다면 또한 허례가 아니겠는가.”라고 한 가르침¹⁵¹을 기준으로 보면 녹문의 설은 당장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서 조문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만약 친우의 부음을 듣고서 여차(廬次) 밖으로 나가 최질을 벗고 직령(直領)을 착용한 다음 한번 망곡한다면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친상(親喪)은 진실로 사람의 큰 윤리가 있는 곳이고, 벗의 도도 오륜(五倫) 중의 하나이니, 도의로써 서로를 도운, 예를 들어 증자와 안자, 주자와 남현(남현장씨) 같은 관계에서는 부음을 들은 처음에 아마도 차마 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재 종장에게 보낸 정사년(1917)

與懶齋宗丈丁巳

불초한 제가 지금 《예기》를 읽으며 매번 긴요하지 않은 의문점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한다면 또한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증자(曾子)가 자장(子張)의 죽음을 곡(哭)했고 보면 조문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단궁(檀弓)〉에 “빈소를 모시고 있을 때 촌수가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마복의 형제에게도 가는데, 더군다나 봉우의 경우는 비록 복(服)은 없어도 동도(同道)의 은혜와 기년(期年)의 의리가 있는데,【정씨(鄭氏)가 “스승에 대해서는 심상(心喪) 삼년이요, 봉우에 대해서는 기년(期年)이 가하다.”라고 해설한 것이 숙초불곡(宿草不哭)의 주(註)에 보인다.】어찌 가서 곡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曾子問所謂三年之喪而弔, 不亦虛乎者極好. 而曾子之哭子張則却恐無害. 檀弓曰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總必往. 夫總而亦往, 況朋友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 【鄭氏曰爲師心喪三年, 於朋友期可, 見宿草不哭註.】則豈可不往哭耶〕”라고 말하였다.

- 151 공자가…가르침 : 《예기(禮記)》〈증자문(曾子問)〉에 나오는 말로, 증자가 ‘삼년상을 행하면서 남을 조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을 제기하여 어른의 귀를 더럽힘에, 문득 넓은 전거와 자세한 해석을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인자함¹⁵²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집하고 찾으실 적에 노쇠하신 정력이 한 배나 소비되셨을 것을 생각하니, 노인을 편안히 모시는 도에 흠이 있지는 않았을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익히는 것은 천하의 공도(公道)입니다. 하나의 이치와 하나의 의리는 진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 의혹을 변론할 수 있으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그 실마리를 상세히 드러내 밝혀 자신의 수고로움을 잊어야 하고, 또한 마땅히 끝까지 질문을 철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안타깝게 여길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례(典禮)는 성인의 학문 중에서 큰 절목입니다. 천하에 있어서는 치란의 이유가 되고 나라와 가정에 있어서는 흥망이 달려 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과 짐승의分別이 되니, 어찌 더욱 마땅히 강구하여 밝혀서 잠시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사방이 캄캄하고 도깨비와 이리같은 자들이 야유하고 날뛰어 선조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고, 검은 양복을 상복이라 하고, 형수와 간통하는 것을 종사를 잇는다 하고, 지아비를 버리는 것을 자유라 하고, 군신이 평등한 것을 자유라 하고, 부자(父子)간에 재산을 두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이라 하고, 내외간에 구별하는 것을 나쁜 풍속이

152 가르침에…인자함 : 이 말은 《논어(論語)》〈술이(述而)〉의 “묵묵히 마음속에 새겨 두고, 배움에 싫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 셋 중 어느 하나인들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는가?〔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라 하니, 말할 수도 있으나 말하면 추해집니다. 오호라, 세운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성(先聖)이 남겨준 제도를 강구하여 서책에 실어놓아 하늘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머뭇거리며 시간만 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종장께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은 진실로 저를 사사로이 해서가 아니며 제가 고맙게 여기는 것은 도리어 이기적인 사심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밝히 알아주심에 저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삼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나무라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答懶齋宗丈 戊午

부제(祔祭)¹⁵³를 망자의 선조에서 반드시 행한다 하는 것은, 옛날 묘제의 조손소목은 반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조손을 합제하여 신령이 서로 의지하도록 하는입니다. 후세의 묘제는 소목의 법¹⁵⁴을 사용하지 않고 서쪽을 위

153 부제(祔祭) : 졸곡(卒哭) 다음날, 사당에 모신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부제(祔祭)한다는 것은 함께 모신다는 뜻으로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4 소목법 :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 소목의 제도는 중국 상고 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주대(周代)에 들어와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원래 소는 ‘존경한다’ 또는 ‘밝다’는 뜻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고, 목은 ‘순종한다’ 또는 ‘어둡다’는 뜻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대부의 가정에서는 주자의 《가

로 삼는 예를 사용하니, 부제를 사대(四代)에 병행하지 않고 다만 그 조부에게만 행하는 것은 허문(虛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이 감히 고치지 못한 것은, 옛것을 변화시키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비록 일찍 부제를 행하지 않더라도 3년 후엔 길제와 정월초하루와 추석에 대부분 지방을 배설(排設)하여 합제(合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죽은 자와 받들었던 누대의 신위는 합제할 때에 신구 누대의 신령이 반드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마땅히 붙여야 할 곳에 붙이니 조선의 두 자리는 진실로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신주를 세워 부제를 좇아 행한 까닭으로 그 조선의 합제에서 신령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멀게는 백여 년이고 가깝게는 몇 십 년이거늘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부제를 올린다고 고하면서, 어찌 어떤 실마리도 없으니 더욱 허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미 합제를 했더라도 일찍이 나무신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혼령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이르러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양양한 귀신이 마치 위에 있고 좌우에 있는 것 같으니¹⁵⁵ 조고(祖高)의 정신은 바로 자손의 정신입니다. 조고가 자손을 따라 진실로 감응하는 것이 어찌 지방과 나무신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선현들이 허락한 지방(紙榜)을 쓰고 신위를 비워두는 일은 모두 허사에 속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비록 이미

례(家禮))에 따라 사당에 4대의 신주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의 신주는 매안(埋安 : 신주를 무덤 앞에 묻음)하는 풍습을 지켰다.

- 155 귀신이…같으니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제사를 지낼 때면 귀신이 양양히 그 위에 있는 듯도 하고 좌우에 있는 듯도 하다.[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는 말이 나온다.

와서 흠향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따로 부제를 행하지 않으면 그
 조손의 신령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신도
 (神道)가 소(昭)에 있어서 그 얹이 매우 신령하니, 한 당(堂)에서
 합제할 때에 손자가 어찌 조고의 신위가 위에 있는 줄 알지 못하
 겠으며, 조고가 어찌 손자의 신위가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
 습니까? 조손이 이미 그 신위가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안다
 면 또 어찌 손자가 마땅히 조고에게 나가고, 조고가 손자가 나
 갈 곳을 만들어서 절로 서로 의지할 것이니, 반드시 예에 어두
 운 자손들이 신주를 세우고 부제를 행하지 않는 연고로 서로 등
 지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치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신주를 세워 부제를 행하지 않
 는데 있으니, 빨리 먼저 합제를 하고 합제를 한 뒤에는 그 조손
 의 신령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신주를 세웠을 때
 에 부제사를 좇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손의 자손은 다른
 데 살아서 사고가 있어서 일찍이 조손과 합제하지 않은 자는 좇
 아 신주를 세웁니다. 부제사를 거행하는 것에서부터는 마음속에
 다른 견해가 있으나 감히 밖으로부터 다시 비정을 기다리지 않
 겠습니다. 묘제에서 순서대로 신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도암(陶
 菴)의 서상설을 보여주심을 받았고, 근래에 《가례》의 시제복일
 의(時祭卜日儀)에 '주인 이하(以下)는 북향하여 서는 것을 삭망위
 (朔望位)와 같이 한다'는 문장을 고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묘제(墓制)뿐만 아니라 비록 가제(家祭)라도 만약 부인이 사고
 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한 주인이하는 서쪽에 서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도암의 설은 아마도 혹시 이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편지에서 산 사람은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
 람은 서쪽 위에서 섬긴다 했으니, 좌우음양의 의론은 모두 근본

을 궁구한 실제 견해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저의 어두운 소견으로 그 이유를 궁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다시 질문합니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예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또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예와, 집에서 삭망(朔望)¹⁵⁶하는 의례에서, 존위가 당중(堂中)의 남향에 있으면 내외자손들은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향하며, 반드시 남자는 존위의 동쪽에 처하고 여자는 존위의 서쪽에 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쪽과 서쪽은 음양의 큰 구분으로 서로 뒤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처하여 반드시 서쪽위를 하고, 서쪽에 처하여 반드시 동쪽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중은 존위가 있는 곳으로 통속(統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례(冠禮)에서 부친은 동에 있고 모친은 서쪽에 있다는 것과, 혼례에서 시아버지는 동쪽에 있고 시어머니는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음양을 나누는 의리가 되니 부모와 시부모는 저절로 존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속한 자들은 양쪽에 차례로 나누어 서서 바라보고 북쪽에서 나누어 서있는 것은 음양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쪽은 존위가 있는 곳이 북쪽이 됩니다. 만약 존위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자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만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동쪽으로 위쪽을 삼기 위함입니다. 시제 때 술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남녀가 각각 그 존장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북면하여 반드시 동쪽을 위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으로 높음을 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이 높은 자리가 된다고 말하

156 삭망(朔望) : 상중에 있는 집에서, 죽은 이에게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이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편리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힘이 있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매우 불편한 자리는 곧 왼쪽이 됩니다. 그러므로 족속 중에 존귀한 사람을 우족이라 이르고 비천한 자를 좌족이라 이릅니다. 인물의 우수한 자를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단사설을 좌도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의 바른 것이 반드시 도의 오른쪽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좌견이라 이르니, 식견이 높은 자는 반드시 오른쪽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논해보면 오른쪽을 높이는 것은 인도(人道)의 당연한 것으로 유독 신도(神道)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 근거도 있는데, 《예기》의 명당위에서 말하기를 ‘천자는 남향하여 서고, 삼공은 가운데 계단 앞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있고, 제후국 중 자등급의 나라는 문의 동북쪽 동쪽 오른쪽에 서고【통존의 의리를 쓰면 마땅히 서쪽 위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는 것이다.】 제후국 중 남등급의 나라는 문 서북쪽 동쪽 위에 서고, 8개 오랑개의 나라는 남문 동쪽 밖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서고, 여섯 개의 경계에 있는 나라는 서문 밖에서 동면하여 남쪽 위에 선다.【통존의 의리를 쓰면 북쪽위쪽에 해당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았기 때문이다.】’라 했으니 왕제에서는 말하기를 ‘도로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옛날에는 좌우중(左右中) 세 길이 있었으니,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가고 거마는 가운데로 가니, 이 좌우는 천지의 좌동우서이다. 음양의 구분을 쓰면 마땅히 남자는 동쪽으로 가야하고 여자는 서쪽으로 가야 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을 위로 삼은 것이다.】’라 했고 《주례》 사사편(司士篇)에서 또한 말하기를 ‘왕은 남향하고, 삼공은 북면하여 동쪽위에 있다.’라고 했고, 《의례》 연례편(燕禮篇)에서 말하기를

‘경대부는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북면하여 동쪽위에 선다.’라고 했으니 《예서》에서 오른쪽을 높이는 설은 하나가 아니고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산사람을 섬기는 것과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불문하고, 남녀는 이미 같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단지 북면하여 자리를 한가지로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오른쪽을 높이 여겨 동쪽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일의(卜日儀)에서 단지 장부(丈夫)만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문장은 단지 자리가 삭망과 같다고만 말하고 동쪽위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서쪽을 위로 봐야 합니다. 어두운 소견이나마 여기에서 저는 이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幽明)이 길이 다르고 생사(生死)의 정이 달라서, 신위는 서쪽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위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두 오른쪽으로 높은 자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신위의 서쪽위는 남향을 하고 있고, 산 사람의 동쪽 위는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향하는 자의 서쪽위와 북향하는 자의 동쪽 위는 각각 의리가 있고 형세가 자연스러워, 아마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연고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를 버려서 억지로 죽은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로 한 것입니다. 이에 어른께서 보내신 편지에 ‘산 사람을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을 서쪽위에서 섬긴다’고 하신 의리는 실제로 의혹이 더 많아지니 주자의 뜻과 도암의 견해가 또한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른바 그렇게 된 연고를 궁구해 봤는데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주자가 시제복일에서 말하기를 ‘주인이하는 삭망의 자리처럼 선다.’라 하고 담제복일에서는 ‘집사는 북향하여 동쪽에 선다.’라고 했으니, 서로 자세함과 생략한 것이 있어서 마땅

히 참조하여 징험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제에서 주인이하가 이미 삭망이 자리처럼 섰다면, 담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제의 집사가 이미 북향해서 동쪽위에 섰다면 또한 시제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가 이미 바깥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주인 친척중의 한 사람이니 유독 동쪽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여 헤아려보니, 주자가 짐짓 동쪽위로 바꾼다 말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서쪽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이른바 삭망의 자리처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단지 형제자손 소목차서의 자리를 가리켜서, 북향이 동쪽위에 해당하니 집사의 자리와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략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장사를 치름에 이르러서 땅에 제사 지내는 집사는 고자(告者)와 함께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또 동쪽위에서 북향하는 것은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쪽위를 얻었다면 묘에 제사지냄에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계(沙溪)가 비록 지도(地道)가 오른쪽을 높이고, 신도(神道)도 오른쪽을 높인다는 설을 인용하여 왼쪽위에 해당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러나 지도가 오른쪽을 높인다는 뜻의 오른쪽은 천지좌동우서의 오른쪽이니,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사직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지도에 속하는 것이니 인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도가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말에서 오른쪽은 남향하는 자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위를 설치하여 제수를 진열할 때에도 이것을 숭상하니 이것도 신도의 남향에 속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집사자가 동쪽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 서택편(筮宅篇)의 ‘명서자(命筮者)가 주인의 오른쪽에 있다.’는 문

장에 근거한 것이니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신에게 제사를 고하는 자는 서택(筮宅)의 주인입니다. 만약 집사로 하여금 고자의 동쪽에 있게 하면 진실로 사옹(沙溪)의 말처럼 되어서, 이제 고하는 자의 뒤편이 저절로 한 줄이 되어서 동쪽위는 고자와 상관(上干)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자가 오른쪽을 숭상하는 위를 취하여 북향한 사람은 동쪽위에서 한다는 예(禮)에서 정한 것으로, 그 근본이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

담월(禪月)의 길제(吉祭)¹⁵⁷는 《비요(備要)》¹⁵⁸에서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한 나머지 정제(正祭)가 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선조를 모신 사당의 정제를 폐한 것입니다. 우암도 “담월의 길제는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자(支子)의 상은 처음부터 선조를 모신 사당이 없었으니, 어디에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고 말할 것이 있겠으며, 어디에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겼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28개월의 평상을 회복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순길(純吉)의 제사를 참제(黻制)가 끝나기도 전에 행한단 말입니까?

157 담월(禪月)의 길제(吉祭) : 담월은 담제를 지낸 달이다. 길제는 담월을 넘겨 제사 지내는 것이 평상시의 제도이지만 담제가 사시(四時) 정제(正祭)의 달에 해당하면 곧 이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상변통고(常變通攷)》 제21권 <담월길제(禪月吉祭)>

158 비요(備要) :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그 밖에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의식(儀式)을 기술하였다. 2권 1책으로, 1648년(인조 26)에 김집(金集)이 간행하였다.

나재 종장에게 답함 무오년(1918)

答懶齋宗丈 戊午

우리나라의 성묘(聖廟)¹⁵⁹는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의 위치를 누가 정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의(禮意)로 헤아려보건대 감히 트집을 잡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옛날 태묘의 협향(祫享)¹⁶⁰은, 태조의 신위는 서쪽 벽 아래에 안치하여 동쪽을 향하고, 군소(群昭)의 신위는 태조의 왼쪽에 두어 남쪽을 향하며, 군목(群穆)의 신위는 태조의 오른쪽에 두어 북쪽을 향하였습니다. 후세에 소목의 제도가 없어져서, 주오(主奧)¹⁶¹가 동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은 모르고 다만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신위를 성묘의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자리에 안치하였으니, 공자의 자리가 이미 이와 같은 이상 배향(配享)하는 제위를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동서로 서로 향하게 한 것은 이치와 형세 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군소군목(羣昭群穆)을 태조의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남북으로 서로 향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159 성묘(聖廟) : 공자(孔子) · 안자(顔子) · 증자(曾子) · 자사(子思) · 맹자(孟子)의 아버지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이다. 조선 시대 문묘(文廟) 안에 있었으며 계성사(啓聖祠)라고 일컬었다.

160 협향(祫享) : 협제(祫祭)와 같은 말로, 천자나 제후가 멀고 가까운 조상의 신주(神主)를 태조묘(太祖廟)에 함께 모아 놓고서 지내는 대합제(大合祭)를 말한다.

161 주오(主奧) : 오(奧)는 실(室)의 서남쪽 모퉁이로, 방 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가장 으름이 되는 자리이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자식 된 자는 거처할 적에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는다.[爲人子者 居不主奧]”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주오는 바로 이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 가장 웃어른이나 신주(神主)를 말한다.

이것이 소목법(昭穆法)을 온전히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소목의 뜻을 보존하였다고 하면 괜찮으니,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자연 의리를 해치지 않거니와 《가례》〈사시제(四時祭)〉의 “부위(祔位)는 동쪽 서(序)에 두어 서쪽을 향하게 한다.”라고 한 문장을 인용하여 배향하는 신위를 동쪽 벽에 배열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부주(祔主)가 사당에 있을 때 각각 본감(本龕 당사자의 감실) 정위(正位)의 동쪽에 거하여 서쪽을 향했다면, 제사를 지낼 때에 배설하는 자리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만 민가의 대청은 좁아서 정위와 부위를 똑같이 한 곳에 배설하면 정조(鼎俎)와 변두(邊豆)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 부위를 동쪽 벽 아래에 나열하여 정위의 동쪽에 있게 합니다만, 이것에 근거하여 성묘의 위치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소로 부위(父位)를 삼고 목으로 자위(子位)를 삼는데, 안자와 증자 처럼 동문과 형제의 항렬에 있는 자를 소목으로 일컬어 좌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협향할 때에 태조를 주위(主位)로 삼아 군소와 군목을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고, 성묘 안에서는 공자를 주위로 삼아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니, 다만 주위와 배위를 정설하고 분설하여 피차가 서로 비슷함을 말한 것일 뿐이지 모두 소목과 부자의 윤리를 취하여 같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개원¹⁶² 석전례에서 선성(先聖)은 동향하고 선사(先師)는 남향하여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는다는 설을 인용하여 배위가 동향하는 것은 선성이 동향하는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니, 이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162 개원(開元) : 당나라 현종의 연호(713년 12월~741년)을 말한다.

있습니다. 선성이 동향한 것은 정통으로 서쪽 벽에 거하여 주오가 선사의 오른쪽에 있으니, 참으로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배위가 동향한 것은 이미 북쪽 벽 정위의 아래에 거하였고 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자리와 반열을 나누어 마주앉아서 정통의 완전한 존위를 차지할 수 없으니,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혐의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제 견해로는 영양사¹⁶³의 영정을 봉안한 위치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 제도가 되어서 후인들의 의론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大祥)에 백망건을 쓰는 것은 《사례편람》 이후에 마땅히 다시 이론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복을 막론하고 이미 백립을 썼다면 모두 백망건을 써야 할 듯합니다. 대개 갓과 건은 똑같이 머리에 쓰는 것인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상에서 흑망건을 쓰는 것은 진실로 이미 의심할 만한데, 근래에 기년복과 대공복을 당한 사람이 이미 백립을 쓰고도 흑망건을 바꾸지 않는 것은 또한 뒤섞임을 면하지 못한 듯합니다.

나재 종장에게 보낸 신미년(1931)

與懶齋宗丈 辛未

무릇 예(禮)는 사덕(四德)¹⁶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탕 임금의

163 영양사(瀛陽祠) : 정읍에 있는 영주정사와 영양사는 등록문화재 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정읍 출신 유학자 박만환이 영주정사(講堂, 瀛陽祠)를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중국의 오성육현(五聖六賢)의 영정(影幀: 채용신 작)을 봉안한 곳이다. 강당을 앞에 두고 뒤쪽 높은 곳에 사당을 건축하여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우(祠宇) 형태를 보이고 있다.

164 사덕(四德) : 유교에서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덕목으로 인의예지

‘예로써 마음을 다스린 것[以禮制心]’과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¹⁶⁵로 살펴보면 곧 이것은 성리(性理)를 대신한 명칭으로, 좁게 말하면 하나의 일이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네 개를 포함하니, 인(仁)자와 체용(體用)을 같이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성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인하여 절문과 의칙의 예를 만들었습니다. 예악형정(禮樂刑政)은 비록 똑같이 교(敎)¹⁶⁶라고 이르지만 총괄적으로 말하면 예교(禮敎)입니다. 편안히 거하여 가르침이 없는 것을 예교가 없다고 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노릇하는 것은 예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예를 잃으면 금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禮)라는 한 글자는 사람과 짐승의 큰 구분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왕이 중시하였고 군자는 삼갔습니다. 한번 세운(世運)이 쇠퇴한 뒤로 천하가 모두 오랑캐가 되어 우리나라의 예의도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간재 선사

(仁義禮智)를 말한다.

- 165 극기복례(克己復禮) : 안연(顏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하여 인(仁)을 이루는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답하였다. 《논어(論語)》〈안연(顏淵)〉
- 166 예악형정(禮樂刑政)은 비록 똑같이 교(敎)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르고 도를 품절해 놓음을 ‘교’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에 대해 주자가 “‘수’는 품절함이다. 성과 도가 비록 같지만 기품이 혹 다르기 때문에 과불급의 차이가 없지 못하다. 이에 성인께서 사람과 물건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인하여 품절하여 천하에 법이 되게 하시니, 이것을 일러 ‘교’라 한다. 예악형정과 같은 등속이 이것이다.[修, 品節之也. 性道雖同, 而氣稟或異, 故不能無過不及之差. 聖人因人物之所當行者而品節之, 以爲法於天下, 則謂之敎, 若禮樂刑政之屬是也]”라고 말하였다.

께서 도학을 밝히고 예교를 주된 임무로 삼아서 천하의 퇴폐한 풍속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우리 종장께서 예를 신중히 다스리고 예를 상세히 강론하여 문하의 최고가 되셨으니, 이것은 일문의 공론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얼마나 행운입니까? 스승이 돌아가신 후로 의리가 꼭 막혀서 선사께서 예를 숭상한 법문이 뒤따라 아무것도 없는 데¹⁶⁷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원재(李遠齋)가 마침내 부친상을 당한 손자를 성혼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이른바 천하에 있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정법이 있으니 이것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사마공이 이미 여덟 글자의 단안(斷案)을 두었으니, 제가 어찌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가슴 아픈 것은 선사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훌륭한 제자에게서 이런 변고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스러운 것은 동문이요 오랜 벗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는 것을 먼저 일삼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선사께서 살아계셨다면 어찌 변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중당(中堂)이 처의 기년복 상중에 납폐(納幣)하자 선사께서 강사(講社)에 죄목을 계양하고, 경복(卿服)을 받기 전에 재혼하자 책벌이 지엄하여 두려움으로 생명이 날 정도에 이르렀으니, 당일의 법문이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옛날을 감상하며 오늘을 슬퍼하니 더욱더 돌아가신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또 만약 원재에게 간쟁하는 벗 한사람이 있었다면 또한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어른께서는 옛날 제가 간언하여 동성(同姓)의 결혼을 막은

167 아무것도 없는 데 : 원문의 ‘오유(烏有)’는 ‘무엇이 있느냐’는 뜻으로, 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에 나오는 자허, 오유선생, 망시공(亡是公)이라는 가공의 세 인물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온 나라의 성행하는 풍속이요 선현이 행한 바인데도 오히려 예가 아니라고 하니, 어른의 평소 정론에 위반되고 끝내는 누가 되는 연고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충심을 바쳐 숨김이 없는 것과 어른의 의를 들으면 즉시 감복하는 것은 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 이공은 옛 친구이며 문생인데 힘써 간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루라고 권한다 하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 명이 좋지 않음이 애석하기만 합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어찌 반드시 종이에 드러내 쓰겠습니까마는 다만 나이든 선비이고 노숙한 유자인데도 이와 같다면 학문을 하는 몇몇 후진들이 다시 예로써 옛것을 회복하는데 힘쓰지 않을 것이고, 고을 풍속을 도도히 이끄는 자가 장차 유자를 핑계대고 서로 짐승의 영역으로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비록 보잘 것 없는 필부이지만 세도를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비록 말하지 않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어른은 학문을 다스리는 전문가로 평생의 정력이 전부 이 예에 있으니, 염려하는 바가 어찌 나머지 사람에게 비하고 말겠습니까? 이 설을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않고 어른께 고하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 종장에게 보낸 신미년(1931)

與懶齋宗丈 辛未

지난번 망령되게 한 편지를 두 어른에게 동시에 드린 것은 정말로 두 어른이 논쟁을 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답장을 받고 어른의 뜻은 저의 좁은 견해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함재어른의 편지의 뜻도 제 뜻과는 다르

다는 것을 알았는데, 두 어른의 주장은 연나라와 월나라 마냥 서로 크게 차이가 나서 서로 의견이 합치될 가망이 없으니 이루 한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충언을 드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찍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존장의 편지에 인용하신, 선사께서 편지로 수없이 가르친 중화와 오랑캐에 대한 엄방(嚴防)은 보잘것없는 저도 감히 이미 알고 있는 바¹⁶⁸라고 여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절개를 굽히면서도 관대를 갖추는 것은 오히려 그른 듯하다는 설을 등에 이리러서는【절개를 굽힌다는 것은 오랑캐에게 베풀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경학원(經學院)¹⁶⁹의 교사가 월급 백 원을 받아먹으면서 오히려 상투와 옛 의관을 보존하는 자가 있다.】 또한 잠시 기미에 임해 모습을 바꾸어 복수하는 의론을 위해서였으니, 이는 반드시 어쩔 수 없는 의리와 마땅히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번거롭게

168 이미 알고 있는 바 : 원문의 ‘이견지소릉(已見之昭陵)’은 ‘이미 본 소릉’이라는 뜻으로, 당 태종(唐太宗)과 위징(魏徵)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릉은 당 태종의 비 문덕황후(文德皇后)의 능인데, 태종이 황후를 못 잊어 망루를 세우고 늘 올라가 소릉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한번은 위징과 함께 올라갔으나 위징이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고 하다가 태종이 소릉을 가리켜서야 마침내 “신은 폐하께서 현릉을 바라보시는 줄로 여겼습니다. 소릉이라면 신이 진즉 보았습니다. [臣以爲陛下望獻陵 若昭陵 臣固見之]”라고 하여 태종을 깨우쳤다는 고사이다. 현릉은 태종의 어머니 능이다. 《구당서(舊唐書)》 권 71 〈위징열전(魏徵列傳)〉

169 경학원(經學院) : 일제강점기 때의 유교 교육기관으로, 원래 1887년(고종 24)에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칭했고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었으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총독부가 1911년 6월 15일에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규정에 따라 경학원을 부활하였으며, 천황의 하사금으로 설립되어 총독부의 식민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기관으로 전락했다.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같은 집안이요 같은 문화에서 두 의론이 화합을 잃은 것도 이미 불행인데 다시 여기에 보태 세 갈래로 만들어서 분분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면 외부 사람들의 기롱을 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으니, 그러므로 우선은 그만둔 것입니다. 삼가 해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재가한 어머니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과 끊어졌기 때문에 복을 낮춘 것이고, 본생부모(本生父母)¹⁷⁰에 대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적통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을 낮춘 것입니다. 본생모이면서 개가한 어머니의 경우는 양자로 간 집의 아버지와 애당초 끊어지고 말고를 논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적통을 둘로 하는 혐의도 없는 반면에 낳아 길러준 은혜는 본디부터 있었으니, 두 번 복을 낮추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선사께서 “본생모이면서 개가한 어머니에 대한 복은 대공복이니, 한 번은 출계(出系)하고 한 번은 개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다는 말은 진주본에 실려 있습니다. 삼가 제 생각으로는, ‘한 번은 출계하고 한 번은 개가해서 복을 두 번 낮춘다.’는 글은 고모, 자매, 조카 때문에 말한 것인데, 이제 모자간에 인용하여 양자로 간 집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리에서 기년복을 입지 못하게 하니, 올바른 부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화도수정본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께서 친히 삭제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종장께서 보내주신 기년복설을 받들때 선사의 전말에 대해 인정해 주셨으니,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0 본생부모(本生父母) : 양자로 간 사람의 친부모를 말한다.

나재 종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懶齋宗丈 乙亥

어른의 편지에, 조자정(趙子貞)이 감히 선사의 사당을 범했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유독 스승을 무함하고 스승을 배반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으로 저를 꾸짖으시니, 가당키나 합니까? 다만 자정이 사당을 범한 정황이 과연 어떠했기에 어른의 말씀이 이에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단지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당을 범한 실상이라고 말한다면, 저도 일찍이 그 원본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사당을 범함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모두 있으니 범했는지 아닌지를 다시 볼 수 있고, 귀신이 옆에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래에 갑자기 또 “지금 만약 선사를 폄하한 자를 용서한다면 전날 무함한 자를 성토하고 배반한 자를 끊었던 일은 진실로 공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하셔서 말이 더욱 심중해졌으나 처음부터 그가 스승을 폄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사당을 범한 것 외에 또 하나의 큰 죄목을 두셨으니, 자정만 이 큰 죄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로 인해 진실로 공평한 마음이 아니라는 죄명을 어른께 얻었습니다. 옛날에 형벌을 임하여 한탄한 자가 말하기를,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형벌을 얻어서 사책에 실리는지 모르겠다.” 했다더니, 이 말이 긴 세월을 내려와 지금에 이르러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합니다. 군자가 형벌의 판결을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른께서 유독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혹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제가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뜻밖일 뿐만이 아닙니다. 아, 천하의 일이 있지 않은 일이 없다면 또한 있

지 않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백번 죄명을 받는다 한
들 어찌 다시 어른께 용서를 구걸해서 가련한 모습을 하겠습니
까? 오직 닻고 삼가서 용서받는 날이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나재 종장에게 보냄 병자년(1936)

與懶齋宗丈 丙子

지난 봄에 제가 조자정이 부북첨좌에게 편지를 주어서 계화도 제
사에 음성의 무리를 똑같이 나오게 한 것이 잘못됨을 논한 일에 연
좌되어, 어른에게 스승을 폄하한 자를 용서했다는 죄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두려워하며 날마다 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
었습니다. 오직 이 몸이 비난을 만나서 비록 어른께 충고를 한 것
에 대해 근래에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통할 길이 없었습니
다. 다만 어른께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 거울처럼 명백한데도
천박한 저를 수용하기 어려움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겨울이 되어 석동에서 알현한 기회를 얻었고, 죄를 준 이유에 대해
받들어 물었습니다. 답하시기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
슨 말이냐? 그대에게 뿐만 아니라 조자정도 일컬었다.”라고 운운하
여 저는 그 과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과실을 알고 사과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감히 전에 받았던 혐의를 기억하고 마침내 충
고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음성의 오진영이 인교(認
教)로 스승을 속여 대절을 없애버림에, 어른께서 문장으로 성토하
고 아울러 그 당¹⁷¹들을 다스려서 스승을 높이는 도리를 다하였습니
다. 이것은 모두 오진영이가 손수 쓴 증거물에 의거한 것이니, 우연

171 당여(黨與) : 같은 뜻을 가지고 한편이 되는 무리를 말한다.

히 잘못 기입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지 한 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도를 고치고 전철을 바꾸어서 그 무리를 스승의 영정이 지척에 엄히 계시는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음성의 오진영과 더불어 마주보며 인사하고선 예전의 강론과 예설을 이야기하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선사를 망령되게 한 적에게 붙는 일에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저 이러한 실수¹⁷²는 보통의 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대의와 관련 있으니 방치하여 다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학문의 도는 불선함을 알았다면 빨리 고쳐서 선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했으니, 종장을 두고 비록 사람들이 스스로 이기는데 성벽이 있는 분이라 일컬더라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또 한 마땅히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빨리 고쳐서 다시 옛날의 길함¹⁷³을 따르지 않습니까. 만약 “불선하다 여기지 않는다면 이전에 어른이 동참했던 오진영을 성토한 문장

172 주착(鑄錯) : 인간 세상에서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하며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당 소종(唐昭宗) 연간에 위박 절도사(魏博節度使) 나소위(羅紹威)가 주전충(朱全忠)과 연합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위부(魏府)의 아군(牙軍) 8천 인을 소탕하는 숙원을 풀었으나, 그 과정에서 주전충을 대접하느라 엄청난 재물을 탕진한 나머지 자신의 세력이 쇠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후회하여 “6주 43현의 무쇠를 모아 줄칼 하나도 주조하지 못했다.[合六州四十三縣鐵 不能爲此錯也]”라고 말한 주성대착(鑄成大錯)의 고사가 전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 당소종천우(唐昭宗天祐3年) 《북몽쇄언(北夢瑣言)》 권14 여기에서 착(錯)은 곧 옥석(玉石)을 다루는 도구인 줄칼(鑪)이라는 뜻과 함께 착오(錯誤)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스스로 큰 착오를 빚었다는 뜻으로 쓴 말이었다. 그래서 이 주착(鑄錯)의 고사가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173 식구덕(食舊德) : 옛날의 덕을 먹는다. 즉 본분에 따른 평상의 덕을 누린다는 말이다.

이 여기에 있으니 그 문장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몸
둘 곳이 없을 것”이니 그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찍이 김용승이 자주 말했던¹⁷⁴ 현천문(玄旡文) 첨주 중에 나
오는 김태희 김익용 등 여러 군자가 남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옛날처럼 잘 사귀며 지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종장
(宗丈)께 우리러 질문하니, 종장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와 같다면 남을 사주한 자는 우선 제쳐두고 남에
게 사주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마땅히 박인
규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말을 조작¹⁷⁵했다는 것을 책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래에 다시 현동으로 찾아가 김 씨를 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김 씨와 절교한 것이 어찌 그가 스승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미 절교했는데 이제 찾아가 만난 것
은 김 씨가 더욱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하여, 간옹(艮翁)의 의견과 대립하고 그 학도들이 윤문으로 포장하
는 날이 있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과연 무슨 의리인지 모르겠
습니다. 오호라, 어른께서 나이가 많고 덕이 빛나는 때에 스승을
존중했던 대의가 곳곳에서 파괴되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깊이 하셔서 빨리 훗날을 잘 마무
리하는 쪽으로 바꾸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174 독고(瀆告) : 독고(瀆告)는 경솔하게 고하거나 번거롭게 묻는다는 말
이다. 《주역(周易)》〈몽괘(蒙卦) 단(象)〉에 “처음 묻거든 고해준은 강
중하기 때문이요, 재삼 물으면 번독함이니,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음
은 몽을 번독하게 하기 때문이다.[初筮告 以剛中也 再三瀆瀆則不告
瀆蒙也]”라고 하였다.

175 조언(造言) : 요망한 말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으로 주(周)나라에서 제
정한 여덟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주례(周禮)》〈지관(地官) 대
사도(大司徒)〉

양촌 임장병룡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讓村林丈秉龍 乙亥

옛날 어른의 집에서 어른을 모시고 시들어 가는 국화를 두고 시를 지었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요. 시들었던 국화는 지금 다시 피어 노란 꽃잎이 사랑스러운데 우리들은 시들어 다시 소생할 기약이 없으니 사람으로서 식물만 못한 것입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국화의 성쇠는 일 년으로 계산하지만, 사람의 성쇠는 천 년으로 계산하니, 요컨대 장구함과 짧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사람이건 식물이건 지금 비록 시들었더라도 후에 반드시 번성하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으로 말하자면 선사의 도덕과 절의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지금 마침내 뿌리를 찍어내고 손상시키는 오 씨와 김 씨가 있는데, 문하의 여러 사람들이 일찍이 그 사람들을 금하지도 않고 뿌리를 보호하지도 않다가 금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다시 일종의 사람들은 진(秦)나라 사람 야원 것을 보듯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아서 모두 손상이 되든 말든 보호를 하든 말든 묻지도 않으니, 동문을 두루 돌아봐도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훗날 우리의 도가 성대해지기를 기필할 수 없을까 염려스러우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양촌 임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讓村林丈 乙亥

삼가 답장을 받고, 음성의 오진영을 배척하는 의리가 이전처럼 변하지 않음을 잘 알았으니 노성(老成)의 정견은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만 김씨의 일¹⁷⁶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살피지 못하여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보아서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간옹 선사가 아납니까? 가평의 김평묵(金平默)이 매옹(梅翁)의 제문¹⁷⁷을 씬에 분명히 ‘문인소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덩이를 내놓고 입을 몇대로 놀려서 기롱하고 폄하하며 업신여기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선사께서 그를 인식하기를 매옹 문하의 배반한 줄개로 여겼습니다. 하물며 이제 여흥의 김용승이 선사에 대하여 살아계실 때는 순전히 스승으로 섬겼으나 돌아가신 뒤에는 사우(師友) 관계에 끼어넣었으며, 살아계실 때는 ‘문인소자’로 일컬었으나 돌아가신 이후에는 문인소자라 일컫지 않고 자칭 ‘문하의 한광(門下韓狂)’¹⁷⁸이라고 하였으며, 살아계실 때는 “망극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니 돌아가신 뒤에는 “학업을 받아 제자가 된 적이 없다.” 하였으니, 가평의 김평묵과 비교할 때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종합하면, <백천재기(百千齋記)>의 내용 중에 있는 “도의를 보존하지 못하면 선생도 바꿀 수 있다.”와 “그대의 조부가 우암이 된다면 내가 윤증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그의 주된 견해입니다. 삼가 자세하게 살피시고 정밀

176 김씨의 일 : 김씨는 김용승(金容承)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오진영을 성토하는 쪽에 가담했으나 뒤에 배반한 자이다. 김씨의 일이란 김용승이 간재 묘소에 올린 <망고현천문(望告玄阡文)>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을 말하는데, 전일중(田鎰中)이 쓴 이에 대한 변척과 김택술(金澤述)이 그 내용을 조목조목 나누어 문제를 지적한 글이 《사백록(俟百錄)》권2 <승문변척(承文辨斥)>에 실려 있다.

177 매옹(梅翁)의 제문 : 매옹은 호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을 말한다. 김평묵의 《중암집(重菴集)》에 <제흥여장문(祭洪汝章文)>이 실려 있는데, 간재가 이 제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78 문하의 한광(韓狂) : 한광의 김용승의 호이다. <망고현천문>에 “문하인 한광 김용승은”이라고 쓴 것을 말한다.

하게 처리하셔서 師生(사생)의 윤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견암 김장태희에게 보냄 임오년(1942)

與堅菴金丈泰熙 壬午

선사의 원고 중에 〈박사암의 만김지재시에 대한 발문(跋朴思菴挽金正齋詩)〉¹⁷⁹는 어른의 선조를 위해 지은 것이고 어른의 청에 부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공이 선조 기축년(1589)에 죽고, 김공이 임진왜란을 겪은 것으로 질정해 보면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니 마땅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만 저 음성의 오진영이 어른께서 스승을 속여 글을 얻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 하는 것은 그가 험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사의 명철하고 박식함으로도 오히려 미쳐 살피지 못하시고 지었으니, 어른께서 집안에 전해온 만시(挽詩)를 인하여 글을 청하신 것을 또한 어느 겨를에 논하겠습니까? 어른을 두고 ‘선사를 속인 사기꾼’이라고 기필코 말을 한다면 이것은 선사를 두고 ‘사기를 당한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잔인한 마음으로 스승을 폄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많이 변척할 것도 못 됩니다. 가만히 그 사실과 어긋난 까닭을 생각해 보았는데, 근래에 황이재(黃頤齋 황윤석(黃胤錫))의 문집을 보니 박사암과 성명이 같은 자가 있는데, 일찍이 불안현감을 지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재공은 불안 사람이니, 만시를 지은 사람이 불안현감인데 사암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79 박사암의 만김지재시에 대한 발문[跋朴思菴挽金正齋詩] : 《간재집(艮齋集)前篇》 제16권 〈제발(題跋)〉에 실려 있다.

정재 전장화구에게 보냄 갑자년(1924) 5월

與靜齋田丈華九 甲子五月

김용승의 일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일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는 선사가 일찍이 인의(認意)를 두었다고 말한 것이고 다음은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를 두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후사를 담당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왔고, ‘홀로 앉았을 때 남들과 다르게 들었다’고 한다면, 동문 수천 명이라도 감히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오래도록 친자(親炙)¹⁸⁰를 받은 자들이 도리어 떼거리로 일어나 이 말을 옳다 여기고, 한두 사람 힘이 약한 줄필이 애써 분별하여 알리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김 씨처럼 직접 수학하길 오래도록 하지 않은 자가 어찌 오히려 선사의 심사에 의혹을 낳지 않겠습니까? 기개와 절개에 격분하여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의 이 일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가슴이 아프고 아플 뿐입니다. 비록 그리할지라도 김 씨의 처신을 논해 본다면, 명분과 관련이 있으니 다만 망령되고 그릇되다 말할 수만은 없을 따름입니다. 선사가 절해(絶海)에서 스스로 바르게 한 절개와 호적에 올리지도 말고 죽거든 시신을 바다에 던지라던 의리¹⁸¹는 진실로 천지

180 친자(親炙) :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의 가까이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백세 위에서 펼쳐 일어남에 백세 아래에서 이를 듣고 흥기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직접 배운 제자의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興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라는 말이 나온다.

181 선사가…절해 : 간재는 평생을 반일(反日)로 살았고 왜놈들이 싫어서 일본식 호적을 거부하고, 묻힐 곳이 없으면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리

신이 살피본 것이고 부녀자와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김 씨라 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를 모르겠습니까? 만약 선사의 절 의와 바른 말에 확실히 근거하여 통렬하게 변론함이 가면 갈수록 더욱 힘 있어진다면, 선사와 함께하기를 자처함에 어찌 두 사람 모두 유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한 사람의 속이는 말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명분에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애석하고 애석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원통하고 한스러운 것은, 선사가 인의(認意)를 두었다는 설이 나라 안에 가득하여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의론과 공언에 이르기를, “인의를 둔 것은 모 어른이고, 인의에 대해들은 것은 모공이라고 합니다. 고제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선생이 반드시 일찍이 인의를 두었을 것이니, 이른바 후사를 의탁한다는 것은 일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크게 놀라고, 어리석게 앉아 있다가 서서 배척을 당하니 고가진신(故家搢紳)의 외롭고 맑은 충절과 유문(儒門) 장보(章甫)¹⁸²의 높은 행실과 탁

라(不籍之事, 沈尸之誓)고 하였다.

- 182 장보(章甫) : 공자의 제자인 자로(子路),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가 일찍이 공자를 뵈시고 앉았을 때, 공자가 이르기를 “평소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혹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라고 하자, 맨 처음 자로가 대답하기를 “천승의 나라가 대국의 사이에 속박을 받아 전쟁이 가해지고 인하여 기근이 들더라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 3년에 이르러 백성들을 용맹하게 할 수 있고, 또 의리로 향할 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라고 하였고, 염유가 대답하기를 “사방 6, 7십 리나 혹은 5, 6십 리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리면 3년에 이르러 백성들은 풍족하게 할 수 있거니와 예악에 대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樂, 以俟君子.]”라고 하

월한 식견이 또한 마땅히 수시로 기록하고 논척(論斥)해야 하는데, 수천 명이 말하면 공론이 되고, 오래 전해지면 사실이 되니, 진실로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이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선사께서 평생토록 지킨 절의가 없던 일이 될 것이니, 어찌 지하에서 원통하고 치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손과 문인이 무슨 열굴로 세상에 서겠습니까? 하물며 근래에 김 씨 일이 있는 후에 한층 더욱더 심해져서, 깨끗이 씻어 아무런 죄가 없게 되는 것은 거의 황하를 끌어당기고 태산을 흔드는 것과 같으니, 만약 죽을 힘을 다하여 도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건대 자손 중에는 오직 애장(哀丈)과 두 형 뿐이고, 문하에는 2,3명에 불과하니, 매우 외롭고 나약합니다. 장차 어찌해야 선사의 마음을 청천(靑天)의 밝은 해처럼 밝혀서 현혹된 전 국민을 크게 깨우치겠습니까. 흥분해서 말을 하다가 여기에 이르니 마음이 한심할 뿐입니다. 저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선사 발밑의 일원으로 한 톨의 은혜를 받았으니 두텁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사의 무고함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변론이 된다면 비록 수만 번 죽어 사라지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보잘 것 없고 말이 가벼우며 문식이 천박하고 짧아서, 비록 이 일에 종사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할 길이 없으니, 스스로 원통하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군자가 논의를 세움은 공적이고 바르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

였고, 공서화가 대답하기를 “제가 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과 제후들이 회동할 때에 헌단복을 입고 장보관을 쓰고 작은 집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에서 나온 말이다. 《논어(論語)》〈선진(先進)〉

니다. 또한 변칙하는 도는 핵심을 요약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
내야 하며, 절대로 노여운 상태에서 기세를 부려 상대방에게 조금
이라도 과중하게 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변칙이 성사되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불복할 것이니, 바라
건대 상중에 계신 어른께서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를 계기
로 생각건대, 어른의 정신과 심력, 견식과 의리로 가학을 잇는
것을 큰 책임으로 삼지 않는다면 다시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물며 어른의 창안백발은 다시 옛날 같지 않은데 구구하게 살
계획을 또한 어찌 구할 것이 있겠으며, 구하더라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전과 문헌을 연구하여 관통함으로써 존양(存
養)의 바탕으로 삼고, 후진을 수습하여 세도에 조금이라도 보탬
이 된다면, 이것이 지하에 계신 선사의 혼령을 위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선사께서 부탁하신 뒷일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어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재 전장에게 보냄 갑자년(1924) 11월

與靜齋田丈 甲子十一月

생각해보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와 문생이 스승에 대해서 모
두 목숨을 바칠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에게 있어서 부친을 존경
하는 지극한 정성은 천륜에서 나왔으니 어찌 쇄소응대(灑掃應對)¹⁸³

183 쇄소응대(灑掃應對) : 땅바닥에 물을 뿌려 쓸고서 응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유학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기본 내용 중의 하나이다. 송(宋)
나라 주희(朱熹)의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사람이 태어나 8
세가 되면 왕공(王公) 이하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
학(小學)에 들어가 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의 절차와 예악사어
서수(禮樂射御書數)의 글을 배웠다.”라고 하였으며, 〈소학제사〉에

하는 제자들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늙는 것은 사람이고,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어른의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우니, 선조와 선사를 높이는 중대한 일에 대해 미진한 것을 병들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물러나 천고의 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여겨집니다.

하물며 지금 오진영이 더욱더 방자하게 흉악한 독기를 부려 이쪽 사람들을 배일당(排日黨)이라는 죄목으로 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현재 목전에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어른께서 우뚝 확고하게 스스로 담당하여 이해와 화복의 밖에 몸을 두고 광명정대한 위로 선친을 높여서 세도가 이에 힘입게 하고 사문이 다행스럽게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재 전장에게 답함 을축년(1925) 1월

答靜齋田丈 乙丑元月

옛날에 주자는 적과 강화하는 것은 나라를 그르친다고 여겨 극언하며 매우 한탄했습니다. 나라와 유문(儒門)의 일에 토벌하여 회복하고 변론하여 성토하는 의리가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께서 평소에 음성 오진영이 부친을 무함한 것을 엄하게 배척하신 것이 돌아보건대 어떠했습니까? 이 화합하자는 말이 갑자기 우리 어른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소학의 교육 방법은,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여 행동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시경을 외고 서경을 읽으며 율고 노래하며 춤추고 뛰어서 생각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넘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小學之方, 灑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 과연 위로 선사의 묘¹⁸⁴에 고하고 아래로 사우(士友)에게 사죄하여 흔쾌히 스승을 무함한 죄를 자복한다면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그가 자복하여 사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화해하여 만난다는 말이 있게 되면 이전에 선친을 위하여 무함을 변척한 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듣건대 우리 어른께서 공론을 묻지 않고 먼저 배편으로 편지를 보내 저들과 만나는 것을 서두르셨다고 하니, 우리 어른의 마음이 이미 처음 먹은 마음을 바꾸면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옛 덕을 간직하여 견고하게 지키면 길하다.”¹⁸⁵ 하였습니다. 원컨대 우리 어른께서 한가로운 생각을 버리고 옛 의리를 확고하게 지켜서 선친의 도의를 천추에 영원히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3월

與靜齋田丈 乙丑三月

보내주신 편지의 술한 내용이 오진영과 화해한다는 주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삼가 제 생각으로는 화해(和)라는 한 글자를 글 첫머리에 제목으로 둘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가 만약 흔쾌히 선사를 속인 죄를 자복한다면 수용하여 용서하는 것이 옳으나 그가 화해하

184 선사의 묘 : 원문의 ‘부당(斧堂)’은 봉분(封墳)을 이르는 말이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봉분이 당같은 것도 보았고…도끼같은 것도 보았다.[見封之若堂者矣…見若斧者矣]”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85 옛 덕을…길하다 : 《주역(周易)》〈송괘(訟卦)〉 육삼효의 효사이다. ‘옛 덕을 간직한다[食舊德]’는 것은 전(傳)에 “자신의 본래 분수에 처함을 말한다.[謂處其素分]” 하였고, ‘정(貞)은 “견고하게 스스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謂堅固自守]” 하였다.

자고 말한다면 불가합니다. 이에 우리 어른께서 저쪽의 자복을 기다리지 않고 화해를 허락하며 저쪽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서 만나다면 원한을 푸는 것을 급히 하고 부모를 잇는 것을 쉽게 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의 동빙한설(冬氷雪)같은 엄함으로 어찌 홀연 점진적이지 않은 따스한 바람과 단비를 지으신단 말입니까? 삼가 싹트고 자라는 공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재앙을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아, 우리 어른의 이번 일은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아니고 재앙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로 양쪽을 수습해서 뒷일을 도모하려는 데에서 나왔으니, 그 마음과 형세의 측은함을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다만 문집을 간행하고 비석을 세우는 등의 일은 후인들이 선사를 높이 받드는 것일 뿐이고, 도의와 지절은 선사를 선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사의 뒷일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먼저 그 선사가 되게 하는 도의와 지절을 깨뜨린다면 비록 문집이 천하를 두루 만큼 많고 큰 비석이 백 척 높이로 할지라도 그것이 선사의 실상이 있고 없음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일이 바른데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동쪽을 수습하려다가 서쪽이 흩어지고 처음을 도모하려다가 끝이 망가지는 꼴이 되어버리는 데이겠습니까? 우리 어른께서 만약 옛 덕을 간직하여 확고하게 지켜서 사당(邪黨)을 엄히 배척하고 시비를 밝게 판정한다면 반드시 인심이 모두 복종하고 후사가 이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나 만약 한번이라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한 죄를 흔쾌히 자복하기 전에 저들과 화합한다면 선사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간옹의 도의는 이처럼 우뚝한데, 아들 아무개는 처음에는 음성의 속임수를 배척하다가 마침내는 음성 쪽에 붙어 아부하니, 삼패문(三悖文)¹⁸⁶이 아무개를 배

186 삼패문(三悖文) : 3인의 패륜적 문건으로 오진영의 주장에 동조하여 그의 우익을 자처한 최원(崔愿), 김세기(金世基), 정운한(鄭雲翰)의

척한 말이 전부 허언은 아니구나.” 할 것이며, 선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오진영이 죄를 자복하지 않았는데 아무개가 먼저 그 그릇됨을 깨닫고 화해를 구걸했다. 그렇다면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을 받았다는 것은 오진영이 속인 것이 아니라 간옹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심히 구애될 필요 없다’는 말도 오진영이 속인 것이 아니라 간옹을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 신해년의 유서는 간옹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아무개가 위조한 것이다. 간옹의 의리 없음이 이와 같구나!”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이 천추에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선사가 영원히 다른 사람의 의심을 면하지 못한다면 지하의 원혼이 그 억울함을 언제나 씻을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의 현명함으로 어찌 조금도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어른께서 일찍이 조카 사인(士仁 전효일)에게 편지를 보내 정모(鄭某)의 화해설을 비난하시며 “오늘 선친을 배반하고 내일 천사만종(千駟萬鍾)¹⁸⁷을 얻을지라도 만약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를 통하여 우리 어른이 이익에 유혹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일이 천사만종보다 그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전에 엄히 꾸짖었던 화합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사(練祀)에 참여한 제공에게 올린 편지에서 “만약 의외의 일이 있다면 제가 마땅히 자임하고 제공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어른이 재앙 때문에 두려워

서신을 말한다.

- 187 천사만종(千駟萬鍾) : 사(駟)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뜻하며, 종(鍾)은 용량의 단위로 한 섬에 해당한다. 따라서 천사만종은 아주 많은 봉록을 가리킨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오늘날 오진영이 고소한
 재앙은 우리 어른만 홀로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찌 갑자기 제공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을
 굽혀 홀로 당하지도 않은 화를 미리 염려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어른께서 보낸 그간의 문자가 산처럼 쌓여있고 백세의 공론이
 우레처럼 매서운 데다가 또 이로운 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
 으며 후사에 유익할 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 고달프게 이전의 절
 개를 버리고 기꺼이 오늘날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의 의롭지 못
 하다는 비난을 받으려 하십니까? 절대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호라, 제가 스스로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변론하고 성토
 하는 일에 종사하다가 마침내 저들 무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욕
 을 당했습니다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속담에도 있으므로 한바
 탕 웃음거리로 치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꿈에 이르러서는 스승의 무함을 씻느냐 마느냐
 가 크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한번 고하고 두 번 고해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마땅히 세 번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을
 고하면 이미 자주 간하는 것이 되어 혹여 우리 어른께서 저를 소
 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또한 훌쩍훌쩍
 울고 싶을 뿐입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 어른은 친히 선사의 유서
 를 받은 사람이니 어찌 이 지경에 이를 리가 있겠습니까? 구구한
 저의 근심이라 결국엔 지나친 염려가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
 만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어른이 저들에게 죄
 를 자복하도록 하신 것이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선사께 누를 끼친 것으로 하고, 저들이 묘에 고하고자 하는 것도
 무함한 것을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을 허물하는 것일
 뿐인데, 우리 어른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

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어른께서 전날 힘을 다해 오진영을 성토한 것은 다만 선친에게 누를 끼쳤기 때문이고 선친을 무함했기 때문이 아니며, 다만 저들이 스스로 실수한 허물 때문이고 선사를 무함한 죄 때문이 아니었던 말입니까? 반복해서 생각해 도 끝내 우리 어른의 의중을 알지 못하겠으니, 또한 망연하여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살펴 답장을 해주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재 전장에게 보냄 을축년(1925) 4월

與靜齋田丈 乙丑四月

지난 그름에 답장을 올리며 온 정성을 다했고, 또 답장을 내려 주시라고 청했는데 아직까지 잘잘못을 듣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할 때 오진영과의 화해가 서리 내리면 곧 얼음이 얼 듯 이미 굳어진 것 같습니다. 비루한 제가 따뜻한 봄별이 아니니 어떻게 해빙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도리를 다 할 뿐이고, 들어주고 말고는 기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보내 세 번에 이르고, 세 번을 보내 효과가 없다면 그만둘 뿐입니다. 아, 우리 어른은 피눈물을 뿌리며 부친의 무고함을 변론하고 의로운 깃발을 휘날리며 음성의 도적을 성토한 전정재(田靜齋)가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성토하던 도끼를 돌려 폐백으로 만들고 광명을 잃어 안개 속을 헤매신단 말입니까? 천만 번 그 까닭을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진영이 죄줄 만한 것이 없어 앞에서 성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문집 간행을 그대가 헤아려서 하라’, ‘인가 받는 것을 구애하지 말라’ 하셨다는 오진영의 글과 ‘나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 ‘절대로 따르

지 말라’ 하신 유서의 내용은 끝내 얼음과 솥처럼 서로 융납될 수 없는 것인데, 오진영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른의 선고(先考)요 선사(先師)를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물며 ‘일찍이 인가를 받을 뜻이 있으셨다.〔曾有認意〕’는 네 글자는 우리 어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닌 데이겠습니까? 고소를 당한 화가 해아릴 수 없어서입니까? 그렇다면 군자는 의리에 있어서 진실로 사는 것을 버리고 의리를 취함이 있는데, 하물며 이 몸은 부모님이 남겨 주신 몸을 돌려드리는 것이니 부친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또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물며 사림이 공적으로 다함께 받은 화이고 우리 어른이 홀로 담당할 일도 아닌 데이겠습니까? 저 쪽을 수습하는 것이 뒷일을 도모하기에 이로워서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의리를 바르게 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밝혀 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군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물며 부친을 모함에 빠뜨린 자의 힘을 이롭게 여겨 부친의 뒷일을 도모한다면 부친의 혼령이 어찌 기꺼이 편안해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보호와 화합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부자와 숙질은 본디 친속이니, 진실로 외부 사람인 오진영을 기다린 이후에 보호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오진영은 내 부친의 큰 절개를 파괴시킨 자이니, 오진영과 화해하여 가족을 보호하고 화합하는 것을 구한다면 가족을 화합한 방법이 곧 내 부친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뿌리가 보존되지 못하는데 가지가 장차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단 하나도 오진영과 화합할 의리가 있음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른께서 마침내 이와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것은 또한 운수 소관이지 인력으로 될 일은 아니겠지요. 오호라, 일신의 이기기 어려운 사육은 천 길의 구덩이로 떨어

지기 쉽고, 한때의 잘못된 견해는 영원한 공론의 성토가 두려우니, 한 사람과 구차히 화합하여 온 세상의 버림과 배척을 받을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어른께서 다시 십분 생각하여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심정으로 말을 다하여 이렇게 까지 하였으니, 만약 그르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면 부디 속히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장에게 보냄 정묘년(1927)

與靜齋田丈 丁卯

일전에 왕립하신 것은 진실로 후고(後稿)를 찾으러 온 것인데 받들어 부응하지 못하여 마음이 심히 송구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어른도 크게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시험 삼아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십니까? 오진영이 이미 스승을 무함하고 진주에서 인가를 받아 간행하였으니, 사람들이 진실로 선사께서 진짜 ‘문집 간행을 요량해서 하라’는 말씀과 말로 하지 않은 인가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어른께서 친아들로써 또 용동에서 간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는 데에 참여해 유서를 무시하신다면 사람들이 장차 유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또 원고를 꺼내어 어른에게 주어 그 일이 성사되도록 돕는다면 이것은 선사 문화의 온전한 하나의 의리가 다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침이 없게 되어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해명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선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른께서 진실로 시험 삼아 한번 생각하여 자못 마음속에 불편함을 없애고 제가 가르침을 어긴 것을 죄주지 마십시오.

정재 전장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靜齋田丈 癸酉

현동의 묘에 석물이 없다는 것은 진실로 편지에서 한탄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삼백 원의 돈이 진실로 모으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으기 어려운 것은 의론입니다. 이제 사인(士仁)이 이장하고자 하고 순형(舜衡)이 힘을 쓰고 있으니, 비록 정성과 힘이 있는 자라도 누가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돈만 쓰고 구설을 초래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이하도다! 한쪽 사람의 무함으로 선사의 평생 절의가 사라진 마당에 동문의 그 많은 재물로 고용한 사람들이 손을 댄 난본(亂本)을 간행하면서 유어비어와 이간하는 말로 스승 집안 형제들의 불화를 초래하는 바람에 장사지내는 날 즉시 갓출 수 있었던 석물을 십여 년이나 오래도록 까마득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이 잔인합니다. 용동에서 간행한 일에 이르러서는 또한 어찌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어른이 그 일에 참여한 것은 지금에 이르러 뒤늦은 후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시세와 의리로 헤아려 보건대, 이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인이 마음을 돌리기만 한다면 석물의 비용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 없을까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정성을 들여 사인의 마음을 돌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음성의 오진영이 한창 스승을 무함할 때에 사인이 그들 편이 되었던 것은 사실 한 때 미혹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함재 어른을 찾아가 전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제 동생을 찾아와 저에게 그러한 뜻을 전하고 갔습니다. 사람이 이미 잘못을 깨달으면 마땅히 이전의 허물을 추궁하지 말고 합심하여 뒷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듣건대 올가을 선사의 기일에 임참봉(任參奉)이 우리 어른의 허물

때문에 제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진실로 자식의 도리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조카와 화합하지 못하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율곡이 말하기를, “한 집안 사람이 불화하는 것은 다만 성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⁸⁸ 했으니, 이 말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비록 그러나 제 견해로 해아려 본다면 우리 어른이 선대의 일을 성취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는 것으로 석물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가장(家狀)과 연보(年譜)가 이것이니, 왜입니까? 석물은 훗날에 정성과 힘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가능하고, 가장과 연보는 우리 어른처럼 사실을 두루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완급을 결국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깊이 해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 전장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靜齋田丈 甲戌

연보(年譜) 후반을 저보고 기록하라 하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연월과 사실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니, 우리 어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감히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家狀)을 대신 지으라는 것은 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의 문장으로 족히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비록 잘 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신 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삭하고 운문하는 것은 사우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188 한 집안...때문이다 : 《율곡전서(栗谷全書)》 권40 〈자경문(自警文)〉에 보인다. 〈자경문〉에는 화(和)가 아닌 화(化)로 되어 있다.

정재 전장에게 보낸 갑술년(1934)

與靜齋田丈 甲戌

옛날 정미년(1907)에 임경소(林敬所) 어른이 내방하여 사문의 언행과 사실을 부탁했을 때 곁에 모시고 있어서 자세히 기억하는데, 돌아가신 뒤의 연보를 준비하시며 “이 이전의 것은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안에 자연 편을 이룬 책자가 있을 듯합니다만 이 어른이 죽은 후로 가사가 완전히 쓰러졌다고 하니, 과연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찾아서 얻어두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정재 전장에게 보낸 갑술년(1934)

與靜齋田丈 甲戌

일전에 편지를 보내 음성의 오진영과 절교할 뜻을 표명하셨다 하신 말씀은 근래에 이미 실행하셨는지요? 오진영을 성토하는 일은 우리 어른이 실제 주도하셨으니 절교는 사실 오래 전에 한 것이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검사국에 소환되는 재앙이 있었을 때 한 번 편지가 있었고, 신도(新都)의 모임 때 한 번 만난 이후에 현동에서 밥 한 끼 대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실 삼아 말하기를, “정재가 나와 이미 화해했다.” 하니, 이전의 편지와 만남은 진실로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후의 식사대접은 비록 갑자기 벌어진 일이나 법도가 엄격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니, 그래서 저쪽의 그럴 법한 말을 초래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어른이 선친이 무함 당한 것에 대한 통분이 유명(幽明)을 관통하여 저쪽을 꿰을 마음이 금석처럼 단단하겠지만

누가 기꺼이 그러한 자취를 버리고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려 하겠습니까? 만약 계화도 사원에서 처음 제사 지냈던 날에 제창하여 논하기를, “춘추의 법은 난적(亂賊)을 다스릴 때 먼저 그 무리를 다스리니, 무릇 오진영의 당이 되는 자들은 제사 지내는 뜰에 들이지 말라.” 했다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맞아서 대의가 밝게 드러났을 것이니, 누가 감히 이론을 펼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들으면 자연 간담이 서늘하여 다시는 감히 구실 삼아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봄에 또한 이 무리를 모두 끊어낸 것을 알게 되어 자연 번거롭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원 사람들의 논의를 앞장세워 “오진영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이것은 괴수만 섬멸하고 협박을 못 이겨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라는 의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견해입니까? 조조(曹操)가 그 괴수가 되니 목을 베고, 순욱(荀彧) 등의 무리는 협박을 못 이겨 위협에 따랐을 뿐이니 징벌하지 말라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을 도와 이루고 스승의 원고를 같이 고친 자들은 모두 오진영과 한 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당사자만 제거하고 그와 한 몸인 사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제거한 사람은 한 명의 오진영이고, 같이한 사람은 수많은 오진영이니, 오진영은 말 한 마디 낮빛 한 번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국면을 온전히 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를 한 사람은 실제로 의리에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나쁜 사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뒤이어 음성의 괴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신이(愼李 신현(愼軒) 이기환(李起煥))의 입에서 나와 우

리 어른에게 의중을 물어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한 사람만 제거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스승을 잇고 적에게 아부하는 말을 가지고 감히 일찍이 선사의 친아들을 시험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어찌 오진영을 배척함이 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기환에 있어서는 이전에 성토를 제창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오진영에게 항복하려 하였으니, 그가 말한 “선사가 있으면 오진영이 없고 오진영이 있으면 선사가 없다.”라는 수많은 엄정한 문자는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일까요? 스스로 그 문자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단(勘斷)한다면 자연 몸 둘 곳이 없을 것이니, 다만 우리 어른께서 기롱하신 것처럼 세 토막을 내야 할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제 만약 우리 어른이 빨리 편지를 보내 오진영과 절교한다고 표명한다면, 이기환이 감히 다시는 청하지 못할 것이니, 어버이를 섬기는 나의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환이 악에 빠지는 것을 구하는 어짊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전장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靜齋田丈 甲戌

옛날에 한 위공(韓魏公 한기(韓琦))의 아들이 수도 낙양에 정자와 동산을 만들어, 한 위공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곳으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위공이 말하기를 “지금 내 나이가 이미 70으로 형해(形骸)조차 도외시하는데, 어찌 정원을 가지겠는가?”라

하고 드디어 그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원은 심대하게 해로운 것은 없는데도 오히려 형해조차 도외시한다는 것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의 나이도 70이니 어찌 다시 연연해하는 것이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혹 자손 때문에 구애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자손이 내 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여 남겨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을 남겨주는 데이겠습니까? 우리 어른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할 도리는 오직 뜻을 끊고 쇠를 자르듯 확실하게 행동하여 훗날에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있을 할 뿐입니다. 오진영의 무리가 올리는 제기를 어찌 차마 선친의 영정 앞에 진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어른이 당일에 한 말이 엄하지 못한 것은 이미 흠결의 일이나 오늘에 이르러서 오히려 나재(懶齋)와 신현(愼軒)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에게 받지 말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진영을 끊는다는 명백한 문장일 될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전장에게 답함 을해년(1935) 정월

答靜齋田丈 乙亥元月

편지를 보내 오진영을 끊는 것을 이미 행하여 엄하게 끊으셨다는 것은 공경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진영의 혈당까지 아올려 모두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을 배척하고 원고를 고친 것을 변척하는 실제에 도움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올봄 서원에서 제향을 드릴 때 우리 어른이 의론을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우리 어른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심 전장희순에게 보낸 을해년(1935)

與鍊心田丈熙舜 乙亥

삼가 며칠간 살펴보니, 사견(士狷)¹⁸⁹을 거친 충고를 받아들일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 밝은 창가에 앉아서 다시 정밀히 생각해 보니 의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미 견고하니, 어른이 말씀하신 사견의 말에 이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견고하다는 어른의 말은 어른이 전한 말이다.】 이 일의 시비는 처음에 알기 어려우니, 다만 약간의 사심에 가리어서, 나재(懶齋) 어른이 스승을 폄하한 자들을 용서한다는 것으로 저를 꾸짖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꾸지람을 당한 이후로부터 황공스러웠으니, 생각해보건대 이것은 부북첨좌(扶北僉座)가 한결같이 말한 공적인 성토입니다. 저번 편지에 당신께서 나재 어른의 편지가 비정한 꾸짖음이라 했고, 신재(愼齋) 어른도 그렇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완전히 명교의 죄인이 되지 않음을 다행이라 여기고, 감격하여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크게 한스러운 것이 있으니, 당초에 음성을 성토하는 일은 신재 어른이 창의(倡義)하고 이 몸은 조수로서, 속임을 분별하고 원고를 고증하여 적을 목 베고 무리를 다스리는데 한 문장 한 의리도 그와 함께 하여 서로 상의하여 합치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맹세하기를 ‘살아서는 의리를 함께 하고 죽어서는 열전을 함께 한다.’¹⁹⁰ 했습

189 사견(士狷) : 《유재집(裕齋集)》〈전사견(田士狷) 일중(鎰中)에게 답함〉 참고.

190 생사동전(生死同傳) : 사마광(司馬光)이 범진(范鎭)과 의기투합하여, “나와 너는 살아서는 뜻을 같이하고 죽어서는 같이 열전에 오를 것이다.(吾與子生同志死當同傳)”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권5

니다. 오늘날 영구(嬰臼)¹⁹¹처럼 의론이 잘 맞던 우리(신재와 후창선생)들이 의론이 다르게 되었고, 순원(巡遠)¹⁹²처럼 의기투합하던 우리들이 화합을 잃어서, 의견이 달라지고 정의(情誼)¹⁹³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 지경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옛날 글상자를 열어 신재 어른이 당시에 주었던 시 두편을 얻었습니다. 시에서 말하기를. “그대 오문(吾門)에 명성이 자자한데, 그리워하여 초강(楚江)¹⁹⁴길로 내방하였네. 속임을 변론하고 가르침을 밝혀 스승의 도를 신장시키고, 예를 익히고 경서를 논하여 후생을 창도했네. 춘추대의로 엄격함을 드러내었건만, 사악한 많은 말은 공평하지 않았네. 부끄럽게도 나는 한 일 없이 머리만 세었는데, 사귀는 정이 자상하여 상정에 지나치도록 경

191 영구(嬰臼) : 영구(嬰臼)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 조삭(趙朔)의 문객(門客)인 공손저구(公孫粹)와 조삭의 친구 정영(程嬰)을 말한다. 진나라 대부(大夫) 도안가(屠岸賈)가 조삭의 일족(一族)을 살해하자 공손저구는 정영과 함께 조삭의 고아를 세울 일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정영에게는 조삭의 아들을 안고 산중으로 피하여 화를 면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영아(嬰兒)를 데리고 달아나 산중에 숨어 있으면서, 정영에게 자신을 도안가에게 밀고하게 하였다. 결국 공손저구는 가짜 아이와 함께 도안가에게 살해되고, 조삭의 아들은 정영에 의해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사기(史記)》 권43 〈조세가(趙世家)〉 쓰러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을 듯이 꺾끗한 그림 속의 나무를 공손저구와 정영의 절개에 비유한 것이다.

192 순원(巡遠) : 당나라의 명신(名臣)인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의 병칭이다.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양성(睢陽城)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안녹산의 군대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구당서(舊唐書)》 권187 〈충의열전(忠義列傳) 장순(張巡)〉

193 정의(情誼) :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情)을 말한다.

194 초강(楚江) : 초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이 투신자살한 소상강(瀟湘江)을 가리킨다. 시국을 걱정하며 자결한 굴원의 충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김택술의 처지를 굴원에 빗대서 한 말이다.

제하였네.”라고 하였고, 또 시에 이르기를 “갑자기 스승이 돌아가시어 애통하며 통곡하니, 어찌 제자들이 다른 길을 걸었겠는가. 원수를 받아들여 원고를 발간하니 인심이 죽고, 인가를 성토하는 편지가 오니 사기가 살아났네.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 스승을 핑계 대니 음성의 죄가 크고, 사악함을 물리치고 바름을 부추기니 사람들의 의론은 공평하네. 시비는 절로 정해지니 한탄할 필요 없겠지만, 다만 나의 행실이 실정에 부합할까 두렵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에 당을 다스리는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같지 않음이 오늘날 본 바와 같았다면, 추중(推重)하는 말과 서로 믿는 정이 시편에 나타남이 어찌 이와 같았겠습니까? 대체로 제가 본 바로는 오늘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나만 홀로 이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신재 어른도 똑같이 공공의 문자를 만듦에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같이 문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말한바 “어찌 제자들이 길을 달리할 것인가.”라는 말은 음성의 당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까? 《시경》에서 말한 “아 슬프도다, 권여(權輿)¹⁹⁵를 잊지 못함이어”¹⁹⁶라는 말은 지금을 이르는 것입니다. 펼쳐서 서너 번 읽음에 큰 탄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에 차운하여 쓰기를 “그때에 우리 어른은 의로운 소리를 제창했으니, 눈앞에는 단지 다른 길이 없었네. 《춘추》¹⁹⁷로 무리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심하다 하리오, 《서경 우전

195 권여(權輿) : 사물 또는 일의 시작이나 시초를 뜻하는 말로, 저울을 만들 때는 저울대[權]를 먼저 만들고 수레를 만들 때는 수레의 판자[輿]부터 먼저 만드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196 아 슬프도다 권여를 잊지 못함이어 : 《시경(詩經)》 〈진풍(秦風)〉에 보인다.

197 인경(麟經) : 《춘추(春秋)》의 별칭이다. 《춘추(春秋)》가 애공(哀公) 14년의 “서쪽 들판으로 사냥을 나가서 기린을 붙잡았다.〔西狩獲麟〕”라

《虞典》에는 완악한 사람도 썼으니 함께 살고 싶어서였네. 무릇 인을 행함에 끝까지 하기는 드무니, 언제나 공평하게 하기를 생각했기 때문이네. 벗에게 선을 권하는 은근한 말은, 속히 회복하여 옛정을 되살려 보자는 것이었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공을 그리다 만나지 못한 채 가을이 되어서, 북쪽을 바라봄에 멀고멀어 삼십 리 길이네. 비록 주장하는 것은 오늘과 다르지만, 공론이 후생에게 있을까 두렵네. 곤란한 말로 항상 괴로워하니 다른 사람이 믿지 않고, 허물이 이와 같음을 보니 뜻이 평안하지 않네. 끝내는 깊은 속임을 씻어내기 어려울까 두려우니, 푸르고 푸른 미륵봉은 정이 있는 듯하네.”라고 했다. 오호라, 이를 보니 이놈의 정이란 게 또한 슬픔니다. 우리 어른은 매번 내가 고집스러운 것으로 독부(獨夫)¹⁹⁸가 될까 불쌍히 여겼고, 동문들 사이에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뜻을 감동할 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큰 재앙에 붙어있기보다는 의리상 독립하여 두려울 것이 없을 뿐입니다. 아, 내가 어찌 다른 사람과 절교하기를 좋아하며, 또 다른 사람 이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심히 그만두지 못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대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종자기(鍾子期)가 없다면 마땅히 훗날 나의 글을 알아줄 양자운(揚子雲)이 있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고치시기를 내가 날마다 고대하고 있다.”¹⁹⁹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열통의 편지는 한 번 만나

는 경문(經文)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198 독부(獨夫) : 독부(獨夫)는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버려 외롭게 된 통치자라는 뜻인데, 《서경(書經)》〈태서 하(泰誓下)〉에 폭군 주(紂)를 독부로 명명하고 그의 죄악상을 나열한 내용이 나온다.

199 왕께서…있다 : 《맹자(孟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보인다.

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으니, 거의 신재 어른과 한번 말을 다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한번 이견(異見)이 있는 뒤로부터는 말과 소의 거마 소리가 서로 미침이 없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스승을 폄하한 자를 용서해줬다는 죄목을 얻어서 진실로 사우간을 추종하기 어렵게 되어, 읍에서 바람이나 쐬고 있으니,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심 전장에게 보낸 을해년(1935)

與鍊心田丈乙亥

요새 들으니, 상중에 있는 박현암(朴玄岩)이 김용승(金容承)을 초치하여 자기 조고의 묘갈문을 받겠다고 하니 사문의 일이 날마다 그릇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안 북쪽의 여러 공들이 이미 음성의 적도 골수당과 화합하고, 이 박현암이 또 스승을 배반한 사람에게 묘갈문을 받으니, 의리(義理)와 시비(是非)가 혼란하여 뒤집힌 것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일전에 사견(士狷)과 함께 백천재(百千齋)에 며칠간 머무를 때, 편지를 써서 박현암에게 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창암(蒼岩) 어른이 선사에게 열복(悅服)²⁰⁰하여 성심으로 섬긴 것은 실로 문인들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처럼 스승을 존경한 덕이 있는 분의 행적

200 창암(蒼岩)이 선사에게 열복(悅服)하여 :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열복(悅服)하였다.[七十子之服孔子也]”라는 말이 나오고, 또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시서예악을 교재로 가르쳤는데, 제자가 대개 삼천 명에 이르렀으며, 그중에서 육예를 몸으로 통달한 사람이 72인이었다.[孔子以詩書禮樂教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라는 말이 나온다.

을 스승을 배반한 자로 하여금 쓰게 한다면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성이 믿음을 받지 못하고 말이 쓰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부안 북쪽의 여러 공들이 열어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공들이 앞에서는 무함을 성토하고 뒤에서는 일을 같이 하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찌 여러 공들이 어제는 그러나 오늘은 옳다고 여겨 간옹이 조금은 그럴 뜻이 있었나 의심하고 이것이 김용승이 물러나와 스스로를 결백하게 한 것이라고 여겨서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박현암이 우리 어른과 변론할 때, 옆에서 자세히 들었는데, 이런 뜻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일이 만약 이렇게 나간다면 창암 어른이 죽은 뒤의 일만 낭패일 뿐만 아니라,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도 어찌 가일층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연심 전장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鍊心田丈 戊寅

우리 어른께서 매번 말씀하시길,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니, 규칙을 두어야 하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성인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른이 이것으로 저를 격려하는 것은 덕으로 사랑하는 뜻이 매우 두터움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자(朱子)가 양씨(楊氏)의 ‘본분 이외에 한 터럭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²⁰¹는 말을 인용하여 ‘성인도

201 본분지외(本分之外) : 맹자께서 “중니는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으셨다”에 대한 주석으로 양씨 왈, ‘성인이 하는 바는 본분의 밖에는 털끝도 더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가 참으로 공자를 알지 못했다면 능히

너무 심하지 않았다.’는 뜻을 해석했으니, 본분 이외에 더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분에 가함이 없는 것을 비난하면 비록 엄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심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함과 불가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마땅히 성현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孔子)께서 유비(孺悲)가 뱃기를 청함에 질병이 있다고 사양하고, 다시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 부름에 이르렀으니²⁰²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진항(陳恒)이 임금을 시해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목욕재계를 하고 토벌하자 청한 것²⁰³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향원이라고²⁰⁴ 일컬어지는 사람은 마땅히 선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그 문을 지나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느끼는 것도 없었고, 또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 말하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양

이렇게 칭하지 못했을 것이다.[孟子曰: 仲尼不爲已甚者, 楊氏曰: 言聖人所爲, 本分之外, 不加毫末, 非孟子眞知孔子, 不能以是稱之]’라고 주자가 양씨의 말을 인용하여 풀이하였다. 《맹자(孟子)》〈이루장구(離婁章句)〉

- 202 공자(孔子)께서…이르렀으니 : 《논어(論語)》〈양화(陽貨)〉에 “유비(孺悲)가 공자를 뵈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병이 있다고 거절하시고,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문밖으로 나가자 거문고를 가져다 노래를 불러 그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 將命者出戶取瑟而歌 使之聞之]”라고 하였다. 거문고를 연주한 이유는 병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 203 진항(陳恒)…청한 것 : 진성자(陳成子)가 간공(簡公)을 시역(弑逆)하자, 공자가 목욕하고 조정에 들어가 애공(哀公)에게 고(告)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그 놈을 토벌하소서.[陳成子弑簡公,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하였다. 《논어(論語)》〈헌문(憲問)〉
- 204 향원(鄉愿) : 그 지방 인심에 영합하면서 가장 점잖은 체하는 사람을 말한다. 《논어(論語)》〈양화(陽貨)〉,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鄉愿德之賊]”이라 하였다.

웅(揚雄)과 묵자(墨子)도 또한 인의를 배운 사람인데, 맹자가 부모도 무시하고 군주도 무시하는 금수라고 비난하기²⁰⁵까지 하였으니, 너무 심한 듯합니다. 야인으로 호사자(好事者)의 말은 마땅히 물을 만한 것도 못되는데 힘을 써 변론하여 깨트려 크게 말하여서, “공자 같은 사람이 옹저(癰疽)와 내시 척환(瘡環)을 주인 삼았으면²⁰⁶, 어떻게 공자(孔子)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까지 하였으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자가 중니(仲尼)를 일컬어서 너무 심하지 않다고 여겼으니, 스스로 그가 행한 것을 믿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유원성(劉元城: 유안세(劉安世))이 소인을 너무 강하게 공격하여 만 번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우(元祐)²⁰⁷ 때 제현들이 채(蔡)씨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근심해서 시구(詩句)로써 죄를 주기에 이르렀으니,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동한(東漢)의 당인들이 ‘무모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졌으니’²⁰⁸, 너무 심하다 할 수

205 무부무군(無父無君) : 임금과 아버지를 모두 부정한 극악한 죄인이라는 뜻이다.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자(墨翟)와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맹자(孟子)》〈만장 상(萬章上)〉

206 공자…삼았으면 : 《맹자(孟子)》〈만장 상(萬章上)〉 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켰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瘡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207 원우(元祐) : 송나라 철종의 연호로 1086~1094까지 사용되었다.

208 무모하게…빠졌으니 : 《주역(周易)》〈대과괘(大過卦)〉 상육(上六)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자가 원우 때의 인물을 논함에, ‘유원성은 중도를 얻었다 하고 시구(詩句)로 채 씨를 죄를 준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동한 시대에 살게 했다면, 반드시 범방(范滂)과 양구(陽球)²⁰⁹와 같은 재앙에 빠졌을 것이라 하고, 당중우(唐仲友)를 탄핵함에 이르면, 항소를 여섯 번 올림에 조목을 40개 나열하고도 너무 심하다 여기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모두 일이 대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범해서, 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하의 의리를 밝힐 수 없고, 후세에 재앙과 근심을 막지 못함은 본분에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눈이 헛갈려서 살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듣건대, 사생은 만법의 근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윤리가 한 번 무너지면 만법(萬法)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형세 상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일은 사생의 큰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를 없애는 것은 큰 죄로, 공자 맹자 주자의 세 성현 때와 비교를 해봐도 큰일이지 작은 일이 아니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치를 보는 것이 투철하지 못하고 기를 충실하게 기르지 못했으니, 불인(不仁)한 악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지 못하지만 본분에 대하여 흠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성현에게 받은 글로써 헤아려 보건대 본분에 터럭만큼을 가하여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심하다 말한다면 진실로 깨우쳐 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단지 있던 일

효사(爻辭)이다. ‘지나치게 건너 이마까지 빠져 흉하니 누구를 탓할 수 없다[過涉滅頂凶無咎].’

- 209 범방과 양구 : 후한 때의 명사이다. 범방은 영제(靈帝) 건녕(建寧) 2년(169)에 일어난 당고(黨錮)의 옥사 때 옥중에서 죽었고, 양구는 영제 광화(光和) 2년(179)에 위위(衛尉)로 있으면서 조절(曹節)과 장양(張讓) 등 환관을 제거하려다가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에 근거하여 저들이 말과 일로 속이며 범한 큰 것으로 논했을 뿐입니다. 일찍이 다른 일까지 동시에 언급해서 미세한 것까지 다 거론하기를, 마치 채씨를 죄주고 당중우를 탄핵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의 일상적인 보통 감정의 견해로 헤아려 보더라도 마땅히 또한 너무 심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은 단지 간단히 옳은 것을 구하고 이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치를 따르기를 구하고, 이치에 따라서 생과 사, 화와 복, 비난과 칭찬,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돌아본다면, 이것은 남쪽의 월나라를 가려하면서 말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을 닫는 것과 같아서, 끝내 이루어질 이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학문하는 처음의 마음을 버려서 일생을 그르친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이런 이치를 얻어서 이 뜻을 철저히 지키다보니 마침내 거의 한 부를 얻어서 지하에서 선성과 선사를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른이 저를 사랑한 것은 이처럼 두터운데 내가 보답할 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서 저버리는 것이니 내가 어찌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의 덕성과 온화하고 후덕함은 자못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니, 활달한 기운을 거두어 들어서 차마 공핍(空乏)하게 하리오! 이 학문을 한지 오십여 년이 되어, 널리 사랑하는 인(仁)이 아름답고, 장자(長者)의 기품과 큰 덕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뚝하니 군자의 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정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함에 이르러서는 뜻을 끊듯 쇠를 자르듯 거처(去處)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아가면 시비의 근원이 어긋나는

것이 작지 않고, 학문을 쌓은 효과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근래 의론 같은 경우, 당신의 견해가 이와 같아서, 돌아보면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 같으니, 논리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출입을 간단히 하고, 경전을 가까이 하기를 삼가 권하여 말년에 식견을 밝게 하고 행실을 높이해서 우뚝 세우는 효과가 있기를 바랐는데, 들어주질 아니하여 매우 속상했습니다. 지금 저의 병이 오래도록 낫질 않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른보다 적다하나 갑자기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른은 선친의 친구라고, 다시 진진의 친함²¹⁰을 더 보탠 것이 아니지만, 평범한 다른 동문이라면 어찌 감히 이것으로써 진언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살피어 깊이 마음 쓰기를 바랍니다.

연심 전장에게 보낸 무인년(1938)

與鍊心田丈 戊寅

어른이 근래에 저의 선조 문정공 비석의 전면을 고쳐 새기는 일로 연명서(聯名書)를 우리 종중에 보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또한 여러 사람의 논의가 저 역시 그 일에 찬성하여 크게 죄를 논한다고 들었는데, 또한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비석을 논한 것으로 여러 번 종중과 다투어 변론하여 선조를 폄하하고 스승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른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갑자기 나온 일이

210 진진지호(秦晉之好) : 춘추시대에 진(秦)과 진(晉) 두 나라가 대대로 혼인을 하니, 뒷 사람이 연인(連姻)을 들어 진진지호(秦晉之好)라 일컫게 되었다.

라 처음부터 회의하는 날과 착수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고, 아울러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으니, 무슨 방법으로 그 일을 찬성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평생 남의 입에 오르는 일이 잦았으니, 이번 일로 해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른과는 집안끼리 교분을 맺어 온 처지로 애매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살펴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연심 전장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鍊心田丈 戊寅

저번 편지에서 변론한 것에 대해 혹 함재(涵齋)와 제가 비석에 관한 일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따르는 논의에 통하지 못해서인가 의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그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당초에 비석에 관한 설들이 분분했던 것은, 우리 종중이 크게 다툰 뒤에 비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일에 함재 집안의 주장은 모금에 대한 여론을 수습하는 것이었는데 기필코 빗돌을 갈아 다듬고자 한 이후에 다툼이 그쳤습니다.【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청할 때 창암과 함재 두 어른이 스승이신 간옹 앞에서 정했습니다.】저는 함재 어른 집안과 절친했기 때문에 함께 미움을 받았습니다.【저는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세운 이후에 처음 보았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어찌 비석을 세우고 20여 년이 지나 간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그 단초가 발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이와 같으니, 함재와 제가 금지하는 것이 죽도록 투쟁하여 힘이 다한 이후에나 가능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른의 말씀과 같으니,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만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

이치를 근거하고 말을 바르게 하여 그저 선조를 펴하하고 스승을 존중한 비정한 사람이란 비난만 얻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또한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종중에 관한 내용은 바깥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러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곡절은 우리 동문으로 있는 사람이 끝내 몰라서는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어른은 문정공의 외손이니, 다른 사람과 차별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비밀리에 보고 묵묵히 이해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심 전장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鍊心田丈 戊寅

이전 편지에 대해 답장이 없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으실 듯합니다. 초삼일에 저의 종중 대회에서 제가 말하기를, “당초에 비석 앞면을 고쳐 새기는 것은 원래 망령된 잘못이다. 지금은 다만 옛 상태로 복원하는 한 가지 일만이 상책인데, 하물며 감히 기문까지 모두 갈아서 제거하고자 함에 있어서랴?” 하였습니다. 【여름에 종중에 보낸 편지의 내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상리에 사는 친구 경종(卿宗)이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후창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을 찬성하지 않은 것을 이제야 비로소 그런 줄을 분명하게 알아 의혹이 깨졌다.” 했습니다. 경종의 말로 헤아려볼 때, 이 사람이 오래도록 부북(扶北)의 사투와 종족들에게 의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평일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여 이런 구설을 초래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불찰을 허물할 겨를이 없이 스스로 한스러워할 뿐입니다.

후창집 권 6 서

書

김위재병주에게 답함 계해년(1923)

答金危齋炳周 癸亥

부모가 돌아가심에 형제같다는 말씀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을 대단히 극진하게 말한 것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하여 거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 한번 벼슬 사귀는 도가 사라진 뒤로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¹ 풍조를 볼만한 곳이 없게 되었는데, 오직 어른이 세태를 뛰어넘어 이처럼 진실하고 간절한 가르침을 주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히 받든 나머지 또한 이런 의리를 널리 전달하여 동문제자의 마음속에 골고루 전하고 싶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두터운 덕이라고 장려하신 것은 어찌 하여 걸맞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만약 한두 가지 취할 만 점이 있는데 군자가 사람을 칭찬하여 시험해보려는 뜻에서 나와 곧바로 편지에 써서 드러내 칭찬한다면 어찌 오만한 마음을 열어주어 진덕수업(進德修業)²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1 절시(切憇) : 《논어(論語)》〈자로(子路)〉에 “간절하고 자상하며 화락하면 선비라 부를 만하다.[切切憇憇, 怡怡如也, 可謂士矣.]”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절절시시’를 줄인 말이다. ‘절절시시’는 봉우에게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이이여야’는 형제에게 화락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 2 진덕수업(進德修業) : 《역경(易經)》의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덕에 나아가고 업(業)을 닦는다. 충신은 진덕하는 방법이요, 말을 닦아서 그 정성을 세움은 업에 거하는 방법이다.[君子進德修業, 忠信]

다만 이것은 곧 형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혹여 세상의 풍조에 관계가 된다는 것을 어른께서는 혹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이런 일은 반드시 서로 도와서 강론하고 익힌 후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학문은 반드시 강론한 이후에 밝아진다.” 했고, 또 “벗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했으니, 하물며 이제 스승이 돌아가신 뒤이겠습니까? 이후로는 편지로든 만나서든 장점을 인정하지 말고 오직 단점을 책망하여 하나의 깨진 기물(器物)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저는 스승을 20년간 따랐지만 텅텅 비어 하나도 터득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강가에 집을 지었으나 목말라 죽는 처지라 할 수 있으니, 어찌 충분한 국량이라 일컬으며 발휘하는데 감히 참여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미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심을 입었으니, 가르침을 받을 때에 질정하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감히 터득한 하나의 견해를 드려서 태양 아래의 등불 같은 미력이나마 돕지 않겠습니까?

죽숙 의재^{낙청}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毅齋族叔洛淸 乙丑

조카 인(麟)은 뜻이 이미 학문을 지향하고 재주 역시 우둔하지 않은데다 부지런히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사원 전체의 많은 인원 중에서 최고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청년들이 금수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인재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잘 가르치면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며칠 만에 자못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하였다.

문리가 진전되어 처음 타오르기 시작한 불과 같고 막 솟아 흐르기 시작한 샘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부채질하여 잘 타오르게 하고 깊이 파서 이끌어 준다면 들판을 태우고 바다에 도달하는 것을 끝내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비록 의리가 엄하다 할지라도 문을 닫고 홀로 배운다면 끝내 벗을 떠나 홀로 지내는 근심³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졸졸 흐르고 토닥토닥 타오른들 어떻게 성대해지고 장구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의 학문은 야인이 농사짓는 것과 같으니 한번 때를 잃으면 다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조카의 학문이 이른 단계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단계입니다. 야인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데 있어 비용이 넉넉하지 않으면 동서로 달려가 빌려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게 해야 가을의 수확하는 시기에 그 이익이 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명한 자손이 학문을 많이 한 이익은 백 배가 되는 데이겠습니까? 부디 한때의 얽매임 때문에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복과 이익을 장구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빨리 행장을 꾸려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처럼 학문이 얕고 누추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성취시켜주는 지혜가 있지 않으니, 번거롭게도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진실로 매우 염치가 없습니다만 죽친 간에는 틈이 없기 때문에 혐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조카의 스승이 되는 것은 혹여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가는 국초(國初) 이래로부터 대대로 문학으로 행세하여 그 훌륭함이 나라에 알려져 오늘에

3 벗을…근심 : 원문의 ‘이삭(離索)’은 ‘이군삭거(離群索居)’를 줄여서 한 말로,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지낸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예기(禮記)》〈단궁(檀弓)〉

이르기까지 남은 명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성한 몇 분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 뒤를 잇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 어찌 쓸쓸하고 적막하지 않겠습니까? 조카와 같은 자는 가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책임자를 잘 길러서 성취시키지 않는다면 한 집 안에게만 복과 이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친족에게도 빛과 윤택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홍위현익유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洪韋軒翼裕 戊寅

옛날 을묘년(1915) 겨울 계화도(繼華島)에 있던 날에 존안(尊顔)을 뵈어 세상의 의리를 강론하고 이별하며 글을 지어 주신 일이 어제 일처럼 뚜렷한데,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니 세월이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존자의 선친 겸옹(謙窩翁) 어른이 임인년(1902)에 교남(嶠南 영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선친 벽봉공(碧峰公)을 방문하여 한 번 만남에 오랜 친구 같아서 선장(先丈)과 선친이 대화 중에 교분을 맺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선친이 선장에게 준 시(詩)에 ‘지기(知己)’라는 글귀가 있었으니, 이를 보면 두 분이 홍금으로 기약한 감개가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화도에 있었을 때에 이미 집사와 나눈 말인데 집사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벼들과 함께 지내는 날부터 평소에 한 생각이 일찍이 집사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집사는 겸옹의 아들이고 겸옹은 선친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변한 끝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스승이

돌아가신 뒤로⁴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은 형세라 어찌할 수 없으나 아울러 편지마저도 통하지 못하여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실로 저의 허물입니다. 근래에 사문 천하운(千河運)이 방문하여 집사께서 지난 몇 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위로되는 마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또 경소(敬所 임경소(林敬所))의 문집을 간행하여 길이 전해지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의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욱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소의 문집을 나누어 배송하여 온 나라에 두루 했는데 유독 저만 빠졌으니, 전날 강론했던 우의는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요즘 사문의 일로 음성 오진영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반드시 살피야 한다.” 하신 교훈⁵을 소홀히 하셔서 갑자기 절교 당함을 면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부끄러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러러 여쭙는 것은 오직 겸외옹과 벽봉공 두 분의 당시의 친분을 생각하시는가 일 뿐입니다. 만일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부디 답장을 해 주시겠는지요?

4 스승이 돌아가신 뒤로 : 원문의 ‘산뢰(山頽)’는 태산(泰山)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스승이나 철인의 죽음을 이른다. 공자가 자신이 별세할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은 채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쓰러지니 철인도 시드는구나.[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그 후 7일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돌아가신 데서 유래하였다.

5 성인이…교훈 :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못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못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라.[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데, 이를 인용하여 상대가 혹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말만 듣고 절교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홍위헌에게 답함

答洪韋軒

저번에 편지를 올릴 때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솔직하게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으니, 오직 큰 허물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다와 같은 도량으로 용서해주시고 옛날 강론했던 우의와 오늘날의 연고를 말함에 진실한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조금도 간극이 없으시니 군자의 아량은 못난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집의 분배가 거의 다 끝난 뒤에 특별히 경소의 문집을 보내주셨으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이 어른은 참으로 제가 공경하여 우러르는 분입니다. 또한 일찍이 저의 집에 왕림하여 사문의 작고하신 뒤의 연보를 작성하는 일에 대해 논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후인의 도리에 있어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에 약간의 도움이나마 미치지 못했으니, 마땅히 현재 비석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주어야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빈털터리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2원을 보내드리니, 돈이 비록 매우 부끄러워 땀이 나지만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조카 복경(復卿 김인영)이 이미 죽었다 들었습니다. 비록 신구(新舊)의 학문으로 길을 달리하여 바람난 말과 소가 서로 관심이 없듯 먼 관계이지만 옛날 같은 문하에 있었고 또 나이도 동갑인 정의를 생각할 때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간재의 문하에 옛날 홍씨, 이씨, 김씨가 있어 ‘세 명의 갑신생[三甲申]’으로 일컬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당(陰黨)이 이로 인하여 내가 홍 아무개를 보러 갔던 일을 가지고 총독 부 내의 한 자리를 구하려 간 것이라고 무함하였으니, 아,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들으니, 북경이 정재(靜齋 전화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람이 선사를 오래도록 따라 뜻에 터득한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소의 존경하는 뜻을 표하고 다시 스스로 겸손해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무함한 자의 말과 같다면 어찌 북경의 이러한 편지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단지 한 차례 웃음거리에 붙일 일이며, 족히 말할 것이 못됩니다.

홍위헌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洪韋軒 戊寅

당신 아버지의 비석 세우는 일에 보낸 원조금이 이처럼 적은데, 성대한 마음이라 말해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해주시니, 부끄러워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편지에서 남방에 70여질의 문집을 보냈는데 한 사람도 힘을 보탠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곡절입니까? 아니 70여 집이 모두 가난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인색하여 그런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리와 이익의 관계에 투철하지 못한 소치이고, 또한 이로써 오늘날 학자들을 살필 수 있으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홍위헌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洪韋軒 己卯

지난해 설달에 편지를 올릴 때 외람되게도 존자의 선친 겸와 공에 대한 찬사(贊辭)를 지어 올리고, 주제넘고 경솔하여 누를 끼친 것이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말은 간단하고 뜻은 갖추어졌으니, 어찌 감복하지 않겠는가?”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몇 사람이 아끼고 보호하여 서로 종유하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인데 가난하고 병이 들어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셨으니, 다정하신 인자의 말씀은 못난 저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생애 어느 날에나 어른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친구가 서로 사귄 때는 모름지기 서로 아끼고 보호하는 중에 덕을 권면하고 과실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이 있어야만 진정한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여겼는데, 매번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베풀어 행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간혹 먼저 베풀어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아낀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원수처럼 틈이 벌어진 뒤에야 그만두니, 이런 세상의 이런 풍습을 장차 어떻게 해야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지요? 집사께서 이에 대해 만약 묘한 계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의 자는 중현(鍾賢)이고 호는 후창(後滄)이니 모두 선사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후창이라고 한 것은 중봉(重峯)이 호를 후율(後栗)로 한 일⁶을 모방하여 저에게 주자가 창주정사(滄州精舍)를 짓고 학문을 강론했던 일의 뒤를 계승하게 하고자 하여 권면하신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비록 감히 감당할 수는 없으나 선사의 뜻은 학자로 하여금 반드시 스스로 성현을 기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에 급급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김택술이 어찌 감히 스

6 중봉(重峯)이…일 : 중봉은 조헌(趙憲, 1544~1592)의 호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율곡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또 다른 호를 후율(後栗)이라고 하였다.

스로 주자의 뒤를 계승하는 것에 비길 수 있는가? 그 죄는 죽일 만하다.” 하니, 자못 가소롭습니다.

이신헌기환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李愼軒起煥 乙丑

저는 통문의 본래 초안이 제 손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의 원수가 되어서 첫째는 스승의 명을 속여서 묘표를 고쳤다는 모함을 당했고, 둘째로는 거상(居喪)에서 무례하다는 무함을 당했으니 한 번 두 번 당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세 번째로 말을 지어냈다는 모함을 당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출인(出認)과 물인(勿認) 두 가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것은 어른이 말한 것으로 갑자년 3월 13일에 모현재(慕賢齋)⁷에서 강의가 끝난 이후에 권순명과 함께 잘 때에 들은 것이 아닙니까? 또한 어른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여 공공연히 통문에 기록해 넣은 것이 아닙니까? 권순명이 자신들의 통문에는 본래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속았다고 하여 자정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첫째는 간사한 소인이고, 둘째는 하늘이 그 혼백을 빼앗은 것이고, 셋째는 슬퍼할 만한 따름이다.” 하였다. 아! 하늘에는 거울이 있고 오

7 모현재(慕賢齋) :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사우(祠宇)이다. 임진왜란 때 전라관찰사를 지낸 이광(李洸)이 향풍을 바로잡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직한 남산동백발회(南山洞白髮會)에서 유래한다. 그 뒤 이식(李植)이 종조부인 이광의 백발계를 다시 조직하여 향풍을 길러 향약을 실천하였는데, 한동안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1862년(철종 13) 옛날 백발회 유지에 모현재를 창건하고, 동계(洞契)를 다시 실시하여 학문을 권장하였다. 또한 향일투쟁을 벌여 일본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일생을 마친 구로회원(九老會員)이 있으며, 백발회비각과 구로회 비각이 있다.

장(吾丈)에게는 또 귀가 있으며, 이 사람에게는 입이 있고 저들에게는 또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어찌 사실이겠습니까? 저들이 어른에게 말하여 원수를 나로 삼은 것은 그들 마음이 이미 교묘한 것이고 5개월 동안에 일찍이 한 번도 질문이 없었는데 먼저 정운한 무리를 시켜 나라에 배포하게 하고 “권순명이 억울하게도 김택술에게 헤어짐을 당했다.”라고 말하니 그 마음이 더욱 험악합니다. 저들에게서 나온 것이 저들에게 돌아간 꼴이 되었으니 옛말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함을 꾸밀 때 ‘마음에 내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었는가?’”라고 했으니, 부끄러운데도 썼다면 이것은 이른바 간악한 소인이고 부끄럼이 없이 썼다면 이것은 하늘이 그 혼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다만 널리 배포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멀게 하는 것은 알되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빠지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은 슬픈 것일 뿐입니다.【‘기위(其謂)’ 이하는 도리어 권순명의 편지 가운데 말을 쓴 것이다.】 그들은 일찍이 함재 어른을 문서로 모함했으니 간사한 자들이고 자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아려서 말을 지어냈다 의심하니 이것은 참으로 간사한 소인배의 모습이니 크게 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른에게 분명히 말한 것을 감히 어른에게 묻지 않고 억지로 내가 조작한 말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에 가깝지 않으니 어찌 참으로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번 두 번 받은 모함은 단지 내 일신과 관련되어 있어서 변론하든 변론하지 않던 깊이 규명할 필요가 없지만, 세 번째로 받은 모함은 나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인과 물인이라는 말은 크게 선사와도 관련이 되었으니 어른이 친히 그들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증명하여 분별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서 증명하여 분별하겠습니까? 이에 널리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답장을 하여 그 증

명을 확실히 하고 그 분별을 명확히 하여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헌에게 보냄 기사년(1929)

與李愼軒 己巳

지난 20일 사이에 함재 어른이 와서 말하기를, “근래에 김처중이 김용승과 함께 산북에 있는 견암(堅菴 김태희(金泰熙))을 방문하여 견암이 이미 김용승과 옛날처럼 잘 지내기로 하고 자신이 절교를 고한 과실을 사과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 또한 갑자기 먼저 절교한 미진함을 사과하고 저들로 하여금 묘에 가서 고하여 죄를 자복한 연후에 옛날처럼 잘 지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견암 일이 잘못이라는 것과 함재 어른의 뜻이 구차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장로(長老)는 후배들이 우러러 바라보아 법을 살피는 분인데 이제 의리를 보고 의리를 재단함이 이와 같으니, 세교(世敎)는 장차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김용승의 말에 “우리와의 절교를 주동하는 자는 김택술이고 나머지 늙고 귀 먹은 사람들은 그 바람에 취해 쓰러진 것이니 책망할 것도 못 된다.” 했는데, 이 말은 이미 사실도 아니고 또한 제가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분의 장로가 이미 이전의 견해를 바꾸어 나머지 사람들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말이 불행히도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또 겉으로는 김용승과 절교하고 안으로는 음성 오진영 쪽과 친한 것이 호남을 성토하는 한 자루의 이야깃거리입니다. 이제 만약 그들이 죄의 자복을 고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과실을 사과하고 우호를 청한다면 음성 쪽의 이런 성토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 살아가

실 때에는 순전히 스승으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사우(師友)로 대하니, 이미 배반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이 나오기 전에는 순전히 스승으로 섬기고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이 나온 뒤에 사우로 대한 것은 그 배반이 한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을축년(1925) 여름에 어른이 현암에서 김용승을 피해 오셔서 그가 회봉(晦峰 김봉환)과 한 말을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에, “신해년 유서가 엄하기는 엄하나 경신년 유서의 ‘말하기 어려운 일은 감히 지묵 사이에 드러낼 수 없는 점이 있다.’ 하신 유훈⁸은 너무나 모호하고, 임술년에 홀로 앉아 계실 때 명을 받았다는 것은 의당 분명 있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선사를 깊이 의심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고 사람을 살핌에 정황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스승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먼저 스스로 과오를 사과하고 우호를 청한단 말입니까? 당일의 사실 같은 경우는 창암 어른(박민환)이 제창하여 말하기를, “김씨(김용승)와 절교하고 오씨(오진영)을 성토해야 한다.” 하자, 여러 장로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보다 먼저 이미 마땅히 절교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스승의 명령에 고하는 것을 보다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으며 그들에게 묘 앞에 가서 고할 것을 권하였으나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우간’이라는 말을 발설하니, 다만 이전 편지의 의리만 쓸 뿐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 경신년…유훈 : 이 유서는 《사백록(俟百錄)》 권1 〈사무변명(師誣辨明)〉에 실려 있다. 원문의 ‘난언(難言)’은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유서 내용의 “有難言之事 不敢形之於紙墨間者”를 참고로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다만 함께 앉아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연서의 끝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장로들께서 이미 당시의 일을 주관하고 여러 장로들께서 먼저 당시의 의리를 무너뜨렸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신현에게 보냄 신미년(1931)

與李愼軒 辛未

근래에 존자께서 걸음하여 그사이 고창의 유영선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그가 스스로 와서 거절을 못했거나 길에서 만나 말을 한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어찌하여 친히 몸을 굽혀 찾아가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음성(陰城)의 오진영을 성토하는 일을 어른이 참으로 제창했고 “신현이 또 일어남에 천백 명을 창도했다.”는 말이 오진영의 편지가 아닙니까? 어른은 참으로 저쪽에서 뼈 속까지 호남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뼈가 이미 단단하지 않으니 살은 장차 스스로 떨어져나갈 것이다.” 한다면 저들이 이미 잘못 안 것이고 어른도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마음으로 그 자취를 본다면 혹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당여를 먼저 다스리자는 성토문은 어른이 함께 지은 것이고, 음성 오진영의 골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른이 평소에 한 말입니다. 유영선이 비록 최원(崔愿), 김세기(金世基), 정운한(鄭雲翰), 박제철(朴濟喆)과 같지 않고 권순명과 김용승과는 틀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는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소리로 말했으며, 오진영과 함께 스승의 원고를 고친 진주본 간행에 시종 일을 주선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음성 오진영의 골수 몇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입니까? 삼가 어른께서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생각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나는 유영선에게 오래된 원망도 없으며 어른에게 감히 하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이 대의(大義)와 관련되는데, 어른은 의리를 제창한 사람이고 유영선은 또한 저쪽의 명인이라 피차가 서로 함께할 즈음에 단지 어른 한 사람만 관계될 뿐만이 아닌 만큼 감히 경솔히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여겨서입니다.

이신현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愼軒 辛未

인용하신 농옹(農翁 김창협)이 누원(樓院 박세당)을 방문한 일⁹은 저도 항상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현(前賢)을 업신여겼다

- 9 농옹…일 : 《농암집(農巖集)》 권11 <상중구(上仲舅)>에 “제 아우에게 보내신 편지에 제가 누원(樓院 박세당(朴世堂))에 대하여 노숙함을 존경하고 명망을 사모하여 30리를 달려가 찾아뵈어 존경하는 정성을 나타냈으며 조금도 배척하는 언사가 없다가 사원(士元 박태보(朴泰輔))의 문집이 출간된 이후로는 노여움을 품고 그 부친까지 미워하면서 이런 보복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더더욱 우습습니다…누원은 세상에 나오지 않고 물러나 곤궁한 처지를 굳게 지켰으니 이는 말세에 찾아보기 어려운 절조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진정 높이 받들었던 것이고 그분의 연세가 또 아버님과 동갑이셨으니 어찌 존경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다만 그분은 선현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이설(異說)을 주장하면서 인재를 못 쓰게 만들고 세상의 도를 해쳐서 그 폐단이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었으니, 저는 진정 그분의 학설이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所與舍弟書, 謂姪於樓院, 尊其老慕其名, 委拜一舍之地, 以展尊仰之誠, 略無排斥之辭, 及士元文集出後, 有所慍怒, 而移及其父, 爲此報復, 尤極可笑…樓院之恬退固窮, 誠末世之所難得. 姪於此固嘗推挹, 而其年又先人同甲也, 豈不可尊. 但其慢侮前賢, 敢爲異說, 壞人才害世道, 而流弊之所至, 莫知其極, 則姪誠深不韙焉]”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다¹⁰면 어찌 다만 ‘도가 같지 않다[道不同]’는 세 글자로 멀리 할 뿐이었습니까? 공자와 주자 두 부자(夫子)를 인용하여 근거로 삼은 것은 마땅히 다시 상량해 보아야 합니다. 노자와 육씨(陸氏 육상산)는 비록 허무와 선학의 수종(首宗)으로 그 깊은 학문과 높은 행위는 또한 당세 사람들의 추대와 인정을 받았지만 따질 만한 점도 있고 공경할 만한 점도 있는 것은 다만 그 견식과 언론이 처음에 잘못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끝내 수종이 되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약 노자와 육씨가 요임금, 순임금, 공자, 맹자를 업신여겼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자가 오히려 또한 예를 묻고 강론을 주도¹¹했겠습니까? 어른의 근래의 일은 아마도 농옹의 활달한 도량을 심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만 농옹을 사모하여 본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신현에게 답함 신미년(1931)

答李愼軒 辛未

학술의 오류는 그 지극한 폐단을 말하면 맹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¹²고 말하기까지

- 10 이미 전현(前賢)을 업신여겼다 한다 : 김창협은 “다만 그분(박세당)은 선현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이설(異說)을 주장하면서 인재를 못 쓰게 만들고 세상의 도를 해쳐서 그 폐단이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었으니, 저는 진정 그분의 학설이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但其慢侮前賢, 敢爲異說, 壞人才害世道, 而流弊之所至, 莫知其極, 則姪誠深不韙焉]라고 말하였다. 《농암집(農巖集)》 권11 <상중구(上仲舅)>
- 11 두 부자가…주도 :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고 주자가 육상산과 도에 대하여 강론한 일을 가리킨다.
- 12 맹자가…없다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양씨(楊氏)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씨(墨氏)는 똑같이

하였으니, 허무와 선학은 그 궁극에 어느 곳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어른의 편지에서 이른바 “다만 대의와 관계된 바가 아닌가?” 하신 것은 참으로 지당하니, 다만 그 실마리가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근세 리학(理學)의 근원처럼 견해 차이일 뿐 일반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폐를 끼치는 등의 미워할 만한 점이 없다면 어찌 미리 그 사람을 대의로 판단하여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양주와 목적의 오류를 정자가 오히려 보통사람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노자의 청수(淸修)와 육상산의 독실함은 현인을 업신여긴 자와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른이 자신하는 데에 독실하여 현인을 업신여긴 자도 공경할 만하다고 말함에 이르렀으니, 지나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을 비난하는 자는 법도가 없다.”¹³했습니다. 현인은 성인의 형체를 미세하게 갖추고 있으니, 현인을 업신여기는 것은 또한 어찌 법도가 없는 것의 다음을 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헤아려보면 공경할 만하다는 의론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정론이 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예를 지나치게 따르는 것도 또한 베푸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신현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李愼軒 癸酉

계화도 영당(影堂)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이 어찌 이루고 싶지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니,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이는 금수(禽獸)이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是禽獸也]”라고 하였다.

- 13 성인을…없다 : 《효경(孝經)》〈오형장(五刑章)〉에 나오는 말이다.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먼저 말해주시니 매우 다행입니다. 다만 이른바 호남과 영남에 모두 통지한다는 것은 어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한창 선사의 본원 중에서도 큰 것을 들어 무함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내 유적(遺蹟) 가운데 작은 것을 드러내 현양하는 일을 저들과 함께 한다면 어찌 경중(輕重)을 구분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신현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李愼軒 甲戌

일찍이 보니, 선사께서 마땅히 개정할 문자가 있으면 반드시 문하에 있는 사람에게 묻거나 혹은 편지로 각처에 상의한 후에 정했으며 홀로 개정하여 원고를 수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재(全齋 임헌회)의 비문을 개정한 본은 본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을 의논하여 묘도의 비석에 새긴 것이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니 원고를 수정한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의 편지에 “다른 글 중에 개정하고 미처 수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화도 수정본¹⁴이 혹 그런 것 같다.” 하였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전재의 비문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못사람이 개정한 것을 알았던 일을 미루어 다른 글이 홀로 개정하여 아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무함을 변론한 사람의 말을 문집에서 빼고 싶어서 너무 엄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음성 오진영의 재앙이 치성할 때 몇몇 사

14 화도수정본 : 전우가 직접 수정하고 편집한 문집을 가리킨다.

람들의 목숨을 어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준비해 놓은 자결할 약이 아직도 상자 속에 있습니다. 이
와 같은데 반드시 빼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겠지요?

이신현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李愼軒 甲戌

천지의 그물망이 참으로 오늘의 형세이니 통곡하며 상심하는 것 또한 피차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크게 상심한 뒤라도 반드시 할 일이 있으니 만약 크게 하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크게 패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격동되어 지나친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크게 뒤흔들고 은밀히 박해할 근심이 생겨서 형세 상 반드시 멋대로 잡아 던진 뒤에 통쾌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정이 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옛날에 가의가 입언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마침내는 크게 실망하여 목숨을 해침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비록 큰 실패는 아니더라도 또한 실패입니다. 이것 외에 다시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천지의 그물망을 다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크게 멀리하더라도 형세 상 반드시 이르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은 이미 반절 정도 좋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면 편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더욱 절반 이상 기쁘지 않고 영남은 가까우니 몸소 가고 먼 곳은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일찍이 스스로 오래도록 한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른 때문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침에 대하여 묻지만 내가 어찌 사악

한 덕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는데, 오늘의 일이 불행히도 이와 같이 참으로 통곡할 일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당의 일은 작은 것이고 스승을 속인 일은 큰 것이니 갑자기 이전에 성토를 제창한 일을 잊고 도둑놈에게 손해 볼 일을 열었으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큰일을 했다고 여깁니까? 큰 실패를 했다고 여깁니까? 이것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낭패를 또한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또 듣건대, 음성의 괴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화친을 강화하자고 청하였다고 하니, 또한 한 사람만 제거한다는 설과 다르거늘 반복하여 변설하여 불쌍함을 구걸하여 항복을 한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고 적으로 삼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니 당신 자신이 결단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가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¹⁵라고 말하였으니 또한 각각 자신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이제 누누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자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아직도 다소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참으로 음성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물에 잡히는 재앙이 있었으니 비록 부자의 성스러움으로도 오히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를 자를 생각하는 것을 그칠 수 없었으니 중인의 정으로 어찌 난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진퇴는 참으로 사문의 영욕과 관련되어 있으니 평소의 한 마디 말이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바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하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다하여 피하지 않았으니 장차 해로움으로 여기겠습니까? 이 말을 따

15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르기를 청합니다. 아니면 또 생각할 만한 단서로 여기겠습니까? 원
컨대 밝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라니 침묵만 해서는 안 될 따름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현에게 답함 갑술년(1934)

答李愼軒 甲戌

앞서 올린 편지는, 비록 스스로 실로 마음을 다해 고하고 덕으
로 상대를 사랑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여기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과 마음에 어긋나는 말을 듣기 좋아하며 즐거이 취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여깁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음에 전전공
공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번에 어른께서 노기를 내리
고 마음을 평정시켜 기꺼이 그 의론을 서서히 살피 반복하시고
편지를 보내주셨으며 또 충심어린 가르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
니, 이것은 비록 어른에게 바라는 바였으나 크게 기쁨이 넘쳐서
뜻밖의 보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의리가 비록 정미하여 보기 어렵고 피차의 소견이 비록 어긋나
서 합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끝내 규명하지 못하고 하나
가 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자축하며 실로 한
줄기 양맥이 많은 음속에서 발현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욱 마
땅히 서로 십분 힘을 쓰고 실효를 거두기를 기약해야지 그럭저
럭 범범하게 흘려보내 이미 드러난 양광으로 하여금 장차 식어
서 얼마 후에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히
다시 진술하니 삼가 재가해주기를 바랍니다.

호서에서 시행된 단발의 변고를 듣고 온 천지가 그물망에 걸릴
것을 생각하여 통곡하고 상심하였으니, 이것은 단발의 변고에 격

분되어 온 천지가 그물망에 걸린 것을 상심해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실정에 지나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통곡하고 상심하였습니다. 영남은, 가까우면 직접 가고 멀면 편지로 물어서 영당의 건립에 힘을 얻기를 바라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그 위치를 편안히 여기지 못하여 시험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보존한 것이 이미 은미하고 일을 시행한 것도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재 속의 뱀과 그림 속의 용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눈동자를 찌지 않으면 또한 스스로 그러한 줄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데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간파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이 맹자가 본심을 잃었다고 논한 까닭입니다. 제발 유념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초부터 마음이 중립인 자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으나 권순명 유영선 김용승 세 사람에 이르러서는 서로 절교할 의리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이미 두루 방문하셨으니 어찌 오늘날에 와서 이상하겠습니까? 어찌 적을 다스림에 먼저 그 당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권순명 유영선 김용승은 바로 조조의 순욱 같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을축년 11월의 통문은 오진영의 지휘와 사주를 받아서 전후로 분주히 뛰어다니는 자들입니다. 어찌 먼저 다스려야 할 난적의 당으로 어른께서 함께 지어 연명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비록 방문한 일이 있으나 지금 분명한 글을 드러내 밝히시니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립하는 자들은 말해도 고치지 않으니 치지도외하면 되지만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서로 좇으며 사이가 없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분명하게 입언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오진영을 위하는 자는 오진영의 당이 아닙니까? 어찌 그들을 한결같이 서로 절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큰 과실 작은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주제를 잃었으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교당한 자가 과실을 고쳤다고 말하니 과실이 있다고 어찌 절교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절교를 했다면 반드시 그 과실에 고치지 못하여 죄가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복한 이후에 비로소 다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 자복하지 않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다시 용서하고 한편으로는 편지를 통하고자 하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을축년에 스스로 지은 통문의 내용과 상반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사의 뜻은 영남당 수백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진작부터 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무함하는 말이니 놀라울 뿐입니다. 내 뜻은 선사가 만약 다시 일어나면 오진영의 당 수백 명을 한결같이 죄를 줄 것이니 해로움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문의 화가 컸으니 어찌 숫자가 많다 하여 그 이름을 다 삭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자가 “천하의 적도를 주별함에 살육이 비록 많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저 또한 “사문의 적도를 성토함에 이름을 삭제하고 절교하는 것이 비록 많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비위를 맞춘다”¹⁶ 운운 하신 것은, 조목에서 논한 것이 본문의 뜻

16 비위를 맞춘다 : 원문의 ‘승망풍지(承望風旨)’는 풍지를 승망한다는 뜻으로, ‘승망’은 의중을 살피고 엿본다는 뜻이고, ‘풍지’는 풍도(風

과 서로 너무 차이가 나니, 다시 자세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와 그대가 도가 같지 않음이 없는 것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도모할 뿐입니다. 그러나 도모가 행해지지 않으면 비록 억지로 같게 하려 해도 분명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연 믿음이 미쳐서 서로 뜻이 맞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진영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에 이른바 “인가를 내면서 선사에게 미뤄 핑계를 댔다.”는 것과 “원고를 교정하여 문자를 변경했다.”는 두 가지 일을 보고 어른께서는 용서할 만한 죄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전날의 성토가 있었습니까? 이미 성토했으니 힘써 주별할 수 있으면 주별하고 주별할 수 없으면 마땅히 삼가 오진영을 피하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찌 편지를 보내 서로 통하여 도리어 오진영의 적도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단 말입니까? 우습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히려 구제하여 그칠 수 있으니,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힘써 경계하기 바랍니다.

이신현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李愼軒 乙亥

자사는 “자세히 묻고 밝게 분별한다.”¹⁷ 하였고, 맹자는 “상세히 말하는 것은 돌이켜 요점을 말하고자 해서이다.”¹⁸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을 논한다면 편지를 빈번하게 주고받는 것은 자세히 묻고 상세히 말하는 것이며, 한마디 말로 결단하는 것은 밝

度)와 지의(旨意)로 상대방의 표정과 뜻이다.

17 자세히…분별한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에 나오는 말이다.

18 상세히…해서이다 :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나오는 말이다.

게 분별하고 돌이켜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뒤로 누누이 말한 것은 어른의 ‘음성의 오진영과 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꾸는 것을 끝내 순조롭게 이루기 위함인데, 멋대로 생각한 결단하는 말을 하여 지금 마침내 “요컨대 한마디 말로 결단할 수 있어서 반드시 편지왕복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시니, 열매를 먹으며 뿌리를 보지 않고 효험을 말하며 약을 알지 못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벗이 곧고 신실하면 유익하다.”¹⁹ 하였고, 맹자는 “도가 바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²⁰ 하였습니다. 제가 곧고 신실함에 있어서는 많이 사양하지 않는 만큼 어른께서 견해를 바꾼다면 도가 드러나는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바꾸는 것을 다 바꾸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곧고 신실함이 지극하지 못하고 편지왕복을 다하지 못해서이겠지요? 청컨대 다시 충고를 진술하겠습니다. 이제 “오진영의 무리와 서로 화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만 처치를 마땅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한다면, 맹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자기 몸을 위해서는 죽어도 받지 않았다가 이제 궁실과 처첩과 알고 있는 자의 고마워함을 위해서는 받으니, 이를 또한 그만둘 수 없는가? 이것을 두고 본심을 잃었다고 한다.”²¹ 하였습니다. 어른이 전에 음성 오진영의 재앙이 치성하여 일망타진할 때에는 오히려 떨치고 일어나

19 벗이…유익하다 : 《논어(論語)》〈계씨(季氏)〉의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益者三友, 損者三友]”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0 도가…않는다 :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말이다.

21 전에…한다 : 《맹자(孟子)》〈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말이다. 궁실은 좋은 집을 말하고 처첩은 처첩의 봉양을 말한다. 원문의 ‘소식(所識)’은 ‘소식궁핍자득아(所識窮乏者得我)’를 줄여 쓴 것으로, 알고 있는 궁핍한 자가 나의 은덕을 입어 고마워한다는 뜻이다.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축년 통문】은 어찌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을 변척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를 고친 것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생선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요리를 취하는 의리²²에 붙이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제 마침내 거두지 않을 수 없는 푼돈과 받지 않을 수 없는 패기발 때문에 갑자기 이전의 처치를 마땅하게 한다는 생각을 뒤집어 바꾸었습니다. 본심을 잃었다는 것을 비록 감히 어른에게 문득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아 저들과 서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텅 비고 밝은 마음의 본체가 그 기능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군자가 돌이켜 구하고 내면으로 반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어른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여기에 있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과오를 공격하는데 있으니 어찌 이리도 전도되었단 말입니까? 난적이니 적당이니 하는 글자를 일찍이 어른과 함께 지어 연명한 을축년의 통문 안에 넣어 전국에 배포한 것을 지금 마치 제 글에서 처음 본 것처럼 하여 “지나치다[過當]” 하시니, 어른의 정신없음이 어찌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자가 “자신의 사적인 뜻을 제거하는 어려움이 중원의 오랑캐를 쫓는 것보다 어렵다.”²³ 했습니다. 어른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또

22 생선요리…의리 : 《맹자(孟子)》〈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내용으로,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는 요지로, 사는 것과 의를 둘 다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의리를 취함을 비유한 것이다.

23 자신의…어렵다 : 이 말은 《주자대전(朱子大全)》〈무신봉사(戊申封事)〉에 나오는 글이다. 본래 문장은 “중원의 오랑캐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사적인 뜻은 제거하기 어렵다.[中原之戎虜, 易逐而一己之私意, 難除也]”이다.

한 사적인 뜻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공을 위한다는 사심이 그대로 유소(有所)의 병통²⁴을 이루어 마음이 있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른께서 가리고 막힌다고 겸손히 하신 말²⁵은 비록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가리고 막히는 것이 만약 있다면 저는 감히 그것이 타고난 바탕이 아니라 바로 사적인 뜻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적인 뜻을 제거하면 이에 통명하게 될 것이니, 오직 어른은 힘쓰십시오.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향원(鄉原)은 덕을 해치는 것이다.”,²⁶ “하나를 고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도를 해치기 때문이다.”,²⁷ “믿음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치게 된다.”,²⁸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해치는 것이다.”²⁹ 하였으니, 이와 같은 부류는 다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진영이 하고 있는 짓은 이러한 것

-
- 24 유소(有所)의 병통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7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의 병통인 사유소(四有所)로, “마음에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心有所忿,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고 한 것을 말한다.
- 25 겸손히 하신 말 : 원문의 ‘자도(自道)는 《논어(論語)》〈현문(憲問)〉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군자의 도 세 가지인 인자불우(仁者不憂), 지자불혹(知者不惑), 용자불구(勇者不懼)를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夫子自道也]” 하였는데, 주에 “자도는 겸손히 한 말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自道 猶云謙辭]” 하였다.
- 26 향원(鄉原)은…것이다 : 《논어(論語)》〈양화(陽貨)〉에 나오는 말이다. ‘향원(鄉原)’은 동네(鄉)에서 신실하다(愿=原)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므로 덕의 적이라고 한 것이다.
- 27 하나를…때문이다 :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나오는 말이다.
- 28 믿음을…된다 : 《논어(論語)》〈양화(陽貨)〉에 나오는 말이다.
- 29 늙어서도…것이다 : 《논어(論語)》〈현문(憲問)〉에 나오는 말이다.

들과 나란할 뿐만이 아니니, 만약 그 죄를 바르게 이름 짓는다면, 맹자는 ‘우리 군주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해치는 것³⁰이라고 말했으니,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여 의리가 없는 것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옹(尤翁 송시열)이, 스스로 집주를 지어 선현이 정해 놓은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오히려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말했으니, 오진영이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선사의 본문을 고친 것을 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또한 어른은 갑자년 여름에 홀로 만든 통문 안에 “선사가 있으면 오진영이 없고 오진영이 있으면 선사가 없다.”라고 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에 어찌 스승을 무시한 죄를 범하고도 난적이란 이름을 면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원고를 고치고 선비들에게 재앙을 끼치기 이전에 이미 스승을 무시한 것으로 그를 성토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큰 죄가 모두 드러난 뒤에 마침내 그를 위해서 난적의 이름이 억울함을 다투어주고, 그의 무리로 오진영과 줄곧 함께 하여 몸은 다르나 한 마음인 자들도 적당(賊黨)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오히려,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제대로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³¹라고 한 말이 옛날에도 있었거니와 어찌 어른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분명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어른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영남 수백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그 이름을 다 잘라내지는 않을 것이니 선사의 뜻이 이미 이

30 우리…것 : 《맹자(孟子)》〈이루 상(離婁上)〉에 “우리 임금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해친다고 한다.[吾君不能謂之賊]”라고 한 것을 말한다.

31 시작이…드물다 : 《시경(詩經)》〈탕(蕩)〉에 나오는 말이다.

와 같았다.” 하신 말은 어른의 뜻에서 나왔으나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편지에서 “어디에서 이와 같음을 보고 선사의 뜻이 이미 이와 같다고 하는가?” 했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어른의 말이 무함하는 말이 되는 까닭입니다. “선사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오진영의 무리 수백 사람에 대해 한결같이 죄를 이루실 것이니, 자신을 해친 것은 묻지도 않으실 것이다. 사문에 끼친 재앙이 크니, 어찌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다 베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제가 정자의 “천하의 적을 죽이는데 살육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라는 말을 근거한 것인 만큼 “사문의 적을 성토함에 있어 베어내고 끊어버리는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성인이 서로 전수한 것은 동일한 심법이니, 정자가 전한 ‘살육이 많다’는 심법은 즉 선사가 받은 ‘베고 끊는 것이 많다’는 심법이니, 제가 근거로 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무함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사군자가 이치를 논하고 의리를 강하는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사치와 골목아이들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말이 되려 해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죽히 들을 것도 못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의리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견해는 같지 않으니, 제가 또한 어찌 감히 매사에 자기 견해만 옳다고 여겨서 반드시 다른 사람도 같아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날에 맹자의 ‘막을 것을 말하는 의리’³²에 근거하여 뜻 있는 선비들의 동의하는 견해를 모아 막아 물리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처치하는 데에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어른은 10년이

32 막을 것을 말하는 의리 :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양목은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원고를 고친 것이 더욱 많다는 것과 사림에 재앙을 가한 사실과 스승의 손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다 아신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길을 고쳐서 당초 스스로 성토하는 의론을 제창하고 스스로 통문을 지어 “오진영이 있으면 스승이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러 엄절함을 극도로 해서 오진영의 이른바 두려워할만한 사람으로서 번복하여 그를 위해 난적과 적당이라는 호칭을 벗게 해주며, 말이 오진영의 죄에 미치면 “권하여 허물을 사죄하게 하고자 한다.” 하고, 말이 그 무리를 성토함에 미치면 “한 번 제재하고 억제하였다.” 하여 대충 말하고 가볍게 처리해서 오직 그가 중하게 다칠까를 염려하시니, 어른의 뜻이 있는 곳을 진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또한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의리가 더욱 정밀하고 인이 더욱 익어서 남들이 미처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혈기는 쇠하고 마음은 나약한데 세상은 또 더욱 혼란하니, 평일에 끈고 올발랐던 기개가 가라앉고 사그라드는 데다 아울러 군자의 세 가지 경계 가운데 마지막 경계³³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해당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에 대한 의론은 우리들이 종신토록 크게 완수해야 할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사문의 영원한 후세에 공신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시비는 자연 정론이 있어서 그 사이에 사적인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

33 군자의…경계 : 《논어(論語)》〈계씨(季氏)〉에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젊을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여색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강성하게 되므로 경계함이 다름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므로 경계함이 얻음에 있다.[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라고 한 것의 마지막 경계인 늙어서 얻는 것에 치중함을 말한다.

로 어른의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록 갑자기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편지를 자주 왕복하여 모두 거두어 써놓아 후세의 공정한 눈과 바른 견해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반드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일반 학자들처럼 질문이 있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대들어도 따지지 않는³⁴ 성덕인 낭 자처하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현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李愼軒 丙子

용동본³⁵의 고이(考異)에 대한 것은 저 또한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겨를이 없었는데, 우리 어른이 먼저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용동본의 전고(前稿)³⁶는 원본에 의거하여 발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후고는 조금도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여 다시 원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당일에 일을 함께 한 전정재(田靜齋 전화구), 임자경(林子敬 임장우), 이경순(李敬循 이인구)도 모두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말한 사실이라고 들었으니, 이에 그 내용을 대략

34 남이…않는 : 《논어(論語)》〈태백(泰伯)〉에 안연(顏淵)을 묘사한 말 중에 하나인 ‘범이불교(犯而不校)’를 말한 것이다.

35 용동본 : 1927년경 논산(論山) 용동(龍洞)의 봉양정사(鳳陽精舍)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가리킨다.

36 용동본의 전고(前稿) : 전우가 고부(古阜) 백천재(百千齋)에 머무르던 1906년 3월에 김준영(金駿榮)으로 하여금 초고(草稿)를 수습하게 하여 문고(文稿) 36책(冊)으로 산정(刪定)해 두었고, 1912년 11월에는 1906년에 산정해 두었던 문고(文稿)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글을 합하여 성기운, 권순명(權純命), 유영선(柳永善) 등이 편집하고 전우가 직접 25책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고(前稿)’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용동본의 전고는 이것을 가리킨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후고로 사용한 것이 어떤 본인지 모르겠으나 정재가 화도수정본 한질을 가지고 갔고 또 입석(立石)³⁷이 베낀 현동본을 빌려갔으니 이것이 용동본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또 들으니 전순형(田舜衡 전기진)이 진주본을 많이 답습하여 광주에 보내 발간했다 하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진호가 백천재(百千齋)³⁸에서 김용승을 맞이하여 20년 강학을 기대했다 하니 어른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의 말에 “간재 문하의 제공들이 이전에 음성의 오진영을 성토함은 얼마나 엄했습니까? 이제 제공 중에서 음성의 오진영과 내통하여 서원의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나는 그 전후의 내막을 모르겠습니다.【이것은 연재와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 진사는 분명히 간재 문하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간 것은 스승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여 곧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뜻을 탐색할 수 있고 그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이 말을 들음에 또한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박인규 등의 연명서(聯名書)와 전사건의 논변이 있어 모두 적어서 보시도록 드리니 후에 가까운 사람과 김복교 등 여러 공에게 주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37 입석(立石) : 지명인데, 취오(聚五) 김석규(金錫奎)가 살았던 곳으로, 간재가 김석규에게 지어준 〈우석잠(友石簪)〉이 《간재집(艮齋集)》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김석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8 백천재(百千齋) : 전라북도 고부(지금의 정읍)에 있었던 학습장소를 가리킨다. 《간재집(艮齋集)》 해제에 보면 1906년(66세)에 “3월, 古阜 百千齋에서 文稿 36冊을 刪定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신현에게 보낸 병자년(1936)

與李愼軒 丙子

제가 백면서생으로 어른과 동문으로 사십년 동안 오래 했고 게다가 오진영의 속임수를 함께 성토하며 대의를 지킨 것이 또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토의 의론을 먼저 말함에 변론의 문장이 많고 엄함은 어른이 실로 다 써서 저는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스스로 오늘 세상에서 아는 사람으로 친히 하여 믿으며 경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은 근래에 점점 옛 덕을 바꾸어 마침내 전철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오진영당을 방문하여 오진영당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오진영당을 다스린 이전의 의리는 버리고 조금 지나서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는 설을 제창하여 중도로 자처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끝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오진영이 오는 날에 한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론을 반대하고 계화도 제사의 주축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제가 제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친히 하여 믿기 어렵고 경복하기 어려운 것은 또한 어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부축해주고 내가 성취하도록 해준 사람은 어른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제 저를 버리고 저를 쓰러뜨리고 저를 멸망시키는 사람 또한 어른 같은 사람이 없으니 《수호전》에 나오는 “은혜와 원망이 서로 이어지고 변방의 화복이 무상하다.”는 말을 끝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의 이 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중서가 “인자(仁者)는 그 의를 바로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³⁹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한 의론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곧 최고의 성인입니다. 어른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는 진실로 성인이 아니다. 만약 성취한 큰 공이 있다면 옛날 사람이라도 조금 도의를 어김으로써 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운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비록 자리를 얻어 다스려 태평한 공업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을 이끌어 유문의 공을 세울 수 없겠는가? 나는 지금 늙었다. 이런 일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조금 오진영을 성토하는 의리를 어겨서 이를 통해 그 당과 화친하여 함께 스승의 사당을 창건할 따름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 어른의 심사(心思)가 아닙니까? 비록 스스로 의리를 조금 어긴다고 말하더라도 끝내는 큰 죄에 빠짐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때문에 어른이 사당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일의 공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음을 알았다면 저는 마땅히 다시 충고를 일삼아서 한갓 실언을 했다는 비웃음을 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봄에 일을 들은 이후부터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절대로 편지 한통이라도 보내 진언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연심(전희순) 어른이 왕림했을 때 이 일을 들어 논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오호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신현이 사당을 세우는 것은 결단코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말했으니 저 또한 연심(전희순) 어른이 어른과 함께 기거하며 음식을 먹어서 날마다 서

39 동중서가…않는다 : 《소학(小學)》 권5 〈가언(嘉言)〉에 “동중서가 말하였다. 인자(仁者)는 그 의를 바로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董仲舒曰：仁人者，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라고 하였다.

로 접함에 어른의 근래의 심사를 아는 것이 어찌면 저보다 더 자세하다 여겼으니 어찌 감히 그 말을 믿고 어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과실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스승을 존중하는 경중과 대소 사이에서 나란히 비교하여 어김으로부터 바르게 고치는 것이 가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끝내 다시 한마디 하여 가부를 기다림으로써 깊이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그 욕이 생각할 때 성현의 학문은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가 이것일 뿐입니다. 이른바 성현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니 배우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리를 보면 즉시 함으로써 용을 하고 선(善)을 선택하여 꼭 잡음으로써 인(仁)을 하며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고침으로써 지(知)를 하니 이 세 가지를 버린다면 배운다고 이를 수 없고 또한 선비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른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전에 속임수를 만들어 스승을 해치는 자를 보면 송골매가 참새를 쫓아가듯이 꾸짖었으니 이것은 의리를 보면 즉시 하는 용기였고 이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선을 택하여 끝까지 잡는 인입니다. 이제 옛것을 버리고 음성의 오진영과 내통하여 화친했으니 이것은 과실의 큰 것으로 마땅히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그 욕이 생각할 때 학자는 진실로 과실과 잘못이 많으니 과실 고치는 한 가지 일은 의리를 하여 선을 잡는 것에 비하여 더욱 급한 일이고 긴요한 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자(정이)가 “학문의 도는 그 잘못을 알았다면 마땅히 빨리 고쳐 선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으니 정자(정이)의 말이 비록 과실을 고치기 위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인용 세 가지가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불선을 아는 것이 지이고 선을 따르는

것이 인이고 빨리 고치는 것이 용입니다. 이를 통해 말한다면 과
 실을 고치는 한 가지 일은 또 지인용의 총회처라고 말하더라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학문을 한
 것이 60년이나 되어 늙어 장차 죽으려 해도 그치지 않는 것이 어
 쩌 지인용을 이루는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여기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당을 세우는 것이 스승을 존중하는 큰 것이
 라면 형세 상 마땅히 오진영에게 통보한 연후에 완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의리는 돌아볼 겨를도 없었으니 어른이
 고윤거(고재봉)에게 답장한 편지에서 “만약 선사로 하여금 오욕
 의 이름을 받게 한다면 제사가 풍성하고 비석이 크며 당사가 현
 창하더라도 어찌 귀할 것인가.”라는 말은 이미 둘 사이의 대소경
 중을 분명하게 분별한 것이니 또한 오늘에 나란히 비교함을 기
 다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을 것인데 다시 그 사이에 말할 것이 있
 다 한다면 비록 피해 달아나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믿
 겠습니까? 어른이 앞뒤로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 것 같지 않으니 이와 같은 비상한 큰 변란에 어찌
 한마디 말로 반드시 고칠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
 누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연심 어른이 스승을 존경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믿을만하다 여겨서 뿐만 아니라 또한 어른
 이 일찍이 제 충고를 받음으로써 오진영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만둔 것이 오히려 과실을 기꺼이 듣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거
 늘 이제는 섬에 들어가 오진영을 피하지 않고 함께 제사를 지내
 니 오히려 꺼림직 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병이 든 사람
 이라도 오히려 한 줄기 생맥이 있어서 잘 기르면 회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진언하여 잘 보양할 수 있는

약재로 삼아야 하는데, 입에 쓰게 만들지 말라 한다면 시험 삼아 복용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 휘어진 나무를 바로 잡은 것은 습기를 만나면 바로 굽어지니 신현은 원래 오진영당의 사람인데 도중에 일절은 비록 좋을지라도 오늘의 변심은 바로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른바 세 번 의지를 바꾼 사람(三截人)이 이것일 뿐이다.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 하여 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줄 곧 먹줄을 받아 곧게 되면 중간의 일절은 비록 구불어졌다 하더라도 집을 만드는 용도가 될 수 있으니 신현의 처음 일은 오진영의 죄가 나타나지 않은 날에 있었고 또 그를 오진영의 당이라 이룬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쫓아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신현의 일은 마땅히 속임수를 성토했던 것으로 시작을 삼아야 하니 오늘의 변신은 중간의 일이라 봅니다. 만약 다시 마음을 고쳐 바른 데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삼절이 바름을 얻고 줄곧 먹줄로 인하여 바르게 된 자이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주자는 대현으로 경서를 해석하는데 으뜸이었습니다. 중화의 설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친 이후에 바름을 얻었고 《대학》의 그침을 아는 것은 일정함이 있다는 것과 《중용》의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말은 이미 고쳐서 구설을 따랐습니다. 대현이 경을 해석하는 것도 오히려 이와 같다면 학자의 처사가 어찌 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만 도가 있는 곳을 얻었다면 삼절(三截)은 말할 것이 없으니 비록 십절(十截)이라도 자주 반복되는 것으로 꺼리기는 했지만 끝내 바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선배들이 비웃은 삼절인(三截人)은 그가 끝까지 바름을 얻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이제 신현을 위한 계획은 저쪽의 바르지 않은 삼절인이 되지 말고 이쪽의 바름을 얻은 삼절인이 된다면 허다한 허물은 조금도 없고 저절로 무한하게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어른은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이치를 깨달은 명언이라 여겨 긴요하게 살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조소하면서 나를 업신여긴 사람이라 주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세력이 비록 두려울지라도 천년의 공론은 더욱 두려우니 틈을 엿보아 일어나는 사적인 생각은 비록 제거하기 어려울지라도 지극히 밝은 본심은 더욱 속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조조가 천자를 끼고서 제후를 호령하다가 끝내 한나라를 찬탈함에 이르렀습니다. 천하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쏠리듯이 따르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른바 일세의 명사라도 모두 똑같이 달려가서 그를 위해 지모와 생각을 내어 천하를 앞서서 안정을 시켰으니 당시에 적(賊)이라고 성토하고 힘을 다해 막은 자는 오직 소열 유비가 애썼습니다. 파촉(巴蜀)은 형세로 봤을 때 그 존재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사관들은 모두 조조를 존중하여 위무제(魏武帝)라 하고 그 통치를 무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나라 군자 온국공(사마광)에 이르러서도 그러했는데 최후에 주자의 《자치강목》이 출현한 이후에 촉나라가 주인이 되고 조조가 도적이 되어 의리가 밝아지고 포상과 주별이 행해지니, 명사들로서 조조에게 아부한 자들은 모두 적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문하의 일은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여 비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른이 정말로 이 점을 살필 수 있어서 맑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돌이켜 반성한다면 본심이 드러나고 의리가 밝게 나타나서 혹 그 번복함을 자책하고 혹 그 망령됨을 스스로 후회하고 혹 그 비겁함을 스스로 비웃고서 맹렬하게 깨달아서 변연히

고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일의 공론을 기다릴 것 없이 곧 존장이 오진영을 성토한 문장에 ‘오진영이 있으면 선사가 없다는 등의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이에 털끝도 용납하지 않는 엄한 말’로써 도리어 존장의 죄를 다스린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한 말로 못사람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무릇 이전의 사소한 일은 나는 이미 모두 버렸노라. 장차 그것을 겁화(劫火)⁴⁰ 속에 태우고 오진영 문하에 가서 사과하겠노라.”한다면 어른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전주와 진주에서 검찰에 고소한 재앙이 있는 뒤로부터 태도를 바꾸고 반론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직 어른에게 연연하며 그만두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른이 몸소 일찍이 성토를 제창한 사람이 되어서 못사람 마음의 향배와 스승을 속인 것을 분별하는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동지 전체의 수치이며 동지 전체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스승을 속인 것이 이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어른이여, 어찌 조금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일신의 명예와 절개는 비록 돌아볼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전체의 수치는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체의 수치는 비록 돌아볼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스승을 속인 것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어찌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른이여, 어찌 조금도 생각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

40 겁화(劫火) : 불가(佛家)의 용어로, 재앙을 뜻한다. 하나의 세계가 끝날 즈음에 겁화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 곤명지(昆明池) 밑바닥에서 검은 재가 나오자, 인도 승려 축법란(竺法蘭)이 “바로 그것이 겁화를 당한 재[劫灰]”라고 대답하였다. 《고승전(高僧傳)》 권1 〈한낙양백마사축법난(漢洛陽白馬寺竺法蘭)〉

라. 듣자하니 신현이 벽에다 걸어놓고 맹세하기를 ‘사문의 일로 편지를 보내오면 일체 답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가 요즘 오진영이 주관하는 뒤에서 사당의 일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사당에 돈 모으는 일로 온 편지에 대하여는 분명 답장을 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즉시 맹세를 했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오진영과 화답하는 편지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조짐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하여, 내가 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신현이 사당을 세움에 만약 일의 공적을 위해 시작한 것이 나의 견해와 같다면 즉시 맹세한 뜻은 진실로 그대 말과 같지만 연심이 이른바 결단코 스승을 존중하기 위하여 시작했다는 말을 나는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으니 만약 어찌 반드시 오진영과 화친할 조짐이 이미 드러났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여 감히 문득 반드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반대로 원수 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만둬 버리면 사후에 큰 윤리에 대하여 다소 분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아 홀로 앉아 눈을 반쯤 감고 붓을 세 번 잡았다 세 번 던지고 끝내 연심의 말을 믿고 이 편지를 썼으니 만약에 편지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혹자의 설과 같다면 저는 진실로 답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답장을 해도 또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연심이 말한 것과 같다면 답장하여 이 미혹함을 풀어주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김종희가 “호남 사람은 이미 과실을 고쳤다.”말하니 이것은 연심이 전한 말입니다. 어른이 이미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니 오호라! 그 끝내 오진영을 위해 과실을 고치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선사를 위해서는 과

실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어른은 깊이 살피주십시오.

최금재병심에게 답함 을묘년(1915)

答崔欽齋秉心 乙卯

《논어》와 《역경》에서 인(仁)과 지(知)의 뜻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이렇게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셨으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찌 그치겠습니까? 《논어》에서 “지는 움직이고 인은 고요하다.[知動仁靜]”⁴¹ 한 것은 참으로 마땅히 체단(體段)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에 지자(知者)에 대해서 “사리를 통달하여 두루 흘러 막힘이 없다.” 하고, 인자(仁者)에 대해서 “의리에 편안하여 후증해서 옮기지 않는다.” 한 것은 그 모범과 의사를 형용한 것에 불과하고 본체가 아니니, 이것은 마땅히 인과 지가 발현되어 작용한 것으로 봐야만 《역경》의 “인은 양이고 지는 음이다.[仁陽知陰]” 한 것이 참으로 마땅히 발현되어 작용한 것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 지에 대한 이견은 기품이 편중됨으로 인하여 단지 한쪽만 본 것에 불과하니, 그 본 것이 어찌 도의 전체 중의 한 귀통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본다면 피차 막힘이 없어서 완비될듯합니다.

주자가 “적연부동은 못사람이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감이수통에 이르러선 오직 성인이 능히 하고 못사람은 오히려

41 지는…고요하다 : 원문의 ‘지동인정(知動仁靜)’은 《논어(論語)》〈용야(雍也)〉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니,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려 그렇게 하지 못한다.”⁴²라고 말했으니 이천(정이)의 이른바 ‘적연부동(寂然不動), 감이수통(感而遂通)’은 마음의 체용을 범론한 것으로 성인과 범인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오직 성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중인은 아마도 참여할 수 없는데 주자가 이르기를 “적연부동은 보통사람이 모두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이 만약 보통사람이 잠시 미발한 상태를 가지고 말했다면 보통사람의 한 가지 일이 중절(中節)〈절도에 맞는〉한 것을 어찌 감이수통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까?

천(天)의 성정은 굳셈[乾]이고 화(火)의 성정은 뜨거움[熱]이고 수(水)의 성정은 차가움[寒]입니다. 그렇다면 인(人)의 성정은 무슨 글자를 놓고, 물(物)의 성정은 무슨 글자를 놓아야 딱 맞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물(人物)의 성정은 반드시 한 글자로 개괄할 필요 없이 다만 마땅히 나누어서 남자의 성정은 강(剛)하고 여자의 성정은 부드럽고[柔] 말의 성정은 달리고[走] 소의 성정은 밟가는[耕] 것이고 말하면 맞겠습니까? 주자가 “건(健)의 본체는 천의 성(性)이고 건(健)의 작용은 천의 정(情)이다.”⁴³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해보건대 정자의 “굳세어 쉽이 없는 것은 작용이고 정이며, 굳세어 쉽이 없게 하는 이치는 본체이고 성이다.”라는 말입니까? 또한 차가움, 뜨거움, 강함, 부드러움의 발현되어 작용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작용이고 정이

42 적연부동은…못한다 :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역은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느끼게 되면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하나니, 천하의 지극한 신령스러움이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라는 말이 나온다.

43 건(健)의…정(情)이다 : 《근사록(近思錄)》 제1권 〈도체(道體)〉에 나온다.

며, 차가움, 뜨거움, 강함, 부드러움의 이치는 본체이고 성인 것과 같습니까? 이와 같이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최금재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崔欽齋 丙辰

지난번 조문을 오셔서 제가 거듭 재앙을 만나 정신과 혼백이 나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때문에 학업을 느슨히 할 것을 염려하여 임창계(林滄溪 임영)가 김농암(金農巖 김창협)을 면려한 고사를 인용하여 위로하고 풀어주셨는데, 계속하여 두 통의 편지를 보내주어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과 능하지 못한 것을 더 노력하여 옥과 같은 훌륭한 일을 이루라는 말로 가르침을 주시니 제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어찌 감격하여 울면서 저를 사랑하는 은혜에 보답하려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생각하니, 저는 어렸을 때 《효경》의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한다”⁴⁴는 말을 읽고 문득 기뻐하여 펄쩍 뛰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일이니 힘쓸만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본 것은 단지 이른바 입신양명이라는 것이 학문이 넉넉하여 조정에 올라가 뜻이 군주와 부합하고 은택이 천하에 미쳐서 좋은 음식과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높은 벼슬자리를 갖는 영광이 부모에게 미치면 충분하다는 것만 알았으니, 바라며 힘쓴 것이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선친이 저를 가르쳐 말하기를, “학문에는 도학과 문학의 차이가 있으니 도학의 학문은 근

44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한다 : 《효경(孝經)》〈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나오는 말로, 효의 완성을 말한다.

본이고 문학의 학문은 말단이다. 선비가 학문을 할 때에는 마땅히 근본을 먼저 하고 말단을 뒤로 해야 한다. 내가 간재 전우 선생이 당대의 도학의 스승이라는 것을 들었으니 너는 가서 인사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선친의 명을 받들어 명함을 들고 봉래산의 월명암에서 간옹을 뵈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선생이 가르칠만하다 하시고, 곽임종(郭林宗)이 모용(茅容)을 방문한 고사⁴⁵를 인용하시고 외람되게도 저의 집을 방문하여 입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선친이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간옹이 태산북두와 같은 명망과 상서로운 봉황과 같은 의용으로 네가 조금 문자를 안다 해서 누추한 곳을 왕림해주셨으니 그 영광됨은 네가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낫다. 이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니, 네가 만약 몸을 깨끗이 하여 덕을 이루고 후세에 이름을 세워서 아름다운 호칭이 너를 낳아준 나에게 미친다면 다시 어떠하겠는가?” 하시고 마침내 폐백을 갖추어 영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비로소 부귀영달 외에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내는 진체(眞諦)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선친을 섬기고 선친은 이것으로 저를 격려하여 거의 하늘이 돌봐 주고 보호해 주어 우리의 바람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45 곽림종(郭林宗)이…고사 : 임종은 곽태(郭泰)의 자이다. 곽태가 모용의 집에 유숙한 다음 날 아침에 모용이 닭을 잡자 곽태는 자기를 대접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았다. 이윽고 모용이 그것을 모친에게 올린 뒤에 자신은 객과 함께 허술하게 식사를 하자, 곽태가 일어나서 절하며 “경은 훌륭하다.[卿賢乎哉]”라고 칭찬하고는 그에게 학문을 권하여 마침내 덕을 이루게 했다. 《후한서(後漢書)》, 권68 〈곽태열전(郭泰列傳)〉 《후한기(後漢紀)》 권23 〈효령황제기(孝靈皇帝紀)〉에는 “‘경이 이와 같으니 바로 나의 벗이다.[卿如此 乃我友也]’라고 하고는 일어나서 마주 대하고 읊(揖)한 뒤에 학문을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집안의 운수가 쇠락하고 박하여 26세에 갑자기 부친을 잃으니 재앙은 뜻밖이어서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스러움과 슬픔 속에서 홀연히 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날렵하게 전진하려 한 기개는 일시에 사라지고 눈앞에 빛 문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선친이 평소에 불초에게 바란 것은 몸을 이루는 한 가지인데 불초의 학업은 진전이 없고 선인의 타고난 수명은 기다려 주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하루에 백번 천번 사력을 다하여 이론들 어찌 구천에 계신 선친을 일어나게 하여 친히 보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 일은 한때 억지로 힘쓰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랴! 오직 제사를 받들고 후손을 부탁한 것은 참으로 조종이 서로 전한 큰 계획이니 마땅히 보수하고 유지할 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노인 봉양을 잘 마치지 못한 한스러움은 선친이 지하에서도 잊지 못해 걱정하시는 일로 불초에게 맡기셨으나 맛있는 음식은 떨어지고 가볍고 따뜻한 옷은 항상 부족하니, 이것은 선친의 뜻을 잘 잊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는, 이에 책 읽는 공부를 줄여 농사에 힘을 써서 노심초사하여 손과 발이 부르짖으니, 제 생각에, 이것은 노인을 봉양하고 집안을 보전하는 도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기근의 재앙이 거듭 이르고 질병의 재앙도 끊이지 않아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쓰러지고 망가져서 물이 더욱 깊어져 구할 수 없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크게 깨달아서 말하기를, “《맹자(孟子)》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으니, 이것을 구하는 것은 얻는 데에 유익함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에 도가 있고 얻는 데에 명이 있으니, 이것을 구하는 것은 얻는 데에 무익하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으니, 마침내 빈부는 하늘에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도의는 내 몸에서 구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구하는 데에 급히 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하는 데에 천천히 하였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젊은 시절의 실수를 후회하고 늙어서나마 공효를 거둘 것을 맹세하여 마음에 새기고 뜻을 떨쳐 공부를 통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정력이 다시 옛날만 못함을 느꼈고 명리(名理)를 파고들어 연구할 때는 암흑처럼 캄캄하여 통달하기 어려웠으니, 이것이 진실로 가련한 일입니다. 일에 임하여 의리의 득실이 있는 데에 이르면 이미 실수하여 고통 받는 것⁴⁶에 깊이 징계가 되고 나서야 조금은 취사하는데 힘이 덜 들었습니다. 십 수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아무 일 없이 이 일에 전심하도록 해준다면 거의 사도(斯道)에 거칠게나마 터득함이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죄악이 쌓여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 거둬 큰 재앙을 내리니 오관은 그 기능을 못하고 온몸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고통과 독함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안으로 가난하고 밖으로 금지 당함이 일시에 몰려들어 장황스럽고 구차스러워서 예모를 갖추지 못하니 거둬 끝없이 한스럽습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이 막막하고 것은 산 사람의 근심이고 배고픔과 추위로 나뉘는 것은 진실로 존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죽어서 시신이 구학에 나뉘게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⁴⁷에 뜻을 두어 백 번 꺾여도 뜻을 바꾸지 않기를 맹세하고 아

46 실수하여 고통 받는 것 : 원문의 ‘절지궤(折之肱)’은 팔이 부러진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에 “팔뚝을 세 차례 꺾음 부러뜨린 다음에야 그 방면의 명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극복하는 힘이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47 죽어서…교훈 : 뜻을 세운 선비가 가난 때문에 지조를 굽히지 않음

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자 하니, 이런 것들이 흥중을 어지럽히는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슬픈 것은 상위(喪威)를 겪은 이래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근골이 마비되어 사색의 구멍이 전부 닫히고 펼쳐 일어날 힘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비유하자면 서리를 맞은 약한 풀이 쓸쓸히 생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몸은 젊었을 때는 노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중년에는 세상사에 뜻을 빼앗겨 허다한 세월을 먹어버렸습니다. 5, 6년만 지날 것 같으면 옛사람이 덕을 이룬 나이에 딱 차게 되건만 돌이켜보면 흥중이 텅텅 비어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 이와 같으니 절대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끝을 잘 마칠 희망은 없습니다. 줄곧 휩쓸려 가는 세속 속에서 보잘 것 없이 지내다가 아무 이름도 없이 죽어 부친과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고 천고의 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최금재에게 보냄 신유년(1921)

與崔欽齋 辛酉

삼가 들으니, 군주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여 여전히 상복을 입고 계시다 하는데, 이를 옛 근거에 증명해보면 송나라의 현인들이 휘종과 흠종에 대하여 한 것과 왕부(王裒)가 그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은 경우에 일찍이 원수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복을 벗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원수를 가슴 아파하여 상복을 계속 입고 있다면 거처하고 출입하며 말하고

을 뜻하는 말로,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지사는 죽어서 시신이 도랑이나 골짜기에 있을 것을 잊지 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라고 한 것을 말한다.

웃으며 음식을 먹는 것부터 일체의 세상일에 답하고 사물에 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게 하여 거의 폐인과 같게 한 이후에 명실이 상부할 것입니다. 복수는 기약이 없고 인사는 다단하니 어찌 다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존자의 처지는 노인을 모시고 있어 봉양을 해야 하니 분명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고, 혼례와 제사도 얼마 안 있어 있을 터인데, 일마다 얽매이고 장애가 있다면 대처하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부디 다시 생각하여 재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금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崔欽齋 丙寅

전에 들으니, 오진영이 스승의 손자를 고소하여 구류시키고 다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수락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지럽힌 문집을 행하려 할 때에 그 기염은 두려울 만했으니 오진영이 오늘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부터 선사의 심사(心事)가 더욱 어두워지고 화도수정본이 더욱 어지럽혀질 것이 통탄스러워 편치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은 그가 문집 간행을 앞두고 그 도당들의 무함하는 문자를 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려는 것이고, 또한 문집 간행을 앞두고 그가 고친 원고를 내어 시비를 전도시키려는 것입니다.【오진영은 매번 내 원고가 한번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 오진영이 지금이 알맞은 때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인가도 받고 고소도 하여 그 예봉이 매우 날카로운데 누가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록 손수 편정하신 화도본

이 진본임은 해와 달처럼 분명하고 변론하여 꾸짖는 엄한 말이 서릿발처럼 매서우나 때가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기 전에는 결코 간행할 방법이 없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한 마디 한다면 단지 신표서(申包胥)의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길 것”⁴⁸이라는 말을 뇌일 뿐입니다. 비록 그러나 염려와 근심하는 도리는 마땅히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다하여 천명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니, 이제 우리의 급선무는 오직 서로 힘써 현동본을 베껴 써서 여러 곳에 보관하여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간에 변론하여 꾸짖은 문자들을 합하여 정리해서 백세를 기다리는 일은 바로 늦출 수 없는 일인데, 여러 사람들의 뜻은 태만하고 미력한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대단히 통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최금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崔欽齋 丙寅

화도수정본은 결코 예기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서로가 자세히 알지 못함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동본(玄洞本)입니다. 존자께서는 제가(諸家)에서 소장하고

48 하늘의…것 : 《사기(史記)》 권66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역시 사람을 능히 이기는 법이다.[人衆者勝天 天定亦能勝人]”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있는 신도판(新都板)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도판은 인가를 받은 것이니, 절대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하여 읽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장본은 우리 것이 아니니, 신도판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현동본을 많이 베껴서 나누어 소장한 이후에 우리의 의리를 지키고 우리 것을 만든다면 허물도 없고 근심도 없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최금재에게 보냄 병술년(1946)

與崔欽齋 丙戌

상천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여 섬의 오랑캐를 쫓아 버려 조국을 회복하니 이에 우리들이 숨을 쉬고 몸을 운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대 집에 가서 술을 따라 마시며 축하하고 싶었으나 질병이 근래에 심해지고 풍사(風邪)로 인한 현기증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봄에 동생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딸 아이 하나가 죽어서 세 번의 겹친 초상을 당하여 병세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이에 중대한 일이 아니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진실로 떨치고 일어나기 어려워 다만 혼자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 세상의 운수가 이와 같고 정치의 책임은 자연 담당한 제공이 있는데, 사문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 지난날 음성 오진영의 재앙은 말하자니 치가 떨립니다. 저들이 우러러 떠받들었던 왜정(倭政)⁴⁹이

49 왜정(倭政) : 원문의 '수가일월(誰家日月)'은 오진영이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에서 한 말로, 일본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 속의 지폐나 경향을 오가는 차표나 주고받는 편지에 찍힌 인장이 누구 집이나 비추는 해와

지금 이미 산산이 부서졌으니, 그가 스승을 무함한 “내가 죽은 뒤의 세상을 알 수 없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는 말은 변론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밝혀질 것이고, 이로부터 우리들은 다소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직 화도수정본의 원고를 발간하여 배포할 기회는 지금이 바로 그 때인데 당신과 나는 모두 가난하고 현재 동지도 없으니 이를 장차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깊이 근심하고 깊이 한탄하여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할 때 존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옛 사람이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룬다.”라고 말했으니, 이 일을 이룰 날이 끝내 없겠습니까? 한 말씀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선사의 생신입니다. 스승의 죽음을 간절히 통탄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토로함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헤아려 주시시라 믿습니다.

오진영이 이미 강경하게 선사가 지산(志山 김복한)과 절교했다고 말하면서 존자가 홍성 전재(全齋 임헌회)의 문인 정운영(鄭胤永)을 찾아가 뵈는 것을 가지고 한 쌍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성파의 한 기둥으로 지산을 추대하고 또 대대로 종계지낸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구(聖九 김노동으로 김복한의 아들)는 초상을 만나 달려와 조문하지 않았으니, 부당하게 사람을 끊는 것이 이처럼 근거가 없다.”【오진영이 김성장(김병헌)에게 답한 편지에 보인다.】하더니, 후에 다시 임경선(林敬善 임호철)에게 편지를 보내 손녀딸을 성구의 큰 아들과 혼인 맺기를 청하며 오 충정공의 후손과 선청(仙淸) 후손이 통혼하여 길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두루 들어 증명하다가 성구의 동생인 김명동의 꾸지람을 받

달 같은 것이다.” 하였는데, ‘누구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이 일본 충독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왜정으로 풀었다.

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전후로 한 짓을 따져보면 어린아이요 제멋대로 휘두르는 맹인의 지팡이요 대낮에 출몰하는 도깨비라 터럭만큼도 선비의 기상이 없다고 말할 만하니, 본디 그와 더불어 말할 것도 못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또한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운기(運氣)와 관련이 있는지요?

최금재에게 보냄 신묘년(1951)

與崔欽齋 辛卯

근래에 권순명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를 만나서 화해를 구하려고 하다가 바로 다시 그만두며 말하기를,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호남과 영남의 시비설을 꺼내면 재미가 없을 듯하니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운운 하였으니, 이것은 권순명이 함께 나를 만나려 했던 사람인 벗 김주백(金周伯)이 전해 준 말입니다. 아! 시비를 분명히 분별하는 것은 학문 중의 첫째 공부가 아닙니까? 그가 나의 마음을 이미 발견했다면 바로 명백하게 어제가 그르고 오늘이 옳다고 말해야 하니, 이것이 의리를 밝히고 식견을 기르며 심술을 바르게 하고 과오를 고치는 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만 다른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비에 대한 정론을 싫어하여 오로지 감추는 것만 일삼아서 이미 발현된 후회하는 마음의 좋은 기회를 곧바로 놓쳐 버립니다. 저들 무리가 하는 것은 매사가 이와 같으니, 이것이 그들이 끝내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히고 사림을 재앙에 빠뜨리고 스승의 손자를 함부로 대하고서야 그친 이유이니, 슬프기도 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오진영과 유영선이 편찬하여 간행한 연보는 달려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참으로 선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정공(靜公 전화구)이 평소 부탁한 것을 따라 이미 한 본을 편찬하여 이루었으니, 그대에게 나아가 상의할 날이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을유년(1945) 가을에 음성 오진영의 무리들이 떠받들던 일월(日月 일본을 지칭함)이 무너지고 기울었으니, 그때가 바로 화도 수정본을 발간하는 통문을 발동시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일이 혹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의로운 소리는 천하에 알려졌을 텐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임경선호철에게 답함 정해년(1947)

答林敬善浩喆 丁亥

삼가 우리가 서로 허여함에 있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권하고 경계하는 데 있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의나 갖추고 마는 것을 숭상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학문의 도를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명(明)과 강(剛)을 말했으니, 이 두 글자는 공부하는 과정의 두 날개와 두 바퀴로 서로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를 살펴보면 강은 넉넉히 할 수 있는데 명이 혹 부족하니, 밝게 분별하는 측면에 마음을 더 쓰셔서 혹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의 시비와 의리의 당부는 모두 마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인 만큼 먼저 내가 접촉하는 곳에서부터 신중히 생각하고 정밀히 살펴 눈앞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구해야 하니, 몇 년 전에 선조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사가 무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찌 힘써 변론하기를 선

조의 일과 같이 하지 않으십니까? 생각건대 그 속의 지극한 이치를 깊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러므로 명이 혹 부족하여 마음을 더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사는 임종하기 전 며칠까지도 오히려 김씨의 뇌문에 대한 변론⁵⁰에 힘을 다했으니, 이것이 어찌 마땅히 법으로 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터이 돌봐주시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여 삼가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 의리를 붙여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더욱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자께서 용서하고 양해하여 꾸짖지는 않으시겠지요?

신사경현철에게 답함 갑신년(1944)

答申士敬鉉徹 甲申

효제충신(孝悌忠信)과 근검공서(勤儉恭恕)를 제일의 의체(義諦)로 삼는다면 아마도 진선진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자는 마땅히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⁵¹

50 김씨의 뇌문에 대한 변론 : 김씨는 김평묵을 말하고, 뇌문은 김평묵이 쓴 전재 임헌회의 제문을 말하는 듯하다. 김평묵은 화서학파로, 제문이 겉으로는 임헌회를 칭송하면서도 성리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으므로 간재가 제문을 물리친 일이 있다.

51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 《대학혹문(大學或問)》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서 이로 말미암아 격물하고 치지하여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이른바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성의(誠意)하고 정심(正心)하여 수신하면 이른바 먼저 원대한 것을 세움에 작은 것이 빠를 수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가하고 치국하여 평천하에 미치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며 자신을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평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애초에 하루라도

과 《중용》의 신사(慎思), 명변(明辯), 독행(篤行)⁵²을 정법안장(定法眼藏)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효제충신을 했는데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왕응(王凝)이 근검공서로 집안을 다스렸는데도 성인의 대도에 참여하여 들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여덟 글자로 군자가 몸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근본으로 삼는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학의 의리를 정밀히 하고 이치를 다하는 법칙으로 삼는다면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치지(致知)의 한 조목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이 어찌 다시 더 생각하여 헤아릴 곳이 아니겠습니까?

임자경장우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林子敬章佑 乙亥

존자의 편지가 깊이 선사의 원고 수정본이 음성 오진영에 의해 파괴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를 유훈에 근거하여 그 죄를 처

경(敬)에서 떠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학(聖學)의 시종의 요체가 아니겠는가. [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

- 52 신사(慎思), 명변(明辯), 독행(篤行)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이다. 그것은 즉 선을 택해서 굳게 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변해야 하며, 그러고는 독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誠之者人之道也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라는 말이 나온다.

단해서 말하기를, “이 유훈이 얼마나 정중한 것인가? 그런데 그가 감히 멋대로 스스로 고치고 삭제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선사의 명령이 마땅히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는 유문의 큰 변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물을 것도 없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어찌 선생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공정하고 의리가 바르고 의론이 적확하면 저 사람의 사나운 간담을 파괴시킬 수 있고 중간에 선 자들의 나약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하는 말은 자연 말로 한 것의 가벼운 과실로 귀결되었으니,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아도 괜찮다.” 하신 말씀에 이르러서는 삼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붓으로 쓰지 않은 것을 말로 한 것이라고 하고 큰 죄가 아닌 것을 가벼운 과실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구하여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행하여 큰 해로움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어 따져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진영의 무함은 그렇지 않아 입으로 한 말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도 분명하니, “선사께서 헤아려서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은 사실 선사의 ‘말로 하지 않은 지시[不言之教]’를 말하며, 유서가 출현함에 미쳐서는 또 그 유서를 두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크게 의심스러워할 만하니, 어찌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⁵³와 같은 짓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으니, 정재의 유서를 가리켜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

53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 : 이 글은 오진영의 선사 무함을 변척하는 재통문에 나오는 글로,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석서는 석개(石介)의 편지로, 간신 하송(夏竦)이 석개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편지를 말하는 듯하다. 여기서는 유서를 위조된 것으로 보아 비유한 듯하다.

함한 사람은 존엄한 부사(父師)이고 무함한 일은 평생의 대절이
 니, 실정을 말하면 고의로 범한 것이고 범한 것을 말하면 큰 죄
 가 됩니다. 이 무함을 변론하지 않는다면 선사는 선사가 되지 못
 할 것이니, 어찌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사에게 도의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비
 록 선사를 모를지라도 오히려 시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 인가를 청하는
 작은 일로 구속을 받는다면 군자의 대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을 본다면, 그대의 글이 참으로 무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
 한 공자와 주자 이래로 《춘추》와 《자치통감강목》의 의리까지 아
 울러 모조리 뒤집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음성의 오진영
 이 무함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세교에 해로움
 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집사의 마음이 오싹하니 서
 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과 원고를 고친
 것은 죄가 모두 용서할 수 없는데 마침내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
 함이 무거운 것은 어째서입니까? 원고는 본래 화도수정본이 있
 어서 고친 흔적을 가릴 수 없으나 무함은 심사(心事)를 밝히기
 어려워 유서를 가리켜 위조하고 말하니, 가릴 수 없는 것은 종
 내 바름으로 귀결될 날이 있을 것이나 밝히기 어려운 심사는 더
 럽혀지는 누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고, 또 원고
 를 고친 것은 문자의 의론과 관련이 있으니 의론이 잘못되는 것
 은 혹 군자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지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
 은 평생의 도의와 관련이 있으니, 도의가 없다면 장차 무엇을 말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면 그 죄의 경중이 과연 어
 떠하겠습니까?

임자경에게 보낸 경진년(1940)

與林子敬 庚辰

지난번에 존자의 뜻을 엿보니, “음성의 오진영이 비록 무함한 것이 있더라도 선사의 덕이 성대하여 사람들이 그 무함을 믿지 않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힘써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임금과 고수(瞽瞍)가 북면하여 순 임금에게 조회했다.”⁵⁴라는 말이나 “공자가 웅저와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⁵⁵라는 말은 제나라 동쪽 야인의 말입니다. 순 임금과 공자 같은 성인으로서 군부(君父)의 조회를 받고 소인의 집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무식한 야인에 불과하였으니, 누가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맹자는 오히려 거듭 말하여 한 번만 말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제 선사의 성대한 덕은 순 임금과 공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무함한 자는 무식한 야인이 아니라 명망 있는 문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느슨한 의론과 단순한 말로써 소략하게 하여 변론한다면 스스로 그 사람을 믿고 무함을 믿지 않은들 스승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저 백리혜(百里奚)는 패자를 보좌하였는데, 어찌하여 맹자가 존경하여 우리러 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침내 그를 위하여 애써 말해서 스스로를 팔아 진

54 요 임금과…조회했다 : 《맹자(孟子)》〈만장 상(萬章上)〉에 나오는 말로, 순 임금의 의리를 의심하여 훼손하는 말이다.

55 공자가…삼았다 : 《맹자(孟子)》〈만장 상(萬章上)〉에 나오는 말로, 웅저와 척환은 임금 가까이에서 비위를 맞추어 주는 소인인데, 공자가 이들을 통해 벼슬을 구하려고 주인을 삼았다는 말이다. 이 역시 공자의 의리를 훼손하는 말이다.

목공에게 벼슬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또한 명백한 증거와 정확한 근거가 없자 곧 이치상 그럴 리가 없다는 것으로 곧장 결단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깊이 배척했으니 어찌 지극히 정밀한 인의가 아닌데 맹자가 그것을 했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원망을 변론하고 비방을 밝혀 주는 것이 제일의 덕과 의리이다.” 하였으니, 이 말을 한 사람은 맹자의 마음을 체득한 모양입니다. 이제 일세의 유현으로 우리의 부모요 스승이 되신 분에 대해 만약 크게 마음과 힘을 써서 명확한 유서에 근거하여 억울함을 변론하고 비방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사 보기를 오히려 맹자가 백리혜에 대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자경에게 답함 경진년(1940)

答林子敬 庚辰

답장해준 편지를 받들어 읽어서 삼가 살펴봄으로써 개탄을 했습니다. 아! 수백 년 이래로 국조의 당론과 유문(儒門)의 시비가 정해지지 않음에 널리 인용하고 증거를 대어 반복적으로 논설을 함으로써 마침내 참으로 시비가 저절로 분별이 되었다 말하고 우리 문하 영남과 호남의 일에 돌이켜 규명하여 단안이 있게 되었으니 헤아림이 공평하고 지식이 넓어서 보통 사람은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호라, 저는 다만 세간에 나약한 사람이니 어려서는 마을의 서당에 다니는 동료들과 한마디 다툼도 없었고 자라서는 사우들 사이에 놀아서 비록 스스로 믿는 견해와 근거가 있는 의논일지라도 저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만듦 일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국조의 당론과 유문의

시비에 이르러서 마음속으로 심히 불복하는 것은 또한 한결같이 당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일에 있어서 동인, 서인, 노론, 소론, 호론, 낙론 같은 것은 또한 논하지 않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는 노사(기정진)의 <외필(猥筆)>⁵⁶에 대해 영남은 통달했다는 것과 연웅(송병선)이 흠모하며 감탄한 것과, 유준근이 파리장서 도장사건으로 호남을 성토했던 것에 대하여 선사가 그릇되지 않게 여겼다는 것에 대하여 감히 반드시 그렇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사께서 가평의 김평묵이 전웅(임헌회)을 위해 쓴 제문⁵⁷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스승께서 스승을 위해 속인 일을 변론하여 이를 제자의 당연한 직분으로 삼은 것에 깊이 감복하였고, 당일에 전웅(임헌회) 문하의 모든 사람들이 선사를 과격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깊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오진영이 다만 인가받으라는 당부를 써서 선사를 속인 것은 김평묵이 몰래 속여 세상과 화해하고 전웅(임헌회)을 속인 것과 비교해보면 큰일이면서 더 심한 것입니다. 또한 스승의 원고를 고쳐 혼란하게 만들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

56 외필(猥筆) : 기정진(奇正鎭)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이이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정진의 <외필(猥筆)>은 기호학계에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전우는 <외필변(猥筆辨)>을 저술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해 노사학파가 재반박하는 등<외필(猥筆)>은 노사학파와 간재학파의 성리설 논쟁의 시발점이 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57 가평의…제문 : 임헌회가 죽자 홍직필의 문하에서 한 때 동문이었던 김평묵이 제문을 지어 보냈다, 전우는 김평묵이 지은 제문은 겉으로는 임헌회를 칭송하면서도 성리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등 화서학파와의 감정적인 대립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김평묵이 임헌회를 위해 쓴 제문은 《중암집(重菴集)》 권45 <제임전재헌회문(祭任全齋憲晦文)>으로 남아있다.

을 변론하지 않는다면 스승이 어떻게 스승이 되며 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선사가 전용(임헌회)을 존중한 뜻을 붙여 공손히 제자의 직분을 닦은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크게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변론하여 명백히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소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투는 일이 있다고 의심했고 못사람과 함께 변론함에 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 다소의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이라 의심한 것입니다. 당을 만들어 싸웠다고 보는 자는 당이 싸웠다고 보고 스승을 존경하기 위해서라고 본 자는 스승을 존경한 일로 보았으니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마음에 부끄럼이 없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편지에서 거론한 것들은 다만 자신이 이기기를 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기쁘기만 힘썼습니다. 거의 전쟁에 임하여 잘못 죽이고 옥사를 안찰하여 잘못 들어가게 한다는 경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조심하지 않았습시다. 아, 세상 의론의 공사와 사람 견해의 편정이 병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택당(이식)이 사계(김장생)를 논한 것은 공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한쪽이 주도함으로써 불복하는 것이 있고, 중국에서 주자와 육구연의 시비는 오늘날까지도 판정되지 않았습시다. 그렇다한다면 구양수가 말한바 후세의 공평함도 또한 믿을 수 없습시다. 요컨대 후세에도 공평하지 못하여 다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할 따름이라면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 일이 사부와 관련이 있는 까닭으로 제가 비록 보잘 것은 없을 지라도 이 점에 대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자신의 분수와 관련이 있다면 비록 김세기의 속이는 문장이 망극할지라도 또한 보고도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치는 마땅히 이와 같으니

다만 성품이 나약하다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오진영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필전을 열세 차례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과장하여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품수 받은 것입니까? 본성을 어긴 괴상한 뜻일 뿐입니다.

존자의 편지에 “어린 아이로 보고 한번 웃을 일이니, 오진영의 무함을 배척함에 있어 배척하는 것이 또한 심하였다. 또 원고를 고친 것은 죄의 대체가 같다.” 하신 데에 이르러 제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 사람은 죄가 이미 스승을 무함한 데에 있으니, 마땅히 그 죄명을 바로 잡아서 엄하게 성토해야지, 어린 아이로 보아 한번 웃는 것으로 부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성재가 홍재구에게 답한 편지와 면암이 유중교에게 답한 편지에서 심하게 밝히지 않고 심하게 공척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홍씨와 유씨가 화서에 대해 그 마음을 속이고 그 문장을 고쳤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다면 아마도 법으로 삼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자경에게 보낸 경진년(1940)

與林子敬 庚辰

양자를 들인 뒤에 자식을 낳으면 양자를 파견(罷遣)하여 본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여겼는데, 홍손우(洪遜愚)의 문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얻어 근거로 삼아 선사에게 논하여 질정했더니 선사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리와 인정의 극치로 궁구해보면 자신하는 마음을 일찍이 그만 둔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예설을 논하다가

우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는데 존자의 견해도 이와 같아서 또한 하나 얻은 것을 스스로 다행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역》에 대한 해석은, 《정자전》에서는 의리로, 《주자본의》에서는 점서로 해석했는데, 논자들은 《본의》를 《역》의 본뜻을 얻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대상(大象)과 문언(文言)에서는 이미 의리로 설명했으니, 《정전》 또한 역지로 해석을 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왕의 괘사(卦辭)와 주공의 효사(爻辭)를 읽어보면 끝내 점서를 위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본의에서 의리를 위주로 한 것은 미루어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에 대처할 때에는 먼저 의리로 재단하여 선택하고 의심이 있는 연후에 점서에 물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과 문언의 뜻이 아마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자가 《역》에 대하여 먼저 《정전》으로 읽어야만 착수하여 힘을 얻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자경에게 답함 신사년(1941)

答林子敬 辛巳

《역설혹문(易說或問)》을 만약에 읽어서 완성을 한다면 어찌 세상에 보탬이 되는 문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눈앞에 오대양이 들끓고 수많은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보는 것에 대해 도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점연쩍 하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어찌 공자가 계사(繫辭)를 저술할 때 노나라가 쇠약하고 제후들이 다투어 혼란한 것이 옛날처럼 여전했음을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다만 내가 지은 책이 혹여 진신진미 하지 않은 점

이 있음을 근심할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하여 젊었을 때 날마다 예에 따라 한두 번 읽은 이 후엔 일찍이 하루도 힘을 쓰지 않았으니 진실로 《역》의 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자(정이)의 “수시로 변하고 바꾸어서 도를 따른다”는 뜻을 취한다면 오늘날 학자는 64괘에서 다만 마땅히 대과괘(大過卦)⁵⁸의 “홀로 우뚝 서 두려워하지 않고 곤란함을 당하면 목숨을 버리고 뜻을 이룬다.”는 말로 당면한 간절한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화사현(金華四賢)⁵⁹이 똑같은 데로 돌아가서 천지의 잘못을 억눌렀다는 비유는 저처럼 못난 사람이 어찌 그런 지경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금화(金華)가 아닐 뿐만 아니라 땅이 또한 금화(金華)가 아니고 때 또한 금화(金華)가 아니니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머리를 쳐들어 지붕을 보며 깊이 탄식할 뿐입니다.

편지에서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책을 논하면서, “한결같이 소강절을 따르고 괘를 그린 순서와 시초를 끼는 방법이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어서 절대로 인위적인 안배가 없으니 비록 복희, 문왕, 주공,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괘사전(繫辭傳)>에 “역(易)에는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생(四象)을 낳고 사생은 팔괘(八卦)를 낳는다”는 문장에 근거하여, “소강절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주자를 따

58 대과괘(大過卦) : 육십사괘 중 28번째 괘로서 태(兌)가 상(上)에 있고 손(巽)이 하(下)에 있는 괘로서택풍대과(澤風大過)라고도 한다.

59 금화사현(金華四賢) : 왕백(王伯), 하기(何基), 허겸(許謙), 김이상(金履祥)를 가리킨다. 금화주학(金華朱學)의 중요한 전인(傳人)으로, 금화산(金華山) 북쪽에 은거하여 강학과 저술에 전념하며 주자학을 널리 전파하였기에 금화사선생(金華四先生)이라고 불렸다.

르지 않는다면 공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이 말은 대단히 옳습니다.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선사가 일찍이 황동발이 소강절의 가배법(加倍法)⁶⁰을 따르지 않으므로 편지를 보내어서 옛사람은 이와 같은 의론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함에 이르렀으니 일찍이 이것으로 믿을만하다 여긴 것입니다.

편지에서 영남사람 이규준이 경전에 주석을 고쳤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만약 주자를 공격하는데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설의 득실이 어떠한지 논하지는 않고 다만 한 가지 일어날 일은 사람마다 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하늘에 통할 만큼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의견을 서술하여 책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선현의 의론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기록하더라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누가 그에게 죄를 주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멋대로 공격하는 것으로 일삼는다면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강희장은 공자, 기독교, 회교, 노자, 불가를 다섯 성인이라 여긴 자이고 똑같이 공자, 묵자, 석가모니, 예수를 존경한 사람은 양계초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마땅히 잘 분별하여 사양하고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 다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동 학문의 폐단을 답습하여 멸망을 재촉한 자라고 한 것은 어른이 참으로 옳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학술에 폐단이 있는 것은 형세 상 반드시 이르는 것이니 비록 천하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경관일지라도 말단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60 가배법(加倍法) : 1인 태극(太極)에서 음(陰)과 양(陽)인 양의(兩儀)가 생기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괘가 생겨 각기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폐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권을 잡고 문맹을 주관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문고 줄을 바꾸어 알맞게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요컨대 중국은 주자 이후와 우리나라는 우암 이후에 일찍이 한 명의 군상과 종사가 출현하여 폐단을 구한 적이 없으니 그 점점 쌓여가는 형세가 어찌 지루하며 번잡하지 않겠습니까? 구속받아 박절 한 것과 고루하여 천근한 것과 시비를 공격하는 것이 당신의 편지의 말과 같습니다. 사문의 흥망은 시운의 성쇠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인력으로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스스로 학문의 폐단을 구할 뿐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에서 이미 근세학자가 천하국가에 뜻을 두지 않고 쓸데없는 말거리로 경쟁거리를 삼고 봉당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학문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한탄했고 또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표준을 세우지 않으면 백성 중에 음봉(淫朋)이 참특해지고 사람의 비덕(比德)⁶¹이 멋대로 행해지는 것은 이치상 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탄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괴상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그 러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만약 표준을 세운 군주가 있다면 이른바 경쟁거리로 삼고 봉당을 세운 자는 모두 교화되어 천하국가의 진정한 학문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에서 동인과 서인, 소론과 노론이 다툰 것이 어찌 모두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간혹 정사의 득실과 국례의 시비와 윤리의 정패 같은 큰 제목을 가지고 변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표준을 세우지

61 음봉(淫朋)이…행해지는 : 《서경(書經)》〈홍범(洪範)〉에 “무릇 서민들이 사악한 당을 만들지 않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짓는 일이 없는 것은 임금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凡厥庶民，無有淫朋，人無有比德，惟皇作極.]”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못한 군주가 조기에 그 가부를 정했기 때문에 경쟁과 붕당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아! 어찌 우리나라만 그럴겠습니까? 한나라 때 응방과 절보, 당나라 때 덕유(이덕유)와 승유(우승유), 송나라 때 낙축천삭(洛蜀川朔)⁶²이 모두 이런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대 선비들이 자리나 권력을 위하지 않고 다툼 것이 또한 어찌 모두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성설(性說), 경의(經義), 예론(禮論), 천과 인의 원두(源頭)⁶³, 성현의 종지(宗旨), 인간과 금수의 관계를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내는 서로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쓸데없는 말을 마구하는데 귀착이 되었으니 이 또한 표준을 세운 군주가 도의와 예의를 나라 가운데에 밝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을 논한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 나아가서 공격으로 마음을 삼지 않는 것을 간별해서 오직 큰 의리를 분별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함께 해야 하니, 택당(이식)이 논한 ‘사계(김장생)는 진정한 학문을 했으나 그 나머지는 당여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음의 공사(公私)와 일의 당부(當否)를 묻지 않고 일체 지금과 옛적의 선비를 쓸데없는 것을 쟁론하여 반드시 학문을 망하게 한다는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

62 낙축천삭(洛蜀川朔) : 송나라 철종(宋哲宗) 시기에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는 수구파(守舊派) 조신(朝臣) 가운데에, 정이(程頤)를 우두머리로 하는 낙당(洛黨)과 소식(蘇軾)을 영수로 하는 촉당(蜀黨)과 유안세(劉安世)의 삭당(朔黨)을 가리킨다. 천당(川黨)은 사천(四川) 출신인 소식의 촉당을 말한다. 따라서 천당과 촉당은 같은 당이다.

63 원두(源頭) : 핵심, 근원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학자들은 무엇을 특히 강조할 때 원두(源頭)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김장생이 쓴 〈행장(行狀)〉에 “선생은 심(心)·성(性)·이(理)·기(氣)의 근원에 대해 끝까지 연구하여 투철하고 시원스러웠다.[先生於心性情理氣源頭極深研幾通透灑落]”라는 말이 있다. 《율곡전서(栗谷全書)》 권35 〈행장(行狀)〉

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찍이 우리나라 당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나서 초연하게 한 터럭만큼의 당심(黨心)도 없고 또한 출중하게 천하국가에 유용한 진짜 학문을 한 사람은 오직 편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반계(유형원) 선생이 유일무이한 대군자라 생각했습니다. 《반계수록》한권은 즉 왕을 돕는 도구이니 어찌 다만 경제 범위만 대략 통달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대대로 남인이었는데 율곡(이이)과 중봉(조헌)을 존경하여 믿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복종토록 하는 곳입니다. 《대동경제》를 편집한 뜻은 세도를 보충할 덕으로 존경할만합니다. 그러나 《반계수록》을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근세의 이른바 공화라는 이름은 비록 중국과 우리나라에 사용하기는 좋아도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취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삼대 전례 중에 이미 이런 뜻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반드시 저들의 이름을 취하겠습니까? 《대전통편》⁶⁴은 다만 명목(名目)과 도수(度數), 응행(應行)의 절목(節目)만 들고 본말을 두루 논하지는 않았으니 아마도 대문자를 편집하는 예로 삼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람되게 논함이 이에 미쳤는데 당신께서 너그럽이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윤명영환에게 보냄 갑술년(1934)

與鞠潤明瑛煥 甲戌

오늘날 인심은 망극하고 의리는 짝 막혀 음성의 오진영이 스승

64 대전통편(大典通編) : 1785년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을 무함하고 원고를 고치는 번고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변론하고 성토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전에 이미 변론하고 성토했던 사람 중에서도 점차 지키던 것을 바꾸어 처음에는 한 명의 괴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무리들과는 소통하자는 의론이 있다가 얼마 후에는 한 명의 괴수까지도 소통하자는 의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다면 선사의 억울함은 끝내 설욕되어 밝혀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존형만이 우뚝 변하지 않고 변론하고 성토했다를 더욱 엄하게 하셨으며, 잠깐 만나 말을 나누는 사이에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견해를 바꿔주니 진실로 높이 우러르는 바입니다. 지난겨울에 처신하신 바는 의리가 곧고 말이 씩씩하여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직하게 확립된 것을 알아 억지로 구속할 수 없게 하셨으니, 비록 옛사람의 완전한 절개라 해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항상 벗들을 대해 존형의 일을 말하며 동문의 빛이라고 스스로 축하했습니다. 절개를 지키고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리이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다시 식견이 밝은 것에 관계됩니다. 매번 절개를 지키는 자를 보면 식견이 밝지 못해 오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컨대 이미 능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명확하게 분별하는 공부에 더욱 힘을 써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윤명에게 보낸 병자년(1936)

與鞠潤明 丙子

요즘 세상 풍조의 위급함이 날마다 더욱 긴박해지고 있어서 사방에서 들리는 소식에 아침저녁으로 마음이 놀라니, 요컨대 목

숨과 머리카락을 보전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날이 비록 지극히 짧고 촉박하더라도 일찍이 채허재(蔡虛齋 채청)의 말을 들으니, “철인은 하루로도 만세의 공업을 이룰 수 있다.” 했는데, 하물며 지금 남은 날이 또한 하루보다는 거의 많을 뿐만이 아님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만약 그럭저럭 목숨이나 부지하며 지낸다고 한다면 비록 3만 6천 날이 있더라도 또한 거북이나 뱀처럼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니 어찌 귀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본사(本事)가 허술한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며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아 이 생을 잘못 사는 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음성 오진영의 무리는 때를 타고서 나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 당은 세를 잃고서 시시각각 더욱 쇠잔해지고 있으니, 전에 스스로 정정당당하다 했던 자들이 이제는 문득 모두 얼굴을 바꾸고 자취를 더럽히며 기꺼이 저들과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선사의 도가 박멸되고 잠식되어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각이라도 허술하게 그럭저럭 세월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끝내 처리하여 결론짓지 못한다면 비록 세상을 덮을만한 공업과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행적일지라도 다만 지류와 말단일 뿐입니다. 도리의 근원과 본령이 잘못되어 이미 멀리 와버려서 거리로 계산할 수도 없으니, 항상 벼를 잃고 홀로 고루하게 지내 아무런 계책을 세울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동지를 얻어 이 도를 강론하여 밝힐 것을 생각하지만 막막한 천지에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집사일 것입니다. 집사는 뜻이 깨끗하고 행실이 후덕하여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흠모를 받아왔습니다. 매번 부는 바

람을 맞으며 집사를 그리워하였으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거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 [何日忘之]”라는 시구⁶⁵가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금일 이후로 더욱 재주 없고 무능하고 졸렬하여 큰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왜이겠습니까? 평생 오랜 친지들로 은혜와 예로써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반기를 들고 원수가 되었으니, 만약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본래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히 원망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일이 사문과 관련이 되어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허물하여 물리나서는 안 되었을 뿐이니, 이는 스승에게 받은 은혜⁶⁶가 벗어날 수 없는 고충⁶⁷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그 고충이 이와 같은 줄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스스로 말하자니 비록 집사의 넓은 아량이 수용해주고 높은 지혜가 살피주어 드러내주실 것을 믿지만 스스로 용렬함을 돌아봄에 부끄러움을 느낄 따름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집사는 진실로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이니, 제가 진실로 조금이나

65 마음속에 … 시구 : 《시경(詩經)》〈습상(隰桑)〉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구절로, 이 시는 군자를 만난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66 스승에게 받은 은혜 : 원문의 ‘갈류(葛藟)’는 칙덩굴로, 은혜 받음을 의미한다. 《시경(詩經)》〈주남(周南) 규목(樛木)〉은 후비의 은덕에 감복한 후궁들이 지은 시로, “남산 아래로 굽어 늘어진 나뭇가지 있으니, 칙덩굴이 얹히었네. 즐거우신 군자는 복록에 편안하도다. [南有樛木 葛藟纍之 樂只君子 福履綏之]”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67 벗어날 수 없는 고충 : 원문의 ‘목출이구해(沐漆而求解)’는 ‘옷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퍼려고 한다’는 뜻으로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송진소장서(送秦少章序)〉에 나오는 말이다. 어딘가에 매어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인다.

마 아는 것이 있어 집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한 장차 남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가 만 년 같다는 말로 받들어 올리니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의 근원과 본령이 더욱 드러나 밝혀지고 일처리가 결론이 나는 효험도 장차 차례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다만 집사에게만 다행이 아니라 참으로 사문의 다행일 것입니다.

후창집 권 7 서書

백광오남두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白光五南斗 乙丑

형이 보낸 편지에서 ‘월사 이정구(李廷龜)의 변론이 없었다면 정응태(丁應泰)가 우리나라를 무함한 것¹은 무함 당한 채 끝났을 것이고, 여러 군자의 변론이 없었다면 오진영(吳震泳)이 선사를 무함한 것²도 무함 당한 채 끝났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참으로 명확한 의론입니다. 오호라! 사람들이 모두 나라가 무함을 당한 것은 통분할 줄 알면서 스승이 무함을 당한 것은 통분할 줄 모르니, 무엇 때문입니까? 어찌 스승을 부모나 임금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 분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의리³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
- 1 정응태(丁應泰)가…것 : 선조(宣祖) 31년(1598)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인 정응태가 조선에서 왜군(倭軍)을 끌어들여 중국을 침범하려 한다고 자기 나라에 무함한 사건이다. 이때 월사가 조선국변무주문(朝鮮國辨誣奏文)을 지은 뒤 진주 부사(陳奏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무함 사실을 밝힌 결과 정응태가 파직되고 마침내는 옥에 갇혀 죽게 하였다.
 - 2 오진영(吳震泳)…것 : 오진영이 일본 총독부에게 문집 출판 인가를 받아 일제치하에서 간재가 자신의 문집을 출판하라 명했다고 간재 문인들을 속인 것을 말한다.
 - 3 세분의…의리 : 부모와 스승과 임금 세 분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국어(國語)》〈진어(晉語) 1〉에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게 마련이니, 그분들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이 있다. 그

사람으로서 이러한 의리를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응태가 우리나라를 무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임금과 스승을 잊고서 난신적자를 허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복지환영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房福之煥永 丙寅

방장산(方丈山)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자는 편지의 말씀은 저도 오랫동안 마음먹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래로 마음이 상쾌해지며 산들산들 바람을 쐬고 싶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예전에 선사를 모실 적에 함께 구경 가자고 이끌었을 때 병공(炳公, 김준영)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제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마음에 두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뒤에는 이와 같이 쉽게 도모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형과 저는 모두 노쇠하였으니 어찌 늙기 전에 나란히 한번 천왕봉(天王峰)과 반야봉(般若峰)의 정상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변복삼규원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邊復三圭源 乙丑

제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스승을 무함한 적을 성토하는데 참여

것은 바로 아버이는 낳아 주신 분이고, 스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임금은 먹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民生于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라는 말이 있다.

했다가 큰 재앙을 만나 생사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이 쇠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두 번이나 찾아와 돌보아주셨으니, 뜻과 의리가 오늘날 서로 같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호라! 십시(十侍)⁴와 백마(白馬)⁵의 화(禍)는 포악하긴 포악하였지만 환관은 조신(朝臣)과 다른 부류이고,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⁶, 남곤(南袞)과 심정(沈貞)⁷의 해독은 참혹하긴 참혹하였지만 오히려 본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오진영(吳震泳)과 같이 바깥 오랑캐 왜인의 손을 빌려 동문을 죽인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또한 무사하였으나 통문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은 형세 상 여

4 십시(十侍) : 십상시(十常侍)의 약어이다.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 권세를 부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장양(張讓)·조충(趙忠) 등 12인의 환관을 말하는데, 그 명단과 실상이 《후한서(後漢書)》 권78〈환자열전(宦者列傳) 장양(張讓)〉에 자세히 나온다.

5 백마(白馬) : 당(唐)나라 천우 2년(905), 마지막 황제인 소선제(昭宣帝) 때 권신(權臣) 주온(朱溫)이 배추(裴樞) 등 조정의 선비 30여 명을 백마역에 모아서 하루 저녁에 다 죽이고 그 시체를 황하(黃河)에 던져 넣은 사건을 말한다. 《당서(唐書)》 권240〈배추열전(裴樞列傳)〉단, 문맥으로 볼 때 이는 백마역 사건이 아니고, 동한(東漢) 말 당고지화(黨錮之禍)를 가리킨 듯한데, 우선 원문대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당고지화는 환제(桓帝), 영제(靈帝) 때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사를 마음대로 하자 사대부인 이옹(李膺), 진번(陳蕃) 등이 태학생들과 연대하여 환관들을 맹렬히 탄핵하였는데, 이로 인해 환관들이 도리어 이들을 중신 금고(禁錮)에 처하여 벼슬길을 막아 버린 사건이다. 《후한서(後漢書)》 권67〈당고열전(黨錮列傳)〉

6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 : 연산군(燕山君) 때의 훈구파 수장들이다. 신진 사림파와 반목하여 김일손(金鰲孫) 등을 탄핵해서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켰다.

7 남곤(南袞)과 심정(沈貞) : 이들은 중종(中宗) 때의 훈구 재상(勳舊宰相)으로 신진 사류(新進士類)인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등을 일망타진한 장본인들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주동 인물이다.

러 번 왜경에게 불러가 심문을 당한 뒤에나 그칠 것이니, 형 또한 어찌 반드시 홀로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면할 수 없다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가르침을 어긴 것을 성토했다. 사문의 난적이라 한 것은 오진영을 가리킨 것이지 강태걸(姜泰杰)을 가리킨 것이 아니니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우리 선사의 유서에 인가를 받아 간행하는 것을 금한 원고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될 물건이 아니었으니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일이 사실에 부합하고 의리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백순준에게 보낸 갑술년(1934)

與崔伯舜 濬 甲戌

봄 사이 왕립하여 안부를 물어주신 것은 참으로 저를 멀리하지 않는 성대한 뜻에서 나왔으니 감격스러워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길이 바빠서 차분히 토론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작별을 고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도가 만약 같으면 천 년 전의 사람도 오히려 벗을 삼아 서로 멀다 여기지 않는 반면, 도가 진실로 같지 않으면 아침저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더불어서 도의 같음을 구하는데 급급해야지 이합과 원근에 구질구질할 필요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도의 같음을 구하려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함의 사이에

서 강론하여 연마하여 서로 진보시켜야 함이 분명합니다. 우리
러 청하건대 그대는 최근에 무슨 책을 읽으며 무슨 의리를 강구
하십니까? 널리 묻고 정밀히 살피며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히 밝
혀서 이른바 도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두지 않는 공부와 밝
아지고 굳세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⁸ 제가 흠송한
나머지 또 감히 알고 비루한 소견으로 받들어 묻고 가르침을 청
하니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사의 유고를 읽다가 그 해와 별처럼 밝은 논리와 못
을 꿰고 쇠를 자를 것 같은 굳건한 의리를 보았는데, 어찌 이리
도 분명하면서도 엄격하단 말입니까. 저 김평묵(金平默)이 제문
에 전용(全翁 임헌회(任憲晦))을 비난하고 폄하하자 선사가 홀로
맞부딪쳐서 그 문장을 배척하고 그 무함함을 변론하셨는데,⁹ 송

8 널리...생각합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널리 배우며, 자
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변하며, 독실히 행하여야 한
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댄 능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댄 알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생각하
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댄 알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분변하
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변할진댄 분명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행
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할진댄 독실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아야
한다. ... 과연 이 도에 능하면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밝아지며, 비
록 유약하나 반드시 강해진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 有弗學, 學之, 弗能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
得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弗措也. ... 果能
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라고 하였다.

9 저 김평묵(金平默)이...변론하셨는데 : 김평묵이 임헌회의 제문을 지
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
서 전우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
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권2〈답
유치정(答柳穉程)〉

골매가 떨치고 일어나서 참새를 쫓듯이 하였고 운무를 헤치고 하늘의 해를 바라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괴이한 것은 당시에 전용 문하의 여러 제자 중에서 두세 명만을 제외하고는 그를 도와 힘을 보태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내 또 불만을 갖고서 말하는 자도 있었으며 심한 자는 기꺼이 저쪽의 앞잡이가 되어 오히려 이쪽을 헐뜯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스승을 따라 도를 배운다고 하지만 의리에 얻음이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이 틈을 타고 일어나, 작게는 혐의를 피하고 크게는 권세를 두려워하여 자기도 모르게 스승을 잊고 적을 도운 것입니다. 그때 만약 선사께서 일만 번 죽을힘을 내어서 물리치지 않았다면 전용의 도가 어찌 오늘에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적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문하의 일을 미루어 살펴보면 이른바 “은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다”¹⁰라는 것입니다.

아, 자신의 원고를 인가받아 간행토록 했다는 것의 의리가 없음은 본성을 감추고 세상에 아첨하는 것보다 심하니, ‘힘을 헤아려 하라.’고 했다거나 ‘불언지교(不言之敎)’라고 한 것은 암암리에 기롱하고 폄하한 것만이 아닙니다.¹¹ 스승을 무함한 죄는 또한 벗을 무함한 죄보다 더욱 중합니다. 그렇다면 오진영의 스승

10 은나라의…않다 : 《시경(詩經)》〈탕(湯)〉에 “은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않으니, 하후의 세대에 있다.[殷鑑不遠 在夏后之世]”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왕(文王)이 은나라 주(紂)의 실정을 경계한 말로, 은 왕조의 운명은 하(夏) 왕조를 멸망시킨 겐(桀)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11 자신의…아닙니다 : 전우가 오진영을 불러서 ‘문집 인간(印刊)’의 일은 자네가 알아서 행하라’라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평소 간재 전우가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

을 무함한 흉악함은 김평묵이 지은 제문의 변고보다도 큰일이
고, 또 1500명은 전용을 따르던 자들보다 많으니, 마땅히 그 죄
를 명확하게 정하여 한 명의 적을 일제히 성토하는 것은 매우 쉬
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도가 더욱 낮아지고 의리가 더욱 어두워
져, 앞잡이가 되어 도리어 혈뜰는 이씨와 정씨 같은 자가 줄지어
나오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돕는 윤씨와 서씨 같은 자는 거의
없으며, 그 일을 주관하는 자도 도학의 명망과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니니, 어찌 하겠습니까. 선사께서 당일에 도적을 소탕하고 사
문을 안정시킨 일 같음도 진실로 기필할 수 없었거니와 그 패망
하여 사멸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를 위해서 말을 하는 자가 “그가 비록 죄
가 있지만 참으로 스승을 존중하여 한 것이니 용서해야 마땅하
고 성토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니, 한 사람이 제창함에 백
사람이 화답하여 스스로 공론이라 자처하며 거리낌 없이 저쪽의
세력을 돕고 이쪽의 힘을 어렵게 하니, 아, 너무도 잔인한 마음
입니다. 이는 곧 주자가 ‘도적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바로
도적 편인 사람이다.’¹²라고 한 격이니, 위에서 말한 불만을 갖고
서 말을 하는 자에 비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는

12 도적도…사람이다 : 주자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도적을 보고도 잡
지 않는다면 그는 곧 도적의 무리이니, 도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마땅
히 싫어하는 것이다. 만약 ‘도적을 잡아 주벌해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이는 주인 편인 사람이고, 만약 ‘도적은 잡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도적 편인 사람이다.[有人見了自不與捉, 這便喚
做是賊之黨, 賊是人情之所當惡. 若說道賊當捉當誅, 這便是主人邊人, 若
說道賊也可捉可恕, 這只喚做賊邊人.]”라고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
類)》 권55 〈맹자孟子55조〉

자들입니까? 만약 그가 무함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이는 밝지 못한 것이고, 그가 무함한 것임을 알았는데 오히려 침묵했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밝지 못한 잘못은 작으니, 이는 오히려 그가 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그래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질지 못한 죄는 크니, 이는 오히려 그가 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잡지 않은 것이니 더욱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밝지 못한 자와 어질지 못한 자는 모두 위에서 말한 힘을 내어 돕지 않은 경우이지만, 저 어질지 못한 자는 또한 도적 쪽의 사람일 뿐입니다.

대저 전용 문하에서 이미 그랬던 행적으로 우리 문하에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헤아려 보면 그 시비와 득실이 어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선사께서는 비록 한때에 혐노(嫌怒)를 실컷 받았지만 끝내 대의(大義)를 영원히 펴서 그 광화(光華)가 차서 넘치고 사방에서 전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침묵하고 배반하여 스승을 잊고 적을 도운 자들은 비록 한때에 편안함을 차지했지만 더러운 행적이 환히 알려져 영원히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 훗날에 오늘을 살펴본다면 그 영광과 욕됨이 또 한 오늘날에 옛날을 살피는 것과 같을 것임은 더욱 명백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그대는 성품과 도량이 뛰어나서 진실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을 보고도 붙잡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식 또한 뛰어나니 이치를 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는 아니니, 마땅히 밝게 분별하고 엄하게 성토하여 지금과 후세에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용하여 들리는 말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 의리가 더욱더 어두워져서 더불어 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저계야(褚季野)의

피리(皮裏)¹³를 본받으려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할 말이 있을 것인데 그 화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여 할 말을 숨겨서 이전 사람이 했던 것처럼 후세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 보통의 시비일 뿐이라면 모두 안 될 것이 없지만 지극히 큰일과 관계되어 죽은 스승을 무함하고 잔악한 명맥을 끊어 끊어버린 것이니, 마땅히 맹자가 말한 불공대천의 원수로 간주하여 끝까지 성토하여 남김 없게 해야 하고 다른 것은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진실로 선사의 밝은 이치를 강론할 수 있고 선사의 굳건한 의리를 지녀서, 오진영의 무함을 분별하여 물리치기를 선사가 김평묵의 뇌문(誄文)을 배척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평소의 밝은 안목과 뛰어난 학식으로 반드시 조마경(照魔鏡)이 번개처럼 빛나고 파음부(破陰斧)가 우레처럼 울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사의 해처럼 찬란하고 옥처럼 고결함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군대의 의로운 명성과 올바른 기상이 배로 신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여 이른바 도가 같은 자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가장 크고도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이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선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부친과 스승이 무함을 당한 것을 보고도 분별하여 성토할 줄 모르는 자는 칼로 손가락을 잘라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했고, 또 말씀하

13 저계야(褚季野)의 피리(皮裏) : 진(晉) 나라 환이(桓彝)가 저계야(褚季野)를 평하기를, “계야는 껍질 속에 춘추(春秋)가 있어 비록 말하지 않아도 사시(四時)의 기운이 갖추어 있다.” 하였다. 그것은 겉으로 말을 잘하지 않으면서도 속에는 시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시기를 “문인제자로서 다른 사람과 친화를 잃게 되는 작은 혐의를 피하려 하다가 스승을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대의를 잊는다면 스승과 제자의 윤리가 폐해질 것이고, 스승과 제자의 윤리가 폐해지면 삼강(三綱)과 구법(九法)¹⁴이 또한 의지하여 설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을 세 번씩 반복할 때마다 심목(心目)이 송연해지는데 저 스승을 무함하고 스승을 잊은 무리들은 또한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내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대의 현명함은 실로 능히 면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모두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경채환에게 보냄 계묘년(1903)

與朴受卿彩煥 癸卯

배우는 자가 스승에게 전수받아 용처로 삼는 것은 많은 것에 있지 않고 다만 스스로 떠맡아서 한두 글자를 얻어 자신의 밑천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성(元城 유안세(劉安世))은 온공(溫恭 사마광(司馬光))에게 ‘성(誠)’ 한 글자를 받아서 종신토록 행하였고¹⁵, 중거(仲車 서적(徐積))는 안정(安定 호원(胡瑗))에

14 구법(九法) : 《주례(周禮)》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방국(邦國)에 구법(九法)을 세워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경기(京畿)를 제정하고 나라를 봉하여 방국을 바로잡으며, 의례(儀禮)의 직위(職位)를 설정하여 나라의 등급을 정하며, 현인(賢人)을 올리고 공을 이루어 나라를 건설하고, 감(監), 목(牧)을 세워서 나라의 버리를 정하고 군제(軍制)와 금고(禁錮)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잡고, 공물(貢物)을 베풀고 직분을 나누어 나라 일에 임하고, 향민(鄉民)을 뽑아 나라 일에 쓰고, 고루 법을 지키어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겨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 하였다.

15 원성(元城)은…행하였고 : 유안세가 사마광에게 ‘마음을 다하고 몸을

게 ‘직(直)’ 한 글자를 받아서 평생토록 사용하였습니다.¹⁶ 아우는 형이 간옹에게 전수받은 ‘용(勇)’ 자도 이와 같다고 여깁니다.

대저 더디고 유약한 것은 배우는 자의 병통이니, 다만 ‘용(勇)’ 한 글자야말로 귀신이 전수한 한 알의 영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勇)과 불용(不勇)은 이 학문의 성패를 가를 기를 입니다.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는다.”¹⁷는 것도 다만 용이며, “죽은 이후에 그친다.”¹⁸도 다만 용입니다. 그리고 안자(顔子)가 “순(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¹⁹라고 하고, 자로(子

뉘는 요체로서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사마광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성(誠)일 것이다.” 하였다. 이에 다시 유안세가 “그것을 행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사마광이 대답하기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다. 《소학집주(小學集註) 권6 <선행(善行)> 유안세는 강직한 성품으로 직간을 하여, 전상호(殿上虎)라는 별명을 얻었다.

- 16 중거(仲車)는…사용하였습니다 : 서적이 스승인 호원(胡瑗)을 뵈고 나올 때에 머리의 모양이 조금 기울었는데, 호원이 갑자기 큰소리로 “머리를 곧게 세워라.[頭容直]”라고 하였다. 서적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곧게 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곧아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고, 이후로 부정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소학집주(小學集註) 권6 <선행(善行)>
- 17 스스로…않는다 : 《주역》 건괘(乾卦) 상전(象傳)에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니 군자가 이를 보고서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라고 하였다.
- 18 죽은…그친다 :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이는데,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仁)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으니 또한 막중하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않은가.[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19 순(舜)은…사람인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이는데, 안연(顏淵)이 말하기를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路)가 “듣고서 행하지 못함이 있으면 다시 들을 것을 두려워했다.”²⁰라고 한 것도 모두 능히 용을 실천하여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된 것입니다. “한 삼태기가 부족하여 산을 이루지 못하고 그치었다.”²¹는 것과 “싹은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다.”²²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염구(冉求)의 자획(自畫)²³과 재여(宰予)의 주침(晝寢)²⁴도 결국에는 또한 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에 불과

순 임금에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또한 순 임금같이 될 것이다.(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하였다.

- 20 자로(子路)는…두려워했다 : 이 구절은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에 보인다. 본래는 “자로는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미처 실천하지 못했으면 유독 다른 가르침을 듣기 두려워했다.[子路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이다.
- 21 한 삼태기가…그치었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보이는데, “비유하면 산을 만드는 데에 한 삼태기를 더하지 않고서 그치는 것도 내가 그치는 것과 같으며, 비유하면 평지에 한 삼태기를 붓더라도 나아감은 내가 나아가는 것과 같다.[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라고 하였다.
- 22 싹은…있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보이는데, “싹이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苗而不秀者, 有矣夫; 秀而不實者, 有矣夫.]”라고 하였다. 이는 원래 학문을 하면서 완성에 이르지 못함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를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 23 염구(冉求)의 자획(自畫) : 《논어(論語)》〈옹야장(雍也)〉에 보인다. 염구가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非不悅子之道, 力不足也.]”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둔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그은 것이다.[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畫]”라고 하였다.
- 24 재여(宰予)의 주침(晝寢) :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에 보인다. 재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가 말하기를 ‘싹은 나무는 아로새길 수 없고 분토의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朽也.]’라고 하였다.

합니다. 간옹이 형에게 ‘용’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뜻이 어찌 알
은 것이겠습니까. 천만 스스로 힘을 써서 종신토록 수용하여 쓴
다면 또한 원성(元城)과 중거(仲車)와 같게 될 것입니다. 형이 스
스로 용기가 없다고 말씀한 것은 비록 겸양에서 나온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한 가지 일에 근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외람되
게 번거로이 떠들었습니다. 형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대저 사람이 상지(上知)가 아니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이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만
법의 근원입니다. 천하에 지극히 귀한 것은 도이며 지극히 높은
것은 덕인데, 스승의 강수(講授)로 말미암아 귀하고도 높은 것을
얻으니 은혜와 의리가 깊고도 무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
로 옛날부터 성현마다 이 일을 조기에 정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
니다. 안자(顏子)가 공자를 따라 배운 것도 그 나이가 14세였고,
자하(子夏)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 공자를 따른 것
도 그 나이가 18세였으며, 이천(伊川)은 15세에 염계(濂溪)에게
배웠고, 회옹(晦翁)은 24세에 연평(延平)을 뵈었습니다. 이제 형
이 간옹을 뵈는 것은 이상의 여러 성현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늦다
고 말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굳은 마음으로 스승과 제자의 분수
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용기가 없는 것과 근사한 점
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박모(朴某)는 순실하
여 함께 할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참으로 듣기가 쉽
지 않고 그 뜻 또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현의 시대와 멀
고 인물도 없어서 학술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장(詞
章)을 추구하는 속학(俗學)의 무리야 진실로 물을 것이 없으나,
도학(道學)을 한다 말하면서 서로 전수한 종지를 위반하고 별도

로 자신의 법문을 세워서 의관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심성의 나뉘음을 혼란시키는 자들이 또한 많으니, 온 나라를 둘러보아도 어디에 발길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한번 어긋나면 비록 허다한 심력을 모두 쏟고 수많은 말로 꾸민다 하더라도, 끝내는 성학의 참뜻과는 향기로운 풀과 누린내 풀처럼 서로 반대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신중히 살피서 추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받들어 언급하였습니다. 잘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에게 답함 기미년(1909)

答朴受卿 己酉

오늘 아침은 새해의 첫 번째 길일입니다. 하늘에는 삼양(三陽)이 회태하여²⁵ 만물이 새롭게 바뀌는 때이고, 나라에는 인정(仁政)을 베풀어 그 명을 새롭게 하는 때이니, 인사에 있어서도 어찌 과실을 누우치고 반성하여 그 덕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형은 평소에 감백(甘白)의 자질로 화채(和采)의 수식을 더하여²⁶ 문학과 행실을 겸비하고 명성과 실지가 모두

25 삼양(三陽)이 회태(回泰)하여 : 신년(新年)을 축하하는 말이다. 10월의 순음(純陰)에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양효(陽爻)가 하나씩 살아나서, 1월이 되면 양효가 셋이 생겨 태괘(泰卦)가 되는데, 이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며 음(陰)이 소멸하고 양(陽)이 신장(伸長)하여, 길형(吉亨)의 상(象)이 있다. 그러므로 신년을 축하하는 말로 쓰인다.

26 감백(甘白)의…더하여 : 충신(忠信)한 자질로 예의를 익혔음을 말한다. 《예기(禮記)》〈예기(禮器)〉에 “단맛은 모든 맛의 근본이라서 백미(百味)를 조화시키고, 흰색은 모든 색의 근본이라서 어떤 채색이나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충신한 사람이라야 예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甘受和, 白受采, 忠信之人, 可以學禮]”라고 하였다.

용성하여 사우(士友)의 기대가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수한 바는 평소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매우 달랐으니, 이에 연성(連城)의 백옥²⁷에 하나의 하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아(宰我)는 공자 문하의 십철(十哲)이면서도 오히려 상기(喪期)를 단축하고 취렴(聚斂)하는 실수가 있었으니,²⁸ 하물며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스스로 수행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이것에 핑계를 대고서 해될 것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통렬히 옛 과실을 징계하여 새로운 덕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

형의 편지를 보니, 후회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으니 스스로 반성하는 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심하고 기운이 꺾인 뜻이 많고, 힘써 닦아서 옮겨서 나아가려는 기운이 적으니,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형의 실수는 형의 연고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친의 명을 감히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써 부친을 깨우칠 수 없어서 부친의 명령을 따르는 효도를

27 연성(連城)의 백옥 : 값이 성(城) 몇 개와 대등한 옥이란 말이다. 전국 시대에 조(趙) 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和氏璧)을 구하여 얻었는데, 진(秦) 나라 소왕(昭王)이 듣고서 조왕(趙王)에게 사람을 보내어 열다섯 성과 바꾸기를 청했었다. 《사기(史記)》〈염파인상여열전(廉頗閼相如列傳)〉에 내용이 보인다.

28 재아(宰我)는...있었으니 : 《논어(論語)》〈양화(陽貨)〉에, 재아가 아버지의 복을 1년만 입기를 청하자 공자가 책망하며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이다.(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선진(先進)〉 “계씨가 주공보다 부유하였는데도 염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산을 늘려 주었다.[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라고 하였다.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이 실수를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것에 얽매어 부끄러워하고 한탄만 하다가 마침내 나아가지 못하고 그칠 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더욱 다리 힘을 씹씩하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간 뒤에 그치겠습니까. 원컨대 형은 하늘의 해에 맹세하고 백배로 힘을 써서 스스로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옛날의 허물을 능히 고친다면, 동우(東隅)에서 잃은 것을 장차 상유(桑榆)에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²⁹ 힘쓰고 힘쓰기 바랍니다.

전명래(明석)에게 답함 계묘년(1903)

答全明來明錫 癸卯

“학(學) 자는 지(知)의 측면이 많고, 습(習) 자는 행(行)의 측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논어집주(論語集註)》³⁰에 ‘학(學) 자를 해석하기를 “선을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선을 밝힌다.”는 것은 실로 치지(致知)의 공부이며, “처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역행(力行)을 통

29 동우(東隅)에서…것입니다 : 《후한서(後漢書)》〈풍이열전(馮異列傳)〉에 “동우에서 잃었으나 상유에서 수습한다.(失之東隅, 收之桑榆.)”라고 하였다. 동우(東隅)는 동쪽 해가 뜨는 곳이니 젊은 시절을 말하고, 상유(桑榆)는 서방 해가 지는 곳으로 만년(晩年)을 비유한다.

30 논어집주(論語集註) : 〈학이(學而)〉편 제 1장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대목의 집주(集註)를 가리키는데, “배운다는 말은 본받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모두 착하되 깨달음이 먼저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하였던 바를 본받아야만 선을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습은 새가 자주 날이니, 배우기를 그만두지 아니함을 새가 자주 날듯이 하는 것이다.[學之爲言, 效也. 人性皆善, 而覺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라고 하였다.

해 이르는 것이니, ‘지’와 ‘행’ 두 뜻이 ‘학’ 한 글자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습(習)’ 자를 해석하기를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습’ 또한 ‘학’의 일이며 더하여 그치지 않는 뜻이 있으니, 이것 또한 지와 행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배언신면에게 답함 정해년(1947)

答姜拜言信冕 丁亥

편지 내용 중에 의혹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오히려 혹 스승을 무함한 것을 허물하지 말라 했는데, 유고를 어지럽힌 것도 허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호남과 영남에서 오히려 혹 시비(是非)를 타파했다고 했는데, 사정(邪正)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길로 돌아간다면 즐거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무함을 당하였고, 유고가 어지럽힘을 받았는데도 같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즐거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내려 주길 바랍니다.

10년 전에 문성보(文聖甫)가 와서 말하기를, “양쪽이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전사견(田士堅)이 먼저 말하기를 “지금 화해의 말을 들으니 사람을 새파랗게 질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니, 성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 봄에 전사순(田士順)과 전사유(田士裕)가 와서 말하기를, “양쪽이 화해를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대의를 삼으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뜻은 바로 예전 성보(聖甫)

의 설과 같은데, 전사순과 전사유도 오히려 꺼린 것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 것입니다.

전사인일효를 위로하는 별지 병자년(1936)

慰田士仁鑑孝別紙 丙子

위문하는 편지 외에는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는 단지 하나의 인심(仁心)이 있을 뿐입니다. 우암(尤菴)도 그렇게 말했으니, 이것을 통해 당신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이 하나의 인심은 진실로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하나의 인심이 물썬 생겨날 즈음에 평일에 했던 것으로서 뒤미처 생각하매 후회할 만한 것들이 반드시 이 하나의 후회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물썬 드러나는 것을 잃지 말아서 내 마음의 편안한 것으로 행할 수 있다면 인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지난날의 일이 허다하게 후회할 것만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후회할 일은 지금 오히려 잘 고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다시 훗날에 후회할 일이 있다면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부득불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진심에서 하는 말이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앞에 두고 눈물이 나서 할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김윤승종섭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金允升鐘暹 甲子

가르쳐 주신 뜻을 대략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형이 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형의 주된 뜻을 분명

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이쪽은 어느 쪽을 가리키며 저 쪽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요? 영남을 이쪽이라 말하고 호남을 저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감히 알 바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을 이쪽이라 말하고 영남을 저쪽이라 말한 것이라면 형은 이 편지에 일삼을 필요가 없이 곧 전편을 반복하여 읽어보면 피차간의 여탈(與奪)이 극히 선명하니 의심난 것을 질문하여 채택하여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남이 호남의 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버리고 경성 사람에게 인가를 구걸한 것에 대해 일찍이 분명한 말로 배척했었습니다. 음성(陰城)의 인교서(認敎書)가 나오자 이것은 대의(大義)가 관련된 것이라 말하고 절절히 근심하고 힘들게 변론하여 한쪽의 지목을 후하게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영백씨(令伯氏)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옛사람이 부들부들한 가죽을 차고 다니거나 활시위를 차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경계한 고사³¹를 끌어다가 직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대한 가르침을 받들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형의 몽매함이 진실로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김용승(金容承)은 이미 사문(師門)에서 스스로 물러난 자인데 그의 무죄를 변명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만 스스로 변명할 것은 있습니다. 내가 김용승을 따른 것이 그 죄를 알지 못했던 날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날에 이미 편지로 절교를 고

31 옛사람이...고사 : 강하고 사나운 자는 억제하여야 하고, 두려워서 위축된 자는 기운을 충분히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한비자(韓非子)》〈관행(觀行)〉에 “서문표(西門豹)가 성격이 급하여 무두질한 가죽[韋]을 차고 다녔고, 동안우(董安于)는 성격이 느슨하여 활줄[弦]을 차고 다니며 스스로를 급하게 하였다. [西門豹之性急 故佩韋以自緩 已 董安于之心緩 故佩弦以自急]”라는 내용이 있다.

하였는데 무슨 간섭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음성은 그가 연전에 한 농노(漢農老)라고 부른 죄를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선사를 무시하는 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를 여러 해 동안 존경하고 믿어서 선사의 원고를 교정토록 청하였으니, 이것은 김용승을 당인(黨人)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용성이 음성에게 사과하면서 “사우간(師友間)으로 선사(先師)를 대하였다,”고 했는데, 사우간이란 말은 끝내 스승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은 서로 절교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대를 더는 성토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게 잘못을 고치고 경향(京鄕)을 미치광이처럼 쏘다니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것은 김용승을 당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일 풍파가 일어났을 때에 추후에 와서 보고 김용성에게 여관에 물러가서 기다리지 않고 곧장 들어왔다고 질책한 뒤에, 다시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미 상제(祥祭)에 천리 길을 달려 왔으니 반드시 사죄하러 온 것이다. 붙들어 내보낸 뒤에 그 고문(告文)을 보고서 진퇴를 결정해야지, 먼저 멋대로 영전(靈前)에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용승을 위하여 변명했다고 성토를 한다면 다만 받아들이기 뿐이니 또한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와 김용승은 모두 중년입니다. 절교 여부와 변명 여부는 앞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다시 무슨 변명을 많이 하겠습니까?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金允升 甲子

오늘날의 일은 다만 음성(陰城)의 무함 여부와 문죄(問罪)자의 강제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뿐입니다. “청원하여 발간하고 배

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³²라는 가르침은 이 어떠한 의리입니까?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과 “반드시 갚게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설은 이 어떠한 뜻입니까? 음성을 성토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욕보이는 거시니 따르지 말라.”는 것은 ‘힘을 헤아려서 하라’,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것과는 얼음과 숯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반면, 음성을 편드는 자들은 “저것도 한 때이고 이것도 한 때이니 병행하더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누가 옳고 누가 잘못입니까? 공평하게 듣고 아울러 살펴서 그 시비를 판단한 연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형은 선사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음성의 주장을 감죄하면서 조금도 자세히 따지 않고 현고한 자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초에 피차가 동의하여 변명하였는데, 영남 사람들이 출판사에 투고하고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며 가리고 막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더욱 많아 질수록 끝내는 합치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큰 윤리이고 의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여 완전히 밝혀지지 않으면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그 설을 끝까지 다하고자 합니다.

32 청원하여...것이다 : 전우는 자손 및 제군에 고하는 글에서 “다른 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쪽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을 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비록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는 아비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명을 맹세코 지켜서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慎勿勉從也.]”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

보내온 편지에 의전(義戰)이 없다는 것과 저쪽이 이쪽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편지의 첫머리를 삼고 호남과 영남의 단안(斷案)을 주장하였는데, 저는 완전히 타당하지 않은 제목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선사께서 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영남이 원고를 발간하려는 것을 배척했으니, 그 다툼 것은 ‘의(義)’ 한 글자일 뿐이고 애당초 의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선사가 무함을 당한 것을 보고 분변하여 성토하는 것은 의리의 가장 큰 것이니, 의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 타당하지 않았습시다. 호남이 주장한 전후의 의리가 이처럼 명쾌하고正大하니, 호남이 영남보다 낫다고 해도 오히려 잘못이지만 영남이 호남보다 낫다고 한다면 더욱 큰 잘못이 됩니다.

만약 아무개 일과 아무개 일을 대비하여 논하고, 개개인을 나란히 평가한다면 피차의 득실과 우열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말을 바르게 하여 이론을 세우지 못한 것은 또한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남이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면, 인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장한 것은 호남입니다. 경신년(1920)의 유서(遺書)가 나온 이후에 더욱 조마조마하며 이전의 죄를 통렬하게 후회한 것은 호남 사람입니다. 애써 인가하지 않은 사실을 버리고 유서를 무시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누차 위반하여 투고를 약속하고 서울에 인가를 구걸한 것은 영남과 음성 사람이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문인들이 스스로 만든 죄이니, 다만 선사에게 누를 끼쳤을 뿐이라고 해도 되고 대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선사께서 인의(認意)와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어떤 곳에 선사를 놓아두고자 한 것입니까? 이는 선사를 무함한 대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함재(涵齋 김낙두金洛斗)의 인가설을 성토하는 편지가 왔을 때에 만약 답하기를 “선사의 훈령이 반드시 불같이 나에게 화를 낼 것이지만 나는 다만 오래도록 전하고 싶어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일찌감치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앉아 있다가 진영(震泳)에게 명하기를 ‘세상의 앞날은 알 수가 없으니 문고(文稿)를 굳이 모조록 잘 헤아려 하라.’ 하였다.”라고 하고, 또 스스로 《오현수언(五賢粹言)》의 간인을 인가한 설을 인용하였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자승(子乘)이 편지로서 인가한 뜻을 질문하였을 때, 만약 답하기를 “선사의 절의로써 어찌 이런 뜻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말을 전한 자가 망령된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했다면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선사께서 일찍이 소자에게 책을 쓴 사람은 무관하니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말로 가르치셨다.”³³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오현수언》을 인가했다는 설은 일찍이 한 글자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니, 원고를 발간하는 날에 이 설로 증명한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경계를 스스로 범한 것이니 감히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다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선사가 《오현수언》을 인가한 설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표준을 세우는 마음

33 선사께서...가르치셨다 : 오진영은 이병은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선사가 일찍이 소자에게 말하기를 ‘인쇄업자가 스스로 총독부에게 출판 인가를 받으면 책을 쓴 사람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와 같다면 반드시 책을 출판하는데 깊이 구애받을 것이 없겠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후창집속집(後滄集續集)》 4 <연보(年譜)>

이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고 했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그 글을 완성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파하여, 결국 온 땅에 넘치도록 의심과 비방을 일으키고 하늘 가득 기롱과 조소가 퍼지게 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같이 생각이 없음이 어찌 이리 심하단 말입니까?

근래에 장성(長城) 송문인(松門人)³⁴으로부터 온 자가 말하기를 “선사가 만약 인가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고제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고, 또 흥덕(興德) 면문인(勉門人)으로부터 온 자가 말하기를 “이런 선사가 있음에 이런 제자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승욱(李承旭)이 <전간재전(田良齋傳)>을 지어 각 신문에 게재하려고 하는데, 보고 들은 것이 이미 이와 같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비웃으며 각각 차록(筭錄)을 만들어 배척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냉소하는 것이 장차 산과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사가 평생토록 쌓은 고결하고도 빛나는 업적을 하루아침에 어둡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형께서 공정하고 맑게 생각하시면 또한 저절로 정확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하여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리가 확립되면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과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는 설은 무너질 것이고,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과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라는 설이 행해지면 “청원하여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손과 문인에게 보여준 수필(手筆)이 믿을 수 있다면 홀로 앉아 있을

34 송문인(松門人) : 장성에 거주하였던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문인을 말하는 듯하다.

때 오진영에게 명했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게 되고, 홀로 앉아계실 때 오진영에게 명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될 만하면 자손과 문인에게 보여준 수필은 쓸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형세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밤과 낮, 얼음과 쉼의 관계처럼 대양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신해년(1911)의 유서에 인가하지 말라는 것은 그때의 일이고, 임술년(1922)에 혼자 앉아계실 때 명하여 인가하도록 한 것은 이때의 일이다.”라고 하였고, 또 “전에는 변통할 길이 없었지만 뒤에는 대인(代認)하는 사례도 있으니, 왕등(旺嶺)에서 ‘인가하지 말라.’고 쓴 수필(手筆)과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계실 때 ‘힘을 헤아려 하라.’고 했던 명은 병행될 수 있고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성을 믿는 것이 선사를 믿는 것보다 돈독하고 선사를 의심하기를 음성을 의심하는 것보다 쉽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 때문에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과 “구애받지 말라”는 등의 설이 깨지지 않으면 선사가 전후로 두 마음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선사는 광명정대한 군자이니, 음성은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金允升 甲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듯 천하의 마음과 천하의 문장도 하나로 똑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문장을 보고 이 이치를 궁구하여 똑같이 극치로 돌아간다면 마침내 서로 합치하지 못할 이치가 어

찌 있었습니까? 오직 이와 같을 뿐이기 때문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힘을 헤아려 하라”, “구애받지 말라”는 것과 형세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서찰 중에서 가장 긴요한 대목이며, 음성(陰城)의 죄를 감단한 것이 못을 끊고 쇠를 자르듯 하여 끝까지 남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장에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는가.”라는 것은 천명이 그렇게 여기고 만 명이 그렇게 여기어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진영(吳震泳)을 두터이 엄호하는 형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설령 조금 평가를 바꾼다 해도 또한 마땅히 “아마 혹 그럴 것 같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 명쾌하게 결단함이 한결같이 이런 수준에 이르러 이전 편지에 “선사를 무함한 죄를 억지로 자복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과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을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에 천하의 이치와 문장이 동일하고 시비의 공평함이 사람들 마음속의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지 않으면 절로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말이 사리에 맞는 것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여기서 그칠 수 있었는데, 마침내 다시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음을 보장한다.”,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굴레를 씌울 수 없다.”는 등의 설로 화사첨족(畫蛇添足)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서 또한 편사(偏私)를 극복하기 어려움과 앞서의 소견을 버리기 어려움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엄호한

다.’는 ‘호음(護陰)’ 두 글자가 우리 형의 평생 고질병이 되어 곳곳에서 기회를 타고 일어남을 적어 한탄하는 바입니다.

대저 말은 심성(心聲)이고, 글씨는 심획(心畫)입니다. 그러므로 고금 사람들의 성광(聖狂)과 선악(善惡)을 보고자 할 때는 오직 말과 글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말과 글씨가 이와 같지만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숨기리오.”³⁵라는 가르침이 그릇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책에서 나타나고 조물주의 숨씨는 만물에 나타난다.”는 설은 망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은 음성(陰城)의 글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음성의 마음은 이미 궁구하여 말할 수 없으니, 우선 비록 마음을 따져서 죄를 용서하자고 말하더라도 혹 무의식인 잘못이었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재(靜齋 이석용(李錫庸))에게 말하기를 “선사가 일찍이 인의(認意)가 있었다.” 하였고, 두 번째로 송병진(宋秉眞)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사가 일찍이 인의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세 번째로 함재(涵齋 김낙두(金洛斗))에게 답하기를 “선사가 혼자 앉아계실 때 내게 명하여 힘을 헤아려 하라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네 번째로 자승(子乘 이병은(李炳殷))에게 답하기를 “선사가 일찍이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간절히 바른 말로 꾸짖고 정성으로 회유하여 그로 하여금 빨리 잘못을 고쳐 속히 돌아오도록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오만하게 높은 자세로 앉아서 혹은 듣지 못한

35 그 말을…숨기리오 : 《맹자(孟子)》〈이루 상(離婁 上)〉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 보고 눈동자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겠는가.[聽其言也，觀其眸子，人焉廋哉]”라고 하였다.

척하며 한 해가 다하도록 답을 하지 않았고, 혹은 경쟁하는 습관이 있다고 꾸짖었으며, 혹은 내시의 불알이니 중의 상투니 하는 말로 조소하였고, 혹은 광천(狂泉)³⁶을 여럿이 마셨다고 욕을 해대었습니다. 선사를 무함한 설을 거듭 반복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에 더욱 힘을 썼으니, 천하의 고의적인 일이 끝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음성을 죄주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억지로 죄를 자복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음성을 옹호하는 고질병이 될 뿐만 아니라 혹 선사를 잊어버리는 큰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계실 때 명했다.”고 한 것에 대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왜의 달력을 함부로 비웃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발언을 너무 명쾌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형의 식견과 언론이 한때의 잘못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갉아 먹힌 것이 그 유래가 매우 깊이니, 또한 괴이하게 여깁니다.

근래에 조충현(趙忠顯)³⁷이 글을 지어 못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석농(石農)의 ‘선사가 혼자 앉아계실 때 명했다.’고 하는 것은 가리켜서 감히 없다고 할 수 없고, 정재(靜齋)의 ‘유서(遺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리켜서 감히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바야흐로 여론의 분통과 공의(公議)의 성토를 받고 있습니다. 형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조충현의 “감히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록 의심과 결론의 차이가 있긴

36 광천(狂泉) : 옛날 어느 나라에 광천(狂泉)이 있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미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남사(南史)》

37 조충현(趙忠顯) : 자는 경서(景恕), 고종 병인년(1866)에 태어났다. 본관은 평양으로 주사를 지냈으며 평간공의 조건의 후손이며 청양에 거주하였다.

하지만, 멋대로 지어낸 것으로 성토하는 중론에 반대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불행히도 형의 편지가 먼저 나왔고 조충현의 글이 뒤에 나왔다면, 혼자 앉아있었을 때에 명했다는 것은 진실이고 유서는 거짓이라는 흉악한 설을 우리 형의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계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장차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매 이미 두렵습니다. “발언이 너무 명쾌하다.”고 한 것은, 말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지만 말투 속에 억양이 너무 지나친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랑캐의 정삭(正朔)을 사용한 김수홍(金壽弘)³⁸에 대해 꾸짖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친족의 정을 끊게 한 것은 우암(尤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수홍이 우암을 기롱하여 “남이 오랑캐의 정삭을 쓰는 것에 대해 조심하여 함부로 경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수홍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자가 “발언이 너무 명쾌하다.”고 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이에 이르매 또한 놀라게 됩니다.

대체로 보내준 편지의 전말을 모두 들어서 반복해 살펴보면,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는가.”라는 한 구절 이외에는 모두 영남을 돕고 음성을 엄호한 것으로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의리를 상실하고 무함을 사실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육체와 정신을 갇아 먹힌 장본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에 “당인(黨人)을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우두머리가 어떠한가 쟁단의 일어난 게 된 이유가 어떠한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과 “음성은 치우쳐서 주장한 바가 없었고, 순재(舜在 성기운(成璣運))는 일의 기미

38 김수홍(金壽弘) : 조선 시대의 문신(1601~1681). 자의 대비(慈懿大妃) 복상 문제와 청나라와 명나라 연호 사용 문제로 송시열과 반목하였다.

를 두루 움켜쥐었고, 경존(敬存 최병심(崔秉心))은 암암리에 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호남과 영남의 시비를 우선 놔두고서 다만 무함 여부만 논했던 것은 문도와 관련된 것이냐 선사와 관련된 것이냐는 차이가 있고, 그만둘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없느냐는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형이 호남은 그르고 영남은 옳다 하여 무함한 죄까지 아울러 묻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감히 대략 사실을 진술하여 고명(高明)의 취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처음에 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가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청간(淸刊)하는 곳에서 인가를 힐난하였고, 세 번째는 음성을 성토하는 일에 의리를 제창했으니, 그 의리가 맑고 맑으며 말이 정당하고 정당한 자는 함재(涵齋) 김장(金丈)이니 진실로 호남 의론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경존(敬存)과 같은 자는 호남의 침묵으로 인하여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 자에 불과하니, 진실로 문망(文望)의 우열을 가지고 그 수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쟁단이 일어나게 된 이유 같은 것은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성이 저에게 답한 편지에 상빈(傷貧)의 마음이 첫째이고, 뇌비(賂碑)의 유감이 둘째라고 하였는데, 형이 지적한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을 간행하는 곳은 돈이 생겨나는 숲이 아니고, 정재(靜齋)도 평소 탐욕하다고 칭해지는 자가 아니니,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간행 장소를 다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존(敬存)이 뇌물을 주어 비문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뇌물을 받고서 비문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앞서 제창한 자가 있자 다시 이에 화답한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이 글은 마땅히 삭제하고 다만 비(碑)를 강 등하여 갈(碣)을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를 통해 최경존을 성토한 것이 아니라 실로 백대 뒤에도 우리 선사의 씻기 어려운 허물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문하의 제자가 감히 할 것이겠습니까? 스승의 문장을 돌아가신 뒤에 고치는 것은 변괴 중에 큰 것인데, 고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법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법을 미처 보지 못하였지만 아무렇지 않게 멋대로 고쳤으니, 이것이 어찌 조금이라도 선사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문하의 제자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뇌비와 관련한 두 번째 유감은 최경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감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사에게 허물을 끼치고 선사를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경존의 잘못은 갈(碣)로 고치는 것을 경솔하게 허락한 날에 있었고, 예전의 비(碑)로 회복하고자 한 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동(玄洞)에서 발간한 것에 대해 “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시행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남의 침묵은 경존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현동에서 발간하는 일도 경존이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청(完廳)의 해각(亥角)³⁹과 온 도의 동문들이 어찌 모두 경존이 사적인 이익을 암암리에 취하도록 해주었겠습니까? 만약 경존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쟁단을 일으키는 혐의를 피하였다면, 외부의 방해가 없는 현동에서 발간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인가를 구걸한 영남의 일은 스승을 의리로 섬기며 허물을 고치는데 기탄이 없는 도리

39 해각(亥角) : 일본인 해각중장(亥角仲藏)으로, 1921년 8월 5일 ~ 1925년 8월 11일까지 2대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냈다.

가 결단코 아니었으니,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쟁단의 뿌리를 암암리에 양성한 것은 원래 영남에 있었습니다. 3000원짜리 집을 주겠다는 감언에 원고가 갑자기 영남으로 넘어갔고, 600원 발간 비용을 마련한 의록(義錄)은 그 재물을 관장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곱 성인은 모두 길을 잃었고⁴⁰ 일만 대충은 눈이 없어서 스스로 여기기를 ‘병졸이 사적인 이익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장수의 원대한 계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원고를 출판하도록 유혹했다는 힐난이 전사인(田士仁)의 영남 편지에서 나왔고, 장재(掌財)를 가짜로 꾸몄다는 것이 탄로 나서 김정호(金楨鎬)가 그 액(厄)을 대신하였습니다. 처음에 쟁단의 뿌리를 암암리에 양성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의 보루가 선명하게 솟아오른 것이니, 형세로 볼 때 반드시 닥치게 될 일이었습니다.

완청(完廳)의 해각(亥角)은 “우리 인본(印本)만 유독 없겠는가. 인본이 없다면 경성에는 어찌 끝내 없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침묵한 것이다.”라는 것은 오진영의 글에서 확고하게 말하였고, “하공(荷公 민영휘(閔泳徽))이 침묵하였다.”는 것은 성기운(成機運)의 편지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찌지 못하고 꼭두각시의 본모습이 가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침묵해서 허락할 수 없었다.”고 송병휘(宋秉徽)의 편지에서 드러나자 “분명히 침묵한 것이다.”는 말은 깨짐을 면치 못하였고, “민장은 말이 없었다.”고 조충현(趙忠顯)의 글이 나오자 “하공은 침묵하

40 일곱...잃었고 : 《장자(莊子)》〈서무귀(徐無鬼)〉의 “양성의 들판에 이르자 황제(黃帝)를 모시는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었다.[至於襄城之野, 七聖皆迷]”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길을 잃어 갈 곳을 모르는 것을 뜻한다.

였다.”는 것은 날조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 형께서 “석농(石農)의 마음은 치우쳐서 주장한 바가 없었다.’고 한 것은 과연 맑은 하늘의 백일과 같은 것이었으며, ”순재(舜在)는 일의 기미를 두루 움켜쥐었다.“고 한 것은 과연 뻑뻑한 그물을 사방에 둘러친 것이었으니,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이에 대해 오히려 다시 말하기를 “다툼의 실마리는 호남에 있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성토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라고 했으니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나는 우선 할 말이 없네만 인가와 침묵은 오십보백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허(認許)’에 대해 ‘묵허(默許)’라고 한 것은 저쪽에서 지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저들은 알고서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나의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 다만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인가와 침묵을 동일하게 허락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청의 유무와 왜(倭)의 달력을 썼는지 여부는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오십보백보로 개괄할 수 있겠습니까?

당일에 허물의 있고 없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선사의 장례를 지낼 때에 그의 성모(誠慕)와 우리의 청초(淸楚)함에 대해서는 이미 들을 만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원고를 인쇄하는 것은 곧 전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지금의 도지사(道知事)는 곧 전날의 성모했던 해각(亥角)입니다. 그러니 장례를 지낼 때 방해가 없는 것과 함께 똑같이 일제로 삼아서 일찍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또한 임술년(1922) 겨울에 몸소 완청에 질문했던 자는 영백씨가 아니었습니까? 과연 하자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영백씨가 먼저 알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금지하여 당일에 쓰지 말라고

한 마디 말도 없었으며, 형이 마침내 오늘에 뒤미처 비판을 한단 말입니까? 또한 하나의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형의 형제는 세상에서 원방(元方)과 계방(季方)⁴¹처럼 우열을 다투기 어렵다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힘써서 첫 번째 의리로 삼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형에게 고하지 않은 것을 아우가 반드시 감히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뜻을 강행하여 어진 아우가 정성을 다해 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형이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선사를 무함한 것과 김용승(金容承)을 당(黨)으로 여긴 것은 그 죄에 경중이 있습니다. 만약 함장(涵丈)에게 진실로 김용승을 당으로 여긴 자취가 있다면 의당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살펴서는 안 되며, 하물며 김용승을 따라서 사우(師友)간으로 선사를 대하던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였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김용승과 절교한 것은 7월 4일 대상(大喪)을 지낸 이후입니다. 날씨가 분명하고 마음의 자취도 선명한데, 영백씨는 어찌하여 선사를 무함한 음성 사람을 모두가 곡진하고 맹렬히 성토할 때 마음을 허여한단 말입니까? 김용승과 절교한 함재가 머리가 새하얗게 센 백수(白首)의 나이로 30살이나 아래인 정운한(鄭雲翰)의 부장(副將)이 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형이 영백씨에게 고한 것에 정성을 다함이 있지 않아서입니까? 성토했던 김모(金某) 무리의 중제(中弟)도 또한 그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스스로 말

41 원방(元方)과 계방(季方) : 진원방(陳元方)과 진계방(陳季方)은 형제인데, 둘 다 재주가 뛰어났다. 그래서 “원방은 형 노릇 하기가 어렵고, 계방도 동생 노릇 하기에 어렵다.[元方難爲兄, 季方難爲弟]”라는 말이 나왔다. 이때부터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누가 더 낫고 못함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게 되었다.

한 혐의가 있지만 의견을 다 펴서 말하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인지라 또한 감히 침묵하면서 도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언급했을 뿐입니다.

김윤승에게 답함 갑자년(1924)

答金允升 甲子

대저 음성(陰城)을 엄호하는 여러 사람들은 “언어와 문자로 사람을 죄주는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 저들은 눈으로 유서(遺書)를 보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서 강태걸(姜泰杰)이 인가를 받아 출간하는 것에 급급하여 인의(認意)와 인교(認敎)의 실제 근거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까? 진천(鎭川) 경찰서에 선사의 무함을 성토했던 사람을 고소하여 창암(蒼巖)과 신헌(愼軒)이 다시 조사를 당하게 되어 재앙의 기미를 예측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 인가와 그 고소가 음성(陰城)의 저 강태걸이 작성한 고소장 중의 오선생(吳先生)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처음에 오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비록 네가 아니라고 말하나 이미 너의 노래를 지었다⁴²고 하겠습니까.

42 비록…지었다 : 《시경(詩經)》〈상유(桑柔)〉의 “비록 내가 아니라고 말하나 이미 너의 노래를 지었도다.[雖曰匪予, 既作爾歌]”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인데, 비록 스스로 잘못을 꾸며대며 말하지만 이미 사실을 밝혀 말하였다는 뜻이다.

함재장(涵齋丈 김낙두金洛斗)이 인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맑고 지극히 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스스로 자립하여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경존(敬存 최병심(崔秉心))에게 의지하여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을 위협하고 강제하여 선사를 무함하게 하였습니다.

영백씨(令伯氏)가 완청(完廳)에 가서 질문했음에도 침묵한 것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오진영과 성기운(成璣運)이 보루를 만들어 경존(敬存)을 기다린 것으로 또한 그 잘못을 잡아낼 수가 없었지만, 장소를 옮겨 간행하자는 의론을 먼저 제창한 것에 대해, 함재장이 어떻게 잘못을 억지로 지적하며 배척하여 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음성의 죄가 위협의 여부라면 음성의 편지가 그대로 있으니 나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존이 그 문도(門徒)를 시켜 침묵하게 만들어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이 모두 그가 그랬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호당(湖黨)의 수죄(首罪)를 말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존이라 말한다. 지금 우리 형이 경존을 옹호하고자 하여 그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함재장을 수석이라 하고, 경존은 처음부터 침묵을 도모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형이 비록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의 주장은 ‘인가를 구걸하지 않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한다.[不乞認辨師誣]’는 여섯 글자일 뿐입니다. 함재장이 이 여섯 글자에 약간의 흠결이 있어서 수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경존이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영백씨에게 증명하여 알 것입니

다. 비록 이를 면하지 못하여 경존이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어찌 뒤집어쓰워 호당의 수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이 반드시 침묵을 도모한 계획에서 경존을 빼내려고 하는 것은 경존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빼낸다면 경존을 대신하여 들어갈 자를 어느 자리에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형은 옛 친구에게 돈독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종장(宗丈)을 생각지 않고 모두가 미워하는 자리에 빠뜨리고자 한단 말입니까?

함재장이 보여준 그동안의 한결같은 절의는 순수하여 하자가 없었으니, 원래부터 절로 호남 사람의 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형은 경존의 문망(文望)이 오래도록 전 호남에 드러났다는 것으로 호남의 수석이라고 잘못 인식하였고, 또 침묵을 도모한 것이 경존의 중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재장이 경존을 대신하여 들어갔다고 말하였고, 모두가 미워하는 자리에 그를 빠뜨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원래 수석이었던 함재장에 대해 침묵을 도모한 경존을 대신하여 들어갔다고 억지로 말하고 그가 모두가 미워하는 자리에 빠진 것을 우려하였으니, 그렇다면 영백씨가 실로 추종하여 침묵을 도모한 뒤에 몸소 완청에 질문하고서 다른 말이 없었던 것은 어찌 더욱 모두가 미워하는 자리에 빠뜨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함재장에 대해 간절히 근심하면서 영백씨에 대해서는 무심하단 말입니까?

우리 형은 오늘의 전쟁을 천하의 의전(義戰)라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석이 된 자는 천추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으니, 반

드시 종장으로 그 수석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것은 옛 친구는 박대하고 종장에게는 은혜를 파는 것이 됩니다. 옛 친구가 유독 유감이 없겠습니까?

원수의 인간(認判)을 배척하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전이 아니겠습니까? 수석이란 이름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이니, 무슨 은혜와 유감이 있겠습니까?

선사는 애당초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재장(靜齋丈)과 경존의 간절한 청을 고달프게 받아서 다만 경존이 스스로 지은 글에 잠시 착함(着衒)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선사에게 또한 무엇을 손상될 것이 있겠습니까?

선사의 글에는 본디 《춘추》가 의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정재와 경존의 간청을 괴롭게 받아서 허락했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춘추》의리에 따르지 않고 다만 자손과 문인의 안면과 인정을 보고서 허락한 것이 될 뿐이니, 흡사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겠습니까? 위태롭고 위태롭습니다. 형의 말은 선사를 핍박하여 손상한다고 하겠습니까.

영남 사람이 설령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만약 경존이 중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일이 이런 지극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認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통렬히 문죄하는 것은 또한 우

리가 선사를 존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음성의 강태걸이 인가를 받아 출간하는 일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깊이 유감으로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절절하게 인가를 받을 때를 살피서 비루하게 그 실정을 슬피 호소하여 곤욕스럽게 경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백씨가 완청에 가서 질문한 뒤에 만약 절절하고 비루하고 곤욕스러운 상황을 말했다면 함재 등 여러 어른의 맑고도 바른 의리로 어찌 기꺼이 침묵했겠습니까? 또 당시에 만약 절절하고 비루하고 곤욕스러운 실상이 있었다면 영백씨가 어찌 가리고 숨겨서 말하지 않았을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이 영백씨가 완청에 가서 질문한 날에 나오지 않았다가 마침내 오늘 잘못을 찾은 이후에 있었으니, 또한 괴이합니다.

침묵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려고 감히 선사의 장례 일로 비거 의론을 하였는데, 이것은 하자가 없는 일이 또한 하자가 있는 일이 된 것이니 옳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한 ‘말재주 있는 사람[佞人]⁴³이 바로 이런 부류인데, 우리 형이 마침내 이런 것을 배웠단 말입니까?

43 말재주 있는 사람 : 《논어(論語)》〈선진(先進)〉에 보인다. 자로가 자를 비유(比喩)의 수령(首領)을 삼자, 공자가 “남의 아들을 해치는구나!” 하였다. 이에 자로가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하필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공자가 “그러므로 말재주 있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였다.[子路使子羔爲費宰. 子曰賊夫人之子. 子路曰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 然後爲學. 子曰是故惡夫佞者]

음성 사람들은 엽매임에서 벗어나는 방도가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미 김경부(金敬父)를 시켜 완산을 한번 가라고 한 것과 영백씨가 당일에 말하지 않았던 비루하고 곤욕스러운 말 등에 대해 지금 우리 형은 잘못이 있다고 여기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잘못이 있는 것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은 음성 사람과 영백씨였고, 일찍이 말재주를 배운 자도 음성 사람과 영백씨였습니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먼저 배척하지 않으십니까? 【후에 음성 사람이 서모(徐某)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선사의 성대한 덕은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기 때문에 엽매임에서 벗어나는 도가 있으니, 장례를 지낼 때에 잘못이 없었던 것과 같다. …”고 하였다. ○정묘년(1927) 6월에 추가로 기록한다.】

함재장은 선사의 대상(大喪) 이후에 김용승(金容承)과 절교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편지를 우선 놔두고 영백씨가 급히 음성에 편지를 보냈던 망령된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다시 함재장이 김용승과 절교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함재장도 믿을 만 못하고 저도 믿을 만 못하고 영백씨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까?

김윤승에게 답함 정묘년(1927)

與金允升 丁卯

앞서 존형의 편지에 음성 사람이 선사를 무함한 죄를 잘못 뒤집어썼다고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공개적인 성토가 억압이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입니다.

대체로 이른바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계실 때 명하였다.”

는 것이 무함한 말임은 원래 명백하였는데, 다만 그가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但論遲速, 不及認否]”,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語欠區別, 命辭疎忽]” 등의 말로 장황하게 덮고 꾸며냈기 때문에 비록 존형의 밝은 식견으로도 현혹됨을 면치 못하고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또 그가 서모(徐某)에게 답한 편지를 얻어 보았는데, 첫머리에 “바다를 건너갈 수 없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명백한 뜻을 밝히고, 끝에서는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를 따랐다.[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고 하였습니다. ‘불언지교’ 네 글자는 비록 음성을 엄호하는데 공교한 자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여도 인가한 뜻으로 보지 않기가 어려울 듯하며, ‘기실(其實)’이라고 하고 ‘원종(原從)’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부족하거나 소홀한 뜻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음성의 입으로 방자하게 변명하더라도 아마도 더는 장황하게 꾸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갑은 말은 저와 같고 을은 이와 같으니, 함께 한 길로 돌아감은 어느 때나 있을까.[甲言如彼乙如斯, 同歸一轍在何時?]” 이는 왕년의 존형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구름 흩어지고 산이 솟아나야 진면목이 드러나니, 갑과 을이 같이 합치는 것 바로 이때 일세.[雲歸山立呈眞面, 甲乙同符在此時]” 이는 또한 저의 화답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헤아려 보건대, 진면목이 드러나서 갑과 을이 같이 합치는 것은 이제 그 때를 정해야 합니다. 존형의 견해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답장에서는 확실하게 의심이 제거되어, 더는 번거롭게 피차간에 주고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은 또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하였지만 또한 혹 그가 죄를 잘못 뒤집

어쨌다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지난날의 인가와 관련하여 선사를 무함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본(手定本)이 본디 있으니 많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왕년에 영백씨(令伯氏)가 초록하여 보관한 회재(晦齋), 퇴계(退溪), 율곡(栗谷) 세 선생의 설을 가지고 의심난 것을 질문하고 진본(晉本)을 대조해 보면 그 나머지는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종군에게 보냄 경인년(1926)

與李載和鍾坤 庚寅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운(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정제원에게 답함 무신년(1908)

答趙子貞濟元 戊申

옛날에 주나라 왕실이 쇠락하자 현인군자가 당시의 혼란을 슬퍼하고 풍속의 쇠퇴함을 가슴 아파하여 탄식을 하며 읊조리고

노래하였는데, 공자가 그것을 채집하여 변아(變雅)⁴⁴에 기재하니, 그 말이 강개하고 깊고 절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백세 이후에도 감탄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변(變)이라고 한 것은 그 시가 슬픔에 지나치게 상심하여 성정의 바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세상을 근심한 것은 이것과는 달랐으니, 그 마음이 깊고 절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일찍이 지나치게 상심한 뜻은 없었고 다만 “도가 행해지고 폐해지는 것은 명(命)이다”⁴⁵, “봉황이 이르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河圖) 나오지 않으니, 나는 그만인가보다.”⁴⁶, “옛날에 백성에게 삼질(三疾)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 없구나.”⁴⁷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정의 바름을 얻고 근심한 것이 깊고 절실한 것이니, 또한 강개한 사람이 능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의 어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周意)의 뜻에는 거의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자의 말씀하는 법도에는 진

44 변아(變雅) : 〈시경집전서(詩經集傳序)〉를 참조하면, 변아는 《시경》의 소아(小雅), 대아(大雅)를 일컫는 정아(正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대개 주나라가 쇠퇴하여 정치가 문란했던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소아는 〈녹명(鹿鳴)〉부터 〈청청자아(菁菁者莪)〉까지를 정소아(正小雅), 〈유월(六月)〉부터 〈하초불황(何草不黃)〉까지를 변소아(變小雅)라고 하고, 대아는 〈문왕(文王)〉부터 〈권아(卷阿)〉까지를 정대아(正大雅), 〈민로(民勞)〉부터 〈소민(召旻)〉까지를 변대아(變大雅)라고 한다.

45 도가…명이다 : 《논어(論語)》〈헌문(憲問)〉에 “도가(道)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命)이며 도(道)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명(命)이니, 공백료(公伯寮)가 그 명(命)에 어떻게 하겠는가.[道之將行也與도 命也며 道之將廢也與도 命也니 公伯寮其如命何].”라고 말하였다.

46 봉황이…그만인가보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보인다.

47 옛날에…없구나 : 삼질 즉 세 가지 병통은 광(狂)·궁(矜)·우(愚)를 말하는데, 《논어(論語)》〈양화(陽貨)〉에 보인다.

실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이 뜻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체로 세상이 완전한 음(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비록 성인이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도를 지켜서 양(陽)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뿐이지, 반드시 발을 동동 거리며 무익한 염려를 하고 떠들썩하게 쓸모없는 분노를 발하여 도리어 서로 얹매이는 병폐를 만들어 내면을 수양하는 공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기유년(1909)

答趙子貞 己酉

문왕은 24세에 백읍고(伯邑考)를 낳고 공자는 19세에 백어(伯魚)를 낳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살펴보면 비록 옛 성현이라도 30세가 되어서 부인을 맞이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애공(哀公)이 “남자가 30세에 부인을 두는 것이 어찌 늦지 않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대체는 예는 그 극단의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⁴⁸ 비록 30세에 미치지 못하여 부인을 두더라도 그것에 대해 극단의 경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 굳이 예를 잃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례》에 정한 “남자는 16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영원히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이 관(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칙(內則)〉의 ‘빋질하고, 머리를 싸매고, 동곳을 꿇고, 상투를 찐다.’라고 한 문장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상례(士喪禮)〉 소(疏)에도 “비녀에는 두

48 애공(哀公)이…하였습니다 : 《공자가어(孔子家語)》〈본명해(本命解)〉에 보인다.

종류가 있는데 머리를 안정되게 하는 비녀는 남자와 부인이 모두 있고, 관에 사용하는 비녀는 오직 남자만 있고 부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자는 “부인은 관을 쓰지 않으니, 이른바 비녀는 곧 상투를 고정시키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피변(皮弁)과 작변(爵弁)의 비녀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고, 보주(補註)에 또 “부인은 관을 쓰지 않으니, 비녀로 상투를 고정시킬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설을 근거해 보면 더욱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명나라 제도에 처음으로 봉관(鳳冠)을 사용하여 명부(命婦)의 복장으로 삼았는데, 속칭 화관(華冠)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풍습에서 사용하는 족두리(簇頭里)는 또한 화관의 잘못된 제도입니다. 원삼(圓衫)은 또한 우리나라 풍속의 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암(陶菴 이재(李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이미 논한 것이 있습니다.

다발머리[髻]는 부모의 생육에 대한 은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니, 부모가 살아있으면 머리에 붙이고 돌아가시면 제거합니다. 비록 남자가 양자로 가서 그 후사를 잇고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갔더라도 낳아주신 부모가 살아계시면 다발머리를 제거할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병자년(1936)

與趙子貞 丙子

주자가 왕안석(王安石)의 죄를 논하여 말하기를⁴⁹ “세상에는 자

49 주자가...말하기를 : 아래 인용글은 주자가 1199년 8월 하순에 진사석(陳師錫)이 남긴 서첩과 진관(陳瓘)이 올린 표문을 소재로 삼아 왕안석의 학술 경향을 비판한 것인데, 《주자대전(朱子大全)》 권70 <독

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이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치우친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론을 잃게 됩니다. 또 ‘상이 알게 하지 말라[勿令上知]’⁵⁰라는 말은 세상이 다함께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 수필(手筆)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전(陸佃)⁵¹으로 하여금 숨길 수 있게 했던 것이고, 비록 원우(元祐)의 여러 현자들이 힘들게 쟁변했지만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그 무리들이 이 진적(眞蹟)을 내놓아서 천하에 그 악함을 폭로하였으니, 곧바로 멋대로 행동하며 이치에 어긋나는 실상을 주워 모아 나라를 미혹시키고 조정을 오도한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혐의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완곡하고 에두르는 의론을 하여 이 글귀를 삭제함으로써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음

양진변의유묵(讀兩陳諫議遺墨)에 보인다.

- 50 상이…말라 : 희령 9년(1076) 10월에 풍경(馮京)이 급사중(給事中)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가 되었다. 이에 앞서 왕안석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보낸 사적인 서찰들의 수필을 모두 내어 놓고서 상주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서 ‘제년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勿令齊年知]’는 말이 있었다. 제년(齊年)은 풍경을 말하는데, 왕안석과 함께 같은 해에 중서성에 있으면서 많은 이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또 그 가운데 하나에서는 ‘상[上: 신종]께서 알지 못하게 하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신종은 왕안석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도(李燾),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권278.
- 51 육전(陸佃) : 송나라 신종(神宗)~휘종(徽宗) 때의 문신·학자. 자가 농사(農師)이며, 호가 도산(陶山)이다. 산음(山陰)사람으로, 일찍이 왕안석(王安石)에게 사사(師事)하였으나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옳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휘종(徽宗) 때 상서우승(尙書右丞)이 되었다. 저서로는 《비아(埤雅)》, 《악후전(樂後傳)》, 《춘추후전(春秋後傳)》, 《예상(禮象)》 등이 있다.

성(陰城) 오진영(吳震泳)의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수필이 예전에 오진영을 높여서 우옹(尤翁 송시열)이라고 한 자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것이 진적임이 이보다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 그가 변명한 행설설(杏下說)⁵²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교묘한 말은 또한 오늘날의 ‘자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입니다. 저 김세기(金世基)⁵³가 크게 써서 두루 변론했던 것은 다만 오진영의 죄악을 더욱 천하후세에 폭로하였을 뿐입니다. 아무개가 “최병심(崔秉心)이 관계를 끊고 호남에서 음성에게 동화된 것에 대해 부끄럽고 분노한다.”고 한 것 같은 것은, 그 운운한 것에 대해 어찌 깊이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조자정에게 답함 정축년(1937)

與趙子貞 丁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훗날을 부탁한 제자가 악에 빠진 유현(儒賢)은 없다. 이로써 본다면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자취로 나아가서 그 유죄 무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 천하에는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변고가 없을 것입니다. 천하에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변고가

52 행하설(杏下說) : 간재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힘을 헤아려 하라.”고 명하였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53 김세기(金世基) : 자는 뇌만(賴萬), 본관은 경주로 설재 김려의 후손이며 수원에 거주하였다.

없다면, 이것은 일원(一元)⁵⁴ 12만 9600년을 통틀어서 줄곧 변고가 없다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천하에 처음 보는 변고가 옛날에 없었으나 오늘 비로소 있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그것을 변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처음 보는 변고가 있었지만 현자가 사람을 알아보고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변고가 없다고 한다면 곤(鯀)에게 치수(治水)를 맡긴 것⁵⁵과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 은(殷)나라의 감독을 맡긴 것⁵⁶은, 요(堯) 임금과 주공(周公)이 현명하지 않아서입니까? 만약 이는 국가의 일이지 유문(儒門)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정인홍(鄭仁弘)⁵⁷은 남명(南冥)이 훗날을 맡긴 제자가 아닙니까? 남명

-
- 54 일원(一元) :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주장한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설에 나오는 용어로, 이 세계가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1주기(周期)를 말한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30년이 1세(世), 12세가 1운(運), 30운이 1회(會), 12회가 1원(元)이니, 일원은 모두 12만 9600년이 된다.
- 55 곤에게…것 :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맡겼는데, 온 천하가 물에 잠겼다. 여기서는 요임금같이 어진 임금 밑에서도 신하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 56 관숙(管叔)…것 :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아우들이다. 무왕은 죽고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섭정을 할 때,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공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가 뒤에 성왕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과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이들을 토벌하게 함으로써 난을 평정하였다. 《사기(史記)》 권35 <관채세가(管蔡世家)> 여기에서는 무왕이 주공에게 나라를 맡겼음에도 무왕의 아우인 관숙 채숙이 난을 일으켰다는 점을 말한다.
- 57 정인홍(鄭仁弘) : 15세에 남명 조식을 찾아가 학문을 닦고 수제자로 학통을 이었다. 조식은 정인홍에게 아끼던 칼을 물려주며 전심(傳心)의 증거로 삼았다. 산림(山林) 출신으로 드물게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정치가였으나 끝내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인물이다.

은 유현이 되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 설은 일찌감치 타파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禹)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가 밝음이라, 요 임금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⁵⁸고 하였고, 공자가 말하기를 “주공의 과실은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⁵⁹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성현이 되는데 해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선사가 실로 오진영에게 훗날을 부탁했고 오진영이 악에 빠졌더라도 애당초 선사의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사가 오진영에게 애당초 의발과 서책을 전하기를 근세의 여러 현인들처럼 한 것이 없고, 또 문장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원고 중에 병암(炳菴 김준영(金駿榮))처럼 일컬은 것도 없으며, 아울러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명한 것이 없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는 황소심(黃小心)을 ‘노성장덕(老成長德)’과 ‘공언정의(公言正義)’로 논정하였는데, 모인(某人)이 음성 오진영이 칭한 “황은 무식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들어서 답장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진실로 무식한 견해입니다. 무릇 식견에는 문식(文識)과 견식(見識)의 차이가 있으니, 문식은 글자를 아는 것이고 견식은 의리를 아는 것입니다.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의

58 사람을…여겼다 : 《서경(書經)》〈고요모(皋陶謨)〉에 “아,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요제(堯帝)도 어렵게 여긴 바이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명철한 것이다.[吁, 惟帝其難之, 知人則哲]”라고 고요(皋陶)가 우(禹)에게 말한 내용이 나온다.

59 주공의…아니한가 : 《맹자(孟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도록 했는데, 관숙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주공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관리로 썼다는 허물과, 아우로서 형인 관숙의 난리를 다스렸다는 허물이 있게 되었다.

리를 알면 유식하게 되는데 해가 되지 않고, 문자는 알지만 의리를 알지 못하면 무식하게 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정무공(貞武公) 오정방(吳定邦)⁶⁰은 광해군이 폐모(廢母)를 논의하는 자리에 나아가 말하기를, “신은 무부(武夫)로 다만 《사략(史略)》 1권만 읽고 단지 ‘점점 다스려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는 것만 알 따름입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명언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정방은 음성 오진영의 현조(顯祖)입니다. 황장(黃丈)이 참으로 문식이 없다고 해도 다만 그 설이 의리에 합하는지 여부만을 논해야 할 뿐이고 결단코 무식으로 단정해서 안 됩니다. 만약 정무공이 당시에 이이첨(李爾瞻) 무리가 “오는 무식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면 어찌 이치에 어긋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황장의 문장은 전중(典重)하고 평순(平順)하며 명백(明白)하고 절실(切實)해야 음성 오진영의 기이함을 숭상하는 문장이 능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문의 능숙한 자도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자는 없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진영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았던 까닭에 혁혁한 명성이 없었을 뿐입니다. 대개 의리와의 합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면 오진영이 행한 것은 짝할 만한 의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줄곧 근거 없이 말만 늘어서 사람의 눈귀를 현혹하고, 이내 모는 가난함에 손상이 되었고, 모는 사적인 일을 도모하였고, 모는 유감을 가지고 있고, 모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였고, 심지어 황장은 무식하다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장이 만약 문장으로 이름이 났더라면, 그는 반드시 모는 시샘과 기교로 명성을 다뒀다라고 하였을 것이니, 그의 험악한 마음과 번지르

60 오정방(吳定邦) :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영언(英彦). 호는 퇴전당(退全堂). 임진왜란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내었다.

르 입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묵묵히 우리의 의리를 지키면서 선사의 무함을 분명하게 변론할 따름입니다.

모인은 어찌 한 번 생각지 않았단 말입니까? 오진영은 어렵지 않게 직접 선사의 원고를 고쳤고, 심지어 선사에게서 받은 조부의 묘지명(墓誌銘)도 고치고 첨가한 것이 많았으며, 또 그 당파 집안의 묘명(墓銘)도 고쳐서 묘갈명(墓碣銘)으로 만들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본 전표(傳表)에 대해서도 죽도록 놔두질 않고서 한바탕 얘기꺼리를 만들었으니, 오진영이 염치가 없음은 진실로 당연하였습니다. 모인은 어찌 한 번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전에 쇠몽둥이로 머리를 때린 죄를 갚고자 하여 감히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고자 한 것이란 말입니까?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趙子貞 戊寅

부모가 외지로 나가셔서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식이 상복을 입고 제사를 행하는 기일에 대하여 선배들이 논한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혹은 나이 100세로, 혹은 나이 80세로, 혹은 10년을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경우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마땅히 해당인의 건강했는지 병들었는지, 도로가 험한지 평탄한지, 인심의 후한지 박한지, 탐색의 영성했는지 정밀했는지를 가지고 서로 참고하여 결정을 해야지,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상황이 궁하고 희망이 끊어져서 더는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되어야만 상복을 입고 제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중부(仲父) 어른은 집에 있었을 때 병으로 혼미함이 이미 심했고, 나이도 84세가 되었고, 집을 나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난세로 인심도 박하고 나쁘니, 사세로 헤아려볼 때 생존해 있을 이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 큰 아들이 61세이고, 둘째 아들도 60세에 가까워서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를 사람이니, 그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는다면 다시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이 궁하고 희망이 끊어진 경우입니다. 영백(令伯)이 이런 상황을 좇아서 발상(發喪)하여 상복을 입고자 하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제(忌祭)의 날짜는 세속에서는 모두 집을 나간 날짜를 씁니다. 그러나 이 어른은 집을 나간 뒤에도 사람들이 만나 본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 예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영백의 회갑일은 바로 부모가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 자식으로서 의당 감절 비통할 때이니, 이날로 정한다면 아마도 옳을 듯합니다. 이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초종(初終)의 의식처럼 일찍이 입으셨던 상의를 가지고 초혼(招魂)을 하고, 주인(主人) 이하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음식은 먹지 않으며, 의식대로 영좌(靈座)를 설치합니다. 이튿날엔 머리를 묶고 백건(白巾)을 씁니다. 4일째에 조전(朝奠)을 올리고 성복(成服)을 합니다. 성복을 하기 전에는 매일 한 차례 전(奠)을 올리며 곡소리를 그치지 않으며, 성복을 할 때에 사유를 갖추어 고합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 날을 택하여 신주(神主)를 세우고, 졸곡(卒哭)을 한 다음에 부제(祔祭)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趙子貞 戊寅

지난번 위재(危齋)가 지은 귀보(貴譜)의 발문(跋文)에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빌려서 뒤미처 윤색을 하려고 한다고 논했는데, 적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자(程子)〈역전서(易傳序)〉의 ‘연(沿)’ 자는 문리로 따져보면 비록 분명히 ‘소(溯)’ 자의 잘못이라고 말해도 되었지만 주자(朱子)는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남헌(南軒)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하면서도 엄하게 말씀하였습니다.⁶¹ 다만 이것이 오늘의 일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금석문자는 그 소중함이 자별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대등한 자 이하의 생존한 자에게 글을 받아도 오히려 감히 사사로이 고쳐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위재장은 선배이고 또한 이미 작고를 했으니, 어찌 후인이 감히 경솔하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글이 의리를 이루지 못하고 내용도 말이 되지 않는다면 당일에 반드시 고치지 않을 이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에 그러함을 알지 못하고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글을 사용하지 않고 본가로 돌려보내고 그 연유를 말해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그대가 외운 위재가 쓴 발문의 내용을 들었더니,

61 정자…말씀하였습니다 : 〈역전서(易傳序)〉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서 근원을 찾는다.[沿流而求源]’라는 구절의 ‘沿’ 자에 대해 남헌(南軒) 장식(張栻)은 ‘연(沿)’ 자를 ‘소(汭)’ 자로 고치는 것이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는데, 주자는 ‘연(沿)’ 자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연(沿) 자는 뜻이 자못 관서(寬舒)하고 소(汭) 자는 기상이 박급(迫急)하다”고 하였다. 《朱子大全(주자대전)》 권30 〈여장흠부론정집개자(與張欽夫論程集改字)〉

또한 절로 의리를 이루었고 내용도 인가의 금석문이 되기에 해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가 완전히 좋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습속은 길러서는 안 되며 이런 풍속은 매우 두려워 할 만합니다. 습속이 자라나고 기풍이 행해져서 한층 진실보하게 되면 멋대로 선사의 글을 고친 음성의 오진영 같은 자가 또한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자는 남헌에게 보낸 편지는 진실로 후인들이 경술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열어주는 폐단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趙子貞 戊寅

어떤 사람이 시(詩)는 반드시 괴롭게 생각한 연후에 아름다운 시구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황모(黃某)의 옷을 깨물며 스스로 뼈를 녹이는 일을 인용하여 말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무릇 시란 뜻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바르면 시 또한 바르고, 뜻이 사특하면 시 또한 사특합니다. 옛날의 삼백편(三百篇) 《시경》은 훌륭합니다. 후세에는 비록 시법(詩法)을 진술하였지만 사특함과 바름을 폐하고 논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미 드러난 볼 만한 것을 가지고 말해보겠습니다. 두공부(杜工部 두보(杜甫))의 충의를 숭상하는 뜻이 있어야만 가을빛과 높음을 다투는 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청련(李靑蓮 이백(李白))의 활달한 뜻이 있어야만 문을 열면 산을 보게 되는 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이 없는데 시가 있는 자를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억지로 힘써 찾으

며 괴롭게 옷을 깨물고 뼈를 녹임에 이르러야 아름다운 시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시는 음악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칙(內則)》에는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읊조리는 것으로 한 때의 일로 삼았고,⁶² 공자는 시에서 흥기하고 음악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삼았습니다.⁶³ 음악은 화락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다면 시 또한 그 심기가 평화로워 곧바로 자기의 뜻을 표현한 뒤에야 혼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개의 말처럼 반드시 괴롭게 생각하여 옷이 물어뜯기고 뼈가 녹듯이 해야만 한다면 이는 성인이 시교(詩敎)를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생명을 해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이치가 없는 것으로 우스울 뿐만 아니라 이치를 해치는 것으로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趙子貞 己卯

현재(賢弟)가 어제 말하기를 “홍모(洪某)가 음성의 오진영이 나를 평하여 ‘문자(文字)는 능하다.’고 했다는 설을 가지고 오진영이 참으로 공심(公心)이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이 간옹(艮

62 내칙(內則)에는…삼았고 : 《예기(禮記)》〈내칙(內則)〉에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가를 읊으며 작무를 배운다.[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라고 하였다.

63 공자는…삼았습니다 : 《논어(論語)》〈태백(泰伯)〉에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세우고, 음악에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라고 하였다.

翁)을 평하여 “문장은 능하지만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말을 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삼아 홍모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를 “그렇다면 김모의 학문은 어떠하냐?”고 하면, 오진영은 반드시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하여, 또한 가평의 김평묵이 간옹을 배척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대개 홍모는 초학자이니 다만 문장이 능한 것이 최고의 대현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가 오진영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오진영이 문장이 능한 것으로 나를 인정한 데에는 증오하는 뜻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선함이 공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문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게 된다.”⁶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진영이 문인(文人)으로 나를 지목하고 자신은 학인(學人)으로 자처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與趙子貞 己卯

지금 보내준 《우암연보(尤菴年譜)》 한 편을 보니, 당시에 한쪽의 각립(角立)한 자를 제외하고 의론하는 사이와 향배를 정하는 즈음에 제대로 수립할 수 없었던 자들도 의당 모두 문행(文行)과

64 한 번…된다 : 유지(劉摯, 1030~1098)는 북송 때의 학자인데, 자손들에게 행실이 먼저요 문예는 나중이라고 가르쳐 늘 경계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기국(器局)과 식견을 급선무로 여겨야 할 것이니, 한번 문인으로 불리게 되면 볼 것이 없게 된다.[其教子孫 先行實 後文藝 每曰 士當以器識爲先 一號爲文人 無足觀矣]”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340 <유지열전(劉摯列傳)>

아망(雅望)이 있는 일세의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대체로 이와 같이 된 까닭은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여 화복(禍福)에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려(草廬)⁶⁵와 현석(玄石)⁶⁶과 같은 명현(明賢)도 오히려 얼마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호남과 음성 사이에서 이렇다저렇다 반복하는 모모(某某) 같은 자들이야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아, 우옹(尤翁)은 오직 의리만 알았지 화복은 알지 못하고 시종 하나의 절개를 유지하여 죽은 이후에야 그쳤으니, 참으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찌 감히 감회를 일으켜 우러르며 배우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賢弟)와 함께 힘쓰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매번 고인(古人)의 잘잘못을 논할 때에는 분명하지 않음이 없지만 금인(今人)의 잘잘못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어두운데. 이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고인에 대해서는 애증(愛憎)의 관계가 없지만 금인에 대해서는 사적인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특히 회니시비(懷尼是非)⁶⁷의 논변에 있어서 현석이 이

65 초려(草廬) : 초려는 이유태(李惟泰)의 호이다. 자는 태지(泰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예학(禮學)에 뛰어났으며, 호서(湖西)의 산림 오현(山林五賢)으로 꼽혔다.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66 현석(玄石) : 현석은 박세채(朴世采)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이다.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의 문인이며, 송시열과도 교유하였다. 소론의 영수로서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문집인 《남계집(南溪集)》을 비롯하여 《범학전편(範學全編)》, 《시경요의(詩經要義)》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67 회니시비(懷尼是非) : 서인(西人)이 송시열을 두둔하는 노론(老論)과 윤증(尹拯)을 두둔하는 소론(少論)으로 분열되어 싸우게 된 일을 가

랬다저랬다 한 것⁶⁸에 대해 매우 그릇되었다고 하였는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호남과 음성 간에 대해서는 모인(某人)⁶⁹이 이전의 의론을 변경한 것을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으니, 어찌 그리도 어두운 것입니까? 만약 눈앞의 ‘사(私)’한 글자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호남과 음성 사이의 쟁론을 옛날 책이나 고문으로 간주하여 살펴본다면, 또한 모인을 논하기를 반드시 회니시비에 있어 현석을 논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경진년(1940)

與趙子貞 庚辰

일전에 보여준 선사 어록(語錄) 3책에서 현제(賢弟)가 당일에 선사를 믿고 학문에 힘쓴 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잘 윤색하여 후세에 전한다면 또한 배우는 자들에게 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사의 말씀을 귀로 들은 지가 오래 되었으니 추후에 윤색을 하다보면 본래의 뜻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컨대 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하고, 문자를 고칠 즈음에는 반드시 당일의 어

리킨다. ‘회(懷)’와 ‘니(尼)’는 각각 송시열의 거주지인 회덕군(懷德郡)과 윤증의 거주지인 이성군(尼城郡)을 가리키며, 노소(老少) 분당에 관련된 두 사람의 글을 모아 엮은 책으로 《회니본말(懷尼本末)》 등이 있다.

68 현석이…것 : 1684년(숙종10) 회니(懷尼)의 분쟁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하여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한 것을 가리키는데, 끝내는 소론의 편에 서고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69 모인(某人) : 김평묵(金平默)을 가리킨다.

순과 문맥을 신중히 생각하여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릇 강학(講學)과 아언(雅言)에 관계된 것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인사의 득실과 실재를 논한 것이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어록 중에 음성의 오진영이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염치없이 받든 일을 논한 것 같은 것은, 본문에는 “장서가 전달되지 않아서 다행히 큰 화가 없었다.[書之未傳, 幸無大禍]”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인(某人)은 ‘미전(未傳)’을 ‘미발(未發)’로 고쳤으니, 이것은 글자 한 자의 차이로 천 리나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미전’이란 글이 비록 발송됐다 하더라도 아직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미발’이란 글이 비록 완성되었지만 미처 발송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더욱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손을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본문에 의거하여 ‘미전’으로 해야만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습니다.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최상의 큰 죄악입니다. 광광(霍光)의 처가 허후(許后)를 독살하였는데,⁷⁰ 광광이 그 죄를 숨기고 발설하지 않았으니, 광광의 죄도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한서(漢書)》를 지은 자는 이것 때문에 광광의 전(傳)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가 국가에 크게 공이 있다고 일컫게 되어서는 또한 이윤(伊尹)

70 광광(霍光)의…독살하였는데 : 광광(霍光)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소제(昭帝) 선제(宣帝) 때 사람으로 자는 자맹(子孟), 시호는 선성(宣成)이다. 무제(武帝)의 유조(遺詔)를 받아 소제(昭帝)를 보필하였고, 또 소제가 죽은 뒤에 창읍왕(昌邑王)을 영립(迎立)하였다가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영립하여 국권을 장악하였다. 그의 아내는 광현(霍顯)이다. 그녀는 자기 딸을 귀인(貴人)으로 만들기 위하여 허후(許后)가 출산할 때, 유의(乳醫)를 시켜 독살하였다. 《한서(漢書)》 권68 <광광김일제전(霍光金日磾傳)>

과 병칭⁷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일컬을만한 일이 있음에도 처의 죄에 연좌되어 전을 세우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부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본디 애매하여 외부 사람들이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당 처로 인하여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처의 죄와 아울러서 품문으로 전하는 말을 깊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성구(金聖九)가 평상시 선사를 지극히 존경하고 사모하였는데, 등글게 상투를 틀고 치포관을 쓰며 항상 넓은 소매의 옷을 입어 한결같이 선사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또한 성리(性理)의 근원에 대해서 가정(家庭)의 호론(湖論)을 지키지 않고 선사의 낙론(洛論)을 따랐으니, 비록 친문인(親門人)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미 가마(加麻)⁷²의 복(服)을 행하고 하관(下棺)하는 자리에도 참여했으니 문인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또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근래에 문인의 예로써 유림동(流林洞)에 있는 간옹의 사당을 배알하였는데, 특별히 음성 사람이 간옹을 무함한 것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침을 당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현제가 친하

71 이윤(伊尹)과 병칭 : ‘이곽(伊霍)’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윤(伊尹)은 은(殷)나라의 재상으로서 태갑(太甲)을 동궁(桐宮)에 내쳐 악행을 바로잡은 일화가 있고, 곽광은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웠는데, 이 둘은 무도한 임금을 내친 대표적인 인물로 칭송되었다.

72 이미 가마(加麻)의 복(服)을 행하고 : 문인(門人)이 스승의 상(喪)에 심상(心喪)을 입는 표시로 겉옷에 삼베 조각을 붙이는 것이다. 《국역 농암집》 제36권 〈부록(附錄) 연보 하(年譜下)〉에 “〈김창협(金昌協)의〉부음이 전해지자 조정과 초야에서 모두들 서로 조상(弔喪)하였고, 원근의 선비들이 달려와 슬픔을 다해 곡하였으며, 문인들 중에 가마(加麻)하는 이가 6, 7십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였다.

게 지내는 아무개 같은 자도 한쪽의 말을 익숙히 듣고서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동(玄洞)의 선사 묘소에 전배(展拜)할 때에 샘솟듯 눈물을 흘리고 실성할 정도로 곡을 하였으니, 참으로 이와 같은 경우처럼 사람이 따르는 바를 신중히 하고 그 보는 것을 공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또 말하기를 “친문인 가운데 3년 후에 샘솟듯 눈물을 흘리고 실성을 하는 자가 또한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김성구는 인의의 성품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되므로 비록 친문인은 아니더라도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선사의 고도대절(高道大節)로도 천고에 없던 무함을 받았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김성구가 현인을 사랑하는 어짊과 무함을 통분한 의리에서 발로되어 샘솟듯 눈물을 흘리고 실성을 한 까닭입니다. 그대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자정에게 답함 신사년(1941)

答趙子貞 辛巳

그대가 어제 전하길, 어떤 사람이 내가 연전에 막내며느리의 질병을 위해서 멀리까지 의원과 약을 구한 것을 조롱하며 “어찌 자식으로 하여금 그 처의 병을 구하게 하지 않고, 60세가 다 된 나이에 유의(儒衣)와 유관(儒冠)을 하고서 풍설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분주히 뛰어다니는가?”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일찍이 독서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논어》에도 “공자가 삼간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었다.”⁷³

73 공자가...질병이었다 : 《논어(論語)》〈술이(述而)〉에 “공자께서 삼간 것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이었다.[子之所慎, 齊戰疾]”라고 하였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병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삼갔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 어린 며느리가 괴이한 여러 증세로 죽지 않으면 폐인이 되는 큰 병에 걸렸는데, 시아버가 된 자가 아무 일도 모르는 약관의 어린 자식에게 맡겨서 병을 구하게 하고, 늙었다는 핑계를 대고 스스로 편안하게 집에 있다고 한다면, 성인도 삼가셨다는 가르침을 어겨서 유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찌 일찍이 조금의 윤리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의와 유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윤리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윤리를 잊지 아니하고 며느리의 병을 구한 것에 대해 유의와 유관을 한 자의 허물을 삼고 있으니, 어찌 괴이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선사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식인 된 자가 매번 부친이 병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번에 반드시 대고(大故)를 당할 것이다.’고 한다면, 의원과 약을 구함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절로 지극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천리(天理)와 인정(仁情)을 친절하고 정밀하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만세의 법이 될 만한 것입니다. 자식과 며느리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그 분수가 비록 낮고 가볍지만 그 윤리는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아! 하늘로부터 타고는 땃땃한 윤리는 천하가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 나의 처지를 당하게 한다면 나도 그 역시 전날에 사람을 조소했던 것을 잊고서 내가 했던 것처럼 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윤리가 없는 것이니,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나는 조소를 해명하여 스스로 선한 자리에 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저 사람의 말이 세상에 행해져서 모두가 윤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신사년(1941)

答趙子貞 辛巳

《의례》에는 “처가 죽은 경우 3년이 지난 뒤에 장가를 드는 것은 자식의 정을 소통시키기 위해서이다.”⁷⁴고 하였고, 국전(國典)에는 “나이가 40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세에 예법이 해이해져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장가드는 자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지킨다고 일컬어지는 선비의 경우도 겨우 1년이 지나면 다시 장가를 들고 있으며, 나이가 젊고 자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와 국전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상복의 기일이 다하기를 기다린 것이라면 맞는 것입니다만, 만약 이것까지 아울러 법도를 넘는다면 또한 이른바 “더불어 말하기 어렵다.”⁷⁵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매산 선생(梅山先生 홍직필(洪直弼))은 이를 논하여 말하기를 “어찌 상복을 벗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하여서 한 몸에 애락(哀樂)을 모으고 한 방안에 길흉(吉凶)을 뒤섞는단 말인가?”라 하였는데, 깊고 절실하여 경계할 만한 말씀입니다. 상복을 벗기 전에 첩을 얻는 것은 비록 재혼과는 예를 갖추는 여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락을 모으고 길흉을 뒤섞는 점에서는 똑같으니, 선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74 처가…위해서이다 : 《의례》〈상복(喪服)〉에 “부친은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야 아내를 들이니 자식의 뜻을 소통시키기 위해서이다.[父必三年然後娶, 達子之志也]”라고 하였다.

75 더불어…어렵다 : 《논어(論語)》〈술이(述而)〉에 “호향(互鄉)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互鄉難與言]”고 하였는데, 주자 집주(集註)에 “그 사람의 습성이 착하지 못하여 예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천리와 인정에 편안치 못하고, 또한 요새 사람이 핑계거리를 삼고 선비는 더욱 기탄이 없게 되는 폐단을 열어주는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자정에게 답함 갑신년(1944)

與趙子貞 甲申

영자부(令子婦)의 묘문(墓文) 중에 ‘하종(下從)’ 두 글자는 마땅히 고쳐야 하니, 근간에 과연 고쳐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하종’이라는 문자가 어느 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남편의 죽음에 따라 죽는다는 명칭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부인에게는 열행(烈行)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한갓 하종의 열행만 알고 수절(守節)의 열행은 알지 못합니다. 원래 하종의 열행이 수절하는 것만 못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후사를 세우는 것이 최선의 열행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자(朱子)가 《소학(小學)》을 편찬한 때에 제일 앞에 진 효부(陳孝婦)⁷⁶를 기재하면서 하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은(晩隱) 황전(黃壇)의 말이 훌륭한데, “세상에 열부(烈婦)로 이름이 난 자는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남편이 비명에 죽었거나 혹은 적에게 겁탈을 당해 의리가 아니어서 이 때문에 죽

76 진 효부(陳孝婦) :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사람이다. 변방(邊方) 수비군(守備軍)으로 떠난 남편이 죽자, 친정 부모는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을 가엾게 여겨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진 효부는 남편이 떠날 때 노모(老母)를 잘 모시겠다고 승락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여 듣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소학(小學)》〈선행(善行)〉

는다면 우뚝한 일이다. 만약 부부의 정을 참지 못하고 한갓 하종만 하고 다시 아비 잃은 아이를 돌보고 후사를 세워서 남편 제사를 전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만 그 남편이 아내만 좋아했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이니, 또한 어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뜻도 마땅히 또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저 금석(金石)의 문자는 마땅히 사실을 써야 합니다. 영자부가 어찌 아프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죽은 지 20일 만에 죽었겠습니까? 비록 하종의 열행이 지극한 것이더라도 진실로 감히 사실과 어긋나게 그 내용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지극하지 않은 경우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으며, 하물며 영자부가 병석에서 “제가 비록 박명이나 병이 나아서 뱃속의 아이를 순산하여 지아비의 후사를 잇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묘에 비(碑)를 세우는 것은 선행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점은 가리고 그 단점을 거짓으로 썼으니, 혼령이 알게 된다면 어찌 지하에서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글을 지은 사람이 이처럼 호도(糊塗)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대개 남편이 죽고 오래지 않아서 죽은 것을 하종이라 하는 것도 또한 속견(俗見)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극하지 않은 것을 지극하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망자를 뒤미쳐 찬미하는 것은, 비록 사실을 아니더라도 후중한 쪽을 따르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지만, 오히려 망자를 도리어 해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 듯합니다. 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명(高明)한 분이 묘문을 짓는 사람을 깊이 믿고서 죽은 며느리에게 해가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서둘러 개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답답합니다.

송경율(宋景奭)에게 답함 을묘년(1915)

答宋景栗魯容 乙卯

상중(喪中)에 경복(輕服)을 벗을 때 착용하는 복장은, 저의 생각에는 포건(布巾)과 직령(直領) 이외에는 아마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형도 이미 그렇게 여겼으면서 또한 어찌하여 상중에 선조를 제사지내는 복장으로만 국한하여 의심하는 것입니까? 선조를 제사 지낼 때에는 최질(衰經)을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건과 직령을 착용하는 것이니, 경복을 벗을 때 잠시 최질을 벗을 수 있다면 포건과 직령 차림이 어찌 통용하는데 편치 않은 점이 있겠습니까? 확대하여 말하면, 출행(出行)을 할 때에 최질을 착용하면 속인을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건과 직령을 착용하는데, 이것 또한 선조를 제사지내는 복장에 국한하고 또한 그 때가 아니라 하여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다만 선조를 제사지낼 때에는 포건 위에 평량자(平涼子)를 가하고, 출행할 때에는 포건 위에 방랍(方笠)을 씁니다.】 길복(吉服)에는 옥색(玉色)을 쓴다는 등의 설은 비록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따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중용》 16장의 ‘성(誠)’ 자는 ‘이(理)’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듯합니다.⁷⁷ 그런데 선사가 《혹문(或問)》의 주자가 후씨(侯氏)의 설을 변론한 것⁷⁸을 인용하여 이(理)를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77 중용…듯합니다 : 《중용(中庸)》 16장의 “성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이른다. 음양의 합하고 흩어짐이 진실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그 발현되어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다.[誠者, 真實無妄之謂. 陰陽合散無非實者, 故其發見之不可揜如此]”라고 한 구절의 ‘성’ 자를 가리킨다.

78 주자가…것 : 《중용혹문(中庸或問)》을 참조하면, 후씨는 “귀신은 형이하자이니 성이 아니다. 귀신의 덕은 성이다.[鬼神形以下者, 非誠也; 鬼神之德則誠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이에 대해 “귀신의 덕이 성

고 의심하셨으니, 감히 질언(質言)하지 못하겠습니다.

조수경한규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趙受卿翰奎 丁丑

근래에 일이 있어서 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세 차례입니다. 《예기(禮記)》에서는 “예(禮)는 왕래하는 것을 숭상하니, 오기만 하고 가지 않으면 비례이고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 또한 비례이다”⁷⁹고 했습니다. 선사가 만년에 사방에서 편지로 질문하니 걸핏하면 글상자가 넘쳐서 뚜껑을 덮기도 어려웠습니다. 답장편지를 보낼 때면 크게 한숨을 쉬었지만 오히려 힘써서 대략 빠르게 답장하니 젊은 사람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형에게 세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도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건대 영남에서는 일반적인 학규(學規)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선성(先聖)이 ‘예는 왕래를 숭상하고’ 선사도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장했었던 도를 다시 바라지는 못하겠네요.

올 여름 초에 어찌다 온 답장은 때가 지난 이후에 희망이 끊어진 나머지에서 나온 것이니, 그 놀라고 감격스러움은 오히려 따라 답장하는 일반적인 예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⁸⁰ 치

대한 까닭은 그 성 때문이고, 성이 스스로 하나의 물이 되고 별도로 귀신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후씨는 귀신과 그 덕을 나누어 두 개의 물로 만들고 형이상과 형이하로 말하고 있다.[鬼神誌德所以盛者，蓋以其誠耳，非以誠自爲一物而別爲鬼神之德也。今侯氏乃析鬼神與其德爲二物，而以形以上下言之]”라고 하였다.

79 예(禮)…비례이다 : 《예기(禮記)》〈곡례상(曲禮上)〉편의 기록이다.

80 간연(間緣) : 불교철학에서 사람과 사물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緣)이라 하여, 인연(因緣), 등무간연(等無間緣), 소연연(所緣緣), 증

변(薙變)⁸¹으로 인하여 몸을 숨기고 교제를 멈추어서 답장이 지체됨을 알았으니, 지난번 줄곧 망령되게 잘못 헤아려서 불공하게 생각한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변란에 대처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멀리 옛 사람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단지 요즘 세상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본디 수립한 것이 있어서 편안히 앉아서 초연히 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문 같은 경우에 최경존(崔敬存)은 참으로 최상이었으니, 난리에 임하여 굶하지 않고 목숨을 버려 의를 취했고,⁸² 담양의 이복일(李復一)【이름은 광우(廣雨)이다. 내가 이절사전(李節士傳)을 썼다】과 진천(鎭川)의 정덕여(鄭德汝)【이름은 승원(升源)이다. 음성의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썼다. 내가 그 후론(後論) 중의 ‘말에 의를 해치는 것이 있다’고 논하여 음성 오진영에게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 지목 당하였다】는 또한 씩씩했으니, 목을 찢러 거의 죽음으로서, 저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고향의 안

상연(增上緣)으로 분류하였다. 등무간연은 직전의 원인으로, 불교의 찰나생멸(刹那生滅) 법칙에 의하면, 앞선 순간의 심적 활동은 그 다음 순간의 심적 활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편지에 답장하기 이전의 상황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81 치변(薙變) : 1895년 을미년에 시행된 단발령을 말한다.
- 82 난리에 임하여 목숨을 버려 의를 취했고 : 1917년 왜정(倭政)이 전주에 잠업소(蠶業所)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대대로 전수해 온 대지를 매도하라고 요청했으나, 일제에 토지를 내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자, 일제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시켜 가옥을 모두 소각하였다. 최병심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사적인 단식 투쟁으로 이겨냈다. 만동묘(萬東廟) 철폐로 인한 정향(丁享) 문제로 항거하다가 왜경들에 의해 괴산경찰서에 10여 일 간 구속되기도 하였다.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念齋野錄)》에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인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힌 서문을 쓴 일로 조희제와 함께 임실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윤성(安允成)【이름은 재욱(在旭)이다. 내가 안의사시(安義士詩)를 썼다】
 은 더욱 기특합니다. 그간 숨어서 피하는 한 가지 일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지나치게 염려하여 거의 여
 러 해 동안 편지도 끊고 왕래도 앓고야 마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
 니다. 선사가 절애고도에 숨는 것보다 깊숙한 것은 없으나, 어찌
 일찍이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이설(異說)이 시끄럽게 날뛰는
 것을 염려하고, 유학이 쇠락하는 것을 한탄함에 이르러 또한 홀
 로 선을 지키는 것⁸³ 외에 세도를 근심한 것이 심원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식견이 밝
 고 행실이 고망⁸⁴한 형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여 묘한 생각으로
 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림에 도리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지 말고, 또한 즐겁지 않을까 두려워 화를 내지 않으
 며, 잘 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또
 두세 번 한두 개 문구의 타당치 못한 점을 개정하라는 것에 대하
 여 말단의 일이라 여기는데 실망했다고 하시니 제가 들은 것과
 는 다릅니다. 치평(治平)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방
 법은 스스로 부족한 것을 구하는데 있습니다. 작은 한 생각과 작
 은 한 이치와 용렬한 한마디 말에 대해서도 오히려 스스로 부족
 한 점을 구하는데, 하물며 문장이란 마음을 드러내고 이치를 나
 타내며 말의 정밀한 것이어서 더욱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임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83 독선(獨善) :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하였다.

84 고망(高望) : 위고망중(位高望重)의 줄임말, 지위가 높고 명망이 크다
 는 뜻이다.

천하에 심리(心理), 언문(言文), 자수(自修)의 공에 대해 실수가 있으면서도 세도(世道)를 붙잡은 자는 없습니다. 형께서 깊이 헤아려 비록 그 사람이 아니라 하고, 타당하지 않은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단의 일이라 여기며 그것을 실망했다고 말한다면, 또한 어찌 이치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형은 이 점에 대하여 만약 타당함과 타당하지 못함의 시비, 고침과 고치지 않음의 맞음과 그릇됨을 논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강론의 한 실마리가 되리니, 저는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덮어놓고 따를지 어길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본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이미 대략적으로 판단하여 말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어찌 한가롭게 평상의 문구를 논함에 그치리오?” 라고 하였습니다. 논문은 제가 지난번 보낸 편지이고 제 평생의 뜻은 아닙니다. 오호라! ‘심상(尋常)’이라는 두 글자를 추론하여 말한다면 그 폐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비가 의리를 엄하게 밝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교훈을 긴요하게 여겨도, ‘심상’이란 문구로 간주하여 수용한 것이 없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천지가 뒤집어지고, 부모와 스승을 적으로 여기는 문자에 이르러서도 또한 심상한 문구로 간주하여 변란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쁜 습관으로 이른바 유술을 펼쳐 일으키고 동문을 보합⁸⁵하려 한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종기를 치료함에 있어서 피고름과 썩은 살을 씻어버린 후에야 살이 생겨나서 피부가 온전히 붙을 수 있

85 보합(保合) :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사(彖辭)의 “하늘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큰 화기를 보전케 해 준다.[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라는 말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동문의 성명을 바르게 하여 크게 화합하게 됨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습니다. 만약 심상한 일로 보아서 다 제거하지 않고 간혹 나의 피와 살이라 여겨 감싸고 안타까워한다면, 살이 돈고 피부가 완전히 붙는 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수경에게 답함 무자년(1948)

答趙受卿 戊子

물으신 동사(東史)의 의론은 큰 제목(題目)이다. 평소에 사학(史學)에 어둡고 동사(東事)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니 참으로 막막하여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사우(士友)들을 만날 때마다 번번이 편지에서 말씀하신 ‘기자(箕子)를 식출해야 한다. [黜箕]’는 의리를 가지고 강론하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의 말을 들었는데, “기자가 우리나라로 온 곳은 지금의 평양(平壤)이 아니고 바로 요동(遼東)에 있었는데, 이미 박연암(朴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요동은 조선의 옛 땅이고, 또 종통왕(宗統王 기부(箕否))가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무동왕(武東王 기준(箕準))이 익산(益山)에 와서 거주하였다. 이것은 실제의 일이니, 그렇다면 어찌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다 하여 삭제하여 없앨 수가 있겠는가. 또 ‘출기(黜箕)’ 두 글자는 어감이 좋지 않고, ‘대금(大金)과 대청(大清)이 송(宋)을 도살하고 명(明)을 멸망시켰다.’는 말도 또한 사납고 성급하니, 모두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떠합니까?

조수경에게 답함 무자년(1948)

答趙受卿 戊子

스스로 묘갈(墓碣)을 만드는 것에 대해 형은 단지 이것만 알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하십니다. 완용(完用)의 적퇴석(賊退石)을 사용하여 선사의 묘갈을 만들었다가 공론으로 인하여 세우지 못한 일을 어찌 듣지 못했습니까. 이 때문에 바깥사람들이 간재(艮齋) 문인(門人)을 모조리 성토하는 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연보(年譜)를 장차 개편하려 한다면 영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실로 좋을 것인데, 하필이면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전사순일전에게 답함 기축년(1949)

答田士順鎰健 乙丑

부친이 양을 훔치지 않았는데 자식 하나가 그것을 증명한다면⁸⁶ 다른 여러 자식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친의 무함을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선사의 무함도 유추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사순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田士順 丙子

선장(先丈)이 살아계실 때, 선사의 연보(年譜)를 초안하여 반절쯤

86 부친이...증명한다면 : 《논어(論語)》〈자로(子路)〉에 “아버가 양을 훔치자 그 자식이 증언했다.[其父攘羊, 其子證之]”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원용한 것이다.

완성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선인(先人)이 봉루사(鳳樓寺)⁸⁷에 거주한 이후는 모쪼록 고명(高明)이 기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이후 현동(玄洞)에서 초본(草本)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조금 수정을 한 후에 보내줄 테니 이어서 완성하는 책임은 수고를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경히 대답하기를 “비록 책임자가 아니지만 선사와 관계된 일이니 어찌 감히 수고롭다는 이유로 사양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라 이 몇 개월 사이에 선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며 불민하여 이전에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만났는데 저간의 사정을 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선장의 정중한 수필(手筆)이 상자에 있고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 귀에 생생하니, 이 일의 책임을 끝내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만사를 제치고 일을 시작하여 돌아가신 분의 부탁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속히 연보의 초고를 보내 주어 때를 놓치는 한탄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최성무장열에게 보낸 병오년(1906)

與崔性武長烈 丙午

경초(勁草)⁸⁸와 한송(寒松)⁸⁹은 예로부터 만나기 드뭅니다. 오늘

87 봉루사(鳳樓寺) : 봉서사(鳳棲寺)의 오기인 듯하다. 봉서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을 간중리 종남산(終南山)과 서방산(西方山) 사이에 있는 절이다.

88 경초(勁草) : 당 태종(唐太宗)이 소우(蕭瑀)를 칭찬하면서 하사한 시에 “질풍 속에서 굳게 버티는 초목을 알고, 난리 속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안다. 疾風知勁草 板蕩識誠臣”라고 하였다. 《구당서(舊唐書)》권63〈소우열전(蕭瑀列傳)〉

89 한송(寒松) : 사혼은 그의 조카 사영운(謝靈運)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

날 글을 읽는 선비들은 모욕하고 공갈하는 풍조에 쓰러지고, 포승과 총칼에 넘어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간혹 이미 유문(儒門)에 종사하고서 숨기고 꺼리면서 다시 움직이지 않거나 떨고 두려워하면서 후회하는 자가 있으며, 유문에 종사하고 싶지만 주저하면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명(高明)은 이런 상황에서 비록 머리 위에 철륵(鐵輪)⁹⁰이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장차 떨어지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천 선생(伊川先生)이 조정에서 사학(邪學)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마신(馬伸)이 정문(程門)에 의탁하여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천이 말하기를 “시론이 바야흐로 달려져 그대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다.”라고 하니, 마신이 대답하기를 “제가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⁹¹ 그 뜻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돈독합니까.

제가 고명(高明)이 마신의 뜻으로 뜻을 삼고 전적으로 간옹(艮翁)의 문하에 의탁하여 배우길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함이니, 정직하지

는데, 당시 사람들이 “사혼의 풍운은 하늘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고, 엄숙함은 차가운 바람을 맞서는 소나무를 같다.[混風韻爲高日望葵, 蕭如寒風振松]”라고 하였다. 《예문유취(藝文類聚)》권88

90 철륵(鐵輪) : 쇠로 만든 수레바퀴로, 불교에서 지옥의 악귀(惡鬼)를 제압하는 무서운 형구(形具)이다. 또는 철륵발(鐵輪拔)의 준말로 수미(首尾)에 칼날이 달린 병기로 말 위에서 적을 쳐 죽이는 데 쓰인다.

9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하였습니다 : 정자(程子)의 학파가 위학당(僞學黨)으로 몰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마신은 자신과 연루될까 염려한 정이천(程伊川)과 정명도(程明道)의 고사(固辭)에도 불구하고 십여 차례 반복하여 가르침을 받기를 청하면서 “저가 도를 듣게 된다면 죽은들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경우이겠습니까.” 하였다.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권9

않으면서 생존하는 것은 요행으로 죽음을 면하는 것일 뿐이다.”⁹² 라고 하였습니다. 윤리를 말미암고 공맹의 가르침을 따라는 것이 정직함이고, 오류를 폐하고 공맹을 배반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비록 산다고 해도 오히려 죽는 것이며, 정직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산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며 정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는 것이 아니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한 번 다스려지는 운수가 돌아와서 도가 밝혀지고 교화가 행해져서 한 세상의 태평이 유자(儒者)의 손에서 나와서 저 패도(悖道)와 이유(異敎)가 모두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고명께서는 천만 속히 도모하기 바랍니다.

최성무에게 답함 무신년(1908)

答崔性武 戊申

고명(高明)이 유학(儒學)에 뜻을 두었으나 질병에 얽매어 각고하게 실행해 나가지 못하니 애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병중에도 또한 공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나금계(羅錦溪)의 문인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금계가 문기를 “병중에 공부가 어떠하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말하기를 “다만 아프지 않을 때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병으로 인하여 조급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대개 조급하고 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단코 병이 나아질 가망이 없고 갈수록 더욱더 심

92 사람이…뿐이다 : 《논어(論語)》〈옹야(雍也)〉에 보인다.

해집니다. 소설(小說)의 각병법(却病法)⁹³에 “늘 나보다 못한 자를 생각하며 스스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라고 했고, “조물주가 생활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는데, 병을 만나 조금 한가하게 되었으니 도리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방법은 매우 묘합니다. 만약 마음에 일단의 번뇌가 생겨나서 쫓아 보내지 못한다면 다만 바람 쐬고 시를 읊조리며 몸을 살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자(張子)는 “빈궁과 걱정 속에 처하게 함은 너를 옥(玉)으로 이루어 주려 함이다.”⁹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병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살필 수 없었을 것이니, 병이 어찌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기르는 것에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 병을 달고 살면서도 크게 성취하는데 해가 되지 않았던 고인(古人)이 있었으니, 명나라의 석계도(席啓圖)와 우리나라의 성우계(成牛溪 성혼(成渾))가 이들입니다.

고명은 병 때문에 조금도 기운이 꺾이지 말고 점점 동심인성(動心忍性)⁹⁵하는데 힘을 기울여 분수에 따라 공부를 해서 순조롭게 배우길 좋아하여 병을 잊는다면 덕이 진보하여 얼굴이 맑

93 각병법(却病法) : 《지봉유설(芝峯類說)》〈질병조〉를 참조하면, 병을 물리치는 8가지 방법[却病八法]을 말하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방법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이다.

94 빈궁과…함이다 :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보인다.

95 동심인성(動心忍性) : 《맹자(孟子)》〈고자 하(告子下)〉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하여, 그가 행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하니, 이는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의 성질을 굳게 삼고 버티도록 하여, 그가 잘하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라고 하였다.

아지고 몸이 운택해지는 날에, 저 두 아이[二豎子]⁹⁶가 어찌 그 재주를 멋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편지에 타고난 명이 허약함을 탄식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울한 뜻이 있는 것 같기에 대략 이리 언급한 것이니 또한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최성무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崔性武 丁巳

제가 젊었을 때에 학자들 사이에 나아가 놀면서 성 안의 준수한 사람들과 사귀어 많았습니다. 얼마 후에 시대가 변하여, 빈부가 기세를 달리하니 발걸음이 멀어지고, 친구(新舊)가 길을 달리하니 희망⁹⁷은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어져 세상의 버림을 받은 채 혼자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형이 옛 사귀어 변하지 않고 샘물이 끊임없이 뒤를 잇듯이 계속해서 달마다 시간마다 이런 은혜를 두터이 베풀어주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이런 은혜는 세인들의 비당(比黨)⁹⁸이 하는 짓과는 같지 않으니 참으로 추구하는 도(道)가 같고, 지닌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단지 이전에 왕래한 것에 대하여, 애써 보답하려고 변폭⁹⁹하는 허례를

96 두 아이[二豎子] : 두 아이는 곧 병마(病魔)의 뜻이다. 춘추 시대 진 경공(晉景公)이 병들었을 때, 두 아이가 고향(膏肓 : 심장과 격막의 사이)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후 의원을 데려왔으나 의원은 병이 고향에 들어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좌전(左傳)》 成公 10年

97 금기(襟期) : 가슴으로 품는 기대, 희망, 뜻을 가리킨다.

98 비당(比黨) : 이익을 위하여 어울려 지내는 무리.

99 변폭(邊幅) : 변폭(邊幅) 또는 표폭(表幅)이라고도 쓴다. 이는 겉을 휘 감쳐서 꾸미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꾸미겠습니까? 간을 뽑고 적심(赤心)¹⁰⁰을 이끌어내어 서로 이택¹⁰¹의 바탕으로 삼아서, 지니고 추구하는 것을 더욱 굳건하고 더욱 빠르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에 청사년간(靑蛇年間)¹⁰²에 태잠(台岑)에서 풍욕하며, 창강에서 눈 밟고 달구경하자던 우리 두 사람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나는 초상(初喪)의 재앙에 정신을 빼앗기고 근심과 가난이 피부를 찢어서 여러 해 동안 심란하게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형 또한 병에 휩박을 받아 이전의 공부와 인사를 익힐 겨를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마음먹었던 일에 부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며 크게 개탄하였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산 이후로, 온갖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일찍이 겪었던 염병과,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혼연히 전생의 일처럼 잊혀지고, 미래의 경영과 도모로 바라거나 즐거운 것들 또한 모두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을 단속하며 이치를 연구하여 선인의 유체(遺體)¹⁰³를 완성하고, 옛사람의 실마리를 궁구하여 찾으니, 비유하자면 겨울을 겪은 나무가 눈서리에 온갖 타격을 받았지만 오직 생의(生意)가 있음에 잘 배양하여 해치지만 앓는다면 거의 꽃과 잎이 피어나고 가지와 줄기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

100 간을 뽑고 피를 보내어 : 상대방에 충심(忠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101 이택(麗澤) : 봉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줌을 뜻한다. 《주역(周易)》태괘(兌卦)에 “두 못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태(兌)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봉우 간에 강습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102 청사년간(靑蛇年間) : 1905년 을사년(乙巳年)을 말한다.

103 유체(遺體) : 부모가 남겨준 몸이라는 뜻으로, 자기 몸을 일컫는 말이다.

의 뛰어남과 민첩함은 말세에 드물게 보는 것이니, 하늘이 내려준 상서로움을 얻어서 묵은 병을 점점 제거하고 날마다 기를 따르다면 다소 막힌 뜻이 장차 반드시 강하고 굳세게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주와 뜻으로 처음에 발원(發願)을 생각하고 조금 쉬었던 발걸음을 일으켜서 상스러운 세속의 정을 끊어버리고 고명한 곳에 마음을 두어 명교(名敎)¹⁰⁴로써 즐거움을 삼고, 성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감히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¹⁰⁵, 삼가 한 삼태기가 부족함¹⁰⁶도 없게 한다면, 우뚝한 성취는 옛사람과 우열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이 줄렬하고 누추한 사람도 이 아래에서 바람을 쐬고 마지막 불빛을 더할 것이니¹⁰⁷ 어찌 일찍

104 명교(名敎) : 유가(儒家)가 정한 명분(名分)과 교훈을 준칙(準則)으로 하는 도덕관념.

105 중도에 그만두다 : 《중용(中庸)》 제11장의 “군자들은 도(道)를 따라 행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지만, 나는 그만두지 못한다.[君子遵道而行，半途而廢，吾弗能已矣]”라는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자포자기한다’는 말은 《논어(論語)》〈양화(陽貨)〉의 집주(集註)에 “이른바 하등(下等)의 어리석은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자포(自暴)하는 자와 자기(自棄)하는 자이다…자포하는 자는 학문을 거부하여 믿지 않고, 자기하는 자는 학문을 끊고 배우지 않으니 성인이 함께 살더라도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선(善)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한 정자(程子)의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106 한 삼태기(一簣) : 《논어(論語)》〈자한(子罕)〉의 “비유하자면, 산을 만들 적에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붓지 않아 산을 못 이루고서 중지하는 것도 내 자신이 중지하는 것과 같으며,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부어 산을 만들기 시작해서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내가 해 나가는 것과 같다.[譬如爲山 未成一簣，止，吾止也，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07 말광(末光) : 해와 달이 지면서 내뿜는 희미한 빛. 미력(微力)을 비유한 말로, 삼국 시대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구자시표(求自試表)〉에, “반딧불 촛불은 하찮은 빛이지만, 해와 달에 광휘를 더하리이다.[螢燭末光 增輝日月]”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도모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시 헛되이 천천히 가면서 지체한다면 눈 깜빡할 사이조차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겨우 몇 년만 지나면 강사(强仕)¹⁰⁸의 나이가 되고, 형 또한 이모(二毛)¹⁰⁹의 나이가 될 것입니다. 성인의 이른바 ‘40세가 되어도 알려지는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¹¹⁰는 것으로 논해보면 마땅히 이렇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다만 위 무공(衛武公)의 억제시(抑戒詩)¹¹¹와 거백옥(蘧伯玉)의 지비(知非)¹¹²는 군

108 강사(强仕)의 나이 : 40세를 말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 上)〉에 “나이 사십을 강이라고 하니, 이때에 벼슬길에 나선다.(四十曰强而仕)”라는 말이 나온다.

109 이모(二毛) : 이모지년(二毛之年)의 줄임말. 흰 머리카락 두 올이 나는 나이 곧 백발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로 32세를 말함. 서진(西晉)의 학자 반악(潘岳)이 산기성(散騎省)에서 숙직하며 ‘추흥부(秋興賦)’를 지어 읊기를 “서른두 살에 처음 흰 머리카락 두 올을 보았네.”라 읊은 데서 유래하는 말임. 최장렬은 1887년생으로 1917년에 31세였다.

110 40세가…없다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후생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니, 앞으로 후생들이 지금의 나보다 못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세나 50세가 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다.

111 억제(抑戒) 시 : 《시경(詩經)》에 실려 있는 위 무공(衛武公)의〈억제(抑戒)〉 시이다. 위 무공은 늙어서도 〈억제〉 시 12장을 지어 항상 곁에서 외우게 해서 마음을 깨우치고 신하들로 하여금 늙었다고 멀리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112 거백옥(蘧伯玉) 지비(伯玉知非) :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현대부(賢大夫)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고사를 말한다. 《장자(莊子)》〈칙양(則陽)〉에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라는 말이 나온다. 《회남자(淮南子)》〈원도훈(原道訓)〉에는 “나이 오십에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였다.

자에게 칭도되고 현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우리들이 여기에서 종사할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한번 하면 나는 백 번 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하면 나는 천 번 한다.’는 것은 비록 애써 힘쓰는 자를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나이가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더 불어 사림에 서로 힘써 수양하고 서로를 경계하여 이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익부해룡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吳翼夫海龍 戊寅

옛날 30년 전에 같은 방을 쓰면서 학업을 같이 할 때 서로 기약한 것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윽고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천지가 뒤엎어지고, 세상 일이 다단하여 학업에 둔 뜻도 해이해졌습니다. 비록 이후에도 계속 만나서 일찍이 이 일에 마음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경전(經傳)을 강론하여 정미한 뜻을 찾고 명리(名理)를 상의하여 극치를 궁구해서 이른바 서로 기약한 것을 구하는 일은 아마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형은 비록 학문을 표방한 적은 없었지만 덕기(德氣)를 하늘로부터 타고났고 효우(孝友)를 가정에서 행하여, 밖으로는 못사람과 화합하면서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있었고 안으로는 의리를 밝혀 시비를 아꼈으니, 이것은 그 이름은 없지만 그 실지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한갓 이름만 달고 실제로 터득한 것이 없어서 겉핥기하면 허물이 있고 재앙이 또한 뒤따르는 자로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선사가 돌아가신 뒤에는 변괴가 거듭 출현하고 의리가 캄캄하

게 막혔습니다. 선사를 오래 따라서 독서를 더욱 많이 한 자는 그 견해가 더욱 어긋나며 그 마음이 더욱 험하여, 선사를 무함함에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 선사를 따른 것은 의리를 듣기 위함이고, 책을 읽는 것은 심술을 밝히기 위함인데,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형의 친동생이 아니지만 편지를 조금 읽어보니, 곧 “만약 ‘간옹(艮翁)이 인의(認意)와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절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인의와 인교에 관한 설이 있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간옹을 의심하였다. 먼저는 유서(遺書)가 있다 하여 절의(節義)라는 명성을 취하였고, 뒤에는 홀로 앉아계실 때 명한 것이 있다 하여 원고의 간행을 인가하는 사사로움을 이루었는데, 매우 불행한 일이다. 간옹의 문인들은 마땅히 인의(認意)와 인교(認敎)에 관한 설에 대해 분명히 분별하고 통렬히 배척하여 터럭만큼이라도 선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만 선사가 온전히 선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얼마나 명쾌하며 얼마나 엄정합니까! 이에 사람의 견식과 심술에는 본디 등급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서 우러러 칭찬했던 “그 이름은 없지만 그 실지는 있다.”고 한 것을 더욱더 증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영재종(令再從) 두남(斗南 오해겸(吳海謙))은 명민하고 민첩한 자질로 선사를 오래도록 따르고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우리 형에 비교하면 어찌 몇 배가 될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이처럼 명쾌하고 엄정한 반면, 두남은 도리어 저 설에 현혹되어 갑자기 정견(定見)을 바꿨으니, 나는 진실로 그 사이에 무어라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남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 형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진실로 깊습니다. 이것은 천고토록 우리 사문(斯文)의 큰일로서 사정(邪正)을 구분하고 주적(主賊)

을 판별하는 것이니 관련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 때문에
깊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절실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형은 집안의 친척이니 어찌 제가 벗으로서 근심하는 것보
다 못하겠습니까. 모쪼록 때때로 의리에 근거하고 이치를 논하
여 명백하게 고하여 깨우쳐서 두남이 의리가 아닌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를 두남과 함께 보고, 제가 두남에게 보낸 편지도 가져
다 보아서 기어코 반복해서 논변하여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합
니다.

오익부사익에게 보냄 을유년(1945)

與吳翼夫士益 乙酉

밝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여 조국이 광복을 맞았으
니, 만백성이 똑같이 경하하는 마음을 어찌 형용할 수 있겠습니
까. 큰 경사를 함께 하는 것은 피차간에 현재 상황이니, 길함과 흉
함, 고통과 즐거움은 물을 것도 못 됩니다. 국가의 정책은 본디 책
임자가 있으니, 산림의 서생은 다만 좋게 시작하고 좋게 끝나쳐
서 태평시대가 길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문(斯文)과 관
련된 일로서 여러 가지 계책도 이때에 미쳐서 시원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하에서는 선사의 문함을 완전히 변론
하지 못하였으니, 수고(手稿)를 간행하는 일과 난본(亂本)을 거두
어 없애는 일을 마땅히 차례로 해야 할 것인데, 뜻을 같이 할 사람
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일을 우러러 물을 수
있는 자는 형배(兄輩)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아, 저 음성(陰城 오진영)은 내리 비취주던 일월(日月)이 깨져

떨어졌으니, 장차 어디에 의지하고 우러르겠습니까? 진실로 가련합니다. 그가 무함한 말 가운데 이른바 ‘세상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헤아려 하라.’는 것은 어찌 가장 핵심적인 대목으로서 통탄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원수 오랑캐가 탐하고 포학하여 약소국을 삼키고 교만하고 패려궤어 강대국을 침략하는 것을 보고서는 비록 아녀자와 어린애라도 모두 반드시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선사의 명철함으로 일찍이 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앞날을 알 수 없다.”고 했겠습니까? 선사가 일찍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왜가 망한다면 내일 죽더라도 절대 유한이 없으리라.[倭亡明日死, 萬萬無所恨]”라고 하였고, 또 육검남(陸劍南)¹¹³의 “왕의 군대가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는 날에, 가제(家祭)를 지낼 적에 아버지께 고할 것을 잊지 말아라.[王師北定中原日, 家祭無忘告乃翁]”는 시를 외우며 말하기를 “이는 먼 저 내 마음을 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가 반드시 망할 것을 아시고 기다린 것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오늘 이후에 세상이 어찌 될 수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은 더욱더 그가 무함한 것임을 드러내어 분별할 것도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다행입니까. 우리들은 이미 만백성과 함께 경축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경축할 것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선사의 무함이 절로 명쾌하게 설욕되지 않겠습니까? 두 형의 고명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회신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13 육검남(陸劍南) : 검남은 육유(陸游)의 호이다. 검남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일대로 검각(劍閣)의 남쪽 지역인데, 육유는 이곳에서 벼슬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후에 자신의 시집을 《검남시고(劍南詩稿)》라고 이름하였다. 시는 육유가 임종 때 남긴 <시아(示兒)>로 《검남시고》권85에 실려 있다.

전순형기진에게 보낸 을해년(1935)

與田舜衡璣鎮 乙亥

지난번 이별한 것이 꿈만 같은데, 어느 날에나 다시 만나겠는 지요? 멀리 그려 마지않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있는 이래로 마침내 무한한 추악한 제목을 얻게 되었으니, 비록 집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도 척연히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감히 불초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저를 방문한 자가 있더라도 또한 감히 기뻐하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문득 두렵고 곤란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어떤 책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었고, 또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전하는 말이 있어서 다시 무슨 죄를 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에 형이 은혜롭게 방문했을 때에는 평소의 정의와 멀리서 찾아온 부지런함을 생각하니, 어찌 기쁜 마음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악수¹¹⁴를 할 뿐이었습니까. 그러나 저로서는 실로 처음에 조금 두렵고 곤란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화살에 맞은 새가 굵어진 나무만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것¹¹⁵이 어찌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서는 비록 그 곤름

114 신발을…악수 : 《구당서(舊唐書)》〈유엽전(劉鄴傳)〉에 유엽(劉鄴)이 찾아오자 너무도 반가워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영접했던 이덕유(李德裕)의 고사가 있다.

115 화살에…것 : 화살을 맞아 본 경험이 있는 새는 활을 당기는 시늉만 하여도 그만 놀란 나머지 공중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뜻으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비슷한 우화이다. 《전국책(戰國策)》〈금책(楚策) 4〉

(困廩)¹¹⁶을 다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 성부(城府)를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¹¹⁷, 사사로이 생각하기를 과연 평소에 바라던 바를 저버리지는 않았고 점점 간담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형이 다시 방문했을 때에 저는 이미 먼저 두렵고 곤란한 마음을 끊어버렸으니, 이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볼 일이 없었고, 또한 곤륜을 기울고 성부를 열지 않아도 흔쾌히 저의 간담을 열어 보이는데 더는 여지를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지 않음이 있었는데, 이는 내가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쉽게 마음을 쏟아낼 수 없었던 때문입니다. 형은 혹 이점에 대하여 저를 서운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나 오히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지요?

대개 형은 호남(湖南)과 음성(陰城) 사이에 대해 일찍부터 그 시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만 저계야(褚季野)¹¹⁸ 같은 자가 형과 서로 잘 지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같은 길을 가게 됨을 면치 못했을 뿐이니, 이것은 진실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언(立言)이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략 변론하였는데, 형은 옳지 않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16 곤륜(困廩) : 곳간 : 균륜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아래의 성부(城府)도 마찬가지로이다.

117 그 성부(城府)를...않았지만 : 원문은 ‘不全開其城府’인데, 문맥을 살펴 ‘閉’를 ‘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8 저계야(褚季野) : 저계야는 입으로 시비를 말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시비(是非)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진(晉) 나라 환이(桓彝)가 저계야(褚季野)를 칭찬하여 “계야는 가족 속에 춘추(春秋)가 있어서, 비록 말하지 않아도 사시(四時)의 기운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진영이 변론에 대하여 말한 바가 있자, 형은 또 그렇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그 잘잘못의 소재를 분명코 알 수 있었습니까. 오진영이 다시 내가 절의를 배척하는 사설(邪說)을 한다고 여겨서 오랑캐의 재앙보다도 심하다고 하였는데, 형은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여기십니까?

근년 이래로 비록 평범한 말이라도 입을 떠나기만 하면 허물이 곧바로 따라서 생겨납니다. 더구나 조금이라도 시비와 관련된 것은 그 그림자만 대략 언급하여도 엄한 꾸짖음이 사방에서 닥칩니다. 비록 평소에 매우 친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도 매번 살피주지 않고 비정하다고 하니, 일단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와 함께 말하겠습니까? 매번 자문하고 자답할 뿐입니다.

형이 멀리 영남으로부터 서해의 바닷가까지 와서 생사를 묻고 다시 마음을 위로해 주시다가, 얼마 안 되어 이별하여 가셨는데, 어찌 저로 하여금 한 번 기쁘게 했다가 한 번 슬프게 하십니까? 근래는 더욱 무료하여 애오라지 지난날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써서 보내니, 또한 장차 이를 이어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형은 아마 제가 형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입니다.

정국진기성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鄭國振基聲 乙亥

때때로 친구 전사견(田士琯)을 만나 좌하(座下)의 소식을 들었는데, 법도에 지킴이 있고 절조가 더욱 굳세어 맹세코 치흑(癡黑)¹¹⁹의 욕됨을 받지 않으며 더욱더 위벽(衛闢)¹²⁰의 책임을 다하여 우

119 치흑(癡黑) : 머리 깎고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말한다.

120 위벽(衛闢) : 정도(正道)를 보호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 여

똑하게 퇴파(頽波)¹²¹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사건은 눈이 높고 입이 곧아서 구차하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사람이 아니니, 나는 이 말을 통해서 좌하가 진실로 이런 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사의 영혼이 어찌 “그 바름을 잃지 않은 사람은 정씨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흠모하여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당(黨)에 믿을 분이 있음이 매우 기쁩니다. 좌하가 수렴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학문(學問)과 사변(思辨)을 통해 정미(精微)의 것까지 철저히 연구하는 공부에 매진하여 말을 세우고 책을 써서 오묘함을 발휘하여 선사가 전한 도를 광대하게 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리하실 수 있는지요?

정국진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鄭國振 乙亥

보내주신 편지를 받들어 읽고서 보존하고 있는 것의 독실함이 과연 들은 바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또 부쳐주신 시(詩)를 읽어서 중화를 지키는 의연한 절개와 무함을 분별하는 절연한 의리를 더욱 잘 알게 되었는데, 언어와 편지로 능히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난번에 전사건(田士琯)의 말로 인하여 제가 편지를 보내고 저의 편지로 인하여 성대한 좋은 시를 얻지 못했다면, 거의 노형을 잘 알지 못한 채 문득 몇 년이 지났을 것이

기서는 사문(斯文)을 호위하고, 이단을 물리치겠다는 것을 말한다.

- 121 퇴파(頽波) : 퇴파는 거세게 아래로 흘러내려 가는 물살을 말하는데, 무너져 가는 세상의 풍속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황하의 증류에 거센 물결을 막고 있는 지주(砥柱)라는 바위산이 있는데, 이 지주와 함께 ‘퇴파지주(頽波砥柱)’라고 쓰이기도 한다.

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시세(時勢)는 비록 변할지라도 나는 어찌 감히 변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형은 진실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능히 말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¹²²라고 했으니, 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박문약례(博文約禮)의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도를 밝히는 책을 저술하기를 맹자의 7편과 정자의 《역전(易傳)》처럼 하여 백세가 넘어서도 양모하는 것이 이미 수립된 것을 능가할 뿐만 아니게하기를 더욱 바랍니다. 저는 크게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정국진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鄭國振 乙亥

삼가 생각건대, 유자(儒者)가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것과 왕자(王者)가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은 안으로 닦은 것이 굳건해서 의뢰하여 근본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어야만 물리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침에 의(義)를 모아 기른 호연지기(浩然之氣)로 근본을 삼았고, 한유(韓愈)가 불교와 도교를 물리침에 경서(經書)를 통달한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며, 주자(朱子)가 소식(蘇軾)과 육구연(陸九淵)을 변론함에 시종 일관된 하나의 경(敬)으로 근본을 삼았습니다. 이들은 그 근본이 안에서 굳건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밖으로 발로된 것이 저처럼 창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일에 분수를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은 거의 옛사람들에게 부

122 능히…무리이다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보인다.

끄러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근본을 옛사람처럼 할 수 없으면 백세 이후에 어찌 우리의 말을 맹자, 한유, 주자처럼 믿어주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돌아보매 두려운 점입니다.

정국진에게 답함 병자년(1936)

與鄭國振 丙子

지난번 선장(仙庄 상대의 집)에 나아가 달을 감상하고 시를 읊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선달이 되어 거의 일 년이 다 되었습니다. 풍조(風潮)가 더욱 심해져서 성학(聖學)이 장차 끊어지고, 인심이 더욱 변하여 대의(大義)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와 그대들이 비록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덕을 세우고 학문을 전하며 윤리를 바꾸고 의리를 돕는 방도를 강구해 밝히더라도 오히려 공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만나고 편지를 보내는 것도 모두 막혀 걸핏하면 한 해를 넘기니, 어떻게 우뚝한 지혜를 세우고 확연한 논리를 세워 조금이라도 쓰러져가는 풍속을 구하겠습니까? 바라보아도 다가갈 수 없어서 진실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노형은 고명한 견해와 강직한 기운을 하늘로부터 타고 나서 일반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덕과 학문을 닦고 세상에 법도를 맑게 하는데 마땅히 스스로 이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치는 반드시 궁구한 이후에 더욱 밝아지고 기운은 반드시 함양한 이후에 더욱 굳세게 됩니다. 이치가 더욱 밝아져서 지극한 밝음에 이르고 기운이 더욱 굳세져서 지극한 굳셈에 이른 이후에 그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자는 강학(講學)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강학을 하고자 한다면 봉우

와 서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형은 방술이 갈래가 많고 응대하는 것이 매우 번잡합니다. 도는 비록 여기에서도 볼만한 것이 있으나 만약 이같이 한다면 혼란스럽게 세월만 보내며 그칠 때가 없으면, 아마도 이치를 궁구하고 기운을 함양하는 공부에 정밀함을 다하여 지극히 밝고 지극히 굳센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형은 이 점에 유의하여 응대는 조금 줄이고 강학은 조금 늘려서 이것을 중시하고 저것을 경시하며 이것을 주인으로 삼고 저것을 손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되면 정치하게 이치를 궁구하고 기운을 함양하는 방도에 있어서 이미 절반은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현광(玄狂)은 지난 선달에 선장에서 함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는데, 어찌 갑자기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높은 재주와 바른 의론을 다시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당(吾黨)의 불행이고 음당(陰黨)의 기뻐할 바이니, 옛사람의 이른바 “하늘도 이 무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경우란 말입니까. 아. 슬픔니다.

정국진에게 답함 정축년(1925)

答鄭國振 丁丑

편지에 “마귀가 물러나는 날을 조금 얻어서 기필코 심중(心中)의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마귀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변괴가 밖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마치 귀신이 시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없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병(疾病), 화환(禍患), 수화(水火), 도적(盜賊) 이외에 마땅히 이른바 마귀란 것은 없습니다. 형의 지금 분란한 것에 대해 응해야 하므로 응하는 경우는

이는 내 일을 도모하는 조건이니, 진실로 마귀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응해서는 안 되는데 태만하게 우선 응하는 경우 이것을 마귀라 말한다면 결국 스스로 마귀를 만드는 것이고 진짜 마귀가 아닙니다. 이를 물리치는 방도는 또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뿐이니, 진실로 물리치고자 한다면 손을 한 번 뒤집는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선 행하지 않고 앉아서 마귀가 물러가기를 기다린다면, 끝내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심중의 일도 영원히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자(禪子)의 계송에 “해를 차갑게 할 수 있고 달을 뜨겁게 할 수 있어도, 못 마귀는 감히 진결을 파괴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 사도(邪道)가 진짜 마귀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정학(定學)으로 스스로 만든 마귀에 대하여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형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보제중에게 보냄 정축년(1925)

與文聖甫濟衆 丁丑

좌하가 연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사가 ‘《오현수언(五賢粹言)》의 간행을 인가받는 것은 후일에 원고의 간행을 인가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저와 사견(士琯)에게 말하기를 “불언지교(不言之教)는 석농(石農)이 쓰지 않아야 되었는데 썼다.’라고 하였는데, ‘본래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되었다.’고 했으니, 이는 선사가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전 편지 후면(後面)에 이를 변론했으나 들어주질 않은지라, 일찍이 좌하가 선

사의 뜻을 모르고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민망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만났을 때 제가 좌하에게 “지금도 과연 선사가 인의와 인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라 물었더니, 좌하가 대뜸 대답하기를 “선사가 이미 ‘문고를 50년 뒤에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어찌 인의와 인교를 말씀을 이치가 있었는가?.”라고 하였고, 제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서로 헤어지게 되어 친구 이경좌(李敬佐)와 함께 사천(沙川)에 이르러 이별할 때에 제가 다시 질문하여 말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인의와 인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이미 분명히 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뒤에 반드시 다시 변동함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좌하는 기쁘게 듣고 다른 말씀은 없었고, 저 또한 좌하가 끝내 선사의 마음에 어둡지 않고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아, 이전의 걱정과 이후의 다행함이 어찌 나의 견해와 같거나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개 모두 좌하에게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큰 관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선사 휘일(諱日)이기에 이것이 생각나서 한 번 편지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만일 편지가 사실과 어긋나면 일일이 분변하여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문성보에게 보냄 정축년(1925)

與文聖甫 丁丑

〈순전(舜典)〉에 사람의 범죄를 논함에 생재(眚災)와 호종(怙終)의 구분이 있었습니다.¹²³ 생재란 알지 못하고 과오로 범한 것

123 · 순전(舜典)에…있었습니다 :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생재(眚災)

이고, 호종(枯終)은 알고도 일부러 범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재판관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여 내보내거나 집어넣을 때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생재와 호종을 구분의 있습니다. 유죄임을 알지 못하고 잘못 내보내거나 혹은 무죄임을 알지 못하고 잘못 집어넣는 것은 생재입니다. 반면에 유죄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내보내거나 혹은 무죄임을 알고서 고의로 집어넣는 것은 호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행을 인가한 뜻으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잘못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하가 이미 선사는 분명히 인의(認意)가 없었다고 말했으니, 또한 그가 선사를 무함한 것을 깊이 죄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론하여 성토하지 않고, 또한 극히 존중하였으니, 좌하는 알지 못하고 잘못 내보낸 것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알고서 고의로 내보낸 것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밝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경순인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李敬循仁矩 丙寅

선사가 훈계하여 인가받는 것을 금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리이니, 문인이 선사의 훈계를 지키는 것은 또한 원고를 발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원고를 발간하는 것과 유훈을 지키는 것을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 방도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형세에 구속되고 공을 이루고자 해서 훈계를 지키지 못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단지 훈계를 지키다가 죽더라도

와 불행으로 지은 죄)란 풀어 놓아주고, 호종(민고 끝까지 재범하는 자)이란 죽이는 형벌을 하였다.[眚災肆赦, 枯終賊刑]라고 하였다.

후회하지 않을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 오히려 또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도 혐의로 삼지 않으니 집사의 일을 알 수가 있었으며, 전에 ‘내가 차라리 알지 못할지언정 인가한 원고를 읽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니 집사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히 지나치게 염려하겠습니까?

다만 호대(浩大)한 일은 진실로 은밀히 도모하기 어렵고, 끝나가는 일은 또한 갑자기 중지하기 어려우니, 끝내 선사를 훈계를 저버리는 것은 일의 기미와 정세로 볼 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집사를 위하여 삼가 염려하고 감히 의론하는 말석에 참여하여 들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전자여달준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金子與達準 辛酉

허명(虛名)의 비유는 자신을 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북방(北方) 풍기(風氣)의 질박함은 남토(南土)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좌하는 자실과 모습이 순박하니 반드시 외면을 힘쓸 분이 아니니, 진실로 감히 외람되게 대낮에 등불 같은 도움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명’ 이 두 글자는 근세 유문(儒門)의 공통된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이름은 유적(儒籍)에 올려놓았지만 전혀 계책이 없는 자는 말할 거리가 못됩니다. 그런데 주성(州省)에서 명망을 받고 있는 모모(某某)의 경우는 성리(性理)의 심오함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천인(天人)의 함의도 극치까지 궁구하지만 그 마음과 몸가짐을 살펴보면 간혹 주위 사람의 의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례(常禮)와 변례(變禮)에 대해 모여서 따지고 변론하여 예(禮)를 제정한 본뜻에 환할 것 같지만

그 집에서 행하는 것을 살펴보면 간혹 이해가 걸려 있을 경우 지
키지를 못합니다. 그 배운 바를 미루어 자신과 집안에 적용하는
데도 오히려 어긋남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어찌 《대학》의 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의 실지를 함께 논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
나 바야흐로 또한 가득히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실학(實學)으로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취할 경우에도 또한 그 실견(實
見)과 실덕(實德)이 어떠한가를 묻지도 않고, 한갓 언어문자의
풍부함으로 모두 똑같이 실학이라고 하며, 글을 남겨 후세에 전
하게 되면 후세 또한 실학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론
(言論)과 풍지(風旨)가 어찌 오늘과 후세에 어찌 조금의 도움이
없겠습니까마는, 명망과 실지가 서로 걸맞는다고 말한다면 그렇
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부르고 도술
이 비하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 우리들은 정히
주제로 삼아 더욱 힘을 써서 자신의 처신과 남을 살림에 있어 이
런 풍조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창집 권 8 서書

오사의해점에게 보낸 계해년(1923)

與吳士益海謙 癸亥

저는 형과 20년이나 된 오랜 벗인데 제(齊)나라를 정벌하는 방식¹으로 인(仁)을 돕고 진(秦)나라를 보는 태도²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하늘이 싫어하고 하늘이 싫어할 것입니다. 처의 상중(喪中)에 재혼하지 않는 것은 《예(禮)》에 기록되어 있고 법률로 엄금하는 것이며 형도 일찍이 강론했던 것입니다. 가을의 어떤 곳의 모임에서 이미 간절히 말하여 영운(令胤)으로 하여금 이것을 범

1 제(齊)나라를 정벌하는 방식 : 동중서(董仲舒)가 강도사(江都相)이 되었을 때에 역왕(易王)이 문기를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그 대부(大夫) 설용(泄庸), 종려(種蠡)와 함께 오(吳)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과인은 월(越)에 삼인(三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라고 묻자, 동중서가 대답하기를 “노군(魯君)이 유하혜(柳下惠)에게 제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묻자 유하혜가 근심하는 얼굴색으로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정벌하는 것에 대해 인인(仁人)에게 묻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묻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도 오히려 부끄러운데 더구나 속임수를 부려 행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인인은 그 의를 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을 꺾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권56 〈동중서전(董仲舒傳)〉

2 진(秦)나라를 보는 태도 : 한유(韓愈)의 〈쟁신론(爭臣論)〉에 “마치 남쪽의 월(鉞)나라 사람이 북쪽 진(秦)나라 사람의 살지고 여윈 것을 보는 것처럼 무관심해서, 마음속에 기쁨이나 슬픈 느낌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하였다.

하지 않도록 하였고, 존부장(尊府丈)이 왕림하셨을 때에도 감히 덕으로 사랑하는 구구한 저의 뜻을 거둬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에 형 마을 사람을 만나서 들었는데, 영운의 혼인이 이미 정해져 납폐(納幣) 날짜도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혹 잘못 전한 것이겠지요.? 저는 형이 명달(明達)하여 대체(大體)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릇되게 예를 잃고 법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이를 이어서 나올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지완(志完)의 말이 다시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의가 분토에 떨어졌고 인류는 짐승으로 변하여 미친 풍조가 하늘까지 닿아서 서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천지를 되돌리고 물결을 돌려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차마 한 자루의 부채 바람으로 들판을 태우는 불을 부추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화산(華山, 계화도의 산)을 바라보니 산이 이미 무너졌으니,³ 막막한 세도(世道)는 누가 그 책임을 맡겠습니까?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문하의 후생에게 그 뜻을 부탁하였으니, 우리들이 설령 우리의 군용(軍容)을 펼쳐서 사문(師門)을 빛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어찌 차마 일시의 사적인 감정을 따라서 평소의 법문(法門)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덕문(德門)이 구법을 지키고 의리를 행한 것은 우리 고향에서 으뜸이고, 여러 자질들이 선사를 따라 학업을 연마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부러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의 법도 한 조목을 덕문에서 중시하지 않고 경시하여, 희우(希友)가

3 화산(華山)을…무너졌으니 : 전우가 1922년 계화도에서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한다.

앞에서 한 번 잘못을 하였고, 보형(寶兄)이 뒤에서 재차 잘못을 하였는데, 형이 또 세 번째로 잘못하여 숫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하니, 어찌 이리 깊이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형이 만약 불행하게도 일도양단할 수 없다면 덕문의 행의(行義)와 학문(學問)이 장차 식자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다시 거듭 생각하여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니, 형이 만약 기꺼이 듣지 않는다면 또한 하늘이 싫어하고 하늘이 싫어할 것입니다. 속히 회답을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오사익에게 보낸 병인년(1926)

與吳士益 丙寅

김태형(金台亨)에게 들으니, 음성 사람이 선사의 손자를 고소하여 가둔 뒤에 애시(哀侍)⁴께서 여러 자질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석농(石農)의 호를 들어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고명한 제공(諸公)이 선사를 무함했을 때에 배척하지 않다가 선사의 손자가 간히는 것을 기다렸다 비로소 폄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미 깨달았으니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선사의 원고를 바꾸고 침삭을 하였으니, 이처럼 지극히 무엄한 것을 본다면 제공은 의당 호를 없애는 정도로 폄척할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4 애시(哀侍) : 서간문에서 흔히 쓰는 말로, 거상(居喪) 중에 있으면서 홀아버지나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오사익에게 보냄 을해년(1935)

與吳士益 乙亥

음성 사람이 형에게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주었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천하가 중화 세계인데 유자(儒者)가 중화인이 될 수 없다면, 천하가 즉시 오랑캐가 된다.”라는 한 구절이 있는데, 형의 고견은 어떠합니까? 저는 크게 세도(世道)에 해롭다고 여깁니다. 지난번에 현광(玄狂) 전일중(田鎰中)을 만났는데 그도 그렇다고 여겨서 마침내 드디어 각각 하나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어서 바치니 만약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정정하여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公共)의 의리이니, 진실로 음성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꾸며서 꾸짖어서도 안 되고, 또한 음성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요컨대 다만 반드시 ‘공명(公明)’ 두 글자에 입각하여 이 안건을 단정해야 합니다. 어떠합니까?

오사익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吳士益 乙亥

제가 천하가 중화세계인데 유자가 능히 중화인이 될 수 없다면 천하가 즉시 오랑캐가 된다는 말로 세도(世道)에 해가 된다고 여긴 것은 감히 가혹하다 할 수 없으니 그 말의 실수를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마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죄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형은 말의 병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식견의 병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형은 시험 삼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이니, 말이 이미 병통이 있

다면 심술(心術)의 병통이라 말한다 해도 또한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식견의 병통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형은 이른바 유자는 중화되지 않은 이전에 얻은 호칭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중화되지 않은 이후에 이 칭호를 얻어야 할 자를 아울러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화되지 않았을 뿐 유자는 아니니 가볍고 천하게 될 여지가 너무 심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기에 위 문장에서 오랑캐가 될 수 없는 유자와 똑같이 천하에 중요한 관건이 되게 하여 천하의 중화인을 다 모아서 모두 오랑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랑캐가 될 수 없는 자를 중화인이 될 수 없는 자와 똑같이 유자라고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은 또한 중화인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어서 유자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화인이 곧 오랑캐인이라는 것이 위 문장의 ‘천하가 오히려 중화이다’라는 것에 해가 될 뿐만이 아니니, 또한 어찌 병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송나라 말기에 허형(許衡)이라는 유자의 명성이 얼마나 성대했습니까. 만약에 허형으로 하여금 빠르게는 북송의 전성시기에 태어나게 하고 늦게는 명나라 황제가 나라를 건국한 때 태어나게 하여 홀로 오랑캐 제도를 행하게 했다면, 그가 평일에 유자의 이름이 있었던 까닭으로 송나라와 명나라 천하를 즉시 오랑캐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화와 오랑캐를 섞어서 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형이 대신하여 해명한 음성 오진영의 설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중화인도 되고 오랑캐도 된다는 것은 단지 유자에게 달려있고 천하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자가 유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중화인이기 때문이니 다만 중화인이 되는 것은 유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면 충분할 것입

니다. 어찌 반드시 다시 오랑캐가 되는 것이 유자의 손에 달려있고, 어찌 반드시 다시 천하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까.【천하에는 중화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유자가 중망(重望)을 받는 것은 다만 중화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오랑캐 사람이 되는 것에도 있으니, 오랑캐가 되었는데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중화인도 되고 오랑캐도 되고 유자도 될 수 있다는 설이 아닙니까. 어찌 다만 제가 중화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고 유자도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몸을 두지 못할 곳으로 내몰아낸다고 합니까. 끝내 음성 오진영의 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본래 이와 같기 때문에 형도 또한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하였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 반성한다면 저의 의론이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형은 세도에 해롭다는 네 글자를 듣고서 매우 놀랐으나 어찌 생각이 이런 점에는 미치지 않았습니까. 양묵(楊墨)의 폐해가 부모도 없고 군주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주자는 “그 본심을 베푸는게 어찌 사악함이 있겠는가. 다만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화와 오랑캐를 뒤섞어서 유자의 설을 하는 것이 어찌 다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과 비교할 따름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평상시의 편지와 글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시의 말의 병통으로 돌려서 반드시 깊이 논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입언하여 전해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일은 절개를 우뚝 세웠고 그 작업은 심력을 다하여 한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추존하여 식견이 선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니 그 말의 실수가 이와 같으니 그 해로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 점이 어쩔 수 없이 깊이 논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다만 형 또한 이미 자세히 보고 의심스럽게 여기고 말의

병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끝내는 흰하게 깨달을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吳士益 丙子

문을 닫고 한 해가 다하는데 서로 위문하는 사람도 없어서 거의 귀양 가서 사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즈음에 반가운 편지를 받으니 얼굴에 먼저 화색이 돌았습니다. 더구나 편지 첫머리에서 “설산에서 밤에 등불을 켜고 독서하고 궁구하니 저도 모르게 춤을 춘다.”라고 했으니, 생각만 해도 부럽습니다. 이것은 형이 몸소 장차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사랑하나 도울 길 없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천치가 뒤집어져 우리 당이 더욱 더 고립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저에게 기대를 걸고 격려하여 천 길의 절벽처럼 우뚝 서고 퇴폐한 시류에서 지주(砥柱)⁵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진실로 은덕을 알고 감격하여 사양하고 싶지 않거니와 또한 형도 스스로 사양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고 늦은 나이에 스스로 후회스럽다.”고 하였는데, 비록 스스로 혐의하는 말이지만 또한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니, 후회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은 바로 길상(吉祥)의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서 괴롭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

5 지주(砥柱) : 중국의 황하(黃河) 거센 물살 가운데 우뚝이 서 있는 바위산으로, 혼탁한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절조를 지키는 군자에 곧잘 비유된다.

땅히 매우 잘 이해하여 혹시라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형 한 사람의 근심이 아니고 저도 항상 하는 근심하는 바이며 또한 고급의 사람들이 똑같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천고 이래로 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한 마디 말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니, 훌륭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이 만약 마음과 일이 서로 어긋나는 괴로움이 없다면 반드시 강하를 터 내린 것 같아 그 성대한 기세를 막을 수 없는 것⁶이 반드시 순임금보다 크게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임금이 깊은 산중에 있었을 때에 야인들과 또한 어떠했습니까? 또한 오늘날 형과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임금은 일찍이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난 것에 대해 이처럼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고 반드시 함양하여 기다리고 여유롭게 터득하였기 때문에 통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지 사이에서 만물은 모든 측면에서 다 완벽하기 어려우니 각각 서로 가감을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측면에서 다 완벽하고자 하니, 이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예컨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千乘)의 나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명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천승의 나라를 양보하는 것도 애당초 그 마음과 어긋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승의 나라를 양보해야만 비로소 명예를 취하

6 강하를…것 : 맹자가 이르기를 “순 임금이 깊은 산중에 거처하실 적에는 나무, 돌과 함께 거처하시며, 사슴, 멧돼지와 함께 노시니, 깊은 산중의 야인과 다른 점이 드물었는데, 한 선언을 듣고 한 선행을 봄에 미쳐서는 마치 강하를 터 내린 것 같아 그 성대한 기세를 막을 수가 없으셨다.[舜之居深山之中，與木石居，與鹿豕遊，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幾希。及其聞一善言，見一善行，若決江河，沛然莫之能禦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

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시에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명예를 취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천승의 나라를 취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두 가지 모두 반드시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른바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 마음을 터득하는 바탕임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우리 선사는 평소에 일을 만나면 곧바로 행하여서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구차한 모습이 없이 곧바로 실천하고 회피하는 바가 없었는데, 능히 시원하면서도 항상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방도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한 가지 질문이 나오 하여금 이를 힘쓰게 했으니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으며, 형도 이를 힘쓰기 바랍니다. 편지 끝에 형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한 터럭의 사사로운 뜻도 이 사이에 보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다시 위로 더 나아가 반드시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사로운 뜻이 없더라도 또한 끝내 옳지 못한 것에 빠짐이 있을 것입니다. 형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자(儒者), 중화(中華), 오랑캐[夷]를 각각 하나씩 거론하면 유자에는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있고, 중화에는 내외(內外)와 명실(名實)이 있고, 오랑캐에는 반전(半全)과 진가(眞假)가 있어서 각각 묶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상대적으로 거론하면 유자는 유자이고, 중화는 중화이고, 오랑캐는 오랑캐입니다. 명목이 한 번 세워지면 터럭만큼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니, 한 번이라도 혹 서로 경계를 넘게 되면 이에 명분이 이미 혼란해지고, 실제 또한 그것을 뒤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아버지와 자식의 명분이 서로 경계를 넘게 되면 장차 아버지가 자

식이 되고, 자식이 아버지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형은 장차 명분이 서로 경계를 넘는 것을 허용하여 또한 활간(活看)⁷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진영(吳震泳)이 지은 <정절사전(鄭節士傳)>에 “유자가 중화인이 될 수 없다면 중화인 즉시 오랑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자와 오랑캐를 상대지어 “유자가 중화인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유자와 오랑캐에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중화와 오랑캐를 상대지어 “중화인이 즉시 오랑캐가 된다.”고 했으니, 이는 중화와 오랑캐에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유자와 오랑캐가 서로 뒤섞이면 오랑캐일 뿐이고, 중화와 오랑캐가 서로 뒤섞이면 오랑캐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입언하여 세상에 공포해서 이를 통해 천하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니 한번 전해지고 재차 전해지면 그 효과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즉시 변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조경헌(趙景憲)의 편지에는 “군자는 단독으로 거론하여도 유덕(有德)과 무덕(無德)을 통틀어 말할 수 있다. 설령 변하는 것이 있더라도 명분을 넘거나 실지를 잃게 되는 우려가 없고, 이로써 스스로 힘쓰면 또한 절로 유덕의 지경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병통이 없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고견을 듣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활간(活看)”이라는 말은 자세히 음미해보면 문자(文字) 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위(事爲) 상에도 있는 것 같으니, 더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문자로만 말한다면, 만약 모든 경우 이 방법만 쓴다면 잃어버리는 것은 한 글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불과하지만 또한 장차 죽어 넘어진 시체가 백만이 되게 하고 후세에 재앙을 끼치는

7 활간(活看) : 글을 볼 때에 글자나 글귀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널리 보아 본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데 이르게 됩니다. 하물며 사위의 경우는 죽어 넘어져 죽은 시체가 백만이고 후세에 재앙을 끼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닐 것이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천지가 뒤집어지고 부자가 자리를 바꾼 이후에 끝날 것입니다. “활간”을 어찌 감히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옛 성현의 용심(用心)을 상고해 보면, 예컨대 ‘유정유일(惟精惟一)’⁸, 문리밀찰⁹, 호찰통언¹⁰, 명변지¹¹, 상설지¹² 같은 것은, 어느 말이던 모두 감히 활간의 뜻을 쉽게 여기지 않아서 마침내 태평의 실지를 이룬 것입니다. 종래 활간을 형처럼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미 나타난 효과로써 말을 한다면, “중화인이 즉시 오랑개가 된다.”는 말은 조금도 문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누군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형은 마침내 스스로 미혹되어 있으니, 이것이 어찌 깜짝 놀라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장이 무너지면 도적에게 편한 길을 내주는 것이니, 밤을 틈

-
- 8 유정유일(惟精惟一) :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세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여 진실로 그 중을 잡아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 9 문리밀찰(文理密察)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보이는 구절로, 문(文)은 문장, 이(理)는 조리, 밀(密)은 상세(詳細), 찰(察)은 명변(明辯)을 뜻한다고 한다.
 - 10 호찰이언(好察邇言)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6장에 공자가 순 임금의 덕을 일컬어 “순 임금은 문기를 좋아하고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고, 남의 악을 감춰 주고 선한 일은 드러냈다.[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고 하였다.
 - 11 명변지(明辨之)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 “널리 배우고, 상세히 따져 묻고, 신중히 사색하고, 명백히 가리고, 독실히 행하라.[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 12 상설지(詳說之) : 《맹자(孟子)》〈이루하(離婁 下)〉에 “널리 배우고 상세히 말한다.[博學而詳說之]”라고 하였는데, 박학에 힘쓴다는 의미이다.

타서 침입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간사한 덕이 있지 않다면 어찌 아침을 묻는 일이 있겠습니까?¹³ 형을 위해 깊은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언급하였습니다.

오사익에게 보냄 병자년(1936)

與吳士益 丙子

저는 근래 《주자대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읽다가 “의리는 미루어 찾기가 어렵고 공부는 중간에 끊어지기 쉬운데,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니 매우 걱정되고 두렵다.”¹⁴라는 가르침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놀라서 경계하고 반성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세월은 하늘에 달려있고 의리는 사물에 달려 있으니, 그 쉽게 흘러가고 찾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지력으로 그 본래 모습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공부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진실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성취하여 그 밝음이 일월과 같게 되고 그 이름이 우주에 드리우게 되면, 의리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세월은 영원히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것’ 이 한 가지 일은 어찌 우리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3 간사한…있겠습니까 : 《진서(晉書)》〈안함전(顔含傳)〉에, 안함이 말하기를 “나는 듣건대, ‘남의 나라를 칠 때에 어진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다.’ 하는데, 전번에 풍조사(馮祖思)는 나에게 아침하는 일을 물었으니, 내게 간사한 덕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14 의리는…두렵다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33 〈답여백공(答呂伯恭)〉에 “공부는 중간에 끊어지기 쉽고, 의리는 미루어 찾기 어려운데,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니 매우 걱정되고 두렵다.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功夫易間斷 義理難推尋 而歲月如流 甚可憂懼 奈何奈何)”라고 하였다.

일찍이 생각해보았는데, 우리들과 성현이 천지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공부의 중간에 끊어졌는가, 끊어지지 않았는가의 어떠함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다만 기질을 청탁(淸濁) 때문일 뿐이겠습니까?

이제 성현의 지난 자취를 가지고 구해보면, “오히려 촌음을 아꼈다.”¹⁵는 것은 대우(大禹)의 끊어지지 않음이고, “도를 보고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¹⁶는 것은 문왕(文王)의 끊어지지 않음이며, “밤으로써 날을 이었다.”¹⁷는 것은 주공이 끊어지지 않음입니다. 공자(孔子)가 먹는 것을 잃어버리고 민첩하게 진리를 구한 것¹⁸도 끊어지지 않음이고, 안자(顔子)가 선을 가슴에 깊이 새긴 것¹⁹도

-
- 15 오히려…아꼈다 : 진(晉)나라 도간(陶侃)은 “대우는 성인인데도 오히려 촌음을 아꼈으니, 중인들은 의당 분음을 아껴야 한다[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라고 하였다. 《진서(晉書)》 권66 《도간열전(陶侃列傳)》
 - 16 도를 하였다 :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 “문왕은 백성을 볼 때 혹시라도 다칠까 염려하였고, 도를 보고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겼다.[文王視民如傷, 望道而如未之見]”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
 - 17 밤으로써…이었다 :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주공은 삼왕을 겸하여 네 가지 일을 시행할 것을 생각하되,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러 생각하여 밤으로써 날을 이어서, 다행히 터득하면 그대로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周公思兼三王, 以施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라고 하였다.
 - 18 공자가…것 : 《논어(論語)》 〈술이(述而)〉에, 공자는 “분발하여 밥 먹는 것도 잊고, 학문을 즐기며 근심을 잊으며, 늙어 가는 것도 알지 못한다[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라고 하였고, “나는 선천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구하는 사람이다.[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라고 하였다.
 - 19 선을…것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8장에, 공자가 말하기를 “안회(顔回)의 사람됨은 증유의 길을 택하여 행하면서, 어떤 한 가지 선을 얻으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回之爲人也, 擇

끊어지지 않음입니다. 부지런히 두려워하며 스스로 힘써 그치지 않는 공부가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 상황은, 밖으로는 몸가짐을 삼가지 못하고 말을 함에 법도가 없으며, 안으로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정밀하지 못하고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치밀하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모두 중간에게 끊어짐으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송독(誦讀)에 과정이 없고 강론(講論)이 부지런하지 못하며²⁰ 왕복(往復)에 기일을 넘기는 것도 모두 중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끝내 어떻게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리우며 찾기 어려운 이치를 보아서 흐르는 세월과 함께 영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며 편안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형은 근래에 날마다 더욱더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여 절로 기뻐할 운치가 있고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로 인하여 오늘날 세상을 생각을 해보니, 성학(聖學)은 사라지고 의리(義理)는 막혀서 학자라고 불리는 자도 공자의 이른바 “학문이 강습되지 못함을 근심한다.”²¹는 것과 정자의 이른바 “학문은 반드시 강습을 한 뒤에 밝아진다.”²²는 것에 대해서 아득히 무슨 일

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不失之矣”라고 하였다.

- 20 강론(講論)이 부지런하지 못하며 : 원문은 ‘講論之不謹’인데, 문맥을 살펴 ‘謹’을 ‘勤’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21 학문이…근심한다 : 《논어(論語)》〈술이(述而)〉에, 공자가 말하기를 “덕이 닦여지지 못함과 학문이 강습되지 못함과 의를 듣고 옮겨가지 못하며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근심이다[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是吾憂也]”라고 하였다.
- 22 학문은…밝아진다 : 《논어집주(論語集註)》에 의거하면, 이 구절은 위의 공자가 “덕이 닦여지지 못하고 학문이 강습되지 못한다.”는 구절에 대한 윤씨(尹氏)의 해석으로 되어 있다. 번역에서는 원문대로 우선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윤씨는 “덕은 반드시 닦여진 이후에 이루어지고, 학문은 반드시 강습된 이후에 밝아지며, 선을 보고 능히 실

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간혹 알아서 종사하는 자들도 그 사이에 편견과 시기심이 뒤섞여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끝내 도리어 어두워지지,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오직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음은 충분히 사리(事理)를 밝힐 수가 있고, 공명함은 충분히 물아(物我)를 공평하게 할 수 있어서, 다만 옳음을 구하고자 하면서 그 중도를 잃을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형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함께 하기를 좋아하며 벗이 된 이유입니다.

지난번 논했던 오진영의 《정절사전》 가운데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인 없는 것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형은 그것을 가져다 근거로 삼으면서 해가 없다고 하였고, 저는 즉시 변론하여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논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시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 아마도 이미 평소의 견해에 분명하여 더는 번거롭게 일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오히려 이와 같다면, 우리들은 모두 이미 노쇠하였고 또 세상이 어지럽고 길도 다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하나의 의심나는 뜻도 오히려 또한 의견을 주고받는데 게을러서 달을 넘기고 해를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의심스럽고 강론해야 할 수천수만의 무궁한 의리에 대해 또한 모두 장차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발돋움하고 바라는 나머지 우연히 주자의 가르침에 감개한 바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누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고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일신의 요체이다. 진실로 능히 하지 못하면 성인도 오히려 근심하는데 하물며 학자이겠는가. [德必修而後成, 學必講而後明, 見善能徙, 改過不吝. 此四者日新之要也. 苟未能之, 聖人猶憂, 況學者乎?]”라고 하였다.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吳士益 丙子

답장을 받들어 읽으니, 제 편지에 거론한 ‘중간에 끊어짐이 없음[無間斷]’ 세 글자에 대해 반복해서 추론하고 연구하여 천인합심(天人合心)의 묘함에 이르러 극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단초를 열었고 그대는 극치를 다했다.’라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로 문답이 이와 같다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비록 옛날의 이른바 연주를 듣고 그 마음이 바다에 있고 산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지음(知音)²³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이를 미루어 나가서 그 나머지를 다 안다면 장차 아무리 미세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단단하여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의리가 아무리 정미(精微)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끝내 규명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으며, 천하가 의회(疑賄 의심스럽고 불분명함)가 비록 변론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끝내 해결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고마움이 깊고 깨우친 것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 편지 중에 ‘기심편견(歧心偏見 시기심과 편견)’ 네 글자로 온 세상의 사류(士流)를 병통으로 여긴 것을 논한 다음, 인하여 우리 문화가 분열된 이유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저를 책망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귀결을 지었습니다. 비록 군자가 고식적으로 사랑

23 연주를...지음(知音) : 옛날에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기가 “종구나, 아아(峨峨)하여 태산(泰山)과 같도다.” 하였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종구나, 양양(洋洋)하여 강하(江河)와 같도다.”라고 하였다. 《열자(列子)》〈탕문(湯問)〉

하지 않는 것²⁴에 감사하지만 그것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돕는 지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장차 어떻게 함께 천하의 의회를 변론하고 천하의 의리를 규명하여 중간의 꿍김이 없이 천인합심의 묘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명하게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만드니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이미 타고난 바탕이 아름답지 못하고 사욕도 극복하지 못하였으니, 평소에 안으로 보존하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시기심과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 많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사를 위하여 무함을 변론하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그것이 공심(公心)과 정견(正見)에서 나왔다고 자신하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며 저승에서 선사에게 절하고 땀땀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은 저와 30년을 함께한 오랜 벗이고 저는 이에 또한 13년간 한결같은 성심으로 대하였으니, 말미암을 바를 관찰하고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서²⁵ 거의 이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형의 헤아리지 못함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저는 바야흐로 형을 시기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서 더불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형은 내가 시기심이 있고 편견이 있다하여 더불어 말 할 수 없다고 여기니, 이른바 ‘친구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친구를 모른다.’는

24 군자가…것 :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 “군자는 도덕에 입각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반면, 소인은 그저 고식적으로만 사람을 사랑한다[君子之愛人也以德, 細人之愛人也以姑息]”라는 말이 보인다.

25 말미암은…살피서 : 《논어(論語)》〈위정(爲政)〉에 공자는 “그 행하는 바를 보며, 그 말미암을 바를 관찰하며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 보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라고 하였다.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아는 것은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중합니다. 마음이 이미 어두이니, 비록 의론의 일치가 있다고 한들 어찌 귀중하겠습니까? 또한 형이 지나쳤습니다.

이미 “대체(大體)의 시비(是非)는 진실로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착함과 악함의 큰 가름은 어찌 향초와 악초가 한 그릇에 있을 수 없고 얼음과 쏙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미 연전에 “선사를 무함한 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석농(石農)²⁶이라고 호칭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써 음석(陰城)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양쪽의 사람을 화합시키고자 하니, 이것은 향초와 악초가 한 그릇에 있고 얼음과 쏙이 서로 용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저 성현의 학문은 ‘명변(明辨)’ 공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역할이 큼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학문하는 다섯 가지 일로 애공(哀公)에게 고할 때에 ‘독행(篤行)’ 한 가지 일 외에는 모두 ‘명변’ 공부였습니다.²⁷ 오직 그 실재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행업(行業)에 드러난 것도 그러합니다. 《춘추》의 ‘선한 자를 포상하고 악한 자를 주벌하는 것’도 원래 ‘명변’의 일입니다. 이후의 현인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맹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변론하고, 주자가 소식(蘇軾)과 육구연(陸九淵)을 변론하고, 우암(尤庵)이 흑수(黑水)²⁸를 변론 한 것이 모두 이런 일이었

26 석농(石農) : 오진영의 호이다. 김택술은 오진영의 호를 부르지 않고 ‘오(吳)’, ‘음성(陰城)’, ‘음인(陰人)’ 등으로 폄하하여 부르고 있다. 음성은 오진영이 말년에 기거한 곳이다.

27 공자가…공부였습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변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28 흑수(黑水) : 윤휴(尹鑄)가 여주(驪州) 여강(驪江)에서 살았으므로 그

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사 간옹선생(艮翁先生)은 심성이기(心性理氣)의 변론은 진실로 큰일이었지만 사문(師門)과 관계된 일로는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 문장을 배척하여 물리쳐서 전옹(全翁 임현회)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진실로 평생의 사업이었습니다.²⁹ 때문에 숨을 거두시기 전 며칠 사이에 쓴 문자는 이 의리가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함께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형은 이를 본받지 않고 양쪽을 화합시키려고 하니 그 또한 성현의 뜻과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기와 편견에 지나치게 징계하려다가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심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지 않은 사심은 진실로 사심이거니와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심 또한 사심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음성의 《정절사전》에 운운한 것에 대해 비록 음성을 엄호하는 전순형(田舜衡)도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 하였고, 음성과 당을 함께 하는 권순명이(權純命)도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다시 어찌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으니 한갓 붓과 혀를 낭비할 뿐이다.”라고 한 것은 더욱 괴이합니다. 우리들의 강론은 이로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명예를 위

를 배척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여(驢)는 검다[黑]는 뜻이 있으므로 흑(黑)으로 바꾸어 소인(小人)임을 암시한 것이고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 29 우리…사업이었습니다 : 김평묵이 임현회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현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전우와 임현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 질문하여 오직 옳은 것을 취할 뿐입니다. 제 설이 고견에 탐탁하지 않다면 상대의 설을 따를 수 없고 나의 견해를 버릴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따를 수가 없고 무엇 때문에 버릴 수 없는지를 마땅히 분명히 말해서 그 곡절과 핵심을 명백하고 시원하게 해서 자신의 심사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또 도리는 무궁한 반면 사람의 식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곡(栗谷)과 우계(牛溪) 두 현인의 현명함으로도 이기를 논함에 무려 9차례의 왕복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식견으로 모든 의난(疑難)에 결단코 한 두 차례의 의논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형이 알지 못함이 아닌데도 오히려 견고하게 벽을 세우고 자신의 견해를 묵수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않으니, 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시기심이 있고 편견이 있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인식한데서 나온 단안(斷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형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형과 더불어 말할 수 없으니, 지난번에 온 시대를 돌아보면서 오로지 우리 형만 바라보았던 뜻이 혼자만의 소리였음이 절로 부끄럽습니다. 형이 이미 이와 같다면 세상에 누가 다시 나의 마음을 알아주며 나와 더불어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붓을 태우고 벼루를 깨뜨려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한 글자도 쓰지 않겠습니다. 비록 대단히 무료할 지라도 일을 줄이고 정신을 아끼는 것에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득히 남쪽을 바라보며 편지를 씌에 슬플 뿐입니다.

오사익에게 보낸 병자년(1936)

與吳士益 丙子

한갓 붓과 혀를 낭비할 뿐이라는 형의 편지를 받은 뒤부터 저는 감히 다시 이전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광(玄狂 전일중(田鎰中)이 형과 나누었던 말을 들었는데, 현광이 형과 내가 편지를 멈춘 연고를 물었더니 형이 제 편지 중에서 ‘극언운운(極言云云)’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현광이 그 본문을 찾아서 그 상하의 대거(對舉)한 내용을 상세히 말하였는데, 애당초 오진영을 압박하기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님을 형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대저 ‘극언’ 두 글자는 원래 오진영의 편지에 있는 것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극언’의 귀속처가 이와 같을 따름이고, 오진영이 마음을 먹고 이처럼 극언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자에 쓰여 있는 것이니, 제가 아무리 교묘하게 말을 놀리고 설을 꾸며서 오진영이 한 것처럼 만들어 형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형이 이미 현광의 설을 들어 알고 있다면 저는 형에게 무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리고 형은 또 현광의 편지가 있기 전에는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현광의 다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광은 모두 변고가 다 있는 사람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조정헌(趙景憲)의 편지에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 현광은 ‘모두 변한다.’는 것과 ‘곧바로 오랑캐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형도 그렇다고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소견이 모두 똑같아서 지난날의 허다한 사설(辭說)을 일소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다행은, 형의

큰 다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과 훗날을 통틀어 모두에게 커다란 다행이니, 어찌 제가 다시 한 마디 말을 하여 서로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문자를 볼 때 큰 안목과 큰 가슴으로 정밀하게 살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영서연설(郢書燕說)³⁰을 초래하여 우리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자는 이처럼 터럭 같은 견해와 사소한 문자는 설령 피차간에 완전히 명료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부지런히 변론을 일삼아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자(儒者)가 반드시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천리의 먼 것에 있지 않고 단지 터럭 끝 사이에 있으며, 거대한 일에 있지 않고 단지 근사한 글이나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미약할 때 방지하고 점점 자라는 것을 두절하는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터럭 같다고 하고 사소하다고 하면서 여기에도 도리어 명료할 수 없는데, 오히려 어찌 천리 멀리서 머리를 돌리고 천자의 지위도 험신짝 버리듯 하는 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하의 이치는 원래 크고 작음, 멀고 가까움의 구별이 없으니, 모두 안배를 하지 않더라도 천연적

30 영서연설(郢書燕說) : 원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와전(訛傳)하는 것을 가리킨다. 옛날 중국의 영(郢) 지방 사람으로 연(燕)나라 상국(相國)에게 편지를 쓴 자가 있었는데, 등불이 어둡자 옆 사람에게 촛불을 들고 말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편지에 ‘촛불을 들라’고 써 버렸다. 그런데 연나라 재상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는 기뻐하기를, “촛불을 들라는 것은 현자를 천거하여 쓰라는 말일 것이다.” 하고는 곧 임금에게 아뢰어 그대로 실천하니, 연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것은 좋았으나 원래 편지에서 뜻한 바는 아니었던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외저설좌상(外儲說左上)〉

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공공의 도리를 구하여 보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곳에서 착수를 하겠습니까? 또한 마땅히 가깝고 미세한 것이라고 해서 어지럽고 거친 대로 방치하여 마침내 천리의 오류를 불러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형처럼 고명하면 마땅히 통달하지 아니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저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얕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함이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스스로 돌아볼 때 졸렬하고 나약하여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배울 사람이 못 되며, 성질 또한 편협하여 사람을 받아들일 큰 아량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번번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마치 썩은 풀처럼 여깁니다. 예부터 사람이 미천하면 말이 가볍다는 설이 있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지고 그 말까지 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형은 지금 대체적 견해가 저하고 거의 모두 서로 합치하니, 일시의 어긋남을 또한 어찌 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내 마음의 광명에 조금의 가리는 것이 없는 것이 귀중합니다.

매번 변론에 소홀하고 배척에 느린 자를 보면 마땅히 변론하고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홀하고 느린 것은 소홀하고 느린 부정한 마음이 그 당연한 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이함을 차지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도모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게 되니,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침내 대부분 명교(名敎)의 죄인이 되니, 허다한 안배에 끝내 하나라도 실질적 효과는 얻지 못하고 이리

저리 계산만 할 뿐입니다. 오직 곧바로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죽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

예부터 간사한 무리는 일찍이 스스로 간사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일찍이 보호하지 않음이 없으면서 또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경우에는 추종자를 이용하여 그 간사함을 이루고 도리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차마 실행하기도 하였는데, 조조(曹操)가 잠자는 사이에 좌우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사마소(司馬昭)가 일이 끝난 뒤에 성제(成濟)를 죽인 일³¹ 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간사함의 가증스럽고 두려움이 또한 이와 같은데, 이 어찌 천리의 어긋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터럭 끝 사이에서 이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자가 독실하게 논하고 구차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으니, 어찌 포용하고 충후함이 오늘날의 군자보다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술을 마련해 놓지 않은 날에 이미 목에 칼을 씌우고 저자에서 도리를 돌리는 변괴를 보았던 것입니다.³² 아, 기미에

31 사마소(司馬昭)가…일 : 위(魏)나라 말 사마소가 황위를 찬탈할 마음을 품자 위제(魏帝)가 토벌하려 하였다. 이때 사마소의 부하인 가충(賈充)이 맞아 싸웠는데 그의 설득에 따라 태자사인인 성제(成濟)가 위제(魏帝)를 칼로 찔러 죽였다. 대역무도했다는 죄명으로 사마소가 도리어 성제 일족을 주살했다. 《삼국지(三國志)》 권4 〈위서(魏書)〉

32 단술을…것입니다 : 신공(申公)과 백생(白生)과 목생(穆生)이 동시에 전한(前漢)의 초 원왕(楚元王)을 섬겼는데,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왕이 알고는 주연을 베풀 때마다 그를 위해 항상 감주(醴)를 내놓았다. 그런데 뒤에 원왕의 손자인 왕무(王戊)가 사위(嗣位)하여 주연을 베풀 적에 어느 날 깜박 잊고서 감주를 한번 내놓지 않자, 목생이 “이제 떠나가야겠다. 감주를 내놓지 않은 것은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니, 떠나지 않는다면 초나라 사람들이 장차 내 목에 칼을

밝은 것이 어찌 다른 기술이 있겠습니까? 다만 털끝 같은 조짐을 잘 살피는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언어문자의 실수는 비록 대략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 후세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재앙이【전인(前人)이 “학술로 천하후세 사람을 모두 죽이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일찍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양주(楊朱), 묵적(墨翟),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은 어찌 모두 수(數)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언어문자의 잘못으로 마침내 사문(斯文)과 세상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이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피는 공부를 더욱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형이 감히 자평하여 강학(講學)에 막히는 곳이 없고 사통팔달한 것이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璉))이 성리학의 견해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선사의 밝은 식견과 풍부함으로도 매번 불초한 문인들에게 하문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형이 이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도리어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한 번 말하여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사마광(司馬光)이 위(魏)나라를 황제로 칭한 것은 본디 구사(舊史)를 따라 그대로 보존한 것에 불과했을 뿐인데, 주자는 “그 세상에 살았다면 반드시 조조(曹操)를 섬겼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³³ 이것은 또한 언어문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한 때 살피

씩워 저잣거리에서 조리를 돌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권36 〈초원왕전(楚元王傳)〉

33 사마광이…말했습니다 : 《삼국지(三國志)》는 진(晉)나라 학자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역사서로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

지 못한 소치일 뿐이었지만 마침내 만세토록 고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느 곳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형은 장차 주자가 너무 심했다고 여기지는 않겠습니까?

문성보(文聖甫)는 “불언지교(不言之敎)’는 [석농(石農)이] 마땅히 쓰지 않아야 했는데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규명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편지에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쓴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쓰지 않았다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불언지교’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니, 그 말은 쓴 것과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저들 무리들이 서로 전하는 이야깃거리이니, 근심스러운 것이 또 한 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자못 일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글을 씬에 있어서 친분이 조금 소원하면 마땅히 써야 될 글도 문득 손놀림이 더디게 되는데, 이것은 일의 형세 때문이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비추어보아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많은 일에 마음이 치우쳐서 일을 행함에 손이 더디게 된

권, 오서(吳書) 20권, 함께 65권으로 되어 있다.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보고 위서에만〈제기(帝紀)〉를 세우고, 촉서와 오서는〈열전(列傳)〉의 체재를 취했으므로 후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통감(通鑑)》은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저술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약칭으로 총 2백 94권의 편년체 역사서이다. 사마광 또한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위나라를 삼국 시대의 정통으로 삼았다. 나중에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하면서 삼국 시대의 정통을 촉한(蜀漢)으로 바꾸는 등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라 의리와 명분에 입각하여 역사를 재편성하였다.

것이지, 어찌 많은 일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더딜 이치가 있겠습니까? 도간(陶侃)은 집 바깥의 수천수만의 일이 어찌 우리들이 근래 작은 일에 분망함과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원근의 편지에 손수 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³⁴ 우리들이 일을 행함에 합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부끄럼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 더욱 추락하여 더는 깨닫지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것도 대부분 이런 부류입니다. 이는 마땅히 맹렬하고 활발하게 그 덕을 새롭게 하기를 도모하여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문자의 잘못에 대해 본래의 정신과 면목을 구하지 않고 단지 좋게 보게 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은 큰 악에 빠지는 근본이고 공평하지 않고 인자하지 않은 것이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견해로 천하후세를 다 가리고자 하여, 마치 졸졸 흐르는 샘물과 조금씩 타기 시작한 불꽃을 막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서 결국 언덕을 태우고 강물로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좋게 보게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묵씨(墨氏)의 겸애(兼愛)와 양씨(楊氏)의 위아(爲我)와 불씨(佛氏)의 견성(見性)과 육씨(陸氏)의 돈오(頓悟)와 왕씨(王氏)의 양지(良知)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의 병폐가 없는 것 같은데 예부터 성현들이 모두 좋게 보지 않게 한 것은 무엇 때이겠습니까? ‘좋게

34 도간(陶侃)은…없었습니다 : 《소학(小學)》〈선행(善行)〉에 진(晉)나라 도간은 “바깥의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누락한 것이 없었으며, 원근의 편지에 손수 써서 회답하지 않음이 없었다[閫外多事, 千緒萬端, 罔有遺漏, 遠近書疏, 莫不手答]”라고 하였다.

보게 한다.’는 말을 제창하는 자에 대해, 나는 그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 마침내 또한 그 가련함을 볼 따름입니다.

좋게 보게 하는 것은 일찍이 또한 나쁘게 보지 않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어문자 사이에서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심지어 무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배척한 자도 있었고, 또한 몰래 비방하면서 서로 문답을 끊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쪽 사람의 문자를 좋게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개 좋게 보게 하려는 마음은 바로 나쁘게 보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일관된 형세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이나, 다만 좋고 나쁨을 베푸는 것에 피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병자년(1936)

答吳士益 丙子

답장을 받고서 제가 ‘극언운운(極言云云)’이라고 논한 것에 대해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조현경(趙景憲) 편지의 ‘모두가 변하는 날이다.[皆變之日]’라고 한 것은 ‘곧바로 오랑캐가 된다.[卽夷]’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모두 현광(玄狂)이 말한 것과 같다고 했다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형에게 죄를 얻지 않게 됨을 다행이라고 여겼고, 또한 형이 그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강론을 끝마침에 마침내 더욱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형이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만약 형의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성대함이 아

나라면 또한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전일에 편견과 시기심이 없는 것으로 형을 인정하고 즐겁게 함께 논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비록 용렬하고 비루할 지라도 또한 어떻게 형에게 구하면서 억지로 떠들며 그치지 않겠습니까? 대개 음성(陰城)의 〈정절사전(鄭節士傳)〉이 믿고서 근거로 삼은 것은 오직 조현경의 편지인데, ‘모두 변하는 날’은 이미 ‘즉시 오랑캐가 된다’는 차기가 있어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그 시비득실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판명이 나서 덧붙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마침내 또 ‘대설(帶說)’이란 말로 꼭진히 비호하여 그것에 큰 장애가 없음을 찾았으니, 버린 것이 다 버리지 못하고 따른 것이 다 따르지 못해서 확연히 크게 공정하여 사물이 오면 순응하는³⁵ 사체에 해가 있음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괴이합니다. 무릇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해(害)’를 말하는데 ‘이해(利害)’라고 하고 ‘급(急)’을 말하는데 ‘완급(緩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뜻은 갑에 있는데 을을 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성이 지은 〈정절사전〉의 주의를 실로 단지 상구의 “천하가 오랑캐가 되어도 유자는 오랑캐가 되지 않을 수 있다.[天下夷而儒能不夷]”고 운운한 데 있고 하구의 “천하가 중화가 되어도 유자는 중화가 될 수 없다.[天下華而儒不能華]”고 운운한 데 있지 않은데, 형은 중점에 상구에 있고 하구는 ‘대설’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의 견해로 논하면, 상구에 “천하가 오히려 중화가 되었다.[天下猶華]”고 하고, 하구에 “천하가 곧바로 오랑캐가 되었다.[天下卽夷]”라고 하였는데, 상구는

35 확연히…순응하는 : 정호(程顥)의 《정성서(定性書)》에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크게 공정하여 사물이 오면 순응하는 것보다 더 좋음이었다[君子之學은,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라고 하였다.

오히려 느슨하고 하구는 가장 긴급하니, ‘유(猶)’자와 ‘즉(卽)’자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중점이 하구에 있고 상구는 ‘대설’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자로(子路)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부형(父兄)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염유(冉有)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³⁶ 만약 형에게 단지 진덕자수(進德自修)만을 권하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고 부정한 의론을 배척하도록 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로에게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권하고 염유에게 “부형이 계신다.”고 경계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무함을 변론하고 부정한 의론을 배척하는 것으로 형에게 권하고 진덕자수로 권하지 않는 것은 곧 공자가 염유에게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권하고 “부형이 계시다.”고 권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제가 비록 한심하지만 또한 오히려 옛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내 선을 권하는데 선후와 경중의 순서를 잃은 것으로 병통을 삼는다면 이것은 아마도 말한 사람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아울러 스스로 살피는 도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를 차지한다.[占便宜]”에서 “허다한 안배가 있다.[許多安排]”까지는 오늘날 선비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니, ‘매견(每見)’ 두 글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³⁷ 그런

36 옛날에...하였습니다 : 《논어(論語)》〈선진(先進)〉에 보인다.

37 그리고...있습니다 : 앞서 보낸 편지에 “매번 변론에 소홀하고 배척에 느린 자를 보면 마땅히 변론하고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홀하고 느린 것은 소홀하고 느린

데 형은 기어코 암암리에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 가지 모두를 범한 것으로 잘라 말하니, 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자수(自修)함에 있어서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는 바탕이 되는데 방해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이와 같겠습니까? 또한 만약 그만두지 않고 굳이 형에게 말할 것을 찾아본다면 이른바 “편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마도 조금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대개 이 음성의 <정절사전(鄭節士傳)>에 의론은 이미 대체적으로 같아졌으니, 사소한 완전히 합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깊이 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찌 전혀 뜻밖에도 형은 마침내 이른바 ‘불언지교(不言之敎)’에 대해서 “스승을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다가 갑자기 음성이 변론한 편지를 보고서 10년간 유지해온 정견(定見) 속히 바꾸고 “증거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은 아니다.”고 하여 저도 모르게 간사한 자와 당을 같이하고 스승을 무함하는 죄과에 빠졌습니다. 이 무슨 변괴란 말입니까? 너무도 괴이합니다. 형은 또 시험 삼아 오진영이가 서모(徐某)에게 준 편지 첫머리의 “문집 발간의 세 가지가 불가함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첫 번째는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비록 제가 발의하여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 앞서 여러 벗들이 의정(議

부정한 마음이 그 당연한 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편이함을 차지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도모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러 가지 안배가 있게 되니,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定)하였으며,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을 따랐 습니다.”고 한 글을 쪽 한 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불가한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한 것은 진실로 인간(認判)을 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였다.”는 것은 내가 인간할 뜻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여러 벗들이 의정 하였다.”는 것은 여러 벗들이 먼저 인간하는 의론을 정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것은 선사가 원래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합해서 말을 하면, ‘나는 처음부터 인간을 청할 뜻이 없어서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서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다만 여러 벗들이 먼저 인간의 뜻이 있어 인간의 의론을 정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랐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벗들도 반드시 인간하려는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선사가 원래 인의와 인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벗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세(語勢)와 문의(文義)가 어찌 이와 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 정신과 계교는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데 한절이 한절보다 긴요하여 차차로 미루어 나아가 선사의 신상에 이르러서는 더는 갈 곳이 없어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하여 ‘나는 원래 분명하고 여러 벗도 그러한 뜻이 아니었으며 실은 선사가 원래 이 가르침이 있었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천하 후세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천하 후세의 이 문장을 보는 자는 그 누가 선사에게 인의(認意)와 인교(認敎)가 있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의 수필(手筆)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공론(公論)을 지키는 자는 모두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단언하였고, 형도 또한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다.”고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찌 이전에는 곧았다가 뒤에는 더럽혀지고 이전에는 병이 나았는데 뒤에는 병이 도져서, 당일의 원래 편지가 본디 그 자신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단지 후에 그의 말을 꾸며서 죄를 회피한 의서(擬書)만을 믿고서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형이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선사가 명백하게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선사가 가르침이 있고 제자가 받들어 행하는 것은 본디 광명한 사업이고 진실한 도리인데, 또 “스스로 담당한 것이 부족하였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듣고 싶습니다. 또 형이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른바 의서(擬書)가 나온 것으로 말한 것에 불과했으니, 의서를 보기 전에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단죄한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몇 년 동안 긍정과 의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렸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또한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형은 이미 무함한 것으로 죄를 정한 지 10년이 된 일에 대해 오진영의 편지 한 통을 보자마자 “증거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진영이 원재(遠齋)에게 답한 편지에 “‘개(改)’한 글자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증거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선사의 원고를 고치지 않았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이미 편지를 쓰고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천리는 더욱 어두워지고 인심은 더욱 사악해져서 십 년 전의 시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함을 변론하는 의리

에 해처럼 밝고 서리처럼 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네모진 것을
 깎아서 둥글게 만들고 혼자를 두려워하여 무리에게 달려가 도도
 하게 날마다 음성의 소굴로 귀의하여 얼굴을 바꾸는 것을 꺼리
 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서는 도리어 큰 소리로 말하기
 를 “지금은 음성과 화합을 해야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
 하고, 심지어 “따름의 많고 적음으로 사리의 가부를 점쳐야 한
 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송나라 조정에서 화친
 여부를 전후하여 의견이 달랐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주자
 가 일찍이 지금과 옛날의 인륜과 인심의 밝고 바름의 여부를 가
 지고 반복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아, 오늘날의 일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형은 비록 이상의 일반 사람이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또한 의론이 나뉜 것은 있었고 운운한 것도 문성보(文
 聖甫)와 비교하면 심하였습니다. 또 “나는 반드시 놀라고 화를
 낼 것이나 미리 두려워 숨을 죽였다.”고 했으니, 그 자기의 견해
 를 자신하여 확고하게 바꿀 수 없는 뜻이 말 밖으로 넘쳤습니다.
 시세(時勢)를 굽어 살펴보고 성의(盛意)를 우러러 살펴보면 제가
 어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제 입으로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편지를 놓아두
 고 보내지 않은 것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형
 은 저에게 평범한 교분이 아니고 바로 친척이 아닌 형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또한 평범한 의리가 아니고 바로 스
 승과 제자 사이의 큰 윤리입니다. 제가 형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
 다. 제가 형을 구하는데도 따르지 않은 뒤에야 저는 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건대 옛날에 김사금(金士斌)은 제가 거듭 형
 을 깨우쳐서 마침내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다.”는 정견을 갖게 한 것에 대해 벗의 도리에 성분(性分)을 다한 것이라고 일컬으며 크게 흠복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형이 스스로 한 것이지 제가 힘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벗의 도리에 성분을 다한 것은 그랬다고 자평합니다. 그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형이 갑자기 이전의 생각을 뒤집고 선사를 무함한 당에 귀의한 큰일이 이전에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구해내지 않는다면, 이른바 전날의 벗의 도리에 성분을 다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충심을 끝까지 바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미 말할 겨를이 없거니와 또한 어찌 김사공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다시 편지를 보내어 밝게 살피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니, 우리 형은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士益 丁丑

‘불언지교(不言之教)’는 형이 처음 서모(徐某)의 편지를 보자마자 즉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옹서(壺書)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뜻은 분명히 옹서의 편지만 봤을 때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할 수 있었고 이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론이 정해진 것이 이미 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훈(田勳)의 대인설(代認說)³⁸

38 대인설(代認說) : 《간재집》 간행을 대신 인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들어 운운하였습니다. 저들이 서모의 편지가 나오기 3년 전에 대인설을 크게 써서 널리 알린 것은 형도 눈으로 익숙히 보고 귀로 넘치게 들은 것인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의심과 궁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인설을 의론이 정해진 뒤에 처음 들은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비록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체득하는 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보고 믿으라 하여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편견과 시기심이 없다는 것으로 형을 인정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형도 조금 편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또한 형이 그에게 사사로이 치우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명성과 문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에 쏠리듯 하게 하여 그 언행을 물을 겨를도 없이 먼 곳에서 서로 바라보매 단지 사모할 만한 것을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졸렬하여 문장은 볼 만한 것이 없고 명성도 들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처가 매우 가까워서 그의 과오를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단지 미워할 점만 보고 사랑스러운 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아무개가 어찌 참으로 선사를 무함할 이치가 있겠는가. 아무개가 어찌 스승의 무함을 변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저도 모르게 저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는 뜻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앞뒤가 모순되고 시종이 어긋나는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와 같다면 저는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 한스러워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감히 다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형과 제가 이와 같은 큰 시비(大是非)와 큰 분합(分合)의 날을 당하여 30년 된 오랜 친구의 정의로써 편지 한 통을 써서 충심을 바쳤으나 효과는 보지 못하면 곧장 ‘더불어 말할 수

없다.³⁹⁾는 부류로 돌리는 것은 더욱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불언지교’의 명백한 근거라고 한 것은 단지 선사가 이유흥(李裕興)에게 보낸 임술년(1922) 편지를 가지고 마치 굳게 산을 등진 것처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형이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의 28자 중에 어떤 글자가 인가를 받아내려는 뜻이 있어서 이런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시류를 쫓아가는 음성 사람도 오히려 인가받는 것을 불쾌해 하여 바다를 건너 선사의 문집을 인쇄하려고 했다고 사람들에게 과장하였는데, 선사의 도의(道義)로 문인의 원고를 인간(認刊)하고자 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은 기필코 깨끗하고 깨끗하여 본디 한 점의 흠결도 없는 선사의 편지에 음성도 불쾌하게 여기는 ‘인(認)’자를 더해서 감히 ‘불언지교’를 만들어 그가 자신의 혐의는 벗고 선사에게 전가하는 죄악을 돕고서야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형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려는 이유는 한갓 이때에 인가받지 않으면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 시법(時法)이 더욱 엄해진 날에는 바다를 건너다는 말을 앓고 본국 내에서도 인가받지 않은 인쇄가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곤암집(困庵集)》 한 책뿐입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있어서는 선사의 편지를 받은 사람인 이유흥의 《성암고(誠庵稿)》의 인쇄도 인가받지 않았으니, 선사가 그때에 인가를 받고자 했다는 말이 어찌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

39) 더불어…없다 : 공자는 “더불어 말할 만한데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더불어 말한다면 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亦不失言]”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이 슬플 뿐입니다. 음성 사람의 이른바 서모에게 주려던 편지에서 전훈의 대인설 운운한 것은 최원(崔愿)의 읍고문(泣告文)을 말한 것이고, “문집 인쇄를 범론한 것이다.”고 한 것은 김세기(金世基)의 읍고문(泣告文)을 말한 것이고, “병오년(1907)과 정미년(1908) 사이에 업자가 대신 인가받는 것을 범론한 것이다.”고 한 것은 우형근(禹炯根)의 <답현통(答玄通)>을 말한 것입니다. 옛 성인의 책으로 《시경》, 《서경(書經)》, 《논어(論語)》, 《맹자》 같은 책은 오늘날 간행하여도 옛 성인에게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목과 연호를 바꾸고서 전훈의 대인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병암집》을 의논하여 간행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음성이 이자승(李子乘)에게 답한 편지에 처음으로 전훈의 대인설을 언급하였지만 《병암집》을 의논하여 간행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재(靜齋)에게 답한 편지에는 출판업자가 스스로 인가받아 책을 간행한다고 하였지만 또한 《병암집》을 언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선사가 이유흥에게 보낸 임술년의 편지를 교묘하게 끌어대어 그 설을 이었으니, 교묘하기는 교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서의 간행이 어찌 《병암집》이 될 수 있겠으며, 병자년과 정축년 사이가 어찌 임술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대체로 그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계책을 만들고자 하여, 전에 했던 말을 돌아보지 않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억지로 말을 하면서, 우매한 자가 속임을 당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아는 자가 간사함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형은 그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근거로 삼아 실제로 여기었으니, 제가 매우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몰래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형은 또 시험 삼아 생각해보십시오. 성인 문하의 학문은 단지 인(仁)을 구하는 데 있는데, 인

을 구하는 방법은 ‘서(恕)’ 자가 큰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것[己所不欲, 勿施於人]”⁴⁰이 ‘서’를 행하는 일이고 군자의 용심(用心)입니다. 비록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모두 요순(堯舜)의 도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불의(不義)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사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⁴¹으로 여겨서 자신의 원고에 매우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뜻을 같이 하고 도를 같이 하여 심법을 서로 전하는 문인의 원고에 시행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만약 음성과 형의 설이 후세에 전하여 믿게 된다면 선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통탄하고 통탄합니다.

송약재(宋約齋)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의심과 믿음을 분별함에 정증(正證 정확한 증거)이 없어야만 비로소 방증(舛證)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한 유서(遺書)의 정증을 버리고 묘적(墓籍)을 논한 것을 취하여 방증을 삼고자 한단 말입니까? 대저 묘에 문적이 없으면 심지어 무덤을 파고 시체를 태우게 되는 우려가 있으니, ‘아픔을 참고 훈계를 버리

40 자신이…것 : 자공(子貢)이 종신토록 명심할 한마디 말을 청했을 때, 공자가 “그것은 ‘서’라는 글자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人]”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41 결단코…것 : 간재는 자손 및 제군에 고하는 글에서 “다른 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쪽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을 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비록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는 아비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명을 맹세코 지켜서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慎勿勉從也]”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

고서 어쩔 수 없이 쓴다.’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원고를 인쇄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그것을 상자에서 꺼내어 불에 태울 자가 있겠습니까? 유례(類例)가 같지 않으니 이것은 또한 방증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침내 이것으로 확대하고 미루어서 심지어 원고의 인간(認刊)과 관련한 ‘불언지교’까지 만들어낸 뒤에야 그쳤습니다. 그는 진실로 수완이 그러하지만, 형의 명철함으로 또한 감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 이것은 또한 하늘이 시킨 일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선사가 시대에 구애되고 형세에 압박을 받아 말계(末計)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사는 평소에 스스로를 대하고 남을 가르침에 반드시 제 1등의 도리로 표준을 삼았고 제 2등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말계를 논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대개 중(中)은 일정한 체(體)가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의 구애와 실제의 압박이 묘를 파내고 시체를 불태우는 변괴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한다면, 아픔을 참으며 묘지의 문적을 만듭니다. 이것이 중이 있는 곳이 되고 곧 제1등의 도리가 되기 때문에 선사가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미 제1등의 도리가 될 수 있다면 상계(上計)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말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의 구애와 실제의 압박이 없어서 만약 원고가 상자 속에 그대로 있어 아무 탈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급하게 인간을 청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사가 일찌감치 유서를 두어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욕된 것이라고 하였으니, 계책도 올바른 계책이 아니고 말계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허락하여 중을 얻어 상계가 된 것은 편하하고, 금지하여 스스로를 욕되게 한다고 하고 계책도 올바

른 계책이 아닌 것은 저지하여, 똑같이 선사의 말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경권(經權)의 표준도 없어서 전혀 이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사의 평생 학문에 대해 반드시 제 1등의 의리로 표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여 선사가 만년에 자신의 굽혀서 말계로 나아감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람을 두렵게 하여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이 스스로 담당하지 못한 것이 음성의 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미 “선사의 말계이다.”라고 하였고 또 “어찌 평탄하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후세의 큰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흠으로 여기는 것은 마침내 선사에게 있고, 음성은 다만 스스로 담당하지 않고 피하지 않은 과실만 있을 따름입니다. 선사가 이미 험난하여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서 후세의 법이 될 수 없는 말계로 사람을 가르쳤다면 본원이 이미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가 스스로 담당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곧 떳떳한 일이니, 어찌 말류(末流)에게 꾸짖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에 이르러 오늘의 시비는 남김없이 판명되어 더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일을 살피지 못하여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형은 장차 그 몸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모의 편지가 나오자 그가 고치도록 권하지 않고 곧장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으로 큰 철퇴로 쳐야 한다고 운운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가 나오기 전에는 애당초 행하설(杏下說)⁴²이

42 행하설(杏下說) : 간재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힘을 헤아려 하라.”고 명하였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있었습니다. 부풍(扶風 부안)의 여러 사람이 누차 편지를 보내 고치기를 권했지만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에는 광천(狂泉)을 여럿이 마셨다거나 내시의 불알이니 중의 상투니 하는 말로 편지 한 장을 던져서 조소하고 업신여겼으니, 이것이 어찌 권하여 고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또 행하설 외에 계화도(繼華島)에서 있었던 말로, 정재(靜齋)는 “선사가 일찍이 경성(京城) 탑동(塔洞)에서 인쇄하는 것을 인의(認意)가 있었다.”라고 하고 송병진(宋秉眞)은 “우리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면재(勉齋)와 송재(松齋) 두 문인의 과실을 전파하였고, 현암(玄岩)은 심지어 “선사가 만약 이런 뜻이 없었다면 문인들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현(愼軒)은 이를 두려워하여 의론을 제창하여 변론하고 성토하면서 형을 동지로 여겨서 몇 사람의 처음 통문(通文)에 이름을 올렸는데, 후에 형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59명의 통문 명단에서 이름을 빼냈습니다. 이때에 의론이 이미 이루어졌고 문장 또한 갖추어졌음에도 오히려 곧장 성토를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고치기를 바랐습니다. 저와 정제도 편지를 보냈으나 효과가 없었고, 대상(大祥)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최원(崔愿)과 김세기(金世基) 무리가 또 도로와 역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제창하여 “우리 선사는 원래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음성(陰城)과 진천(鎭川) 사이에 거주하는 음성을 편드는 무리는 “선사가 분명히 인교(認敎)가 있었는데 마치 다반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날뛰어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런 날에 이르러서 비록 변론하여 성토하고 싶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맹자가 “부득이해

서 그런 것이다.”⁴³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릇 이런 일은 실제로 형이 계화도와 현암을 오고 가는 날에 역력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모의 편지는, 성토를 한 뒤 3년이 지난 병인년(1926)의 겨울에 근소재(近小齋) 또한 음성이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이전에 음성을 편든 것을 후회하여 비로소 이 편지를 내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불언지교’를 자세히 살펴볼게 하였는데, 이에 더욱 행하설의 “헤아려서 하라.”는 것이 인가하는 말로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형이 이 편지를 보고, “용서(甞書)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는 바로 행하설입니다. 근소재의 이 편지가 나오자 그 효과가 먼저 형에게서 나타났다는데, 지금 갑자기 의론을 달리하니 매우 괴이합니다.】이 편지가 나왔으니 마땅히 다시 공개적으로 성토하여 [음성의]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고 한 것을 깨뜨려야 했는데, 편지의 주인을 성토하지 않고 다만 ‘대초(代草)’ 등의 설만을 성토하였고, 고소(告訴)를 당하자마자 모두가 기운을 잃어서 힘을 함께 할 사람이 없고 윤고문(輪告文)도 상자 속에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문장이 지어진 것은 정묘년(1927)이었고, 갑술년(1934) 겨울에는 현광(玄狂)이 저의 초소에 있었는데, [현광이] “이 윤고문은 끝내 그만둘 수 없는 것이지만 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수정하고 윤색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연명하여 발의하자.”라고 하였고, 정재장(靜齋丈)도 동의했지만 끝

43 부득이해서…것이다 : 맹자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맹자가 변론을 좋아한다고 일컬었는데, 맹자는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予豈好辯哉? 予不得已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

내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형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에게 고치라고 권한 것은 이미 행하설 속에 있었는데 고치게 할 수 없었고, 이른바 큰 망치로 때린다는 것은 서모의 편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있었으니, 형이 어찌 참으로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의로 이런 태도를 취하여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여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게 한 것입니까?

오호라, 저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썩고 말을 하면 이빨이 시리니, 진실로 또한 괴롭습니다. 당초에 만약 노성하고 중망이 있어서 이 일을 몸소 말아서 분명하게 변론하고 엄하게 성토하여 무함을 시원하게 씻을 몇 사람이 있었다면 저처럼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미천하며 문장이 졸렬하고 언어가 가벼운 자는 어찌 그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렇지 아니하여 온 사문(師門)을 돌아보아도 전혀 없었고, 겨우 황소심(黃小心) 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피차간 사실에 관련된 문자에 대해 또한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한심하지만 이미 선사의 제자가 된 자로서 어찌 감히 스스로 편의만을 취하여 그 책임을 사양하겠습니까. 아, 높은 갓을 쓰고 큰 허리띠를 두르고서 변론이 썩썩하고 문장은 걸출한 자가 숲 풀처럼 많지만 끝내 저처럼 자질이 졸렬하고 식견이 비루하여 가장 못난 자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였으니, 오늘날 선비의 기풍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선사는 그대 혼자만의 스승이 아닌데 그대는 어찌 홀로 수고를 하고 무함을 밝히기도 전에 원한을 보복한다는 의심을 실컷 받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고 그도 또한 내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고의로 이런 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혼란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진짜로 원망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만약 원한을 보복한다는 의심을 피하려고 선사의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움만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죄가 또 한 어찌 무겁고 크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형은 이를 듣고 그렇다고 여기겠습니까?

선사를 무함한 것을 보고도 오히려 화합한다면 죄는 처음 합한 데 있으니 기다리지 않아도 마침내 나뉘질 것이고, 선사를 무함한 것을 보고 이에 나뉘었다면 의리는 마침내 나뉘지는데 있으니 처음에 합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논할 때에 선사를 무함한 것의 조만 및 분합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처음에는 합했다가 나중에 나뉘진 것으로 죄를 준다면 이것이 어찌 일을 논하는 일정한 표준이겠습니까? 또 저의 일곱 자 몸뚱이는 저들에게 맡겨 어육이 된 지 오래됐으니, 어찌 양쪽의 문자가 한 번씩 주고받을 때마다 더욱 심해진 이후에 원수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지난번 음성의 고소를 당하여 혹독함을 두루 겪고 죽음을 맹세할 때에는 진실로 다시 우리 형과 왕복하며 토론하는 오늘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뒤미처 생각해보니 온 몸이 다 썩어해집니다.

선사 학문의 대략은 ‘명변(明辯)’ 두 글자뿐입니다.【《중용》의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하는 것은 모두 명변 공부이며, 독행도 명변한 것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⁴⁴⁾ 심성이기(心性理氣)의 변론 이외에 선사의 행사에서 찾아보면,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제

44 중용의...불과합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변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일의 의리를 삼아서 김평묵(金平默)의 뇌문(誄文)을 여러 사람의 의론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에 배척하였고⁴⁵ 이(李), 신(申), 정(鄭)을 동문으로서 함께 배운 반열에서 분리시켰으며, 임종에 이르렀을 때에도 부지런히 일삼은 것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훈계하기를 “부사(父師)의 무함을 눈으로 보고도 변론하여 성토할 줄 모르는 자는 그 몸을 칼로 자르더라도 고통을 모르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선사에게 배운 것이었고, 선사가 우리들에게 희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형은 여기에서 배우고 바란 것을 구하지 않고 마침내 다른 곳으로 가서 구하니, 저는 그것이 무슨 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성이 지령(志令)을 끊지 않은 자를 배척하여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또 자신이 직접 범하였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형이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같다면 의심스럽고 괴이하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혹 여기에 대해 모두 믿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까? 음성이 김성장(金聖章)에게 답한 편지와 음성이 김성구(金聖九)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이 여기에 있으니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 정말로 그렇다면, 김세기(金世基)가 선사를 무함하고 훈계를 저버렸다고 성토한 자는 전(田), 최(崔), 송(宋)이 아니고 바로 오진영이이며, 낙현(洛賢)을 망국(亡國)으로 배척하고 매옹(梅翁)을 위학(僞學)으로 배척한 사람⁴⁶

45 저 김평묵(金平默)이…변론하셨는데 : 김평묵이 임헌회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간재선생과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46 낙현(洛賢)을…사람 : 낙현과 관계된 내용은 《간재집(艮齋集)後編》 권6 <논인수무분(論人獸無分)>에 보이고, 매옹과 관계된 내용은 《간재집(艮齋集)後編》 권4 <여정헌풍(與鄭憲豐)>에 보인다.

을 노비가 되어 상전으로 섬긴 자는 김(金)이 아니고 바로 오진영입니다. 그러니 오진영은 어찌 김세기를 마땅히 전, 최, 송, 김을 공격하는 것발과 창을 뒤돌려서 공격해야 할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그렇다면, 오진영이 말을 놀리고 설을 꾸며서 이미 선사를 무함하였고, 반복하여 말을 바꾸어 또 무함을 성토한 사람을 저지했던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훈의 대인설 운운한 것에 대해 전에는 고서를 인쇄한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은 《병암집》이 되었고, 전에는 병자년과 정축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임술년이 되었는데, 형이 믿고서 증거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것과 한 종류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형은 바야흐로 음성을 선사보다 더 믿으니, 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김의 편지를 다시 볼 날을 기다려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형은 오히려 현광이 논한 것으로 헤아려서, 그의 의론에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다고 가설하여 비평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끝내 형을 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번에 이런 의론을 가지고 동문 한 사람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사람이 다 본 후에 말아서 한 쪽에 치워두고 더는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모두 재가 되고 피부 속에 피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와 더불어 말을 합니까? 푸른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할 따름입니다.

김세기가 제게 뒤집어씌운 죄는 지령(志令)을 종처럼 섬긴 것이 첫머리의 대제목이 되는데, 저는 혐의를 벗었고 그가 실제로 범한 것은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으니, 그 밖의 나머지 허다한 흉악한 무함은 파죽지세처럼 변론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소될 것입니다. 옛날에 직불의(直不疑)가 형수를 도적질 했다고 무

함한 자가 있었는데 직불의는 이를 변론하지 않고 다만 “나는 본래 형이 없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아, 남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가 어찌 형수를 도적질한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미를 여윈 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의가 있는지는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사익에게 보냄 정축년(1937)

與吳士益 丁丑

봄 사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맛비에 군색한 형편이 되었다고 듣고서 늦었지만 주인으로서 만류하지 않은 것이 매우 송구하였고, 저 또한 이날 출발하여 그런 군색함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들이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나 빈궁에 군색하여 한평생을 마치는데 고달픈 것이 어찌 다만 하루의 장맛비뿐이었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때마침 공교롭게 닥친 것이고 내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니, 또한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직 마음이 객기(客氣)와 사의(私意)에 군색하게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서 그 일신을 망치는 것이기에 두려울 따름입니다. 우리 형은 현재 무슨 책을 보고 현재 무슨 의리를 궁구하여 훗날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노쇠에 빈궁도 심해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문은 거칠고 허물은 쌓여서 선사가 평일에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황천에서 뵈까 매우 두렵습니다. 저 현광(玄狂)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짧은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에 임하여 어떤 사람에게 준 편지에 말하기를 “선사의 무함을 씻어내지 못했으니 죽어도 눈

을 감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비통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음성의 기세가 날마다 더욱 사납게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립한 것이 없고 노쇠하고 궁핍함이 이와 같아서 혼자 힘으로 시원하게 씻어낼 수가 없고, 또한 더욱 여러 입은 죄를 녹이고 쌓인 비난은 뼈를 녹일 지경이니, 어떻게 죽지 않겠습니까? 현광이 임종할 때의 말은 바로 저의 일인데, 다만 그가 조금 앞서 죽었을 뿐이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형이 의론을 달리 한 뒤부터 두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형이 미처 답장을 하기 전에 저의 집에 왕림하였습니다. 수계(修契)하던 밤에 한강(寒江) 이형(李兄) 및 형의 재종(再從) 노봉(露峰)과 함께 말을 나누다가 오진영의 일에 미치자 형은 대략 의론을 달리한 이유를 말하였고, 제가 변론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또한 다시 근거가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한강은 “오진영의 무함이 이미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당을 지어 보호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고, 노봉은 “인교(認敎)의 설이 있고부터 세상에서 간옹(艮翁)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니, 참으로 매우 불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들었고, 형은 묵묵히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더는 아마 말도 없이 자리를 파하였습니다. 저는 형의 명철함으로 지금 돌이켜 깨우쳐서 옛날의 견해를 회복할 수 있으면 마땅히 돌아간 뒤에 한 통의 답장 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쓸쓸히 들리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의아하고 답답하여 스스로 달랠 길이 없습니다. 대저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의론이 완전히 확정되었고, 10년이 경과하였으니 매우 오래도록 지킨 것이었습니다. 형이 만약 이러한 확정된 의론을 10년 뒤에 버리고 오진영이 선

사를 무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훈계와 상반된 ‘인교’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선사의 문자를 발견해야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물었더니, 바로 오진영의 의서(擬書) 한 장 뿐이었습니다. 그 편지 중의 명확하게 근거로 삼을 만한 것으로 형의 이른바 피차간에 유무를 다룰 것이 아니며 선사가 친히 지은 글이라고 한 것을 물었더니, 인용했던 [선사가] 이유흥(李裕興)에게 답한 편지에 《병암집(炳庵集)》을 인쇄하도록 권하였다는 26자만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편지 중에는 원래 반점의 인의(認意)도 없는데 어떻게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냐고 물으면 “이때에는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쇄하지 못한다[此時非認不印]”는 6자로 해명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오진영이 날조하여 무함하고 형이 속임을 당하여 증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편지에서 매우 분명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형은 또한 밤에 대화할 때에 제가 변론한 일단을 들어서 한강과 노봉에게 말해주고 다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형이 만약 마음으로 저의 변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옛날의 견해를 회복한다면 저 또한 형의 뜻이 있는 곳을 절로 짐작할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편지로 답장하여 표현을 해야만 서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형은 이전의 편지에서 말하기를, “석농(石農 오진영)이 앞서 지령(志令)을 서로 따른 사람에게 대해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렸다,’고 배척하였는데, 뒤에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리어 스스로 말하기를 ‘평소를 헤아려보건대 절교를 당할 죄라고 말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였습시다. 그러므로 지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차 다른 사람에

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기(陽氣)가 없음을 통탄하고, 우리 당이 더욱 고립됨을 상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같다면, 이는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의심스러워할 만하고 괴이하게 여길 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田)과 오(吳) 두 편지 사이에서 의심하며 괴이하게 여긴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차의 문자를 보았던 날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최종적인 단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의 집에서 오진영이 김성장(金聖章)에게 답한 편지에서 한 말이 과연 현광이 논한 바와 한 글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서는 이내 입을 다물고는 그의 ‘남과 내가 차이가 있고 앞과 뒤가 모순됨이 있는’ 증오할 만한 심술을 별주어야 한다는 한 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는 실로 형에게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심술이 본래 이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공업(功業)을 중시하고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않는 행동[功業爲重而不計道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홉 글자는 선사가 일찍이 오진영을 배척한 말이다】 선사의 함자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는 짓을 꺼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인교(認敎)’로 선사를 무함하는 짓을 꺼리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성토한 유감을 갚기 위하여서는 완산 검찰에 동문을 고소하여 재앙에 빠뜨리는 짓을 꺼리지 않았고, 선사의 원고를 간행하여 자신의 공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진주 경찰서에 선사의 손자를 가두는 짓을 꺼리지 않았으며, 앞서서 사람을 밀쳐냈다가 뒤에는 그 사람에게 아침하기 위해서는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렸다.’고 그 사람을 비난했다가 다시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에는 이르

지 않았다고 동정을 구걸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편지가 있다면 형은 이것을 보고서도 오히려 증오할 줄 모를 것입니다. 《과암가어(果庵家語)》와 원고를 고침에 미처서는 “이것 또한 스승을 위한 마음에서 나와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만 최선을 된다.”라고 하여 반대로 대답하였습니다. 능력을 자랑하고 견식이 많음을 과시하여 그 무리들에게 견식과 문장이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명예를 구하였기 때문에 고치고 보탠 것이 이루어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고친 죄를 벌주지 않은 것을 논하니, 이 때문에 그 마음이 선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저는 형의 의견이 한결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광에게 들었는데, 제가 〈정절사전〉을 논한 것에 대해 오진영이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형이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고 하니, 이것은 그의 심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이와 같으니, 앞서 의심이 없을 수 없었던 것이 이에 더욱 의혹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혹스러운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까지 아울러 헤아려서 비록 저의 편지에서 변론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따르지 못할 점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학문의 도는 ‘명(明)’과 ‘성(誠)’ 두 글자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성현이 후학에게 가르친 것도 이것으로 하였고, 선사가 문인들에게 바란 것도 이것으로 하였으며, 우리 유자가 서로 권면하는 것도 이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면 이른바 학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선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때에는 인가받지 못하면 인쇄하지 못한다.”는 것만 안다면, 이것은 밝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불가함을 알고도 불복한다면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는 형이 그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사 안에 있어서, 내가 만약 터럭만큼도 사람을 왜곡하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이는 객기에 군색하게 된 것이고, 형이 만약 터럭만큼도 사람을 옹호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이는 사심에 군색하게 된 것이니, 모두가 위에서 말한 두려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건대, 평생의 학문에 깊이 터득한 것은 없지만 오직 이 일에 대해서는 천지를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군색한 것도 없습니다. 형도 오늘의 변동에 대해 터럭만큼도 군색함이 없다고 자신하여 끝내 하루아침에 속임을 당하여 가지게 된 견해를 버리고 10년간 오래도록 지킨 의론을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기억하건데, 지난 봄에 현광과 함께 문하에 갔을 때 형은 권순명(權純命) 또한 ‘불언지교(不言之敎)’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권순명은 오진영의 혈당(血黨)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지금 형은 갑자기 10년간 유지해온 정견(定見)을 버리고 그를 따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형이 만약 그 마음을 치우치게 써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기기를 일종의 사람처럼 한다면 제가 또한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마음을 특히 마침내 공평하고 어질게 하여 다소 헤아리고 다소 절제하여 공정한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형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선사의 원고에 실려 있는 조경헌(趙景憲)에게 보낸 편지의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天下皆變之日]”⁴⁷이

47 천하가…날 : 간재는 조경헌에게 보내는 편지에 “세상 사람이 모두 변해도 군자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온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군자가 변하는 것은 천하가 모두 변하는 날이다

라고 한 것이 음성이 지은 <정절사전>의 “천하가 즉시 오랑개가 된다.[天下卽夷也]”는 말과 같지 않아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저의 의론을 형이 마침내 따라 준 것에서 하나의 단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형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동문이 모두 음성의 당이 된 날에 무슨 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다투어 형이 저들을 돕지 않고 나를 돕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처럼 누누이 말하는 것은 모두 형을 위하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의 이전 편지에 “선사의 어쩔 수 없는 말계(末計)이니, 어찌 평탄하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후세의 큰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처럼, 오진영을 위해 변명하는 허다한 설을 전파하고 인세를 하여 《병암집(炳庵集)》⁴⁸을 만든다면, 후세 사람들이 장차 선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를 것이며, 이 문집은 어떤 글이냐고 이를 것입니다. 형은 우선 시험 삼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현광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형에게 보낸 편지를 형이 저번에 비록 한 번 보긴 하였지만, 최후의 절필(絶筆)임을 생각하면 다만 여기에만 남겨 두고 형의 책상에는 없게 할 수 없으므로 그 원고에 올린 저본을 취하여 적어 보내니 읽어 보면 평소의 편지보다 훨씬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 말단에 형을 권면하는 말에 “만약 고쳐 도모하지 않는다면 나는 훗날에 변고가 반드시 다시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고 지나친 염

[世人皆變而君子不變，是猶無變也。舉世不變而君子變，是天下皆變之日]”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5 <답조경헌(答趙景憲)>

48 병암집(炳庵集) : 원문은 ‘斗南集’으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쓰고 뒤로 죽기 전 한 달 만에 형이 선사의 무함과 관련한 정론을 갑자기 버리고 ‘인교(認敎)’의 명확한 증거라는 편지를 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른바 말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죽은 친구가 염려한 지극한 뜻을 깊이 생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문성(文成)은 참으로 성인이었다.’⁴⁹라는 한탄을 오늘날에 자아내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암(尤庵) 송선생(宋先生)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근래 헌신(憲臣 홍수주(洪受疇))가 상소하여 이이(李珥)가 머리를 깎았다는 설⁵⁰을 제기하면서 김장생(金長生)을 끌어다 입증했다고 합니다. 신도 고(故)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의 문집을 보니, 고 지중추부사 조위한(趙緯韓)의 말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과연 신의 스승이 운운했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에 대해 늘 의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유는 바로 김장생의 고제(高第)인데, 조위한의 말을 듣고 어찌 김장생을 위하여 그것이 무함을 통렬히 변론하지 않고서 단지 이이만을 위해서 변론했겠습니까? 장유가 이이를 위해서 변론했다는 말도 명쾌하지 못하니, 신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이의 실적을 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생이 받은 무함은 변론하지 않아도 절로 밝혀

49 문성(文成)은…성인이었다 : 유성룡(柳成龍)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0만의 병사를 길러 전쟁에 대비하자는데 이이의 의견을 반대하였다가 왜란이 일어난 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문성은 참으로 성인이었다.”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율곡전서(栗谷全書)》 권35 〈행장(行狀)〉

50 이이(李珥)가…설 : 이이는 어머니인 심사임당이 죽고 나서 20살 때까지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있었다. 이 사실을 두고 남인은 이이가 불교에 귀의했다고 하여 계속해서 공격을 하였다.

질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문성공 이이는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고명합니다. … 머리를 깎았다는 설은 무망(誣罔)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이의 문집에 노숙(老宿, 중의 존칭)과의 문답을 서술하고 있는데, 노숙이 무엇 때문에 ‘조대(措大, 선비)는 속유(俗儒)가 아니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임억령(林億齡)의 시집(詩集)에도 무엇 때문에 ‘이이와 산을 유람했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설령 이이가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장생은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섭공(葉公)이, “우리 고장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증인을 셉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라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⁵¹ 가령 김장생이 과연 그런 말을 했다면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데도 헌신(憲臣)이 말하기를 ‘김장생은 학식이 고명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성립되는 말이며 성립되는 의리입니까? 조위한(趙緯韓)이 말을 한 것은 김장생을 무함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 수작할 때 잘못 듣고서 잘못 말한 데 불과하였습니다. … 또 장유(張維)가 이른바 ‘엄해서 감히 묻지 못했다.’라고 한 말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이 고(故) 참찬(參贊) 송준길(宋浚吉)과 같이 김장생의 말을 들었는데, ‘일찍이 변형(變形, 머리 깎는 것)의 여부에 대해 은미하게 울곡(栗谷)에게 여쭙어 보았더니,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진 데

51 옛날…하였습니다 : 《논어(論語)》〈자로(子路)〉에 보인다.

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했습니다. 율곡은 바로 이이의 별호(別號)입니다. 비록 절절히 해명하지 않았으나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은 절로 드러났으니, 참으로 이이의 기상입니다. 또 헌신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것은 조적(粗迹 불확실한 증거)이라서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므로 김장생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또 ‘제신(諸臣)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을 갖추 진달했습니다.”라고 한단 말입니까? 제신들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을 갖추 진달했는데도 김장생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신은 삼가 김장생을 위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이이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함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입니까. 또 조적(粗跡)이라 해서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적이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옛날 주자(朱子)가 젊어서 중 도겸(道謙)을 스승으로 삼았었지만 자신의 친구 가운데 머리 깎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엄하게 질책한 것은 물론, 그것을 금하지 않은 친구까지 아울러 배척하였습니다. 과연 김장생의 고명함으로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 이는 주자의 죄인이니, 어찌 적전(嫡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대저 말을 듣는 방법은 오직 그 의리가 어떤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장유는 갑자기 조위한에게 한 마디 말을 듣고서는 문자에 기록하여 오늘날의 구실거리를 만들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상소는 여기까지이다.】 대저 율곡이 머리를 깎았다는 설은 당시에 오히려 조적(粗跡)이어서 변론할 것이 없다고 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옹(尤翁)은 큰 일로 보고 그 무함을 통렬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른바 사옹(沙翁)이 운운

한 바가 있다는 것은 또한 조 지사(趙知事)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에 불과했지만 단지 《계곡집》을 본 자는 오히려 실제 증거가 될까 두려워하여 심지어 “모(某 이이)가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모(某 김장생)는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공자가 논한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일을 인용하여 변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모(某)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모가 당한 무함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옹이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통탄하여, 동춘과 함께 사옹이 진술한 율옹의 말을 인용하여, 조위한의 설과 장유의 문집이 믿을 수 없음을 밝히었습니다. 우옹은 이처럼 부지런히 하면서도 위로 존엄한 임금께 고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사문(師門)의 변고를 우옹이 처한 처지와 비교해보면, 선사가 인가를 받아서 문집을 인쇄하게 했다는 것은 그 긴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머리를 깎은 것이 오히려 조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선사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 음성 오진영은 문인이 된 자로서 그것을 증명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양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진영은] 스스로 “반드시 깊게 구애될 필요는 없다.”, “헤아려서 하라.”, “원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 등의 설로 편지에 쓰고 원고로 전하였고, 또 심지어 죽어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있었으니, 그 실증이 됨이 어찌 다만 다른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문집에 보이게 된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까? 이미 적전으로 자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믿고 있으니, 어찌 ‘고명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끝내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니 선사가 무함을 당한 것이 어찌 그리 심하단 말인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원하여 발간 배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유서(遺書)는 그 명백하고 통쾌함이 또한 어찌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진 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그다지 변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상이 절로 드러난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그 경중의 심함 여부가 서로 차이 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웅을 배운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에 근거하여 힘을 다해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한 두 명의 변론하여 배척해서 사우들에게 고하여 밝히면서 수고로움을 마다않는 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행동하여 일을 일으킨다고 하니, 어찌 괴이하지 않겠습니까?

백수(白水) 양응수(楊應秀)는 도암(陶庵) 이재(李穡)의 고제입니다. 그 《사례편람(四禮便覽)》〈개장조보설변의(改葬條補說辨疑)〉에【〈개장조보설〉 본문에서 이르기를 “만약 피부가 이미 모두 삭아 없어지고 단지 해골만 남아 있다면 칠성판(七星板) 사방 옆에 관 모양의 얇은 판자를 부치고 진한 황토를 체로 쳐서 채워서 해골의 최고 높이와 같게 한다. 손으로 사방 옆 판자와 가까운 곳을 미세하게 다 채워 넣은 이후에 사방 옆에 있는 판자를 제거하고 의금(衣衾)을 얹하고 결교(結紮)하기를 대렴(大斂)의 의식과 같게 한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관을 바꾸지 않고 해골만 남긴다면 먼저 관의 중간에서 체로 황토를 쳐서 해골을 모두 덮은 뒤에 면지(綿紙)를 펴서 빈곳을 채운다.”라고 하였다.】에 이르기를, “맹자가 관곽(棺槨)을 논하여 말하기를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유독 만족스럽지 않겠는가.⁵²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황토로써 그 선조의 살갓과 육신을 대신하여 그 해골을 보합(補合)하니, 이것이 정말로 사람의 도리인가. 이와 같은 불인하고 지혜롭지 못한 설을 《사례편람》에 삼입하고는 선사의 말이라고 했으니, 선사를 무함한 것이 어떠하겠는가. 아, 어찌 선사가 돌아가신 지 10년도 되지 못했는데 의리가 어두워져 막힘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박형(朴兄)은 이 조목이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도 의심스럽고 괴이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모르겠거니와 박형은 어떻게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쳤는지 알았던 것인가? 이것은 사함(士涵) 한경양(韓敬養)이 변명한 말을 보고 그렇다고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 만약 사함이 선생에게 나아갔을 때 ‘황토를 체로 쳐서 염(斂)을 채우고 관을 채운다.’는 말을 모두 기록하였고 선생이 그 자세히 갖춘 것을 칭찬하여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미 선생이 명한 것도 아니고 선생이 보신 것도 아닌데, 사사로이 보충하여 집어넣어 선생에게 크게 누를 끼쳤으니, 이것이 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설(辭說)은 서로 쟁송하는 것 같지만,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어찌 불성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저 해골을 염하고 관을 채우는데 선지(線紙)로 하지 않고 반드시 황토를 쓰는 것이 불가함은 비록

52 흠이…않겠는가 : 《맹자(孟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맹자는 “법에 할 수 있고 재물도 있으면 옛사람도 모두 좋은 관곽을 썼으니 내 어찌하여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죽은 이를 위해 흠이 살갓에 닿지 않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유독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且比化者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慼乎]”라고 하였다.

삼척동자라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형은 마침내 여러 번 선생의 눈을 거쳐서 하나도 의심스럽고 괴이할 것이 없으므로 경솔히 삭제하기 어렵다고 하니, 어찌 선생을 알지 못함이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도암의 설은 여기까지이다.】 황토로 해골을 보합한다는 설은 비록 매우 온당하지 않더라도 결국 예설(禮說)의 오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백수는 큰일로 여기고 절실하게 스승을 위하여 이런 도리가 없다고 변론하고, 심지어 이런 설을 하는 자는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선생이 눈으로 보고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문인의 증언이 있었지만 또한 믿지 않고, “선생이 과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쟁송의 혐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례편람》 중에 이 설을 삭제하게 된 것은 백수의 공로입니다. 만약 끝내 삭제하지 않게 되었으면 또한 크게 분명하게 변론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계속해서 글을 지어서 나라 안의 사우(士友)들에게 두루 고하여 반드시 결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문의 변고는 백수 때와 비교해 보면, 인간(認刊)과 관련한 무함이 도의를 무너뜨린 것은 전체가 달린 큰 관건이니, 어찌 예설에 있어 온당치 못한 한 가지 관건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른바 “홀로 앉아계실 때에 명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 없음은 문인과 함께 증명을 했음에도 오히려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경중의 심함 여부가 서로 차이 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이 선사를 존송하는 것은 이와는 달라서 아무 탈이 없다고 여겨서 이미 변론하여 밝히지도 않았고, 혹 한 두 명

의 성실하게 변론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다투고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돌려버리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오사익에게 답함 정축년(1937)

答吳士益 丁丑

답장을 받아보고 늦더위에 부친의 병환이 오래도록 낫질 않는 것을 근심하여 심지어 몸에 죄악이 쌓여 신명에게 죄를 얻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러러 염려를 하면서 이어 마음속에 감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옛날 자하(子夏)는 이치에 어긋나는 참변⁵³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은 나이 많은 노인의 일반적인 병도 우려하여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효도하고 사랑하는 간절함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반성하고 학문을 돈독히 하는 뜻도 옛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하고 평이한 군자는 신이 돕는 바이다.”⁵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써 형은 효성이 몸에 쌓여 있으니 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부친의 병환이 빨리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을 알겠습니다. 미리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53 자하(子夏)는…말하였습니다 : 이치에 어긋나는 참변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슬픔을 말한다. 자하가 그 아들을 잃고 시력을 잃자, 증자(曾子)가 조문할 때에 말하기를 “내 들으니, 봉우가 시력을 잃으면 그를 위해 곡한다.”라고 하고는 증자가 곡을 하자, 자하도 곡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禮記(예기)》〈단궁(檀弓)〉

54 화락하고…바이다 : 《시경(詩經)》〈한록(旱麓)〉에 “화락하고 평이한 군자는 신이 돕는 바이다.[豈弟君子, 神所勞矣]”라고 하였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니 이를 미루어 나가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스승과 부친은 그 은혜가 똑같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친에 대해서는 생전에 불러들이지 않았는데 이른 것이 있자 오히려 자기 죄라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돌아가신 뒤에 큰 무함을 받아서 도의를 상실하였는데도 내가 그것을 변론하지 않고 도리어 도왔으니, 이는 손상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깊이 생각하고 분명하게 헤아려 되돌아서 보아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찌 더욱 치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학문을 돈독히 해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깊어서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망령됨을 용서하고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의론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전의 편지에서 말한 것이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고 의론한 것은, 내가 웃지 않더라도 형이 또한 스스로 그 구차함을 웃을 것입니다. 이런 구차한 여러 설에 대해 하나하나 변론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면, 비록 형의 큰 아량으로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모조리 치워두고 다만 형이 받은 병통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을 취하여 단칼로 둘로 쪼개듯 하여 형이 맹렬히 반성하여 홀연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우선 그만두겠습니다. 보내온 편지 중에 “생각할 만한 하나의 단서”와 “의리가 무궁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생각이며 결국 무슨 의리입니까? 어찌 이른바 ‘대신 인가받았다.[代認]’라는 한 가지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대신 인가받았다.’라고 한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신했다는 것은 끝내 누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선

사를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자손을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문인을 대신했다는 것입니까? 선사의 ‘인가받지 말라.’는 유서⁵⁵에 이미 ‘다른 날[異時]’라고 하였으니, 이는 죽은 뒤를 말한 것입니다. 선사가 스스로 인가받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스스로 욕되게 한다.[自辱]”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글이란 마음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이 제재를 받고 조사를 당하는 것은 곧 몸이 욕됨을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글과 이 때로 한다면, 자손이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고, 문인이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며, 출판업자가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가받은 것은 자손과 문인이 인가받은 것과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사의 주된 뜻입니다. 말하자면 청원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던 막론하고, 이 글과 이 때로 청원한다면 선사의 스스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신 인가받는 것도 어찌 선사가 손상되는 것이 없다고 보아 하고자 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이 또한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⁵⁶고 하는 것

55 선사의…유서 : 간재는 자손 및 제군에 고하는 글에서 “다른 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쪽에 청원하여 발간 배포할 계획을 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비록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는 아비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명을 맹세코 지켜서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末命, 慎勿勉從也]”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5 <고제자손겸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

56 자기가…말라 : 중궁(仲弓)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은 군자가 인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은 선사의 마음을 전한 수제자입니다. 선사의 인은 결코 이와 같지 않았습시다. 그렇다면 선사가 《병암집》을 대신 인가받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과연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제자로 인하여 선사를 언급하여 심지어 《병암집》을 대신 인가받도록 허락한 것은 대고(大稿 간재집)에 대한 ‘불언지교(不言之教)’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이 속임을 당한 것도 이미 매우 가소롭지만, 저 무함한 자의 죄는 이루 다 죄줄 수가 있었습니까? 통탄스럽고 통탄스럽습시다.

“10년이 지난 뒤에 심술을 폭로하고 죄목을 낱낱이 따지는 것은 보루를 맞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음이 있다.”고 한 경계는, 뜻은 고맙지만 저를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함과 욕됨이 극에 달하여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김세기(金世基)의 흉악한 글에 대해서도 함재장(涵齋丈)이 자제와 문하생으로 하여금 통문을 돌려 대변(對辨)하게 한 일을 힘껏 저지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찌 저들 무리와 보루를 맞대고 서로 싸울 자이었습니까? 다만 형이 이미 오진영이 김세기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서도 오히려 사람을 밀치고 시세를 추종하는 그의 심술을 미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은 죄에서 빠져나오고 선사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의 심술이 처벌해야 하는 것인 줄을 결단코 모른 것이었기 때문에 인하여 그가 그동안 행했던 마음의 죄가 모두 이 편지와 같았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모두 선사와 관계된 것이고 원고 일과 관련이 된 것으로 스스로 과오를 저지른 것과 원고 일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10 여년이 지난 뒤에

라고 하였다. 《논어(論語)》〈안연(顏淵)〉

폭로하여 낱낱이 따지는 것을 했겠습니까? 이미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주를 삼았으니, 어쩔 수 없이 모두 원고의 일과 관련된 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파리장서의 일은 그 앞에 있었으니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근래에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설을 변론하여 격파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것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니,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저 형은 제가 그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일삼은 것을 모두 너무 심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교(認敎)’가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알았다면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변론을 하면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고 학자가 힘써야 할 것으로서 애당초 지나친 것이 아님을 자못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형은 선사의 마음에 대해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감히 저를 아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지런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옛 친구의 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형은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치를 봄이 극처에 이르지 않았을 때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극처에 이르렀다면 다시 무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에 다시 극처를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반대로 퇴보하여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끝내 구덩이로 떨어짐을 면하지 못합니다. “청원하여 간행 반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선사의 견해가 이미 의리의 극처에 이르러서 마치 해가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천하에 밝게 게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의 사람은 마침내 다시 의리가 무궁하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대인설(代認說)을 다시 찾아내서 선사가 이치

를 본 극처로 만들고,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씀을 도리어 도가 이루지지 않았을 때의 소견으로 만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천 길의 구덩이로 빠뜨렸습니다. 어찌 괴이하지 않겠으며,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연전에 서명옥(徐明玉)이 말하기를 “선사가 분명히 인가를 받을 뜻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이 원고를 인가받는 것을 금지한 것 같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잘것없는 작은 절개이니 어찌 군자의 대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경조(柳景肇)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꺾어버리고 그 입을 다물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난 번에 꺾어버린 자가 반대로 꺾임을 받은 자의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형은 이 일을 듣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사익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吳士益 戊寅

얼마 전에 여막에 가서 형과 40여 년간 오랜 사귀 친구로서 의례적으로 조문하고 위로를 했지만 심정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 졸곡(卒哭) 후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은 그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금년부터 온갖 병이 교대로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치지 못했던 안건을 미처 하나로 귀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진실로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열 번의 편지가 한번 만나는 것만 못하고, 형도 여막을 삼년 동안 지키면서 또한 “긴 세월에 아우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어찌 대면하여 규명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더위를 무릅쓰며 어렵게 걸어가서 하루 밤낮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혀가 닳고 입이 마르도

록 이야기하여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정견(定見)을 회복하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영재종(令再
 從) 오익부(吳翼夫)가 곁에 있으며 또한 말하기를 “만일 간옹(艮
 翁)이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크게 절의가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형은 끝내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
 다. 돌아올 때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편지로 뜻을 보여주기를 청
 하였습니다. 또 형이 과연 속히 도모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세
 월은 사람을 위해 머물지 않으니 병든 몸으로 창가에 홀로 앉아
 서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으므로 이에 편지로 질문함을 면치 못
 합니다. 스스로 조급한 것이 남에게 증오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죽은 뒤에는 또한 형을 위하여 저처럼 구제할 자가 없을 것
 입니다. 작년에 형이 마지막 편지에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10년 전에 의론도 아니고, 또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어낸 것도 아니다.’라는 저번 편지 중에 말한
 것도 아니다. 저쪽을 따른 것도 아니고 또한 이쪽을 따른 것도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
 사를 무함한 의론이 아니라면 이는 선사가 ‘인교’가 있었다고 말
 하는 것이고,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어낸 설이 아니라면 이
 는 꾸며서 지어낸 것을 증명할 것도 없고 ‘인교’도 없었다고 말하
 는 것입니다. 인교가 있다는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며, 인교가
 없다는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닙니다. 인교가 있다는 것과
 인교가 없다는 것, 선사를 무함했다고 것과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의 터럭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
 림 천하의 시비는, 이것을 따르면 저것을 위배하게 되고 저것을
 따르면 이것을 위배하게 됩니다. 이제 “저쪽을 따른 것도 아니고
 또한 이쪽을 따른 것도 아니며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

었다.”고 하였으니, 선사를 무함한 것도 아니고 선사를 무함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이에 무슨 하나의 별도의 의론이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있다고 말한다면 기발할 것이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때 고상한 의론을 듣지를 못했고 먼저 변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의(盛意)가 과연 여기에 있는지를 일전에 서로 만났을 때 형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답답했습니다. 요컨대, 이 별도의 의론을 듣고서 서로 함께 설파(說破)해야만 비로소 일이 끝날 것입니다. 어찌하여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고 다만 “천하의 의리가 무궁하다”는 말로 활시위만 당겨놓고 쏘지는 않는단 말입니까? 만약 형도 인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여 오진영이 형에게 답한 편지의 말이 화반탁출(和盤托出)⁵⁷한 것과 같다면, 저 또한 마땅히 함구하고 붓을 놓아 다시는 이 문제로 형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간과 편지글을 낭비하며 완료하지 못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리(義利)의 구분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선사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여 충고하는 뜻을 잘 헤아려 분명하게 회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선사를 무함하는 것은 큰 죄이고 사람을 무함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형이 머뭇거리다가 똑같이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귀결될까 염려합니다. 형은 제가 너무 심하여 혹여 다른 사람을 무함하는 것으로 귀결될까 염려합니다. 둘이 서로 염려하는 것이 모두 다 생각이 있는 것이니, 깊은 교분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갑자년(1924)에 화도(華島)에서 “유서(遺書)가 나왔으니 음성의 죄가 더욱 무겁게 되었다.[遺書

57 화반탁출(和盤托出) : 음식물을 소반에 차려서 들고 나온다는 뜻으로, 일체 남기지 않고 드러냄을 이른다.

出而陰罪益重”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묘년(1927)에는 ‘불언지교(不言之敎)’를 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어 “용서를 보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視籀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익중(益重)’의 ‘익(益)’자와 ‘갱각(更覺)’의 ‘갱(更)’자를 보면 유서 및 불언지교를 보기 전에 이미 그가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한 정견(定見)이 단지 10년 전 정묘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고가 출현한 시초인 계해년(1923)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때에는 제가 진실로 형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형 또한 너무 심하다고 저를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병자년(1936) 겨울에 오진영이 증거로 삼은 선사가 묘적(墓籍)을 허락했다는 것과 이유흥(李裕興)의 편지를 얻고서, “증거가 분명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고 말하고 14년 동안 지켜왔던 정견과 제가 묘적과 원고는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고 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유흥의 편지에는 인가를 받으라는 뜻이 전혀 없었고, 이때에는 또 인가를 받아 인쇄하도록 한 적이 없었다는 의론이 많아서 끝내 이치에 맞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증거가 명백하여 꾸며서 지은 것이 아니다.”는 설을 버리고 마침내 “10년 전의 의론이 아니며 또 이전 편지 중의 설도 아니다. 저쪽을 따르지도 않고 이쪽을 따르지도 않고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도로 하나의 의론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암 선생(尤庵先生)은 일찍이 “양쪽의 사이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자는 끝내 반드시 음(陰)과 이(利)와 흑(黑)으로 들어간

다.⁵⁸라고 혼계하였습니다. 제가 형을 염려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 형이 저를 염려하는 것도 의와 이, 음과 양, 흑과 백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심한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말하는 가운데에 또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저 형이 이처럼 하는 것에 대해 그 마음의 소재를 저는 실로 알지 못합니다. 이전의 견해는 거친 것이 있었지만 만년에는 더욱 정밀해졌다고 말한다면, 형은 젊었을 때에 고명함으로 세상에서 칭송하였으니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후에 이를 보았다고 한다면, 제가 변론한 것과 형이 승복한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시원하게 정견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본디 별도의 의론이 있다.”라고 하니, 그 마음의 소재를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40년의 오랜 교분으로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인류의 변고이니 내가 어찌 감히 형을 의심하겠습니까. 다만 사실에 근거하고 자취를 따르다보니 의혹이 불어남을 면하지 못한 점은 있으니, 나의 밝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할 뿐입니다. 아, 나의 덕이 믿음을 주지 못하여 사람들의 구설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매번 의리와 관계된 것으로 친밀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고하면 말은 믿음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노여움을 사서 끝내 해를 당하니, 근래에 현암(玄岩)의 일 같은 것이 또한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른바 “임금이 덕을 닦지 않으면 배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적국의 사람이 된다.”⁵⁹

58 양쪽의...들어간다 : 우암 송시열은 “대개 인정이 이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에는 음과 양이 있고, 일에는 의와 이가 있으며, 물건에는 백과 흑 이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 속에 늘 서로 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경계하라.”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 134 〈시제자손질손등(示諸子孫姪孫等)〉

59 임금이...된다 : 전국 시대 위(魏)나라 무후(武侯)가 배를 타고 서하

라는 것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또한 후회하고
 함구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끝
 내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천성적으로 타고 난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고 차마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패악과 망령됨을 보면 미워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아침에 그러한 행동을 후회했다가 저녁이면 또다시
 그러하다.”⁶⁰라고 경계한 울옹(栗翁)의 말에는 비록 부끄럽지만,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仁)을 알 수 있다.”⁶¹라고 한 공자(孔
 子)의 가르침은 또한 생각해볼 만합니다. 또 형은 본바탕이 자애
 롭고 어질며 마음 씹씹이가 공평하고 용서를 잘합니다. 말을 하
 면 믿음을 받는 것은 비록 기필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여움을 당
 하고 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형이 내 마음
 을 알아주는 벗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마음을 놓
 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사의 원고를 고치는 것은 또한 어떠한 대죄입니까. 다만 인
 가받았다고 무함함으로써 선사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항상 뒤가 되었을 뿐입니다. 일전에 형이 진주

(西河)의 중류(中流)를 내려가다가 오기(吳起)를 돌아보고는 산천이
 험고한 것이야말로 위나라의 보배라고 자랑하자, 오기가 “사람의 덕
 에 달려 있지, 산천의 험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통치자가 덕
 을 닦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적국의 사람이 될 것
 이다.[在德不在險, 若君不修德, 舟中之人盡爲敵國也]”라고 대답한 고
 사가 전한다. 《사기(史記)》 권65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60 아침에…그러하다 : 《격몽요결(擊蒙要訣)》 〈혁구습장(革舊習章)〉에
 보인다.

61 허물을…있다 : 공자는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무리에서 나오는 것
 이니, 허물을 보면 인을 알 수 있느니라.[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이인(里仁)〉

본(晉州本)이 수정본(手定本)을 고쳐서 선사의 예의(禮意)와 사실(事實)을 어지럽힌 것을 눈으로 보고 비로소 그 원고를 고친 죄를 알았습니다. 이미 그 죄를 알았다면 성토하고 변론해야 했고, 변론하고 성토할 수 없으면 또한 그만두어야 했는데, 마침내 한 장의 종이에 별도로 쓰기를 “장차 권순명(權純命)에게 묻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권순명과 오진영이 만약 “이리 고쳐야만 완벽하다.”고 한다면 형도 장차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형의 마음 씀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심히 복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만약 본문을 완벽하다고 여긴다면 선사의 문장을 고칠 이치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이치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형과 제가 선장(先丈)의 시고(詩稿)를 받들어 읽고 그 온당하지 못한 글자가 있더라도 끝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진영이가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에 대해 변론하고 성토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물어서 그 설을 듣고자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뜻입니까? 형이 제가 오진영을 변론하는데 힘쓰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정력을 공부에 옮겨 쓴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형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是非)를 밝히고 사정(邪正)을 분별하여 격물치지를 기르는 것과 사문(師門)의 도리를 보호하고 제자(弟子)의 직분을 닦아서 윤리를 다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 외에 공부로서 학문을 하는데 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진영이 지산(志山)을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꼭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갑자기 관계를 끊었다가 갑자기 달라붙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 혹은 사람을 빠뜨리는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유혹하려는 계제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심술(心術)의 교활하고 험악함이 이와 같고 보면, 그가 인설(認說)에 대해 이미 불가하다고 여겨 자기 죄에서 빠져나갔다가 곧이어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선사에게 죄를 씌운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대체로 근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래 북도(北道)의 동문 천하운(千河運)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와 천하운이 말을 나누다가 오진영의 편지에 인가를 받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고 하였다가 또 “원래 선사의 불인지교를 따랐다.”고 운운한 대목에 이르자, 천하운이 말하기를 “이런 이유로 나 또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고 한 것은 바로 내가 “그의 말로 인해서 그의 죄를 정하였다.”고 말한 뜻입니다. 저 먼 고장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 공론이 있었습니다. 형은 호남에 살면서 이 중의 의리를 익히 들었고 그의 정상을 깊이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저의 변론이 비정하다고 하니, 진실로 무슨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문(斯文) 이기완(李起完)은 자(字)가 원호(元浩)이고 임실군(任實郡)의 명망있는 선비입니다.【지금 재종제(再從弟) 오해준(吳海準)의 처종형(妻從兄)이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남원(南原) 월곡(月谷)의 정모(丁某)는 나의 종질(從姪)의 사위입니다. 정모가 ‘오석농(吳石農)이 나를 보고 <선사가 원래 원고를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 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내가 듣고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모에게 말하기를 ‘나도 일찍이 간옹을 모시며 덕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간옹이 어찌 이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운운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기

완은 문인이 아닌데도 오히려 간옹의 마음을 알아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문인으로서 음성의 무함을 미워할 줄도 모릅니다. 아, 사람의 견해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작년에 오진영이 송병진(宋秉眞)에게 “선사가 평소에도 원고를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무개의 말과 모종의 일을 인용하여 증명을 하자, 송병진이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간옹도 파쇄당할 것이다.”라고 하니, 오진영이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산(惺山) 임종두(林鍾斗)가 송병진에게 듣고 변문(辨文)에 올린 내용입니다. 오진영의 무리는 “송병진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리고 숨겼습니다. 지금 그가 정모와 나누었던 말을 들으니, 이는 그가 다반사처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병진에게 한 말도 숨길 수 없었으니, 만약 성토하는 군인을 지금 풀어 놓는다면 정모와 나누는 말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려 들 것입니다. 변론하고 성토하는 공로가 이와 같은 자가 있는데도 알고 있는 자가 매우 적으니, 진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형은 매번 ‘강태결(姜泰杰)이 기소한 일은 어찌 음성(陰城)이 시켜서 한 것이겠는가. 자취를 살펴보고 실상에 의거해보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의 말씀과 같다면, 정재장(靜齋丈)이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어찌 검국(檢局)에 들어가서 강태결을 증명하는 편지가 되었겠습니까? 오진영과 가장 친밀하다는 권순명(權純命)은 어찌 검국(檢局)에 들어가서 강태결(杰)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물며 강태결은 오진영의 문인으로서 “오진영의 명을 받들어 인쇄한다.”고 했던 말이 강태결의 광고문(廣告文) 중에 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늘 이와 같은 곳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이 저가 따를 수 없는 곳입니다.

“선장(先丈)의 문자 일은 앞뒤의 의론이 서로 다름을 면치 못한 것은 혹 효사(孝思)에 유감이 될까 해서 편지 서두에 ‘송(悚)’자를 썼던 것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 소견을 고치고 이치를 따르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것에 모두 탄식하고 우러르니, 매우 성대하고 매우 성대합니다.” 이는 연전에 오진영이 저에게 답장한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전표(傳表)를 희롱하여 그에게 수정을 당한 것이 지금 그가 이 편지 중에 “앞뒤의 의론이 서로 다름이 송구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전표의 혐의 때문에 의리를 빌려서 보복하기를 지금 그가 이 편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우러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다면 또한 그가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이는 또한 마땅히 그의 앞선 편지 중의 말로 지금 사람을 무함한 죄를 다스려야 할 뿐입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士益 戊寅

이달 초에 고창(高敞), 무장(茂長) 등지로 조문을 갔다가 10여 일 만에 돌아왔더니, 보내주신 편지가 먼지가 덮인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바빠 놀려 열어서 읽어 보니, 바로 3년 동안 끝나지 않은 안건이 하루아침에 정해지고, 여러 차례의 편지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의혹이 한 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중대하여 그대로 그만둘 수 없던 것이 오늘 이후로는 같은 의견으로

귀결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기쁠니까. 아, 이 기쁨은 공적인 것이기도 하고 사적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때의 이러한 기쁨은 선사의 명령계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형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감히 억지로 따르지 못한 것이지 애초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심이 풀려 형을 따르게 되었으니 형을 아는 것이 틀림없이 더욱 견고해져서 10년 전에 논쟁했을 때와 같은 뿐만이 아닙니다. 가부를 살피지 않고도 한결같이 견해가 같은 것을 보게 된 만큼 그 기쁨이 오히려 다시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대개 형의 본 바탕이 매우 높아서 범공(范公)의 이른바 “그 중하게 여긴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⁶²과 퇴계(退溪)의 이른바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사사로운 뜻이 없다.”⁶³라고 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제가 그 사이에서 힘을 쓴 것은 아니고 바로 벗 사이에 강마(講磨)한 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잘 것 없는 편지를 보냈는데 훌륭한 편

62 범공(范公)의…것 : 범공(范公)은 범조우(范祖禹)를 가리킨다. 주희가 범조우에 대해 논한 내용 가운데 “일이 일어난 당시에 판별하지 못하고 몇 해 뒤에야 밝혔으니, 이는 강단이 부족하여 정이(程頤)와 소동파(蘇東坡) 양쪽 모두를 따르려는 사심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중하게 여긴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의리의 공변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不能辨之於當時，而發之於數年之後，此則剛強不足，不免乎兩徇之私者。而其所重在此，故卒不能其義理之公也]”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朱子大全(주자대전)》 권35 <답여백공(答呂伯恭)>

63 뜻이…없다 : 이황의 <답기명언(答奇明彦)>에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피차에 사사로운 의도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로 일치할 날이 있는 것이니(志在明道，而兩無私意者，必有同歸之日.)”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집(退溪集)》 <답기명언(答奇明彦)>

지로 답장해주신⁶⁴ 성대한 은혜를 감히 감당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너그럽고 부드럽게 잡아주시면서 연연해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병에 따라 약을 주신 것이라서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있으니 어찌 입으로만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힘을 쓴 것에 대해 “그의 공격에 보복하고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고, 마침내 “한 번 주먹으로 치고 한 번 발로 차다가 죽게 되더라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은 절대 사군자의 도는 아니다.”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아! 저의 병통을 깊이 아시는 안목으로 오히려 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옹(尤翁)이 박화숙(朴和叔)에 대해서, 선사가 신앙여(申仰汝)에 대해서 때면 ‘스스로 편의(便宜)를 차지하고 사설(邪說)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망했습니다. 내가 만약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어찌 일찍 박화숙과 신앙여가 스스로 편의를 차지한 태도를 배우지 않고 애써 이렇게 하면서 생사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스승이 있다는 것만 알고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내 몸과 관계된 것은 일체 일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김세기(金世基)의 흉악한 무함에 대해서도 저는 함재장(涵齋丈)이 사람을 시켜 통문을 돌려 대변(對辨)하도록 한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이 근래에 알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제가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며 저버리지 않으려 한다고 하십니까?

64 보잘 것…답장해주신 : 원문은 ‘得瓜報瓠’이다. 《시경(詩經)》〈목과(木瓜)〉에 “나에게 목과를 주거늘 경거로써 갚는다.[投我以木瓜 報之以瓠瓠]”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거(瓠瓠)’는 상대방의 시문을 뜻하고 ‘목과(木瓜)’는 자신의 시문을 뜻한다.

오사익에게 답함 무인년(1938)

答吳士益 戊寅

지난번에 사원(祠院)에서 제사 때에 생것을 올리는 것과 익힌 것을 올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일찍이 〈교특생(郊特牲)〉을 상고해 보니, “교제(郊祭)에는 피[血]를 올리고 대향(大饗)에는 생고기[腥]를 올리고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爛]를 올리고 일헌(一獻)의 제사에는 익은 고기[熟]를 올린다. 지극히 경건한 제사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氣臭)를 귀하게 여긴다.”⁶⁵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註)에, 장락 진씨(長樂陳氏)는 “예에서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 가장 후중하고, 천연에 가까운 것이 다음으로 후중하며, 인위에 가까운 것이 약간 박하고. 완전히 인위적인 것은 가장 박하다. 피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고, 생고기는 천연에 가까운 것이며, 데친 고기는 인위에 가까운 것이고, 익힌 고기는 완전히 인위적인 것이다. 교제와 대향은 항상 삼헌의 의례보다 중시되는데, 어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 엄릉 방씨(嚴陵方氏)는 “일헌의 제사에 익힌 고기를 올리는 것은 진미를 올리는 것이다. 진미 자체가 공경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피 · 생고기 · 데친고기의 지극함만은 못할 따름이다. 경문에 ‘피,

65 교제(郊祭)에는…여긴다 :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대로에는 번과 영이 1취이고, 선로에는 3취이며, 차로에는 5취이다. 교제에는 희생의 피(血)를 바치고, 대향에는 생고기(腥)를 바치며,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爛)를 바치고, 일헌(一獻)의 제사는 익힌 고기(熟)를 바친다. 지극히 공경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大路繁縷一就, 先路三就, 次路五就. 郊血, 大饗腥, 三獻爛, 一獻熟, 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라고 하였다.

생고기, 데친 고기를 올리는 제사는 그 기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냄새는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취(氣臭)’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악기(樂記)>에는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⁶⁶고 하였습니다. 그 주에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바치는 것은 고대에 피와 생고기로 제사하는 것이 예의 본래 취지를 얻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대부분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의 생기(生氣)를 빌리고자 해서이다.”고 하였고, 또 “귀신에게 생물을 사용하여 제사하는 것은 모두 이 생기를 빌려서 영험함을 삼은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설들을 참고해서 헤아려 보면 그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은 제사의 대 중 소를 나누지 않고 말한 것이니, 이는 자손이 부조(父祖)를 제사 지낼 때에도 생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특생>에서는 교제, 대향, 삼헌, 일헌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피, 생고기, 데친 고기, 익힌 고기로 올리는 것을 정하여 각각 그 용도가 있게 한 다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제(大祭)와 중제(中祭)에 있어서도 더욱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원의 제사는 성묘(聖廟)의 다음이니, 제사 중에서도 지극히

66 희생물...아니다 :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왕자가 공덕을 이루면 음악을 만들고, 다스림이 안정되면 예를 제정한다. ...방패나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제대로 갖춰진 이 아니며,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 [王者功成作樂, 治定制禮 ...干戚之舞, 非備樂也; 孰亨而祀, 非達禮也]”라고 하였다.

경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정리와 경건을 아울러 표하는 조상의 제사에도 오히려 생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적으로 경건을 위주로 하는 선현의 제사에는 〈교특생〉과 주설(註說)의 뜻을 의거하여 생고기를 쓸 수 없겠습니까? 혈기가 대대로 전해지는 조상의 제사에서 오히려 다른 혈육의 기운을 빌려 영험을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외신(外神)의 제사에 혈육의 기운을 쓰지 않고서 영험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예로부터 사원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미 사우를 건립하였으니, 제물을 올릴 때에는 마땅히 생고기를 올려야 하고 익힌 고기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음성 사람의 일은, 형의 편지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전 견해를 도로 지키겠다.”고 하였으니, 이미 죄명을 완전히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그를 대처하는 것이 일체 이를 준거로 삼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겉으로는 끊어졌으나 안으로는 이어진 뜻이 있으며 못을 부러뜨리고 쇠를 자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단절하는 기상은 부족합니다. 언행일치의 뜻으로 볼 때에 어떠합니까? 후인들의 비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에 대해 형은 처음에는 깊이 믿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올 여름에 제가 용동본(龍洞本)과 진주본(晉州本) 두 본을 대조해 보인 뒤에 깊이 믿고서 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습시다. 동짓날에는 또 그가 선사의 원고에 많이 손을 댄 것에 대해 새벽에 일어나서 서로 말을 나눌 때 깊이 개탄하였습시다. 그러나 아직도 변론하여 배척하는 하나의 글도 없습니다. 가령 이 일이 동문 중의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형 또

한 계속 침묵하였겠습니까?

제 자식 형태(炯泰)가 전주(全州)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전일순(田鎰純)에게 들었는데,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 유허비(遺墟碑)의 전면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대인(大人)께서 주장했다는 설이 고동시(高東是)의 입에서 나왔고 권순명(權純命)의 말이 있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서 “이제 또 하나의 죄안(罪案)이 생겼지만 놔두고 다시 말하지 않겠다. 다만 헛소문이 크게 일어나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는 음성의 무함을 실컷 받았고 김세기(金世基)의 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도 알 만하니, 단지 조용히 받아들이 뿐입니다. 다만 형이 제가 당한 곤욕을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유허비와 일과 관련된 저의 글과 김윤삼(金允三)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드리니,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김윤삼 속식(金允三 鍊植)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 무인년(1938) 10월

金允三鍊植與高東是書附 戊寅十月

운운. 다만 한 마디 우리러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 문정공의 유허비에 대해 전면을 갈고 다시 새기자는 말이 저의 친족 종현(鍾賢 김택술)에게서 나왔다고 무함하는 설이 사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그 소문의 출처를 물었더니, 내가 그대에게 전했고 그대가 사우(士友)에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그대와 만난 것이 작년 4월이었고 이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으며, 더구나 일도 사실이 아니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초 전면을 갈아서 다시 새기자는 의론이 한쪽에

서 나왔으나, 저의 친족 종현이 불가함을 힘껏 주장하여 심지어 조상을 폄하하고 스승을 높인다는 배척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긴 뒤에 또 복구하는 한 가지 일로 종중(宗中)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은 우리 친족 전부 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대가 나에게 들었다고 하면 사람을 무함한 죄가 어느 곳에 떨어지겠습니까? 시비가 달린 일이라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이에 편지를 보내니 즉시 회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士益 己卯

편지에 형과 저가 음성 오진영을 대처하는 방법이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인성(人性)의 강유(剛柔)와 완급(緩急)이 서로 달라서 한 판에 찍어낸 것과 같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면 혹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사를 무함한 행위가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또한 장차 저로 하여금 형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배척을 당한 날에 마땅히 즉시 태도를 바꿔 사과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죽더라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작년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 또 “선사가 참으로 천지가 청명한 날에 간행할 뜻이 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니, 이에 형은 비록 그를 보호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진영이 고치고 삭제한 것을 변명한 선사의 원고 가운데 신혁균

(申赫均)에게 보낸 편지를 적어서 보여주었는데,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그의 심술이 증오할 만하다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선사가 일찍이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에는 미호(溪湖 김원행(金元行))의 전례에 의거하여 성복(成服)하고 수취(受衰)⁶⁷하였지만, 순명비(純明妃 순종(純宗)의 비(妃) 민씨(閔氏))의 상(喪)에 이르러서는 수취하지 않고 다만 백의(白衣)에 백립(白笠)으로 성복했던 것은 예(禮)에는 원래 복(服)이 없고 임금이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입으면 예에 어긋나는 것이고 복을 입지 않았다면 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에 예와 명의 사이에 참작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던 것이니 그의 의리는 정밀하고 그 뜻은 깊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례(變禮)에 처하여 합당하게 처신한 것인데, 그의 말처럼 스스로 사민(士民)과 똑같이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헌균에게 답한 편지에 말하기를 “지금은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된 경우로 대상(大喪)과 내상(內喪)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복하는 날 단지 백의와 백립만 착용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만약 복이 있어서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한다면 성복하는 날 나는 마땅히 전날의 국상처럼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백의와 백립을 착용할 따름이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미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한다.”는 말이 한 글자도 없고, 아울러 “스스로 사민과 함께 한다.”는 뜻도 한 점이 없는데, 감히 말하기를 “전에는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수취하였고, 뒤에는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여겨 수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찌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여(相與)’의

67 수취(受衰): 상례(喪禮)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슬픔을 줄여 나가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거친 것에서 점차 고운 것으로 바꾸는데, 옷을 바꾸어 새로 지어 입는 것을 ‘수취’라 하며, 수취는 ‘수복(受服)’이라고도 한다.

‘여(與)’ 자 옆에 ‘흠(欠)’ 자를 붙여서 어조사인 ‘여(歟)’ 자를 만들고, ‘백의립(白衣笠)’ 운운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취를 행한 문장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원고를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는 곳 곳마다 선사를 무함하였으니 어느 곳인들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 갑진년(1094)을 생각해 보면, 선사의 춘추가 64세로 근력이 강건하여 호남 수 백리 밖에까지 출행하였습니다. 명헌황후(明憲皇后 헌종의 계비)의 상(喪)에 받은 최복은 상자에 담아서 도중이라도 매달 삭망(朔望)에는 복을 입고 망곡(望哭)을 했습니다. 이는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에 갔던 날에 형과 나 그리고 여러 인사가 모두 똑같이 보았는데, 순명비의 상이 바로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선사가 ‘지금은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한 것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비슷하겠습니까? 옛날에 ‘조자룡(趙子龍)은 일신이 모두 담(膽)이다.’⁶⁸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오영진은 일신이 모두 무함입니다. 이럼에도 형은 오히려 그사 선사를 무함한 것이 무심한 데에서 나왔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吳士益 己卯

저는 나이가 60세에 가깝고 질병이 날로 침범해서 수명이 다 되었으니, 설령 올해 속히 죽더라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68 조자룡은…담이다 : 자룡은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용장인 조운(趙雲)의 자이다. 조운이 담대한 작전으로 조조(曹操)의 대군을 물리친 자 유비(劉備)가 “자룡의 일신은 모두가 담이다.[子龍一身都是膽]”라고 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68

오직 죽기 전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하나라도 잘못 보거나 의리가 아닌 일을 하나라도 잘못 행한다면 끝내 지하에서도 한이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제 자신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동인(同人)의 착오(錯誤)를 보면 차마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없는 것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여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체로 친구 간에 서로 도와주는 도리를 말씀드리면, 봉우 간에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주는 것⁶⁹은 《주역》에 드러나 있고, 친구 간에 충심으로 말해주고 인덕으로 돕는 것⁷⁰은 것은 《논어》에 보이며, 덕업을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경계하는 것⁷¹은 《여씨향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배우는 사람을 보면, 충심으로 고해주고 과실을 바로잡아주는 한 가지 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말세에 봉우의 도리가 사라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남과 나 사이에도 끝내 피차의 구분이 있어서 모두를 똑같이 보는 인(仁)이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또 증자(曾子)의 삼성(三省)⁷²을 생각해 보면,

-
- 69 봉우…것 : 《주역(周易)》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붙어 있는 못이 태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봉우들과 강습한다.[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라고 하였다.
- 70 친구…것 : 《논어(論語)》 〈안연(顏淵)〉에 “벗들끼리는 충심으로 말해주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忠告而善道之]”는 공자의 말과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보강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는 증자(曾子)의 말이 보인다.
- 71 덕업을…것 : 여씨향약(呂氏鄉約)은 송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등 형제 네 사람이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덕과 업을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허물과 그른 일을 서로 경계하고[過失相規],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근심스럽고 어려울 때 서로 구한다[患難相恤]는 네 조목인데, 후세 향약의 기준이 되었다. 《소학(小學)》 권6 〈선행(善行)〉
- 72 삼성(三省) :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증자는 “나는 날마다 세

첫째는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謀人不忠]’이고, 둘째는 ‘벗과 사귀에 신실하지 못한 것[交友不信]’입니다. 대부분 한결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을 보듯 하는 것은 보통의 인장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하였지만 또한 후학을 면려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논해보면, 친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남일 보듯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불충(不忠)이고 불신(不信)입니다. 제가 근일에 실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인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형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으며, 다른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선사에 관계된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음성 오진영의 일에 대해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견(定見)을 도로 지키게 되었으니, 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그렇게 여겼는데,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무함이라고 말했다면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함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당 그것을 고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치지 않은 것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먹고 선사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도모해 줌에 충성스럽지 못하였는지, 친구와 더불어 사귀에 신실하지 못하였는지, 스승에게서 전수받고 익히지 못하였는지 하는 것이다.[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라고 하였다.

를 해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한 마디 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가 우연히 옛날 상자를 열었다가 형이 병인년(1926) 겨울에 보낸 편지를 찾았는데, “그의 초심이 비록 이론을 그치게 하여 선사의 원고를 간행하려는 데에서 나왔지만 선사를 해치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옛날을 끌어다가 지금을 증명함에 자신이 말한 것이 성립되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선사가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⁷³”라고 말하는 극도의 지경에 이르고서야 그쳤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록 선사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끝내는 바뀌어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 의론은 또한 자못 바름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미 정견을 도로 지키면서 유독 이 의론을 버렸으니, 괴상할 따름입니다. 이미 금산(錦山)의 오(吳)가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제가 변론한 것을 보고 뒤따라 즉시 변론하여 한 편의 글을 지었으니 선사를 보호함에 새매가 참새를 쫓듯이 하는 뜻⁷⁴이 있었음을 우리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은 외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보다 크고, 선사의 뜻과 절개를 무함하는 것은 의론의 다툼보다 중대하니, 어찌 금산의 오를 변론한 것을 가지고 음성의 오진영을 먼저

73 선사가…말씀하였다 : 후창이 갑자년(1924)에 김윤승에게 답한 편지를 참조하면, 오진영은 오사익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오현수언(五賢粹言)》을 인가한 설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표준을 세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라고 하였다. 《後滄集》 권7 〈답김윤승(答金允升)〉

74 새매가…뜻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기사에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새매가 참새를 모는 것처럼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見無禮於其君者，誅之如鷹鷂之逐鳥雀也]”라고 하였다.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 살아서 친근한 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 소원한 자는 쉽기 때문에 형의 현명함으로도 또한 세태에 빠진 것입니까? 아, ‘성사심제(性師心弟)’는 본디 성인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사설(邪說)이 바른 것을 해친다는 죄목을 억지로 씌웠습니다. 하물며 제자의 입에서 나와 믿을 만한 것 같은 인의(認意), 인교(認敎)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또한 어찌하겠으며, <전간재전(田良齋傳)>을 짓는 자가 어찌 이승욱(李承旭)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저는 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위원리(魏元履)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개하는 날⁷⁵과 같이 되면 음성을 비호한 제공(諸公)의 죄는 사양할 수 없을 것이고 구구한 저의 오늘날 변론도 [죄를 묻는데] 혹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의 생각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저의 앞선 편지에 갑진년(1904)에 선사가 순명비(純明妃)의 복제(服制)에 대처한 것을 가지고 운운한 바가 있었는데, 오진영의 편지에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衰服)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한 말이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주로 말하였고, 아울러 형과 내가 함께 보았던 선사가 그 해의 명헌황후(明憲皇后)의 상에는 최복을 입고 망곡(望哭)했던 일을 가져와서 증명하였습니다. 또 오진영이 [선사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與)’ 자를 ‘여(歟)’ 자로 고치고 그 이하 18자를 삭제하여 수최(受衰)를 행한 문장으로 만

75 위원리(魏元履)가…날 : 향인(鄉人)이 호문정(胡文定)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자 진준경(陳俊卿)과 진양한(陳良翰)이 작은 절개를 꼬집어 의심하니 위원리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노하였다고 한다.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筭)》 권10

든 것⁷⁶이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임을 말하고, 사실(事實)을 변란하고 예의(禮意)를 어둡게 했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곧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친 사실을 빠뜨리고 답을 하지 않고서 다만 ‘수취하지 않고 다만 백의와 백립을 착용을 따름이다.’는 설을 들어서 “성론(盛論)이니, 진실로 그러하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 견해도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에 편지로 힐문하였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이는 진실로 개탄스럽다. …”라고 하여, 마치 오늘날 예설(禮說)을 뒤미처 강론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선사를 무함하여 60세에 부모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망언을 하고, 선사의 원고를 고쳐서 예(禮)와 명(命)을 참작하여 중도의 맞게 한 의리를 명료하지 않는 것으로 돌린 자에 대해 감히 배척할 만하고 증오할 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렇지만 형의 명철함으로 어찌 여기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습니까? 다만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⁷⁷ 두 장에 공부가 지극하지 못해서이니, 여기에 더욱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주자가 여백공(呂伯恭)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이 번갈아 일어나고 그 외의 분분한 것은 진실로 우선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백공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오히려 익숙히 보고 들은

76 오진영이…것 : 전우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에 “今則無服而爲有服, 與大喪內喪有間, 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已矣”라고 하였는데, 오진영은 이를 “今則無服而爲有服歟”로 고쳤다는 것이다.

77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 : 성의장은 《대학장구(大學章句)》전 6장을 가리키고, 호변장은 《맹자(孟子)》〈등문공하〉의 호변장을 말한다.

것에 안주하여, 사람들이 경전을 왜곡하고 성인을 무함하여 제멋대로 이설(異說)을 일삼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또한 무슨 마음으로 자기 한 몸을 위하는데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한 세상의 혼미함을 깨우치는 일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에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찌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당하여 우리 사익(士益)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문인들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쳐서 제멋대로 간사하고 패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깊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자는 진실로 또한 무슨 마음으로 스스로 편의에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변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문 군자 가운데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있다면 저도 또한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또 저가 유독 형에게만 언성을 높이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살펴보면 듣기를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았으니, 형의 잘못입니다. 젊었을 때에 산재(山齋)에서 서로 선생과 제자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공부했던 일과 30년 동안 영계(瀛契)에서 서로 손님과 주인 역할을 하면서 우호를 다졌던 일을 어찌 생각지 않습니까? 비록 교묘한 자가 사이를 벌리려고 해도 벌릴 틈이 없고, 불화를 만들려고 해도 붙잡을 자취가 없으니, 그 친함이 어찌 다만 동문과 옛 친구이기 때문일 뿐이었겠습니까? 저는 늘 망령되게 고인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⁷⁸을

78 고인의...생각 : 전우가 김동훈에게 보낸 편지에 “고인이 말하기를 ‘저가 하루라도 나를 스승으로 섬겼다면 그 평생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또한 정이 중한 벗에게 미루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문(師門)에 변고가 있기 전부터 일찍이 이미 일이 있을 때마다 곧장 경계하였고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날의 마음이 도움을 청하고 당을 도우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형의 사람됨이 일종의 자기 견해만 옳다 하거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무리와 같다고 한다면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세상에서 서로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은 공정하고자 하고, 견해는 정밀하고자 하며, 의론은 반복해서 중정(中正)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호남과 음성 사이에서 상세히 살펴서 가부가 없하고자 하다가 제가 ‘불언지교(不言之敎)’로 질문하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지은 뒤에 의론에 해가 없고 저의 변론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인하여 견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진영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의서(擬書)에 말을 바꾼 것을 보고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또한 선사를 무함했다는 옛 견해를 도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투약하고 효과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위로한 자로는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을 보고 기꺼이 말씀을 드렸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세 번 생각한데 따른 의혹⁷⁹과 재차 해

책임진다.’고 하였다.[古人言彼一師我. 其平生成敗榮辱, 俱我任之]”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4 <시김동훈(示金東勳)>

79 세 번…의혹 : 노(魯)나라 계문자(季文子)가 어떤 일이든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한다.[三思而後行]”라고 하자, 공자가 “두 번이면 된다.[再斯可矣]”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아린 데 따른 잘못⁸⁰이 없을 수 없어서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을 만들어 “처음에는 비록 무심하였으나 끝내는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는 이전의 의론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주 반복하고 자주 잘못되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또한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지난날로 인하여 앞날을 헤아려보면 또한 형이 멀리가지 않고 돌아올 날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비록 언성을 높이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 형과 우리는 모두 늘그막이 되었으니 허물을 고치고 덕을 진취하는 것이 하루가 급한데, 저의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은 또한 편지 머리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간곡한 말로 바라건대 친구가 장차 죽으려 하면서 좋은 말을 남긴 것이라고 보아서 기쁘게 들어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말은 다하지 못하고 글로 모두 표현하지 못했으나 기력이 이미 피로하고 붓도 닳아졌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에 그칠 뿐입니다.

형의 편지에 “유서(遺書)와 면명(面命)은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궁구하여 말해보면 선사를 알게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이란 것이 무함임을 어찌 유서의 출현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80 재차...잘못 :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공연한 의심을 하면 자꾸만 틀리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명도(程明道)가 일찍이 창고 안에 있으면서 늘어서 있는 긴 행랑의 기둥이 몇 개나 되는지 속으로 세어 보았다. 그러고는 혹시 잘못 세지 않았는지 의심하여 다시 세어 보니, 세어 볼 때마다 숫자가 틀렸다. 이에 사람을 시켜 기둥 하나하나를 두드리며 세어 보게 하니, 처음에 세어 본 것과 부합하였다 한다. 《近思錄》卷4〈存養〉

니까. 저는 일찍이 유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윤고문(輪告文) 초안을 작성했는데,【갑자년(1924) 7월의 통문은 제가 작성한 윤고문 초안을 따라서 모두가 논하여 가감한 것이다.】선사의 평소 자정(自靖)한 의리로 인의(認意)가 없었음을 밝히고, 선사의 원고 가운데 “오늘날 선비들이 왜에게 청원하여 교궁(校宮 향교)을 보존하고자 성현을 높은 공로로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¹라고 한 일절의 말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형은 여기에 대해 선사를 깊이 안 것으로 하여하겠습니까, 하여하지 않겠습니까?

오사익에게 답함 기묘년(1939) 10월【직접 마주한 날에 또 견해를 고칠 것을 말하였기에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다.】

答吳士益【面見日又言改見，故書成而不送】己卯十月

지난번 편지에 제가 죽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뜻을 갖기를 바랐던 것은 깊은 충고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장을 받드니, 끝내 실망하게 할 뿐뿐만 아니라,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증명한 것은 음성 오진영보다 심하였으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크게 놀랄 일입니다.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面命)은 오히려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으로 말을 하였는데, 형이 이른바 면명은 곧장 ‘대신 인가받는 것도 구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인가받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보탬이 없고 반드시 선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편지에 이미 다하여 거듭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은 또한 이미 스스로 말하기를 “대신 인가받으라는 명이 있었다.”라고 하

81 오늘날…있다 : 《간재집(艮齋集)後編》 권17 〈화도만록(華島漫錄)〉에 보인다.

고, 또 말하기를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한 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하였으니, 누가 다시 그 말을 믿겠습니까? 형은 4, 5년 이래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자주 번복하고 자주 잘못하여 그 실마리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체 남김없이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저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 동안에 많은 말을 하면서 양쪽으로 미봉했던 것은 단지 마음만 수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사는]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하여 부모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오히려 능히 무함으로 배척하지 못하고 단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형이 진심으로 오진영을 보호하여 오직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뜻이 더욱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령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마음을 함께하여 선사를 지키기를 바라겠습니까? 멍한 채로 남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오진영이] 자기의 죄를 벗어 선사에게 전가한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형이 비록 이것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마음과 밝은 안목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형의 사사로운 뜻과 몽매한 견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심에 가려져서 분명한 이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사의 원고를 인가받고자 한 자가 그인데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어서는 마침내 “진실로 불가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고자 하였다.”는 것은 자신은 죄를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것은 선사에게 죄를 전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삼는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은(일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도이며, 말을 듣고서 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옥사를 판결하는 법입

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일을 많이 하면서 이 평탄하고 명백한 방도를 버리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사외(辭外)의 법을 별도로 찾는단 말입니까? 이것만도 이미 괴이한데, 또 스스로 믿는 것이 지나쳐서 남을 각박하다고 이르니, 내가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오사익에게 보냄 경진년(1940)

與吳士益 庚辰

저는 기가 약해지고 살이 빠져서 영락없는 귀신 물골입니다. 게다가 금년은 술사(術士)가 악운(惡運)이라고 부르는 해인데 아직 곧장 죽지 않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인생의 큰일은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고 지금 또 나라가 없어졌으니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만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또 마음에 흡족하게 죽은 뒤의 일을 처리할 재물도 없으니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오직 분수를 따라 선사를 무함을 변론하는 것에 진력하여 선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혹 그런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래에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문자를 수집하여 수정하여 책을 만들어⁸² 다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삼가 선사가 임종하기 수일 전에도 오히려 논을 지어 전옹(全翁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의리⁸³에 붙였습니다. 다

82 책을 만들어 : 김택술이 《간재집(艮齋集)》 출판에 따른 오진영의 스승 간재에 대한 무고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정리한 《사백록》을 가리킨다.

83 선사가...의리 : 김평묵(金平默)이 임헌회(任憲晦)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전우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

만 저승사자가 이르기 전에 능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건대, 형은 선사를 무함함을 변론하는 일에 처음에는 양쪽의 사이에서 가부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오진영의 편지를 얻어 보여준 뒤에 “〈답옹서(答甕書)〉를 보고서 더욱 분명해졌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병인년(1926) 설달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오진영의 의서(擬書)를 보고서는 또 의론이 달라짐을 면치 못하여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반복해서 충고하자 지금 이후에는 중간의 옮겨 다니는 견해를 버리고 전일의 명백한 의론을 도로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렴풋하고 근사하여 확실히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편지의 말을 믿기 보다는 어찌(차리리) 명백하고 준엄하며 정직하여 백세를 기다릴 수 있는 유서(遺書)를 지키는 것과(것이 나은 것과) 같겠습니까? 대의(大義)가 같게 되어 결국에 하나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혹한 견해가 앞뒤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진실로 부끄럽습니다만, 봉우 간에 강마(講磨)가 도움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고 얼마나 시원합니까.”라고 한 무인년(1938) 7월의 편지는 의론이 여기에 이르러 또한 이미 바른 것에 가까웠으니 저 또한 변론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똑같게 되기를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강유(剛柔)와 의론의 준완(峻緩)은 한 판에 찍은 것처럼 같을 수 없다.”는 형의 말도 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어찌지 못하고 제가 또한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자, 더욱 확대되어 대인(代認)과 면명(面命)에 대한 기묘년(1939) 8월의 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른바 임술년(1922) 3월의 면명에 대해서는 오진영도 오히려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회피하였는데, 형은 곧장 “대인도 구차하지 않다.”는 것으로 면명을 해당시키고, 이미 “대인의 명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그의 무함을 증명하여 완성해준 것이었습니다. 형은 어찌 갑자기 병인년과 무인년⁸⁴의 두 편지에 없는 힐난거리를 세우고, 또 어찌 몇 해 전의 제 편지의 “대인은 원래 말이 되지 않으니 결코 선산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했던 말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에 저는 혼자 가만히 탄식하여, ‘내가 만약 무인년 7월 이후에 다시 한 마디 말이 없었다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크게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답장을 작성했으나 말이 자못 준엄하였고 또한 갑자기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봄 서로 만난 날에 지금 편지의 내용으로 대략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형이 곧바로 기쁘게 듣고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어찌 견해를 고치는데 인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견해를 고쳤으니 이것으로 충분하고, 형은 예전 그대로 무인년 7월의 오두남(吳斗南)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말이 이미 문자에 드러났으니, 또 문자로 견해를 고친 실상을 기록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의혹이 없게 하는 것도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한 통의 편지

84 병인년과 무인년 : 원문은 ‘丙戌’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 ‘戌’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 간에는 10년 동안 의론이 같지 않은 것은 해될 것이 없고 하루라도 마음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지금 변론의 문장을 책으로 엮으면서 문득 형도 지난날의 일들을 써서 피차의 마음을 통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웃지 마시고 은혜롭게 한 마디 말씀을 답해주지 않겠습니까?

또 “선사가 만약 인교(認敎)가 없었다면 하나의 절개만 있는 선비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고단하게 선사로 하여금 전체가 모두 온전한(전적으로 완전한) 군자가 될 수가 없게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설이 있는데, 나올수록 더욱 기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이 행해지면, 선사가 선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의리가 꼭 막히게 되고 천지가 뒤집어진 뒤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통탄스러우니 어찌해야겠습니까?

형의 편지에 “10여 년 동안 오직 음성(陰城) 하나가 뱃속에 가로질러 있어서 그 언어와 문자에 조금만 다른 것을 보면 문득 입을 열어 말하고 붓을 잡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제 마음에 대해 알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선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다만 중화[華]와 오랑개[夷]를 구분하여 막는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형도 저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원(祠院)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도 큰 쟁론이었지만 저는 생고기를 올린다는 오진영의 의론을 옳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논하고 문장을 논함에는 오직 이치를 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생고기를 올리는 것을 옳게 여긴 것으로

오진영에게 아침하여 화를 늦추고자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아, 진실로 그 마음을 의심하여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⁸⁵

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吳士益 辛巳

형은 혹 근래에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의 신도비(神道碑) 비문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유숙(柳塾)의 객이었던 자가 그 글을 보고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글 가운데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을 배척하고 선사(先師 임현회)의 무함을 변론한 것으로 간옹(艮翁)의 대사(大事)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선사의 비문을 지으면서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대사를 삼지 않는다면 이는 대우(大禹)의 비문을 지으면서 치수(治水)를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맹자의 비문을 지으면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친 것을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옳겠습니까? 오진영의 글에서 서술한 내용은 또한 그 자체로 맞는 말입니다. 【연전에 제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은 평생의 대사였다.”고 하였는데, 형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시다. 지금 오진영의 글로 살펴보면 또한 형이 생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85 죄를…걱정하겠습니까 : 처벌할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핑곗거리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欲加之罪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던 고사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 십년(僖公10年)》

미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이 대사임을 알았으면서 마침내 스스로 자기의 선사를 무함하여 인가를 내어 원고를 출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지어 “인가를 금한 유서(遺書)는 위조이다.”라고 하기까지 하여 대죄(大罪)에 빠진 것은 깨닫지 못하였고, 다시 [완산 검찰]에 고소하는 재앙을 일으켜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대사로 여기는 동문을 일망타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견해란 말입니까. 너무도 괴이한 일입니다. 주자는 왕안석(王安石)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세상에는 자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⁸⁶ 전재(全齋 임헌회)와 구산(臼山 전우)은 똑같은 현인이고, 가평의 제문과 음성의 편지는 똑같은 무함이고, 벼를 해치고 선사를 무함한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늘이 그의 붓으로 그의 무함한 죄를 밝혀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론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지금은 우선 그 글에 나아가 말할 따름입니다. 옛날 임동만(任動萬 임진재任震宰)이 신모(申某)의 행장(行狀)을 이용해서 전옹(全翁 임헌회)의 시호(諡號)를 얻고자 도모하였는데, 선사가 그것을 금하고 말하기를 “차라리 시호가 없는 것이 나으니, 신모의 행장은 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⁸⁷ 나는 오늘날의 일에 대해 또한 감히 말하기를 “차라리 신도비가 없는 것이 나으니, 오진영의 글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겠

86 주자는…하였습니다 : 주자가 1199년 8월 하순에 진사석(陳師錫)이 남긴 서첩과 진관(陳攢)이 올린 표문을 소재로 삼아 왕안석의 학술 경향을 비판한 것인데, 《주자대전(朱子大全)》권70〈독양진변의유묵(讀兩陳諫議遺墨)〉에 보인다. 이것과 관련한 김택술의 의론은 《후창집(後滄集)》권7 〈여조자정(與趙子貞) 병자(丙子)〉에 보인다.

87 옛날…하였습니다 : 《간재집(艮齋集)前編》 권2 〈여임경유(與任景孺)〉에 보인다.

습니다. 아, 사인(士仁)의 의리에 대한 몽매함은 동만(動萬)보다 지나치고, 나의 사람됨 또한 선사가 아니니, 금하고자 해도 그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 (1941)

與吳士益 辛巳

일전에 석리(石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동(安東) 김승규(金昇圭)가 짓고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쓰고 은진(恩津) 송규현(宋奎憲)이 전(篆)을 한 봉열 대부(奉列大夫) 왕자사부(王子師傅) 유공(柳公) 신도비(神道碑)를 보았는데, 돌아와서 국법(國法)의 관계(官階)를 살펴보았더니, 봉열 대부는 4품이었습시다. 나는 일찍이 한쪽의 사람들이 선사가 지은 소윤(少尹) 최공(崔公)의 신도비에 대해 “국전에 합치되지 않는다. 2품 이상이라야 신도비의 격식에 맞으니 갈(碣)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자대전》〈위재행장(韋齋行狀)〉에 “공은 통의대부(通議大夫) 정(正) 제 4품의 관직이 추증되었으니 격식에 맞춰 신도비를 세워야 한다.”는 글과 장남현(張南軒)을 위해 신도비문을 지은 일을 들어 【위재의 통의대부는 그래도 4품이 되었지만, 남현은 낭서(郎署)에 불과하니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사는 주자를 사법으로 삼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에 말하기를 “이것은 송나라 조정의 일이고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율곡 선생이 지은 저의 선조 승지공(承旨公)의 신도비 및 상국(相國) 민기(閔箕)가 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신공(申公)의 신도비를 들어 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서는 율곡을 사법으로 삼

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리고 민공은 한 나라의 총재(冢宰)로서 어찌 국법을 몰랐겠는가?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피차가 국전 등의 여러 글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끝내 비와 갈에 대한 법식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무엄한 자가 국전의 분명한 글을 보지 않고 감히 우리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고치는가?”라고 말하고는 내버려 두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말하기를 “2품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비(大碑)를 세울 수 있다. 수백 년 이래 우리나라의 사대부 집안이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어찌 선사만 유독 최씨 일을 위하여 위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씨, 윤씨, 송씨 세 집안의 혹은 부친이 대제학이 되고 자신이 판서나 직각이 된 자는 유독 우리나라의 사대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들이 오히려 국법이 있는 줄 모르고 유씨의 집을 위해 글을 짓고 글씨를 썼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 열거했던 사례들로 살펴보면, 애당초 최공의 비문에 대해 의론해서 안 됨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감히 선사가 늘어서 살피지 못하고 두루 식견이 없어서 국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꾸짖음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멋대로 고쳤으니, 마음속에 선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마음은 더욱 어그러지고 손은 갈수록 교활해져 마침내 진주본(晉州本)에는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통분하게 하였습니다. 우연히 유공의 신도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난지라 애오라지 받들어 묻습니다.

오사익에게 답함 신사년 (1941)

答吳士益 辛巳

신도비에 대한 의론에 있어 아의(雅意)을 삼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듯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비에 대한 규식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식을 보지 못했다면 송나라 주자를 따르는 것에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3품에 대해서도 신도비를 세운 경우가 있음은 형도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집에 구애되어 다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심하면서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법을 말해보면, 태조 때에는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이 있고, 세종 때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으며, 세조 때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고, 성종 때에는 《속록(續錄)》이 있고, 중종 때에는 《후속록(後續錄)》에 있고, 숙종 때에는 《집록통고(集錄通考)》가 있고, 영조 때에는 《속대전(續大典)》이 있었으며, 정조 때에는 이를 합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통편》을 살펴보아도 비(碑)와 갈(碣)에 대한 규식이 없기 때문에. 그도 또한 2품 이상만 신도비를 허락한다는 문장이 열성(列聖)의 어느 조종에서 정한 법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전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내가 통탄하는 것은 진실로 그가 국법을 보지 않고 감히 선사의 원고를 고쳤다는 것에 있으며, 형이 우려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한 신도비에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저의 소견은, 뜻과 이치로 강구하여 논해보면 그 덕행과 사업에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은 자만

이 신도비를 세울 수 있고 관직 품계의 고하는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체의 중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기에 있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인작(人爵)을 영예롭게 여기면서도 천작(天爵)이 존귀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안자(顔子)나 증자(曾子)의 묘소에 그들이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일을 놔두고 지금의 일을 논해보면, 우리 선사의 덕행과 사업으로 2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울 수 없겠습니까? 비록 그렇더라도 국법에 정해진 규식이 있다면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야 하겠지만, 만약 없다면 또한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오사익에게 보낸 무자년 (1948)

與吳士益 戊子

듣자하니 서원을 건립하자는 통문이 귀족에도 도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들과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조정의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외지에서 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에는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를 보라.”⁸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군자가 출사(出仕)할 때에는 먼저 추천해준 사람을 살펴야 하고, 남과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일을 주관하는 자를 살펴야 합니다.

88 조정의...보라 : 《맹자(孟子)》〈만장 상(萬章上)〉에 “내가 들으니, ‘조정의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외지에서 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에는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를 보라.’ 하였다. 만약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공자라 할 수 있겠는가? [吾聞觀近臣, 以其所爲主, 觀遠臣, 以其所主. 若孔子主癯疽與侍人瘠環, 何以爲孔子?!”라고 하였다.

지금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치는 자와 혈당을 맺는 것도 부족하여, 또 천
 고의 흉악한 역적 완용(完用)의 적퇴비(賊退碑)를 사들여 선사의
 묘갈로 만들었으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
 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온 세상의 공론 때문에 감히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가 간행한 <연보> 중 ‘묘갈명성(墓碣銘成)’
 의 ‘갈’ 자는 바로 이 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예전 그대로 일
 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또 저쪽이 증거로 내세운 이등박문(伊藤
 博文)의 동상을 때려 부수어 안의사(安義士)의 동상을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당연한 의리가 되니, 그만두
 었던 것은 심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때면 이 일이 전적으
 로 전(田)에게 달린 것인지 유(柳)가 아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유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대하면서 전에게는 이처럼 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천석 집안에서 조상의 가업을 지키며
 완성하는 자는 명철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친과 조부를 이어서 지키고 이루었던 것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자세히 살피는 성격으로 볼 때에 비록 예
 사로 매매하는 것도 반드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이것은 사안으로 따지자면 중대사이고 재물로 따지자면 거
 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슨 돌인지 살펴보지
 도 않고 사들였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춘추》에서는 행위가 드
 러나지 않더라도 나쁜 의도가 있으면 벌하였는데, 하물며 그 자
 취가 이미 드러난 것이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
 닭으로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비록 그를 매우 아끼고 공경하지
 만, 또한 이 일을 두고서는 큰 실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는데,
 형만 유독 이처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악을 감추어주는

것[隱惡]’은 비록 매우 좋은 제목이지만,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심술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인데 다시 일이 대의(大義)에 관계된 것이겠습니까? 오직 그대가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완용의 적퇴비는 왜가 망한 이후 그의 묘 앞에서 뽑아간 것이다.】

오사익에게 보냄 경인년 (1950)

與吳士益 庚寅

일전의 편지에 박진호(朴震鎬)가 선사가 그의 조부 창암(蒼岩)에게 보낸 편지를 인쇄 배포하여 김용승(金容承)이 찬한 창암의 행장 중 “간옹에게 손색이 있다.”는 말을 실증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도 통탄스러웠습니다. 대개 선사가 섬으로 들어간 것은 세상의 변란을 보기 싫어했기 때문이니, 이는 “태사(太師)는 제(齊)나라로 갔다.”는 이하의 여러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은둔했던 것⁸⁹과 같으며, 이것으로써 스스로 큰 법도를 세우기를 마치 범찬(范粲)의 수레⁹⁰나 문산

89 태사(太師)는…것 : 《논어(論語)》〈미자(微子)〉에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 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 요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 결은 진나라로 가고, 복을 치던 방숙은 하내로 들어가고, 도고를 흔들던 무는 한중으로 들어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던 양은 해도로 들어갔다.[太師摯適齊，亞飯干適楚，三飯繚適蔡，四飯缺適秦，鼓方叔入於河，播鼗武入於漢，小師陽擊磬襄入於海]”라고 하였다.

90 범찬(范粲) : 삼국 시대 위(魏)나라 충신으로 자는 승명(承明)이다. 태재중랑(太宰中郎)이 되었을 때 사마사(司馬師)가 국정을 잡고 위 제왕(魏齊王) 조방(曹芳)을 폐하여 금용성(金墉城)으로 옮기자, 병을 핑계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조정의 부름이 이어지자 미친 체하여 36년간 말하지 않고 수레 위에서 자며 땅을 밟지 않다가 생을 마쳤다. 《진서(晉書)》 권94 〈범찬열전范粲列傳〉

(文山)⁹¹의 다락처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아마도 섬을 나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의론의 가부를 물어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어서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⁹²라는 극치를 구하고자 한 것이지, 반드시 섬을 나가고자 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사의 문인이 된 자들은 다만 굳건하게 의론을 세워서 현자를 모욕하고 선사를 범하는 마음을 주별해야 할 따름인데, 어찌 그 문으로 달려가 말을 좋게 꾸며서 마치 실제로 섬을 나가려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대덕의 법도를 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박군의 조부가 선사를 존모했던 입장에 있었으니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말했겠습니까? 권순명(權純命)과 유숙(柳塾)이 한 짓은 “우리 조부가 간옹(艮翁)을 존모했는지 여부는 우리 조부에게 물어본 뒤에 알 수 있다.”고 박진호에게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사에게 누를 끼친 것으로는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저쪽이 하는 것은 매번 대부분 이와 같으니, 또한 매우 통탄할 뿐입니다. 형은 이미 금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니, 이는 매우 잘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91 문산(文山) : 송나라 문천상(文天祥)을 가리키며 문산(文山)은 그의 호이다. 남송(南宋) 말기에 원병(元兵)과 싸우다 잡혀가 3년 동안 연경에 잡혀 있을 때 절의를 지켜 다락에서 내려가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결국 피살되었다. 《송사(宋史)》 권418 문천상열전(文天祥列傳)

92 가함도…뿐이다 :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공자(孔子)는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어서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無莫也, 義之與比]”라고 하였다.

죽인 평오준철에게 답함 을해년 (1935)

答族人平吾準喆 乙亥

보내온 편지를 받들어 읽고 그 시종을 살펴보았더니,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무함한 것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성토하는 글을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다만 공정한 마음으로 공론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감히 경솔하게 동조하지 못하고 자중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명(高明)이 의리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은 훌륭하였습니다. 《좌전》에 이르기를 “군주와 부모에게 무례를 범한 자를 보게 되면 마치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처럼 한다.”⁹³고 하였습니다. 대저 스승과 군주와 부모는 하나입니다. 원수에게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선사를 무함한 것은 무례한 것에 비할 뿐만이 아닙니다. 고명은 일찌감치 마땅히 배척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곧바로 성토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은 뜻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이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의론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의심하여 그들과 일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管仲)이 제(齊)나라 군주를 도와 초(楚)나라를 정벌해서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공을 세웠는데, 공자는 그가 인의(仁義)를 빌려서 공을 이룬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그의 인만 하겠

93 군주와…한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기사에 “군주에게 예가 없는 자는 주살하되 매가 새를 뒤쫓아 낚아채듯이 하라[無禮於其君者, 誅之, 如鷹鷂之逐鳥雀也]”라고 하였다.

으며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는가,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힘입고 있다.”⁹⁴는 찬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자가 당시 열국의 군주가 되었다면 어찌 제나라의 군주와 재상이 공정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해서 소릉(召陵)에서 주나라를 높이는 동맹⁹⁵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리와 인욕은 행위는 같으나 실정이 다릅니다. 비록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는 본디 사적인 것을 위하고 나는 본디 공적인 것을 위하니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주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대의(大義)이고,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도 대의입니다. 진실로 대의와 관계되고 똑같이 왕의 신하이고, 똑같이 문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는 사적이고 나는 공적임을 따지고 비교하여 차이를 두고서 “나는 자중하여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제나라 군주가 시해를 당하고 삼환(三桓)이 참람하게 권력을 훔친 것에 대해 만약 진항(陳恒)을 토벌하고⁹⁶ 삼도(三都)를 허

94 누가…있다 : 《논어(論語)》〈헌문(憲問)〉에 보인다. 공자는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되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如其仁！如其仁！]”라고 하였고, 또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하여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于今受其賜，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라고 하였다.

95 소릉(召陵)에서…동맹 : 소릉의 맹약은, 제 환공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의 사자 굴완(屈完)과 소릉에서 맹약을 맺었는데, 이때 환공은 초나라가 주나라 왕실에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고 남쪽으로 정벌을 계속하는 죄를 물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96 진항(陳恒)을 토벌하고 : 《논어(論語)》〈헌문(憲問)〉에, 진성자(陳成子)가 자신의 임금인 간공(簡公)을 시해하자, 공자가 목욕을 하고 조정

물려는⁹⁷ 청이 먼저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공자는 이러한 이유로 자중하지 못해 자신을 속이게 될까 염려하여 토벌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방증하고 차용한 것입니다. 맹자가 사설(師說)을 물리친 것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람들이 모두 [양주와 목적의 설을]막아야 된다고 말할 것⁹⁸을 바라기까지 하였지만, 어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마음과 치우치지 않은 의론을 갖추었으며, 또한 어찌 자중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 더불어 일을 함께 하기를 바란 것이겠습니까? 우옹(尤翁 송시열)이 박화숙(朴和叔 박순(朴淳))을 꾸짖어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지언(知言)과 양기(養氣)가 맹자의 경지와 같아진 뒤에야 이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사(士師)가 된 뒤에야 군주를 시해한 역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인류가 어찌 모두 이단이 되는데 이르지 않겠는가.”⁹⁹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이미 지언과 양기를 할 수

에 나아가 애공(哀公)에게 고하기를 “진행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소서.”라고 하였다.

- 97 삼도(三都)를 허물려는 : 노나라 삼가(三家 계손씨(季孫氏),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의 읍(邑)을 강등시킨 일을 말한다. 노 정공(魯定公) 13년에 공자가 삼가(三家)가 너무 참람하다 하여 숙손씨의 후읍(郈邑)과 계손씨의 비읍(費邑)과 맹손씨의 성읍(城邑)을 허물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기(史記)》 卷47 〈공자세가(孔子世家)〉
- 98 맹자가…것 :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맹자는 “능히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문도이다.[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주(註)에 “《춘추》의 법도에 따른다면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다 토벌할 수 있으니, 꼭 사사(士師)여야 할 필요는 없다.[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討之 不必士師也]”라고 하였다.
- 99 만약…않겠는가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67 〈답박화숙(答朴和叔)〉에 보인다.

없다면 용심(用心)과 지론(持論)이 어찌 모두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옹은 더불어 일을 함께 하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자중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택당(澤堂) 이문정공(李文靖公 이식(李植))은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만이 학문을 이어 받았고, 그 나머지는 당파에 휩쓸렸다.”¹⁰⁰고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여 도모하지 못함이 애석합니다. 아, 지난날의 일에 죽을힘을 내서 심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큰 재앙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자로는 그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까? 내가 공적이었느냐 사적이었느냐, 치우쳤느냐, 공정했느냐는 지금과 후대의 평가를 공손히 기다려야 하고 저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명이 의론한 바로 헤아려 보면,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지론이 치우친 것은 또한 저만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옛 사람처럼 함께 동거했던 친족이면서 벗으로서 함께 모여서 학문을 강습한 우의가 성기지 않았는데, 10여 년 동안 한 마디도 경계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저의 자만하는 소리와 성낸 낯빛이 사람들이 다가설 수 없게 하였음에도 미혹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 구해야 할 점입니다. 저는 이미 은혜로운 경계의 말을 들어 보지 못했고 아울러 성대한 이러한 문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피차간에 견해가 똑같은 줄로만 믿고서 일찍이 헤아리고

100 사계(沙溪)만이…휩쓸렸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03 〈택장이공시장(澤堂李公諡狀)〉에 “오늘날 율곡을 높이는 사람은 사계만이 그 학문을 이어받았고, 그 나머지는 당파에 휩쓸렸다.[今之尊栗谷者, 沙溪學也, 其餘黨也]”라는 택당의 말을 원용하고 있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솔직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살펴보건대, 이는 어찌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한 장님[瞽]¹⁰¹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청컨대 고설(瞽說)을 다하여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한 것에 대해 그대는 이미 마땅히 배척해야 할 죄라고 말했으니 굳이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과 영남에서 서로 간행을 한 것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상대가 벌거벗은 것을 비웃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문고(文稿)를 인쇄하여 간행하는 것을 그가 알고서 금하지 않았으니, 그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록 묵허(默許)했다고 하겠지만 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마땅히 내가 내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옳다 하여 이기기를 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성격으로 굳어진 오진영도 오히려 “천하에 어찌 침묵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인허를 기뻐하는 것처럼 인지상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견주어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대의 인정에 또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선사의 “[청원하여 간행 반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작은 차마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간행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을 크게 차마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이미 천리와 인심에 편만한 바가 아닙니다. 또 간행하는 것만 전해지

101 안색을...장님 : 《논어(論語)》〈계씨(季氏)〉에, 공자는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 허물이 있다.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하면 조금함이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고,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님이라 한다.[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而不言, 謂之隱, 未見顏色而言 謂之瞽]”라고 하였다.

고 보관해둔 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고문상서(古文尙書)》이 하는 모두 오늘날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피차간에 상호 공과 죄가 있어서 서로 가릴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감히 묻건대 오진영에게 어떤 공이 있고 호남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고를 간행한 것이 오진영의 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선사의 글을 고쳐 어지럽힌 것은 그대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현동(玄洞)에서 간행한 것을 호남의 죄라고 말한다면 침묵을 기뻐하고 인허를 기뻐하지 않은 것은 오진영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과 그 죄가 서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무함을 변론하면서 선사의 누가됨을 생각지 않고 이기는 것만 힘쓴다면, 거짓을 일러 바르다고 하는 것이 마치 위에서 논한 마음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사람이 또한 능히 무함을 변론할 수 있으면 무함을 변론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심술이 은미하여 진실로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기는데 힘쓰는 사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비(是非)를 결정하고 사정(邪正)을 정하는 날에 다만 마땅히 공자가 “그 행하는 바를 살핀다.”고 하고 주자가 “선을 행한 자는 군자가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소인이 된다.”라고 한 가르침¹⁰²에 의거하여 따르거나 따르지 않음을 결정해야 할 뿐입니다. 연유한 바를 관찰하고 편안히 여기는 것

102 공자가...가르침 : 《논어(論語)》〈위정(爲政)〉에, 공자가 말하기를 “그 행하는 바를 보며 그 연유하는 바를 관찰하며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으며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라고 하였다. 주자는 “그 행하는 바를 본다.[視其所以]”는 구에 대해 주(註)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군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爲善者爲君子, 爲惡者爲小人]”라고 하였다.

을 살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 실정을 숨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절로 다른 날에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고명은 선사를 무함한 것에 대해 그다지 통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해가 이와 같은 것이니, 스승의 원통함을 지어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변론한 것이 선사의 누가 됨을 두려워한 것에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주와 목적이 주장한 위아(爲我)와 겸애(兼愛)도 오히려 그 폐단이 임금과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로 흘러갔습니다. 오진영이 인가와 관련하여 선사를 무함하고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은 바로 당일에 선사를 무시했던 것이 되니, 그 경중이 또한 서로 현격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명은 이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심하니,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묻건대, 저 무리의 이른바 정재(靜齋)의 유서(遺書)라는 것에 대해 감히 가리켜서 석농(石農)에게 선사가 홀로 명한 것이 있었다고 하지도 못하고, 감히 가리켜서 유서가 없다고 하지도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까? 이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글씨를 몰래 익힌 것이다.’¹⁰³라는 등의 설을 꺼리고 실로 유서를 독실하게 믿으면서 ‘잘 헤아려서 하라.’고 하거나 ‘불언지교(不言之教)’라고 한 등의 설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진영의 이른바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語欠區別, 命辭疎忽]”라고 한 것은 과연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계책이 아니고 명백하게 무함을 자복하는 설이 되겠습니까? 그 무리가 무함

103 여자 종이…것이다 : 송(宋)나라의 간신 하송(夏竦)이 여자 종으로 하여금 습자(習字)를 하도록 하여 석개(石介)를 무함하게 한 일을 가리킨다. 《송사(宋史)》 권432 〈석개열전(石介列傳)〉

을 믿고 그 수괴가 불복함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마침내 “양주와 목적처럼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았고, 양주와 목적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함이 없었다.”라고 하고, 결론을 맺기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 누가 감히 다른 날에 불 꺼진 재에 입김을 불어서 불을 일으키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날은 논할 것이 없고 본디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으니 활활 들판을 태우는 것처럼 그 기세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바로 오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현(愼軒)의 편지에 “영남의 당은 수백 인이고 호남의 당은 수십 인이다. 설령 호남이 많고 영남이 적더라도 건장한 오룡(五龍)이 날뛰는 한 마리 파리한 돼지를 이길 수 없는데¹⁰⁴, 하물며 영남이 호남보다 열배는 많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오히려 “맹자가 양주와 목적에 대해 변론한 것처럼 반드시 힘써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이미 들어가 초제(招提)를 따랐다.”¹⁰⁵는 기룡을 하였습니다. 감히 묻건대 “오진영과 그 당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갔다.”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만약 자복한 문자가 있다면 어찌 적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 語欠區別, 命辭疎忽”¹⁰⁶는 여덟 글자를 가리켜 우리로 들어온 증거로 삼는다

104 건장한…없는데 : 《주역(周易)》 구괘(姤卦) 초육(初六)에 “아무리 파리한 돼지라도 언제든 날뛰려는 심보를 갖고 있다.[羸豕孚蹢躅]”라는 말이 나온다. 오룡(五龍)은 다섯 용이라는 말인데, 이 괘가 초효(初爻) 외에는 다섯 개의 효가 모두 양(陽)이기 때문에 다섯 군자라는 뜻으로 오룡이라고 한 것이다.

105 이미…따랐다 : 초제(招提)는 절 또는 승려의 이칭이다. 두보의 유용 문봉선사(遊龍門奉先寺)에 “이미 초제를 따라 노닐었고 다시 초제의 경내에 유숙한다.[已從招提遊 更宿招提境]”라고 하였다.

면 이것은 자신을 숨긴 계책을 다스린 것이지 자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만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당초에 고명은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성토하여 배척한 자가 공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모두 매우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고명의 이 편지는 나재장(懶齋丈)이 헤아려 수정하고 윤색하였으며, 연심장(鍊心丈)이 그 아들에게 “평오(平吾)의 편지는 말이 공평하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용심(用心)이 공평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며 지론(持論)이 치우치지 않은 것도 다른 편지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부북(扶北 부안)의 여러분이 많은 부정한 무리와 뒤섞여 있는 이런 시기에 이것으로써 한 지역의 정론(定論)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득한 많은 의심을 낱날이 들어 우러러 질문하여 공정한 의론을 더욱 들었으면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같이 의론하여 일일이 밝게 가르쳐 주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사로운 견해라고 단정하여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말미에 “오랑캐의 재앙이 아침저녁 사이에 임박하여 있으니 동실(同室) 내에서 싸워서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양주와 목적도 똑같이 요순(堯舜)을 옳게 여겼고, 흑수(黑水)¹⁰⁶도 똑같이 공맹(孔孟)을 존송하였으니, 애당초 동실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맹자와 우암이 전국시대의 환란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넘쳐나며 청나라 오랑캐가 위협하여 상하가 위태롭게 떨던 때에 급급하게 변론하여 배척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

106 흑수(黑水) : 윤휴(尹鑄)가 여주(驪州) 여강(驪江)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배척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여(驪)는 검다[黑]는 뜻이 있으므로 흑(黑)으로 바꾸어 소인(小人)임을 암시한 것이고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었습니까? 바로 외부의 재앙을 근절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오랑캐의 재앙은 화를 당하는 것이 신명(身命)이고, 내부의 사문(斯文)의 재앙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심술(心術)입니다. 마음과 몸은 이미 내외의 구분이 있으니, 마땅히 우려해야 하는 것에 어찌 완급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고명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 (1924)

答權某 甲子

보내온 편지에 음양모순(陰陽矛盾)과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소인으로 나를 지목한 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고서 또 환란을 초래한 도적으로 나를 비기었습니다. 대저 생민이 있는 이래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이나 악으로 이름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소인이나 도적의 이름을 얻는 것도 본디 쉽지 않으니, 우리 형의 은혜는 어찌 이리도 두터웁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름이란 것은 실질의 손님입니다.¹⁰⁷ 만약 단지 그 이름만 누리고 그 실질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음식을 먹고도 그 맛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감히 질문하여 소인이 된 실질을 알고자 하니, 끝까지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대저 내가 김용승(金容承)과 절교한 것은 내가 나의 일을 한 것인데 무슨 일을 입증한단 말입니까? 남이 김용승과 절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스스로 잘못된 것인데, 내가 어찌 그를 참견하겠습니

107 이름이란…손님입니다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이름이란 실질의 손님인데, 나보고 장차 손님이 되라고 하는 말인가.[名者, 實之賓也, 吾將爲賓乎]”라는 말이 나온다.

까? 다만 음성의 오진영이 나에게 김용승을 당인으로 삼은 죄목을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영좌(靈座)에 들이지 말라.’는 설을 가지고 무함을 성토하고 제사에서 내친 것에 대한 양갓음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선사를 잊고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실질적 죄상은 생각지도 않았으니, 이미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형은 음성에 대해 복심으로 충직하게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편지에 “기쁘고 시원하게 씻어내었다.”고 한 것과 음성의 편지에 “중현(鍾賢)의 처사가 옳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내가 김용승과 절교함에 그 기록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또 김용승이 연전에 한 농노(漢農老)라고 부른 것과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용승을 허용하여 다시 성토하지 않고 김용승에게 조용하게 잘못을 고칠 것을 권면한 것을 가지고 음성이 전후로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계속 대변(對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한 구의 몇 마디 말로 형을 팔고 참작해서 말을 한 뜻을 살피지 않았다.”라고 하고, 곧장 들어가는 것을 밀치고 막은 일, 동문으로 받든 일, 제문을 성토한 것 등으로 음양모순과 조변석개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진영의 글에 “만약 이후에 선사를 범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죄하겠다.”고 한 말을 살피지 않고, 감히 김용승과 절교하지 않은 것을 심술의 병통과 환란을 초래한 것으로 얹어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구해보아도 매우 괴이합니다. 대저 형이 죄를 판결한 것도 그 자체로 얼마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구의 몇 마디 말이 죄가 된다면 전편의 마음을 통틀어 거론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이 편지 전편을 모두 읽어보니, “기쁘고 시원하게 씻어내었다.”는 등의 말에 참작한 뜻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날

날이 따져본다.” 등의 말에도 저의 뜻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형을 판 것으로 김용승과 절교한 증거로 삼아 죄를 주었으니, 마음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곧바로 들어간 것은 그러하지만, 밀치고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¹⁰⁸고 했습니다. 어찌 물러나 기다리며 스스로 기가 꺾이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애당초 막았던 것이 없었으니, 또한 어찌 밀치고 막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죄가 있다면 음성 쪽의 여러 사람들이 등 뒤에서 건어차며 내쫓기를 형이 김용승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마침내 내가 변론을 한 번 하자 입을 다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저는 이미 김용승과 절교를 했고, 김용승을 만나서 제문을 본 것은 곧 당일 풍파가 있는 뒤에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김용승을 만나 제문을 본 죄를 미리 알아서 음성 쪽 사람들과 마땅히 영좌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벌을 정했던 말입니까? 그것도 또한 이른바 “지극히 성실하면 미리 알 수 있다.”¹⁰⁹는 도인 것입니까? 또 그가 천리 멀리서 상제(祥祭)에 달려와 제문을 가지고 사죄를

108 스스로…있다 :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는 부동심(不動心)의 방법으로 용기에 관해 논하기를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떳떳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다는 기상이다.

109 지극히…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4장에 “지극히 성실한 도(道)는 미리 알 수 있다. 국가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복된 조짐이 생기고, 국가가 멸망하려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징조가 생긴다.[至誠之道，可以前知，國家將興，必有禎祥，國家將亡，必有妖孽]”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단지 그가 멋대로 들어온 것을 추궁만 하고, 다시 그 글을 살펴서 진퇴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는데, 형의 무리들이 영전에서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형은 이전 편지에 “김상(金庠 김용승)이 강리(講里)에 사죄하는 것을 뜻밖에도 기쁘게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리에 사죄를 한 것은 기쁘게 들었는데, 선사에게 사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단지 곧장 발로 찼으니, 참으로 음성을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한 것입니다. 저는 당일의 일을 늦게 비로소 와서 보았지만 이 의리에 대해서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김용승에게 경솔하게 곧장 들어간 것은 먼저 그 도리를 잃은 것이라고 질책하였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 큰 죄에 빠졌다고 질책한 뒤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제문을 읽게 하였습니다. 송춘계장(宋春溪丈)은 “글에서 노주(老洲)를 배척하고 자복하지 않는 것은 흠이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 춘계장의 말이 진실로 옳았습니다. 다음날 또 그가 끝까지 “사우간(師友間)으로 선사를 대하였다,”는 설을 고치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찌 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를 준다면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을 나눈 것은 있었지만 동문으로 대한 것은 없었으며, 제문을 본 것은 옳았지만 제문을 성토했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형이 마침내 대략 서너 글자를 가지고 본래 면목을 바꾸었는데 마음을 먹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형이 사람을 죄에 빠뜨린 것입니다. 또 호중(湖中)에 있었을 때에는 “성선(性善)【김용승의 옛날 자(字)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용승의 옛날 자인지도 모릅니다.】이 내방하였으니 나에게 술이 있다면 마셔야 하고 밥이 있으면 먹어야 한

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정돈영(鄭敦永)이 신현(愼軒)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선이 지난번 강리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서 보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으며, 【박창현(朴昌鉉)이 저에게 대답한 말인데, 이 때 정돈영(鄭敦永)과 오해겸(吳海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용승과 작별할 때에 간곡하게 나에게 방문을 부탁했다.”고 한 자도 있었는데, 【이광규(李光珪)가 화도(華島)의 강변에서 김용승과 작별할 때 이 말이 있었는데, 김(金)은 “김용승과 당이 되는 것인데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였고, 이(李)는 “군은 다른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저와 수십 명이 함께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친근하게 서로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호남(湖南)에 있을 때에는 김용승이 잠깐 지나는 길이었었는데 중별이 갑자기 가해지고 엄한 성토가 뒤따랐으니, 또한 하나의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승이 애초에 오진영에게 보낸 선사를 무함하는 글을 꺼내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가 선사를 배반한 죄를 성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제(祥祭)에 달려간 처음에 음성을 성토한 말을 재차 꺼내지 않았다면 분명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인이 애당초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음성을 꾸짖지 않았다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았다는 양값음이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제를 치르는 날 재차 음성을 내치는 일이 없었다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벌이 반드시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일음(一陰 오진영)만이 홀로 존귀하고 세상에 다시 우리 육양선생(六陽先生 간재)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아! 통탄스럽습니다. ‘음양모순과 조변석개, 심술의 병통과 환란의 초래[陰陽變改心病亂招]’는 형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비록 사라지지 않을 대필(大筆)의 은혜를 지극히 감사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옹졸하

고 융통성이 없는 저가 마침내 그 이유도 모르고서 염치없이 받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또 저가 위에서 진실한 바가 어떠한지 모르겠는 것입니까? 괴이할 뿐입니다. 여러 의심을 이미 해소할 수 없다면 여덟 글자의 미명(美名)은 형과 음성 오진영에게 바치고 싶지만, 이미 주었는데 다시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하에는 끝내 정명(定名)이 없겠습니까? 각각 스스로 자신의 심술과 언행 사이에서 돌이켜 구한다면 이 이름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처럼 뜨겁다가 얼음처럼 차갑기가 날로 심해집니다. 어느 날 강물이 줄어들어 돌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상이 밝혀지는 일은 아득히 정해진 기일이 없으니, 또한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피차 죽고 나서 백 세대가 흘러 의론이 정해질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영남에서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뇌물과 관련한 분노와 비문과 관련한 유감 때문입니까? 호남이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뇌물과 관련한 분노와 비문과 관련한 유감이 만약 없었다면 비록 인가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장차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오직 인가를 조심한 곳은 반드시 영남입니다. 영남의 의리라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비록 한심하지만 인가하지 않은 호남을 버리고 영남에서 일을 함께 한다면 하늘이 분명 싫어할 것입니다.

위로 선사를 범했다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편지에 “선사가 이를 조금도 생각지 않았는데 조만간 하라고 명했다는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라고 했던 것은 선사께서 분명 이러한 일이 없었음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천하는 문자가 똑같은데, 이를 두고 뒷사람을 범한 말이라 한다면, 사람들 중 그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오 아무개에게 보낸 갑자년(1924) 6월

與吳某 甲子六月

저는 귀족에서 호당(湖黨)으로 지목한 자이니 진실로 오래 전에 집사에게 배척을 당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구한 마음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무릅쓰고 말씀드리니, 살펴주기 바랍니다. 대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의 설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이래로 여러 장로들이 지극히 간절하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으니, 집사의 명철함으로 장차 오래지 않아 뉘우치고 고칠 것이고 젊은 제가 경솔하게 간여하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토해야 하고 절교해야 한다는 의론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한 “우선 그치고 우선 기다려서 뉘우치고 고칠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구회(九晦) 김용승(金容承)이 통문을 지어 서울로 들어갈 때에도 방문하여 간곡하게 고하고 고치지 않은 뒤에 돌리라고 권하였고, 동짓달 김지산(金志山) 부자의 편지에 절교하기를 권했으나 천천히 기다리며 답을 하지 않다가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거의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도록 집사가 자복했다는 소식은 감감히 들림이 없고, 선사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심을 바치는데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정성을 잃은 것이고 선사를 높이는데 느슨한 것이 죄가 크다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토하는 의론이 격렬하게 일어남에 집사가 편지를 통해 뜻을 보인 것은 “말에 구별이 부족하였다.”라고 하고, “명철한 지혜와 깊은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심과 비방을 분명하게 씻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으

며, 이것이 통렬하게 스스로 사죄하고 자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비록 저와 같은 몽매한 자도 중론의 대열에 달려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은 대상(大祥)의 제사가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한 번 대면하여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일이 있어 서로 어긋나고 분분하고 바빠서 평온하지 못해 만남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편지로 집사에게 먼저 전합니다.

오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1924) 7월 성토 전

答吳某 甲子七月 聲討前

답장을 받아보니, 곡절이 비록 많지만 그 큰 것을 총괄해보면, 정재(靜齋)의 스스로 인간(認刊)을 담당했다는 것과 응서(甕書)의 법도를 벗어나 화(禍)를 전가했다는 것과 상빈(傷貧)·뇌비(賂碑)·경쟁(競爭)에서 변론과 성토가 나왔다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했고, 마지막에는 변괴(變怪)의 일과 무문(舞文)의 농간을 저희에게 돌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겠습니까? 청컨대 대략 질정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집사가 계해년(1923) 8월에 정재에게 답한 편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신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 작년 가을에 의견을 수합할 때에 형도 사람들을 따라 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허락한 것이 스스로 담당한 것과 선창하여 따른 것과 결단하여 힘쓴 것과는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시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해년 8월에 따라 허락한 것을 갑자기 갑자년 6월에 스스로 담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재가 인간을 담당하여 반대자를 막았다는 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집사는 정재에게 대답하기를 “선사가 일찍이 인의(認意)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자승(子乘)에게 답하기를 “선사가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어디에서나 선사를 무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하설(杏下說)¹¹⁰로 논해 보면, 바야흐로 함재장(涵齋丈)이 인간(認刊)을 성토했을 때에 집사는 “세상의 앞날은 알 수가 없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는 말을 홀로 받들었다는 말을 지어내서 선사의 인교(認敎)를 입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말을 동문 가운데 어떤 누가 지어냈던 모두 죄줄 수가 있으니, 대초(代草)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집사는 고제(高弟)이고, 일을 주관했고, 또 대초를 하였으며, 또 홀로 들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누구와 죄를 분담하여 결사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도를 벗어나 전가하고자 해도 해당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재가 백이(伯夷)이던 도척(盜跖)이던 본디 하늘이 정해진 신분이 있는 것이니, 저나 집사가 억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선비에게 책을 간행하는 곳이 돈이 생겨나는 숲이 아닌 것은 손금을 보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정재가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또한 천치가 아닌데, 어찌 이를 몰라서 간행 장소를 옮겨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빈(傷貧)의 마음이 하나이다.’라는 해명은 남을 모함하는 글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존(敬存)이 뇌물을 주어 비문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뇌물을 받고서 비문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침내 이것을

110 행하설(杏下說) : 간재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힘을 헤아려 하라.”고 명하였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가지고 비(碑)를 강등하여 갈(碣)로 만들어 선사께 천고의 누를 끼쳤으니, 이것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집사가 비를 갈로 강등한 것은 비록 국법을 따른 것이지 뇌물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뇌물로 인해 강등했다는 설이 이미 나왔습니다. 비록 실제로 국법을 어겼다고 해도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작고 뇌물로 누를 끼친 것은 크니, 마땅히 처리를 합당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국법을 보지 않고 멋대로 선사의 글을 고친 것은 또한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뇌비(賂碑)와 관련한 유감은 경존 뿐만 아니라 동문이 똑같이 여긴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선사에게 누를 끼치고 선사를 경시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에는 두 가지고 있는데, 혈기의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리의 경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리가 아니고 집사의 무함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미 끝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師道)가 보존된 바로서 스승은 군부(君父)와 일체가 되고 하늘이 보는 것이 매우 밝아서 죄를 지은 자가 도망칠 수 없고 보면, 저희의 경쟁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쟁하는 바는 바로 의리인데, 집사는 곧 그것을 습속이라 하니, 어찌 그리 어긋난단 말입니까? 아, 선사를 무함한 것이 변괴(變怪)가 아니고 무함을 변론한 것이 변괴입니까? 말을 교묘히 하고 잘못을 꾸미는 것이 무문(舞文)이 아니고, 말을 바르게 하고 죄를 성토하는 것이 무문입니까? 천 세대가 지난 이후에 반드시 이를 변론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 정직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말하다보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사가 선뜻 뉘우치고 자복한다면 곧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상(大祥)의 제사가 조금 지나서 비록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뒤미쳐 고친다면 선을 행함에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길 바랍니다.

김용승(金容承)은 집사의 옛 벗이 아닙니까? 집사는 어떻게 그가 한농노(漢農老)라고 부른 것과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죄를 알면서도 【집사가 송영숙(宋瑩叔)에게 답한 편지에 “이 사람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권고경(權顧卿)이 저에게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라고 하니, 권고경이 “석농(石農)에게 듣고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년간 그를 엄호하며 공경하고 믿었으며 심지어 그를 초빙하여 선사의 원고를 교정하게 하였다가【집사가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에 “편지를 보내 원고의 교정을 청하였고, 또 유사첩(有司帖)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집사를 성토했한 뒤에야 드러난단 말입니까? 김용승이 무함을 성토했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래에 선사를 배반한 것과 함께 묻지 않기를 전날에 한농노라고 부르고 마음에 선사를 무시했던 때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집사가 김용승을 성토했는 것은 진정으로 선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각했다가, 지금은 선사에 의탁해서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용승과 새로이 교유를 한 사이여서 이전에 한농노라고 부르고 선사를 무시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사에서 물리치고 무함을 변론한 도의가 공경할 만한 것을 보고서 그와 교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 선사를 핍박한 그의 말을 보게 되었고 타일러 고치게 했으나 5일이 지나도 따르지 않으므로 마침내 편지를 보내 고치지 않으면 결단코 절교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어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비록 집사가 저를 증오하는 태도로도 또한 “중현(鍾賢)의 처사

가 옳다.”【집사가 권고경에게 답한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상(大祥)을 지내던 날에 저를 끌어다가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자로 삼고 영좌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제사에서 내쳐진 집사의 대거리로 삼았단 말입니까? 깨우쳐 주는 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 아무개에게 답함【부안 여러 어른을 대신하여 지음】갑자년(1924)
 答吳某 代扶安諸丈作 甲子

이른바 인의(認意)는 제공들은 내가 입으로 한 말을 직접 듣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쓴 글을 직접 보지 않았다.

좌하(座下)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홀로 앉아 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였다.”라고 한 것과 “선사가 일찍이 소자에게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손으로 쓴 글을 이미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선사가 일찍이 인교가 있었다.”라고 한 손으로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좌하가 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에 실제로 “선사가 일찍이 인의가 있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벌하는 것은 진실로 제공의 공이다. 그런데 나라 사람들이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제공의 죄가 아닌가? 이것은 제공이 선사를 무함한 것이지 내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다.

나라 사람들이 좌하를 벌하는 것과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이미 둘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하를 벌하는 자는 반드시 선사를 의심하지 않는 자이고, 선사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좌하를 무함한 자로 여기지 않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하와 선사의 관계는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선사가 결단코 의리를 망각하고 절개를 무너트리는 인이나 인교가 없었음은 실로 하늘이 알고 신명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좌하가 비록 선사를 무함한 죄를 면하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근래에 또 선사의 신해년(1911) 유서(遺書)를 읽어보았는데, “만약 왜에게 청원하여 간행 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 말과 뜻의 엄정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감히 다시 “헤아려서 하라”,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설과 경신년(1920) 유서의 “반드시 이 일을 말한 것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 두렵고 두렵습니다.

우김(牛金 김용승)이 노주(老洲)를 배척하였는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들었다.

김용승의 일은 실로 좌하가 시킨 것입니다. 좌하가 분명하게 선사가 일찍이 인의와 인교가 있었다고 말하여 그것을 성토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승은 선사를 따른 것이 오래지 않은 자로서 도리어 의혹이 생겨서 그 마음에 필시 “저 오 아무개는 직접 배운 것이 수십 년이었고 심지어 훗날의 일을 스스로 담당했던 자인데도 감히 이처럼 했다면 선사에게 실로 이 인

의와 인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이 선사를 배반한 것은 좌하가 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근래에 벼들이 서신을 보내 김용승과 절교하고 말을 꺼내 김용승을 성토하게 된 이유인데, 김용승은 사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몰려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바람난 말과 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다.”¹¹¹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김용승으로 하여금 선사를 배반하게 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들었다.”는 말을 억지로 씌웠으니, 결단코 인지상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김을 성토한 뒤따라 또 대거리하여 보복하였으니, 이는 곧장 우김을 당으로 여긴 것이지 참으로 선사를 변론한 것이 아니었다.

작년 가을에 김낙두(金洛斗) 등이 연명으로 편지를 했고 이기환(李起煥)이 단독으로 편지를 했으며, 올해 봄에는 이기환이 재차 편지를 하여, 좌하의 죄를 변론하고 성토했는데, 이것이 또한 모두 김용승을 성토한 뒤에 있었던 것입니까? 좌하는 나이가 아직 육순도 되지 않았는데 세월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혼매해졌습니까? 그러나 보내온 편지 가운데 “해를 넘기

111 바람난…없다 :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남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기사에 “군주께서는 북해에 처하시고 과인은 남해에 처해 있으니, 이것이 마치 바람난 마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며 번갈아 일어나 감죄에 감죄를 더하였다.”고 한 말로 살펴보면 이것은 혼매한 것이 아니라 음험한 것이었습니다. “감죄를 더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성토했다는 것이고, “해를 넘기었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승을 성토하기 전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남을 엮어매는 것에 급급해서 앞뒤가 모순되고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귀착을 요약하면 또한 혼매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불렀다.”고 한 것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한 것은 좌하가 김용승의 죄를 들추어낸 것이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김용승이 현자를 배척하고 선사를 배신한 죄인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은밀히 비호하고 공경히 믿으며 다년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더없이 증대한 선사의 원고를 교정하는 일에 그를 유사(有司)의 후보로 뽑아서 초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김용승이 좌하가 선사를 무함한 죄를 성토한 뒤에야 하루아침에 그의 죄를 드러냈으니, 만약 그가 좌하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장차 종신토록 잘 지냈을 것이다(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좌하가 김용승을 성토한 것이 선사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일을 따르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강한 죄가 되고, 지금의 일을 따르면 자기를 증시하고 선사를 경시한 죄가 됩니다. 또 좌하가 기록한 것을 보면, “김용승이 내방하여 “그대가 비록 나를 절교하더라도 나는 그대와 절교하지 않겠다.”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좌하에게 사과한 것은 지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김용승이 끝내 “사우간(師友間)으로 간옹(艮翁)을 대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선사를 배신

한 것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좌하가 이미 그가 다시 성토하지 않음을 허여하고 또 그를 권면하며 “미치광이처럼 경향을 쏘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잘못을 고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은 하나의 죄도 없는 것이고 단지 미치광이처럼 쏘다니 잘못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에게 사죄한 것을 기뻐하여 허여하고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면 또한 장차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찌 자신을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하며,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것은 좌하에게 있었는데 도리어 저희들에게 돌린 것은 또한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현수언(五賢粹言)》과 관련한 설에 대해, 제공들은 “불인하고 불의하고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라고 인식하여 성토했는데, 이는 내가 분수를 모르고 한결같이 선사의 설을 독실히 믿었던 죄이다.

이미 “인은 혼자만 인하지 않고 의는 혼자만 의롭지 않다. 천지는 만물을 낳고 성인은 표준을 세웠다.”라고 하였고, 또 “불인하고 불의하여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좌하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화답한 것으로 거리낌 없이 선사를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니 이것이 그 죄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오현수언》에 관한 설은 일찍이 문자로 된 것을 보지 못했으니 근거하여 선사로 훈계로 삼을 수가 없다. 또 옛 책이고 옛날 간행된 《오현수언》은 오늘날 책이고 새로

간행되는 문고(文稿)와는 의례(義禮)가 같지 않으니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헤아려서 하라.’ 등의 말은 내가 무함한 것이던 무함하지 않았던 것이든 막론하고 글은 최성(崔成)의 글인데, 마침내 최성과 당이 되어 나를 죄를 준다면 과연 옥사를 처리하는 정당한 법이겠는가.

이른바 ‘선사가 홀로 앉아있을 때에 명을 받들었다.’ “고 하는 것은 좌하가 독자적으로 지어낸 말이고 최성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됩니다.

“누구 집이나 해와 달이 비추고 있으니 왜의 달력을 비웃지 말라.”고 운운한 것은 그 자체로 지금이나 이후의 처벌이 있을 것이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 아무개에게 보냄【승지공파(承旨公派) 여러 족인들을 대신하여 씀】갑자년 (1924)

與吳某 代承旨公派諸族人作 甲子

좌하가 진사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율곡집》에는 증(贈) 승지(承旨) 김공(金公) 묘갈(墓碣)이 있는데, 《전서》에는 어찌하여 대비(大碑 신도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본손(本孫)이 근세에 갈을 고쳐 비를 세우고 다시 선사께 갈문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그 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유영선(柳永善)이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일을 자세히 안다...”라고 하였습니 다. 도승지 김공은 곧 저희의 선조입니다. 좌하와 김 진사는 모두 저희 집의 선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비록 알 수 없지만, 좌하가 비를 못마땅해 한 글이 팔도에 퍼져서 누구나 보고 듣게 되었으니, 어찌 후손으로서 개탄하는 한 마디 질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하는 잘 살피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碑]’라는 한 구문은 이미 저희 선조의 비 원문(原文)에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란 것은 지은 자의 수필(手筆)에서 나온 것으로, 제목(題目)의 경우 혹 후인들이 고치기도 하는 것과는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울곡전서》에 수록된 우리 선조의 신도비는 곧 울곡 선생이 손으로 정한 철안입니다. 좌하가 근거한 《울곡집》은 어느 본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암전서(陶庵全書)》¹¹² 범례에는 이미 “우암(尤庵)은 전집과 후집을 모두 병통으로 여겨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서》를 고쳐서 바로잡는데 있어 어찌 울옹(栗翁)의 수필을 버리고 우옹(尤翁)이 병통으로 여긴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본손 또한 어찌 울곡의 수필(手筆)과 우암의 유의(遺意)와 도암의 수정(手正)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존선사(尊先師)가 신도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의 말이 더욱 근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장로가 거둬 묘표(墓表)를 청했을 때, 존선사는 일찍이 조금이라도 신도비를 온당치 않게 여긴 뜻이 없었으며, 심지어 최연촌(崔烟村) 형제의 비문도 전후로 의심치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집안에는 국법을 지키고, 최씨 집안에는 국법을 파괴하며, 본손에게는 은밀히 숨기고 문인에게는 사사로이 말했다면 군자의 언행일치(言行一致)하고 표리교정(表裏交正)하는 학문이 결단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112 《도암전서(陶庵全書)》: 도암(陶庵) 이재(李穡)가 이이(李珥)의 <울곡집(栗谷集)>을 <울곡전서(栗谷全書)>로 증보, 편찬한 책을 말한다.

지난번 편지로 유우(柳友)에게 물었더니, 과연 “온당치 못하여
 허락하지 않았다.[未安不許]” 네 글자는 이제야 처음으로 듣는
 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좌하가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세우
 는데 급급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을 지어내어 선사를 무함한 것
 입니다. 저희는 일찍이 좌하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존선
 사를 무함하여 공의(公議)에 대단히 용납되지 못했다고 들었습
 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아무개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는 분명히 가혹한 책망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비로소 그것이 믿을 만한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곡이 직접
 쓴 신도비에 대해서 좌하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았고, 우암이 병
 통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좌하는 본집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암이 정리해서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 좌하는 무엇
 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좌하는
 단지 존선사를 무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 율곡, 우암, 도암
 세 선생까지 무함한 것입니다. 저희는 선조의 일과 관련된 까닭
 에 촉범(觸犯)을 피하지 않고 모두 진술하다 보니 이에 이르렀습
 니다. 명백히 회신하여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원문原文

後滄集 卷之五

答小心黃丈【鐘復○代玄洞僉座作○】癸亥七月

玄山草宿，華嶠秋入。轉眄之頃，奄經先師練事，山樑之痛，彌切惟均。乃於此際，獲拜尊函，堂堂至正之義，鑿鑿理到之言，先師之道德義節，以之昭著，如日星之共睹。一邊人之舛錯狼狽，情得罰當，不啻鑑明霜嚴。噫，靡執事者一言，艮翁門下一副義諦，幾乎熄矣。蓋湖之貳嶺，在不認一義，此其最大者，外此而亦有種種非細故者。湖主各稿，用手定本，而嶺主合稿者一也。湖不敢添入一篇，遵欺其朽骨無知之嚴訓，而嶺不免容私者二也。湖寓古人築場之意，而嶺之不以爲意者三也。

於此數段，平心究之，彼我之是非不難知，回車趨正，似易易也，柰之何爭心勝氣，對壘揭幟，一向抵賴？至於誑出京，默投稿販賊，剝喪先師所守，飽喫通國唾罵，而猶不思悔過善後，復惹出姜事，以乖張之，絕不可曉也。

蓋全稿不刊，而先印節要，得爲義乎？奪購讀全稿之金，充賈人之橐，可謂仁乎？欲破湖刊，出一對敵而抵之，可謂禮乎？雖曰賈人爲之，其主之者誰也？認名不得避，累師不得免，可謂智乎？人而不揆事體義理，乃至於此，則何可與論保合哉？只得守吾不愧之義，修吾當爲之職已矣。

上小心黃丈 乙丑二月

每得吾丈與靜齋書，讀之，凜凜然先師節義著，灼灼然陰人奸膽破，令人肅肅然起敬，宛若親承尊誨也。

噫，彼邊之誣師，日滋月深。謂杏下獨命，爲鯉尤獨對【金世基】，曾子一貫【禹炯根】，單傳密付，艮翁耳語【趙忠顯】。謂庚申遺書，謂非指勿認，而別有所指【崔愿 鄭雲翰 金世基，三次悖丈】。謂辛亥遺書，從天降從地出【鄭雲翰】，可疑之大者【金世基】，不敢指

以爲有【趙忠顯】，人之無忌憚，胡至此極？事到于此，欲置之乎，則終無洗誣之日，不置之乎，則彼強我弱，出場無期，未知如何則可乎？竊念湖中，先師倡道之地。故多同門老成，今日之變，大踢距詖，血誠報佛，亦宜多出湖中，不惟寥寥爲未聞，反不免有護袒者。故國人之疑討陰之出於湖南偏論者，或不無慮，寧不悶歎？乃獨有吾丈，以師門先進，湖中重望，卓然仗義，毅然持正，闡師義之發人未發，得彼情之如見肺肝，一棒一血，不少假貸。然後人皆知陰罪之當討，湖論之非偏，疑之者，翕然隨定。若丈者，誠副老成重望之實，而爲師門之純臣也，世道之幸，豈有加此哉？彼輩之滋誣無憚，惟願吾丈之心鏡愈明，筆斧愈嚴，始終關之而無替也。

上小心黃丈 丙寅七月

震泳事，罪至極頭，已無可言。至於龍刊，又不免棄訓，師道之厄，一何至此？方與同志立誓，抱遺訓，終身計而已，益覺吾丈前書，刊事，寧可遲緩百年之論，爲建質無疑也。

晉印之初通也，陰黨骨子，藏鼠頭，隱狐尾，或借或冒中立者名而錄之【沒已三年之李錫升入名其中】，眩人以若出公議。然及李仁矩刊通忽出，則恐其事瓦解，乃露頭搖尾。有權純命 柳永善 金鐘熙 崔愿 金世基輩十二人之再通，而曰：“此事，吳石農實周章之。”示人以猛將悍卒，遇敵必勝之意，冀其知事之必成而有應之者。此已極奸好笑，而至於訴拘師孫之事，則又諉之他人，而曰：“非震所爲。”夫震既周章印所矣。訴拘師孫，乃印所中大事，焉有周章者，不爲之理乎？尺童之瞞不得，而益見奸腸之迸露矣。震嘗言：“杰訴，非吾所使。”此後亦尙敢開口自辨耶。

昔尤庵先生，以救光南之故，厚受時誚，而乃曰：“設使光南，眞有大罪，而愚倡言救之，亦何足爲大罪哉？”蓋尤翁之重師孫也如此，震每

以尤翁自處，處辨誣人於尹鑄卑主貳統之說，而今於士仁也，何不暫先效嘖於尤翁，若王莽之攝孺子而急於戕害，顯加訴禍之此急乎？士仁既悟見欺於震也，則當告其迷惑獲罪於祠廟，并以謝之於士友，奉據遺書，正討晉印。是爲改補善後之道，而計不出此，乃汲汲然認刊之是務，同歸於棄訓之一轍，何其誤也？或疑認則一也，討晉而不討龍，無乃薄晉而厚龍，此不思之言也。認雖一也，龍則自擔其罪，而又用手定各稿，非可與誣師亂稿之震印同科。未知如何。

答小心黃丈 丙寅九月

閑師之道，討誣爲正，守訓爲次，下喻當矣。但討誣之舉，吾輩不可謂不盡力，而誣者不服，則世無王章，亦無如之何矣。其於守訓，不可不盡在我之道也。今龍刊不有遺訓，竟至出認。其辱師之罪，昨冬討晉章已盡，雖無事復舉，然凡守訓人，平日所受訓辭書牘，及先世文字，恐不可含嘿任他，而同歸於罪。故已與同志聯書，請拔於認刊中，未知此事爲得當否。孝與震合，未之曾聞。然其離也，不以義而以利，則更以利合，亦無怪矣。宋之新學，可爲之論，所謂詖辭，知其所蔽者，今日之狼狽，又所謂發於其心，害於其事者，吾丈之斥，豈不得爲知言之道乎？近又得夏間，答湖南僉座書，讀之，正義確論，條條得當，字字不易，其斥中立者之引栗翁爲說者，尤爲切中，百回莊讀，曷勝敬服？但其引伊川事，以論叔姪者，恐不如不引，未知如何。

上小心黃丈 丁卯

竊念山頽後，同門中識見高明，議論精確，惟吾黃小心先生一人在，而負笈問道，勢已末由，時節侯書，動輒經歲，是何好賢之誠薄？撫躬自訟，忽忽靡樂。

伏惟冬寒，起居樂道，飲顏氏水，臥袁安雪，而不願人梁繡也，雖君子所性在此不在彼，仁賢之厄，一至於此寒心者，世運也。如侍生者，何足道哉？溝壑是分，不待不忘也。然區區一念，猶欲抱經而終不負先師也。

柰此陰怪之賊，師去益無憚，既誣認教，汙了白璧之潔，又擅改稿，亂了金秤之義，滔天虐浪，決非一葦之抗，夙夜憂懼，計無所出。蓋其誣師，但觀渠所謂杏下云云說，原自明白，而欲以語欠區別，舍主討草等說，百方圖脫，而不得者也。昨冬又得渠壬戌秋，單名答徐近小書，直以爲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不言之教，非認意而何？其曰其實，曰原從者，更覺誣蠹之孔酷也。

上小心黃丈 戊辰

客冬下覆，盥讀三復，益服正當之義，明確之論，而至以閑關之任，責之無似者，則此正孟子所承三聖之功者，何敢當何敢當？但欲參在人人能言之列，則不敢多讓，以負德愛之惠也。

先師行狀年譜，曾侍敬所林丈，非惟一門之屬意，亦其所自任者，而此丈不幸先沒，今且變出之後，老成中，無人可爲，此日此役，惟吾丈可以當之。幸早入思議，隨得起草，期卒大事之地，如何？

近日湖中儒林，痛孔教之亡，立儒教扶植會，要侍生同事。其欲掄一半分於已亡之餘者，意既至矣，情亦戚矣。然今日吾輩作事，非惟無可成之望，且有不免見累於彼人之慮，則其所以扶道者，乃先枉其道也。故辭謝不參，而敢此仰質，幸明教之也。

答小心黃丈 庚午

龍本，未及考辨於手本，然聞其內容，則前稿可謂依原稿刊出，後稿則無難添入，或從晉亂，大失本面云。蓋龍人所爲，除誣師一

款以外，其違訓亂稿等事，與晉一也，復何言哉？東萊論中立之奸，似爲近日吾門依違者，準備語也。今蒙錄示，可使之聞於某某諸人，破其奸膽也，吳事之示，日聞其不聞，無事不有者也。志山金公之子聖九言：“震泳一生學問，以構訴士林成終，可謂好好結局。”今又平葬而失祖母骸，晏然同平人，此亦好結局一事，可謂內外公私具備無欠也。

答悅齋蘇丈學奎 ○ 甲子

客月拜門，實出於累年經擬之餘，而緣與人違，巧值駕外，徊徨眷戀。猶見雲谷風物，不改舊觀，明德亭上，爽氣襲人，高人逸韻，若可挹取，此已稍強人意。既而令似兄弟，延入書室，一哥誠款洽人，二哥明敏可喜，君子典型，故家詩禮，又令人欽豔，不須以適尊尊誨，大致於邑。矧茲赫蹠瓊什，卽日耑賜，情重而義正，格佳而意深，驚喜感幸。私竊以爲向使不失一宵之陪話，安能獲此百朋之手筆，永作山中之寶哉？仍念侍生之於吾丈，先世切戚也，先人同庚也。一自失怙以來，不分親疎貴賤，聞有與先人同庚者，輒惕惕動蓼莪悲，況如吾丈地哉？每見吾丈酒半酣揮白鬚，談說義利，揚扞古今，暗想風致言論恰恰，與先人或相上下，自語於心曰：‘吾親而在者，尙能如此丈之康健，尙能與此丈周旋於章掖間。’不覺泫然乎欲淚興。言到此兩家契誼之，非比平常，實際可想。且澤述幸而與吾丈同出白門，又幸而當此是非混淆之日，所執與吾丈同，乃知先戚之誼，於是乎益密。又以知所見之相符，兩家先誼之幸福也。卽此而求之，老少無間之孚，彼此相勉之道，又可知其實際也。偶誦孟子之言，曰：“文王生於岐周，卒於畢郢，西夷之人也。”澤述足之，曰：“艮翁生於完山，卒於扶風，湖南之人也。”湖南，固艮翁道學，成始成終之地。故既沒而遭此罔極之誣，在完而有吾丈諸公，

在扶而有鬯涵諸公，寸心斷斷，報佛恩於一生，大筆暫暫，距邪說於百世，俾良翁之道，始終之有賴，天意豈偶然哉？伏願益奮大壯之力，百折不回，九死靡悔，誓使湖南一區，永有辭於來許，則待生之無似，亦當奔趨下風，而與有榮矣。

答悅齋蘇丈 甲子九月

前此議者，或謂“湖未必盡是，嶺未必盡非”，此蓋認嶺有真京默也，苟京默之歸誑，嶺安有一是乎？宋秉徽與洪憲書曰：“欲得默許而來，默許不得，故不得不歸。”觀此則吳所謂分明是默之說，破矣。趙忠顯與崔敬存書曰：“閱丈【泳徽】，稿之來也，無一言，稿之去也，無一言”，觀此則成所謂得默，結局荷公【泳徽號荷汀】專擔之說，破矣，好笑好笑。

權純命，誣鬯涵二丈，以割崔換吳於清道答書，飛書八省，譟張靡極。故田鎰孝與崔敬存書曰：“金某文書，作奸盜賤之行”，朴珪啓東與靜齋書，“某也某也，改換頭目，粧撰典折【此止】”，天下安有如此變怪乎？蓋嶺派所爲，舉皆如此，推一而可知其餘。噫，周禮有造言之刑，國典有誣人之律。今天之下，法網墮地，此輩覲然行章甫間，視天矇矓，謂之何哉。

上悅齋蘇丈 乙丑十二月

頃承下狀，以丈之自擔主論，生之自擔製通，有若示死同傳之意。及聞生初十日答檢辭，則又謂不啻若自己口出。顧不敢僭廁於引與之末，已信彼此所存之無間矣，果爾十九日，丈之示檢一詩，何其與生之衣帶書，一一相符也？詩之“辨誣一生事，守訓萬死爲”，卽書之，只有辨誣守訓，歸拜先師於地下也。詩之此外無他意，卽書之，他無可言者也。吾丈所謂若自口出者，非此歟？聞檢向人譏

侍生曰：“道本廣大，金某若此狹隘。”吾丈之老成，而亦同於侍生，則想不免加受一屑譏矣。旋堪一呵，餞迓在卽，頌新福，往復間例也，而吾儕則方蹈虎尾，吉祥非所言，惟可以守義潔身四字，交致新年之祝。

答悅齊蘇丈 癸酉

嘉俳，豈非一年中最勝佳節？以是日，獲拜寵章瓊什之嘉貺。是夜，好月正圓，所謂一年明月今宵多者。尊詩清絕，亦越勝前昨，日進益工，非敢道於老鍊成家，抑亦以煩劇靜專之有異歟？要之所識吾黨中，無敵手。對最多之月，誦無敵之詩，詩與月兩清，誦之者亦清，其樂又何如哉？其喜其樂，固不下曩者親承唱酬，而佳辰好月，又曩時所無，自謂佳，況窮居罕有。第念，詩之爲道，歸於得性情之正。故孔子曰：“詩三百，一言而蔽之曰‘思無邪’”，其爲教要切，莫過於此者，柰之何，近世學者，多以爲詩非儒家所尚，而其輕之也。如曰：“今之詩，安得如古之詩也”云爾，則今之文，又安得如尚書繫辭也耶？然而必右文而左詩，多見其惑也。蓋古之正詩，多被之於樂，今樂亡而詩猶存，有樂底意思，記曰：“禮樂不可斯須去身”，知樂之不可去，則亦宜知詩之不可去也。今詩之作，雖不及古，然如有偶然出於中和之聲，而合於義理之正，則與周召正雅，其歸奚異？其爲憂道憫世之心，固窮自修之意，超塵拔俗之想，樂群輔仁之思，與夫覽物起興，對景怡神之作，雖所從各殊，而皆足以蕩滌邪穢，安定志氣，要歸於平和正直。不失樂之遺意，則自感其善，自懲其逸，不悖性情之效，果何遽不若變風變雅哉？若乃惱風月，愁花鳥，無涉身心之作，豈惟詩已？丈亦有浮華而俳優者，此皆在所不論矣。適見尊與子貞書中有詩，亦爲存省一助語，深有契於淺見。謹此敷演，仰備其詳，未審尊意復以爲如何。

答悅齋蘇丈 癸酉

承喻，以灑墨勒剃之變，而致隨遇相戀之意，此意良感。又喻以年老而勵志，不畏威者，必保全歸，此言亦當。近有鄙族一人，往湖西路，逢勒剃者，乃以短杖打執剪刀者，手刀墮地碎。因復打倒其人，被彼邊巡查所猛毆。與巡查拚持頡頑，而大言曰：“今世所謂文化政治，乃行強制若是耶？往質于汝上府”，堅持促行中，有舊面者勸鮮，曰：“往質何益？不如避之”，扶而送之，乃得免而歸。此人年未四十，以不畏威免，觀之以此，不獨年老者爲然。至於後生，不無深慮之云，誠然誠然。歲寒松柏，終古罕見，故老士宿儒，或失於晚節，況年少志未定者乎？近日風氣一變人家少年，不待勒脅，而自相樂剃勢，若河漲，不可防遏。此近吾同門，某某諸公，亦見子孫之變形。以其平日，濡染庭訓，宜有異乎他人，而同爲風潮所驅，天實爲之爲之何哉？竊見文丈二子居近完，益繁華之地，皆能保守舊制，可見法家義方，自有其術。邕涵兩丈子孫亦然。侍生子姪，姑無犯此者。然不可以是爲侍，當益勵來頭，明理而愈之，積誠而化之，使知爲夷而生，不如守華而死之意。是爲吾人目下義務也。未知尊意，復以爲如何。

答悅齋蘇丈 癸酉十二月

下詢影堂事，澤述於十月晦間，得慎軒書，議及此舉，而有湖嶺皆通如何之問。答謂，“通議陰黨，義甚未安，彼方舉先師之大者，而誣毀之，吾乃與之同事乎小者，豈不舛乎？”俄聞懶慎二丈，周行近邑，已受誠金之錄，夫孰知其受金之行，乃在議事之先乎？此見二丈，探其意，則於所謂義者，殊不明快，未知如何究竟也。吾丈之不欲與誣師者同謀，仰見見理之明，守義之正，而深幸淺見之同也。

上悅齋蘇丈 丙子

昨秋，見陰震所撰，鄭節士傳，後論中語，其所立言，有非常醜差者。故與田友士狷商議立論，近又有駁破自陰來辨證書之文矣。茲并錄呈，下覽若何？蓋彼既爲師門罪人，則其立言得失，宜若無所輕重，而不足辨者，但其徒黨，充滿域中，尊之以見識文章優於先師，至有謂艮翁之稿，待晉印改添而後，得爲完善者，則其言之失，豈不足以信人而害世乎？在吾輩之義，其所謂見識文章之有大害病者，隨見駁破，使人知并與文識而無足取，然後乃爲衛師道扶世教之盡善也。未知尊意，以爲如何。

上悅齋蘇丈 丙子

風潮日惡，道塗日險，杜門斂跡，免遭薙禍者，半歲于茲。是以準擬進侯於八耄老丈，於三年阻拜之餘者，尙未之遂，此眞亂世事也。夫何言哉？時於汝重來往，竊伏聞韶顏無減，神彩愈朗，是爲平日仰禱之協。更念見彌高論彌精，蓋在年彌高之日，閉戶著書。一筆之力，有足以捍風潮而基陽復者否？惟是之願聞。

嗚呼，一世之惡潮，固所痛恨罔極者，而今日吾門之風潮，視此更劇。前日之堂堂於辨師誣之役，而文討筆誅，霜雪如也者，今皆靡然於陰風，既與敘拜揖講論之舊歡，終以致其爲華祀之主獻，而反讐視一二人之斥通陰同事者【丈與澤述，自初有不當通陰之書，故尤爲讐視】，古今天下，此何變也？靜言思之，使人心悸，罔知所爲。此禍之避，非但杜門斂跡，乃至息交滅迹而後，庶可爾，未知如何。雖然事至於此，人也之反覆無常，固不足道，吾身之遭讐視，亦不足恤，惟師誣之如水益深，誠可寒心。此事之不可不著書以俟異日之論定者，尤爲切近於捍一世之風潮。伏望門下亦惟是之圖焉。

答悅齋蘇丈 丁丑

日前造拜，出於兩年經營，而適值駕外，未承誨喻，殊甚缺然。然得見賢哥，待遇款洽，酬酢明爽，大快人意，真可謂見其所似者，以是爲慰。前此似聞賢哥不免變形，想以庭訓之嚴，不至於此。然在今日年少，亦容有之，故心雖不信，亦不能痛辨其訛。今而後益知故家義方，自有所異。弱冠志尙，亦不易得，尤以爲慰。

歸後來幾，獲拜下狀，審悉具道交違悵悵之極，問訊此間動靜之詳，並示駕益往還之安，噫，非愛我之深，烏能致此？然少者未遑，尊者先施，感雖深矣，悚亦至矣。

侍生，鶉結於身，虎食於外，此時此狀，無足奉稟者。惟是身及四子三弟一姪九箇，舊冠現保無變，環顧域中，想少其儔。此世此樣，亦是異事，未知此爲自榮耶自辱耶。且無論論之者如何，祇以前頭克終之難爲憂耳。

竊念吾丈今年迫八旬，夫人之晚年，大有事在，且世亂如許，少者之死亡，亦無日矣。侍生之於吾丈，可謂生同義死同傳之地，而一番面候，動輒數歲，因往推來，前頭可知。多少文字義理之未盡講定者，其何以不有多少遺憾於無窮也乎？伏想吾丈，亦時一念，至於此也。前日之進惠，實在此，而既不得遂，則當依下教，以秋間拜會淨山，又不能。然則不容不更圖進謁計耳。

頃得賢哥出示近寫尊影，見其酷似，不但七分而已。但像不以正立，不以端坐，以踞坐椅上者，恐未穩。中古中國人，坐必用椅，既坐椅，則不得不踞然。朱子當有宋用椅之時，而其像猶不椅不踞。況於我國之本不用椅，而椅之用，乃在近時人乎。蓋坐椅，國俗之所無，踞坐，又儒者之所斯須不安者。今以儼然儒服，踞坐椅上，傳之後世，豈不爲爽實而貽累乎？且幀末之記寫者，不以姓名而以別號者，是豈少者敬長之道乎？曾於先師影幀，見蔡龍臣用石芝之

號，尋常不快於心，今又見此，豈亦一世畫家之風習歟？淺見恐當并行改正，未知如何。

上悅齋蘇丈

竊念文字，當作者自校自印而行之，不可恃子孫門人。世固多無意於傳父師之文者。古亦有畏禍而改父師之文者，不能傳，猶可說也。改文而誣父師者，更不可說也。畏禍而改，雖可罪，而情猶戚矣。濟私銜能而改，如今陰吳之於先師集，則罪尤大而不容誅矣。凡此雖有輕重甚否，均之爲不可恃而不容，不自校印，則實有如此者，亦不可謂我之子孫門人，必不如是也。此所謂思慮到所，思慮不到處，防備到所，防備不到處者，是爲近日淺見之一得。未知尊意以爲如何。

上老可庵叔洛 ○丁巳

天時，非人力所留，禮制，是先王所定。麻變而爲葛，苦變而爲堊，撫膺慨然，只切如新之痛際，承下狀，問訊周摯，以感以泣，宛若拜顏訴懷也。

華陽之駕往返千里，無擾利稅，聞甚慰幸。竊想，酌二帝之靈，痛風泉之既邈，拜大老之墓，憂統緒之無繼。觀瞻周旋之餘，悵然者懷，悠然者思，應有可以語同志者，恨未獲聽於門下也。

姪之廬墓，爲繼先志，而勉強彌縫者，過蒙獎贊，已極報汗，至於出門租給廬糧，尤料外，而不敢當者。凡宗族間遭艱者許多，而獨施於姪者，必以其近似乎執禮也。於此而冒受，則愧非其人，欲固辭，則既已出自尊意，而定于僉議，門子弟道，有不敢爲不恭之卻者。反覆思惟，乃得一說，叔主此舉也，蓋非私愛於姪，特以此爲獎勵之資，使益勉未能，克慎其終，且令門內後輩，得以少有效法，

此實敦誨闔族之公也。顧雖無狀，敢不思所以奉副至意乎？故下送糧錢，謹已拜領。第當益祗厥身，罔或違戾，以爲不報之報也。

答鬯庵〔洛奎〕涵齋〔洛斗〕族叔 乙丑

今朝，歲新月新日新也。天道既新，人事奚獨不然？窮陰已退，一陰誣之將熄，可見矣。三陽載回，六陽德之孔昭，欣覩矣。天道人事之相關，雖然如此，亦在人虔心奉天，抑陰扶陽，守正斥邪，以明天理正人心，補世道立民彝也。故易曰：“裁成天地之道”傳曰：“可以贊天地之化育”曷敢不勗哉？

嗚呼，近日師門之事，雖曰不幸，亦可云幸矣。皜皜我六陽翁之秋陽不可尙者，厚被一陰人之黷昧，以認誣漲疑，謗於四海，其不幸孰甚焉？乃有吾涵齋族叔，始投書而斥認，終據義而討誣，使字血句忠，決是自辱之遺書，揚布於天下後世，明先師之心於中天日月，其爲幸也，又孰大焉？夫驅逐竊盜，而反被荷杖，從古然矣。故彼輩，乃以作奸文書，埋伏杖手之誣，汙巖而不可得，則有以挨逼師門之說，眩人耳目到此，而彼輩之情狀，如見肺肝。使實有挨逼之罪，當於當日問之，不宜發之於討誣之後，以逞其憾，而況全歸於構虛哉。

蓋師生之間，無犯無隱。故有疑必質，有懷必吐。昔寒暄堂盛責婢子，辭氣頗厲。靜庵進曰：“君子辭氣，不可不省察也”，寒暄握手稱之。華島曰，鬯庵叔主言遜之告，先師誠是之教，可與寒靜已事，異世同符，彼輩乃以此爲罪，可見其疲於吹覓而無得也。

至於澤述，以此邊文字之或出於拙手，深爲彼輩之眼釘，竟遭幻命改表之目，居喪無禮之案。古之人有爲師而至死者，今之逢彼毒噬，何足介意，但震之白地捏陷，一反前言，疑若不具人性者也。我若幻師命改表者，震也何以以前後貳論自悚，而致書謝之於還

傳之後也？若居喪而無禮者，震也何以麗氏末俗圃老高行之幸觀奉狀，贊之於廬墓之日也？絕可怪也。

先師之日光玉潔也，而被認意教之誣，手筆心畫之斬釘截鐵，而遭僞遺書之斥，況如吾輩者乎。先師乎而彼猶不憚，況於餘人乎？先師之誣，且未昭雪，遑恤於自身乎？只信不愧吾心，只求自盡吾義而已，未知如何。

先師，四千年道學家最後一人也。以道學家最後一人，如有戴認刊稿之意，是天下之大不義也，誣其師以大不義，天下之大罪也。今震泳以所稱高足者，誣四千年最後一人之先師，以天下之大不義，彼其自陷大罪，固在罔赦，如有人以其高足之稱，而信其誣，則是世道之大害也。今日之役，辨天下大不義之誣，討天下所不容之大罪，以明四千年最後一人之心事，以除世道之大害，誠天下萬世之大事也。吾道之存亡，生民之人獸，皆係於此，非一家一國興廢之比也。伏願舍置他務，專心此事，以立天下之大功，如何。

上鬯涵齋族叔 乙丑十二月

聞檢言，只問製通印通者，其餘勿問。然則姪當爲首，弘次之，可以省得許多人禍網，好是簡便。然弘是青春具慶，其將奈何？古有一門爭死，至今輝映者。伏想，今日義諦，應有定衡于中，不使魯孔褒專美也。蓋救父兄之難，雖曰子弟之道，然當事者，但知許和無師，反訴自辱之義，而不問其他，是爲目下當行者也。投書于檢者有幾人，此雖非要点，亦可使不敢輕斷。然出於中心，然後可爲，非他人所能勸。至於當事者，尤不可勸人以取分禍之嫌也。

上鬯庵族叔 丁卯四月

昨見龍洞分刊，光州通牒來到，柳永善名，參其中，無乃龍晉之相

合乎？當初龍刊之貳晉，爲爭利而設。其云遵手本者，假之而已，則宜其乍離乍合，本色之自現也，無足怪者。但其別紙所引，韓范上殿相爭，下殿相歡之事，類例不倫，極爲乖妄，不容不辨。蓋韓范之上殿相爭，均之爲爲國而只是所見不同，正孔子在朝便便之意也。其下殿也，豈有因異見便便之故，而不相歡之理乎？若使當時同朝者，敢有誣宋之先帝有降虜之意者，韓范必請據法正罪而後已，豈容曰爭曰歡之可論哉？

吾儕與陰震，初無認誣之關，而只爭稿事之或板或活若湖若嶺而已，則可引韓范之故事也。今陰震之誣先師有認教，正臣子誣君降意之同罪也。吾儕既已討正其罪，復與之相歡，則豈非同爲誣師者乎？以誣師爲細故，柳輩之見固也，其餘人鬼窟裡醉寐者，又不足責。至於晦峰高丈，居在此近，習聞義理，而猶巍然居通首，不覺陷於妄言乖義之科，則甚可歎惜也。吾儕於此丈，均有鄉井世契之誼，非凡他同門比。叔主又同庚無間，幸爲一書而教授之，如何。

與誠菴李丈裕興 ○ 庚申

竊念，炳翁以純粹樸茂之資，用積累篤實之工，卓乎其崇德，淵乎其邃學，光明磊落之心事，謙沖儼恪之氣像，愛人也，春雨之潤苗，裁義也，秋霜之隕草。乃若不激不汙，匪抗匪卑，而折衷乎中正確實，是其生平立論行己之準的也。以余觀乎先生，殆乎其仁義具體之君子也。

以若抱負，老死林下，上之不得爲君相之知，下之不得主斯文之盟。知德者鮮，令名不彰，曷勝慨惜？惟昔孜孜求道之志，惓惓及人之善，惻惻憂世之心，班班載在遺稿中，苟遺稿不泯，則先生之心不死，遺稿公傳，則先生之澤被世。刊稿之役，豈非同門後死之責歟？澤述之於先生，平日悅服，誠居師門之亞，而先生之施教也，

亦稱此焉。此翁此恩，沒世可忘？苟可以爲功於稿役者，豈敢憚勞而辭避也？此所以聞命卽行，庸助一臂之力也。統希俯諒焉。

答遠齋 李文喜璣 ○ 壬戌

向教，堯舜性之，自誠明謂之性，性焉安焉，諸性字，看作聰明審知之天性者，深幸淺見之不約相符也。如作人人同得底本然性看，則湯武身之之所身者，自明誠由教入之所入者，復焉執焉之所復執者，獨非本然性乎？合下文理語法，恐不如此。而況性焉註，朱子明有獨得於天之訓乎！至於小學惟聖性者之性，與衆人頽性，相對立文，則當只作本然性已矣。

與遠齋李文 乙丑二月

自有陰誣事以來，同門士有致書責喻者矣。喻之不聽，繼以聲討者矣，有依違中立者矣，袖手舍嘿者矣。又有袒護助虐者矣。若乃不責不討，只立自家文字，以後來世，如吾丈之爲者，人多謂之得中。然以侍生淺見，則殆以爲未也。記昔先師，以柳正錫事，與澤述書，有曰：“後進少輩，不無疑眩之慮，此則賢輩，不可不任其責也。”又引趙肅齊與洪鰲谷書，“儒門衰敗，一無奮發底意，而未免老洲先生所戒，奄奄泉下人，氣力而終，未克出一口聲討，若於此不知所以憤激，則便是刀鋸在身，而不知痛者也。爲師辨誣，自是大義理，見無禮於君親，而拱手坐視，朱子之所嚴斥，則弟子之於先生，寧有異同乎？如曰‘小異則生三事一之義，掃地盡矣。’”【肅齋說，止此】之說，以申勉之，若其聲討之過中也，肅齊何以引老洲語而切歎，先師何以引肅齊語而勉之？柳正錫癰疥之疾，蛟蟲之憂，先師猶如此。今吳震泳心腹之患，豺狼之當，九原可作，豈肯容之乎？然則自信淺陋聲討之爲得中，而益知吾丈不討之爲失中也。且吾

丈所自立之文，未知有如孟子闢揚之辨，韓氏斥佛之文之不遺餘力者乎？以吾之所睹記，只將簡單幾篇略綽說，破初頭一出，而終不復發矣。蓋吾丈同門之老成重望，一語一嘿，衆之從違係焉。從違之間，是非隨分，吾丈之立文俟後，而不入公通，雖自以爲行所無事，不爲已甚。然人但見其漏通而又無顯行辨文也。故以湖，則疑其惜吳而不忠師，以陰黨，則意其背湖而向陰也。筆書而告諸人曰：“遠齋曾於主玄者，誓言不參其中，噬臍於已往”，引而并列於討玄者某某人中【權純命，答趙子貞書，如此】，此則以何辭自鮮於今與後乎？竊不勝代悶也。昨夏，於玄巖，以何不辨討陰吳奉質，則文答謂，“彼輩，以吾性說之不遵先師，方加以罪目，吾安以討彼輩哉？”此有決不然者。性說之未喻，識見之不逮也，絕非不遜自肆之心，則元非所以爲罪者。雖曰有所未安者，亦非誣師者輩之所敢議其得失也。若吳也欲報討誣之嫌，舉此追罪於今日，則視聽之，未及眩，而肺肝之徒呈露也，奚益哉？且君子之用心也，自反而有罪，則雖千人之褒賞我罪，自若不待人討而當自討矣。我若無罪則雖鈇鉞之當前，身則受戮，而我無愧也。若我本無罪，而預慮人之勒我，見人誣師而不之討，是豈誠心爲師之道乎？近日崔愿金世基 鄭雲翰輩之構誣湖人，慘不忍見，人爭語曰：“遠齋，若入玄通，必遭性說違師之罪於彼輩矣，可謂有先見之明也。”嗚呼，吾丈之心，豈真若是乎哉？爲此言者，其不識吾丈之心，而一轉則爲噬臍已往之說矣，其所以贊吾丈之明者，乃所以昧吾丈之心也，良可歎也。然邇來有此口者，豈非以人之但見不聲討，不書責，而不見其所立文字之自有簡單幾篇者故耶？侍生之爲此忠告，非欲吾丈之同聲討，助黨援。但欲吾丈之思不明不措之義，廣立辨文，上以明先師之心，次之絕彼邊援引之口也。

與遠齋李丈 乙丑四月

近竊聞，辛亥遺書，經先師手筆之本，又在吾丈篋中，今始發見。流言止於金滕，僞書廢於孔壁，古亦然矣。

惟我先師，天監其心，鬼護其書，滕遺壁藏，在在燦明，陰膽雖硬，安得不破？破無餘。但請吾丈自引忘忽遲慢之罪，告于玄阡，不可已也；廣布遺書再現之由，以杜靜齋遺書不敢謂有等之惡口，亦不可緩也。

答遠齋李丈 乙丑六月

澤述於吾丈，二十六年同門，當此是非大關，若視同恒人，蓄疑而不質，天必厭之。近始奉讀朞月下章，蒙喻以與震賊合其睽離，而并不問其服罪與否，已怪其有德者之未必有言。既而又聞丈與震已修，其於憂戀，無任下誠之禮，則又知其細故，誣師噬臍前事，而竊歎人固未易知者。有如此而并以疑丈之忘置遺書云者，未保其必然，而自愧乎從前之力護無他也。噫，丈若同門平常人，則何必索言至此也？顧乃平日之自期者，言言是明道栗谷之高明也，所求者，事事是中庸之至善也。性理專門，則未嘗不自信其爲湖洛以上之見也。至於德性之溫粹言動之有，則又先師之所稱道，而人無間然者矣，孰不以爲艮門老成，湖南重望也？宜其有卓然之見，皦然之心，毅然之義，廊然之辨，可以開群蒙服衆情，主斯文裨世道者。而始之不能據所受遺書以防認刊之議，再之既發五人黜練之言，而不能對衆中之，震詰三之斥，震三說之繆，罔手筆明的也，而復對人說，杏下說不可謂全無。終而拂拭之，洗濯之，始終參差，言事柄鑿，莫測其權衡之所存。惟其丈之爲老成重望也，故後進少輩，視以爲則。是非混淆，曲直顛倒，泯泯勞勞，莫可收拾。竊爲長者悶之，爲世道憂之。夫誣全翁，以諧世取寵者，金平默祭文是也，

誣先師，以認意認教者，陰震之筆舌是也。然金何嘗自言誣全翁，震亦何嘗自言誣艮翁？然金之誣語，隱而難知也，先師猶逐之若鳥雀。震之誣，直而不諱也。乃有分疏掩護者，阿附爲黨者，其亦異哉。今丈之怨震而欲保合者，爲體先師之弘和，而中於節度【體先師弘和，中於節度，來書語】，則先師當年之斥金也，何苦棄却弘和而行此隘陋不中節之事乎？此區區所未解也。若主癰疽瘡環，何以爲孔子？若有認意認教，何以爲先師？非丈辨震誣文乎？夫癰疽之誣，時人好事者說，孟子猶痛斥之，若使此誣，造自孔門私淑之列，以孟子惡惡之嚴，其不與之，講修和好，而行吊哀賀廢之禮，必矣。而今認誣之於癰瘡，大小之差，不啻霄壤，則丈之此舉，尤區區所未鮮也。凡此皆丈之所自處以中庸者，而敢以未鮮獻疑甚矣，厚蔽之難開也。雖然中庸之難能而民鮮，孔子之所嘗屢歎。丈雖明哲，恐不可易言，則所可慮者，非胡廣之塗轍乎。幸加再思善後，使慕愛者，與有光焉如何？言出赤心，或傷直，切聽否，在尊裁。雖不敢必，如不曲諒先以觸犯見誅，豈敢復進忠諫之言哉？竊聞丈言，昔年同受遺書者十餘人，而今可記者，金鐘熙，柳永善。丈與靜齋年皆耆老，猶可曰忘置，金柳之年少者，亦皆昏忘而不出耶？古有忍字百餘，今有忘字十餘，可怪也。

答遠齋李丈 乙丑十月

今見丈與僉座書，論嶺刊事有云：“守遺訓，固是不易之常，而事又有因時輕重”者。夫既曰不易之常，則是所謂中庸之道，而天下之理，無以更加者，乃復有一種因時輕重之道哉？且先師之垂遺書也，固因時裁義，權輕稱重，而粹然出於中正矣。今日之於先師時時，未嘗有異也。丈乃敢輕遺書，而重認刊，謂“是爲因時之義”，然則先師之訓，早已昧於時中之義也。又云，“僉君子，無違聖人觀會

通典禮。”夫先師所造地位之高下，雖自有後世之尚論，然在吾輩，則信之如聖，不害爲尊聞行知之道。

今丈則心幟高揭，立落已判，乃曰：“我則從聖人，而不敢從吾師”，至以認刊爲聖人會通典禮之事，則是先師之訓，早已昧會通典禮，而反聖人者也。是豈弟子之所敢道乎？蓋先師此訓，句句妙道，字字精義，俟聖而不惑者。先師之所以爲先師者，正在於此。丈承三十年罔極之恩，且親受遺簡，手澤不變，乃弁髦此棄之，崇彼爲聖道，無乃前日掩匿之實狀，到此盡露，而欲諱不得耶？可惜虛勞當年朱筆玉章，選擇鄭重之託，未知異日何顏，拜謁於地下也？

震之誣師，訴檢，已不可勝誅，今之竟行晉印，又加一層，而丈之所以處之者，乃如此，於是乎，深知和震吊震，乃其真情，令震服罪，不過爲遮護也。不直不見，敢此仰告，庶望丈之猛省憬悟，改圖而同歸，非敢相爲詬病，而取嫌怒也。

答近小徐丈柄甲 ○ 癸亥七月

前承下狀，疑以黨惡於崔碑。事涉爽實，不免‘君子一言之不知。’故頃於華拜，略舉義理事實，以稟白矣。未審今已快悟，若披雲覩青？抑尙在信疑之間耶？澤述於丈，雖有老少之異，竊欲以道義相期。今於心術大關，豈容不相悉之至此乎？茲以仰質，略與下破，開鬱至望。

與近小徐丈 丁卯元月

澤述於年前，以湖無認，而有事玄洞也，以黨惡崔碑，見疑於丈。畧舉義理事實，告以見義不明，責人非情，而未知丈之鮮悟與否。既而湖之討吳以誣師也，聞丈有石農，酷似尤翁之語。又竊歎以爲不悟，猶可說見義不明，一至於此乎矣。近日則丈乃出示吳書所

云，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於人俾知有認誣之實，如此實據。胡爲掩藏多年，而匿其罪乎？於是乎，丈自是黨惡於吳而忘師，不徒見義不明已矣。雖然彼罪既實，終不可逃。故天誘丈衷而出其書也，在丈，亦賢乎終於掩匿，而足以見知彼罪而悔己失矣。往不可諫，來猶可追，在丈自處之道，惟有亟將前日昧錯，今者悔悟之實，上告玄阡，下謝士友而已。

與惟夢鄭丈寅昌 ○乙丑九月

念昔庚子之冬，櫛八風風穿雙龍雪，間關拜先師於仙庄也。行李蕭蕭，弱齡蚩蚩，吾丈護之導之，極其繾綣。茲後，數年如一日於金谷華田之間，一自先師南下，奉誨希闊，山頽三年之後，則尤落落若曠世人事，然何嘗須臾而忘舊惠也？不自量力，欲辨師誣，遭陰吳之訴，三被檢呼，事機罔測，嬰禍戕身。雖則不孝，爲師致死，亦係分義，夫復何恨也？因念吾丈事師之誠，遠出尋常，獨賢於金華之在陳，感人於摧櫟之善哭。此侍生之所心悅也，而獨於辨誣之舉，尙未有聞焉。夫服勤盡情，事師之小者也，明道尊義，事師之大者也。以吾丈之高明，豈不審於大小之分哉？幸賜回教解惑千萬。

答惟夢鄭丈 乙丑十一月

所示中，“爲師辨誣，大義所在，何可已也？及赦請代，討代草，彼之不服，傍觀所惑在此，及接人處事，必其有以盡天理無毫私之喻”，仰認嚴正之義，公平之心，極致之論，有迴出等夷者，誠所敬服。但在區區獻忠之私，竊恐自任也，有或不重，據實也，有或未詳，責人也，有或太高，於自處處人之道，有欠十分盡頭之論也。猥此備陳，幸垂察焉。

夫清役之不謀全門公共，猶是小事，大之欲將心血所注底師稿，投

所讐而乞認，誠不可說。非惟幾箇人主謀者，凡不能正言折破，及
勉勉強苟同者，并宜遭討於公議也。然此係門人之罪，苟同者，悔而
背之，主謀者，悟而罷之，斯可已矣。乃有何許一種無忌憚者，敢生
援師禦人，脫罪嫁師之心，誣之證之，不一而足，使先師皜皜炳炳
之義，受黝黝昧昧之疑。凡門人之義當辨討，在所不已，則雖前日
之苟同者，固不可避嫌而不討也，況以吾丈清清楚楚，初不關清役
之義，若退托於不足齒數，而不自任倡明何可已之大義，則非惟師
義之難明，公議之不行，爲世道之憂，反求乎己，無亦有遷。清人都
無一言相及之，怒加之於爲師辨誣人之嫌之大不安者乎？請代者，
非但有一告玄阡，一服衆中，而自首其罪；杏下之說，元是代草者
之白撰，出自自口，錄自自手。請代者，初不參於所謂獨坐之時，則
固不可與他書之請代代草者，比並論也。且非獨此也。曰：“先師曾
有認意”【吳對靜齋說】，曰：“先師帶著認意於言語之際”【吳對宋秉
真說】，曰：“先師嘗教業者代認著者無關，不必深拘”【吳答李子乘
書】，曰：“先師仁義不獨，使人認印粹言禮說”【吳答金容承書】等說，
吳之總有，而崔成之所無也，則一捨一討，自有權衡。彼之強項悍
戾，援托不服，已是無謂，傍觀之所惑，亦在乎此，則尤所未喻也。
盡天理無毫私，聖賢之盛德也，學者固準的乎是，一毫不敢自恕。
若謂必待吾之盡理無私，然後可明尊師衛道之義，又必以人之不能
盡理無私，不與其尊師衛道之義，則朱子所謂，“人人得討，不必聖
賢”之訓，不得爲千古不易者矣。未知吾丈，復以爲如何。

昨又讀丈與玄洞僉中書，先師大稿，寧可不刊，不可失正而刊之
語。則大義明彰如日中天，群邪莫逃，其形而世道其有所賴，區區
不勝景仰之私爾。

爲彼冒錄，豈獨吾丈？沒已三年之李錫升，亦且不免，所謂‘天下無
所不有者’此耶？可笑可拍。

答希菴金丈鄮謨 ○ 庚戌

聖賢經傳中，許多仁字，有以理之名言者，有以心之用言者，當各從其立言之意看破，不可擬比彼此以混名實也。大學‘文王之五止’，是釋止於至善之義，而仁敬孝慈信五者，卽至善之條目也。朱子曰：“至善卽事理當然之極”，此何嘗犯一毫心之用耶？至於止之功，則乃心之用也，師門之以仁敬以下五者言性理者此也。若乃論語之忠信篤敬，小學之知仁聖義忠和，中庸之知仁勇，書序之德仁敬誠，皆以德行心法之已成者言，更無上面用功。如止之之爲此等仁字，皆可謂以心之用言者也。伏乞一一回訂焉。

答希菴金丈 庚戌

仁敬孝慈信五者，以心之用當之者，不能無疑於淺見也。蓋淺見以朱子以此五者，爲事理當然之極。故以性理當之。尊誨謂“與理爲一之心，亦可謂理之當然，故以心之用當之。”竊以爲事苟合理，非惟精微之心，可謂理之當然，如手容恭足容重粗跡去處，亦可謂理之當然也。但此五者，朱子既謂事理當然之極，而明德新民之標的，則是乃知止，集註所當止之地也，格物，集註物理之極處也。傳二章無所不用其極之極字也，此只可謂天然自在之理而已。至於知之 格之 用之，敬止之功，然後始可謂心之用耳。

答涵齋族叔 甲子

嚮教書，“追慕那事府君遺蹟，極致感慨之意，思有以圖不朽。”百回擊讀，既以仰服孝思之無窮，又以幸我心之先獲也。竊嘗聞，見幾之謂明哲，高蹈之謂達節，遇事取義而不失身者次之。府君以麗氏世家，爲宗室昌寧君壻，少有意於俯取峻秩鉅祿，將囊探芥拾之易易也。乃

灼知時事之不可爲，而不忍坐視宗國之淪喪，且爲所存罔僕志之重且大。爲歸鄉，自靖獻于先王，其義則箕子之明夷也，其跡則魯連之東海也，視園牧諸賢之或殉或遜，名位之微顯，雖有不同，其所存所履之，同出於惻怛節烈，豈容軒輊於尙論之口哉？蓋府君之此舉也，循理也，盡分也，只見當下之當然而已，豈計身家之利禍，來裔之興替？

答涵齋族叔 乙丑八月

師誣未雪，士禍孔慘，痛哭何言？申象村所謂，“戕賢毒正之類，生不能膾肉机上，則死當十世不宥者”此也。雖然，“滂死則禍塞”，范公云然。人苟拚得一死，天下無難事，出與不出，皆可以自盡吾義。但初不一出抗辭，或投書見意而閉戶自靖而已，則如吾叔主禁認討誣，終始一節粹然明白。獨一無二之大義，不能一番暴揚於世界上，默默藏腹中而歸，豈不可悶？等是死矣。要死得明白，非以爲名，明師義警世道之道，恐當如此，未知如何。自警文百回莊讀，守身之義，事師之忠，固當如是，令人感服。蓋王莽之篡漢，討賊而死者，惟東郡之翟義，祿山之亂唐，守城而沒者，惟睢陽之張許，彼高官厚祿，飽受君恩者，始以誤國，卒以附賊。至於仗義報忠死國無悔者，乃遠方之散官也。噫，今日之事，何以異此？近日族弟建植，亦被呼。檢曰：“胡爲破妨姜泰杰生活？”答曰：“禁討吳震泳，非關姜泰杰。”檢曰：“投鼠則器破。”此答當曰：“器破則損害，當徵於鼠。”檢必曰：“鼠何以徵出金錢？”又答曰：“吳震泳人鼠也，可以徵出”云，則的當矣。惜乎，其未及此也。崔性謙與敬存書云，“震言‘吾有錢則當償姜害，而貧不能則不得禁其告訴’”，既云當償，則徵出於震者，豈不當乎？又云‘不禁其訴’，則雖欲免使之之罪得乎？此實自服之供辭也。權書‘難免禍士林之’云，猶有秉彝之存，而生意不至全滅。至於震答，不狃禍士林累先師之云，其顛到輕

重，恍惚閃爍之巧，已無望於悔服，雖欲掩其惡，亦何益矣？只見其可哀也已。

上涵齋族叔 乙丑十一月

姪爲師致死，少無怨悔，但師稿之收拾未備也，是非之詳記顛末也，屬之何人？向見靜齋，言鐘賢“不免後事茫蒼”，時一念之，又曠然一歛也。

答涵齋族叔 丙寅

姪之書紳，對檢辨誣守訓。歸拜先師，他無可言之。語出於倉卒，拙策僅免負師之罪也。乃蒙獎以“建天不悖，斯文有人”，非惟姪之不敢當。亦恐未盡於教導門少之道。至於戒以‘自足不進’，則姪雖不敢遽有是心。然惟其愛之深，故慮之遠如此，敢不拜服厚惠？蓋今日辨討之役，叔主先倡義聲，若鳳鳴虎嘯，繼以麤拳大踢，若雷萬風迅，若非叔主，先師後事，殆將割地埋沒矣。只此已是接其緒得其道，豈可以師門晚進，自歉也？記誦好著述之弊，誠如下喻。然在老學，尤屬切戒。但要磨得此心極細，澆得此理極爛，使所接所得，益精而已，願於此加意焉。震命以下十餘輩之奸慝賊義，言之汙口。彼雖印得師稿，山高海廣，家奔戶藏，其誣背之罪，亦如山如海，家誅戶討，其欲立功而掩罪者，適足以罪上添罪。雖揚揚湖嶺間，自說斯文第一功，其實游魂假魄，索然無生意者久矣。所謂罔生幸免者，非此乎？

上涵齋族叔 丙寅

聞彼將勤加我韓人以服標，此是十五年前壬子已事。而時久勢固，想復益張密網，言之痛憤，寧欲無言。雖然彼爲彼事，吾守吾義。

凡我韓人有血氣彞性者，豈肯受其汙哉？此又吾輩舍魚取熊之時也。當此時，死此事，不爲無辭於後世矣，未知如何。

答涵齋族叔 戊辰

爲出嫁女服，在禮爲大功，而其以改適而絕服，不見前據。尊意特以爲我國既禁改嫁，則服亦當絕，故有是論。然國典，但曰‘改嫁女子孫，勿敘顯職’而已，初無改嫁之禁。然以其禁敘顯職也，故士大夫家，恥其子孫之不得齒人，一有孀婦，百方防禦，甚者投之毒藥，枯血脫肉，俾絕人道之思。於是律雖無文，俗幾成禁。故人恒言我國禁改嫁，此太不別白之說也。既未嘗禁改嫁，則服之絕否，又何論哉？夫立賢無方，先王之制也。以其爲改適者子孫，而棄材不用，固非不易之典。且文王之政，必先鰥寡。而老而無夫謂之寡，則古昔聖世，少而無夫者之多改適，可知，而聖王之未嘗立禁，亦可知也。夫男女室家，人之大欲也，防人之欲，甚於防川。於是變生於骨肉，陷於禽獸而後已，尙忍言哉？故不若嫁與別人，俾免凶惡之爲愈也。此改適之勢不可禁者然也。至於聖賢制服之義，以恩服居其首，若以其女之改適而絕其服，是自絕其生育之恩也。親之於子，子之於親，其生育之恩一也。親既可以不服子之改適者，而絕其生育之恩，則子亦可以不服母之改適者，而絕其生育之恩矣。天下安有此理乎？此服之不當絕者，然也。尊喻謂“周孔當路我國，必義起而絕服”，淺見竊謂“周孔當路我國，必先正其本，革勿敘顯職之政，而祛強防毒禁之俗，不應循其謬規之末流，復倡不服之法，而歸於不仁之科也。”尊喻又以“春秋，但書亂臣賊子人人得誅，不書賊妻人人得誅，爲開改適之門而然”者，竊以爲未然也。春秋者，因魯史記作也。史之可記者，多在於國朝政事君臣父子之間，而罕出於家庭夫婦之際。故舉其易見者，以該其餘矣。若謂爲

開改適，而容賊妻之罪，則是聖人以改適爲重，而滅綱爲輕，天下安有似此聖人？然竊詳尊意之所謂賊妻，似以改適者當之，此又與淺見異矣。淺見以爲必有弑害其夫滅亡夫家之類，然後乃可謂賊妻而當人人誅矣。如有此惡者，則其親之絕服，固在勿論，其有奸淫醜汙，行同狗彘者，亦在不服。外此而夫亡改適，更無他故者，只當服本服已矣。未知尊意復以爲如何。

上涵齋族叔 戊辰

姑姊妹女姪改適者絕服，重荷提諭，敢不改見而從教。但此有關人情天理，而不可苟然了當者。故復陳瞽見，而就質焉。夫天屬至親死，可以絕服者，必其元惡大憝，生前已絕其恩者也。假使叔主有姑姊妹女姪之貧窮無託而改適者，果能輒斥去之，絕不對面乎？求之人情而所不忍者，必其天理之所不合者也。如曰“生當絕恩”則已，不然則死，不可以絕服也。如又曰“生雖不絕恩，死當絕其服”，則非吾所敢知也。至於以稼母降服，立旁證而曰：“三年之喪，雖降，功服之喪，當絕，的矣”，則恐又有不然者。父之妻者，子之母也。既不得爲父妻，則子不可以謂母，不可謂母則可以無服。然而不忍不服，降其服而服之者，以有生我之恩故也。故繼母嫁則不服。蓋母嫁而降者，以其絕於父也，不降，猶絕其父也。父者，子之天也，無絕道也。彼姑姊妹女姪所絕之夫，於吾有何關重？若爲其絕夫，而不服吾至親，是視其所絕之夫，重之若吾父者。然亦非人情天理之所安也。且若改適者之當生絕恩死絕服者，程子必不載嫁寡甥女之事於太中行狀，朱子必不記柳公綽擇壻嫁嫠於小學，何叔京墓文必不錄其女改適羅點也。程朱大賢也。古人云“不敢信己而信其師”，姪於叔主，亦不能無望焉。

答涵齋族叔 丁卯

白笠終身當否，考諸往蹟，新羅之亡，敬順王太子，麻衣草食，以終餘年，明亡，搢紳先生，往往以衰絰，痛哭於荒岡斷隴之間。先師亦於戊午大喪，三年後，不去白笠以沒，或人之論，未爲不可。但士庶之義，與國冑搢紳不同，且不於光武喪三年，後而行於隆熙喪三年，後則未知其如何。且若終身戴白，則居處飲食接人出入，必大異於平人，歸於名實同符，免夫表裡不同，然後可以有辭於義。凡此曲折，恐皆非便有難，徑情行之，未如何。

國恤，童子朞年，冠者三年，典禮也。朞後童子除服，以其爲童子，故用童子之典。三年內，冠者戴白，以其爲冠者，故用冠者之典。且借吉三日之文，通三年而言，非但指朞年而言，則童子已除服者，加冠後戴白，無可疑者。故先師已有論定矣。尊喻“天下縞素之中，獨著漆笠不可”者，誠亦至論也。

向與慎軒辨論，近復如何究竟？淺見不待究竟而迄可已之，則自當有互相通合之日也。若問慎軒曰：“斷髮，復父讐，使子當之，爲乎否乎？”必不得不曰：“爲之。”又問：“斷髮禱雨，斷髮讓國，處變之中道乎，否乎？”必不得不曰：“中道矣。”又問：“復父讐，與禱雨讓國，輕重何如？”必不得不曰：“復讐重矣。”然則叔主之論當然，而慎軒之意，亦外此不得也。又有問叔主曰斷髮而禱雨讓國復讐，雖得爲處變之中道，使君子立訓曰：“欲禱雨讓國復讐，雖斷髮而爲牲爲夷，可也。”則必曰：“不必如此立訓也。”然則慎軒之意正慮後弊，而叔主之曰不必者，亦應以此也。故敢曰二論之不合，緣彼此所存之不相悉，不如合席爛講，以俟意思融通，義趣歸一，不當以辨論相高，轉成乖激也。栗谷先生有言曰：“親病割股，雖未爲中道，必待神醫如扁華者出視病曰：‘此病，必取補他血，然後乃瘳’，而其子行之，則爲得中道。”然若有人立論曰：“若療親病，雖割肉

可也”，又必不許矣。此恐可以斷得今日之論，如何如何。

上涵齋·懶齋·益容 ○辛未

竊伏聞二丈近以削復當否之論，久未歸一，因成嫌隙，將至乖離，是何說也？韓歐之易繫，馬范之鐘律，亦可謂大議相差，宋朝之同心爲國，先數四公，古人同志之不免有異見尚矣。至於爭同異，而成仇隙，乃末世陋士之習也。削髮復父讐，但出於臨機變形，若山僧城朝【漢時有罪髡役者之名，若今之懲役。】之樣，使彼不知，得以下手，絕無他意。則非但涵丈之謂可，澤述亦曰可也。若不出於臨機變形，而或出於染夷乘勢之意，則非但懶丈之不可，澤述亦曰不可也。蓋復讐，大義也，讐不復則非子，臨機而必不得已。非惟削髮，加以夷服夷語，亦何不可？華夷，大防也，身一失則亦非子。如附夷屈節，而讐可得復，削髮且舍，雖保峨冠博帶，亦何可也？涵丈雖主於復讐大義，華夷之分則聞之熟矣，失身爲夷，必不謂可；懶丈雖主於華夷大防，讐之復否，人獸之判，必不并與臨機變形而不許也。若得二丈對面講討，遜志以明己見，虛心以盡人言，自當煥然相釋，彼此俱有理到之見，而不害爲殊塗同歸也。何至連篇累牘，不肯相下，竟歸於陋士辨爭仇隙之風也哉？夫講論，所以明義進德也，如此則豈非適所以傷義乖德乎？而況同祖同師，義別他人？竊願幡然改圖，相下不倦，務盡己道，而毋貽人笑若何？

上涵齋族叔 辛未

昨聞士仁來謝祖震排湖之過於門下。又訪見舍弟言：“令伯氏未暇詣謝，望告以此意”云。蓋此人本無定見，爲一邊誘引而然。今既知過來謝，不當追念其舊，使其不悟先師嗣孫無相絕之理。昔任動萬親好李承旭，至欲結昏，先師誠心書喻，不以其不悟而置之。由此

觀之，此中之不曾誠告士仁見惑之日，却爲未盡也。如何如何。

答涵齋族叔 癸酉

向詢，金東峰安重根優劣，退而思之，二人之品類不同，其所樹立，各從其類，不可得以比並，而論優劣也。東峰儒雅人，安氏武勇人，安氏所爲，金必不爲，東峰所爲，安亦不爲。然其忠義一節，同出於至誠者何也？以其天性之秉彝，不以品類而有間也。蓋其布衣守義，經千辛而不悔，匹夫奮勇，殲巨酋而雪恥，俱卓然赫然，求之前史而無匹，傳之後世而有辭，詎不偉然？然迹其行而論以中正之道，東峰之爲僧無子，既失之過，安氏則非惟變形，所尚乃新學，亦不可以語中矣。但安氏之受戮，誦尙書人道危微精一執中語，去洋服服韓衣，而得正終之意，則又不類新學人所爲。而猶賢於身通儒學而終歸釋形者，亦可尙也。未審尊見復以爲如何。

上涵齋族叔 丁丑

昨拜時承喻以“令從學者，發通辨世基凶文”，此雖憫姪受誣罔極而然。然竊以爲不必然也。蓋姪之從初主義，只辨師誣而已。今世文雖凶，所誣者此身，則其於姪之主義，在所不辨，且其誣也，謂“人居喪無禮”，而初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則其諸構虛捏無之狀，卽此可見，而又無足辨矣。且也震泳之所以爲無狀人者，都在‘務勝’二字。援師誣證以勝討之人，告訴檢局以勝辨誣之人，使從學者作爲凶誣，如此文之類，累度印布。我欲報復，則彼之誣師亂稿禍士以外，更有許多罪惡真贓實犯，非無可以并舉者。誠爲恥與小家惡口，對壘較爭，效尤務勝，而不爲之也。秦王符堅與其臣語曰：“彼以虐，吾以仁，彼一暴，吾亦義，彼以急，吾以寬，每相反然後，事乃可成。”此可謂先獲我心，而亦已所從事者也。以故

田璣鎮雖以右陰者，猶曰：“湖南文字，主明事理，陰邊文字，主功擊人。”此乃自然不易之公論也。符堅未爲知道而猶如此，而況吾輩每事必欲求十分至當之道乎！昨日之教，有不得從者，以此，伏想尊見亦以爲然也。至於凶文所附震泳擬與徐柄甲書，是直誣先師之愈往愈甚者，不可不痛辨耳。

上懶齋宗丈益容○丁巳

南氏承嫡說，不審更入細商否？料以淺見，其曰次子則可以承嫡，長子則不可云者，恐未足爲不易之論。故敢茲提質。蓋承嫡之說，雖出於後世，實本於禮經無嫡子立庶之文也。卽此‘無嫡立庶之’文，未見其單指支子家而言，則雖宗子家，亦當如此可知也。宗子家既可如此，則亦不當區別大宗小宗也。以此論之，雖大宗既有庶子，可以承嫡，則不當別爲立後，既已承嫡，則亦不當遞傳父祖以上祀，事於次嫡家，如南氏說也。檀弓，石駘仲卒，無適子有庶子六人，卜所以爲後者。石氏家之爲宗爲支，雖未有據，無適立庶，想是古人通行之禮也。在近古則栗谷慎齋南冥畸菴，及鄭文翼公，曾孫某咸用妾子承嫡。栗谷畸菴，係是支子家，事姑舍不論。南冥文翼，俱是累世之宗，而尤菴以鄭家妾子之主文翼以下四世祀，爲正當【見家禮增解一卷十三板】，苟非其義，則尤菴何以謂正當哉？至若慎齋之傳宗祀於其弟，誠不知其義所在。有人問，“長子之庶子，不可承祀，而歸於次嫡否？”慎齋曰：“古禮則不然，而國法如是【見增解一卷二十三板】。”然則慎齋非不知歸宗次嫡非正禮，而其所行若是何也？竊意慎齋雖爲奉祀之宗，是兄亡而弟及也。不繼伯氏之後，初非正當之義，而諸弟子孫其麗甚蕃。已無適子，而以庶爲後，料以理勢物情，有不自安之心。故且遵國法以求穩貼爾。但其所謂國法如是者，未知指何而言也。第大典立後條，無適子有

妾子，願以妾之子，爲后則聽之之文，此爲適長，有庶子者，別爲立後之證。則誠然而非歸宗次適之說，則愼其所據之典，未知更見何書。且以適長之以弟子爲後言之，此雖曰國典所載，恐亦遷就於我東俗情而定式，非萬世之正法也何者？舍庶立後之法行，則禮經無適立庶之文廢矣。親姪爲後之路一開，則遠族爲後之弊將至矣。蓋無子而繼後，萬不得已之事也。棄父而移天，天下之大變也。苟有己子可以傳後，則何必計較貴賤於天倫之間，行不得已之事，而使人遭大變乎？

禫時服色，先賢論說不一者，蓋以家禮陳禫服於大祥，而禫時則不言服色故也。其云，“祭吉服，祭後微吉者”，遵間傳疏，‘祭時玄冠朝服，祭訖織冠素端之’說也。然祥縞禫織，古禮之大節，而人情實所愜當，便覽之移禫服於禫條者，誠不易之論。祭時祭訖之異服，間傳本文初無此意，而未知疏說何據而云也。姑不論其據之有無，揆以禮意，有不敢知者。變除之禮當以漸也。今日：“先玄冠之純吉，而後織冠之微吉，則烏在其以漸乎？”然則沙溪梅山，吉與微吉之說，似有更商者，而便覽之服黻行禫，仍服而至吉祭者，恐爲得禮之正，非特爲簡而易從也。

曾子齊衰，往哭子張，前輩以爲不可信，而任鹿門謂“却恐無害”，而曰：“有殯，聞遠兄弟之喪，雖緦亦往，況朋友，雖曰無服，有同道之恩，有期年之義，豈可不往哭”【止此】，此以孔子“三年喪，吊哭，不亦虛乎？”之訓準之則鹿門說，不可遽從然。此則以往吊而言也。若聞親友之訃，出廬次之外，脫衰姪著直嶺，一番望哭，則恐不大悖也。蓋親喪，固人之大倫攸在，而友道，亦參五倫之一，其道義相輔，如曾子之於顏子，朱子之於南軒，則聞訃之初，恐自不忍不哭也。

與懶齋宗丈 丁巳

澤述不肖，見在讀禮，每提不緊疑題，仰瀆崇聆，輒蒙博據詳剖以示之，固荷不倦之仁。但想蔓索之際，向衰精力，一倍耗費，大悚有欠安老之道也。然講學者，天下之公道也，一理一義，苟有因問難答述，而可以辨惑，益人者，固當詳發其端，而忘己之勞也，亦宜窮質到底，而不暇憫人之勞也，況典禮，乃聖學中大節也。在天下而爲治亂之由，在國與家而爲興亡之係，在人而爲人獸之分，豈非尤當講明而不暫舍者乎？且此時，何時？太陽西沒，四郊昏黑，魍魎狐狸，擲揄跳踉，以祭先謂饅魔，以黑裝謂服喪，以烝嫂謂繼宗，以棄夫謂自由，君臣平等爲自由，父子訟財爲常事，內外防閑謂惡俗，所可道也，言之醜也。嗚呼，世運之汙，吾無如之何矣。乃講先聖之遺制，而寓之簡編之中，以俟天復之日，是吾人之責也。其不可虛徐也審矣。然則宗丈之勤教，固非私我也，澤述之感荷，反不免有我之私也。知照所及，聊暴蘊衷，竊想樂聞而不誚也。

答懶齋宗丈 戊午

祔祭之，必行於亡者之祖者，蓋以古者廟制，祖孫昭穆同班。故於其死也，合祭祖孫，以求神靈之相依也。後世廟制，不用昭穆之法，而用西上之例，則祔祭之不并行于四代，而只行於其祖者，似若虛文。然先賢不敢改者，重變古也。今世之不立主者，雖不曾行祔祭，其三年後，吉祭及正朝秋夕，多有設紙榜合祭。新死者及所奉累代之位者，當此合祭之時，新舊累代神靈，必自相依附，而其當祔所祔，祖孫兩位，固亦在其中矣。若以立主之故，追行祔祭，則其祖孫合祭，神靈相依者，遠者百餘年，近者亦累十年，今乃突然始告以隤祔者，豈非無端而尤屬虛文乎，若曰雖已合祭，曾不以木主，則其神魂無憑，必不格歆云。則洋洋鬼神，如在其上，如在左右，

祖考精神，卽子孫精神。祖考之隨子孫，誠感而應者，豈紙與木之有間乎？苟或然也，則凡先賢所許紙榜虛位之事，都屬虛事矣，恐無是理也。若曰‘雖已格歆，曾不另行祔祭，則其祖孫神靈，必不相依’云，則神道於昭，其知甚靈，當其合祭一堂之時，孫豈不知祖位之在上，祖豈不知孫位之在下？祖孫既知其位之同在一處，則又豈不知孫之當適于祖，祖爲孫之所適，而自相依附，必因昧禮子孫，不立主行祔之故，故相背舍而不關乎？恐亦無是理也。蓋其失也，在乎不立主行祔，而徑先合祭，既合祭之後，似不當慮其祖孫神靈不相依，而迫行祔事於立主之時也。但其支子孫異居，及有故未嘗合祭祖孫者，則其於迫立主也。自當有祔事之舉也，臆中有見，不敢自外，更俟批正也。墓祭序立，承示以陶菴西上之說，而近考家禮，時祭卜日儀，有‘主人以下，北向立，如朔望位之’文。以此觀之，非惟墓祭，雖家祭，若婦人有故不叅，則亦當西上，可知已矣，而陶菴之說，疑或以此也。且尊嚮，事生東上，事死西上，左右陰陽之論，亦皆出於根究之實見。但昧見有究，其所以然之故，而未得者敢復提質。

竊嘗惟之，禮有男女之別，又有統尊之義。今以家禮所載者言之，祠堂祭祀之禮，居家朔望之儀，尊位既居堂中南向，則其爲內外子孫者，當北面正向尊位，而必男處尊位之東，女處尊位之西者何也？以東西者陰陽之大分，而不可也相混也。處東而必西上，處西而必東上者，何也？以堂中者，尊位之所在，不可以不統屬也。冠禮之父東母西，昏禮之舅東姑西者，是爲分陰陽之義，而父母舅姑，自爲尊位。故爲其卑屬者，分立兩序相向，北上分立者，別陰陽也。北上者爲尊位之在北也，若夫有事尊位，而男女異處者，則只當北面正向尊位，而以東爲上。如時祭之醑，男女各獻其尊長是也。夫北面而必東上者何也？以右爲尊也，必謂右爲尊者何也？蓋以右者在人爲安便之地，又爲有力能爲之方。無力無爲甚不便之

地者乃左也。故族之尊貴者謂之右族，而卑賤者謂之左族。人物之優秀者，則謂無有出其右者。異端邪說謂之左道，則學之正者，必爲道之右矣，所見差謬者，謂之左見，則識之高者，必爲之右矣。由此論之，尙右者爲人道之當然，非獨神道爲然也。其在古據，則禮記明堂位云，‘天子南鄉而立，三公中階之前，北面東上，諸子之國，門東北面東上，【用統尊之義則當西上，而此亦只以右爲上】，諸男之國，門西北面，東上，八蠻之國，南門東之外，北面東上，六戒之國，西門之外，東面南上。’【用統尊之義，則當北上，而此亦只以右爲上】，王制云，‘道路男子由右，婦人由左’【古者，有左右中三路，男子由右，婦人由左，車馬由中，則此左右，是天地之左東右西也。用陰陽之分，則當男由東女由西，而此亦只以右爲上】，周禮司士亦云，‘王南鄉，三公北面東上。’儀禮燕禮云，‘鄉大夫，入門右北面東上。’而凡禮書，尙右之說，不一而足。然則不問事生與事死，男女既不同處，而只作北面一班之位，則恐皆當尙右而東上。而今此卜日儀，是只主丈夫者其文，但云位如朔望，不云改位東上，則不容不仍做西上看也。迷見於此，己所致疑。且幽明殊塗，生死異情，神位之西上，生人之東上。雖皆以右爲尊，然神位之西上，以其南向也，生人之東上，以其北向也，南向者之西上，北向者之東上 各有其義理，勢自然，恐不可以所事者。是死人之故，而必舍生人所尙之位，強從死者所尙之位也。於是乎尊喻，‘事生東上 事死西上’之義，實所滋惑，而未知朱子之意，陶菴之見，亦果出於此也。向所謂究其所以然之故而未得者 正此也。又有可言者。朱子於時祭卜日云，“主人以下，立如朔望之位。”於禪祭卜日云“執事者 北向東上”，互有詳略，宜參證而通者也。時祭之主人以下，既立如朔望之位，則知禪祭之亦然矣。禪祭之執事者，既北向東上，則知時祭之無異矣。執事者既非外人，亦主人親屬中人，而獨得爲東上者何也？區區於此妄生揆度，朱子固不言改爲東上，又

不言仍爲西上，則其所謂如朔望位者，安知非只指兄弟子孫昭穆次序之位，而其北向之當東上，可通看於執事者之位，故略而不言也耶？至於治葬，祠土之執事者，是與告者，俱是行祭之人，而又明明言 北向東上，祭土神。而既得東上，則祭墓而奚獨不然？沙溪雖引地道尊右，神道尚右之說，謂當西上，然地道尊右之右，是天地左東右西之右也，如建國者之右社稷是也。此固自屬地道，而無與於人道矣。神道尚右之右，是據南向者而言也。當於設位陳饌時尚之，此亦自屬神道之南向者，而無與於生人之北向者矣。又謂執事者東上，本於儀禮筮宅，‘命筮者在主人右之’文，此亦似有不然者。祀土之告者，卽筮宅之主人也。若使執事者，在告者之東，信如沙翁之言，今在告者之後，自爲一列，而東上無干於告者。則此必朱子自取尚右之義，定爲北向者東上之禮，其所本不在乎儀禮也。禪月吉祭，備要謂：“三年廢祭之餘，正祭爲急故也。”其云“三年廢祭”者，廢先廟之正祭也。尤菴亦曰：“禪月吉祭，是以奉先爲急也”，支子之喪，初無先廟，則有何所謂三年廢祭者乎？有何所謂奉先爲急者乎？而爲其子者，何忍不待二十八月復常之期，徑行純吉之祭於黜制未終之前乎？

答懶齋宗丈 戊午

我國聖廟，先聖賢位次，未知誰氏所定，而揆以禮意，恐不敢間然也。古者太廟祫享，太祖居西壁下東向，群昭在太祖之左而南向，群穆在太祖之右而北向。後世昭穆之制廢，不知主奧東向之爲尊，但知北壁下南向之爲尊。故孔子居聖廟北壁下南向之位。孔子之位既如此，則配享諸位之分列左右而東西相向者，理勢自然，而亦猶群昭群穆之分列太祖左右而南北相向也，蓋謂之全用昭穆之法則不可，而實存昭穆之意則可矣，遵此而行，自不害義，恐不當引

家禮時祭，‘祔位在東序西向’之文，而列配享位於東壁也。夫祔主之在廟也，各居本龕正位之東而西向，則祭時之設位，亦自當如此。而但以人家廳堂狹隘，正位祔位，同設一處，則不足以容鼎俎邊豆。故從宜而列諸祔位於東壁下，使居諸正位之東，其不當據此而改定聖廟位次也，明矣。且以昭爲父，穆爲子，而謂不宜以顏曾在同門兄弟之列者，稱以昭穆而分左右，則此有可說者。祫享之時，以太祖爲主，而以群昭群穆分列左右。聖廟之中，以孔子爲主，而以顏曾思孟，分列左右，蓋只謂主位配位，正設分設，彼此相類而已，非并取昭穆父子之倫，欲同之也。且引開元釋奠禮，先聖東向，先師南向，以右爲尊之說，謂配位東向者，涉先聖東向之位，此又有不然者。先聖之東向，統居西壁，而主奧在先師之右，誠以右爲尊矣。今此配位之東向，既居北壁正位之下，又與東邊西向之位，分班對坐，而不得據有統全之尊，雖則在右，恐無所嫌也。故淺見以爲瀛陽祠影幀奉安位次，恐不得爲不易之制，而絕後人之議也。

大祥白網巾，便覽以後，當更無異論矣。鄙意毋論某服，既用白笠，則恐皆用白網巾。蓋以笠與巾，同一頭著，而不可以異同也。我國恤中，黑網巾，固已可疑，近日遭莽大功者，既用白笠而不變黑網巾，似亦免斑駁也。

與懶齋宗丈 辛未

夫禮爲四德之一。然以湯之以禮制心，孔子之克己復禮，觀之，便是性理之代名，而偏言一事，全言包四，可與仁字同體用也。故聖人因性理之所當行者，制節文儀則之禮焉。禮樂刑政，雖均謂之教，而總言之則禮教也。逸居無教，謂無禮教也。故曰人之爲人禮也。又曰禮失則入於禽獸。然則禮之一字，乃人獸之大分也。是以聖王重之，君子謹之。一自世運之衰，天下皆爲夷狄，而吾東之禮

義，亦已淪亡矣。惟我艮齋先師，闡明道學，以禮教爲主務，思以易天下之敗俗。而吾宗丈治禮之謹，講禮之詳，爲門下最，此一門之公論，宗族之光榮，何其幸歟？山頹以來，義理晦塞，至於先師尙禮之法門，從而歸於烏有之鄉。李遠齋之見稱於人者，乃至成昏喪父之孫，眞所謂天下事無所不有者也。國有正法，此不復論，司馬公，已有八字斷案，吾何贅說？但所可痛者，先師瞑目，不出十年，乃有此變於高第弟子也，又可恨者，同門久要陷於坑塹，而不能先事拯救也。若使先師而在世，豈變之至此？中堂妻墓中納幣，揭罰於講社，受卿服前再登，責罰至嚴，至於恐懼生病，當日法門，顧何如也？感古悲今，益切云亡之歎。且使遠公有爭友一人，又豈至此？宗丈不記昔年澤述之諫，止同姓昏事乎？此則舉國之成俗，先賢之所行，猶以爲非禮，而違反於宗丈平日定論，而終不免爲累故也。澤述之獻忠無隱，尊之聞義卽服，實無愧乎古人矣。今李公知舊門生，不惟無力諫者，乃反勸成云，亦獨何心？惜乎，其命之不好也。事係既往，何必形於紙墨？但老士宿儒，而若此，則若干後進之爲學者，無復以禮復古之可勉。鄉俗之滔滔者，將藉口於儒者，而胥同歸於禽獸之域矣。區區雖無似匹夫，亦不可謂無世道慮也，則雖欲無言得乎？宗丈是亂學專門，平生精力，盡在於此，其所憂慮，豈止餘人比也？此說之告不於他而於宗丈焉，伏惟有以深諒之也。

與懶齋宗丈 辛未

頃者，妄意一書，同進二丈者，直爲二丈釋爭地也。今承下答，乃知尊意，既非管見所測，示及涵丈書意，亦與鄙意有異。而二丈所主，則乃相燕越，而無望相合，豈勝可歎？若知其獻忠之無效，曾不如不爲之爲愈也。尊喻所引，先師許多書訓之嚴防華夷者，區區

亦敢謂已見之昭陵也。非惟是已，至有若涉屈節冠帶猶否之說【屈節指仕於夷狄，今經學院教師，食月俸百圓而，尚有存髻歸衣冠者】，且爲暫時臨機變形復讐之論，是必有不得已之義，所當然之據矣。然而不敢煩讀者，同宗同門，二論失和，已是不幸，而復益之以成三岐，紛紜往復，惹招外譏不少，故且已之。伏惟有以諒之。嫁母之服葦，以其與父絕而降也；本生父母之服葦，以其無二統，而降也。若本生嫁母，則於所後家，初無絕否之可論，又無二統之嫌。而其生育之恩，則固自在，恐不宜再降也。而先師說“本生嫁母，服大功，一出一嫁，不得不然”之云，載於晉本。竊以爲一出一嫁再降之文，以姑姊妹姪而言，今引用於母子之間，而使不得服葦於無礙所後之地，似非其類。且以不見於華本，意其爲未定論，而親刪者矣。今承宗丈葦說，蒙可於先師之顛末，尤可以無疑矣。

答懶齋宗丈 乙亥

尊喻，謂“趙子貞，敢犯師祠”，而責澤述以獨疾誣師倍師，可乎？第未知子貞犯祠之狀，果若何，而尊喻及此也。若但以其書中語，謂之犯祠實狀，則澤述亦曾目其原本矣，未見其爲犯祠也。書俱在，可以覆視犯不犯，鬼神在傍，焉可誣也？其下忽又有曰：“今若恕其貶師者，則前日討誣絕倍之事，非真以公平之心爲之也，明矣。”語益深重，而初不言其貶師狀若何，而犯祠以外，又有一大罪目矣。非但子貞之得此大罪目，澤述亦因之，得非真公平之罪名於尊丈。昔有臨刑而歎者曰：“我不知何以得此刑，載之史策。”百代之下，至今如聞其聲，而鼻爲之酸。君子之懼於失入，爲是之故也。今日尊丈，獨不念此，或無足怪，澤述之得此於尊丈者，不啻意外而已矣。噫，天下事，無所不有，則亦無所不有矣。澤述雖百被罪名，豈復能向尊丈而求爲乞赦，作可憐之態者哉？惟修謹而俟至日而已耳。

與懶齋宗丈 丙子

澤述於昨春，連坐於趙子貞，與扶北僉座書，華祀齊進陰黨之非，至得恕貶師之自於宗丈矣。自是以後，懷懷惴惴，日俟誅討之至。惟其身方遭斥，雖欲忠告宗丈，近事之未安，而無路可通。竊恨明鑑之失入，而賤身之難容也。何幸作冬，獲拜席洞，仰質加罪之由，則答謂，“是何言是何言？非惟於君，并與謂子貞云云。”而吾知其過矣。蓋既已知過而見謝，則吾何敢記前嫌，而終不思忠告乎？昔日，陰震之誣先師以認教，而蔑其大節也，宗丈以文聲討而并治其黨與，以盡尊師之道。此皆據渠手筆真贓，而非偶誤之失入，將終身以之，而非一時之事也。不圖今日改度易轍，既進其黨於畫像儼臨咫尺之前，又與陰震對揖，敘舊講論禮說，不覺自陷於妄師附賊之歸也。蓋此鑄錯，非比尋常。而有關大義，則不宜置之，不復理會也，明矣。程子有言“學問之道，知其不善，則速改而從善而已，”宗丈雖人所稱癖於自勝者，今於此事，亦應不敢自以爲善矣。然則何不速改之，以復食舊之吉乎？如曰“不以爲不善，則前日尊銜同參之討震文自在，即以其文還可自治，而無所容身矣”爲之奈何？

曾以金容承，讀告玄阡文添註中，金泰熙金益容，諸君子，知見賣於人請，復交歡，如平昔之云。仰質則答謂，“我無是也，若是則賣人者姑舍，見賣者爲何等人？我當致書朴仁圭責其造言矣”云，而近乃往見金於玄巖何也？蓋前之絕金，豈非以其倍師乎？既絕之矣，今之往見，正在金益無忌憚，顯有自成一家，對立艮翁之意，至有其從輪文鋪張之日，未知此果何等義理。嗚呼，宗丈以年高德邵之時，尊師大義，在在破壞，豈非可恨？願澄神深念，亟改以善後則幸甚。

與讓村林丈秉龍 ○乙亥

疇昔仙庄，陪賦‘枯菊’之詩，日月幾何？菊之枯者，今焉重發，金采

可愛，而吾人之枯，回蘇無期，可以人而不如物乎？否，不然。菊之盛枯，以一歲計，士林盛枯，以千載計，要之自有久近之異爾，又何悶焉？蓋不論人與物，今雖枯而後必盛者，以有根本在也。以吾黨言之，先師之道德節義，卽其根本也。今乃有所傷之吳金，而門下諸人，曾不禁其人護其根，其有禁護者，則又以爲不必爲也。更有一般視同秦瘠，而并不問傷與不傷，護與不護，環顧同門，無可與語者。竊恐異日，吾道之盛，有不可必矣，奈如之何？

答讓村林丈 乙亥

伏承下覆，仰認斥陰之義，無替如前，老成定見，固應如是。但於金事，未甚致察，關係不小。蓋吾輩所視以爲法者，非艮翁先師乎？嘉金之祭梅翁文，明明稱‘門人小子’，然以其有放膽肆口，譏貶嘲侮之詞，故先師認以爲梅門叛卒。矧今驪金之於先師，生前純師之，沒後師友間之；生前稱‘門人小子’，沒後不稱而自稱‘門下韓狂’；生前謂‘受罔極之恩’，而沒後謂‘未嘗受業爲弟子’，其視嘉金輕重爲何如也？總之百千齋記言中，“道義不存，先生可易。”，“君祖爲尤菴，然後吾爲尼尹。”之說，爲其主見矣。伏乞細審精勘，以明師生之倫焉。

與堅菴金丈泰熙 ○壬午

先師稿中，跋朴思菴挽金止齋詩，是爲尊先祖作，而副丈之請者也。然考以朴公卒於宣廟己丑，金公經壬辰亂者，而質之，則爽實明矣，在所當剛。是則然矣，而彼陰震之謂丈欺師得文，而罪之者，可見其險心擠人。以先師之明博，尙未及察而作之，則丈之因家傳挽詩而請文，又何暇論？必謂丈爲欺師之詐，則是謂師爲見欺之暗也。又見其忍心貶師也，不足多辨。竊思其所以爽實之故，則近見

黃頤齊集，有與朴思菴，同姓名者，嘗宰扶安之語，止齋公，是扶安人，則作挽詩者，無乃扶宰，而誤認為思菴歟？

與靜齋田丈華九 ○ 甲子五月

金容承事，不幸甚矣。然此人此事，是誰之使？一則曰先師曾有認意，再則曰先師曾有認教。出自自擔後事人之口，而謂‘是獨坐異聞’，則舉同門千數，莫敢矯其非。所謂親炙日久者，乃反朋興而是其言，一二人孱力單筆，憂憂乎欲為之辨白而無其路。若金之親炙未久者，豈不反生疑惑於先師心事哉？氣節所激，自不覺至此，蓋此人此事，是誰之使？痛矣痛矣。雖然若論金之所處，則有關名分，不可但道妄錯而已。先師絕海自靖之節，不譜沈尸之義，實神祇之所鑑，婦孺之所知。雖金亦豈不知此？使其確據先師之節義正言，痛辨愈往愈力，則為師與自處，豈非兩無憾為者乎？奈之何，只緣一人誣言之難辨，而行此得罪名分之事？惜哉惜哉。此則既然矣，最所痛恨者，先師有認意之說，充滿國中，在在群議，處處公言曰：“有是哉，某丈也，彼哉，某公也。高足人而曰有矣，則先生必曾有矣，所謂託後者，託是事也。”大驚小怪，坐嗤立排，故家搢紳之孤忠清節，儒門章甫之高行卓識，亦應箚記之論斥之，千口成公，久傳成實，誠可畏可慮也。此誣不辨，則先師平生獻靖，歸於烏有，豈不冤鬱憤，恥於泉下乎？子孫門人，何顏立於人世乎？而況近日金事之後，一節深一節，一層重一層，清洗白脫，殆若挽河而撼山，如不盡死力圖之，決乎難矣。而念在子孫，惟哀丈與二哥，在門下，不過二三人，孤弱甚矣。將何以明先師之心，如青天白日，大破全國人眩惑？興言至此，心為之寒。如侍生之無似者，亦先師脚下，一分子受恩，不可謂不厚矣。使先師之誣，由侍生而得粗辨，雖滅死萬萬無恨。但人微言輕，文識淺短，雖欲從之，末由也

已，只自痛恨。

君子立論，務要公正審慎。辨之之道，又要要約精核捉得真贓。切戒乘怒動氣，加人以些子過重，如此則辨未及成，而人先不服，願哀丈之母忽也。因念以哀丈之精魄心力，見識義理，不以紹家學，爲一大任，而更待何人？而況哀丈之蒼顏白髮，非復昔日，區區計活，亦何足求，求亦難得。只有究貫經籍，用資存養，收拾後進，少補世程，是爲慰泉下之靈，是爲擔後事之託也。未審哀丈以爲如何。

與靜齋田丈 甲子十一月

竊念子之於父，生之於師，俱有致死之義。而在吾丈，尊親之至誠，出於天倫，豈備列灑掃者比哉？易老者人，莫畱者辰。吾丈春秋，恰滿六旬，凡關尊先先師大事未盡者，想不以病健，有所進退，以致千古之恨。況今震也，益肆凶毒，構此邊人以排日黨，致死之地，現在目前。願吾丈挺然自擔，置身於利害禍福之外，尊親於光明正大之上，使世道賴，而斯文幸焉。

答靜齋田丈 乙丑元月

昔朱夫子以講和誤國，蓋嘗極言而深歎。國家儒門之事，討復辨討之義，何嘗有異？吾丈平日斥陰誣親之嚴，顧何如也？不圖此言忽出於吾丈之口也。彼果上告斧堂，下謝士友，快服誣罪，則容而受之可也。今不待彼之服謝，而先有和會之說，則前日爲親辨誣之義，安在哉？聞吾丈不詢公議，先從船便，急於會彼，則吾丈之心，已變初服，而認誣之益深也。念到于此惘然若失。易曰：“食舊德，貞吉”，願吾丈除却閒想，確守舊義，永光先人道義於千秋也。

與靜齋田丈 乙丑三月

下喻，縷縷無非和震主意，竊以爲和之一字，劈頭已是不著題。彼若快服誣師之罪，則容而赦之，可也，其曰和之，則未可也。乃吾丈不待彼服而許和，不待彼來而往會，不幾乎急於解仇，而易於忘親乎？以若吾丈大冬冰雪之嚴，何其忽作無漸之和風甘雨也？竊恐不見生成之功，而反致災戾也。噫，吾丈此舉，非爲利誘也，非爲禍恤也。直出於收拾兩邊，用圖後事，則其情勢之戚，豈云不知？但刊稿豎碑等事，後人之尊奉先師也，道義志節，先師之所以爲先師也。欲圖先師之後事，而先破其所以爲先師者，則雖文匝環海，豐碑百尺，其於先師之實之無有焉何哉？而況事不出正，人不見服，將收之東而散之西，圖之始而敗之終乎？吾丈若能食舊而貞，嚴斥邪黨，明定是非，則必見人心之翕服，後事之利濟也。若一與彼和於快服誣罪之前，其知先師者則必曰：“艮翁道義，若是其卓，其子某，始斥陰誣，而終焉比附陰邊，三悖文斥某之言，不是全虛。”其不知先師者則必曰：“震不服罪，某先覺其非而乞和，然則杏下獨命，非震之誣，艮翁實有之，不必深拘，亦非震誣，艮翁實有之，辛亥遺書，非艮翁手筆，某之僞造也，若是乎艮翁之無義也。”吾丈之得罪千秋，猶是小事，先師而永不免人疑，則泉下之冤，何時可雪？以吾丈之明，豈不少念乎此乎？吾丈曾與令姪士仁書，斥鄭某和好之說，不曰：“今日背先人，明日得千駟萬鐘，苟有人心者，何可爲也乎？”吾以是知丈之不爲利誘也。但未知今日之事，有何大於千駟萬鐘者，而許前日嚴斥之和乎？又呈練祀諸公書，不曰：“若有意外之事，則某當自任而不累諸公”乎？吾以是知丈之不爲禍恤也。但今日震訴之禍，未必吾丈之獨當。而諸人之不擔，何遽屈不累諸公之志，預慮不獨當之禍乎？吾丈前後文字，山堆如也，百世之公論，雷厲如也。且無所利也，無所恤也，無所

益於後事也，何苦而欲棄前節，甘受今與後不義之斥乎？絕不敢知也。嗚呼，生不自量度，從事辨討，竟遭罔測之辱於彼輩，賊反荷杖，諺或有之，付之一笑者久矣。至於今日吾丈之忽然改度，師誣洗否之大關係焉，一告再告而不見聽，則當三告，三告則已數，而或遭吾丈之疎遠。念到于此，又欲啜其泣矣。雖然吾丈是親受先師遺書之人，豈有至此之理？區區之憂，知其終屬過慮也。但細觀下喻，吾丈所以教彼服罪者，不以誣師，而止以累師；彼之所欲告基者，不以服誣，而止以引咎，而吾丈又望其時月見效。然則吾丈前日盡力討震者，但以累親，而不以誣親，但以彼自失之咎，而不以誣師之罪乎？反覆思惟，終不識吾丈之意，則又惘然無以爲懷也。統賜深鑑，下答千萬。

與靜齋田丈 乙丑四月

去晦上覆，既罄衷悃，又請賜答，尙不聞皂白。竊想和震之霜冰已堅矣。鄙生之非陽春，何足以解之？但在我者，有可以盡其道，其聽與否，有不可必。故一之再之，以至于三，三而無效，則可以已矣。噫，吾丈非灑血淚而辨親誣，麾義旗而討陰賊之田靜齋乎？胡爲乎回斧鉞而作皮幣，失光明而困霧霾乎？千萬思量其故，不可知也。謂震無可罪，而前討之誤也耶？則‘料量’‘不拘’之震筆，‘自辱’‘勿從’之遺書，終是水炭之不相容。謂震無罪，則置尊先考先師於何地？而況‘曾有認意’四字，非吾丈之親聞者乎？爲訴禍之罔測也耶？則君子之於義，固有舍生而取之者，而況此身還是親之遺體，爲親而致死，亦復何惜？而況士林公共之禍，而非吾丈之所獨當者乎？爲收拾彼邊，利圖後事也耶？則正誼不謀利，明道不計功，固君子處事之方，而況利陷親者之力，圖親之後事，則親之靈，豈肯安乎？爲家族之保合也耶？則父子叔姪，本是天屬，固非待外

人吳震泳而後，可保合者。而況震是破壞吾親之大節者？和震而求保合，則其所以合家族者，乃所以破壞吾親也。本之不存，支將安傳乎？以此以彼，以東以西，一不見其有和震之義，吾丈乃欲如此，是亦運氣攸關，而非人力之致歟？嗚呼，一己之難克，千仞之坑塹易陷，一時之誤見，千古之公討可畏，一人之苟合，舉世之棄斥，是羞。切乞吾丈更加十思，勿致後悔焉。情不自己，極言至此，如不爲非，幸亟賜答。

與靜齋田丈 丁卯

日前枉臨，直出索去後稿，而未能奉副，心甚悚息。想丈亦大不平于中也。然何不試一思之？震既誣師而認印于晉，人固疑先師真有料量不言之認教。丈以親子，又參龍刊之認，而不有遺書，人將又疑遺書之非其真。于斯時也，澤述以主辨誣守訓之人，又出稿與丈，助成其事，則是先師門下，一副義理，無復影響，而世人之疑，無路可鮮。到此地頭，先師爲何如人？丈誠能試一思之，自無不平于中，而不罪澤述之違教也。

答靜齋田丈 癸酉

玄阡石儀之闕，誠如下喻所歎。然三百圓金，實非難合。所難合者，議論也。今士仁欲緬遷，而舜衡宣力焉，雖有誠力者，孰肯與於是役，費金而招口哉？異哉！一邊人之誣了，先師生平節義銷了，同門幾多物力，印出手分之亂本，而以游辭間言，致師家骨肉之不和。使此葬日，卽具之石儀，茫然於十餘年之久，其心忍矣。至於龍刊之事，又何爲而然者？吾丈之與其役，至今不有追悔乎？大抵揆以時勢義理，緬葬不可爲者。如得士仁回意，則石儀之運謀出力，不患無人。幸積誠而回之，如何？方陰之誣師也，士仁之右彼，實爲

一時之惑。年前來謁涵丈，謝前日迷錯，訪見舍弟，傳意鄙生而去。人既覺悟，不宜追咎，而同心圖後事，可也。聞“今秋師忌，任參奉以吾丈之累，不參祀有言”云，如此者，固爲子道之不安，亦不爲示不和令姪之意乎？栗翁言“一家之人不和，只爲誠意未盡。”此可思也。雖然料以淺見，吾丈所痛先事未就，有尤急於石儀者。家狀年譜，是也，何也？一則後日之有誠力者，可能，一則非吾丈之備知事實者，不可能。二者之緩急，竟如何？願有以深諒焉。

答靜齋田丈 甲戌

年譜後半，今鄙生記之，豈敢當，豈敢當？但其年月事實，足以備，吾丈未悉者，則敢不用心也？家狀代撰，尤非敢當。吾丈之文，自足爲此，雖有善手，不必使代。添刪修潤，則可與士友共之耳。

與靜齋田丈 甲戌

昔丁未年間，敬所林丈來訪，託以師門言行事實，侍側詳記，用備身後年譜曰：“自此以前，吾有所錄。”想其家自有成編冊子，而此丈沒後，家事蕩然云。未知果能保在，詳探求得，甚好。

與靜齋田丈 甲戌

日前投書，表絕陰震之喻，近已實行否？蓋討震之役，吾丈實主之，絕固久矣，更不須言。但前有檢禍時一書，新都會一面後，有玄洞一飯之饋，故彼得以藉言曰：“靜齋與吾已和。”前之書面，固爲鑄錯。後之饋飯，雖出倉卒，失管不嚴則有之，所以來彼近似之言也。雖吾丈先誣之痛，貫徹幽明，絕彼之心，堅如金石，孰肯舍其跡而諒其情乎？若於華院始祭之日，倡論曰：“春秋之法，治亂賊者，先治其黨，凡爲震黨者，勿入祭庭。”名正言順，大義昭著，孰敢異論

乎？使彼聞之，自應膽落，不復敢藉言，衆人觀之，亦知并絕其黨，而自不煩投書。惜乎，其未也！創院人之論曰：“除震一人外，其黨皆可與同，是爲殲厥渠魁，脅從罔治之義。”噫，此何見也？謂曹操爲渠魁而誅之，或群輩爲脅從而罔治，是果成說乎？凡助成認誣，同改師稿者，皆與震一體人。若但除當人，而與其一體，是所除一震，而所同者衆震，震則不動聲色，而坐定全局矣。未知爲此論者，實昧義而然歟？抑知其非義，而不勝邪私之發歟？從而至於欲致書陰魁之說，出於愼李之口，而詢及吾丈，則又知除一人之云，初非真心。夫以忘師附賊之言，敢嘗試於先師親子，而無忌憚者，豈非以見其斥震之不嚴而乃爾乎？吾丈於此，正可以自反也。在李則以前日倡討之人，忽然改頭，欲降于震，則其所謂有先師則無震泳，有震泳則無先師等，許多嚴正文字，將何以區處？自以其文自勘其罪，自不得容其身，不但如吾丈所譏，爲三截人而已也。雖然今若吾丈亟投書而表絕震，則李不敢復請。非惟盡吾事親之孝，亦爲掄李陷惡之仁，如何如何？

答靜齋田丈 甲戌

昔韓魏公之子，欲治亭園於京洛，以爲魏公逸老地。魏公曰：“吾今年已七十，則形骸可外，何有亭園？”遂禁其事。竊以爲亭園，無甚大害者，猶然以形骸可外禁之。今吾丈之年，亦已七十矣，豈可復有所顧戀，而不能行其所當行者哉？若或以子孫爲拘云，則子孫於我何加焉？況以所當行者行而遺之，遺爲莫大者乎？在吾丈今日之道，惟有斬釘截鐵，可無他日之悔耳。震黨所進祭器，安忍陳列於先人影幀之前也？吾丈當日言之不嚴，已是欠事，及今猶可致書於懶齋愼軒，使之勿受，可也。此正爲絕震之明文耳。若何若何？

答靜齋田丈 乙亥元月

敬悉投書絕震，既已行之，非不嚴截。若不并與震之血黨而治之，無所益於斥認誣辨改稿之實也。此則只在今春院享時，吾丈議論舉措之如何爾。人將拭目而俟之，惟吾丈慎之。

與鍊心田丈熙舜 ○ 乙亥

竊覲日者，自經士狷忠告，似有採納之意未知。歸坐明牕，更加精思，知義理之不容已如堅，丈所道，狷言有理之悟否【堅丈語之所傳】。蓋此事是非，初不難知，只爲些私所蔽。以至有懶丈，斥我以怨貶師之書矣。自遭此斥，惶惶恐恐，意謂此是扶北僉座，一辭公討者矣。昨承，吾丈以懶書爲非情之斥，慎丈亦以爲然云。於是乎，自幸不全爲名教罪人，感之而繼泣也。但有大可恨者，當初討陰之役，慎丈倡議，此漢助手，辨誣考稿，誅賊治黨，一文一義，無不與之，互商合。決誓‘以生同義而死同傳’矣。孰知今日，嬰白異論，巡遠失和，意見之殊，情誼之豁，乃至於此乎？偶閱舊篋得，慎丈當日贈詩二首。詩曰：“有子吾門籍籍聲，相思來訪楚江程。辨誣昭訓伸師道，講禮論經倡後生。大義春秋揭嚴截，衆言邪說不公平。愧余無得空頭白，交情惓惓戒過情。”又曰：“遽見山頽痛失聲，奈何諸子異蹊程？納讐稿出人心死，討認書來士氣生。脫己諉師陰罪大，斥邪扶正物論平。是非自定未須嘆，只恐我行孚實情。”若於其時治黨與否之不同，如今日所見者，推重之辭，交孚之情，安得見於詩篇，有如此者耶？蓋此漢所見，匪今斯今，從前如茲。非惟我獨如此，慎丈同製公共文字亦然。非惟同製文字，此詩所云，“奈何諸子異蹊程”者，非指陰黨乎？詩云，“吁嗟乎不承權輿”今之謂也。披閱三四，不勝太息，而次其詩曰：“當日吾公倡義聲，眼前只此無他程，麟經治黨豈云甚，虞典書頑欲并生，大抵爲仁鮮究竟，

總緣有意作公平，惻惻籍籍殷勤語，遄復耑希見舊情。”又曰：“思公不見感秋聲，北望迢迢一舍程，縱然所主殊今日，可畏公論在後生，困言常苦人無信，觀咎其如志未平，終恐深誣難洗得，蒼蒼彌宙若爲情。”嗚呼觀於此，此漢之情，其亦戚矣。吾丈每以我之固執，憫其爲獨夫而懼其不容於同門，見憐之意可感。然竊自附於大過之時，義獨立而無所懼耳。噫，吾豈好絕人，亦豈好勝人者哉？其中必有甚不得已者存焉，如無并世之子期，當有後世之子雲矣。雖然孟子有云，“庶幾改之，予日望之”諺。又云，“十書不如一面。”尙欲與愼丈一番盡言，俾無餘憾，而一自異見之後，非惟馬牛之風不相及。念此得恕貶師之目者，誠難追從於士友間，臨風於邑，情不知裁。

與鍊心田丈 乙亥

今聞玄岩朴哀，延致金容承，受其祖考墓文云，師門之事，可謂日益非矣。扶北諸公，旣和同陰賊之骨黨，此哀又謁文於陪師之人，義理是非之混倒，一至於此乎？日前，與士狷留百千齋數日，爲喻此哀，止此事爾。蓋蒼岩丈之悅服先師而誠事之，實門人之不及，以若尊師之德，令倍師者狀之，則豈不誤乎？而誠不見孚，言不見用，以至於此，夫何言哉？雖然此事未必非扶北諸公啓之也，何也？諸公前討誣而後同事，人之見此，豈不以諸公爲昨非今是，而疑艮翁之不免些意，是容承之退出自潔也乎？向此哀與吾丈辨論時，從傍細聽，似有此意矣。事若出此，非但蒼丈身後事之狼狽，爲先師辨誣者，豈不一層加難矣乎？痛矣痛矣。

與鍊心田丈 戊寅

吾丈每謂，澤述疾惡已甚，有所規飭，夫已甚者，聖人之所不爲也。丈之以是勉之者，出於以德之愛意甚厚矣，豈不知感？但朱子引楊

氏‘本分之外，不加毫末之語’，以釋‘不爲己甚’之義，則加於本分之外者，乃可謂之己甚，其於本分無加者斥之，雖嚴不可謂之己甚也，明矣。然則加與不可，何以知之？亦當以聖賢之言與行知之。孔子於孺悲請見，既辭以疾，至復取瑟而歌，則似若己甚。陳恒弑君事，在他國，則至於沐浴請討者，似若己甚。鄉里所稱謹愿之人，宜若可謂善者，而既謂過門，不入而不感，又至謂德之賊也，則似若己甚。楊墨亦學仁義者也，而孟子至斥以無父無君之禽獸，則似若己甚。野人好事者說，宜若不足問者，而亦用力辨破，至於大言之，曰：“若孔子主癰疽侍人，何以爲孔子。”則似若己甚然。而孟子既稱仲尼，以不爲己甚，則自信其所行者，又可知矣。劉元城攻小人太強，以至萬死之域，可謂己甚。元祐，諸賢，憂蔡之難制，至於罪之以詩句，則可謂己甚。東漢之黨人，是過涉之滅頂者，可謂己甚。而朱子論元祐人物，‘以元城爲中，而罪蔡以詩句，不以爲非。’又至謂使我當東漢，必陷於范滂陽球之禍，至於按唐仲友則狀，至六上條列四十，而不自以爲己甚，何哉？凡此皆以事關大義。人犯大罪，不如此，不足以明義理於天下，防禍患於後世，而有所欠於本分，故也。誠非夫夫淺腹眯眼之所能窺測也。蓋聞，師生者，萬法之源。然則師倫一斁，萬法皆斁，勢所必至。近日之事，事關師生之大倫。人犯亡師道之大罪，視孔孟朱三聖賢時，事有大焉而非細者，不其明乎？澤述也，見理未徹，養氣未充，其於不仁之惡，實未知，其無所欠於本分。然竊以所受乎三聖賢者揆之，謂加乎本分而歸之己甚，則誠不知其所喻也。且吾只據有事以來，彼之言與事，誣犯之大者，而論之而已。未嘗有并及他事，悉舉纖細，如罪蔡按唐之爲者。則雖度以夫，夫常情之見，宜亦不謂之己甚也，審矣。自惟人之所以爲學，只是欲斷斷然惟是之求。而惟理之從欲求，從理而有一毫顧念於死生禍福毀譽利害之間，則是猶適越而北轅，欲入而閉門，而卒無有成之理。自負爲學之初心，而

誤了一生，豈不可哀？此年以來，見得此理，徹底守得此志，到頭庶有一副所得可籍手，以見先聖先師於地下，而無愧矣。未知吾丈聞此，又以爲如何也。仍念丈之愛我者如此其厚，而我不思所以報之，則是受人恩而負之者，我豈忍爲？丈之德性和厚自是天稟，而斂其豪豁之氣，忍其空乏！此學，蓋五十年子茲矣，雖其泛愛之仁，休休然，有長者之風，大德之閑，亭亭然，有君子之操。然至於義理精切，斬釘截鐵去處，未甚致力，竊恐如此放過則是非之源，所差不細，而積學之效，難以收得也。至若近日議論，合下所見如是，非有所顧念，而然循論究實，亦爲之有是懼焉，故已嘗奉勸以簡出入，親經傳，管取晚年識明行高，卓然有立之效，而未見採聽，甚所憫然。今則賊疾彌留，竊恐年雖少丈，溘然則先，故敢畢言之，噫非吾丈既爲先人之友，又忝秦晉之親，而非凡他同門之地，安敢以此進之也？倘有以諒此深心焉。

與鍊心田丈 戊寅

似聞丈近以鄙先祖文貞公碑前面改刻事，有聯名書於鄙宗中，果然否？又聞僉議謂生亦可其事，大加論罪云，亦信然否？生之以碑論，累與宗中爭辨，至被貶祖尊師之斥者，既人所共知矣。至於今事，事出倉卒，初不知會議之日，著手之時，并無有來問者，何由而可其事乎？念此生平多口數也，不欲以此區區自明，但於丈通家之地，有不容昧然者。故茲仰告，諒存如何？

答鍊心田丈 戊寅

向書中所辨，或疑涵齋與生，不能禁止碑事，以不通時色之論者，得之矣。然猶未深悉其內容也。當初碑說紛紜，因鄙宗中大競爭後，以爲碑。是當日，涵齋家所主，收拾巴金餘論，而期欲磨之而

後已。【立碑請文時，鬯涵兩丈定師艮翁前】生則爲涵丈家所親切。故并與惡之也。【生於立碑建閣後始見】不然，豈有立碑二十餘年，艮翁下世之後，始發其端之理乎？內容如是，涵齋與生禁止，非所可說抵死爭鬪，力盡而後可矣。然垂死學者，誠如尊喻者，何能有爲？只當以面以書，據理正言，至得貶祖尊師非情之斥，而不悔焉而已，亦復奈何？宗中內容，不欲向外人道。故尙不佈白。然念此曲折，在吾同門，終有不可不知者，且丈是文貞公外孫，則與他自別，故敢此仰告，秘覽默會，如何？

與鍊心田丈 戊寅

前書無答，似避嫌而然，恐不必爾也。初三日鄙宗中大會，澤述言，“當初碑面改刻，元是妄錯。”今只有復舊一事爲上策，而況敢欲并與磨去記文乎？【夏間致宗中書意亦如此】上里佑卿宗，聞此言謂澤述曰：“後滄之不參決議不可其事，今始明知其然而破惑矣。蓋度以佑言，可知此漢久見疑於扶北士友宗族間也。嗚呼，平日言行，不足取信於人，致此多口，不暇尤人之不察，而自恨也已。

後滄集 卷之六

答金危齋炳周 ○ 癸亥

親沒兄弟之喻，說到天理人情十分盡頭，令人感激，幾乎淚下。噫，一自友道之喪，切偲之風，無地可見。惟丈超出世習，有此真切之教，虔心祇奉之餘，亦願廣將此義，均播於同門諸子心田中也。才僞德厚之獎，胡不稱之至此？如使有一二可取，而出於君子譽人有試之意，直於書尺顯揚，豈不啓侈心而妨進修乎？只此便是不以兄弟視，而或涉世風也。丈或未之思歟？大抵此事，必待麗澤講習而後就。故曰：“學必講而後明。”又曰：“未有不須友而成者。”而況今日山頽之後乎？自後書面，毋長之是與，惟短之是攻，俾不作一箇破器物，至仰。澤述從師二十年，空空無一得，真所謂家河而渴死者，何充量之是稱，而發揮之敢與哉？雖然，既荷眷愛，承誨之際，有可質疑者，敢不效一得之見而助日下之燈也？

與毅齋族叔洛清 ○ 乙丑

麟姪，志既向學，才亦不鈍，至於勤讀一節，全社衆員之最。顧今青年禽犢之日，得如此材，亦非易事。善教之，可成好箇器物。來此幾日，頗見文理進就，若火始然泉始達，嘯煽之浚導之，燎原放海之，終可期也。家庭之教，雖云義嚴，杜門獨學，終不免離索之憂，則涓涓燄燄，何以保其盛且長也？夫少年之學，若野人之於農，一失其時，更不可追。今此姪所至，乃農家種耘之際也。野人之於種耘，費用不給，則東借西貸，無所不至，以有秋之日其利十倍也，況賢子孫富學之利，乃百倍者乎？幸勿以一時拘掣爲難，須以永長福益爲念，速爲治裝起送，如何？顧茲淺陋，既未有成物之智，則煩此縷縷，誠甚沒廉，但在族親無間也，故不以爲嫌。且自念爲渠師，則或可能焉爾。吾宗自國初來，世世以文行，彬彬聞邦國，迄于今餘韻未已。然老成幾箇人去後，無年少者繼之，則豈不落莫？

若此姪，則可望者，其人焉，不有以培養成就之，非惟一家之非福益，亦全族之沒色澤，并有以深諒千萬。

與洪韋軒翼裕 ○ 戊寅

昔在乙卯冬，華島之日，得拜尊顏，講世誼，贈別章，歷歷如昨日事，而屈指星霜，忽忽爲二十四周。尊先丈謙窩翁，壬寅歲，嶠南歸路，訪鄙先人碧峰公，一面如舊，先丈與先人語有定交之誓。先人贈先丈詩，有知己之句，觀此，可以知兩翁襟期之所感者深矣。此在華島日，已說與執事者，而未知執事今能記存否。鄙生則自盍簪以後，居常一念，未嘗不在於執事者，以執事之爲謙翁子，而謙翁之爲先人友故也。然滄桑之餘，道路多梗，山頽之後，會合無梯，勢也無奈。而并與魚鴈而不通，痛痒而無關者，實澤述之咎也。近得千斯文河運委訪，以知執事年來諸節之安，則固已慰不自勝。又聞印敬所稿而壽傳，則好義之心，尤可仰也。但敬稿分送，殆遍國中，而獨漏鄙生，則前日所講之誼，意其不能記存矣。不然，此漢方以師門事，爲陰衆所惡，故不免忽於聖人必察之訓，而遽爾絕之耶？以此以彼，慙無以爲言，猶一仰問者，亦惟以謙碧兩翁當日之故爾，如終不棄，幸賜巍覆否？

答洪韋軒

向日奉書，未及量度，率直冒瀆，惟大何是懼。乃蒙海恕，講昔之誼，語今之故，真意藹然，少無間隔，方知君子雅量，非淺腹所料。又承另惠敬所稿於分帙幾盡之餘，尤以爲感。此丈，固生所敬仰。亦曾臨樊廬，議及師門百歲後年譜事矣。在生之道，既未及略助於往者之刊役，則宜用力於目下之碑事，而傷哉！赤手柰如之何？此呈二圓，金雖甚愧汗，猶賢乎已否。

令姪復卿，聞已不淑云。雖新舊殊途，馬牛之不及，然念昔同門同庚之誼，豈不悲傷？人皆知艮門舊日有洪李金三甲申之稱，故陰黨因是，誣此漢以往見洪某求督府內一窠任。噫！何其甚也？聞復卿與靜齋書，語及此漢以其從師之久，意有所得，致多少敬意，更有自歉之意云，若如誣者之言，豈有復卿此書之理乎？雖然，只可付之一笑而不足道也。

答洪韋軒 戊寅

敬碑助金，若是薄者，謂之盛念，謂之感謝，愧不敢言。但所喻南方七十餘帙，無一助力者，則是何委歟？豈七十餘家，皆寡者歟？吝者歟？有不可知，然大都是透不得義利關之致，而亦可以觀今世學者矣，可歎可歎。

答洪韋軒 己卯

客臘奉書日，猥呈尊先謙窩公贊辭，方懼僭率奉累獲罪匪輕，乃蒙“言簡意備，胡不感服”之喻。事出不圖，自幸無已。又喻以“吾儕幾人，愛護相從，今日急務，而貧病莫遂。”藹然仁者之言，區區無似，亦所願言，而未知此生何日造拜軒下否也。竊嘗以爲朋友相與，須於愛護之中，有德勸過規一段事，乃爲真愛護，每見人之以此相施者，鮮矣。其或有先施者，則非惟不認爲相愛，竟成仇隙而後已焉。此世此習，又將如何而可銷也？執事於此，如有妙術，願聞之也。賤字鍾賢，號後滄，皆先師所命。而其云後滄者，倣重峰號以後栗之事，欲其後於朱子之滄洲而勸勉之也。顧雖不敢當，先師意則乃使學者，必以聖賢自期也。或者不知曲折，急於擠人，乃曰：“金澤述，何敢自擬於後朱子也？其罪可誅。”殊可笑。

與李慎軒起煥 ○乙丑

澤述以通文本草之出自鄙手，大爲彼之讐視，一之而遭幻命改表之誣，再之而遭居喪無禮之誣，一遭再遭，猶不可言，而復三之而遭造言之誣乎？出認勿認兩般看，非丈所云，甲子三月十三日，慕賢齋講罷後，與權純命，同宿時所聞者乎？而又非丈之言於衆中而公共記入通文者乎？權乃謂渠本無此言，而爲我所誣，投書子貞曰：“一則奸譎小人，二則天奪其魄，三則可哀也已。”嗚呼！上天有鑑，吾丈又有耳。此漢有口，彼亦有心，其然，豈其然乎？彼之發言於丈，而移讐於我者，其心已巧，五朔之間，曾無一質，而先使鄭雲翰輩，布之國中曰：“權純命枉被金澤述之所手分。”其心更可陰也。出乎爾者，反乎爾，古語毫不爽矣。其謂“金澤述構誣之時，得無內愧於心乎？”，愧而書之，是所謂奸譎小人，無愧而書之，是天奪其魄也。徒知廣布之足以瞎人眼目，而不知適所以自誣自陷，可哀也已。【其謂以下，反用權書中語。】彼曾是誣涵丈以文書，作奸者，以己己心度人心，疑其造言，此固奸細之情態，不足大怪。而今以彼之明言於丈者，不敢問之於丈，而強謂此漢之造言者，絕不近人情，則豈不真可哀也哉？蓋此漢一遭再遭之誣，只關吾之一身，辨不辨，不須深究，至於三遭之誣，非惟關於此漢，其出認勿認之云，有大關先師者，不於丈之親聞彼言者證之辨之，將於何而證辨之？茲以仰怖幸乞。亟賜回教，確其證明，其辨有以落彼奸膽，而鮮人眩惑也。

與李慎軒 己巳

去念間，涵丈來言：“近金處中同金容承，過堅菴於山北也，堅菴已與容承續舊好，而謝其告絕之過。”又言：“吾亦欲先謝遽絕之未盡，而令彼告墓服罪，然後續好如舊云。”故鄙爲言堅事之誤錯涵意之苟且矣。蓋長老者，後輩之所仰望，而觀法也。今其見理裁義，乃

如此，世教將何恃哉？金言“主絕我者，金澤述也，餘老瞶者，醉偃其風，不足責”，此言既非其實，亦非鄙所敢當。然自一二長老，既改前見，而難保餘人，則此言不幸而見中矣。且外絕金，而內親陰邊討湖之一柄話櫛也。今若不待其告服，而謝過請好，則陰邊此討，安可逃乎？蓋生前純師之，死後師友之，已不可不謂倍，而認誣前純師之，認誣後師友之者，更深一層。記昔乙丑夏，丈自玄巖避金而來，傳其與晦峰言者有曰：“辛亥遺書，嚴則嚴矣。庚申難言之訓，已是模糊。壬戌獨命，宜其有之。”此是深疑先師者。聽言觀人，情狀躍如如此，而尚可謂非倍師，而先自謝請乎？若當日事實，則豈丈倡言曰：“可絕金而討吳”，諸長老同聲然之。此漢則先是，已投當絕之書，及見其告靈，而遭拳踢也，勸其往告墓前，又見其不聽，而復發師友間之說，則只當用前書之義，而不必更提也。但以在同座之故，參於聯書之末矣。自諸長老，而既主當日之事，自諸長老，而先壞當日之義，竊所未曉也。

與李慎軒 辛未

比聞尊駕間訪敝柳，信然否？彼自來而不拒，遇諸塗而與言，猶可也，何至於親屈耶？夫討陰之役，丈實倡之，慎又起，倡千百人，非震書乎？丈，固彼邊所認為骨湖者。彼若曰：“骨已不硬，肉將自脫”，則彼既誤認，丈又惡聞。然昧心見迹，似或然矣。先治黨與之討文，尊所共製也。骨陰幾人外，不當盡絕，尊所雅言也。柳雖與愿世翰詰不同，又與權金有間，然其謂震非誣師，則衆中大言，而與震終始周旋於改稿之晉印矣。未知此人不入骨陰幾人中者耶？竊恐丈於此不及細思也。吾於柳非有舊怨，於丈非敢索瑕，特以事關大義，而丈是倡義者，柳亦彼邊名人，彼此相與之際，非但關尊一身，而有不敢率爾者也。

答李慎軒 辛未

所引農翁訪樓院事，澤述所尋常蓄疑者。既云慢侮前賢，則豈可但以道不同三字豁略之？其所引孔朱二夫子爲據者，正合更商也。老子陸氏，雖爲虛無禪學之首宗，其邃學高行，亦自爲當世推服，而有可問可敬者。特以其見識言論，差於其始，被人尊尙，而作首宗於其終爾。如使老子陸氏，謾侮堯舜孔孟，未知二夫子猶且問禮主講耶？尊之近事，恐難服農翁豁量，而慕效之，如何如何？

答李慎軒 辛未

學術差繆，言其極弊，則孟子至謂楊墨爲無父無君，虛無禪學，其究也，亦何所不至？尊喻所謂“獨非大義所關乎”者，誠爲至當，但其端之始異也。只如近世理學源頭之差見而已，未見有一般行悖貽弊之可惡也，則惡得以預斷其人以大義而斥之乎？楊墨之差，程子尙謂過人之行，況於老氏之清修，象山之篤實也，其不可與侮賢者同科也，較明矣，而丈篤於自信，至發侮賢者亦可敬之言，則過矣。孔子曰：“非聖者，無法。”賢者，聖之體微也，侮賢者，亦豈不得爲無法之次犯乎？執此而揆之，可敬之論，固未爲不可易者，而過從常禮，亦未知施得其當也。

答李慎軒 癸酉

華島影堂之喻，吾儕孰不欲成之，而丈先發之，甚幸。但所謂湖嶺皆通者，未審尊意所在。彼方舉先師本源之大者，而誣衊之，而吾乃以表顯遺蹟之小者，與之同事，豈不舛於輕重之分歟？願澄心思之。

答李慎軒 甲戌

曾見先師有當改文字，詢及在門，書商各處，然後定，未嘗獨自改

定而釐稿。若全齊碑之改本，自是僉議累日，顯刻墓道，人人皆知者，稿本釐否，不須論。尊喻“他文之有改，而未及釐正，華本似或然之”云，未然。鄙意以爲正可推此全碑僉議衆知之改，知他文之無獨改無知者之理矣。欲除去辨誣者之語，謂爲太重，亦何意也？彼陰禍之方熾也，幾人性命，豈意得保？今日準備自裁之藥，尚在篋中，若是而不當謂必欲除去乎？

答李慎軒 甲戌

天羅地網，固今日之形勢，而痛哭傷心，亦彼此之同情。然凡人之情，大傷之餘，必有事在，若不大做，亦必大敗，何者？激觸過越之情，不自按住，則震擾陰剝之患生，勢必縱橫掣擲，而後快是知。凡厥七情之越發者，必當加察也。昔賈生痛苦流涕於立談之間，遂見卒至失望而戕生，此雖不大敗，而亦敗者也。外復何論？蓋天羅地網，則無復可脫矣，而不能自安其位，欲有所試，則大做遠矣，勢之所必至，不言可知矣。吾意已自五分不佳。及觀下文，有未知偏於黨而然歟。一節更覺七分不悅，至有曰嶺欲近則躬往，遠則書間，不欲再看，而未嘗不自歎久之，非爲丈也。古人有言曰：“向來某問佞於我，我豈有邪德耶？”今日之事，不幸近之，真可痛哭而傷心者。蓋影堂小，誣師大，遽忘前日之倡討，遂開損盜之門，事之至此，丈自以爲大做歟？以爲大敗歟？此乃過往一事耳。前塗良貝，又何可勝數？果然又聞，欲致書陰魁，請與媾和，則又異於除一人之說，反覆變舌，乞憐納降，乃其常事，承望風肯戕賊正類，亦是次第事，不可謂我決不爲此也。孔子曰：“道不同，不相謀。”亦各行其志也。今此縷縷，自他人觀之，其不謂我何求者，蓋將鮮矣。由我論之，尙有多少不盡分之憾。蓋丈之與我，實有同遭網打之禍於陰人者，雖以夫子之聖焉，猶思從我於陳蔡者，不能已已，中人

之情，安得不惓惓於同難之地乎？且也丈之進退，實關師門之榮辱，又不可以尋常一言之不合而便可相忘也。故不避過度之嫌，茲盡言不諱，將以爲害已耶？請從此辭矣。抑以爲亦有可思之端？願賜明教，不可但於默默而已也。如何如何？

答李慎軒 甲戌

前書之呈，雖自謂“實出忠告，而愛人以德之意”，然逆耳之言，拂心之辭，喜聞而樂取者，古今以爲難。是以不免有兢兢於心。乃者丈降氣平心，肯與徐審反覆其論，而賜之書，且謂“忠誨”，此雖所望於丈者，然喜溢之極，如獲望外之寶。苟如是也，天下義理，雖曰精微而難見，彼此所見，雖曰參差而難合，豈有終不得究終不得一之理？心竊自賀，以爲“此實一線陽脈之發見於群陰之中者”。更宜十分著力，期收實效，不可悠悠泛泛，使已見之陽光，將息而旋消也，明矣。敢復陳之，伏惟取裁。

聞湖西薙髮，而想及天羅地網，而痛哭傷心，則是激觸於薙髮，而傷心於網羅，至於痛哭，而不覺情之過越者也，何謂初無云耶？既已痛哭矣傷心矣。嶺，欲近則躬往，遠則書問，以冀得力於影堂之建，則此非不自安其位而欲有所試而何？凡於此等去處，存心既微，行事未著，有同灰蛇畫龍，非迫視点睛，亦不自知其然。所以有見牛未見羊之故，而不自覺知，反爲他人忖度者多，此孟子所以有失其本心之論者也。千萬留念而致詳焉。

從初之心中立者，固勿論，至權柳金三人，思之無相絕之義，故未有此事。前已有歷訪，何怪於今日乎？豈不聞治賊先治其黨與？權柳金，乃曹操之彘群也。何況乙丑復月通文，承震指嚇，奔走先後者，詎不爲亂賊之黨先治，丈之同製聯名者乎？前雖有訪，今露明文，安得不怪也？其中立者，喻之不改，置之度外則可，必欲與之

相從而無間，則吾亦與之俱化矣，此豈可以明明立言者乎？

爲吳者，非吳黨乎？何可謂之不可一向相絕也？大過小過之云，失題矣，不須論。絕者，改過之云，過，豈有絕之之理？絕之，則必其過有不可改而成罪者矣。既罪矣，則服罪而後，始可復容矣。其黨亦然。今皆不服，而一則已爲復容，一則欲爲書通，何所據而然耶？其奈與乙丑自製通文中語相反何？

先師之意，其於嶺黨數百人，必不盡割其名，何處得見其如是，而曰既如是也。此又一誣說，可駭也。吾意使先師復起，而震黨數百人，一向遂罪，則勿問害已。其始斯文之禍爲大，豈可以多數，而不盡割其名乎？程子曰：“誅天下之賊，殺戮雖多，亦何害？”吾亦曰：“討斯文之賊，割絕雖多，亦何害？”

承望風旨云云條所論，與本文之意，相燕越，更爲看詳，如何？

吾與子無不同之道，固所望也。是以有謀耳，謀之不行，雖欲強同，必不可得矣。第未知果能信及而脗然相合矣乎？觀其擬與吳書中，所謂“出認而推托先師”，“校稿而變改文字”，兩件事，丈以爲可容之罪乎？則何以有前日之討也？既討矣，則力能誅之則誅，不能誅則亦當謹避震也，亦能云爾。今何與書相通，反貽震賊所竊笑也？可笑又可恨也。及今猶可掬止，則幸莫大矣。千萬更思，復厲之戒焉。

答李慎軒 乙亥

子思子曰：“審問之，明辨之。”孟子曰：“詳說之，所以反說約也。”以今日事論之，往復頻煩，審問詳說也，一言斷之，明辨反約也。所以鄙之前後縷縷，終得馴致丈之改通陰之見，而爲妄想之斷辭，今乃曰：“要可一言而斷之，不須往復頻煩”，無乃近於食實而不見其根，奏效而不知其藥者乎？孔子曰：“友直諒，益矣。”孟子曰：“道不直，則不見。”區區竊不多讓於直諒，而丈之改見，爲道見之益

也。但所謂改者，不盡改，見者，不盡見。意者，直諒之有未至，而往復之有未盡者乎？請得以更陳忠告。今日：“與陰徒相合，於我何有？但欲其處置得宜。”孟子不云乎？“向爲身，死而不受，今爲宮室妻妾所識而受之，是亦不可以已乎？此之謂失其本心。”丈於向日陰禍方熾一網打盡之際，猶能奮不顧其身，大開口說，其黨當先治【乙丑通文者】，豈非以認誣不可不辨，改稿不可不斥，而自附於舍魚取熊之義乎？今乃爲零金些錢之不可不收，畸田片土之不可不受，而忽翻前日處置得宜之案，而變易之，失其本心，雖不敢遽擬於丈，然可已不已，而不自知其與彼相合者，何爲而然，則恐虛明之體，有不能守其官也。此君子所以貴反求內省也。丈之所當兢兢者，不在於此，而反在於攻彼之或過，何其顛也？亂賊賊黨等字，早已加之於丈之同製聯名乙丑通文中，而布之全國者，今若創見於鄙文者然，而謂之過當，未知丈之昏忘，何若是也？朱子謂“一己私意之難除，甚於逐中原之戎虜。”丈雖賢矣，亦不免有意，爲公之私，因致有所之病，而心之不在歟？然則丈之自道以蔽塞者，雖不可謂有，是如有之，區區敢曰：“非其質也，乃其意也。”去其意，則斯通明矣，惟丈勉之，“害仁者謂之賊”，“鄉原德之賊”，“所惡執一者，爲其賊道”，“好信不好學，其蔽也賊”，“老而不死，是爲賊”，諸如此類，不可悉舉。今震之所爲，非但此等比而已。若正名其罪，則孟子以吾君不能者，猶謂之賊，震之誣先師以無義者，不可謂之賊乎？尤翁以自作集註，不遵先賢所定者，猶謂之賊，震之自以己意改先師本文者，不可謂之賊乎？且丈不記甲子夏獨製通文中“有先師無震泳，有震泳無先師”之語乎？世豈有犯無師之罪，而免夫賊名者乎？此在改稿禍土之前，既討之以無師。今於三大罪俱著之後，乃爲之訟冤亂賊之名，其從之諸與震始終異身一心者，亦謂不可名以賊黨，嗚呼！“靡不有初，鮮克有終”，古亦有之，豈至如丈今日之爲者乎？是必有其故矣，惟丈思之。“先師復起，其於嶺黨數

百人，不應盡割其名，先師之意，既如是”云者，出自尊意，而無所憑據。故鄙書曰：“何處得見其如是，而先師之意，既如是也？”云矣。此丈之言所以爲誣說也。先師復起，而震黨數百人，一向遂罪，則勿問害己，其貽斯文之禍爲大，豈可以多數而不盡割其名云者？”鄙據程子“誅天下之賊，殺戮雖多，亦何害”之說，而曰：“討斯文之賊，割絕雖多，亦何害？”蓋聖人之相傳受，同一心法，程子所傳殺戮多之心法，卽先師所受割絕多之心法，吾之所據者，此也。謂“此爲誣說”，則非惟決非士君子論理講義之言，欲爲賈豎巷童報復聲口，而亦不可得，豈非不足聽聞者乎？蓋義理有定，人見不同，吾亦何敢每事自是己見而必人之同也？但於陰震誣師之日，據孟子言距之義，集多士同然之見，盡心於閑關，而得當於處置者。丈乃於十年之久，知其改稿益多，加以禍士林，押師孫之後，忽然改度易轍，以當初自倡討議，自製通文，至有‘有震無師’之語，而極其嚴截，震所謂可畏之人，反復爲之免脫亂賊賊黨之稱，語及震罪，則曰：“欲勸謝過”，語及討黨，則曰：“一番裁抑”，略略說去，輕輕勘來，惟恐其重傷，尊意所在，誠不可測。其亦年高德邵，義益精仁益熟，而人不及知歟？抑亦血衰心弱，世且愈亂，平日直方之氣，潛銷暗鑠，并不免君子三戒之末，而不自覺知歟？二者，必有所處矣。惟此議論，不但爲吾輩之終身大致，實關師門之百世功罪。二者是非，自有定論，不可得以容私於其間者，誠如尊喻。然則今雖未得遽然歸一，亦當往往復復，俱收并書，以俟後世之公眼正見，亦是一事。定不可學，今世一般學者，有問無答，而自處以不校之盛德也，如何如何？

答李慎軒 丙子

龍本考異，鄙亦尋常有意而未暇，今丈先獲我心矣。蓋聞龍洞前

稿，可謂依本面刊出，而後稿則都不成樣，非復本面者。當日同事，如田靜齋 林子敬 李敬循，亦皆不諱而公言，則此可以槩悉其內容矣。但其後稿所用，未知何本，而靜齋持去華本一匣，又借去立石所鈔玄洞本，此爲其所用耶？又聞田舜衡多襲晉本，送刊光州，未知是否。

朴震鎬之迎金容承于百千齋，期以二十年講學，丈已聞之否？其言曰：“艮門諸公，前日之討陰震，何其嚴也？今諸公中，多有通陰而同院事者，吾不知其前後裡許。【此與鍊心言者。】”又曰：“金進士分明是出去艮門，有人質之以出去非倍師乎？則不答。”聽其言，觀其爲，則可以探其意，而知其見矣。丈聞此言，又未知何以爲心。此有朴仁圭等聯名書，及田士狷置辨者，俱錄呈覽，後轉及於貴近與金復交諸公，看有何語，如何？

與李愼軒 丙子

澤述白生之於尊爲同門，四十年之久，重以同討震誣，同守大義者，又爲十年之久矣。而討議之先發，辨文之多且嚴，丈實有之，而非生之可及者。故每自以爲并世所知，可親信敬服者，無有加於愼丈矣。夫何丈於近年以來，漸改舊德，竟反前轍，始而訪問震黨中，而同祀震黨，既棄治黨之前義，旋唱單除一人之說，似若自處以中道矣？終又隱避不見，於震來之日，并反除一人之論，而致其爲華祀之主祝，反以生之不同祠事爲罪。然則難於親信，難於敬服，又無如丈矣。蓋前日之愛我扶我，成就我者，莫如丈，今日之棄我顛我，敗滅我者，亦莫如丈，《水滸》之“恩怨相尋，塞上之禍福無常”，竟惡乎定？丈之此事，其可知也。董子曰：“仁人者，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此極本窮源之論。此仁人者，卽無上之聖人也。丈之心必曰，‘我固非聖人矣。苟有大功可就，則古之

人，亦有不以少達道義而不爲者，我何以固執爲哉？我生斯世，雖不得位以成治平之業，顧不可以倡率士林建儒門之功乎？我今老矣。事不容遲，亟宜少達討震之義，因以和同其黨，共朔師祠爾。’此非丈今日心事乎？蓋其雖自謂少違於義，而不知其終陷於大罪也。吾故曰丈之宣力立祠，非爲尊師起見，只爲事功起見也。既知其如此，則不宜復事忠告，從取失言之譏。故自聞今春事後，迄茲五朔，絕無一書之陳矣。向見鍊心丈委訪，提論此事，及聞生言曰：“惡！是何言也？慎軒之立祠，斷然爲尊師起見。”生又念鍊心之於丈起居飲食，日相接也，則知丈近日心事，容有加悉於生者，何敢不信其言而疑丈之心乎？雖有過錯，誠出於尊師之心，則自應比并較量於尊師輕重大小之間，知所從違而改正，亦有所望。是故卒復一言，以俟可否，幸深察焉。竊惟聖賢之學，知仁勇三者是已。所謂學聖賢者，學此三者，學之當如何？見義卽爲以爲勇，擇善固執以爲仁，有過必改以爲知，捨此三者，不可謂之學，亦不可稱之以士矣。若以丈言之，前日之見造誣害師者，斥之若鷹鷂之逐烏雀者，是爲見義卽爲之勇，守此義而終身不變，則是爲擇善固執之仁也。今日之棄其舊，而通和陰震，則是過之大，而當改而爲知者也。生又竊念，學者固多過錯，改過一事，比爲義執善，尤爲急務要道。故程子曰：“學問之道，知其不善，則當速改而從善而已。”程子之言，雖爲改過而發，實則知仁勇三者，皆在其中。知其不善知也，從善仁也，速改勇也。由此言之，改過一事，又謂之知仁勇總會處，亦無不可矣。丈生此世，又此輟學六十年，老將死而不輟者，豈非欲成得知仁勇之君子人乎？既然矣，而猶於此不以爲然，則吾不可得得知之。如曰立祠尊師之大者，勢當通震，然後可成。故前日之義，有不暇顧，則丈答高允舉書“若使先師受汙辱之名，則豐祭大碑，堂舍軒敞，奚貴之”說，早已明辨二者之大小輕重，而亦不待比并較量於今日也如此，而更有可說於其間者云，則雖曰非遁辭，人

誰信諸？蓋丈之前後二轍，若不出一人之爲者，似此非常大變，何以一言期其必改？而吾所以縷縷若此者，非惟以鍊心尊師起見之說爲可信，亦以丈之曾得鄙告，罷止書震之，猶爲喜聞過，今不入島避震，同祀之，猶有所忌憚者。譬如大病之人，猶有一線生脈，善養可以回春。故茲進逆耳之言，以當善養之劑，勿以爲苦口，試服而收效否？有謂生者曰：“子毋庸爲也。夫木矯揉而直者，遇濕而復枉，愼軒本是震黨，中間一節雖好，今日之變，正所以返其本。所謂三截人者是已。子毋庸爲也。”生曰：“否，不然。”夫木始終繩直，則中間一節雖枉，亦可爲作室之用，軒初事在震罪未著日，且謂之其黨則非實也。此不當追論。吾則以爲愼軒之事，當以討誣爲始，今日之變，爲中間事。若復改而歸正，則是爲三截得正，而始終繩直者，又何害焉？朱子答大賢而聖於釋經者也。於中和之說，屢改而後得正，《大學》知止有定，《中庸》誠者自成，既改而還從舊說。大賢之釋經，猶如此，則學者之處事，何獨不然？故吾則以爲但得道在，莫說三截，雖十截，不可以頻復爲嫌，而不思終正也，審矣。前輩所譏三截人，以其終之不得其正故也。今爲愼軒計，勿爲彼邊不正之三截人，而爲此中得正之三截人，則都無許多累戾，而自有無限好事矣。未知丈於此，爲理到名言，而喫緊省取乎，抑以爲弄出譏嘲，而誅侮慢乎。夫當世之勢力，雖可畏，千載之公論，更可懼，闖發之私念，雖難除，至明之本心，更難欺。昔曹操之，挾天子以令諸侯，而終至篡漢也。天下畏其威勢，莫不靡然從之，所謂一世之名士，亦皆齊進彙征，爲之出謀發慮，以致坐定天下，當時討之以賊，盡力拒之者，惟昭烈之區區。巴蜀以勢觀之，雖謂之無有焉可也。故歷代史官，皆尊操爲魏武帝，而無有奪其統者。以至宋朝君子溫國公，而亦然，最後乃得朱子《綱目》之書出，然後蜀爲主，而操爲賊，義理以明，褒誅以行，凡其名士之附操者，皆爲賊黨。生以爲今日吾門之事，舉此比準，可以相喻也。丈誠能見

到于此，而清夜無寐之時，反以自省，則本心呈露，義理昭著，或自責其反覆，或自悔其私妄，或自笑其慙懦猛然悟，而幡然改之不暇也。如曰不然，亦不待後日公論，即以丈討震文，有震泳無先師等八字打開間，不容髮之嚴辭，還治丈罪，無辭可供矣。凡此等嚴辭，其將呼於衆曰：“凡前日之薄物細故，吾既捐之矣乎。其將焚之於劫火之中，負荊於震門乎。”未知丈於此何以處之。願一聞之也。噫！一自全晉訴禍之後，改度反論者，不啻多矣，而獨於丈眷眷不置者，何也？以丈之身曾作倡討之人，而衆心向背師誣辨否之所係也。今之云者，非獨爲丈，乃爲同志全體羞耻也，非獨爲同志之羞耻，乃爲師誣之，因此益深也。丈乎丈乎，盍少思之？一身之名節，雖不足顧，全體之羞耻，獨不念乎？全體之羞耻，雖不足顧，師誣之益深，寧獨不念？丈乎丈乎，盍少思之？有謂生者曰：“子毋庸爲也。聞慎揭誓于壁曰，‘凡以師門事來書，一切不答’，慎方勤務祠事於震主之後，則其以祠金事來者，必無不答，而猶且立誓，是必但指責其和震書者。蓋其水已堅矣，子毋庸爲也。”生又曰：“否，不然。慎軒立祠，若爲事功起見，如吾之見，則立誓之意，誠如子言，鍊心所謂斷然爲尊師起見者，吾不敢不信，則豈可必謂水已堅於和震乎？噫！其然乎？否乎？”生於此書之作，蓋反覆思量，未敢遽定欲爲之乎，則丈之心有不可知，恐見仇之反深矣。欲已之乎，則於師友之大倫，恐有多少不盡分，獨坐半日，三操筆而三投之，終於只信鍊心之言而爲之，如使誓不答書，如或者之說，則吾固知其無答，而答亦不願見也。如其不然，而誠有如鍊心所道者，則幸賜回教俾鮮此惑千萬。金鐘熙言，“湖南人，已改過”，此鍊心所傳也。丈已聞此，而不以爲異，嗚呼！其終安於爲震改過，而不爲先師改過也耶？惟丈深諒之。

答崔欽齋秉心 ○ 乙卯

《論語》《易經》，仁知之異，荷此發蒙，感幸何已？蓋《論語》之知動仁靜，固當以體段言。然其曰：“達於事理，周流無滯，安於義理，厚重不遷”，不過形容其模範意思，非本體，則此當於仁知者之發用處看取，乃可見《易經》之仁陽知陰，固當以發用言。然其仁知之異見，不過因氣稟偏重而只見一隅，則其所見者，豈非道之全體中一隅乎？如此看，則彼此無礙，恐爲完備。

朱子曰：“寂然不動，衆人皆有是心，而至感而遂通，惟聖人能之，衆人却不然。”蓋伊川所謂“寂然不動，感而遂通”，是泛論心之體用，不及聖凡也。然能致寂然感通者，惟聖人爲然，衆人恐不能與也，而朱子乃謂“寂然不動，衆人皆有是心，可疑”，此若以衆人霎時未發言之，則衆人一事中節，獨不可言感通耶？

天之性情是乾，火之性情是熱，水之性情是寒，人之性情下得何字，物之性情下得何字，乃爲襯貼乎？抑未知人物之性情，不必一槩說，只當分說。男之性情剛，女之性情柔，馬之性情走，牛之性情耕，亦得耶？朱子曰：“健之體，天之性，健之用，天之情。”竊疑，程子以健而無息者，是用也情也，健而無息之理，是體也性也耶？且如寒熱剛柔之就發用上可見者，是用也情也，寒熱剛柔之理，是體也性也。如此看如何？

答崔欽齋 丙辰

昔蒙枉吊，見澤述之荐罹喪禍隕神遞魄，慮因此而廢弛學業，引林滄溪勉金農巖故事，慰釋之。繼投兩函，以勿過毀損，增益玉成見教，鄙雖無似，豈不感泣圖副愛我之恩乎？仍念澤述幼時，讀《孝經》“立身揚名以顯父母”之語，輒欣躍曰：“此真人子事，可勉之矣。”然當日所見，但知所謂立揚者，學優而登于王庭，志孚君上，

澤被天下，鼎茵之享，爵秩之榮，及於親則足矣。希慕勉力者，惟此而已。年十七，先人訓不肖曰：“夫學有道學文學之異，道學之學本也，文學之學末也。士之於學，宜先本而後末。吾聞艮齋田先生，當今道學之師也，汝往拜之。”不肖銜先人之命納刺，謁艮翁於蓬山僧寺，何幸先生以爲可教。至引郭林宗訪茅容故事，枉屈弊廬，告以入道之方，先人喜甚曰：“艮翁山斗之望，瑞鳳之儀，因汝稍解文字，光臨陋地，其爲榮耀，勝汝捷得巍科比，猶可喜。汝若淑身成德，名立後世，稱美及於所生，倘復如何哉？”遂具贄送于寧山。不肖始知榮貴外，自有立揚顯親之真諦也。不肖以是事先人，先人以是勸不肖，庶冀天眷，獲遂吾願矣。門祚衰薄，弱冠有六，奄棄先人，禍出不意，崩心塞臆，冤酷痛悼，條經三霜。前日銳進之氣，一時銷鑠，目下之債帳，無計可脫，乃自語於心曰：“先人平日，所望於不肖者，成身一事是也，而不肖之學業未進，先人之天年不待，今雖一日百千盡死力而成之，安得起先人於九原而親見之？況此事固非一時強力之所至者乎？惟是祭祀之奉，後昆之託，實祖宗來相傳大計，宜思所以保守維持之道，且養老未終之恨，是先人之耿結泉下，而委諸不肖者，而甘旨告罄，輕煖恒闕，此非所以善繼志也。”於是分功於簡冊，用力於稼穡，焦思勞心，胼手胝足，意謂“此在奉老保家之道，不獲已也。”如是者數年，饑饉之災荐至，疾之厄不絕，世顛之顛頓，如水益深而不可拯也。因憬然大悟曰：“《孟子》有云：‘求則得之，舍則失之。是求，有益於得也，求在我者也。求之有道，得之有命，是求，無益於得也，求在外者也。’乃知貧富一定於天而不易者，道義求之於身而可得者，急於求其在天者，緩於求其在已者也，豈不誤哉？”乃悔東隅之失，誓桑榆之收，欲刻意奮志，痛加工夫，則已覺精力非復舊日，鑽研名理之際，率罕乎其難通，時固可憫。至於臨事而有義理之得失，則深懲既折之肱，而稍易力於取舍之間也。假之以十數年，無事得以專心此事，則

庶有粗聞於斯道，未可知也。罪惡攸積，天不見容，荐降大禍，五官離其職，百體無所措，痛苦荼毒，已不忍言，加以內竄外禁，一時湊洽，蒼黃苟簡，不成禮貌，重爲罔涯之恨也。若乃生事之廓落，是生者之憂，飢寒顛連，誠有如尊慮者。然竊有志於不忘溝壑之訓，誓百折而不回，欲九死而靡悔，此不足爲胸中冰炭。但所可悲者，自經喪威以來，精魄迷奪，筋骨痿繭，思索之實全閉，振發之力頓絕，譬如受霜之弱草，索然無生意。自念此身少而嬉戲浪度，中爲世故所奪，喫得許多歲月。若過五六年，恰滿古人成德之期，反顧胸中空空無一得。今被靡頹墮，又如此，絕無自強克終之望，深恐一向碌碌于流俗中，而沒身無名，辜負父師之望，而成千古之罪也。

與崔欽齋 辛酉

竊聞，痛君讐之未復，尙爾持服云，蓋證之古據，如宋賢之於徽欽，王裒之於其父，未嘗以讐未復，而服不除。且若痛讐而持服，則自居處出入言笑飲食，以至一切酬世應物，必大異於平常，而殆同乎廢人，然後乃爲名實相副，復讐無期，人事多端，此豈不更難矣乎？況如尊之地，奉老就養，必無方矣。續脫承祀，將有日矣，恐節節掣礙，區處難下也。幸再思而裁之也。

與崔欽齋 丙寅

向聞，震訴師孫拘畱，受諾復徵償金，得遂所欲。亂本將行，其氣燄可畏，震在今日，宜其如此，無足怪者。但從茲以往，先師之心事愈昧，手本愈亂者，爲可痛不寧。惟是彼又將刊，出其徒黨構誣文字，以眩人耳目矣。又將刊，出渠稿以顛是非矣。【震每言吾稿一出，都無事】蓋彼時乎時乎，以認以訴，其鋒甚銳，誰敢當也？在

此則雖手本真本，日星如也，辨斥嚴辭，霜雪如也。時移局換之前，決無刊行之道，念到于此，不覺神鬱氣塞也。無已，則但誦申包胥“天定勝人”之語乎。雖然，慮患之道，當盡吾力之所可及，以待天命之處分。今日吾輩急務，惟在競相傳寫玄本，各藏諸處，以備不虞。且合修前後辨斥文字，以俟百世，正不可緩，而衆志漫漫，瑣力不及，只此不大難底事，尙不能就，極可痛歡。

答崔欽齋 丙寅

手本決無不虞之喻，竊悶其不相悉也。鄙之所慮者，玄本也，尊乃以諸家藏新都板當之，都則認也，決非吾輩之所當取讀。他藏則非吾有也。安知不收入於都而不復出耶？必多寫玄本，分藏然後，守吾義，作吾有，可以無累無虞焉爾。

與崔欽齋 丙戌

上天悔禍，屏逐島奴，興復祖國，於是乎吾輩可以吐氣容身。卽欲詣門酌酒相賀，而疾病此甚，風眩作祟，忽於今春二弟并命，一女化去，三遭重制，病加逆慘，非事係重大，萬不得已外，誠難振作，只自悲憐。第今幸世運如此，政治之責，自有當局諸公，至於斯文之事，其責在誰？噫！往日之陰禍，言之齒酸，彼所仰戴之誰家日月，今既破碎，則其所誣師‘命世不可知，料量爲之’者，可不辨而自明，從此吾輩，省得多少事矣。惟是華本手定稿刊布之機，此正其時，而尊與我皆赤貧，現無同志者，此將奈何？深憂永歡，夜不能寐。竊意尊亦一般也。古人云：“有志者，事竟成。”此事之成，竟無日乎？願聞一言之教也。今朝先師諱辰也。痛切山樑，不覺吐衷至此。想垂諒也。

震旣硬謂先師絕志山，而斥尊以伏謁洪城全門鄭胤永一對矣。渠

則乃以洪流一柱推志山，又言世好，而曰：“聖九，遭喪不赴，絕人不當，若是無據。”【見震答金聖章書】後又致書林敬善，請以孫女結昏於聖九長子，歷舉吳忠貞公後與仙清後通婚而多吉者證之，遭聖九弟明東之叱退，究厥前後所爲，可謂小兒盲杖畫出魍魎，無一毫士子氣像，本不足與言。而吾輩之巧值此人，與之上下，還可笑也。然是亦運氣攸關歟？

與崔欽齋 辛卯

近日權也，欲與人見我求和，旋復罷之曰：“恐其慝出湖峇是非說，則沒滋味，不如不見”云云。此是權所欲與人金友周伯之傳我者。噫！明辨是非，非學問中第一工夫乎？渠既發見我之心，則正要明白說昨非今是，是爲明義理長識見，正心術改過惡之道。不此之爲，只爲他厭人是非之正論，專事掩匿，旋失悔心已發之好機會。蓋渠輩所爲每每如此，此其所以終爲誣師亂稿禍士林押師孫而止已，可哀亦可笑也。吳柳編刊年譜，想趁覽之，此而不正，實貽累先師。故自此遵靜公平日之託，已編成一本，就商座下，當有日矣。乙酉秋陰黨所戴日月虧戾之，時正可發手定本刊行通文，事或不成，義聲聞於天下矣。今恨其未然也。

答林敬善浩喆 ○丁亥

竊惟吾人相與，貴在實心勸戒，不在尙往復備禮數而止焉。故敢呈一言。古之聖人說學問之道，必曰“明剛”，其爲二字，工程輪翼，相須可知也。以澤述觀於執事，剛則優能，而明或不足，幸於明辨上加意，毋或少偏，如何？事之是非，義之當否，皆所當辨，而先自我所接處，慎思精覈，以求目下當行之路，若於年前尊先祖事，不得已者也。今於先師之受誣也，則胡不力爲辨理，若先祖事乎？想以不深

知裡許極致而然？故曰：“明或不足，而不可不加意也。”先師臨終前數日，猶努力於金誅之辨，此豈非所當法者耶？感眷與之厚，竊附切偲之義，欲以少報。願遂觀善之益之，尊意可恕諒，不謫否。

答申士敬鉉徹 ○ 甲申

孝悌忠信，勤儉恭恕，爲第一義諦，恐未盡善。吾儒當以《大學》之格致誠正，《中庸》之思辨篤行，爲定法眼藏。是以古人有孝悌忠信，而亡國敗家之語。王凝御家以勤儉恭恕，而未聞其與聞乎聖人之大道也。故鄙則以爲此八字，爲君子修身積德之本，則可，欲以之爲聖學精義盡理之則，則未可，何也？以其無致知一款也，此豈非更加思量處乎？

答林子敬章佑 ○ 乙亥

尊喻深以師稿手本之被陰之所壞爲痛，據之遺訓，而勘斷厥罪曰：“此其爲訓，何等鄭重，而彼乃敢任自改削，無少忌憚。先師之靈，當以爲如何？此爲儒門大變，不可置之勿問，此而置之，豈可曰先生弟子乎？凡此心公義正論確，足以破彼悍膽，而起間立者之懦矣。”至於所謂“認誣之說，自是歸之語言薄過，雖置之不問，可也”之喻，竊滋惑焉。夫非筆書之謂語言，非大罪之謂薄過，求之於心而非故犯，行之於世而無大害，則如此者，斯可以置之不問也。今震也之誣，則不然，口言不啻，手筆的確，謂“先師教以料量爲之”，謂其實先師不言之教。及其遺書出也，則又謂之“從天降耶？從地出耶？可疑之大者，何憚爲女奴石書習，”靜齋遺書不可指以爲有，所誣之人，則父師之尊嚴也，所誣之事，平生之大節也。語其情，則故犯，語其犯，則爲大罪，此誣不辨，則先師不足爲先師，豈可以置之不問者乎？不寧惟是。其謂先師無道義者，雖不識先師，而

猶不害爲知是非者。有一種人見謂“如以請認之小節爲拘，則非君子之大道也”，高足之筆，信不誣矣，此又并與孔朱以降《春秋》《綱目》之義，而盡行翻案者，皆由陰誣之行也。其爲世教之禍害，果何如也？執事有不凜然心寒者乎？大抵認誣改稿，罪俱不容，而畢竟認誣重，何也？稿自有華本，掩不得改迹，誣，難明心事，指遺書謂僞，不掩者，終有歸正之日，難明者，易致點汙之累，此既然矣。且改稿，關文字之議論，議論之失，或不害爲君子，認誣，係平生之道義，道義之無，其將謂何？二者相準，其罪之輕重，果何如也？

與林子敬 庚辰

向覲尊意，似以爲“陰雖有誣，先師德盛，人不之信，而不爲損，則不必力辨者。”然此決不然。夫謂“堯與瞽瞍北面朝舜”，“孔子主癰疽瘠環”者，齊東野人也。以舜孔之聖，受君父之朝，主小人之家云者，而爲其說者，不過無識之野人，則人誰信諸？然孟子猶重言複言，不一言而明辨之。今先師德之盛，不及舜孔，誣之者，非無識之野人，而有名之門弟，乃以緩論單辭，略略置辨，而自信其人，不信誣，無損師德，豈不難哉？且夫百里奚，伯者之佐，豈孟子之所尊仰哉？然而乃爲之苦口，辨不自鬻以要穆公，而亦無明證的據，則直斷以理之所無，而反覆深斥，豈其非仁義之至精，而孟子爲之哉？昔人以“爲人辨冤白謗，是第一德義”，爲此言者，其體孟子之心乎？今於一世儒賢，爲吾親師之地，如不大用心力，據明的之遺書，而辨冤白謗，是吾之視先師，尙不若孟子之於百里奚也。其將謂何？

答林子敬 庚辰

拜讀崇覆有以謹審慨歡乎！數百年來，國朝黨論儒門是非之靡定，

廣援博證，反覆論說，而終之謂真是非自在，歸究於吾門湖嶺事，而有所斷案，足以仰識平量弘識匪夷所及矣。嗚呼！澤述直世間一吳儒者，幼與村塾儕輩無一言爭，長遊士友間，雖自信之見，有據之論，彼不從，則亦已焉者，人所共知也。至於國朝黨論儒門是非，心甚不服，亦一如尊見。是故事在往昔如東西老少湖洛且勿論，耳目所逮，如蘆猥嶺通，淵翁之所欽歡，柳印湖討，先師之所不非者，未敢信其必然。惟於先師退斥嘉金祭全翁文，深服其爲師辨誣，以爲弟職之當然，而深笑當日全門諸人之謂先師爲過激者也。今震之直書認教，而誣先師，視金之隱譏諧世，而誣全翁，有大無小，有加無減，而改亂師稿，非復本面，此而不辨，師何以爲師，弟何以爲弟？故敢竊附先師尊全翁之義，以恭修弟職，非有他也，事係大關，辨之不得，而有多少文字。故疑於爭事，在衆共辨之，不得不公，有多少同人。故疑於黨也。作黨爭看者，黨爭看，作尊師看者，尊師看，吾固不恤人言，而只求不愧於心。然於尊書所舉，只求己勝，務快己意。幾於臨陣錯殺按獄失入之戒，未嘗不兢兢焉。嗚乎！世論之公私，人見之偏正，并行也久矣。澤堂之論沙溪，非不公也，而尙有一邊之不服，中國朱陸是非，至今未底于定。然則歐陽公所云後世之公，亦不可信矣。要之，并與後世而無公，只得爲我所當爲而已，何謂所當爲？事關父師，故爾鄙雖無似，有見于此。故事關己分，則雖於世基誣文之罔極者，亦視之如無。蓋理當如此，非獨以性之異懦而已也。彼震之自言吾生來，與人筆戰，凡十三次，未嘗一敗，而誇張之者。是稟得甚麼？乖性可怪也已。至於尊喻“以童觀一笑，斥震誣，斥之亦深矣。又以改稿，罪之大體之同”，吾復何言？但彼既罪在誣師，則當正名其罪，而嚴討之，不可付之童觀一笑而已。未知如何。省齊勉菴答洪柳書，不甚發明，不甚攻斥，誠好矣。若使洪柳於華西乎，誣其心改其文，而猶如此，則恐不可爲法，又未知如何。

與林子敬 庚辰

立後後生子，罷遣所後子，歸本宗，淺見自少已然，而及得洪遜愚集中有此說，據以爲論質於先師，先師不許。然究之以天理人情之極致，則自信之心，未嘗已也。向論禮說，偶及於此，尊見亦與之同，又可以自幸一得矣。

解《易》，《程子傳》，以義理，《朱子本義》，以占筮。論者以《本義》爲得《易》之本義，然自孔子之大象文言，已以義理說，則《程傳》亦不可以強解疑之。然讀文王卦辭周公爻辭，則畢竟主占筮者，爲得本義而主義理者，不過爲推說矣。但在學者，處事之時，先以義理裁擇，而有疑，然後可問於占筮也。當初大象文言之意，其在斯歟。然則學者之於《易》，先以《程傳》讀之，乃可有下手得力處，未知如何。

答林子敬 辛巳

《易說或問》，若能見成，豈不是補世文字？如以目前無補於五洋鼎沸萬邦虎食爲歉，則有不然者，豈不見夫子著繫辭之日，魯國之削弱，諸侯之爭亂，依舊自若乎？只恐吾所著之書，或有未盡善者耳。未知如何。澤述於此書，幼少日，循例一二讀後來，未嘗一日致力，固不足與語《易》道者。然竊取程子隨時變易以從道之意，則今日學者，於六十四卦象中，只當以大過之“獨立不懼，困之致命遂志”，爲時下切務，又以爲如何？

金華四賢，同歸拗過天地之喻，若此無似，何能夢見此境？且非惟人非金華，地亦非金華，時尤非金華，如之何哉？只有仰屋，長吁而已。

尊喻論《啓蒙》之書而曰：“一從康節，而畫卦之序，揲蓍之法，無一非自然，絕無人爲之安排，雖使義文周孔復起，不易其言。”又據

「繫辭傳」“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之文而曰：“不從康節，即不從朱子，不從朱子，即不從夫子。”此言極是。誰敢異辭？先師之曾以黃東發不從康節加倍法，至有下書，蓋言古人有如此之論云爾，豈以是爲可信也。

喻及嶺人李圭駿改註經傳之云，未見其書。誠若攻斥朱子不遺餘力，則未論其說之得失何如，只此一事，可人人得而攻之者。渠雖有絕人之才通天之學，只可述其意見爲成書而已。先賢之論，雖不免記疑，尊畏之心，不敢少忘，則夫誰有罪之？今不出此，以肆然攻斥爲事，則其心不之正可知。至於中國江希張之以孔基回老佛爲五聖人者，即又一并尊孔墨佛耶穌之梁啓超也。爲吾輩者，只當辨明，辭闢之外，更無他道耳。夫此二人者，襲中東學術之弊，而促其亡者，尊喻是矣。雖然，學術之有弊，亦勢之所必至，雖天下之良法美規，及其末也，未嘗無弊。只在秉國成主文盟者，隨時改絃而救之耳。要之，中國之朱子後，我東之尤菴後，未曾有一君相宗師出而救弊者，其積漸之勢，安得不支離煩鎖？拘刻迫切，固陋淺近，是非攻擊，如尊喻乎。大抵斯文之與喪，關時運之盛衰，又非人力之所能及。但在吾輩自救吾學之弊而已，未知如何。

尊喻既以近世學者，不用志於天下國家，以無用說話資爭競樹朋黨，爲東國學問之必亡而歡之。又謂居君位而無建極者，則民之淫朋僭忒，人之比德頗僻，理無足怪。澤述竊以爲所歎者，非曰不然，而所不怪者，乃誠然矣。世苟有建極之君，則所謂資競樹黨者，皆化而爲可用於天下國家之真學問也。向也我國東西老少之爭也，豈皆無用說話？或因政事之得失，邦禮之是非，倫理之正悖，大題目不容不辨者，而以無建極之君，爲之早定其可否，故馴致乎爭競朋黨矣。噫！豈獨東國然也？如漢之膺滂節甫，唐之德裕僧孺，宋之洛蜀川朔，皆坐此也。其後士子無位權而爭者，亦豈皆無用說話？始因性說經義禮論天人源頭聖賢宗旨人獸關係之不可不辨

者，而終而至於互相攻擊，則歸於無用之說話，亦以無建極之君明道學禮義於國中故也。此則既然矣。若論人，則當就其中而揀別得不以攻擊爲心，惟大義理是辨爲事而與之，如澤堂所論沙溪學也。其餘黨也之云可也。恐不可以不問心之公私事之當否而一切將今昔之士歸之爭說無用必亡學問之科，未知如何。蓋鄙則嘗以爲生於我東黨爭之後，超然無一毫黨心，而又卓然爲有用於天下國家之真學問者，惟來喻所舉柳礪溪先生，爲獨一無二之大君子也。其《隨錄》一書，卽王佐之具，豈但謂之略通經濟範圍？家世南人，而尊信栗谷重峰者，令人悅服處也。《大東經濟》編輯之意，可仰爲補世道之德。然未敢知果能過於《隨錄》之書也。且近世所謂共和者名，則雖好用於中東，則弊不勝言，不可取也。憲法則可矣。然三代典禮中，不已具此意乎？何必取於彼名也？至於《大典通編》，只舉名目度數應行節目，而不備論本末，恐不足爲大文字編輯之例。僭易及此，未知尊意更加善恕否。

與鞠潤明瑛煥 ○ 甲戌

見今人心罔極，義理晦塞，陰人誣師改稿之變，不惟不肯齊聲辨討，雖前日已行辨討者之中，稍稍變其所守，初有除一魁而通餘黨之論，旋復作并通一魁之論，如此則先師之冤枉，終無雪白之日矣。此將奈何？惟尊兄卓然不變，辨討愈嚴，至於立談之間，使人發蒙而改見，誠所景仰。昨冬所處，又義直辭壯，使異類，知其剛立，不可強勒，雖古人全節，何以加此？常對知舊，道尊兄事，自賀同門生光。蓋守節辨誣，同是一義，而辨誣更係識明。每見守節者，以識不明，以致玷累者多。願勿以已能而自足，必須加勉於明辨之功，以成圓美之德，如何？

與鞠潤明 丙子

見今世風之急，日復日迫。四方所聞，朝暮驚心。要知命與髮保知有幾日。此有幾日，雖極短促，而嘗聞蔡虛齋之言曰：“哲人能以一日，作萬世之業。”況今有日，又不止幾多一日者乎？若曰“悠悠泛泛”，雖有日三萬六千，亦不過龜蛇之引年耳，曷足貴哉？吾儕不患餘日無多，只患本事之虛疎，悠悠泛泛漫無主張，以失此生耳。陰徒乘時，日以益熾，吾黨失勢，時以愈殘。蓋向之自謂行行堂堂者，而今輒皆換面汙跡，樂與之合，若此不已，先師之道，幾何不撲滅晦蝕而且盡乎？此正吾輩片刻不可虛疎悠泛者也。若使此事而終無區處著落，則雖蓋世功業絕代懿行，只是支流餘裔耳。道理源頭本領，失之已遠，不可以道里計也。常恨索處孤陋無以爲計，思得同志講明是道，茫茫天地，誰歟其人？如有其人，則必執事也。執事志潔行厚，久爲人欽，每臨風想望，‘中心藏之，何日忘之’者，是也。如澤述者，今以後，益以自知不才無能鄙劣不足以有爲也。何者？平生久要恩禮相接者，輒皆反旗，便成仇讐，若非無狀，豈意致此？本合甘受，不敢爲尤，但以事關師門，初不當以無狀自引而已者。是庸葛藟甚於沐漆而求解也？嗚呼！孰知其苦衷有如此者乎？今此自言，雖恃執事之弘量有以容之高明有以察之而發，自顧劣下，旋覺慚愧耳。竊聞“君子愛人以德”，澤述雖非君子乎，而執事則實有可增美者。澤述苟有一知半解之可以有助於執事者，則愛德之心，亦將不後於人。所以以一日萬世之說奉獻，勿謂已見之昭陵，而更加之意焉。源頭本領之道理，益以著明，而區處著落之效，亦將次第而見矣。此非獨爲執事之幸，實師門之幸也。

後滄集 卷之七

答白光五南斗 ○ 乙丑

兄喻：“無李月沙之辨，則丁應泰之誣國也，誣而已矣；無數君子之辨，則吳震泳之誣師也，誣而已矣。”此真確論也。嗚呼！人皆知國誣之爲痛憤，而不知師誣之爲痛憤，何也？豈以師與君父差殊觀故耶。此不知生三事一之義者，人而不知生三事一之義，則烏得謂人乎哉。若謂吳不誣師，則是謂丁爲不誣國者也，非忘君師與亂賊者乎？

答房福之煥永 ○ 丙寅

方丈風咏之喻，是積營而未得者。聞來心爽，習習欲風，却恨曾被先師待時同賞之挽而不得追炳公之躅也。至今二十年餘，未嘗不往來於心。凡事一失機會，後不易圖有如此者。念兄我俱衰矣。安得迨未老前聯袂，一上天王，般若之頂也？

與邊復三圭源 ○ 乙丑

弟不自量力，參討誣師之賊，遭罹大禍，死生莫測。乃兄遠程曳衰，再度見顧，非志義今日之同，烏能如此？嗚呼！十侍，白馬之禍，烈則烈矣，闔宦之於朝士異類也；光，墩，衰，貞之毒，慘則慘矣，猶爲起事於本朝也。古今天下，安有假手外夷戕殺同門如震賊者乎？今番弟行，亦且無事。然參通諸人，勢將累呼究問而後已，兄亦安能必其獨免？如不得免，則除却支辭蔓語，但力言“吾討吳震泳誣師違訓。師門悖賊。是指吳非指姜，名譽損害非所當。且吾先師遺書禁認之稿，初不當爲人營業物，則業務妨害，亦不當也”云，則事得實而義不屈矣。

與崔伯舜 濬 ○ 甲戌

春間枉存，寔出不遐之盛，其爲感荷無容云喻。而行李惛惛，未克

穩討，旋即賦別，至今以爲恨。雖然道若相同，千載尙友未爲遠；道苟不同，雖朝暮遇不相爲謀矣。然則吾人只當實心相與，汲汲求道之所同，不必屑屑於離合遠近之間明矣。欲求道之所同，不可不講磨相長於學問思辨之間也亦明矣。仰請執事近日所讀者何書，所究者何義？其於博審慎明以求所謂道者，想有不措之功，明強之效矣。區區欽誦之餘，亦敢以淺陋之見奉質而請教，幸垂察焉。

近讀先師遺稿，見其日昭星晷之理，釘斬鐵截之義，何若是明且嚴也！方嘉金祭文之譏貶全翁也，先師獨當其衝，斥其文而辨其誣，若奮鷹鷂而逐烏雀，披雲霧而睹天日矣。獨怪夫當時全門諸人，除二三子外，不惟不助之出力，乃復不滿而有言，甚者甘作彼俚而反噬之也。夫如此者何也？名爲從師學道，而無得於義理，故私邪闖發，小則避嫌，大則畏勢，自不覺忘師而助賊矣。向使先師不出萬死之力以排闢之，全翁之道豈得傳至于今耶？竊嘗以此推觀於今日吾門之事，所謂殷鑑不遠者也。

噫！認刊己稿之無義，甚於儉德媚世，料量爲之，不言之教之云，非暗譏隱貶，誣師之罪，又重於誣友。然則震誣之凶大於金誅之變，且千五百人多於全翁之從，宜其明定其罪，齊討一賊，易易如也。奈之何世級愈降，義理愈晦，作僂反噬之李、鄭，比肩而接踵，同心協力之尹、徐，絕無而僅有，而主其事者又非有道學名位。如先師當日掃盪寇盜，奠安斯文，固未可必，而其免敗亡滅死者，亦云幸矣。乃於此時，有爲之說者曰：“彼雖有罪，實因尊師而作，宜在所恕，聲討則過。”一唱百和，自居公論，不憚助彼之勢而艱此之力，嗚乎！其忍心甚矣。此卽朱子所謂“道賊可恕，便是賊邊人”，不啻向者所謂不滿有言者比也。若乃不彼不此，無可無否，這一般人又何爲者也？

如不知其爲誣也，則是不明也；知其爲誣，猶且含默，則是不仁也。不明之過小，是猶不知其爲賊，猶可說也。不仁之罪大，是猶知其

爲賊而故不捉也，更不可說。不明不仁，俱是向者所謂不助之出力者，而其不仁者則是亦賊邊已矣。

蓋以全門已然之跡，揆吾門之處義，其是非得失，豈不較然明著乎？先師雖則飽受嫌怒於一時，終伸大義於百世，光華盈溢，四方傳誦。彼諸人之噤默違反忘師助賊者，雖則自占便宜於一時，穢辱彰聞，百世莫改。由後視今，其可榮可辱，亦當如今之視昔也更明矣，可不畏哉？

竊觀執事性度傑然，固非挾私邪而見賊不捉者，文識亦優，又非見理不明而不知其爲賊者，宜有明辨嚴討有辭於今與後者，而尙寥寥無聞何也？以其義理愈晦無可與語者，故欲效褚季野之皮裏歟？蓋有之矣，而以其禍變益奇，祕之以待後世如前人之爲歟？此二者俱有說焉。如尋常是非而已，則皆無不可者，關係至大，陷死師剝殘脉者，則當如孟子不共戴天之讐，討之不遺餘力，其他非所恤也。

執事誠能講先師昭哲之理，持先師斬截之義，辨斥震誣，若先師之於金誅，則以若平日之明眼巨擘，必見照魔之鏡燁然如電，破陰之斧轟然如雷，先師之日光玉潔，全體呈露，吾軍之義聲直氣一倍用張矣。此於吾人博審眞明以求所謂道之所同者，豈非最大且急者乎？惟執事圖之。

先師嘗有言曰：“目見父師被誣而不知辨討者，刀截而不知痛者。”又曰：“門人弟子避與人失和之小嫌，而忘爲師辨誣之大義，則師生之倫廢矣；師生之倫廢，則三綱九法亦無所賴而立矣。”每三復此訓，竦然心目，彼陷師忘師者流，亦何心哉？吾雖無似，自謂知足以知執事之賢果能免矣。統希究裁。

與朴受卿彩煥 ○ 癸卯

學者之所受於師而爲用者，不在於多，只在自家擔夯，得一兩字做

家計。是以元城受一誠字於溫公，爲終身之行；仲車受一直字於安定，作一生之用。弟竊以爲兄之所受於艮翁之勇字，亦猶是也。

夫遲回懦弱，學者之通病，而只是一箇勇字，可謂神傳鬼授之一粒靈丹也。故勇與不勇，此學成敗之機。“自強不息”，亦只是勇；“死而後已”，亦只是勇。至於顏子之“舜何人，余何人”，子路之“有聞未行，唯恐有聞”，亦皆能其勇而爲聖爲賢也。若乃“未成一簣而止”者與“苗而不秀，秀而不實”者，勇不足故也。冉求之“自畫”，宰予之“晝寢”，究亦不過無勇之致。艮翁之語兄以勇，其意豈淺淺也哉？千萬自力，做畢生受用之需，亦如元城、仲車也。兄自謂無勇，雖出於撝謙，然以弟觀之，似有一事近似者，猥此煩聒，願兄留心焉。

夫人非上知，未有不待師教而成者。故師生者，萬法之源也。天下至貴者道，至尊者德，乃由其講授，得其貴且尊者有之，其恩義深重，顧何如哉？故從古聖賢，未有不早定此事者。顏子之從孔子學也，時年十四；子夏之從孔子於陳、蔡也，時年十八；伊川十五而學濂溪；晦翁二十四而見延平。今兄之見艮翁，視以上諸聖賢，可謂差晚，而猶不決意以定師生之分。故曰有一事近似於無勇也。

頃承師教云：‘朴某醇實，可與有爲。’誠不易得此，其志亦有在也。世遠人亡，學術多岐。俗學詞章之輩，固無足問，號爲道學，而繆戾相傳宗旨，別立自家法門，顛倒衣冠之儀，乖亂心性之分者亦多，顧瞻宇內，罔知投蹤。路陌一差，雖費盡得許多心力，粧撰得許多辭說，終與聖學真趣，若薰蕕之相反矣。此吾儕所當審慎而趨向者，故奉及焉，幸有以諒之。

答朴受卿 己酉

今朝新年第一吉日也。在天則爲三陽回泰，萬物賁新之時；在邦國則爲發政施仁，維新其命之會；其在人事，豈不爲悔過修省自新厥

德之機耶？兄素以甘白之質，加以和采之飾，文行兼備，名實俱隆，士友之期待，實非淺淺地也。今此所失，殊異乎平日之云爲，於是乎連城之璧，有一點之瑕矣。人非成德，不能無失。故宰我以孔門之十哲，尚有短喪聚斂之失，況餘人乎？然在吾人自修之道，則不可諉之於此而以爲無傷，只當痛懲舊過，以遷新德可也。

竊觀兄書怨艾之辭，出於肺肝，可謂得自修之道矣。但隕廓沮喪之意多，淬礪遷進之氣少，此不當然也。且兄之所失，非兄之故，出於親命之不敢違也。不能喻父於道，而未免從親令之孝，此其所以爲失也。其將坐此而羞愧憂歡，遂止不進而已乎？其將益壯脚力，任重致遠而後已乎？願兄指天誓日，百倍用功，使自新之德，能改舊愆，則東隅之失，將復有桑榆之收矣。勉旃勉旃。

答全明來明錫 ○ 癸卯

學知邊多，習行邊多，鄙意恐不然。《集註》釋“學”字曰：“明善而復其初。”明善固致知工夫，復初是力行之所至也，豈非知行二義均備於學之一字乎？又釋“習”字曰：“學之不已。”則習亦學之事，而加有不已之義，此又非知行均備者乎？

答姜拜言信冕 ○ 丁亥

示意竊有感焉。敢問既往尙或勿咎誣師，亂稿亦可勿咎乎？湖嶺尙或打破是非，邪正亦可打破乎？歸於一轍，非不曰樂事。師蒙誣稿受亂，而然且歸一，亦可曰樂事乎？幸下一轉語回示也。

十年前，文聖甫來言：“兩邊和解。”澤述未及對，士狷先曰：“今聞和說，使人身青。”聖甫語塞。昨年春，田士順、士裕來言曰：“兩邊和鮮固好，然湖則以辨師誣爲大義，不敢開口云云。”今之尊喻，卽年前聖甫之說，而視順、裕之猶有忌憚者，更甚。

慰田士仁鑑孝別紙 ○ 丙子

禮書之外，夫復何言？方在哀疚之中，只有一團仁心，尤菴云然，以此知哀執事之亦然。夫此一團仁心，實爲萬事之本源。當其一心藹然之際，凡厥平日所爲追惟可悔者，必多從茲一悔上，能勿失其藹然而見者，行之以吾心之安，則仁不可勝用矣。夫安有往日事之許多可悔也？往日之悔，亦有及今猶可善改者，若復有後日之悔，則悔將何及？此澤述所以不得不貢慮而預告者也。言出肺肝，伏惟採納。臨紙悵涕，不盡所云。

答金允升鐘暹 ○ 甲子

教意略綽一覽，非惟兄之不能洞悉我情，弟亦難以明見兄之主意。所謂此邊指何邊，彼邊指何邊？謂嶺爲此，而謂湖爲彼乎？則有非吾之所敢知者。謂湖爲此，而謂嶺爲彼，則兄必無事乎此書，乃將全篇反覆，則彼此之與奪，十分躍如，可得以質疑而冀探察焉。弟於嶺之舍湖不認而乞京認也，蓋嘗顯言斥之矣。逮夫陰城認教書之出也，謂是大義攸關，切切然憂之，苦苦然辨之，厚被一邊指目而不悔，至以令伯氏之不辨師誣，獻佩弦佩韋之讜言矣。今承盛教乃如此，兄之昧實至於此乎？

金容承既是自退師門者，則分疏其無罪，果成說乎？但自爲分疏者，則有之。蓋曰我之從金，在不知其罪之日，向既以書告絕，則有何相涉乎？陰城則知其年前呼漢農老之罪，知其心中久無先師之罪，猶與之多年敬信，至於請校師稿，此非黨金乎？金謝過陰城，而曰“師友間處先師”云，則師友間終是倍師也。陰城不曰相絕，而曰“吾不復討君，其安靜改過，勿狂走京鄉”，此非黨金乎云爾。當日風波之起也，追後來見，既責金以不退館俟之而直入，復言於衆中曰：“彼既千里赴祥，則必其謝罪來者也。扶而出之，見其告文而

進退之可也，先肆拳踢於靈前，則不可也。”以此而爲爲金分疏聲討之，則只當受之而已，亦復何哉？雖然弟與金俱是中年人，絕與不絕，分疏不分疏，觀前頭可知，又多何辨？

答金允升 甲子

今日之事，只當深究陰城之誣與不誣，問罪者之勒與不勒。“請願刊布，決是自辱”之訓，是何等義理？“料量爲之”，“不必深拘”等說，是何等意思？討陰者，則曰“自辱勿從之，與料量，不拘，水炭之不相容”；袒陰者，則曰“彼一時此一時，并行而不相悖”。此又孰得孰失，而公聽并觀，斷其是非，然後乃可以出場。今兄於據師訓勘陰說，略無致詳，而見告者追提。當初彼此同議分疏，嶺人投稿，張皇而遮欄之，此所以言愈多而終不合也。然此係師生大倫，義理重關，要當慎思明辨，不得不措者。請得以畢其說。

來書以無義戰，彼善此，作一書劈頭，主湖嶺斷案，弟則謂大失著題也。湖之主不認而斥嶺徇稿也，所爭者一義字，初不可謂非義戰，而況見師誣而辨討之，義之最大者，則謂非義戰，尤無當矣。湖之前後之義，既明且大者如此，湖善於嶺，猶爲失也，嶺善於湖，則尤爲失也。若以某事某事，對待論之，箇人箇人比并評之，彼此得失優劣，安得以無也？夫初不能正言立異者，亦不爲無罪，然見湖無礙，卽以不認爲主者，湖也。庚申遺書出後，益加兢兢痛悔前罪者，湖人也。若乃苦舍不認，無視遺書，累違前進，約投稿乞京認者，嶺陰人也，亦獨何心？然此門人之所自孽，只可曰累師，而謂非大罪可也。至於謂先師有認意，認教者，欲置先師於何地，不得不謂誣師之大罪也。始涵齋討認書至也，若答之曰“先師之靈，必赫然怒我，我但欲傳久，而負罪爲之”，則早已無事矣。乃曰“先師獨坐命震泳曰‘世不可知，文稿君須料量爲之’”，又自引《五粹》認說，何也？子乘之以書

質認意也，若答之曰：“以先師之節義，豈有是意？吾雖無狀，亦豈有是言？傳之者妄也。絕勿復道也。”則都無事矣。乃曰“先師嘗教小子，以著書者無關，不必深拘之說”，何也？且五粹認說，曾不見隻字者，則證此說於刊稿之日，自犯李下瓜田之戒，已所不敢。況復大言之曰“先師五粹認說，是天地生物聖人立極之心，故不諱而公言之”，何也？既成其文，無難傳播，以致溢地疑謗，漲天譏嘲，而莫可收拾，一何不思之甚也？

頃自長城松門人側來者言：“先師若不教認，高弟焉敢有此言？”又自興德勉門人側來者言：“有是先師，有是弟子。”李承旭作《田良齋傳》，欲揭各新聞，聞見所及者既若此，則餘外諸家之驚怪嗤排，各自筭錄而斥之，往復而騰笑者，將山海之不可量也。蓋使先師生平之皜皜炳炳，一朝歸於昧昧罕罕者，是誰之故？兄其公清思之，亦自有輕重心衡也。

“請願刊布，決是自辱”之義立，則“料量爲之”，“不必深拘”之說破矣；“料量爲之”，“不必深拘”之說行，則“請願刊布，決是自辱”之義壞矣。示子孫門人之手筆可信，則獨坐命震之云無據矣；獨坐命震之云可據，則示子孫門人之手筆無所用矣。二者之勢不兩立，如晝夜冰炭之每每相反。或者謂辛亥遺書之勿認，彼一時也，壬戌獨命之教認，此一時也。又有謂前無變通之路，後有代認之例，咄囁勿認之手筆，杏下料量之獨命，可并行而不相悖也。此輩人信陰篤於信師，疑師易於疑陰者也。吾故曰“料量”，“不拘”等說不破，則先師受前後二心之疑。先師之爲光明正大君子也，陰城之不得不歸於誣師也。請下一轉語。

答金允升 甲子

天下之理一也，天下之心，天下之文，亦一同也。以此心見此文究

此理，通歸于極致也，豈有終不相合之理乎？惟其如是也，故請願自辱，料量不拘之勢不兩立，惡札中最緊節眼，而所以勘斷陰罪者，可謂斬釘截鐵，到頭無餘。而今承盛教，乃以“夫誰曰不然”答之。“夫誰曰不然”者，豈非千人然之，萬人然之，無人不然之謂乎？以兄護震之厚，宜其曰“未知其必然”，雖使稍改品藻，且應曰“似或然矣”。孰圖其明快斷決，一至於此，與前教“不可強服誣師之罪”者，若不一人之口哉？於是益信天下之理與文之一同，是非之公不外乎人心之所同然，而不如此自不得也。言之中倫，既已若此，則斯可以止矣。乃復以“其心保無他意”，“不可勒以誣師”等說，添畫蛇之足，何哉？於是又以知偏私之難克，已見之難舍，有如是矣。竊歎夫護陰二字，爲吾兄平生貞崇，而隨處闢發也。

夫言者心聲也，筆者心畫也。故欲觀古今人之聖狂善惡，惟言與書是準。苟曰言書之如此，而心之不如此，“聽其言也，人焉廋哉”之訓謬矣，“人心著書，化工著物”之說妄矣。然則有罪者陰書而無他者，陰心既是究說不得，且雖曰原心而恕罪，其或出於眚災也則咎矣。陰也則不然，一之而對靜齋言：“先師曾有認意。”再之而對宋氏秉真言：“吾師曾有認意。”三之而答涵齋曰：“先師獨命料量爲之。”四之而答子乘曰：“先師嘗教不必深拘。”及夫正責誠喻，懇懇切切，俾改之速過復者，累牘之四至也。則終是傲然高坐，或如不聞而終歲不答，或喝之以兢爭之習，或嘲之以宦宰僧髻，或罵之以狂泉衆飲。據其誣說之重複，自是之愈力，天下之怙，終未有加於此者。如此而謂罪陰者謂勒，則非獨爲護陰之貞崇，無或近於忘師之大故乎？至以杏下之獨命，謂有無之未可知；慎勿妄罵倭朔，謂勿發得太快。又怪夫兄之見識言論，非一時之差，其狐惑蠱食，所由來者深矣。

近日趙忠顯爲文，呼於衆曰：“石農之獨命，不敢指以爲無；靜齋之遺書者，不敢指以爲有。”方被輿情之駭痛，公議之討駁矣。兄之不

知有無，趙之不敢謂無，雖有疑決之有間，其爲反對乎討以撰造之衆論，則一也。若使不幸而兄書先而趙文後，眞獨命僞遺書之凶說，謂非吾兄不知有無之語有以啓之，人將不信。念之到此，既爲之凜然。“發得太快”者，豈非言不悖理，而詞氣之間，抑揚太過之謂乎？用虜朔之金壽弘，不但罵之，而教人滅親者，尤翁也。使壽弘而譏尤翁曰“慎勿妄滅人之虜朔”，而恕壽弘者謂之“發得太快”，則其果成說乎？言之至此，又爲之駭然。蓋統舉來書首末而反覆之，“夫誰曰不然”一句外，無非右嶺護陰，而駁駁不覺喪義而實誣，此必有狐惑蠱食之本也。盛喻所謂“論黨人，先言其爲首者如何，爭端之所由起如何”及“陰城無所偏主，舜在周羅事機，敬存陰濟其私”者，果非此耶？弟之姑閣湖嶺是非，但論其誣不誣者，以關門從關先師之有異，可已不可已之不同也。今見兄之非湖是嶺，而并與誣罪而不問，則安敢不略與陳質而俟明者之采棄乎？

夫初不參於認識之席，再詰認於清刊之所，三倡義於討陰之役，其義之清乎清，其辭之正乎正者，涵齋金丈是已，實爲湖論之首也。如敬存者，不過因湖默而不遠復者也，固不可以文望之優劣而易其首席。若爭端之所由起，則未知其何事。然陰城答鄙人書，傷貧之心一也，賂碑之憾二也，兄之所指，想亦不外乎此也。然刊所非生金之藪，靜丈非素號貪饕者，則欲求富而爭刊所，尺童之非可信，更不須說。至於謂敬存爲納賂而得文，則其受賂而作文者，誰也？既有唱之者，復有和之者，乃曰：“此文當拔，而但降碑爲碣。”此非以討崔，實所以證成先師難洗之累於百世也。是豈門弟之敢爲乎？改師文於身後，變之大者，可改而不爲罪者，爲其證於國典也。國典未及目覩，而擅改無難，是豈有一分尊畏之心乎？此又門弟之所不敢也。賂碑二憾，非獨崔之一人，乃千百人之所同然者，憾者何爲？其累師輕師也。敬存之失，在於輕許改碣之日，不在欲復碑舊之日也。乃以玄刊，謂陰濟其私而設，湖之默非出敬存之掌

中，玄之刊非敬存之所獨也。完廳之亥角，一省之同門，豈皆陰濟敬存之私者歟？若使敬存避濟私起爭之嫌，自外無礙之玄刊，同心乞認之嶺役，決非事師以義，改過勿憚之道也，有不爲罪之大者乎？乃若潛釀爭端之根，元在乎嶺。三千圓家庄之甘言，稿忽踰嶺；六百圓刊費之義錄，掌財有人。于斯時也，七聖皆迷，萬衆無目，自以爲兵不厭私將家之長算也。孰料其居無何，誑誘出稿之詰，出於田士仁之嶺書，假粧掌財之綻露，金楨鎬代其厄？惟其始之潛釀爭根，故終之顯峙爭壘，勢所必至爾。完之亥角我印獨無！印則未有，京豈終無？“分明是默”，據確於吳筆：“荷公（閔泳徽）擔默”，光增於成書。終無奈傀儡之本狀難掩。默許不得，著於宋秉徽之書，而“分明是默”不免見破；閔丈無言，出於趙忠顯之筆，而“荷公擔默”歸於白撰。

信乎吾兄所云“石農之心無偏主”，果青天之白日也；“舜在之周羅事機”，果密網之四匝也。吾兄於此尙復云“爭端之在湖，并不遑其討誣。”則亦復何哉？“我且忘言，認與默，百步五十步之間”，此又未然。對認許而曰默許，自彼之所命名也。吾爲吾事而彼知之不禁，則自我言之，但可謂之默，固不可謂認與默同一許也。且申請之有無，彼朔之書否，不可同日而語也。烏得以百步五十步槩之哉？若其當日瑕累之有無，雖不可知，然弟則以爲襄禮之時，彼之誠慕，吾之清楚，既有言足聽聞者。則今日之印稿，卽前日之襄奉也；今日之知事，卽前日誠慕之亥角也。宜其與襄奉之無礙，同爲一例，而曾不致疑矣。且壬冬之躬質完廳者，非令伯氏乎？果有瑕累乎？則令伯氏當先知之，胡無一言禁止，使勿用於當日，而兄乃追譏於今日乎？亦一可訝也。吾兄兄弟，世所稱元季方之難爲者。所自勉以爲第一義者，不以盡誠告其兄，弟必不敢也；硬行已志，不聽賢弟盡誠之言，兄亦不爲也。

夫誣師與黨金，罪有輕重，使涵丈實有黨金之跡，固不當舍重而察

輕，況其從金師友處師未著之日也。絕金，七月四日行祥之後也。月日斑斑，心跡昭昭，柰之何令伯氏之許心於誣師之陰人爾我相繼繼猛討？夫絕金之涵齋，以皓然白首，不憚爲三十年少鄭雲翰之副將，無乃兄之所以告之者有未盡誠者歟？所討金某輩中弟亦其一也。雖有自鳴之嫌，不直不見之地，亦不敢隱默而自外，故此一及耳。

答金允升 甲子

夫護陰諸人之言，不曰“以言語文字罪人，非所以原心”乎？今焉以後，彼目見遺書，而曾不爲意，汲汲乎姜認之刊，結成認意，認教之實據，如此而尙可以原心乎？訴討誣人於鎮川署，蒼巖，慎軒再當調查，禍機不測，如此而尙可以原心乎？如曰其認其訴，非陰伊姜告文中吳先生諾之，何以區處始之受吳諾，終之承誰諾？雖曰非汝，既作爾歌。

涵齋丈之不欲認，可謂至清至正。然不能自立別爲一論，反倚敬存而脅勒石農以誣師。

令伯氏之探質完廳而不言默之疵累也，故雖以吳，成之設壘以待敬存者，亦不得執其疵累，而先倡移刊之議，涵丈何得以強摘疵累而斥之不用哉？陰罪之脅勒與否，自有陰書在，吾不須言。

敬存使其門徒圖默以生梗，人莫不知其然，故語湖黨之首罪者，必以敬存爲言。今吾兄欲護敬存而不正言其實，反以涵齋丈爲首席，以敬存爲初不知圖默者。兄雖如此言之，人其信諸？湖人主義，“不乞認辨師誣”六字是已。涵丈於此六字，有些子欠點，而不得爲首席乎？敬存之無罪，吾證於令伯氏而知之，雖或不免是，敬存自罪，烏得以冒作湖黨之首罪乎？

吾兄必欲拔敬存於圖默之計者，以其欲護敬存也。然護敬存而拔之，則代敬存而入者，欲置之何地？兄可謂篤厚於故舊，然

獨不念宗丈而欲陷於衆惡之地哉？

涵丈之前後一節，粹然無瑕，元來自在之湖人首席也。蓋兄以敬存之文望久著全湖，錯認爲湖人首席，而又以圖默爲敬存之重罪，故謂涵丈代敬存而入，而謂陷之於衆惡之地。夫以元來首席之涵丈，強謂代圖默之敬存而入，而憂其陷於衆惡之地，然則令伯氏之實從圖默之後而躬質於完廳而無異辭者，豈不尤陷於衆惡之地乎？何其憂切於涵丈，而忽然於令伯氏也？

吾兄以爲今日之戰，天下之義戰歟？則其爲首席者，可謂千秋之榮光，必欲以宗丈易其首席，則是薄於故舊，而市恩於宗丈也，其爲故舊者獨無憾乎？

斥讐認辨師誣，非義戰乎？首席之名，依實而定，恩憾何有？

先師則初不知其如此，而苦被靜丈與敬存之懇請，只假銜於敬存自撰之文也。先師乎亦何傷？

先師秉筆，自有《春秋》。今日苦被靜敬之懇而許之，夫不由自家《春秋》，只看子孫門人顏情而許之者，無乃疑若知其事者乎？殆而殆而。兄言之逼傷先師乎？

嶺人設有此失，若無敬存之中道生梗，則事不至此極。

只恨認刊之不順就而痛罪生梗，亦異乎吾尊師也。今則陰之姜認刊將成，願勿深恨也。

切切然矚其納約之時，卑卑焉哀鳴其情，戛戛乎僅得其許。

令伯氏探質完廳之後，若言切切卑卑戛戛之狀，如涵齋諸丈清正之義，豈肯用其默？且當時若有切切卑卑戛戛之實，令伯氏豈有掩諱不言之理？此言不出於令伯氏探質之日，乃在今日覓疵之後，亦可異也。

欲言默之無累，敢將襄奉以擬議，是無瑕之事亦爲有瑕之事也，其可乎？夫子所謂佞人卽此類，而吾兄乃學此耶？

陰人之謂有脫絆之道，故已令金敬父完山一行，令伯氏之所不言

卑卑戛戛等說於當日者，今兄以爲有瑕。然則早已把有瑕作無瑕者，陰人與令伯氏也；早已學佞人者，陰人與令伯氏也。何不以此而先斥之也？【後見陰人答徐某書曰：“先師盛德，人所共尊，故有脫絆之道，如葵時無累云云。”○丁卯六月追識。】

涵齋丈自祥以後，未知其絕金與否。

鄙書姑置，令伯氏之馳書陰城，亦是妄歟？尙復曰未知涵丈絕金與否乎？涵丈不足信，此漢不足信，令伯氏亦不足信歟？

與金允升 丁卯

前承尊諭，以陰人誤蒙誣師之罪見憫，而謂公討爲抑勒，至今爲未決之案矣。蓋其所謂杏下獨命之爲誣說，原自明白，但被渠以“但論遲速，不及認否”，“語欠區別，命辭疎忽”等說，張皇掩飾。故雖以尊見之明，不免眩惑，而未及勘破也。昨冬又得見渠答徐某書，首以“越海不得”明已清楚之意，終之曰：“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不言之教”四字，雖使工於護陰者置辨，恐難不以認意看，而其曰“其實”，曰“原從”，又無半點欠缺，疎忽之意。到此之極，雖以陰口肆辯，似不能復飾張皇矣。“甲言如彼乙如斯，同歸一轍在何時？”非昔年盛作乎？“雲歸山立呈真面，甲乙同符在此時。”又非拙和乎？以弟料之。真面呈露，甲乙同符，今定其時，未知尊見云何？幸以回教仰想，脫然祛疑，不復煩彼此往復也。

至於恣改師稿，亦已聞知否？抑雖聞之，而亦或憫其誤蒙，如前日認誣耶？此則手足定本自在，不須多辨。但將曾年令伯氏鈔藏晦退栗三先生說質疑，對照晉本，則可推其餘矣。并惟諒察焉。

與李載和鐘坤 ○庚寅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

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答趙子貞濟元 ○ 戊申

昔周室之衰，賢人君子憫時世之亂亡，病風俗之頹敗，發於咨嗟，登之咏歌，而夫子采之，載於變雅，其言慷慨深切，使人感歎於百世之下。然猶謂之變者，以其過傷於哀而不得性情之正也。若夫子之憂世，則異於是，其心非不深切也，其言未嘗有過傷之意，只曰“道之行廢，命也”，“鳳鳥不至，河不出圖，吾已矣夫”，“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此其得性情之正，而憂慮之深切，又有非慷慨之人所能及者也。竊觀來書詞氣，其於周意之意，則可謂庶幾焉，而於夫子詞氣之法，則誠有未易言者，此意不可不知也。蓋世入窮陰之時，雖聖人亦無如之何矣。只得守吾之道，以俟陽復之日，不必憧憧然致無益之慮，呶呶然發無用之憤，反成係累之病，而損了向裡之工也。

答趙子貞 己酉

文王二十四生伯邑考，孔子十九歲生伯魚。以此觀之，雖古聖賢，鮮有三十而有室者矣。哀公問：“男子三十而有室，豈不晚哉？”孔子曰：“夫禮言其極。”蓋雖不及三十而有室，謂之未至於極則可矣，而不必謂之失禮也。《家禮》所定“男子年十六至三十，乃可成昏”者，可萬世無弊也。婦人無冠，非惟《內則》“櫛縱笄總”之文爲然，《士喪禮》疏曰：“笄有二種，安髮之笄，男子婦人俱有，冠笄惟男子有，而婦人無也。”朱子曰：“婦人不冠，所謂笄卽爲固髻之用，非如二弁之簪。”補註亦云：“婦人不冠，以簪固髻而已。”據此諸

說，則尤曉然無疑矣。明制始用鳳冠爲命婦服，俗稱華冠是也。今俗所用簇道里者，又是華冠之誤制也。圓衫亦我國之俗制，此則陶菴《便覽》已有所論耳。髦所以表生育之恩，父母生則戴之，死則去之，雖男出後女已嫁者，其所生之父母存，則恐無去髦之理。

與趙子貞 丙子

朱子論王安之罪曰：“天下有自然不易之公論，而言之者不免於有所避就，故多失之。且如‘勿令上知’之語，世所共傳，終以手筆不存，故使陸佃得爲隱諱，雖以元祐衆賢爭辨之苦，而不能有以正也。何幸其徒出此真蹟，以暴其惡於天下，便當撫其肆情反理之實，正其迷國誤朝之罪，是乃所謂自然不易之公論。奈何乃以畏避嫌疑之故，反爲迂曲回互之論，欲加刊削以滅其跡乎？”今陰吳“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之手筆，出於前日尊吳爲尤翁者之家，其爲真蹟其過於此！足以破渠分疏杏下說。“但論遲速，不及認否”之遁辭，是又今日自然不易之公論也。彼世基之所以大書廣辨者，適足以益暴陰吳之惡於天下後世矣。如某人之“慙憤崔絕自湖化陰”者，其所云云，何足深論？

與趙子貞 丁丑

某人言：“自古無儒賢託重弟子之陷惡者，以此知震泳之不誣師亂稿。”蓋不就心跡上論其有罪無罪，只以自古所無斷之，則天下元無創有之變也。天下元無創有之變，則是通一元十二萬九千六百年一直無變矣，豈非好事？終無奈天下創見之變，是古所無而今始有，故謂之變也。若曰變固有創見者，賢者知人而託之，故無此變，則託鯨以治水，託管、蔡以監殷者，堯、周爲不賢矣乎？若曰此國家事，非關儒門，則仁弘非南冥託重之弟乎？而南冥不足爲儒賢乎？於是乎其說早破而不詞矣。禹謂：“知人則哲，惟帝其難。”孔子謂：

“周公之過，不亦宜乎？”以此觀之，不能先事知人，不害爲聖賢明甚。使先師實有託重於吳，而吳也陷惡，初不足爲累，而況先師之於吳，初無衣書之傳，如近世諸賢之爲，又無文字之據，如稱炳菴於稿中者，并無衆中公之命乎！

賢弟以黃丈小心之以“老成長德”，“公言正義”爲論定，則某人舉陰吳所稱“黃是無識不足言”之說而答，此皆真無識之見也。夫識有文識，見識之異，文識識字也，見識識義也。不識字而識義，不害爲有識；識字而不識義，不免爲無識。昔吳貞武公定邦，當光海廢母議也，進言曰：“臣武夫，只讀《史略》一卷，但知‘烝烝乂不格姦’而已。”至今稱爲名言。是爲陰震之顯祖也。使黃丈而真無文識，只當論其說之合義與否，斷不可以無識而置之。如貞武當日，使爾瞻輩曰“吳是無識不足言”，則豈非悖理之談？而況黃丈之文，典重平順，明白切實，非惟陰震尙奇之文所不能及，同門能手無遠出其右者乎？特以不銜其能如陰之爲，故無赫赫之名耳。蓋欲論合義與否，則渠之所爲，無義可對。故一直以無稽游辭，眩人視聽，乃曰某也以傷貧，某也以謀私，某也以挾憾，某也以見欺，以至有黃丈無識之說也。黃丈而如有文章之名，則渠必曰某也以猜巧而爭名矣。其險心利口，何可當也？只宜默守吾義，明辨師誣而已。

某人何不試一思之？吳也無難直改師稿，至於所受渠祖墓誌銘，亦多改添，且改其黨家之墓銘作墓碣銘，而於其所惡者，則抵死不舍於已決傳表題目之間，作一副大話柄。吳之無恥固宜然矣。某人何不試一思之？無乃欲贖前日金椎碎頭之罪而不敢一毫有異歟？

答趙子貞 戊寅

父母出外，不知所終者，其子爲之服喪行祭之期，前輩所論不一。或以年壽百年，或以八十年，或以求之十年不得爲斷。然淺見當以當人之病

健，道路之夷險，人心之厚薄，探索之疎密，參互而決之，不可以歲年之久近爲斷也。要之情窮望絕，更無求性，然後乃可服喪行祭矣。

如尊仲父丈，在家病昏已甚，且壽爲八十有四，出爲六年之久，加以亂世人心薄惡，度以事勢，萬無生存之理。且長子六十一歲，其次亦近六旬，皆朝暮之人，一朝溘然，更誰求之？此正所謂情窮望絕者。令伯從之欲發喪受服，不其然乎？

其忌祭之日，則世俗皆用出去日。然此丈則出去後，亦有有人相見之的據，難從其例。令伯氏周甲日，是父母劬勞人子當倍悲痛之時，用是日爲定恐宜。是日早起，以曾經上衣招魂，如初終儀，主人以下，披髮易服不食，如儀設靈座。明日，括髮著白巾。第四日朝奠成服，成服前，每日一奠，哭不絕聲。成服時，具由告辭。間一月，擇日立主，行卒哭耐祭。如何？

答趙子貞 戊寅

昨論危齋所作貴譜跋語有未盡者，故欲借人追加修潤者，竊以爲不可也。程子《易傳序》“沿”字，以文理求之，雖謂明是“遡”字之誤可矣，而朱子謂不當改，與書南軒不啻詳且嚴矣。只此可以斷今日事也。

金石文字所重自別，受文於人於敵以下之生存者，猶不敢私改，況於危丈先進而亦已作故之地，何許後人敢爾下手耶？若文不成義理不成說辭，則當日必無不改之理；若云當時不知其然，而今始知之，則寧不用其文，還送本家而語其故可也。

且昨聞貴所誦危跋語云云，則亦自成義理，說辭不害爲人家金石文。今之爲貴言未盡善者，吾不知其何義也。此習不可長，此風甚可畏。習之所長，風之所行，其進一層，而擅改師文如陰震者，亦豈無之？故朱子與南軒書固以啓後人輕肆之弊爲憂矣。

答趙子貞 戊寅

某人之謂詩必苦思然後乃得佳句，而引黃某齧衣自家銷骨事以爲說者，甚可笑也。夫詩言志，而非外求而得者也，故志正則詩亦正，志邪則詩亦邪。古之三百篇尙矣，後世雖陳詩法，廢邪正不論。然但以已著之可見者言之，有杜工部忠義之志然後有秋色爭高之詩，有李青蓮豁達之志然後有開門見山之句，無其志而有其詩者，吾未之見也。豈強探力索之苦至於齧衣銷骨而可得佳句乎哉？且詩近於樂者，故《內則》以學樂誦詩爲一時事，孔子以興詩成樂爲始終事。樂是以和爲主者，則詩亦可知其心平氣和，直寫已志而後，可以得渾然天成之佳句也審矣。如必苦思衣齧骨銷而得之，若某人之言，則是聖人之設詩教也，乃所以使人勞心而戕生也，豈有是理哉？其言也，非直無理之可笑，亦爲害理之可斥者也。

答趙子貞 己卯

賢弟昨說，洪某以陰震謂吾“文字則能之”之說，信其有公心，殊可笑也。信如其言，嘉金謂艮翁“文章則能之，學則何能”之說，可謂公心乎？試使洪再問曰：“然則金某學則如何？”震必曰：“學則何能？”亦如嘉金斥艮翁也。蓋洪是初學，徒知能文之爲無上太賢，故其所以尊震者亦以此也，而乍聞震之以能文許吾，意其有憎，而知其善之公心。然殊不知古有“一號文人，餘無足觀”之語，故震以文人目我，而自處以學人也。

與趙子貞 己卯

今觀所惠《尤菴年譜》一遍，在當時除一邊角立者外，其不能樹立於議論之間，向背之際者，宜亦皆文行雅望，一世之名士。然以今觀

之，何如也？蓋其所以如此者，不明於是非而有動乎禍福故也。至以草廬，玄石之名賢，猶些不免，而況今日某某之依違反覆於湖陰之間者，何足怪哉？嗟呼！尤翁惟知義理，不知禍福，終始一節，死而後已，真吾師也。安敢不興感仰止而願學也？欲與賢弟共勉焉。人每於論古人之得失非不明也，至於論今人之得失則暗焉。此曷故焉？於古則無愛憎之關，而於今則有親疎之私也。賢尤於懷尼之論，深以玄石之依違爲非，可謂明矣。獨於湖陰之間，不以某人之變改前論爲非，何其暗也？若能一切掃去目下私之一字，以湖陰之爭，作陳編古文看，則亦當論某人，如懷尼時之論玄石也必矣。

與趙子貞 庚辰

日前所示先師語錄三冊，可見賢弟當日信師勉學之意，若善加修潤而傳後，亦可有功於學者。但聽言日遠，追後潤色，恐失本旨，況可借他人乎？要之當人自爲，而改竄之際，須慎思當日語脈，不爽毫髮，然後乃可耳。凡係講學雅言猶然，況其論人事得失實際者乎？如錄中所論陰震巴里冒銜之事，本文以“書之未傳，幸無大禍”，今某人改“未傳”爲“未發”，則是一字之異，千里之繆。“未傳”者，書雖發而未及傳達也；“未發”者，書雖成而未及發送也。如此等處，所係不輕，尤不容他人之容手於其間也。自當依本文爲“未傳”，至可至可。

弑君，無上大惡也。霍光之妻，毒弑許后，光匿其罪而不發，光罪亦大矣。然而作《漢書》者，不以此不立霍光傳，而人稱大有功於國家，則又不與伊尹并稱乎？然則今有人有可稱之事，而連坐妻罪，不爲之立傳，可乎？況婦人之有罪無罪，自屬曖昧，而非惟外人之所不可詳，亦有其夫之所不可知者乎？然則非惟不當因妻而斥其人，并與其妻罪，而不當深信於風說也。

金聖九平日於先師極其尊慕，而其圓髻緇撮，常著廣袖，既一遵先

師規模，又於性理源頭，不守家庭之湖論，而從先師之洛論，雖親門人，何以加此？既行加麻之服而參會下，同於門人矣。後又抵余書云：“近日一門人禮，往謁艮翁祠廟於流林洞，而特以排斥陰人誣之，故爲其所惡而外之。”是故雖以賢弟所親如某也，亦不免習聞一邊說而至疑。其展拜玄阡日，淚湧如泉，哭之失聲。信矣哉！人之不可不慎其所從而公其所見，有如是也。賢弟且道：“親門人之淚泉失聲於三年後者，還有幾人？”惟聖九發得仁義之性，有加於人，故雖非親門人，能如是矣。嗚呼！以先師高道大節，蒙誣千古，豈不悲哉？此聖九之哭之淚泉失聲，所以出於愛賢之仁，痛誣之義者也。賢弟思之，不其然否？

答趙子貞 辛巳

賢弟昨傳：有人嘲余年前爲末媳病遠求醫藥，而曰：“胡不使子救其妻病，而年將六旬儒衣儒冠，不避風雪，奔走道路爲？”吾雖未知此人之曾讀書與否，然《論語》不云乎？“子之所慎，齊，戰，疾。”疾者，人之死生係焉，故聖人慎之。今於妙齡婦女祟怪證惡非死即廢之大病，爲其舅者任諸弱冠昧事之子，使救其病，引老自逸晏然在家，則非惟違悖聖人所慎之教而不得爲儒者，豈可謂曾有一分倫理者乎？所貴乎儒衣冠者，以其明倫理也。彼乃以不忘倫理而救婦之病，爲儒衣冠之累，豈不異哉？

昔承先師之教，有曰：“爲人子者，每當親齊，自悚于心，曰‘我今番必遭大故矣’，則其所以盡心於醫藥者，自無所不至。”此言說得天理人情親切精當，可以爲萬世法。子媳之於父舅，分雖卑輕，其倫理則豈有異乎？噫！倫理之秉彝，天下之所同。使彼若當我所遭，吾知其亦將忘前日嘲人，而行我所爲矣。如曰不然，則無倫理，非吾所知也。吾非欲鮮嘲而自處善地，只恐彼說之行世，皆爲無倫之

人，故不得不言之。

答趙子貞 辛巳

《禮》云：“妻亡者，三年而娶，所以達子之情。”國典：“年過四十而無子者，許期年後改娶。”近世禮法解弛，絕不見三年而改娶者。其稱士子之謹禮者，僅得暮年而娶，而年少有子者亦然。此已違於禮典。然其爲待服盡，則得矣。若并此而踰閑，則又所謂難與言者。梅山先生論此云：“曷可服未除而絃已續，萃哀樂於一身，混吉凶於一室乎？”是爲深切可警。除服前卜姓，雖與續絃有備禮與否之異，其爲萃哀樂混吉凶則均矣，士子而可爲乎？既是自顧而未安於天理人情，又啓時人藉口士子益無忌憚之弊，絕不可爲也。

與趙子貞 甲申

令子婦墓文中“下從”二字，在所當改，未知間果改刻否？蓋“下從”之文，雖不詳始出何書，而認爲夫亡從死之名，則人無異辭矣。婦人喪夫者，烈行爲大。今之人徒知下從之烈，不知守節之烈。而元不知下從之烈不如守節，而養舅姑立嗣承爲盡善之烈。并不知朱子編《小學》之日，首載陳孝婦而一不及於下從者也。是善乎晚隱黃公之言，曰：“世以烈婦名者多矣。然其中夫死非命，或賊劫非義，于是死則卓哉。如不忍伉儷之情，徒以下從，不復以撫孤立嗣，使夫祀有傳，則只彰其夫好內耳，亦何懿之有！”【止此】朱子之意，宜亦以是也。夫金石文字，當以其實。令子婦豈不病終於夫亡二句乎？雖使下從之烈爲至者，固不敢爽其實而溢其辭，況於未至者乎？況於令子婦席有“我雖薄命，願得病愈，順生腹中兒，以承夫後”之言乎？銘于墓，所以彰善行。今乃掩其所長，誣書其短，靈而有知，豈不恨於冥冥乎？不料作文人之若是糊塗。槩以夫亡未久而死爲下

從也，抑亦不免俗見。以未至者爲至者，而以此推贊亡者，謂雖非其實，無妨從厚，而却不知反損亡者歟？是不可知矣。但高明之篤信其人，不覺損害亡婦，而不汲汲於改正者，深可憫憫也。

答宋景栗魯容 ○ 乙卯

喪中除輕服時所著服，弟意布巾直領外，恐無他道。兄既然之，又何以喪中祭先之服局定而疑之耶？祭先時，不可著衰經，故布巾直領；除輕服時，可暫脫衰經，則布巾直領，有何不安於通用耶？廣而言之，則出行時，衰經駭俗，故布巾直領，此亦可局定於祭先之服而亦非其時疑之耶？【但祭先，則布巾上加平涼子；出行，則布巾上加方笠。】吉服玉色等說，雖云有據，恐難從也。

《中庸》十六章“誠”字，似當以“理”看。而先師引《或問》辨侯氏說而疑非直指爲理，未敢質言。

答趙受卿瀚奎 ○ 丁丑

頃因有事，致書于兄者，凡三度矣。禮曰：“禮尚往來，來而不往，非禮，往而不來，亦非禮。”先師晚年，四方書問，動輒溢篋，以艱於覆答有時發書太息，猶必力疾略謝及於少輩，而弟於兄三施，而一不見報，則意嶠之南自有一般學規，有異乎？先聖禮尚往來，先師有問，必答之道者，不復有望矣。

今夏之初，何來巍覆，出於過時之後，斷望之餘，則其爲驚感，已非隨往隨復恒例之可比。又以知間緣薤變，隱身息交，以致稽報，則深悚夫向來妄揣繆度之爲不恭也。然吾儕之處此變也，何至如是？不待遠據古人，只以并世言之，素有樹立，安坐超免。若吾同門之崔敬存，則固太上也，臨難不屈舍生取義，若潭陽之李復一【廣雨 ○ 弟爲作李節士傳】，鎮川之鄭德汝【升源。○ 陰作鄭節士

傳。弟論其後論中，語有害義者，被排節一之目於陰。】亦可壯也，刺頸幾殊，使彼畏服，若鄙鄉之安允成【在旭 ○ 弟爲作安義士詩】，更可奇也。其間隱避一事，又可爲也。然不宜惴惴過慮，幾多年斷書闕禮而後已也。夫隱莫深於先師之絕島，而何嘗如是乎？至於慮異說之喧騰，歎儒學之衰弊，則又以見自守獨善之外，爲世道憂者深遠，此正仁者之心也。然而以弟爲識明行高望，其有深慮妙算之可救者，則非惟爲擬人不倫之失，亦恐有不悅者之移怒，而不得爲智者之言也。但又以再三改正於一二文句之未穩，爲末事，而謂之失望，則異乎吾所聞。夫治平之本，在於誠意，誠意之方，在求自慊，一念之微，一理之細，一言之庸，猶求自慊。而況文者心之著，理之顯，言之精，而尤不可苟焉者乎。

天下未有失於心理言文自修之功，而能扶世道者，則高明深妙，雖非其人，其以改正未穩之文爲末事，而謂之失望者，亦豈爲理到之言？兄於此，若論穩與未穩之是非，改與不改之當否，則是固爲講論之一端，弟當虛心慎思以覆從違今也。不然，既以改本爲善，而又概斷之曰：“當此之時，何暇論尋常文句而止哉？”論文固弟向日之書，而非弟平生之志也。嗚呼！‘尋常’二字若推而言之，其弊有不可勝言者。今之士子，於嚴明義理，喫緊愛人之訓，既不免看做尋常文句，而無所受用。至於目下有翻天地，賊父師之文字，亦且看做尋常文句，而不以爲變，由今之弊習，以求所謂振起儒術保合同門，則決無有成之理。譬如治瘡然，膿血朽肉消洗棄之，然後肌可生起，皮可完合。若視爲尋常，而不盡去，或認爲吾血肉，而護惜之，則不惟生起完合之無日，其不傷人也者，幾希矣，兄以爲如何？

答趙受卿 戊子

俯詢東史議論，是大題目。素昧史學，而尤甚於東事者，實茫然不

省所對。每遇士友，輒以盛喻“黜箕”之義講質，則亦皆莫敢措一語。最後得一友之言，曰：“箕子東來，非今之平壤，乃在遼東，已有朴燕巖說。”然又以爲“遼東是朝鮮故地，且宗統王否徙都今之平壤，武東王準來居益山，自是實事，則安得謂無關於東國而刪沒乎？且‘黜箕’二字，口氣不好，‘大金大清屠宋滅明’之云，亦傷悍快，并加修正恐好”云。未知此言如何？

答趙受卿 戊子

自作墓碣，兄但知此，不知其尤者，豈不聞用完用賊退石作師碣，因公論未豎乎？是以外人有艮門人一并聲討之說矣。年譜如將改編，自嶠南誠好矣，何必推托於弟乎？

答田士順鎰健 ○乙丑

父未嘗攘羊，而有子一人證之，其他諸子可不明辨無是於鄉黨衆中哉？知親誣之不可不辨，則知師誣之可反隅矣。

答田士順 丙子

先丈在世日，草成先師年譜至半，貽書澤述曰：“先人住鳳樓寺以後，望須高明記之。”後於玄洞以所草本示之曰：“俟稍加修整後付送矣。續成之任，勿辭其勞也。”澤述敬對曰：“顧雖非其人，事係先師，豈敢以勤勞辭？”天難諶，斯數月之間，先丈遽沒，夫復何言？自惟不敏，前於吊哭歸路暫面，不遑告由矣。但念先丈鄭重之手筆在笥，丁寧之言囑在耳，此事之任，終有不可已者。竊欲從今掃萬試役，庶副幽明之託望，須亟以譜草送來，俾無失時之歡。如何如何？

與崔性武長烈 ○ 丙午

勁草寒松，邃古罕觀。今讀書之士類，未免侮嚇恐喝之風所偃，縲紲刀銃之威所推，或有已從儒門而隱諱不復動者，惴惴以爲悔者，欲從儒門而趑趄不敢進者。不識高明於此，雖轉鐵輪於頂上，將奮不顧慮，而直前做去也否？伊川先生被朝廷之攻以邪學也，馬公仲欲依程門學，伊川曰：“時論方異，恐貽子累。”對曰：“使伸得聞道死無憾。”此其志何等誠篤！

鄙欲令高明以馬公之志爲志，專依艮翁之門而學焉，夫何故？吾夫子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倫常之道，鄒魯之教，是直也；倫常是數，鄒魯是背，是不直也。不直而生，雖生猶死；爲直而死，雖死猶生。此可以知所往矣，況爲直而未必死，不直而未必生乎？不惟是也，又安知不一治運回，道明教行，一世昇平出於儒者之手，而彼悖道異教，皆條爾消滅也耶？惟高明千萬亟圖之。

答崔性武 戊申

高明有志此學，而爲疾病所嬰，不能刻意做去，爲之慨惜。然病中亦未嘗無工夫。昔羅錦溪門人有病者，錦溪問：“病中工夫何如？”對曰：“甚難。”曰：“只如不病時，便是工夫。”此謂不可因病而有煩躁憂慮之心也。蓋有煩躁憂慮之心，則決無痊差之望，愈往而愈甚。小說却病法曰：“常將不如我者，巧自寬鮮。”又曰：“造物勞我以生，遇病稍間，反生慶幸。”此二法甚妙。如遇心下一段煩惱，排遣不去，儘好風咏體察也。張子有曰：“貧賤憂戚，庸玉汝成。”苟不至於病，不能省事，此何足爲治心養性之害乎？故昔人有平生善病而不害大就者，明之席啓圖，我國之成牛溪是也。高明勿因病而少挫其氣，漸加動忍之力，而隨分施功，馴致嗜學而忘病，則德進粹面潤身之日，彼二豎子者，安能恣其伎倆耶？來書有咏嘆賦命脆薄

之語，似不免有悶鬱之意，故聊此奉及，應亦深諒也。

與崔性武 丁巳

澤述少日，出遊翰墨間，獲交省內雋秀者，多矣。既而，時移世變，或貧富異勢，足跡齊蜀，或新舊殊塗，襟期燕越，見棄于世，踽涼自遣。惟兄不渝舊交，源源過從，以月以時，此惠諒厚，不省所以效報也。然故人此惠，非若細人之比黨爲也。實以所趨者同道，所執者同志也。區區豈敢徒爲尙往來，務報施以飾邊幅之虛禮？將抽肝輸赤，互資麗澤，以求所執所趨之愈堅愈正焉，可也。仍念往在青蛇年間，台岑風浴滄江雪月，吾兩人所期者。顧何事自是厥後，我則喪禍奪魄，憂貧剥膚，攸攸數載，憤憤無成。兄亦爲二豎子所逼，未暇溫理前功人事之多。故夙心之難副。蓋有如此者，而俯仰穹壤，堪可浩慨，廬此以來，百念俱灰，曾經之疾疾，凡可憂可苦者，渾忘若前生事，來頭之營謀，凡可欲可樂者，亦舉不入於胸中。惟欲飾身研理，用成先人之遺體，究見古人之緒意，譬如經冬之樹，飽喫霜雪打撲而，惟有生意者，存善培養，而不戕賊，則庶見敷花葉，而達枝幹矣。吾兄之俊敏，固叔季之罕覯，而獲天降祥，宿崇漸祛，向日隨氣，少沮之志，將必日以強堅矣。以若之才之志，念初發之願，起少歇之腳，絕情於猥俗，玩心於高明，以名教爲樂地，將聖訓作佩服，不敢半塗而廢，慎無一簣之虧，則多就之卓，將伯仲古人。而如拙陋者，風斯下而附末光也，何不早早圖之？如復虛徐而稽緩，則轉眄之間，日月不待矣。今弟纔過數歲，是強仕之齡；兄亦洽滿二毛矣。以聖人所謂‘四十無聞，不足畏’者，論之，宜若終於斯而已者。但衛武之抑戒，伯玉之知非，見稱於君子，而不害爲賢者，則吾輩於此，可以知所從事矣。蓋‘人一己百，人十己千’，雖爲困勉者設，年紀遲大如吾輩者，尤不可以不勉。願與交修胥勸，庶

不枉度此生也。

與吳翼夫海龍 ○ 戊寅

憶昔三十年前，同牕聯業也，所相期者果如何？既而邦運不幸，滄桑翻覆；世故多端，志業廢弛。雖其源源相從，未嘗不在此事之中，至於講質經傳，精義是索，商確名理，極致是究，以求所謂相期者，如曩時之爲，則蓋未之有也。竊念吾兄雖無學問之標榜，然德氣稟於天，孝友行於家，外和於衆而自有所守，內明於義而知其是非，是則可謂無其名而有其實。而如弟之徒然佣名而無所實得，動輒有咎而禍亦隨之者，知所愧也。

屬當山頽之後，變怪疊出，義理晦塞，從師愈久而讀書愈多者，其見愈差，其心愈險，其所以誣陷先師者，無所不至。噫！從師所以聞義理也，讀書所以明心術也，胡爲而至此？絕不可曉也。若吾，兄之非親弟而少讀書，則乃曰“若云艮翁有認意，認教，則大傷節義”，曰“自有認意，認教之說，人多有疑以艮翁。先有遺書取節義之名，後有獨命濟認稿之私者，甚是不幸。爲艮翁門人者，當於認意，認教之說，明辨痛斥，不使毫髮近於先師，然後先師爲先師”。凡諸說何其明快！何其嚴正！乃知人之見識心術本自有品第，而向所仰贊“無其名有其實”者，尤可驗矣。

且也令再從斗南之聰明敏達，從師久讀書多，視吾兄奚啻倍蓰？然而兄則如是明嚴，斗則却眩彼說而忽改定見，吾誠不知所以爲說於其間。然爲斗而憂者，加於爲兄而喜者，則誠有之。此是千古斯文大事，邪正之分，主賊之判，所關甚重，故憂之不得不深，言之不得不切也。兄在同堂之親，豈下如弟朋友之憂？望須時時據義論理，明白告喻，俾不陷於非義，如何？此書與斗同看，弟與斗書亦取看，期於反覆論辨，以收實效焉。

與吳翼夫士益 乙酉

皓天悔禍，祖國興復，萬姓普慶，何可形喻？大慶所同，彼此現境，休咎苦樂，不足問也。國家政策，自有任者，林下書生，但願善始克終，永奏太平而已。惟是事關斯文種種猷爲，及此可以霈然行去，而在吾門，則辨誣之未盡，手稿之刊行，亂本之收洗，當次第有事，而未知同志者幾人。今日可以仰問此事者，非兄輩而誰也？

噫！彼陰照臨之日月破落矣，將於何而依仰？誠可哀也。蓋彼誣中所謂“世不可知，料量爲之”，豈非最爲眼目而可痛者乎？觀夫讐夷之貪虐而吞弱小，驕悖而侵強大，則雖婦孺皆知其必亡，以先師之明，曾不知其亡，而曰“世不可知”也乎？先師嘗有詩曰：“倭亡明日死，萬萬無所恨。”又誦陸劔南“王師北定中原日，家祭無忘告乃翁”之詩曰：“此先獲我心。”其知倭之必亡而待之者，豈不較然乎？蓋“當今日而後，世不可知”之云，益見其爲誣而無待乎辨矣，何幸何幸！吾輩既與萬姓同慶之外，別有可慶者，豈非師誣之自底快雪乎？未知二兄雅見以爲如何？幸回教之也。

與田舜衡璣鎮 ○ 乙亥

向別如夢，不知從者何日返抵耶？區區遠溯不已。第念自有斯文是非以來，遂得無限醜題，雖坐在自家，家裡未嘗不惕然愧恨者多。是以尋常不敢以不肖面目自露於人。其或有相訪者，亦不敢有欣喜之心，而輒生畏難之意，以爲不知復有何等責問也，又懼夫退而不知復有傳說而使重得何罪也。

往者，兄之惠然見顧也，揆以平日情誼及其遠于之勤，則奚啻欣喜倒屣握手而已哉？而弟實不能初無絲毫畏難之心，豈其傷弓之鳥

見曲木而驚是耶？及聽其言而觀其貌也，則雖不盡傾其困廩，而亦不全閉其城府，私竊以爲果不負平昔所望而漸有可以肝膽相示之路頭矣。及兄之再訪也，弟已先絕畏難之心，則已無事於聽言觀貌矣，亦且無待於困廩之傾，城府之開，快將我肝膽相示，無復有餘。而却猶未然，非我有所趑趄疑殆而爾，實緣凌遽未易輸寫者。兄或於此，不以爲簡我，尙未可知也。未知不然否。

蓋兄於湖陰之間，非不早燭其是非者，但有褚季野者，與兄相善，故不免與之同歸耳，此固不必再言者。至於近日吳作《鄭節士傳》，弟見其立言之有害，故不得已有所略辨者，兄既不以爲非。吳之於辨有所云云者，兄又不以爲然，則得失所在，斷可見矣。吳復以我爲排節義之邪說，而與於夷禍之甚者，兄於此又以爲如何？年來雖尋常說話，纔脫於口，吝輒隨生。況其稍涉是非者，略及影響，誅責四至。雖號平日相親之厚，相識之甚者，每不見察，加以非情，一段耿耿，向誰與語？每自問自答而已矣。

兄遠自嶺表以來西海之濱，既問死生而復論心曲，而不須臾而別，則安得不使我一喜而一悵也？近益無聊，聊將往日未盡輸寫之萬一以去，且將繼此而有言矣。兄庶幾知我之不簡兄也。

與鄭國振基聲 ○乙亥

時逢田友士狷，聞座下繩尺有守，節操彌厲，誓不受薙黑之辱，益盡分衛闢之責，卓然爲頽波之柱。狷友眼高口直，非苟譽人者，吾以是知座下之實有是德也。先師之靈，豈不曰“不失其正者鄭氏子”乎？欽仰之餘，充然喜吾黨之有所恃也。座下樹立既如此，更願益加意於學問思辨窮研精微之功，立言著書，發揮奧妙，使先師所傳之道，有以弘大之，如何？

答鄭國振 乙亥

奉拜惠覆，有以見所存篤實，果如所聞。又讀所寄諸詩，益悉守華毅然之節，辨誣截然之義，有非言語書翰之所能悉者。如非向因狷友之言而致惡札，因惡札而獲盛詩，則幾乎淺知老兄而奄過幾年也，何幸何幸！程子有言曰：“時勢雖變，某安敢變？”兄實有焉。孟子有言曰：“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兄即其人。願益加博約之工，著成明道之書，如孟子之七篇，程子之《易傳》，俾百世之景仰，不徒樹立之已然者。區區不勝其厚望焉。

答鄭國振 乙亥

竊念儒者之闢邪說，王者之攘夷狄，有內修之固可藉而爲本地，然後闢之尤爲有力。故孟子之闢楊、墨，本之於集義養氣；韓子之排佛、老，本之於曉通經書；朱子之辨蘇、陸，本之於一敬終始。以其本固於內者如此，故發之於外者，如彼其張大也。吾輩今日之役之盡分竭力，庶不愧乎古人，但其所謂本者未得如古人，則百世之下，安可必信吾言如孟、韓、朱乎？是誠却顧瞿然處也。

與鄭國振 丙子

曩造仙庄，賞月賦詩，居諸幾何，窮臘冰雪，恰滿一周矣。風潮益甚，聖學將絕；人心益渝，大義難明。當此時也，吾儕若爾人，雖日夕聚首，講明立德傳學正倫扶義之方，猶懼不克奏功。乃者面書俱阻，動輒經歲，其何以立卓然之知，立確然之論，而少救靡然之俗乎？瞻望靡及，良可於邑如。老兄者，高明之見，剛直之氣，得之天資，超乎凡輩。其於修德學而淑世程也，宜有以自成而不須乎人。但理必窮而後愈明，氣必養而後愈剛，愈明而至於至明，愈剛而至

於至剛而後已。欲如此者，非講學不能；欲講學，非朋友麗澤不能也。竊覲兄方術多門，酬應甚煩，道雖於此，亦有可觀，然若如此紛汨度日，無有已時，則吾恐其無以致精於窮理養氣之功而至至明至剛之域也。願兄加意於此，就酬應而減却分數，就講學而添却分數，要使此爲重而彼爲輕，此爲主而彼爲賓，則其於致精窮養之道，思過半矣。玄狂是客臘仙庄鼎坐中一人，豈意其遽爾觀化？其高才正論，更於何而得見？此吾黨之不幸而陰黨之所喜也，古人所謂天亦爲此曹報仇者耶？噫！

答鄭國振 丁丑

來狀喻以稍得魔退之日，期圖心中之事。夫魔者，何也？非謂不自我致而變自外來，有若鬼神猜之而又非吾之所能退者乎？然則疾病，禍患，水火，盜賊以外，宜無所謂魔者也。

若兄之目下紛擾，其當應而應之者，既此是圖吾事之條件也，固不可謂魔。其不當應而謾且應之者，以是謂魔，則究是自魔，非真魔也。退之之方，亦在我自退之而已，苟欲退之，在一反手之間耳。然且不爲而坐待魔退，則是終無其日，而心中之事，永不可圖矣。禪子之偈曰：“日可冷，月可熱，衆魔不敢壞真訣。”彼邪道之於真魔猶然，況以吾正學，其於自魔也何有？惟兄諒之。

與文聖甫濟衆 ○ 丁丑

座下年前對人言：“先師言《五粹》認印開後日認稿之路。”是謂先師有認意矣。昨秋對僕與士狷言：“不言之教，石農不當書而書之。”不云本無而云不當書，則是謂先師有認教矣。僕前書後面以辨而不見聽，則未嘗不憫座下不知先師而見欺於人矣。今春之遇，僕問座下：“至今果認先師有認意，認教乎？”則座下遽答曰：“先師既有

文稿五十年後爲之之命，則豈有認意，認教之理？”僕曰：“分明如是。”既而爲之相送，同李友敬佐至沙川而別，僕又質曰：“俄者所說無認意認教，既云分明如是，則後必不復變動矣。”座下喜聽而無他說，僕又以幸座下終不昧師心負師恩矣。噫！前之憫後之幸，豈爲與我同不同而然哉？蓋皆爲座下師生之大關也。適茲先師諱辰，念及於此，爲一告之，如書不以實，不妨一一辨示。

與文聖甫 丁丑

《舜典》論人之犯罪，有眚災，怙終之分。眚災者，不知而誤犯；怙終者，知之而故犯也。僕謂士師之出入人罪不以法而以至於罪者，亦有眚災，怙終之分。不知其有罪而誤出，或不知其無罪而誤入者，眚災也；知其有罪而故出，或知其無罪而故入者，怙終也。今人之誣師以認意，愈往愈深，則非不知而誤犯者。座下既謂先師分明無認意，則亦深罪其誣師矣。然而不辨討之，又極尊之，未知謂座下不知而誤出可乎？知之而故犯可乎？願聞自知之明鑑。

答李敬循仁矩 ○ 丙寅

先師之垂訓禁認，義之最重者，門人之守師訓，又有重於刊稿者。未知果得刊稿守訓并行不悖之道乎？抑勢之所拘，功之求成，訓有所不得守乎？鄙但知守訓至死靡悔者，而猶且不嫌議及，則可以知執事之事矣；前承“吾寧無識，不讀認稿”之語，則可以知執事之心矣。吾何敢過慮？但浩大之事，誠難密圖，垂畢之役，又難遽輟，終不免犯訓，則事機情勢之未保必無者。此區區所以爲執事奉慮而不敢參聽於議末也。

答全子與達準 ○ 辛酉

虛名之喻，認出自道。北方風氣質實，非南土之比，座下之資貌淳樸，必非務外者，則固不敢猥獻晝燈之下助矣。第此二字，爲近世儒門之通患則久矣。彼掛名儒籍，全沒猷爲者，已不足道。其在某某之仰望州省者，理邃性奧，毫分縷析，天人之蘊，期究極致，觀其用心行己，則或不能絕旁人之疑。常節變目，聚訟居辨，制禮本旨，若將瞭然，觀其行之家庭，則或失守於利害之際。推其所學，用之一己一家，猶齟齬若此，尙何望與論《大學》治平之實乎？然而方且充然自多，處之以實學；人之取之也，亦不問實見實德之如何，徒以言語文字之富，僉同謂之實學；遺文傳之後世，後世亦以爲實學。是其言論風旨，豈無少裨於今與後，而謂之名實之相稱，則未也。此所以來世俗之嘲侮而道術之汙下也。此一著，吾輩正宜做題加勉，處已與觀人，求其不囿於此風也。未知尊意以爲如何。

後滄集 卷之八

與吳士益海謙 ○ 癸亥

弟於兄二十年舊要，輔仁之伐齊，規過之視秦，天厭之天厭之。妻喪中不再登，禮之著也，律之嚴也，兄之所夙講也。菊秋某地之會，既懇懇言，勿令令胤犯此。尊府丈之枉駕也，又敢申白區區竊附德愛之意。近遇貴里人聞之，胤昏已定，采幣之納有日，豈或誤傳耶？吾知兄明達識大體者，汙不至失禮犯律。萬之一未也，世有承君而在者，當絕志完之言復出於其口矣。

噫！今之世何世也？禮義淪於糞壤，人類化爲禽獸，滔天狂潮，載胥及溺。爲吾人者縱不能旋天轉坤，回瀾障川，何忍以一席之風煽燎原之炎乎？今之日又何日也？顧瞻華山，山既頽矣，茫茫世道，誰任其責？泉下不瞑之目，未始不屬意於門下後生，則吾輩縱不能用張我軍，有光師門，何忍循一時之私情，壞却平日之法門乎？

德門之守舊行義，可冠吾鄉，群從之聯業從師，人所艷稱者。柰之何禮律一款，爲不甚重，輕於德門，希友一失於前，寶兄再失於後，兄又欲三失之而益其數一，何不思之甚也？兄若不幸而不能一刀勇斷，則德門之行義學問，其將爲識者所不滿矣。幸加再思而處之。言出肝腑，兄如不樂聞，亦天厭之天厭之。速賜回音并仰。

與吳士益 丙寅

聞諸金台亨，陰人訴押師孫之後，哀侍與群從語曰：“今而從不當復舉石農之號而呼之。”以若諸公高明，不於誣先師而斥之，始待押師孫而貶之，何也？然既已覺悟，亦云幸矣。今又改換添削師稿之罪，如是無嚴之極，諸公見之，應不但去號之貶而已也。

與吳士益 乙亥

聞陰人投兄以《鄭節士傳》。其中“天下華而儒不能華，則天下卽夷

也”一語，高見見得如何？鄙則以爲大爲世道之害。向見玄狂，亦以爲然，遂各有一度辨論。茲錄呈，如有未當，不憚訂示。此是公共義理，固不可以出於陰而工加訶責，亦不可以出於陰而避嫌含默。要之只消道公明二箇字，斷得此案，如何如何？

答吳士益 乙亥

弟之以“天下華而儒不能華，則天下卽夷”之語，爲世道之害者，非敢爲苛刻，不過就言論失，如斷獄者之聽其辭，而勘其罪也。兄乃以爲可謂語病，而不可謂識見之病，兄試思之。言者心聲也，言既有病，則謂之心術之病，亦無不可。而況不可謂識見之病乎？兄謂其所謂儒指不華前，所得稱號而言，非謂并指不華後，當得是稱也者，非曰不然。然則不華已矣，非儒已矣，其可輕賊甚矣。有何所重，而與上文能不夷之儒，同一關重於天下，而蓋盡天下之華而并夷之乎？能不夷者，既可與不能華者，同謂之儒，則是亦可華可夷者，而非復儒者本面矣。然則，非但此華卽夷之爲有害，上文天下猶華，亦安得而無病乎？夫許衡儒名，何等盛也？如使衡早生北宋全盛之世，晚生明帝建國之際，而獨行胡制，則以其平日儒名之故，謂宋明天下卽夷可乎？是非混華夷爲儒而何？且以兄所代解陰吳說者言之，有曰‘爲華爲夷，只在乎儒，不在乎天下’，夫儒之所以爲儒者，以其爲華也，但曰‘爲華在乎儒’，足矣。何必復曰‘爲夷在乎儒’，何必復曰‘不在乎天下也’【天下之中有華在】然則，儒之負有重望，不只在於爲華，而亦在乎爲夷，爲夷而可且重之，則是非可華可夷可儒者之說乎？何獨以弟之斥以可華可夷可儒者，謂歸人於不容身之地也？蓋以終無奈陰說本自如此，故兄亦自不得不如此，因此而自反，則可以知弟論之非苛刻也。且兄以‘世道之害’四字，聞甚瞿然，何不思之至此？夫楊墨之害，至於無父無君，然朱

子謂：‘設其本心，豈有邪哉？特徵有差失。’今此混華夷爲儒之說，豈但微有差失之比而已？此若出於尋常書詞之間，則猶可歸之一時語病，而不必深論也。今也則不然。其文則立言之傳久也。其事則立節之卓爾也，其作則專致之心力也。其從之推尊，則見識優於先師者也，而其言之差失乃如此，其害庸有極乎？此所以不得不深論也。但兄亦既謂細看可疑，又謂之語病，則終有了悟之日矣。惟是之俟爾。

答吳士益 丙子

門掩歲窮，無人相問，殆同謫居，莫慰我心，際承華翰，顏先回色。況其書首有曰“雪山夜燈，看研舞蹈”，想以爲羨。此其兄以身將至之好消息，已不勝莫助之愛矣。又有以天地翻覆吾黨益孤爲心痛，而推弟負望用勵，壁立千仞，砥柱頽流。弟固知感而不欲辭，亦欲兄之不自辭而知感也。至其自謂“虛過少壯，晚自悔恨”，雖是自嫌之辭，亦是不可無此悔心，悔心之萌，吉祥之兆故也。“每苦事心相違”之云，此宜大煞理會，不或有放過者。此非但兄一人之所爲患，亦弟之所常爲患者，亦古今人之所同爲患者。千古以來，道之不明，豈爲坐此一言不得區處之方而致也，可謂大哉問也。使兄若無事違之苦，其必能若決江河，沛然莫之能禦，不必多讓於大舜矣。然則舜之在深山之中，其與野人者又如何？亦不過如兄今日之日矣。而想未嘗以事心相違，恁地自苦而已，必涵泳而待之，優遊而得之，是以達也。且夫天地之間，物難兩全，各相乘除而成。今也欲兩全之，此爲吾人之通患。如好名之人能讓千乘之國，苟知名之爲可取，則讓千乘之國，初非違於其心，何也？讓千乘之國，方爲取名之資故也。今欲并取，是非但不知取好名，并與不知取千乘之國者，二者皆必無成矣。然則凡厥吾儕所謂事心相違者，正是資以得

心之地者，不其明乎？竊伏見我先師平日遇事輒行，靡或少有依違苟且之態，一直做去，無所回護，所以能致沛然而常覺裕如者，用是道也。兄之一問，能使我勉此及之，感不自戢，亦欲兄之勉此也。書末兄之自謂“無一毫私意加於其間”云者，弟亦謂然，但欲更進上頭，必於當理，否則雖能無私，而亦有卒陷不韙者矣。兄又以爲如何？

儒，華，夷各自單舉，則儒有君子小人，華有內外名實，夷有半全真假，皆各得統而言之矣。若以之相對，儒則儒也，華則華也，夷則夷也。名目一立，不可毫髮踰其界，至一或相踰，是名已亂而實亦隨之。如父子之名相踰，而其將不有以父爲子以子爲父者乎？如此則兄將許其名之相踰，而亦可活看得耶？今吳傳曰：“儒不能華，華卽夷也。”儒與夷相對而曰“儒不能華”，是儒與夷庸有別乎？華與夷相對而曰“華卽夷”，是華與夷庸有別乎？儒夷相混則是夷而已矣，華夷相混則是華而已矣。以此立言而公諸世，思以易天下，一傳再傳，則其效將成如何？此其所以不得不立辨者然也。趙景憲書，則其君子是單舉而可通有無德而言者，設有變者，元無踰名失實之慮，以之自勉，則亦可自進於有德，斯其所以爲無病耳。切願更聞高論。

“活看”之云，細味之，非徒在文字上，亦似在事爲上，恐更商量。只以文字言之，若一切用此法，所失不過一字不明，而亦將至於伏屍百萬，流禍後世，況在事爲奚啻伏屍禍世而已哉？必至於天地翻覆，父子易位而後已。活看豈敢易言乎哉？稽古聖賢用心，如“惟精惟一”，“文理密察”，“好察邇言”，“明辨之”，“詳說之”者，何莫非不敢容易活看之意而遂致太平之實者？從未有易言活看如兄者也。今以其已效者言之，“華卽夷”之爲不可稍解文理者，孰不知其如此？而兄乃自迷，此豈非憬然可悟者耶？

墻垣之壞，賊人之便也，恐有乘夜而侵入者。不有邪德，安有問佞？不勝爲兄深長之慮，是以及之。

與吳士益 丙子

弟之近課在《朱子大全》，而讀至“義理難推尋，工夫易間斷，而歲月如流，甚可憂懼”之訓，未嘗不惕然而警省也。蓋歲月在天，義理在事物，其易逝難尋，非吾智力之所能反其本相。惟工夫在我，苟不間斷而成之，其明如日月，其名垂宇宙，則義理可易尋，歲月可永長。然則不間斷一事，豈非吾輩之所當勉者乎？

竊嘗惟之，吾輩之與聖賢，天淵之相懸，實係工夫不間斷與否之如何爾，豈獨以氣質之清濁哉？今以聖賢之往跡求之，“猶惜寸陰”，大禹之不間斷也；“望道如未之見”，文王之不間斷也；“夜以繼日”，周公之不間斷也。孔子之忘食敏求也，是不間斷；顏子之拳拳服膺也，是不間斷。其乾乾惕厲，自强不息之功，既皆如此矣。

至於吾輩之現狀，則外而持身之不謹，出言之無章，內而窮格之不精，存省之不密，固皆是間斷所致，以至誦讀之無程，講論之不勤謹，往復之踰時，亦無一而非間斷也。終何以成工垂名明見難尋之義理而永久如流之歲月哉？弟之所瞿瞿然不寧者，此也。未知兄近日日間，益復慥慥，自有喜悅之趣，而無此瞿然之情否？

仍念此世，聖學湮亡，義理晦塞，號爲學者，於孔子所謂“學之不講是憂”，程子所謂“學必講而後明”者，茫不知何事。其或知焉而從事者，又雜以偏見忮心於其間，其所欲明之者，究竟反以晦之，寧不可歎哉？惟兄則不然，明足以燭事理，公足以平物我，只欲求是而恐失其中。顧瞻并世可與語者，舍兄而誰？此弟之所以樂與之友也。

向論吳傳中華夷無分，係是大關，而兄之援據而謂其無害，弟之立辨而謂非其據者，已經一朔，而尙無復然否之盛教，豈已犁然於雅見而無所事乎更煩而然耶？如其不然而猶爾者，吾儕俱已衰矣，且世亂途窮，死亡無日，只此一款疑義，猶且緩稽往復，閱月經年而未決，則其於千頭萬緒無窮義理之可疑可講者，又皆將如之何哉？仰

企之餘，偶有感於朱子之訓，不覺縷縷至此，未知吾兄以爲如何？

答吳士益 丙子

奉讀惠覆，其於鄙書所舉“無間斷”三字，反覆推究，以至於天人合心之妙而極焉。是可謂我發其端，爾窮其致。苟問答之若此，其相長雖古所謂海山知音，何以加此？推此以盡其餘，則將無微之不入，無堅之不破。天下義理雖曰精微，豈有終不可究？天下疑晦，雖曰難辨，豈有終不可決之理哉？區區於此感荷者深，警發者多矣。

但其論鄙書中“忤心偏見”四字所病并世士流者，而因言吾門分裂之由，終歸結於責弟以反省，雖感君子不以姑息之愛，然謂之相長知音如上所云，則未也。將何以與之辨天下之疑晦，究天下之義理，以致無間斷合天人之妙也哉？使人慙然失圖，不知所以爲心。

噫，弟既質之不美，私之未克，平日所存所發，宜其出於忤心偏見多矣。至於爲師辨誣一事，敢自信其出於公心正見，而仰對蒼天而不愧，歸拜先師而有所藉手也。兄於弟三十年久要，弟於此亦十三年一誠，觀由察安，庶可以洞悉此心，而兄之不諒，胡至於此？弟方謂兄爲不忤不偏可與語者，而兄則認我爲有忤有偏不可與語，所謂“故人知君，君不知故人”者此也。人之相知，貴相知心，心既昧矣，雖有議論之合，亦奚足貴哉？且兄過矣。

既云“大體之是非，固有在焉”，則淑慝之大判，豈不若薰蕕之不同器，永炭之不相容乎？故已於年前，以“不可不謂之誣師之書，此人不當呼以石農”之言斥陰矣。今乃又欲兩邊之人與之和融，是欲薰蕕同器，永炭相容者也。

夫聖賢之學，明辨之功，爲多且大，故孔子以爲學五事告哀公也，篤行一事外，皆是明辨工夫。惟其實旨之若此，故著之行業者亦然。《春秋》之褒善誅惡，元是明辨之事。後此之賢蓋莫不然，孟子

楊墨之辨，朱子蘇陸之辨，尤菴黑水之辨，皆是也。至我先師艮翁先生心性理氣之辨固爲大事，而事有關於師門者，則斥退嘉金之文以辨全翁之誣者，實爲生平事業。故以至屬續前數日所著文字，亡非此義，此吾輩之所共親睹者也。

今兄不此之法，而槩欲兩邊之合，其亦異乎聖賢之旨矣。此曷故焉？殆過懲於別人之忤偏，而不免於有意爲公之私也。不公之私固私，有意爲公之私亦私也，可不畏哉？惟其如是，故於陰撰鄭傳云云，雖以田舜衡之護陰，猶謂之不成說，權純命之黨陰，猶謂之可疑者，猶不覺其爲非，亦復如之何哉？不寧惟是。又謂之“不須說往說來，徒費筆舌”，則尤可怪也。吾人講論，非爲利也，非爲名也。虛心相質，惟是是取。鄙說有不槩於高見，則當明言爾說之不可從，我見之不可舍，如何而爲不可從，如何而爲不可舍，使曲折肯綮，明白通暢，吾之心事，人皆見之。是爲實心相與之道。

且道理無窮，人見有限。故雖以栗、牛兩賢之明，其論理氣，至有九度之往復。今以吾輩之見，凡於疑難，決非一二次商確而所能了案者。兄非不知而猶堅壁墨守，不欲復論者，非有他焉，吾知其現出認我爲有忤有偏不可與語之斷案也。

嗚呼！既不得知心於兄，又不得與語於兄，向者環顧并世，單望吾兄之意，自慙孤掌之鳴也。兄既如此，則世間誰復有知我心、與我語者？從今以往，焚筆碎硯，不復作一字書於人已矣。雖甚無聊，覺得省事養神，爲不妨者耶？悠然南望，臨紙冲悵。

與吳士益 丙子

自得兄徒費筆舌之喻，弟不敢復以前事提起。今聞玄狂與兄酬酢語，玄狂問所以兄我停書之故，兄以弟書中有以極言云云者爲言。玄狂覓其本文而詳說其上下對舉說話，而初非勒吳而出者，兄謂

知聽云云。夫‘極言’二字，元是依吳書中所有而爲說明，其極言所歸，如此云耳，非謂吳有心如此極言者也。寫在冊子上者，弟雖巧爲游辭飾說，如吳之所爲以欺兄，其可得乎？兄既知聽玄狂說，則弟得無罪於兄矣，此已萬幸。而兄又言玄狂書前有未察者云，此又爲玄狂之幸也。若非然者，玄狂豈得免無變不有之人乎？又言趙景憲書“是天下皆變之日”，玄狂謂皆變即夷之有異，兄亦謂然。如此則可謂所見盡同，而一洗往日許多辭說矣。卽此一幸，非但爲兄之大幸，乃公共今與後之甚幸，安得不使弟復發一言而相賀也？因知看人文字，非大眼目大心胸精察而詳說之，鮮有不致郢書燕說而爲吾大害者。因此悟彼如有未盡者，皆可以竹破也。

或謂此等毫釐之見鮮，些小之文字，設有彼此之未盡澄澈者，何必勤事分疏而不憚煩乎？弟謂儒者之必欲分疏者，不在於千里之遠而只在於毫釐之際，不在於巨大之事而只在於近似之文辭，蓋防微杜漸在此而不在于彼故也。且既曰毫釐，些小，而於此却不能澄澈，則尙安能可望於千里之回頭，巨大之棄屣乎？且天下之理，元無巨細遠近，皆有不待安排而天然自在者。若不於此而求觀其公共道理，則更於甚處下手？又不當以近細容其胡亂粗率，終以致千里之繆，而反自陷於昧心之科也。吾以爲如兄高明宜無不達，而種種於弟言語文字有不然者，何也？人若不自知，古今之通患。然弟實自顧劣弱，不足以爲人觀瞻慕效；性又偏狹，無容物大雅。以此而輒有出言，勿問其言之當否，而人之視之，如同腐芥。自古有人微言輕之說，爲是之故也。是以不以人廢言，乃爲明者事耳。然兄今大體所見，與弟略皆相合，其一時之參差，庸亦何傷哉？只貴吾胸中光明無纖翳其間而已。

每見忽於論辨，緩於攻斥者，非不知其當辨當斥，而忽於緩於者，是忽緩之邪心蔽其當然者也。況又有進一步占便宜，圖容悅，發摘等許多安排者，更不可言也。此等人畢竟多陷於名教之罪人而

己，其於許多安排，究無一得之實效，算來算去。惟有直而行之者，爲生無愧而死無憾耳。

自古奸邪之徒，未嘗不自知奸邪，於其從己未嘗不加護，而亦未嘗不竊笑其痴。是以甚則至於因而濟其奸邪，而反以忍其殘殺，如曹操之睡中殺左右，司馬昭之事後戮成濟等是也。奸邪之可惡而可畏又如此，此何待千里之繆然後可知者哉？毫釐之際，己有見矣。古之君子所以篤論而不苟者以此，豈包容忠厚不及今之君子而然哉？醴酒不設之日，已見箝市之變。嗚呼！明炳幾先，豈有他術哉？只有精察其毫釐之兆而已。

言語文字之失，雖若可略改之則已矣，否則殺盡天下後世之禍，【前人有“無以學術殺天下後世”之語】未嘗不基於此。楊，墨，陸，王，豈皆非有數之人？只以言語文字之失，遂爲斯文不共世之讐。竊兄於此等處有未及究者，然不可不更加審察之功也。

兄敢自謂講學上無所滯礙，四通八達，如遠齋之於性理之見所云乎？雖以先師之明識富有，每多下問不肖之門人之事，而不聞兄之有此，反有“不須說往說來”之喻，此誠可疑也。願賜一言之教。

司馬公之帝魏，本不過因舊史而仍存耳。朱子謂：“生其世，必事曹操。”此則又無言語文字之失，而只因一時不審之致，遂爲萬世莫改之罪人。只此冤恨可於何處訴屈也？兄將不以朱子爲己甚耶？

文聖甫謂：“不言之教，不當書而書。”此到底究勘不可但已者也。是當不當，只在書不書之間也。然則以其書也不當耳，若不書則無不當者。然則初非無不言之教云者也，其言庸有別於書之者乎？此必渠輩相傳話柄，其可憂也又一層矣。

弟於近日頗覺多事。其於鉛槧，情親稍疎，至其當爲文字，轉成手遲，此由事勢，非故如此。求之本心，可以無愧。然此便是用心偏於多事，行事邪於手遲者，豈有以多事之故遲於當爲之理也乎？陶侃之闔外千緒萬端，豈若吾輩之日間小小紛忙者乎？然必遠近書疎，

莫不手答。凡吾輩行事不合不公，而自以爲無愧本心，轉轉落下，不復知悟，亦不肯聽人說話者，多此類也。此宜猛著精彩，圖維新厥德，不可但已者也。如何如何？

於人言語文字之失，不求本來精神面目，只要使好看，此便是陷於大惡之根子，而不公不仁莫此爲甚。何也？欲以一人之見，蔽盡天下後世，而使其涓涓涖涖，不止不滅，燎原江河，卽此而成故也。

若曰使好看，則應無如墨氏之兼愛，楊氏之爲我，佛氏之見性，陸氏之頓悟，王氏之良知，皆幾於無病，從古聖賢，皆不使好看，何也？唱爲“使好看”三字者，吾知其志別有所在。嗚呼！終亦見其可憐而已矣。

使好看者，亦未嘗不使惡看。故弟於言語文字之間，得屢憎於人，至於以無爲而有顯斥之者，亦有潛非而絕相問答者，皆其欲使好看一邊人文字者也。蓋使好看之心，卽使惡看之心也。一串貫來，勢有必至者也，但好惡之施有彼此之異焉耳。

答吳士益 丙子

承惠覆，仰悉以鄙論“極言云云”爲無傷，趙書“皆變之日”與“卽夷”不同，果皆如玄狂所道者，旣以自幸弟之不得罪於兄，亦以奉幸兄之不見欺於彼也。講論之畢，竟益人有如此者，益知兄“不須說往說來”之云爲一時之未思也。雖然，如非兄舍己從人之盛，亦安得以致此哉？此弟前日所以以無偏忤許兄而樂與之論者也。否者，弟雖庸陋，亦何所求於兄而強聒不舍哉？蓋陰傳之所恃而爲據者，惟趙書也，而“皆變之日”，旣與“卽夷”有異而不足爲據，則其是非得失，卽此可以到底判明而無俟乎添足也。兄乃又以“帶說”之云曲護之，求其無大礙，無乃所舍者未盡舍，所從者未盡從，而不免有害於廓然大公物來順應之體耶？甚可異也。夫“帶說”云者，如言害而

曰利害，言急而曰緩急，意在甲而帶乙說之類是也。今此陰傳主意，果但在於上句“天下夷而儒能不夷”云云，不在下句“天下華而儒不能華”云云，而如兄所重在上句，下句是帶去說之云者乎？論以弟兄見，上句云“天下猶華”，下句云“天下即夷”，上句尚虛緩，下句最緊急，觀以“猶”字“即”字可知，寧可曰所重在下句，上句是帶去說，則宜矣。此等，弟敢曰直是不成說，已之已之。

昔者子路問：“聞斯行諸？”子曰：“有父兄在，如之何其聞斯行之？”冉有問：“聞斯行諸？”子曰：“聞斯行之。”若勸兄但以進德自修，而不以辨師誣斥邪論，則是猶勸子路以“聞斯行之”，而戒冉有以“父兄在”也，焉能濟事？其必以辨誣斥邪勸兄，而不以進德自修，即孔子勉冉有以“聞斯行之”而不以“有父兄在”之意也。弟雖無似，亦猶行古之道也。兄乃病以責善失先後輕重之序，此恐不知言者之意，并失自察之道矣。至於“占便宜”以下“許多安排”之云，則是泛論今士者，於“每見”二字可見。兄必看做暗斥自家，而質之以均犯三者，無得脫色耶？極為悚悚。然在兄自修，則不妨為有改無勉之資矣，何必乃爾？且若無已而索言於兄，則所謂占便宜者，恐有些未祛。未知以為然否？

蓋此陰傳之論，既得大體之同，則小小之未盡合，吾不須深慮。夫何千萬料外，兄乃於所謂“不言之教”，既斷以“不可不謂誣師”者，忽見陰辨之書，亟改十年之定見，謂“證據甚明而非白撰”，不覺終陷於黨邪誣師之科，此何變也？此何變也？絕可怪也。兄且試將震與徐初書劈頭“垂喻刊集事三不可，其第一則誠有然矣。故鄙欲越海而不得矣。來喻雖謂賤子發論創始，其先諸友議定矣，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也”之文，一口氣讀下來。其曰“三不可，其第一誠有然”者，非誠以請認為不可之云乎？其曰“鄙欲越海”者，非我無認意之云乎？其曰“其先諸友議定”者，非諸友先定認識之云乎？其曰“原從先師不言之教”者，非先師原有認教之云乎？總而言之，則

我則初無認意，至欲越海清楚，而但諸友先有認意而定認議，故我不得已而從之也，然其實諸友亦非必有認意，先師原有認意認教，故諸友亦不得不從也。語勢文義，豈不分明如此乎？蓋其精神機關，少無虛疎，一節緊一節，次次推駁，到先師身上，更無去處，使之脫出不得，以示我原清楚，諸友亦非其意，實以先師原有是教，而不得不從之意於天下後世，天下後世之觀此文者，其孰不以先師有認意認教乎？惟其渠之手筆如此，故凡持公論者，莫不斷然以爲誣師，雖兄亦謂“不可不謂誣師”者，此也。兄何先貞而後黷，先瘳而後病，忘勘當日原書之本出自心者，只信後來擬書之飾辭逃罪者而有所云云也？是必有其故也。且如兄所云“證據明而非白撰”，則是先師明有是教也。先師有教而弟子奉行，自是光明事業真實道理，而又云“欠其不自擔”者，又何說也？蓋其所欠者，果指何事？願聞之。且兄之云“證據明而非白撰”者，不過以所謂擬書出也，不見擬書之前，斷以誣罪者，宜固自若也。而其云“伊來幾年，然疑未定，每自思量”者，又緣何事？亦願聞之。且兄於既定誣罪十年之久者，才見震之一書，證據甚明而非白撰。然則震答遠齋書云“改之一字，非吾所知”，此亦可謂證據甚明而信其不改師稿歟？亦願聞之。

既作書將發，更思之，今天理益晦，人心益邪，非復十年前時節。前日之日昭霜嚴於辨誣之義者，今焉削方爲圓，畏獨趨衆，而滔滔日歸於陰窟，不憚改頭換面而爲二截人，反大言之曰“今日則陰可和而不可斥”，至謂“以從違之多寡卜事理之可否”者，有若宋朝和否前後異議。此朱子所嘗以今昔之人倫人心明正與否，反覆歎息者也。嗚呼！今日之事，何以異此？若兄者雖與以上一般人所爲有異，然亦不免貳論則有，而所云云視文聖甫有加。又謂“我必驚怒而預切悚息”，則其自信已見確乎不拔之意，溢於言外。俯觀時勢，仰察盛意，吾何能有爲“不須說往說來”之說，今可還發於我口也？以是

置不發書者，歲已改矣。但念兄之於我，非尋常交分，乃非親之昆季也。今此所爭，又非尋常義理，乃師生之大倫也。我意兄之不從而不救，是我不盡分，我救兄而不見從，然後我可以無憾矣。記昔金士兢謂我再三喻兄，終致其“不可不謂誣師”之定見，稱之以性於朋友，而大加欽服。此蓋兄之自致，非吾有力。然其盡性分於友道，則自謂然。而伊時尚如此，今見兄之忽翻前案而歸誣黨之大事，非前日是非未定之比而已者，乃忽然不爲之救出，則所謂前日之性於朋友者而今安在？自慙獻忠不卒，已不暇言，亦豈不爲士兢所笑乎？是以卒復發書，冀垂明察，幸吾兄諒之。

答吳士益 丁丑

“不言之教”，兄見徐書之初，即書於弟曰：“視甕書，更覺分明，不可不謂之誣師。”兄意明是但看甕書時已可謂誣師，而到此更覺分明也。論定既如是者十年矣，今乃舉田壩代認說云云。彼輩大書布揚於徐書出三年前，兄亦熟眼而盈耳者，謂“以此而伊來幾年，然疑未定”，有若代認說始聞於論定之後者。然天下雖有善體人意者，使之見信難矣。弟嘗以不偏忤許兄矣。以今觀之，恐兄亦不免偏些在也。不然，安得有此事？雖然，亦非兄有心偏私於彼也。但以彼則聲名文華，使人風靡，不暇問其言行，而遠地相望，只見其可慕而已。弟則孱劣無比，文無足觀，名無足聞。居且密邇，詳悉其過惡，只見可惡而不見可愛。故語于心曰：“某也豈真有誣師之理？某也渠何能辨師誣？”不覺是彼非此之意，日滋月長，以至於前後矛盾，始終參差之至此也。既然矣，則弟將自悲自恨之不暇，何敢復有言也？第念兄與我，當此大是非大分合之日，以三十年久要之誼，一書獻忠而不見效，則輒歸之於“不可與言”之科者，尤有所不敢也。來書所謂不言之教之明據者，不過單將先師與李裕興壬戌書，若

負嵎之固然。兄試詳之，此書二十六字中，何字有出認底意思而可作此據者也？夫以陰人之樂於趨時者，尙謂認不快，以欲越海印師稿，誇張於人，曾謂以先師之道義，欲認印門人之稿乎？兄必將潔潔淨淨本無些點底師書，加之以陰亦不快之認字意思，敢作“不言之教”，而助彼脫己嫁師之惡，然後快於心歟？兄之所以必欲如此者，徒以此時非認不印而然。然其後時法愈嚴之日，舍曰越海，本國內亦多非認之印，以吾所知，《困庵集》一也。至於今春，即此所受師書人李裕興『誠庵稿』之印，亦且非認，則其謂先師以其時而欲其認者，豈足以爲據哉？哀哉嗤哉！陰人所謂擬與徐氏書也，“田壩代認說”云云，崔愿【泣告文】之謂：“泛論印書”，金世基【泣告文】之謂：“在丙丁間泛論業者代認”，禹炯根【答玄通】之謂。古聖人書如《詩》，《書》，《語》，《孟》，今世刊行而古聖人不爲累者，忽然換題易年而曰不曰田壩說乎？爲『炳庵集』議印而有是教也。【陰答李子乘書，始有曰田壩代認說，而無《炳庵集》議印之云。答靜齋書謂冊商自認印書，而亦無《炳庵集》之云。】巧引先師與李裕興壬戌書而承之，巧則巧矣。然古書之印安得爲『炳集』，丙丁之年安得爲壬戌乎？只見其情狀之露也。蓋渠則欲爲一時眩人之計，不顧前言，覲顏強說，幸昧者之見瞞，恐知者之發奸。兄則信之無疑，據以爲實，非惟弟之深悶，亦恐彼之竊笑也。兄且試思。聖門之學，只在求仁，求仁之方，恕字爲大。“己所不欲，勿施於人”，行恕之事也，君子之用心也。雖行途之人，皆欲其入於堯舜之道，而不欲其入於不義也。曾謂先師視爲“決是自辱”而深所不欲於己稿者，以之施於同志同道心法相傳門人之稿乎？使陰與兄之說傳後而信之，先師爲何如人？痛矣痛矣。

至於答宋約齋書，凡辨疑信者無正證，然後始覓旁證。今何若舍“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正證，而欲取論墓籍者而作旁證也？夫墓不籍，則至有掘塚燒尸之慮，含忍遺訣，不得已用之者，此也。

稿不印，則誰復有發之篋而焚之火者乎？類例不同，此又旁證之不得爲者，而乃以此輾轉因推，至作認稿不言之教而後已。彼固伎倆則然，以兄之明亦敢爾乎？嗚呼！是亦天而非人歟？

先師時拘勢迫，末計之云，尤不成說。先師平日自待與教人，必以第一等道理爲準，第二等且不屑爲，豈復有末計之可論？蓋中無定體，隨時而在。如有實拘實迫，若墓之遭掘燒之變，則含忍而籍之，是爲中之所在，卽爲第一等道理，故先師許之。既得爲第一等道理，則可謂之上計，而不可謂之末計也。無實拘實迫，若稿之自在篋笥而無恙，則何所急而請認也？然且爲之，則是“決是自辱”，故先師早有遺書而禁之。既云“自辱”，則計非其計，而末亦不得爲矣。今於所許之得中而爲上計者貶之，所禁之自辱而計非其計者抗之，同謂先師之末計，非惟虛實相蒙，經權無準，全不成理。認先師平生學問，爲未必準以第一等義，不免晚年之俯就末計，使人恐懼，不知所言。

兄雖以不自擔爲陰之欠，然兄既云“先師之末計”，又云“豈是坦然當行爲後世底大教乎”？然則是所欠者竟在先師，陰則只有不自擔不爲諱之過而已也。師既以崎嶇不當行不可爲法後世底末計教人，則本源已不正矣。弟子不爲之自擔而諱之者，乃其常事，何足責之於末流乎？到此而今日之是非，可謂判明無餘而無復可言。好不省事，萬之一不如此時，兄將無所措其躬也。奈何奈何？

徐書之出，不勸其改之，直以誣師，大椎擊而擊之云云，是何說也？前乎此書之出，而始有杏下之說也。扶風諸公累書勸改而終不答，最後以狂泉衆飲，宦僧辜髻之說，投一紙而嘲侮之，是豈可勸而改之者耶？且杏下說之外，華島之語，靜齋以先師曾有認意京城塔洞之語，宋秉真以吾師曾有認教之說，自然播傳，松兩門人之過，玄岩至有言先師若無此意，門人豈敢有此語者？慎軒爲是之懼，倡議辨討，認兄爲同志，錄名於數人之初通，後以兄之不欲而拔於

五十九人之通矣。是時，議既成矣，文且備矣，猶不遽討，而望其庶改。弟與靜齋又書而無效，至於祥事，竟不服罪而去。崔愿，金世基輩又公唱於道路驛場之間曰：“吾師元有認教。”【至今則陰徒之在陰城，鎮川間者，言先師分明有認教，有同茶飯云。】則萬口喧騰，漲天溢地，到此之日，雖欲不辨討得乎？此正孟子所謂不得已者也。凡此事，實兄往來華島，玄巖之日，歷歷詳悉矣。若乃徐書，則聲討後三年丙寅冬，近小亦明知陰之誣師，而悔前右陰，始出此書，使人觀此“不言之教”，則益知杏下說“料量爲之”之爲認誣也。【兄見此書，謂“視甕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云云。甕書卽杏下說也。近小此書之出，其效先發於兄矣，今忽異論，可怪可怪。】此書之出也，宜其再行公討，以破“語欠區別，命辭疎忽”，不討書主，但討代草等說，而才經訴禍，舉皆喪氣，無人同力，輪告文徒在篋笥矣。是文之作在丁卯，而甲戌冬玄狂之在弟所也，謂“此告終有不可已者，而文有未盡，爲之加修潤，欲聯僉名而發之”，靜丈意亦然，而竟未發矣。未知此文何自入彼眼也。此則兄所未詳矣。蓋所謂勸其改之者，已在杏下說而不得，所謂大椎擊之者，先在徐書之出，兄豈真忘之？抑故作此態，令人恍惚，莫測端倪？嗟呼！吾於此事，思之心腐，言之齒酸，良亦苦矣。當初如有老成重望身任此事明辨嚴討快雪誣者數三公，如弟之年少人微文拙言輕者，何足有無於其間？顧乃不然，環視一門，絕無焉，而僅有黃小心一人，亦於彼此事實文字有未詳盡者。吾雖無似，既爲人弟，何敢自占便宜而辭其責乎？噫！峨冠博帶，雄辯傑文，林立如也，而竟使孱質陋識最出人下如我者任此事，今世士風亦可知也。或謂余曰：“先師非獨爲子之師，子何獨賢勞，誣未及白，而飽受報嫌之疑？”余曰：“我於彼元自無嫌，彼亦非不知我之無嫌，而故將此說以亂人聽爾。使真有可嫌者，我若避報嫌之疑而不盡心於師事，則其念私忘公之罪，豈不重且大乎？”兄其聞此，以爲然否？

見誣師而猶合，則罪在始合而不待終分；見誣師而乃分，則義在終分而始合不當。論今也，不問誣師之早晚，分合之先後，槩以始合終分罪之，是豈論事之定準？且吾七尺之軀，任彼輩作魚肉久矣，豈待兩邊文字一書甚一書而後成仇哉？曩遭陰訴備毒誓死之時，實不圖復與吾兄往復講論之有今日也。追思，渾身盡青。

先師之學問大致，“明辯”二字是已。【《中庸》學，問，思，辨，總是明辯工夫，至於篤行，亦不過行其所明辯者爾。】心性理氣之辨以外，求之行事，則辨師誣爲第一義，斥逐金誅文於衆議未一之日，分異李，申，鄭於同門共學之列，以至屬纊之時，孜孜焉所事者惟是。又曾有訓曰：“目見父師被誣而不知辨討者，是刀截其身而不知痛者也。”此正吾輩之所學於先師，先師之所望於吾輩者也。今兄則不求所學所望於此，而乃之他而求之，吾不知其何說也。

陰之斥不絕志令者爲背先師負淵源，既又身親犯之者。兄謂“果如玄狂所論，則可疑且可怪”，豈或於此有未盡信者耶？陰答金聖章書，陰送聖九之原本在此，可覆視也。覆視而果然者，金世基所討誣師背訓者，非田，崔，宋也，乃震也；奴事爲上典於斥洛賢亡國梅翁僞學之人者，非金也，乃震也。震豈非世基之所當回倒攻田，崔，宋，金之旗戈而攻之者乎？此既然矣，則凡震之游辭飾說，既以誣師，反覆變舌，又抗討誣人者，皆可知也。最是田壩代認說云云，前謂古書之印者，今爲《炳集》；前謂丙丁之年而今爲壬戌，而爲兄所信據者，正與此一類矣。雖然，兄方信陰過於信師，吾言何能有力？尙可待覆視金書之日而定之歟？

兄猶以玄狂所論入思量，議論有人己二致，前後矛盾，假設評辭。此吾所以終不舍兄也。向以此論，示同門一人，其人看畢，卷置一邊，更無如何之言。噫！人心都灰，皮裡無血如此，此世吾誰與語？仰蒼長吁而已。

世基所勒此漢之罪者，奴事志令爲劈頭大題目，而此之脫空，彼之

實犯，既如右所論，則餘外許多凶誣，勢如破竹，不辨自解矣。昔有誣直不疑以盜嫂者，不疑不之辨，但曰“我本無兄”。噫！不知人之有兄無兄者，何以知其盜嫂與否？不知人之喪父喪母者，何以知其有禮無禮？此真今古一轍。

與吳士益 丁丑

春間返旆之路，聞爲陰雨之窘，迫切主人不挽之悚，而弟亦以是日出行而遇此窘矣。噫！吾輩生丁不辰，窘於貧窮終一生，而頡頏者豈但一日之陰雨哉？雖然，此皆適然而至，非由我致之者，亦何足說？惟是心君之見窘於客氣私意，爲由我之罪而誤了其身者，爲可懼耳。未知吾兄見理何書，見究何義，有他日可以籍手而歸者否？弟衰加窮甚，死亡無日，而學荒咎積，深恐無以副先師平日之望而見於泉下也。視彼玄狂人生，真朝暮耳。其臨終與人書曰：“先誣未雪，死不瞑目。”其言絕悲不忍聞。顧今陰勢，日益鴟張。以弟素無樹立，衰窮若此，不能獨力廓清，又加以衆口鑠金，積毀銷骨，則其何以不死也？玄狂臨死之言，卽吾之事，特彼差先耳，寧不慨然？蓋自兄異論之後，有再度往復，而兄未及更答，枉存弊廬。修契之夜，與寒江李兄及令再從露峰，語及震事，兄畧言異論之由，及見弟辨，亦復有據之意。寒江言：“震誣旣明，人之黨護，未知何心。”露峰言：“自有認教之說，世之疑良翁者多，誠甚不幸。”弟則在傍聽之，兄則默然若有所思，更無所言而罷。弟意以兄之明，今可回悟而復舊，則宜有歸後一書之報矣。迨茲寥寥焉無聞，心之訝菀，莫以自解。夫“不可不謂之誣師”，論之大定也，經過十年，守之甚久也。兄如欲棄此定論於十年之後，而謂震不誣也，則必得先師文字認教之大的據相反於“請願刊布決是自辱”之訓者，然後可以生心。今也則不然。問其所據，則乃震之擬書一紙也；問其書中端

的可據如兄所謂非彼此有無之所爭而爲先師親作之文，則不過單指所引答李裕興勸印《炳庵集》書二十六字也。問此書中元無半點認意，何以爲的據，則不過以“此時非認不印”六字解之也。其爲震之捏合成誣，兄之見欺作證，弟之前書辨之頗明矣。以故兄亦於夜話時，舉誦鄙辨一段於寒，露而不復貳之者，此也。兄若心知鄙辨之是而復舊見，則弟亦自有可以揣兄意者存，豈必以筆書形言之報而後相悉哉？但兄於前書有言：“石農既斥人之相從志令以背先師負淵源，後與人書反自謂自諒平日似不至謂見絕之罪，故聞志令之喪，屢與人書曰：‘痛斯世之無陽，傷吾黨之益孤云云。’果如玄狂所論，則此不免人己二致，前後矛盾，可疑且可怪。”其致疑信驚怪於田，吳二書之間者，可謂不尋常矣。至見彼此文字之日，宜有到底之斷案，而向於弊廬見吳答金聖章書所言，果與玄狂所論，無一字差誤，則乃默默無一言以誅其人已二致，前後矛盾可惡之心術，此實不能無疑於兄也。弟則以爲其人之心術，本來如此，故爲其“功業爲重而不計道義”【此九字，先師嘗斥震詠語】也，則不憚冒錄師銜，投諸不測之地；爲其防人口而脫己罪也，則不憚誣先師以認教；爲其報人討罪之憾也，則不憚禍同門於完檢；爲其刊師稿而成己功也，則不憚囚師孫於晉署；爲其先擠人而後媚人也，則不憚既斥其人以背師負源而更乞憐以不至爲見絕之罪。又有如此書者，兄見此而猶不知惡焉。及至果庵家語及改稿，則曰“是亦出於爲師之心而自意改之，如此然後爲盡善”，以反對。夫爲其術能誇多，以邀其徒，見識文章優於先師之譽也，故改之添之，至不勝數之。鄙論夫不誅改稿之罪，而爲之明其心之爲師者，是又何義？吾未知兄之意見，一何至此。蓋聞諸玄狂，兄於震之以我論鄭傳爲排節義者，有“是豈成說”之云，則是非不知其心術之不好，而今焉如是，既不能無疑者，於是乎又滋惑焉。惟其有可惑如此，故并意其向，雖不能置辨於鄙書，而猶有不深服者在也。竊嘗聞學問之道，“明”，“誠”

二字是已。聖賢之所訓於後學者以此，先師之所望於門人者以此，吾儒之所相勉者亦以此，舍此無所謂學問者也。蓋若不知先師之心，而但知“此時非認不印”，則是不明也；知其不可然且不服，則是不誠也。吾恐兄之居一於是也。大抵此事，我若出於一毫枉人，是爲客氣所窘，兄若出於一毫護人，是爲私意所窘，而俱有如向之所懼者爾。自惟平生爲學，無有得力，惟於此事，可以俯仰無忤而無所窘矣。兄亦於今之變動，自信其無一毫之窘，而終不舍一朝受欺之見而復十年久守之論也否？幸一明示之。

記得昨春，同玄狂造門時，兄不云權純命亦以不言之教爲不成說乎？權以震之血黨，猶如此，今兄之忽棄十年定見而從彼者，何也？此必有其故也。

兄若偏用其心，自是其見，如一種人之流，則弟亦何必若是？

若心特以終是平明慈諒，有多少商度，多少裁制，欲歸乎公正，無如兄者，以近日卒從鄙論師稿所載趙書“天下皆變之日”之云與陰傳“天下卽夷也”之語不同而不足爲其所據者，可見一端也。此吾所以眷眷不忘於兄者也。不然，如今同門盡化陰黨之日，何所爭於一人之多寡而冀兄之不助彼而助我乎？凡此縷縷，皆爲兄也，非爲我也。如兄前書所云“先師不得已之末計，豈是坦然當行爲後世法底大教”，許多爲震分疏之說，傳之印之，爲《炳庵集》，則後世其將謂先師何等人？謂此集爲何等文字？兄且試一思之。

昨秋，玄狂扶病去時與兄書，兄向雖一見，念是最後絕筆，則不容但留在此而無存於貴案，故取其登稿本以呈去，想覽之一倍有感於平日書也。此書末段勸兄之辭，至有“若不改圖，吾知他日之變，必更有難言之事”之語，區區從傍見之，以爲過慮矣。孰知其此友作書後，觀化前一月，兄忽有棄誣師定論，而信認教明證之書乎？所謂難言之事者，無乃指此歟？惟願深思亡友見慮之至意，毋使人發文成真聖之歎於今日也。

昔尤庵宋先生上疏曰：“竊聞比者憲臣投疏，提起李珣落髮之說，而引長生爲證。臣亦嘗見故文忠公臣張維文集，有記故知事臣趙緯韓之言矣，其言果以臣師爲有所云云也。臣於是常不勝其疑訝也。維乃長生之高弟也，其聞緯韓之言，何不爲長生痛辨其誣而只爲珣分疏耶？其爲珣分疏之說，亦不明快，臣請從源頭先陳珣之實跡，則長生之誣不待辨而自明矣。竊惟文成公臣李珣，天資極高云云，至於落髮之說，極其誣罔。果若有是，則珣之文集敍其與老宿問答，而老宿何以曰‘措大非俗儒’乎？林億齡詩集又何以曰‘與李珣遊山’云乎？設使珣真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昔葉公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其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而憲臣乃曰：‘長生學識高明。’此果成說話乎？果成義理乎？緯韓之爲此言，非所以誣長生，不過酬酢之際誤聽而誤說也云云。且維之所謂嚴不敢問者，亦有所不然者。臣與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言，則曰：‘嘗以變形與否，微稟于栗谷，則答曰『雖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所謂栗谷，卽珣之別號也。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真是珣之氣象也。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臣竊爲長生冤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珣之落髮，終不可辨明，珣之所遭，何其甚也？且以粗跡而言之不難，則竊有所不然者。昔朱子雖少師道謙，而其知舊有欲剃髮者，則責之甚嚴，而竝斥其所親之不禁者。果以長生之高明而猶且爲是，則朱門之罪人也，烏得謂之適傳哉云云。夫聽言之道，惟觀義理之如何也云云。今維遽聞緯韓一言，而著之於文字，以爲今日藉口之資，豈不惜哉？”【止此】夫栗谷落髮之說，當時尚有謂之粗迹而不足辨者，乃尤翁則視以爲大事而

痛辨其誣。所謂沙翁之有所云云，亦不過趙知事之誤聽誤說，而只見《谿谷集》者，猶恐其爲實證，至曰“使某真有此事，亦不當自某證之，況萬萬無此乎？”而引孔子所論證父攘羊而明之。又曰“以高明之弟子證之，則某之落髮，不可辨明，某之所遭，何其甚也？”又痛沙翁之歸於誣師，引與同春同聞沙翁所述栗翁之言，以明趙說，張集之不足信。如此其勤，而不憚煩於上告尊嚴之地。而況以今日吾門之變，視諸尤翁之所處，謂先師教認印稿，其爲緊關之與落髮之尙可以粗迹論者何如乎？先師之萬萬無此，而今自陰震之爲門人者證之，豈不爲父不攘羊而其子僞證乎？自以“不必深拘”，“料量爲之”，“原從不言之教”等說，筆之書，傳之稿，而又至有臨死不易辭之誓，則其爲實證，豈但如出自他人之誤聽誤說而見於他人集者乎？既自處以適傳，而世多信之，則豈不是以高明之弟子證之，則終不可辨明，而先師所遭，何其甚也乎？“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其爲明白痛快，又奚啻如“雖不變形，何益陷溺”之不甚分疏而實狀自見乎？其輕重甚否之相萬也如此。今之號爲學尤翁者，則不然，而視爲薄物細故，不惟不據遺書而盡力辨明，反以一二辨斥告明於士友間而不憚勤勞者爲過學生事，豈不異哉？

白水楊公，【應秀】陶庵李先生之高弟也。其《四禮便覽·改葬條補說辨疑》【《改葬條補說》】本文曰：“若肌膚銷爛已盡，只餘骸骨，則於七星板四旁，粘薄板如棺狀，用真黃土篩下填之，與骸之最高處等。以手微鎮其四旁近板處，然後去四旁板，乃斂衣衾結絞，如大斂之儀。”又曰：“若不改棺而只餘骸骨，則先就棺中篩下至掩骸，然後鋪綿補空。”曰：“孟子之論棺槨曰：‘毋使土親膚，於人心獨無皎乎？’而今之君子，乃以黃土代其祖先之肌肉，以補合其骸，是果爲人道乎？以如此不仁不智之說，插入於《便覽》，而謂是先師之言，則其誣陷先師爲如何哉？嗚呼！孰謂先師之沒未及十年，而義理之晦塞，乃至於此耶？”又曰：“朴兄謂此條，累經先生之眼，一

無疑怪。愚未知朴兄何以知其累經先生之眼耶？此不過見士涵分疏之言而云然也云云。若使士涵就丈席之時，并錄篩黃土實斂實棺之語，而先生稱其詳備，不以爲驚怪，則何以爲我先生也？夫旣非先生所命，又不經覽於先生，而私自補入，以大貽累於先生，則此非誣陷而何？此等辭說，有同爭訟，然辨師誣，安得不誠實爲之乎？大抵斂骸實棺，不以線紙，而必用黃土之不可，雖三尺童子，亦可知之，而朴兄乃以爲累經先師之眼，一無疑怪，有難輕易刪去，何其不知先生至此之甚也？”【止此】夫黃土補骸之說，雖甚未安，竟不過禮說之誤也。白水視以爲大事，切切然爲師辨其無是，至謂爲此說者誣陷先師。雖有門人經覽先生無怪之證，而亦不信之，至有曰：“先生不以爲怪，則何以爲我先生也？”終謂“辨師誣不得不誠實爲之”，而不避爭訟之嫌。今《便覽》中刪去此說，白水之功也。若使終不刪去，則又大肆明辨，至於聯篇累章，通告國中士友而定之也必矣。今以吾門之變，視白水之時，認誣之壞却道義，全體之大關，奚啻禮說未安之一關？所謂獨坐承命之無據，與門人有證之，猶有可信者，又何如也？其輕重甚否之相萬也如此。然而今人之尊師也異於是，視以爲無事而既不辨明，或有一二誠實辨之者，則又歸之於爭心勝氣，亦獨何心？

答吳士益 丁丑

卽拜惠覆，恭審老炎以大碩人患節彌留爲憂，至謂積惡在躬，獲罪神明致然，旣爲仰慮，繼有所感歎于中者。昔子夏氏遭逆理之慘變，而猶自謂無罪。今吾兄憂隆老之例崇而至有此言，非惟仰見孝愛之切至，其反躬篤學之意，亦可謂過於古人矣。詩云：“愷悌君子，神所勞矣。”吾以是知兄積孝在躬，獲助神明，而堂憂遄復之有日也。預爲獻賀萬萬。因念孝爲行源，推此而無所不達，而況師親一

也。親有生前莫致而至者，猶自訟己罪，師受身後大誣，滅喪道義，而我不辨之，反涉助之，則此可無傷而不爲罪乎？此豈非深念明商却顧回見處乎？亦豈非反躬篤學加密處乎？愛之之深，言無所不至，倘蒙恕其妄，而試思之否？

所論“既非十年前論，又非前書中說，而別爲一論”，不待我笑而兄亦自笑其苟且矣。凡此苟且諸說，欲一一辨正，則雖以兄之宏度，似不喜聞，故一并閣置，只就兄所受病擺脫不得處，一刀兩劈，以冀兄之猛省頓悟。於此而無效，則雖多，亦奚以爲？我且已之。蓋來喻“可思之一端”及“義理無窮”，竟是何思，竟是何義？豈非所謂代認一事乎？夫“代認”之云，元不成說，所謂代者，竟是代誰？代先師乎？代子孫乎？代門人乎？先師於勿認之遺書，既云“異時”，則是以身後言者也。非當身之自認，而猶云“自辱”者，何也？文者，心之所存；心者，身之所主，故文之受制見勘，卽無異於身之見辱也。以此文以此時，則子孫認之也，是先師自辱；門人認之也，是先師自辱；業者認之也，是先師自辱。代認之與子孫、門人之認，何所別乎？是則先師主意，謂勿論請願者爲如何人，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先師之自辱也。是則代認亦豈得爲先師之視爲無傷而所欲者乎？兄且思之，此不然否？夫“己所不欲，勿施於人”，君子爲仁之心也。炳庵，先師傳心之首弟也，先師之仁，決不如是也。是則先師許代認於《炳集》之云，果得爲一分近理者乎？而復謂之因弟而言師，至云炳庵代認之許是大稿不言之教。兄之見欺，已甚可笑，而彼誣者之罪，可勝誅哉？痛矣痛矣。

“十數年後，暴揚心術，歷數罪目，有若對壘相薄”之戒，意則可感，知我則未也。夫以金世基之凶文，極其誣辱，不忍正視者，吾乃力止涵齋丈令子弟、門生發通對辨之舉。吾雖劣劣，豈與彼輩對壘相薄者哉？但以兄既見吳答金書，而猶不惡其擠人趨勢之心術，則是并不知其脫罪嫁師之心術爲可誅，故因之以言其前後所爲之心之

罪皆有如此書者。蓋皆關於先師，涉於稿事，非自作過惡及在稿事前者也，何以爲暴揚歷數於十數年後哉？夫既以辨誣爲主，則不得不并言關於稿事之罪。惟巴書事在其前，似不必言，而近因辨破傳鉢之說而始及於此，此不得已也。大抵兄認我爲攻彼太過，故見得言言事事皆爲已甚。然殊不知既知認教之爲誣師則不得不辨，辨之則不得不明辨之，而不明則終不得而措之者，是爲聖人所訓，學者所勉而初不爲過也。

噫！兄於先師之心，尙有不知者，則豈敢以知我望之？所以眷眷而不舍者，故舊之情然爾。

兄言天下之義理無窮，此以人之見理未到極處時言。若既到極處，則更不當言無窮。於此時而更尋極處，則不得不反作退步，左顛右倒，究不免墮坑落塹矣。“請願刊布，決是自辱”，先師之見，已到義理極處，而昭揭天下，如日中天。後之人乃復言義理無窮，而更尋無據之代認說，作先師見理極處，以“決是自辱”，反作道未及成時所見，而不恤陷之於千仞坑塹，豈不怪哉？豈不痛哉？年前徐明玉言：“先師明有認意，而曰吾先生若禁認稿，則是區區之小節，烏得爲君子之大道哉？”被柳景肇大言折之於衆中而噤其口矣。今也則向之折之者，反爲被折者之墓也。兄聞此事，又以爲如何？

與吳士益 戊寅

日者造廬，以哀兄四十年舊交，隨例吊慰，情有未盡，卒哭後一問，在所不已。亦以弟自今年，百病交侵，死亡無日，昨歲往復未了之案，不及歸一而逝，則誠爲千古之恨。十書不如一面，而哀兄守廬三霜，亦云“長歲月，非弟親造，何以面究？”所以扶病冒熱，顛倒間關，得以一晝夜盡心輸誠，弊舌渴口，冀復“不可不謂誣師”之定見。令再從翼夫在傍，亦言“若言艮翁有認教，則大損節義”，而兄

終不快答。歸時，請從近以書見意。又未知兄果能亟圖，而遽遽歲月，不爲人留，病牕獨坐，懷不知裁，茲不免以書質之。自知躁急，爲人可憎，然我死之後，亦無爲兄救拔如我者矣。昨年，兄之最後書云：“既非十年前不可不謂誣師之論，又非前書中證據明非白撰之說。既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蓋非誣師之論，則是謂師有認教也；非證據明非白撰之說，則是謂無證白撰而無認教也。有認教者，誣師也；無認教者，非誣師也。有認教無認教，誣師非誣師之間，間不容髮。凡天下是非，從此則違彼，從彼則違此。今日“既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則未知非誣師，非非誣師，非此非彼之間，有何別般一論耶？如曰有之，厥亦可奇，願一聞之。那時未及聞高論，而先有所辨。然未知盛意果在於此，日者相晤，兄亦不明言，心甚爲菀。要之聞此別論而相與說破，然後始得了事矣。何不明白示及，而但以“天下義理無窮”之語引而不發乎？若兄亦明言認教，如震答兄書中語之和盤托出，則弟當緘口閣筆，不復以此爲兄告矣。何必如此支離，費得時日書詞而莫之了耶？惟願精究義利之分，深識先師之心，善諒忠告之意，明以回示也。嗚呼，誣師大罪也，誣人亦罪也。吾則慮兄之依違而同歸於誣師。兄則慮弟之已甚，而或歸於誣人。兩相爲慮，俱皆有思，非深交，烏能至此？然兄於甲子華島，不曰“遺書出而陰罪益重”乎？丁卯，以“不言之教”與弟書，不曰“視甕書，更覺分明，到此地頭，不可不謂之誣師”乎？觀“益重”之“益”字，“更覺”之“更”字，則見遺書及“不言之教”前，已知其爲誣師矣。是則哀兄謂震誣師之定見，非但在十年前丁卯而已，在變出之初癸亥矣。是時，吾固不須爲兄慮，而兄亦不以已甚慮弟矣。乃於丙子冬，得震所證先師墓籍之許及李裕興書，謂“證據明非白撰”，而棄十四年所守之見及其被弟墓與稿之非一例。李書之絕無認意，是時亦多無認印之辨，而終無奈難不服於理到之言，則又棄“證據明非白撰”之說，而乃曰“既非十年前論，又非

前書中說，既不從彼又不從此，而別爲一論”。吾未知“別爲一論”者，究竟何論，而尤庵先生嘗有“依違兩間者，終必入於陰與利與黑”之訓。我之慮兄，正在於此，兄之慮我，亦在於別白義利，陰陽，黑白之已甚。然則俱皆有辭之中亦有可異者存焉。大抵兄之所以如此者，其心所在，我實不知。謂前見粗在而晚覺更精也，則兄之早年高明，世所稱道，使人見信難矣；謂前無明證，而後乃見之也，則弟之所辨，兄之所服，又如此矣。而猶不快復定見，而云“自有別論”，其心所在，我實不知。雖然，以四十年舊交，而不知其心，則人倫之變，吾豈敢疑兄？但據實因跡而不免滋惑則有之，自恨吾之不明而已。嗟呼，吾德未孚，人口舌是尙，每以義理之關，告於親密之地，則言不見信，反見其怒，而終之受害，如近日玄岩事亦一也。所謂“君不修德，舟中之人，皆敵國者”，非此耶？方且噬臍咋舌，誓不復然。然終無奈惻隱羞惡得之於天，見人陷溺而不忍不救，見人悖妄而不能不惡。“朝悔其行，暮已復然”，栗翁之言，雖可慙；“觀過斯知仁”，孔子之訓，亦可思。且若哀兄者，慈諒成質，平恕爲心，言之見信，雖不能必，見怒受害，決無有是此。則自信爲兄知心之友，故敢放心言之耳。

改師稿，亦何等大罪？特以認誣壞却先師全體之罪，有尤大者，故常爲後焉耳。日前兄目見晉本之改手本而變亂先師禮意事實者，始知其改稿之罪。既知其罪則討之辨之，不能辨討則亦已焉矣，乃別錄于一紙曰：“將以問諸權純命。”權，吳若曰“以此改之然後盡善”云，則兄將以爲然乎？吾於兄之用心如此等處，深所不服。且若果盡善於本文，則天下有可改師文之理乎？惟其元無此理，故日前兄與弟奉閱先丈詩稿，其有未穩字，終不敢犯手者，此爾。今於震之改師稿也，非惟不辨之討之，乃欲問諸彼而聞其說，此誠何意？如聞哀兄以弟之力於辨震語人曰：“以此精力移用於工夫，則豈不善乎？”有諸？有之，兄且道！明是非，分邪正以長格致，閑師道，修

弟職以盡倫理，非工夫乎？如有外此而可謂工夫不害爲學問者，願一聞之。

震之所以處志山者，吾不必言，特以其乍絕乍附，或以爲陷人之筭，或以作誘人之機者，爲可惡耳。心術之巧險如此，則其於認說，既以爲不可而脫己罪，旋以爲從教而加先師者，益以明矣。蓋有是本源，故有是言行也。

近見北道同門千河運來訪。余與千語及震書既以認爲誠有不可，又曰“原從先師不言之教”云云。千曰：“所以吾此亦有自斧自削之評云云。”其云“自斧自削”者，卽吾所謂“因渠言定渠罪”之意也。逖矣此方尚有公論如此，兄居湖南習聞此中義理，深知彼之情狀，而猶以吾辨爲非情，誠不知何所見也。

李斯文起完，字元浩，任實郡望士也，【今再從弟海準妻從兄】對弟言：“南原月谷丁某，吾之從姪女婿。丁言：‘吳石農見我言先師原有認稿之意云云。’吾聞之，不勝憤氣，謂丁曰：‘吾亦嘗侍良翁，觀德聽言而知其心矣。良翁而豈有是耶云云。’李非門人，猶知良翁之心而不勝憤氣。兄乃以門人而不知惡於陰誣，嗟呼！人見之不同乃如是乎？”

震昔年對宋氏秉真言“先師平日有認稿之意”，引某言某事證之。宋曰：“若如此則良齋破碎矣。”震不敢復言。此惺山林丈【鍾斗】聞於宋而登諸辨文者也。震徒云“宋不知何許人”而掩諱之矣。今聞其所與丁某言者，則可知是渠茶飯語。而對宋之言掩諱不得，如使聲討之軍，至今用張，則與丁之言亦不敢露出矣。辨討之功有如此者，而識者甚少，良可歎也。

哀兄每言：“杰之起訴，豈陰所使然？因跡據實，終有不然者。”若如兄言，靜丈與震書，胡爲入檢局而作杰證書乎？震所最親密之權純命，胡爲入檢局而作杰證人乎？而況杰是震之門人而“承吳先生命而印之”之語在杰廣告文中乎？兄每於此等去處，不能物各付

物，而費力於有意爲公，此吾所不服處。

“先丈文字事，未免前後貳論，或得致憾孝思，書首所以下得悚字。來書云云衆咸歎仰於不少吝於改見從理，甚盛甚盛。”此年前震之答弟書也。我若幻弄傳表，被渠釐正，如今渠說此書中“前後貳論爲悚”之云，何以區處？我若爲傳表之嫌，而假義報復，如今渠說此書中“衆咸歎仰，甚盛甚盛”之云，又何以出於渠口也？此亦當以渠前書中語治今誣人之罪已矣。

答吳士益 戊寅

月初出吊於高、茂等地，凡旬有餘日而返，則惠疎留在塵案。忙手開讀，乃三年未了之案，一朝而定；累書未解之惑，一言而決。事係重大而不容但己者，今焉而後同歸一轍，何幸如之！何喜如之！噫，此喜者爲公乎？爲私乎？此時此喜，先師之靈亦應喜之。抑以知兄之前，有所疑於心，而不敢強焉而從之，初非有他意也，則今之疑鮮而見從也，知之必益堅固，不但如十年前論定時而已。視不相可否而一例同見者，其喜反復勝焉。此蓋兄本質懇高，范公所謂“所重在此”，退溪所謂“志在明道而無私意”之致。然非區區有力於其間，乃謂朋友講磨之力不可誣也。既是愧不敢當承得瓜報琚之盛惠，見規以寬裕和平，無所係緣，此真對病之藥石，中心感之，何用口謝？但以弟之力於辨誣，爲報彼之攻擊而出於爲身謀之心，卒戒以一拳一踢抵死不負之心，殊非士君子之道。噫！以兄深知弟病之眼，尙淺知弟心者，何也？尤翁之於朴和叔，先師之於申仰汝，每以“自占便宜不攻邪說”見責。我若出於爲身謀之心，何不早學朴、申之自占便宜，苦苦爲此而不顧死生耶？惟其但知有師而不知有身，故凡不直係先師而關於吾身者，一切無事。雖以世基凶誣不忍正視者，不從涵丈令人發通對辨之喻。此兄近日所知，何以謂拳踢不負也？

答吳士益 戊寅

向詢祠院之享生薦，熟薦之孰爲得當。竊嘗考之《郊特牲》曰：“郊血，大饗腥，三獻燭，一獻熟，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注，長樂陳氏曰：“禮以全於天者爲尤厚，近於天者爲次厚，近於人者爲差薄，全於人者爲尤薄。血者全於天者也，腥者近於天者也，燭者近於人者也，熟者全於人者也。郊與大饗，常重於三獻之禮，豈非‘至敬不饗味而貴氣臭’哉？”嚴陵方氏曰：“一獻熟則饗味矣。味非不敬也，特不若血腥燭之至爾。經曰：‘血腥燭祭，用氣也。’以臭生於氣，故此曰‘氣臭’。”《樂記》曰：“熟烹而祀，非達禮也。”注，“熟烹而薦，不如古者血腥之祭爲得禮意，故云‘非達禮也’。”朱子曰：“祭神多用血肉者，蓋要得籍他之生氣。”又曰：“大抵鬼神用生物祭者，皆是假此生氣爲靈。”以此諸說，參互商度，則可以知所從矣。蓋《樂記》朱子說，則不分祭之大，中，小而言，是子孫之祭父祖者，亦可用生腥矣。《郊特牲》則分郊，大饗，三獻，一獻，而定血，腥，燭，熟，各有其用，而“至敬不饗味而貴氣臭”。是凡於大，中之祭，尤不可不用血，腥也。夫祠院之享，是聖廟之次，而非祭之當至敬者乎？據《樂記》朱子說，而祖先之享兼用情敬者，猶可用生腥。況於先賢之祭專於主敬者，可不據《郊特牲》及註說之意而用生腥乎？於祖先血氣世傳之祭，猶可謂籍他血肉之氣爲靈，況於外神之祭，可不尚血肉之氣而致其靈乎？竊意從昔院享之用生薦，出於此義也。今既立祠，則其薦當以生而不以熟矣。

陰人事，兄書謂“還守‘不可不謂誣師’之舊見”，則既完定罪名矣。吾知其從此所以處彼者，當一切準此。但竊覲猶有藕斷絲連之意，欠斬釘截鐵之象，其於言行一致之義何如也？莫無有後人之評議否？彼之改稿，兄初不深信。及至今夏，弟爲之將龍，晉二本對照，然後深信之，有質彼之書去。南至日又以彼於師稿多所犯手，深致慨歎。

於晨起相語之時矣。然而尙無一文之辨斥，未知假使此事在同門中他人，兄亦一向含嘿否？

家兒炯泰自全州歸告曰：“聞於田鎰純，則文貞公遺墟碑前面改刻，大人主張之說，出於高東是之口而有權純命之言云云。”吾聞之曰：“今又生一罪案，置不復言。然訛言孔將，胡至於此！”蓋吾飽受陰誣，至有世基文而極焉。今日之事，亦可知矣，只得靜而受之。然但欲兄知我所遭，故鄙文之關於碑事者及金允三與高東是書呈去，幸一覽也。

金允三鍊植與高東是書附 戊寅十一月

云云。第有一言仰質者。卽聞鄙先祖文貞公遺墟碑，磨面改刻，出於鄙族鍾賢之誣說，傳播四方。問其言根，則鄙傳於貴，貴傳於士友云。鄙與貴相見，已在去年四月，此後未曾相面，況事非其實者乎？當初磨面改刻之議，出自一邊，而鄙族鍾賢力主不可，至被貶祖尊師之斥。事出之後，又以復舊一事致書宗中。事實如右，鄙全族之所共知者。鄙所不言於貴者，貴聞於鄙云，則誣人之罪落在何處？事係是非，不容含默，故茲專書，仰卽賜回音。

答吳士益 己卯

示喻兄我所以處陰震之不同。只言人性剛柔緩急之異而不能如印一板，容或可也，至謂彼誣出無心非害師，則又將使我發不可知之歎於兄也。渠若出於無心而不欲害師，則被斥之日，宜卽改謝之不暇，顧乃不然而曰：“雖臨死而不易辭。”昨年與兄書又謂：“先師果爲天地清明之日刊行之意耶？”則是分明言有認意也，於是乎兄雖欲保渠，而不可得矣。

錄示震所分疏改刪師稿中申赫均之書，全不成理，只見心術之可惡也。先師曾當國喪，依漢湖已例成服受衰，至於純明妃喪，不受衰而只用白衣笠成服者，以於禮原來無服，而君上令之。故服之則違禮，不服則違令，於是參酌於禮令之間，而行之如此，其義精矣，其意深矣。正處變而得當者，豈爲自同於士民而然如渠說乎？故答申書曰：“今則無服而爲有服，與大喪內喪有間，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已矣。”其意若曰：“今若有服而當服，則成服日，我當受衰如前日國喪。惟其無服而爲有服，故只用白衣笠也。”本文中既無一字“自同士民”之語，并無一點“自同士民”之意，而乃敢曰：“前則自處以官人而受衰，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此亦豈非誣師乎？於“相與”之“與”字傍加“欠”字，作語助之“歟”字，而刪却“白衣笠”云云，使成受衰之文，此豈非改稿乎？噫！彼觸處誣師，何所不至？念昔甲辰之歲，先師春秋六十有四，筋力康健，出行湖南數百里外。明憲皇后喪，所受衰服藏之，行中每朔望，服而望哭。於天巖，禮川之日，兄我及衆人士之所共目覩者，而純明妃喪，卽是歲也。渠所謂“先師曰今年病俱極，雖父母喪，莫能持衰”者，是豈毫髮近似者乎？昔聞子龍一身都是膽也，今見震泳一身都是誣也。兄尙能保彼之誣師出於無心也乎？

答吳士益 己卯

弟年近六旬，疾病日侵，大限將近，矧此年荒促之死，固不足惜，惟恐未死前，錯見一非理，誤行一非義，永爲地下之恨。惟其自志之如此，故見同人之錯誤，不忍越視之意，比前益切而不已。蓋朋友相與之道：麗澤講習，著於《易·象》；忠告輔仁，見於《論語》；德勸過規，列於《呂約》。竊觀今世學人，於忠告，規過一事，未有聞焉。此非但以末季友道之喪，人己之間，終有彼此之分，故一體之

仁，有所難行故也。於是又以意曾子之三省，一則曰謀人不忠，二則曰交友不信，而多一與人之意。以視人猶己，常情所難，故雖曰自省，而亦欲以勉後學歟？由是而論，見友有過，才生越視之心，是不忠不信。弟於近日實有是懼，他人猶然，況於兄乎？他事猶然，況乎關先師乎？兄於陰震事，既還守“不可不謂誣師”之定見，則吾不須多言。但既然而又曰“出無心非害師”，此何說也？弟以爲既謂之誣，則不可謂出無心非害師；出無心非害師，則不可謂誣，二者不能兩立。如出無心非害師，則宜其改之之不暇，以其不改觀之，知其有心而害師，此一言而可決也。遇閱舊篋，得兄丙寅冬書，有曰：“彼之初心，雖出於息異論印師稿，而非有害師底心。然而援古證今，惟恐己言之不立，至謂‘先師不諱公言’之極而乃已。然則初雖無害師底心，而終易至於害師。”此時此論，亦頗近正，今既還守定見而獨棄此論，可怪也已。錦吳“性師心弟”之譏，見弟辨而隨即辨之，著成一篇，可仰有鷹鸞之志於衛師矣。然內宄之禍大於外敵之患，志節之誣重於議論之爭，胡不以辨錦吳者先辨陰吳也？其或以生而親近者有難，而死而疎遠者可易，故雖兄之賢，亦涉世態歟？嗚呼！“性師心弟”之本自聖訓而無可疑者，人猶勒加以邪說害正之目，而況於認意，認教之出自弟子而若可信者，諸家之譏罵又當如何，而作《田良齋傳》者，豈獨李承旭一人乎？吾恐不知德者作，元履扼腕之日，諸公護陰之罪，有不得辭，而區區今日之辨，或與有力也。且兄之意有不可知者。弟之前書，以甲辰歲先師所處純明妃服制，有所云云，主言震書所稱“年病俱極，雖親喪莫能持衰”之說之爲誣師，而引先師是歲明憲皇后喪服衰望哭兄我共見事而證之。又言震之就申赫均書，改“與”以“歟”，刪其下十八字，使受衰之文之爲改稿，而以變亂事實，黷昧禮意斥之也。兄乃掉了誣改之實而不之答，但舉不受衰只用白衣笠之說而曰：“盛論，誠然誠然。”鄙見亦如此，故以書詰問，而答語“多可疑，是則誠可歎也”

云云，有若今日追講禮說者。然是果何意？誣師而使有六十而未持親喪之妄言，改稿而使參酌禮令得中之義歸於不明者，不敢曰可斥可惡，而但曰可疑。可疑者，是果何意？雖然，以兄之明豈有失照於此也？特於誠意，好辯兩章，功有所未至，願於此加之意焉。近讀朱子與呂伯恭書，有曰：“世衰道微，邪說交作，其他紛紛，固所不論。而賢如吾伯恭者，亦尚安於習熟見聞之地，見人之詭經誣聖，肆爲異說，而不甚以爲非。則如某者誠亦何心安於獨善，而不爲極言覈論以曉一世之昏昏也？使世有任其責者，某何苦譏譏若是耶？”此正道得吾之心事也。當此之日，賢如吾士益者，見門人之誣師改稿，肆爲奸悖，而不深以爲非，則如澤述者，誠亦何心自占便宜，而不爲之極言覈論以辨明也？使同門君子有任其責者，澤述亦何苦而譏譏若是耶？且吾之譏譏，獨於哀兄而不置者，亦有說焉。竊觀來書，似有厭聞之意，兄其過矣。盍思夫山齋長課互作師生於小少之日，瀛契講信迭爲賓主於三紀之年？雖有巧者欲行間而無隙可乘，構釁而無跡可因，其親也豈但同門舊要而已哉？每嘗妄謂古人成敗榮辱俱我任之之意，亦可推用於情重之友。故自吾門有變之前，早已因事直規而得兄之感謝，則亦可知今日之心非出於請援助黨也。且若兄之爲人，如一種自是己見者及朝漢暮楚輩，則此亦相忘於江湖久矣。乃不然而心欲其公，見欲其精，論欲其反覆而歸於中正。是以始之欲詳審於湖陰而無所可否，見弟質之以不言之教，而曰“不可不謂誣師”。次之謂震作《鄭傳》後，論無害義，以弟辨爲不然，被弟累告而改見。三之見震擬與人書變說爲不誣，而有多少往復，竟亦還守謂誣之舊見。蓋投藥見效而慰我心者，莫兄若也。此弟所以見過而樂告者也。然而不能無三思之惑，再數之失，又作“出無心非害師”之說，而欲棄初雖無心終至害師之前論。頻復頻失，苦我心而長我說者，亦莫如兄也。雖然因往推來，又以知兄不遠復之有日也，則雖欲不譏譏，不已得乎？嗟乎！哀兄吾儕俱屬

晚境，改過就德，日急一日，而弟之餘日無多，又有如書首所陳者。凡此縷縷，幸視為故人將死善言而喜聞之，如何如何？雖音未盡而辭不窮，柰力既疲而筆亦禿何？只得之此而已。

兄書謂：“遺書，面命，勢不兩立，故不可不謂誣師，非曰不然。”若究言之，則可謂淺知先師也。震所謂面命之爲誣，何待遺書之出？弟則早草輪告文於遺書未出之前，【甲子七月通文，是因弟輪告本草而僉議加減者。】而以先師平日獻靖之義明其無認意，引大稿中“今之士請願於彼，得存校宮，自居以尊聖之功，可謂無恥之甚”者一節語而證之矣。未知兄於此不以深知先師許之也否？

答吳士益【面見日又言改見，故書成而不送】○己卯十月

頃書欲其迨弟未死前，爛漫純同之意者，可謂到底忠告。今承所覆，非惟竟失所望，其證成師有認意者，深於陰震，此何變也？大可駭也。震所謂面命，猶以料量爲之，兄所謂面命，直以代認不拘，代認之無益於不自辱，而必非先師說。昨年書已盡，不須疊陳。兄且道既自云“有代認之命”，而又謂“震爲誣師者，果成何說”，誰復信之？兄之四五年來，乍左乍右，頻復頻失，而莫測其端者，今則可謂和盤托出，開口見咽，自此此漢可以省事矣。兄於其間積費辭說，兩下彌縫者，只見其心勞也。至於“年病俱極親喪莫能持衰”之說，猶不能斥之以誣，但曰“不成說”，則兄之實心護震，惟恐有傷之意，益不可掩。本領如是，吾何望其同心衛師？南望惘然，不覺淚淫。脫罪嫁師，決然不然。兄雖以此自認爲公心明眼，弟則以爲兄之私意昏見，正在於此，謂其蔽於有意爲公之私而見不得顯然之理也。認稿者渠也，而畏人之言，則乃曰“誠有不可，故鄙欲越海”者，非脫罪乎？又曰“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者，非嫁師乎？行其所無事，治水之道也；聽辭而正刑，拆獄之法也。何苦多事而舍此坦明

之道，別尋辭外之法於幽陰去處也？已是可怪，而又自信太過，謂人苛刻，吾復奈何？

與吳士益 庚辰

弟氣弱肉削，便同鬼狀，且今年術士所稱惡運，而姑不卽殊，不知竟如何也。仍念人生大事，事君、父、師。而曾不立朝，今且無國，事君已矣；少而孤露，又無財可以悅心後事，事親亦已矣；惟有隨分盡力於辨誣，以之事師，則或庶幾焉。近方收拾諸般文字可助於辨誣者，修整成編以俟來百，竊附先師屬續前數日，猶著論以辨全翁誣之義。然未知符到前能就緒否也。且念兄於此事，初不可否於兩間，及得示以“原從先師不言之教”之震書，然後有“視答甕書，尤爲分曉，不可不謂之誣師”之丙寅臘月書。後十年，見震擬書，又不免貳論爲不誣，而得弟反復忠告，有今而後，不可不棄却中間遊移之見，還守前日直截之論。而此外更無他道，與其信依傍近似不可確據之書言，豈若守明白峻正百歲可俟之遺書哉？大義所同，終歸一轍。迷見之前後參差，誠可慙；朋友之講磨有力，不可誣。“何幸如之，何快如之”之戊寅七月書，論至於此，亦已近正，吾亦可止矣。惟其相愛之甚厚，故愈欲同歸之純如，則“性之剛柔，論之峻緩，不能如印一板”之兄言，亦未爲不可。終無奈弟又不肯放過，則輾轉出來代認，面命之己卯八月書矣。兄試思之。所謂壬戌(1922)三月之面命，震猶以“單論遲速不及認否”諱之，兄則直以“代認不拘”當面命，既云有認命，則是益成其誣矣。不知兄何忽立此丙戌二書所無之詰頭，亦胡少不念年前鄙書“代認元不成說，決非師教”之言乎？於是私竊嗟歎，以爲我若戊寅七月以後，更無一言，則不使此友有此，而今乃欲其純同者，反致大乖也。以是雖已裁答書，辭頻峻節，又不能遽發。乃於今春面晤日，略舉告之，如今書中意，則兄

卽喜聞曰：“然則吾何吝改見。”噫！改見則斯已矣，而依舊是戊寅七月書之吳斗南也，何幸何幸！但言既形於文字，則不妨又以文字記其改見之實，使觀者無惑，故意其有早晚一書之賜耳。弟常言凡在親友無傷十年議論不同，最忌一日心肝相隔。今於編成辨文之日，忽偶念兄且寫過境之事，要通彼此之心。未知不以多事笑之，而幸惠一言之覆否？

又有一種說，謂先師若無認教，不過爲一節之士，何苦使先師不得爲全體君子也云者，可謂愈出愈奇。此說之行，非惟先師不得爲先師，將見義理晦塞，天地翻覆而後已。痛歎痛歎，奈何奈何？

兄書云：“十數年間，惟一陰城橫著肚裡，見其言論文字少異，則輒啓口抽筆。”此以論《鄭傳》事而云然。然兄於弟心，非惟淺知，可謂全未。蓋此非關於先師者，則不論亦可也，而特以係華夷之防，故言者耳。故兄亦不從鄙論乎？院亨之生熟薦，亦大爭論也，而弟是吳論之生薦，此可以知吾心也。凡論人論文，惟理之是視耳，安知人之又不以弟是生薦爲媚吳而緩禍也乎？噫！苟疑其心而加之罪，何患無辭？

與吳士益 辛巳

兄或近聞陰震之撰先師神道碑乎？有客於柳塾者見其文，而言於弟之所知曰“篇中以斥嘉金而辨師誣，爲良翁大事”云，未知信然？然作先師碑而不以辨師誣爲大事，則是猶作大禹碑而不以治水爲大事，作孟子碑而不以闢楊墨爲大事，其可乎？震文所叙，亦自得之。【年前弟與兄書，謂“先師辨誣爲平生大事”，則兄不以爲然。今以震文觀之，亦可見兄之不思也。】但既知先師辨師誣之爲大事，而乃自誣己師，以出認刊稿，至謂“禁認遺書爲偽造”，而不覺陷於大罪，更起訴禍，網打辨師誣爲大事之同門人者。此何心何見？絕

可怪也。朱子論王安石事，而曰：“天下有自然不易之公論。”蓋全齋、白山同一賢也，嘉誅、陰書同一誣也，害友、陷師同一罪也，則無乃天以渠筆明渠誣罪，使之自作公論也歟？雖然今且就其文言之爾。昔任動萬之欲用申某狀而圖得全翁謚也。先師禁之曰：“寧可無謚號，申狀不可用。”弟於今日事，亦敢曰：“寧可無神碑，震文不可用。”噫！士仁之昧義過於動萬，弟之爲人又非先師，則禁之而無其道，奈何？

與吳士益 辛巳

日前石里歸路，見安東金昇圭撰海平尹用求書恩津宋奎憲篆奉列大夫王子師傅柳公神道碑，而歸考國典官階，則奉列爲四品矣。弟曾於一邊人之以先師所作少尹崔公神道碑，謂“不合國典，二品以上乃得爲神道碑之式，而改之爲碣也”，據《朱子大全·韋齋行狀》“公贈官通議大夫正第四品，準格當立碑神道”之文及爲張南軒作神道碑事【韋齋之通議，猶得爲四品，南軒之不過郎署者，尤不須言。】以證之曰：“先師之師法朱子，有何不可乎？”彼乃曰：“此宋朝事，非我朝事。”則吾又引栗谷先生所撰鄙先祖承旨公神道碑及閔相國箕所撰通政申公神道碑以證之曰：“先師之師法栗翁，有何不可？閔公之爲一國冢宰，而豈不知國典乎？而不是我朝事乎？”既又彼此徧考國典諸書，而終不得見碑碣令式，則吾又曰“何許無嚴者不見國典明文，敢改先師手定本文乎？”而置不復道矣。彼猶曰：“二品始得爲大碑，數百年來國朝士大夫家無不皆然，何得先師獨爲崔氏事而違之乎？”然則今之金、尹、宋三家，或父爲大提學，身爲判書，直閣者，獨非國朝士大夫乎？而尙不知有國典而爲柳氏家作之書之乎？眞令人可笑。蓋以以上所列觀之，初不當以崔公碑事設論也，章章明矣。彼乃敢謂先師老不省博無識，破國典犯人罵，而

任改手本，是可謂心中有師乎？於是乎心愈悖而手轉滑，終至無所不至於晉州本，真令人可痛。偶見柳碑，念到于此，聊以奉質耳。

答吳士益 辛巳

碑論謹悉雅意，然宋朝與我朝似異之云，有我朝國典碑式然後可言耳。既不見定典，則從宋朝之朱子，有何不可乎？且我朝之有三品大碑，兄亦云然，而拘於彼之固執，意其更有明據，而訝惑不定者，何也？蓋我朝國典成書，太祖時有《元》，《續》二典，世宗時有《經濟六典》，世祖時有《經國大典》，成宗時有《續錄》，中宗時有《後續錄》，肅宗時有《集錄通考》，英宗時有《續大典》，正宗時合而為《大典通編》。考之《通編》而無碑碣表式，故彼亦不能以二品以上乃許大碑之文在於列聖何朝所定之典對告於前日者，此也。大抵吾之所痛，實在於彼之不見國典而敢改師稿；兄之所憂，乃在於體重大碑之不限官品，所謂人心不同者固如是乎？淺見以為以意理究論之，有德行事業多可紀者，乃得為大碑，官品高下不當與焉。其體重在此不在彼，何以故人爵之榮，不知天爵之尊也？如顏、曾之墓，以其不仕，不立大碑可乎？舍古論今，則如吾先師之德業，以非其二品而不得大碑可乎？雖然有國典定式，則從時王之制可矣；而若無有焉，則又何所拘乎？

與吳士益 戊子

似聞建院通文來到貴邊，未知欲與之同事否？孟子曰：“觀近臣，以其所為主；觀遠臣，以其所主。”是故士君子出仕，先觀薦主；與人同事，先觀主事者。今之主院事者誰？人人也血黨於誣師改稿而不足，又買取千古兇逆完用賊退碑，用作先師之墓碣，是可忍也，孰不可忍也？今雖以舉世公論，而不敢不罷，然彼刊年譜中“墓碣銘

成”之“碣”字，正指是石而言，則依舊是成事。且彼邊所證打破伊藤博文銅像鑄成安義士像者，自成一副當義理，則其罷之者非心服也。兄每謂此事專在於田，非柳所知，何厚於柳而薄於田也？世之千石之家守成祖業者，非明斷亦不能爾。彼之繼父祖能守成，顧何如也？以其詳審之性，雖尋常買賣，必不疎忽。況今於此事則重大，財則巨額也，豈有不探知何石而買之之理乎？『春秋』誅心，況跡已著乎？是以彼近人士，雖甚愛敬彼者，亦云此事則不免大失手，兄獨如此何也？隱惡雖甚好題目，然有意爲公，亦心術上大戒，而復事係大義者乎？惟兄深諒之。【完用退碑，倭亡後援去於其墓前者。】

與吳士益 庚寅

日前見喻，朴震鎬之印布先師與渠祖蒼岩書以實金容承所撰蒼岩行狀中“良翁有遜色”之語，聞極可痛。蓋先師之入島，惡見時變，若太師適齊以下諸人之避地，非以此自立大閑若范粲之車，文山之樓也。且是書也，想是詢及出島諸議之可否，以求“無適莫惟義比”之極致，非必欲其出島而問之也。爲先師門人者，只當毅然立論，誅其侮賢犯師之心而已，豈可趨門善辭，有若實有出島之心，實踰大德之閑？而但在君祖尊慕之地，豈敢如此之云？若權、柳之爲也，宜其得吾祖之尊慕良翁與否問於吾祖然後可知之譏於震鎬也。其貽累先師，孰甚於此？彼之所爲，每多如此，亦甚痛歎。兄既不能禁止，又與之同伴，此不思之甚也。

答族人平吾準喆 乙亥

奉讀來教，察其始終，則以爲“謂師有認意，不待辨而誣已明，故討章未出之前，已先言其當斥也。但以不知以公正之心持論不偏者爲誰，故不敢輕易左袒，而欲自重而不自欺也”。異哉，高明之裁

義也！《傳》曰：“見無禮於君親者，若鷹鷂之逐鳥雀。”夫師與君親一也。誣師以有意讐認，非無禮之比而已。高明早已知其當斥，而不先即討斥，既少鷹鷂之志矣。至於人之討之也，猶疑其心不公論有偏而不與之同事。試思之。管仲相齊君伐楚國，立尊周攘夷之功，孔子非不知其假借仁義而有“如其仁，如其仁，民到于今賴之”之贊。如使孔子爲當時列國之君，則豈可以齊之君相非公心之故不參於召陵尊周之同盟哉？天理人欲，同行異情。雖與之同事，彼自爲私，我自爲公，兩不相妨。蓋尊周攘夷，大義也；爲師辨誣，亦大義也。苟係大義，同爲王臣，同爲門弟之地，其不可計較於爾私我公之間而異之曰“我欲自重而不自欺也”，明矣。齊君見弑，三桓僭竊，若使討陳恒，墮三都之請，先出於他人有爲之私，則孔子以此而恐其不自重而自欺也，不與於討墮之役歟？然此猶是旁證借據。若乃孟子之闢邪說也，則至有望於人人之言距，豈以人人者皆有公正之心，不偏之論，亦豈不欲自重而不自欺也而望與之同事哉？尤翁之責朴和叔曰：“若必知言養氣如孟子而後，乃能攘斥異端，則是必士師然後乃治弑君之賊，人類幾何其不盡哉？”夫既不能知言養氣，則用心持論，安得盡出於公正不偏？然而尤翁請與之同事，豈不欲自重而不自欺也而然哉？澤堂李文靖公論東西人事，而曰：“沙溪學也，其餘黨也。”惜乎其過慮而不之圖也。噫！向者之役，出死力而竭盡心膂，遭大禍而幾殞性命者，孰有如鄙人？吾之是公是私是偏是正，恭俟今與後評定，而非吾之所可自明者。但以高明所論者律之，心不公正，持論偏仄，宜亦莫如鄙人。而以高明僅過古人同居之親，加以麗澤之有誼，盍簪之不疎，十餘年間，曾不聞一言之箴規。意者鄙人詖詖之聲，悻悻之面，有足以拒人者，而迷不自覺歟？此正內訟反求處也。鄙人則既未聞惠箴之及，并不見盛作此等文字，故只信彼此之同見，不曾揣度疑難，而向呈率直一書矣。以今觀之，其何免未見顏色之瞽者也？雖然，既發端矣，

請得以罄盡譬說而質之。震之誣師，賢雖不討，既謂當斥之罪，則不須更提。至於所謂“湖嶺互刊，同浴而譏裸”者，何也？夫印行文稿，而彼知而不禁，則自彼言之，雖曰默許，自我言之，當曰吾爲吾事。故雖以震之自是求勝習與成性者，猶謂天下安有不快默而快認許之乖常人情哉？今乃將此二者，比而同之，賢之人情，不亦乖乎？以先師之“決是自辱”爲小不忍，以不刊而藏之爲大不忍，則既非天理人心之所安。且刊行者獨傳，而藏之者不傳，則自『古文尚書』以下，皆不得傳至于今，豈有是理？又謂之“彼此互有功罪而不相掩”，則敢問震有何功，而湖有何罪也？謂刊稿爲震功，則改幻師文，賢亦云然；謂玄刊爲湖罪，則快默而不快認，震亦云然。其功其罪，安有不相掩者乎？辨誣而不以師累爲念，而涉於務勝，則僞也之喻正，如右所論心不公正者。雖然，人也能辨誣，則辨誣已矣。其心術隱微，固非他人之所易知。果使出於務勝之私，當決是非定邪正之日，只當據孔子“視其所以”，朱子“爲善者爲君子，爲惡者爲小人”之訓，以從違之矣。觀所由，察所安，而使人不敢度其情，自當別論於他日者也。大抵高明不甚痛迫於師誣，故持見如此，觀於不認做師冤而反恐辨之者爲師累，可見矣。楊墨之爲我兼愛，猶爲流弊之無君父；震泳之誣認改稿，卽爲無師於當日，其輕重又不啻相萬也。高明乃以擬比不類疑之，吾不知其何說也。敢問其徒所謂靜齋遺書，不敢指以爲有石農獨命，不敢指以爲無遺書，從天降從地出？可疑之大者。何憚爲女奴石書習等說，果是篤信遺書，而不以“料量爲之”，“不言之教”之云爲是者乎？

當人所謂“語欠區別，命辭疎忽”，果是非逃遁眩人之計而爲明白服誣之說乎？其徒之信誣，其魁之不服，固若是也。高明乃以爲“不自爲是如楊墨，無迷惑者衆如楊墨”，終之謂“不足取信，孰敢吹燼起火於他日乎？”吾則以爲未論他日，自是惑衆，燄燄燎原，其勢之可畏者，正在今日。日前慎軒書有云：“領黨數百人，湖黨數十人。

正使湖多而領少，五龍矯矯不能勝一羸豕之蹢躅，而況領多於湖十倍者乎？”而高明猶有“不必力辨如孟子之於楊墨”之說焉，又加以“既入從招”之譏焉。敢問“震及其黨既入其苙”者，指何而言？若有自服文字，何不錄而示之？如指“語欠區別，命辭疎忽”八字，爲入苙之證，則此治逃遁之計而非自服之說。不惟如吾言。當初高明之言其當斥，而謂討斥者有功，何也？此皆甚可疑也。竊聞高明此書，懶齋丈商訂修潤之，鍊心丈對家兒言平吾之書說得公平。然則吾知其用心公平者果非他人，持論不偏者亦非他書。而當此扶北僉座混同衆陰之秋，以此爲一方之定論，故凡此滿腹羣疑，枚舉仰質，欲以益聞公正之論。願與僉座同看共議，一一明教之，不宜槩以偏私之見而揮之也。書末喻以“夷狄之禍，迫在朝暮，不可爲同室之鬪”。然楊墨同是堯舜，黑水同尊孔孟，未始非同室也，而孟子，尤淹汲汲辨斥於戰國禍亂殺人盈野，清虜威嚇上下懷懷之日者，何也？正以欲絕外禍，宜先清內故也。外而夷狄之禍，所禍者身命也；內而斯文之禍，所禍者心術也。心身既有內外，則所當憂者，豈不有緩急乎？未知高明又以爲如何。

答權某 甲子

來書以陰陽矛盾朝變夕改之小人目我，猶以爲未足也，又以亂招之盜賊律我。蓋自生民以來，林林蔥蔥，無善惡可名而沒者何限？得小人盜賊之名，亦自不易，吾兄之賜一何厚也？雖然，名者，實之實也。若徒享其名，而不究其實，是猶食之而不知其味也。茲敢質之，欲知所以爲小人之實，幸有以卒教之也。夫我之絕金，吾爲吾事，何事立證？人不絕金，彼自失之，我何管他？但陰吳之勒我以黨金之罪，至以几筵勿入之說，加之作討誣黜祀之報，而不念自家前後忘師黨金之實罪，已甚無謂。而兄之於陰，是腹心忠諒者。

故引兄書“喜豁洒然”，陰書“鍾賢得之”之語，證吾絕金之有書；又舉知其年前呼漢農老心中久無先師，而許金不復討，勉金安靜改過，證陰前後之黨金。此兩造對辨之不得已者，乃承以孤行單辭賣兄而不察遺辭斟酌之意，及排閑直入，逢承盍簪，討祭文爲陰陽變改。又以不察陰書“若後侵師，吾并以千人討之”之語，而敢構以不絕金爲心病亂招。反覆思之，參互求之，深怪。夫兄之折獄奏當，亦自一般差異也。夫孤行單辭之爲罪，則通舉全篇之心不爲罪。兄之此書，通讀全篇，不惟“喜豁灑然”等語之不見有斟酌意，至於“歷數其罪”等語，有非盡鄙意者。今反以賣兄爲絕金之證見罪，反顧于中，能無愧負乎？且直入則是然，而排閑則非其實也。“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有何退待自沮之爲乎？初無有拒閑者，則又何有排閑之理乎？使此漢而有實罪也，則陰邊諸人踢蹴背後而逐之，如兄之於容承者，必有其人，乃被鄙辨一破而噤不得措一辭者，何也？且弟既已絕金矣，逢金而見祭文，乃在當日風波之後，兄何以預知逢金見文之罪，與陰邊人定不當入靈之罰也？其亦所謂至誠前知之道歟？且彼千里赴祥操文謝罪者，只當責其擅入，更爲之觀其文而進退之，未晚也。兄輩之拳踢，先動於靈前者，何也？兄之前書，不曰金庠之謝罪講里儻喜聞乎？謝罪乎講里則喜聞之，謝罪乎先師，則不惟不喜聞，乃先直踢之，其真重陰而輕師也。弟於當日之事，晚始來見，然有見於此義也，故既責金以率爾直入先失其道，又責以不聽吾言，自陷大罪，乃令閱其文于衆中。宋春溪文曰：“文中斥老洲不服，是爲欠事。”弟亦審視，春言良是。翌日，又聞其終不改師友之說，故知其末如之何，而斷置之矣。以此而見罪，則不敢辭矣。然通語則有矣，盍簪則未也，見祭文則是矣，討祭文則非也。兄乃略將數三字頓換本面目，有心哉？兄之陷人也。且在湖中，則有言性善【容承舊字云。此中人并與容承舊字而不知。】來訪，吾有酒則當飲之，有飯則當食之者【鄭敦永對慎軒云然。】；有

言性善之向到講里，吾往見之者【朴昌鉉對弟言，如此時鄭敦永，吳海謙在座。】；有作別容承丁寧託以訪我者，【李光珪於華島江邊別容承有此言，金言其於黨金何，李言君勿出別言。弟及數十人所共見聞者。】非惟不問其罪，反與之爾我相眷戀。在湖南，則容承之風影乍過，重罰輒加，嚴討并隨，亦一可異也。噫，吾其知之矣。使金初不發封陰誣師之章，必不聲其倍師罪矣。再不發討陰言於赴祥之初，必不遭拳踢之加矣。使湖南人初無認意教之責陰，黨金之報非所及也。再無黜陰於祥祀之日，黨金之罰必不到也。天上天下，惟一陰獨尊，不知世間復有我六陽先生，嗚呼痛哉！蓋陰陽變改，心病亂招，兄之所以名我者，雖極感大筆不朽之惠，自念拙拙碌碌，竟不識所以然而冒受之，有非實心，且弟之右陳何也？可異之。羣疑既不可解，則八字美名欲奉納於兄與陰吳，然想不欲既與而還取。然則天下終無定名乎？各自反求於心術言行之間，則可知斯名之當否矣。火熱冰寒日甚，一日水落石出，漠無定期，亦何可易也？只當俟彼此蓋棺之日，百世論定之時而已。

嶺刊之敗，爲賂怒碑憾耶？爲湖之有不認耶？賂怒碑憾之若無乎，雖有不認地，將如不聞也者，而惟認是謹者必嶺也。嶺之義理，固如是矣。吾雖無似，舍湖不認而同事於嶺，天必厭之。

上犯先師，此何謂也？鄙書所謂“曾謂先師少不念此而命遲速間爲之乎”者，明先師之必無是事也。天下之文同也，以此爲犯上語，則人誰信諸？令人失笑。

與吳某 甲子六月

澤述乃貴邊所目湖黨者，固知爲執事之斥絕久矣。區區之衷，有不能自己者，敢此冒達，幸裁鑑焉。夫認意，認教之說，昨秋以來，諸長老之累書連牘，既已懇至，以執事之明，將見非久之悔改而無待

乎少者之僂言。至於當討當絕之議起也，則又曰 且止且待，以到悔改之日可也。故九晦金容承之製通入京也，勸之以委訪懇告，不悛而後發，至月金志山父子之書勸告絕也，遲俟不答，以致幽明之缺，觀此庶可諒此心矣。然迨將歲周，執事自服之報，寂然無聞，先師之疑謗，騰天而溢地，自覺效忠不早之爲失誠，緩於尊師之爲罪大也。今茲討議之峻發也，執事之以書見意者，不過曰“語欠區別”，曰“無明智遠慮”，是可謂昭洗疑謗乎？是可謂痛自謝服乎？於是乎雖如澤述之蒙駭者，不得不趨與衆議之列，而猶不敢者，以祥會在近，尙可一面質也。但有故相違，紛囂未穩，有不可知，故敢以書先之于執事者。

答吳某 甲子七月○聲討前

承來覆，曲折雖多，總其大者，不過曰靜齋之自擔認刊，甕書之越法嫁禍，辨討之出於傷貧，賂碑，競爭，終而歸鄙等於變怪之舉，舞文之奸。嗚呼其然？豈其然乎？請得以略質之。嘗見執事癸亥八月答靜齋書矣，不曰代認昨秋收議時，兄亦不隨衆許之乎？隨許之於自擔，倡從，決勉之相懸，不可同年，尺童亦知。今焉癸八之隨許，忽爲甲六之自擔，此靜齋擔防之說，使人見信難矣。執事對靜齋而言“先師曾有認意”，答子乘而曰：“先師教不必深拘。”既無適而非誣師矣。若以杏下之說論之，方涵丈討認之日，執事倡造獨承“世不可知，自量爲之”之命，立先師認教之證者。卽此是罪，此語同門誰某倡造，皆可罪之，不必待代草也。況執事是高足矣，主事矣，且代草矣，亦自言獨聞矣，欲誰與分罪而抵死支撐乎？此越法嫁禍之無所當也。靜齋之是夷是蹠，自有天定身分，非吾與執事之所得以強名也。但措大刊所非生金之藪，則若掌紋視者，靜齋雖貧，亦非天癡，豈不知此而欲移刊脫貧乎？然則“傷貧一也”之解，難免爲陷人

之筆也。謂敬存納賂而得文，則其受賂而作文者誰也？乃以此降碑爲碣，以成先師千古之累，是其敢爲者乎？執事之降碣，雖云在典不在賂，賂降之說既發，雖實違典，失勘小賂累大，宜其有所處之得當。未見國典而擅改先師之文，亦其敢爲者乎？然則賂碑之憾，非獨敬存，同門之所同也，何也？憾其累師輕師也。且競爭有兩般：血氣競爭不可有，義理競爭不可無。謂辨師誣之非義也，執事之誣非真也，則已終無奈。師道所存，君父一體，天鑑孔昭，有罪莫逃，則鄙等之競爭，安可已也？然則其所爭者乃義也，執事乃謂之習，何其乖也？噫！誣師者非變怪，而辨誣者變怪歟？矯辭飾非者非舞文，而正言討罪者爲舞文歟？千世在後，必有能辨之者。嗚呼！不直則不見，故盡言至此。然若得執事幡然悔服，則便沒事。差過祥會，雖云晚矣，卽今追改，不害爲善。後諒此心告而見裁焉。

金容承非執事舊要乎？胡爲乎知其呼漢農老，心無先師之罪，【執事答宋瑩叔書曰：“此人年前呼漢農老。”權顧卿對澤述言曰：“此人心無先師久矣。”吾曰：“何以知之？”權曰：“聞諸石農而知之。”】而多年掩護敬信，至於聘校師稿，【執事答金容承書曰：“書請校稿，又致有司帖。”】及討執事之誣師後發之乎？使金而不討誣，必與近日倍師而不問，如前日之掩漢農老，無先師也。然則今日執事之討金，是真正爲師歟？抑爲己歟？在前則黨金而忘師，在今則憑師而爲己者，不其然乎？澤述之於容承，則新交也，其前日漢農老，無先師，固有不可得而知者。但見今日却祭辨誣之義之可敬，而與之遊從，忽見其語逼先師，喻之使改，五日而不從，然後書示以不改必絕而相分矣。雖以執事之憎此漢，亦曰鍾賢之事得之，【執事答權顧卿書中語】胡爲乎大祥之日，援此漢爲黨金而謂不當入靈，作黜祀執事之對舉乎？請下一轉語。

答吳某 代扶安諸丈作○ 甲子

所謂認意，諸公不親聞吾口語，不親見吾手筆。

既親見座下答人書“先師獨命震泳自量爲之”及“先師嘗教小子不必深拘”之手筆，此非先師曾有認教之謂乎？以有“先師曾有認教”之手筆也，故知座下對靜齋實有“先師曾有認意”之口語，而與親聞同也。

國人之罪吾者，諸公固功也。國人之疑先師者，諸公非罪耶？是則諸公之誣師，非吾之誣師。

國人之罪座下者疑先師者，既是兩對，則是知罪座下者必其不疑先師者也；疑先師者必其不以座下爲誣者也。座下之與先師，其勢不兩立，則已較然矣。先師之決無忘義壞節之意與教，實天鑑而神質，座下雖欲免誣師之罪，得乎？近又奉讀先師辛亥遺書曰：“若請願於彼，爲刊布之計者，決是自辱，慎勿勉從。”其辭義嚴正也如此，尙敢復謂“料量”，“不拘”等說及庚申遺書“未知其必謂此事”者，非誣師乎？天日在上，可畏可畏。

牛金之斥老洲【止】俯首恭聽。

金容承事，實座下使之也。座下分明言先師曾有認意，認教，而討之而不見服，則彼以從師未久者，反生疑惑，其心必曰：“彼吳某親炙數十年，至以後事自擔者，乃敢如此，則無乃先師實有此意此教歟？”是則金之倍師，非座下使之而何？此近諸友有書以絕金者，有言以討金者，至於金不謝罪，自退歸家，正所謂風馬牛不相及也。

乃不念使金倍師之罪，而勒人以“俯首恭聽”者，絕非常情所出也。

況今致討牛金之後，從又對舉而報復之，是直黨牛金，非眞辨先師也。昨秋金洛斗諸人聯書，李起煥單書，今春起煥再書，以辨討座下之罪者，亦皆在討金之後耶？座下年未六旬，昏耄不記歲月之此甚耶？然以來書中“經歲迭起，勘上加勘”之語觀之，非昏也乃險也。

曰“加勘”，則是既討之矣；曰“經歲”，則是既在昔矣。此非在討金前之明證耶？急於構人，而不覺上下之矛盾，肝肺之綻露，要其歸則亦昏而已也。“此人年前呼漢農老”，“此人心無先師久矣”者，非座下數金罪語乎？果爾，則金之爲斥賢倍師之罪人也久矣，乃隱護敬信多年無替，以至莫重師稿之校役也，望定有司而聘之，至於金討座下誣師之罪，然後一朝而發之，使其不討座下，將終其身好之矣。乃知今日座下之討金者，非爲倍師也，實爲倍己也。由前則爲黨金忘師之罪，由今則爲重己輕師之罪也。且見座下所錄云“金來訪而曰‘君雖絕我，我不絕君’”，其謝過於座下，則可謂至矣。然終是“以師友間處良翁”云，則其倍師之罪依舊在也。座下既許其不復討，又勉其“勿狂走京鄉，安靜改過”。然則金無一罪，而但有狂走之過也。此喜其謝己而與之而容其倍師之罪也。使其不謝己，又將不容其倍師矣。又豈非重己輕師，黨金忘師之罪乎？

黨金之實在座下，而反歸之鄙等，又非常情所出也。

《五粹》說，諸公認爲“不仁不義，倒極害物”而討之，是吾不識分數一例篤信師說之罪。

既曰：“仁不獨仁，義不獨義，天地生物，聖人立極。”又曰：“不仁不義，倒極害物。”此皆座下自唱自和，不憚以先師侮弄籠絡之具，此其罪也。鄙等但曰“五粹說，曾不見文字者，則不可據以爲訓。且五粹之古書昔刊，與文稿之今書新刊，義例不同，不可爲證也。”

料量等語，勿問吾誣不誣，書則崔書也，乃黨崔而罪吾，果得斷獄正法耶？

所謂獨坐時承命云者，是座下之獨自撰造，而崔成不與焉，故獨爲誣師之罪也。

“誰家日月照臨，勿罵倭朔”云云，自有今與後之鉞誅，不須論。

與吳某 代承旨公派諸族人作 ○ 甲子

竊見座下答金進士容承書，有曰：“《栗谷集》有贈承旨金公墓碣，《全書》不知何爲大碑，而本孫近世改碣豎碑，復以請碣於先師。先師謂其碑未安而不許之。柳永善侍側，詳知其事云云。”都承旨金公，卽鄙等之先祖也。座下與金庠，俱無關於鄙家祖先，其往復源委之何以及此，雖未可知，座下彈碑之文，飛滿八域，聞見所及，豈非後昆之慨痛一言之質出於不得已者？幸座下察焉。夫“爰樹神道碑”一句，既著於鄙先碑原文，原文者出於撰人之手筆，而非題目之容有後人翻改者比也。懸知『栗谷全書』所載鄙先神道碑，乃栗谷先生之手定鐵案也。座下所據『栗谷集』，未知指何本。然『陶庵全書』凡例，既曰“尤庵俱病於前後集，以不能釐正爲恨”云，則其於『全書』之改正也，安得舍栗翁手筆而取尤翁之所病也？本孫亦安得以違栗谷手筆，尤庵遺意，陶庵手正也耶？尊先師之以神碑未安而不許碣者，座下之言尤屬無據。鄙門長老之再三請墓表也，尊先師未嘗有一毫未安神碑之意，至於崔烟村兄弟之碑，又前後不疑而作之云。若謂守典於鄙家而破典於崔門，隱諱於本孫而私語於門人，決知君子言行一致，表裏交正之學不如此。故向以書問于柳友，則果以“未安不許四字，今始創聞”見答。此座下急於自立己見，而不覺造言而誣師也。鄙等曾聞座下以誣尊先師以認意，認教，大不容於公議。然私竊以爲“某也亦人，豈至於是？是必苛責也”，而今以後始知其信然矣。蓋栗谷之親書神道碑也，而座下則視之如無；尤庵之所病也，而座下則曰本集可據；陶庵之所釐正也，而座下則曰不知何爲。鄙等以爲座下非但誣尊先師，上而誣栗，尤，陶三先生也。鄙等以有關先事，不避觸犯，畢陳至此，幸明白回示也。

역자

황갑연 :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순철 :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병섭 : 성균관대 유학과 강사

정 훈 : 군산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강사

유지웅 : 전북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공정권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

남성우 : 고전문화연구회 상임번역위원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⑤

후창집 後滄集 1 下

인쇄 2021년 1월 10일

발행 2021년 1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김택술

역자 황갑연, 박순철, 정병섭, 정훈, 유지웅, 공정권, 남성우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8-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